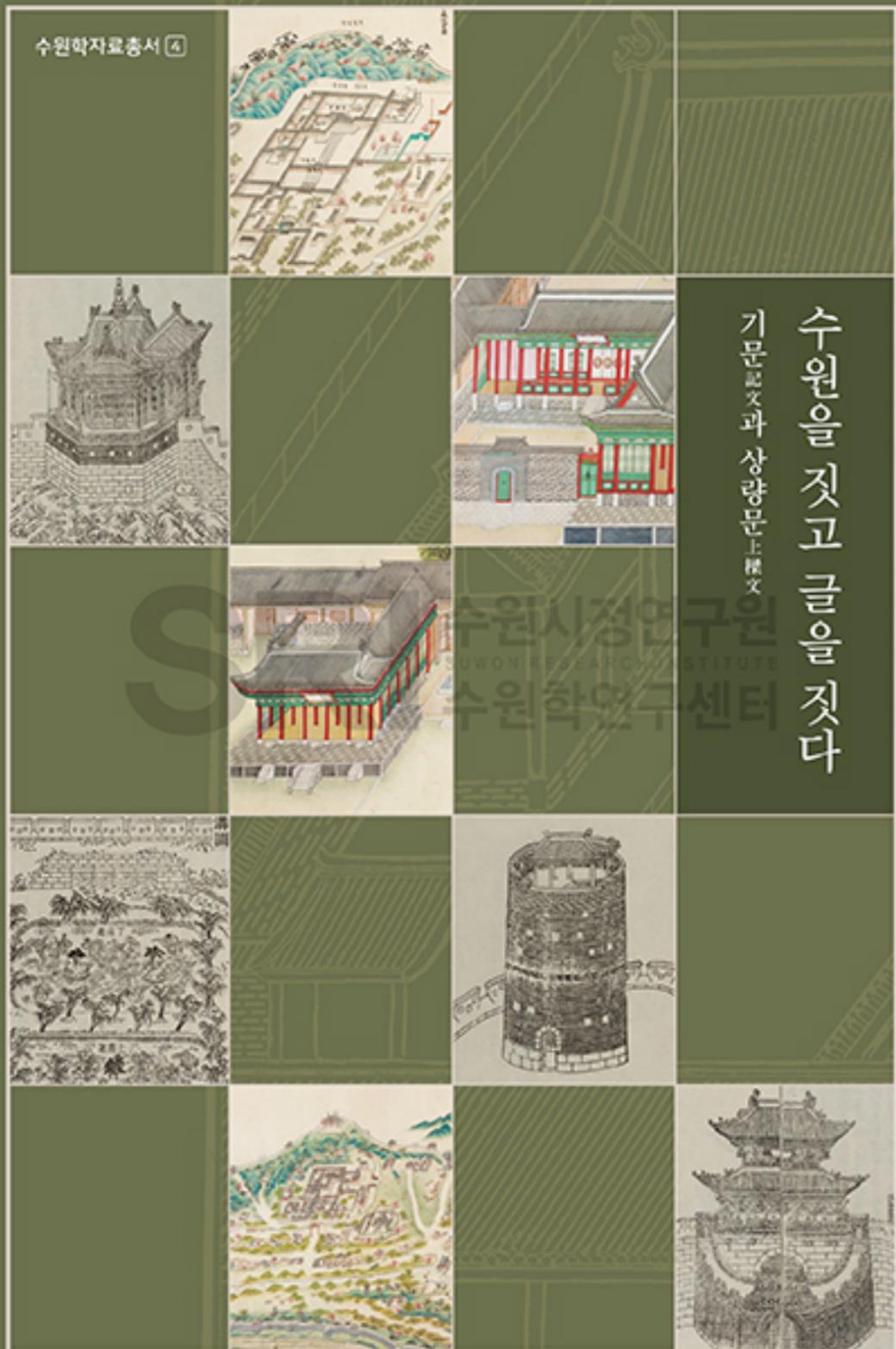


수원을 짓고 글을 짓다
기문記文과 상량문上樑文

수원 지역 건물들을 소재로 한 상량문 중 다수는 화성 관련 건물에 붙여진 작품들이라는 점이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정조는 화성 및 행궁을 조성하면서 당시의 중신들에게 상량문을 짓도록 명령하여 수많은 문인들이 관련 상량문 자료를 많이 남겼다. 그들은 모두가 정조시대의 문화를 대표하는 작가들로서 그들이 남긴 작품은 그 자체 문화성의 측면에서도 연구의 가치가 매우 높다.



수원을 짓고 글을 짓다
기문記文과 상량문上樑文



수원을 짓고 글을 짓다
기문記文과 상량문上樑文

수원을 짓고 글을 짓는다
기문記文과 상량문上樑文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수원水原의 기문記文

- 14 수원부 객사 연못가 정자에 대한 기문 水原府客舍池亭記
- 18 수원부 동쪽 누각에 대한 기문 水原府東樓記
- 22 무추정에 대한 짧은 기문 無錐亭小記
- 25 오도나루를 건너는 기문 渡梧島津記
- 29 「화성행행도」에 대한 기문 華城幸行圖記
- 101 화성에 대한 기문 華城記
- 150 임금을 모시고 화성에 다녀온 기문 扈駕華城記
- 158 수원의 새로운 누대에서 잔치를 벌인 데 대한 기문 水原新樓宴集記
- 167 수원 만의사에서 임금께 축원을 올리는 화엄법회를 연 일에 대한 기문 水原萬義寺祝上華嚴法華會衆日記
- 173 진남루에 대한 기문 鎮南樓記
- 179 진남루를 중수한 일에 대한 기문 鎮南樓重修記
- 182 독성을 중수한 일에 대한 기문 禿城重修記

- 186 건륭을 찾아뵈는 일에 대한 기문 健陵展謁記
- 190 함포고북격양실에 대한 기문 舍嘯鼓腹擊壤室記
- 199 천풍해도정에 대한 기문 天風海濤亭記
- 203 명륜당을 중수한 일에 대한 기문 明倫堂重修記
- 211 낙남헌에서 임금께서 활쏘기를 하신 일에 대한 기문 洛南軒御射記
- 215 화청관에 대한 기문 華淸館記
- 221 명고서원을 중수한 일에 대한 기문 明臯書院重修記
- 228 향미정에 대한 기문 杭眉亭記
- 232 향미정을 중수한 일에 대한 기문 杭眉亭重修記
- 235 향미정을 중수한 기문 重修杭眉亭記
- 240 향미정을 중건한 일에 대한 기문 杭眉亭重建記
- 244 화홍문을 중수한 일에 대한 기문 華虹門重修記





수원水原의 상량문上樑文

250 장안문 상량문 長安門上樑文

259 팔달문 상량문 八達門上樑文

266 창룡문 상량문 蒼龍門上樑文

274 화서문 상량문 華西門上樑文

285 화홍문 상량문 華虹門上樑文

292 화성 팔달산 장대 상량문 華城八達山將臺上樑文

300 화성 동장대 상량문 華城東將臺上樑文

310 화양루 상량문 華陽樓上樑文

316 방화수류정 상량문 訪花隨柳亭上樑文

322 각건대 상량문 角巾臺上樑文

329 성신사 상량문 城神祠上樑文

336 봉수당 상량문 奉壽堂上樑文

342 장락당 상량문 長樂堂上樑文

351 경룡관 상량문 景龍觀上樑文

358 낙남헌 상량문 洛南軒上樑文

365 노래당 상량문 老來堂上樑文

372 신평루 상량문 新豐樓上樑文

378 강무당 상량문 講武堂上樑文

385 영화관 상량문 迎華館上樑文

392 공극루 상량문 拱極樓上樑文

398 화령전 상량문 華寧殿上樑文

405 현릉원 정자각 상량문 顯隆園丁字閣上樑文

411 화산 용주사 상량문 花山龍珠寺上樑文



남양南陽의 기문記文과 상량문上樑文

422 남양현학의 명륜당에 대한 기문 南陽縣學明倫堂記

428 남양부 청서루에 대한 기문 南陽府淸暑樓記

433 남양현 충무문정사에 대한 기문 南陽縣忠武文定祠記

440 용백사를 중수한 일에 대한 기문 龍柏祠重修記

443 남양 향교 명륜당 상량문 南陽鄉校明倫堂上樑文



서문

수원水原은 오랜 인문 전통을 지닌 유서 깊은 지역이다. 일찍부터 수많은 문·무과 합격자를 비롯하여 다양한 인물들을 배출해 왔을 뿐만 아니라, 경기 감영이 이곳에 위치하여 오랜 기간 경기도京畿道의 중심지로서 기능해 왔다. 특히 조선 정조正祖가 1789년(정조 13)에 자신의 아버지 사도세자思悼世子的 무덤인 현릉원顯隆園을 이곳으로 이장한 뒤 화성華城을 건축하면서 수원 지역은 조선 후기의 사회, 문화적 중심지로 부상하게 된다. 그에 따라 수원 지역은 많은 문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관련 시문詩文 자료가 매우 풍성하게 남아 오늘까지 전해 오고 있다.

수원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온당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문헌 자료의 수집과 정리, 번역 작업이 토대가 되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련 자료들이 한문이라는 언어의 벽에 가로막혀 그 가치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읍지邑誌를 비롯하여 정조의 화성과 관련된 주요 자료들은 어느 정도 번역이 이루어져 있기는 하나, 각종 개인 문

집류에 수록되어 있는 시문 자료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있어서 연구자들의 관심이 절실하다.

본서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원 문화권을 대상으로 한 기문과 상량문 작품을 수집하고 번역하여 연구자 및 일반 독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수원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고자 하였다.

기문은 사실의 기록과 그에 대한 해석이 결합된 문체로서, 주로 누정樓亭이나 관서官署 등 실제로 지어진 건물을 대상으로 창작된다. 사실의 기록 부분에서는 해당 건물의 내력이 비교적 상세히 서술되며, 그에 대한 해석 부분에서는 해당 건물이 지니는 역사 문화적 의미에서부터 때로는 깊이 있는 철학적 사고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내용들이 담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근대 시대에 수원 지역에 조성된 건축물의 역사를 이해하고 누정 문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수원 지역 기문의 자료적 특징으로는 아래의 세 가지를 거론할 수 있다.

첫째, 화성 관련 기문들이 다수 현전한다는 점이다. 이는 수원 지역 관련 기문 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부분으로, 다수의 작가가 관련 기문을 남겼지만 그중에서도 조선 후기의 문인인 관암冠巖 홍경모洪敬謨(1774-1851)가 남긴 일련의 화성 관련 작품들이 그 양이나 내용 두 방면에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어 주목된다. 홍경모는 정조 때 중용되었던 중신重臣으로 대사헌과 관서, 판돈녕부사 등의 요직을 역임하였고, 정조의 화성 축성과 능행陵幸 등에 깊이 관여하였던 인물이다. 그는 화성의 규모와 각종 건물들에 대해 매우 소상히 정리한 「화성기華城記」를 비롯하여 정조의 능행을

수행한 경험을 기록한 「호가화성기扈駕華城記」, 화성 능행을 그림으로 기록한 8폭 병풍인 「화성능행도華城幸行圖」를 소상히 해설한 「화성행행도기華城幸行圖記」 등 다양한 관련 기문 작품들을 남긴 작가이다. 이중에서도 「화성기」와 「화성능행도기」는 1만여 자를 초과하는 장편長篇으로, 화성의 축성과 규모, 그 제도 등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서 화성에 대한 이해에 상당한 도움을 주는 자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문가가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존재 자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본서 출간을 계기로 정조와 화성에 대한 이해가 한층 더 진전되리라 기대된다.

둘째, 현전 문집 자료들을 조사해 보면, 지금은 존재하지 않으나 과거에 존재했던 건물들을 대상으로 지어진 기문들이 상당수 남아 있어서 수원 지역 누정 문화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수원 문화권에 속하는 지역인 남양南陽에는 과거에 청서루淸暑樓라고 하는 누정이 있었음이 『남양읍지南陽邑誌』를 통해 확인되는데, 이미 허물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없고 1542년에 부사府使인 이우李瑀(생몰년 미상)가 건립하였고 홍섬洪暹(1504-1585)이 기문을 지었다는 사실 정도만 제시되어 있을 뿐, 기문 본문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런데 해당 기문은 홍섬의 문집인 『인재집忍齋集』 권4에 수록되어 있어서 청서루에 대한 자세한 내력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본서는 이렇게 실전된 건물에 대한 기문을 수집하여 완벽함으로써 수원 지역 누정 문화의 실상을 보다 온전히 파악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하였다.

셋째, 현전 건물에 붙여진 기문들 중에는 다른 문헌에 소개되지 못했던 까닭에 그 존재가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존재한다. 이를테면 수원 소

재 정자인 향미정杭眉亭은 박기수가 처음 건립한 이래로 여러 차례의 중수를 거쳤는데, 이와 관련한 다수의 기문 자료들이 『수원읍지』에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수원읍지』에는 이 누정을 처음 중수하였던 이유원李裕元(1814-1888)의 관련 기록은 누락되어 있는데, 이유원의 문집 『가오고략嘉梧藁略』에는 그의 중수기가 수록되어 있어서 최초의 중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렇게 현전하는 건물에 붙였으나 기존에 알려진 문헌에서 누락된 작품들을 발굴하여 번역된다면 해당 누정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수원 지역의 문화적 풍성함이 한층 더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상량문은 건물의 종도리를 올리는 상량제上樑祭 때 사용되는 축문祝文으로, 이미 중국의 육조시대六朝時代 때부터 창작되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문체이다. 기본적으로 변려체駢儷體의 산문으로 된 본문 다음에 운문체韻文體로 된 여섯 수부의 글이 이어지는데, 그 내용은 동, 서, 남, 북, 상, 하 여섯 방위로 제물인 떡을 던지면서 신에게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이 작품들은 모두 “아랑위포량~兒郎偉拋樑~(아이야 떡을 ~ 쪽으로 던져라)”이라는 투식어구로 시작되기 때문에 상량문을 다른 말로 ‘육위문六偉文’이라고도 한다.

상량문도 누정기와 마찬가지로 실제 지어진 건물을 대상으로 창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근대 시대에 수원 지역에 지어졌던 건물의 존재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상량문에는 해당 건물에 대한 당대인들의 소망이 담겨 있어서 건물에 대한 전근대인들의 사상과 감정을 이해하는 데도 매우 요긴한 자료이다.

기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원 지역 건물들을 소재로 한 상량문 중 다

수는 화성 관련 건물에 붙여진 작품들이라는 점이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정조는 화성 및 행궁을 조성하면서 당시의 중신들에게 상량문을 짓도록 명령하여 수많은 문인들이 관련 상량문 자료를 많이 남겼다. 그들은 모두가 정조시대의 문화를 대표하는 작가들로서 그들이 남긴 작품은 그 자체 문학성의 측면에서도 연구의 가치가 매우 높다.

그런데 상량문은 변려체로 지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격식이어서 번역이 까다롭고, 다양한 전고의 활용으로 자칫하면 일반 독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번역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본서에서는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가능한 한 평이한 문체와 단어를 사용하였으며, 상세한 주석을 통해 조선시대 사회와 문화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해당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화성 관련 상량문은 기존에 번역이 이루어진 자료들이 다수 있는데, 본서에서는 기존 번역의 성과를 충분히 참조하되 이를 점검하여 힘 닿는 대로 수정 및 보완을 하였다.

한편, 화성 이외의 건물에 지어진 상량문 자료들도 그 분량이 상당하여 번역 및 고찰의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이만수李晩秀(1752~1820)가 수원 화령전華寧殿에 붙인 상량문, 이복원李福源(1719~1792)이 현릉원의 정자각丁字閣에 붙인 상량문 등 다양한 작품들이 원문은 존재하나 아직 번역되지 못하여 일반 대중에 알려져 있지 못하다. 본서는 이러한 작품들을 발굴하여 번역함으로써 수원 지역 누정 문화의 실상을 이해하고, 건물과 관련된 당대인들의 사상, 문화를 살펴보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여러 해 동안 수원 문화권에서 살아오면서, 고전 연구자로서 내가 지역 사회를 위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마음 한켠에 간직해 왔다. 그러던 차에 수원시정연구원에서 매년 수원학 관련 학술 연구를 지원

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9년에 「수원 관련 한문산문의 수집·번역 연구: 기문과 상량문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연구 계획이 채택되어 풍성한 지원을 받으면서 본서의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니 이 책은 수원시정연구원의 관심과 지원이 없었다면 시도조차 되지 못했을 것이다. 연구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여러 모로 애써 주시고 이 원고가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분들께 감사드린다.



2020년 12월 세밑에

김 광 년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수원水原의 기문記文

수원부 객사 연못가 정자에 대한 기문

水原府客舍池亭記



이색李穡(1328-1396), 『목은문고牧隱文集』 권4

| 翻譯

연못가의 누대樓臺와 언덕 위의 정자는 유람遊覽의 장소이니, 세도世道와 무슨 상관이 있을 것인가. 그러나 나라가 다스려지고 혼란해진 차취와 고을이 흥성하고 몰락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체로 조정이 맑고 밝아 윗사람 아랫사람이 즐겁고 편안하게² 된다면 관리들은 그들의 직분을 즐거워하고 백성들은 그들의 삶을 편안히 여기게 되니, 연못가의 누대와 언덕 위의 정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태평성대太平聖代의 장관壯觀을 형용할 것인가. 법령이 가혹하고 흉포하며 세금 거두는 것이 번거롭고 무겁다면 백성들은 들판에서 탄식하고 관리들은 관청에서 곤란하게 될 것이니 비록 연못가 누대와 언덕 위의 정자가 있더라도 어찌 홀로 즐길 수 있겠는가.³ 그러니 수원부에 새로 정자를 지움에 기문記文이 없을 수 없겠는가.

- 1 세도 :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도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세상의 도리라는 의미도 있으나 여기에서는 통치자의 입장을 강조하는 맥락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2 즐겁고 편안하게 : 원문은 '豫安'으로, '豫'는 '미리'라는 일상적 의미 외에도 '즐거다'라는 의미가 있어 여기에서는 그 의미로 사용되었다.
- 3 비록 …… 있겠는가 : 『孟子』 「梁惠王 上」편에서 "백성들이 임금과 함께 망하기를 바란다면, 비록 대와 연못과 새와 짐승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찌 혼자 즐길 수 있겠습니까!(民欲與之偕亡, 雖有臺池鳥獸, 豈能獨樂哉!)"라고 한 구절을 활용한 표현이다.

부府의 동북쪽 모퉁이에 옛날 연못이 있었는데 황폐하게 버려진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 전성안全成安⁴ 군이 수령守領이 되었을 때 개연慨然히 부흥시키고 복원하려는 의지가 있어서 이에 연못을 준설하여 깊게 하고 그 안에 섬을 만들어 새로운 정자를 건축하였는데,⁵ 비용은 수원부에서 나오지 않았고 공사는 백성에게 미치지 않았다. 정자가 완성되자 고을 사람들이 보고서는 서로 쳐다보며 깜짝 놀라 생각하기를,

'어떻게 이리도 쉽게 완성하셨는가? 반드시 기이한 무언가가 와서 도와주었을 것이다. 어떻게 우리에게 일을 시키지 않고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하였으니, 아아, 전 군은 백성을 부릴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마침 전 군이 내직內職⁶으로 옮겨가게 되고, 비서소감秘書少監⁷ 안군安君⁸이 양광도楊廣道⁹ 안렴사按廉使로 나오게 되었는데,¹⁰ 안 군은 전 군이 정치를 잘한 것을 가상히 여겨 나에게 편지를 보내어 말하기를,

- 4 全成安 : 생몰년 미상. 고려 말의 문신으로 忠穆王 연간(1344~1348)에 생존하였으며 수원부사를 지냈다는 사실 외에는 자세한 사적이 전하지 않는 인물이다.
- 5 건축하였는데 : 원문은 '翼'으로, '날개'라는 뜻에서 파생되어 '건축물의 날아갈 듯한 처마를 지칭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날아갈 듯한 처마를 가진 정자를 '건축하였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6 내직 : 궁 안 또는 서울에서 근무하는 일을 가리킨다. 지방관으로 근무하는 것은 이와 반대로 外職이라 부른다.
- 7 비서 소감 : 고려시대에 秘書省(忠烈王 때 秘書監으로 고침)에 속해 있던 종4품 벼슬이다. 비서성은 經籍과 祝文 작성 등의 일을 맡아 보던 관청이다.
- 8 안 군 : 이색과 같은 해에 進士科에 급제했던 安宗源(1325~1394)을 가리킨다. 그의 본관은 順興이고 자는 嗣淸, 호는 雙淸堂이다. 고려 말의 저명한 학자인 謹齋 安軸(1282~1348)의 막내아들로 태어나 1341년(충혜왕 2)에 과거에 급제하여 門下贊成事 등을 역임하고 興寧府院君에 봉해졌다. 시호는 文簡이다.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權近의 「有明朝鮮國諡文簡公安公墓碑銘 并序」(『東文選』 권120 및 『陽村先生文集』 권38)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 9 楊廣道 : 고려 때 지방행정구역인 5도의 하나로, 楊州와 廣州에서 비롯된 명칭이다. 현재의 경기 남부 및 강원도 일부, 충청도 지역에 해당한다.
- 10 비서 …… 되었는데 : 권근의 안종원 묘갈명의 기록에 따르면 안종원은 37세 때인 1361년(공민왕 10) 가을에 양광도 안렴사로 부임하였다. 이때 이색이 그를 위해 送序를 지어 준 바 있다.(이색, 「送楊廣道按廉使安侍御詩序」, 『牧隱文集』 권8 참조)

“전씨¹¹의 발자취가 사라지지 않고 후세에 전해지게 하는 방법은 오직 문장에 달려 있으니, 그대는 사양하지 말지어다.”¹¹

하였다.

내가 생각하기에, 수원은 안찰부¹²가 다스리는 곳으로 여러 고을을 단속하니 이 때문에 한 도¹²의 모든 것들이 집중되는 곳이다. 그러나 그 흥망성쇠 또한 지역에서 가장 빠르다. 지금 전 군의 위엄과 은혜가 아울러 이르고 안무¹²하여 모음이 마땅함을 얻었으며, 또한 백성들을 번거롭게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국가의 태평한 아름다움을 잘 넓혔다. 안 군의 직책은 백성의 풍속을 살피는 일이어서 다른 사람의 선함을 즐겨 말하니 모두 기록할 만한 일들이다. 훗날 내가 공을 이루고 물러남에 이 고을을 지나다가 만약 연꽃이 피는 때를 만나게 된다면 반드시 수레를 멈추고 누정에 올라 나의 이 기문을 읽은 후에 떠나가리라.

| 原文

池臺坡榭，遊翫之所也，於世道何與焉？然國家理亂之迹，州縣興廢之由，於是乎在。蓋朝廷清明，上下豫安，則吏樂其職，民安其生，非有池臺坡榭，何以形容大平之盛觀哉？法令苛暴，賦斂繁重，則民咨於野，吏困於官，雖有池臺坡榭，豈能獨樂哉，然則水原府新亭之作，可無記乎！

府理東北隅，舊有池，燕廢已久。全君成安爲守時，慨然有志於興復，乃鑿而深之，中爲島以翼新亭，財不出於官，役不及於民。及其成也，州人見之，相顧驚駭，以爲‘何其成之易耶？必異物之來相也，何不吾役而能若此也？’吁，全君其知使民者歟！

11 말지어다 : 원문의 ‘諸(지)’는 ‘之乎’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12 按撫 : 백성의 사정을 살피어 어루만지고 위로하다.

會全君內遷，而秘書少監安君出按楊廣道，嘉全君爲政之能，走書於予曰：“全氏之迹，不泯而傳之後，惟在於文，子毋辭諸！”

予惟水原按部所理，控制諸州，是以爲一道所輻湊。然其盛衰興廢，亦爲一道先。今全君威惠並至，撫集得宜，又能不煩細民，廣我國家大平之美。安君職察民風，樂道人善，皆可書也。異日，稽也功成乞退，道過斯邑，若值荷花開時，必停車上亭，以讀吾此記而後去。

| 解題

목은¹³ 이색¹⁴李穡(1328~1396)이 수원부¹⁵水原府 객사¹⁶客舍 연못가에 지어진 누정에 붙인 기문¹⁷記文이다. 이 누정은 수원부사를 지낸 전성안¹⁸全成安(충목왕¹⁹忠穆王 연간 생존)이 지은 것으로, 이색은 전성안의 치적을 칭송하고 수원이 이 지역의 중심지임을 강조하였으며, 양광도²⁰안찰사²¹楊廣道按察使의 요청에 의해 기문을 창작한 정황을 설명하였다. 해당 정자는 현존하지 않는다.

| 主題語

목은¹³牧隱, 이색¹⁴李穡, 수원부¹⁵水原府, 객사¹⁶客舍, 전성안¹⁸全成安, 양광도²⁰楊廣道

수원부 동쪽 누각에 대한 기문

水原府東樓記



신숙주申叔舟(1417~1475), 『보한재집保閑齋集』 권14

翻譯

천순天順¹ 계미년(1463, 세조 9) 봄, 내가 바야흐로 한가로이 지낼 때 편지를 보낸 사람이 있었는데, 성균사성成均司成 공기孔頤와 예조좌랑禮曹佐郎 김구영金九英으로 모두 수원부 사람이었다. 그 편지에 이르기를,

수원부 관사 동쪽에 연지蓮池가 있는데 혹은 정자로 혹은 누대로 흥성하고 쇠퇴衰廢하였던 유래가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지금은 꼭 막히고 다 쓰러져 가 사람이 머물 수 없습니다. 여강驪江의 민효열閔孝悅 선생께서 부윤府尹으로 부임해 오셔서 정치가 잘 이루어져 여가가 많게 되자, 이 일을 안타깝게 여기고는 그 옛 모습을 복구하고자 하여 장인에게 명해 재목을 모으고 전부 철거하고서 새롭게 하였으니, 일곱 달 만에 완성하였습니다. 기둥을 세운 것이 모두 셋에 보조하는 대들보를 올린 것이 이십여 개이며, 옛 연못을 넓히고 다시 북쪽을 파 누대가 이에 완전히 연못 가운데에 있게 되었습니다. 제도가 이미 장대하고 단청도 선명하며, 섬이 주변을 둘러싸고 꽃과 풀은 맑고 한적하니, 연못에 정자나

1 天順: 明 英宗(1457~1464)의 연호이다.

누대가 있게 된 이래로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공사하는 기한을 미루지 않았고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옛 물건을 이처럼 복원하였으니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기문記文을 지어 후세에 남기도록 해 주십시오.

하였다.

옛날 전성안全成安²이 이 정자를 짓고 목은牧隱³이 일찍이 기문을 지었는데,⁴ 나와 같은 자가 어찌 그 뒤를 이을 수 있겠는가. 무릇 사물의 완성과 훼손에는 운수가 있으며 일의 흥성과 폐기에는 때가 있으니, 완성되었다가 훼손되고 폐기되었다가 흥성하는 것은 끝없이 순환한다. 정자가 되고 누대가 되며 흥성하고 쇠퇴하는 것이 어찌 사물과 일이 부합되고 운수와 때가 만나는 일 아닌 것이 있겠는가. 선생은 처세處世가 항상 담박하고 정치를 하는 것 역시 사랑하고 어루만지는 데⁵ 힘쓰고 허식虛飾을 하지 않았으니, 먼저 안타깝게 여겨 그 옛 모습을 복원시키면서 더 크게 한 후에야 그친 것은 어찌서인가.

사물은 훼손되면 마땅히 완성될 운수가 있고, 일은 폐기되면 흥성할 때가 있으니, 이것이 선생이 스스로 그만둘 수 없었고 이 연못이 크게 (기회를) 만난 것이다. 내가 비록 졸렬하지만 또한 기문을 짓지 않을 수 없으나, 연꽃을 사랑하는 말⁶과 경치의 아름다움에는 미칠 겨를이 없다. 아, 목은이 꽃이 피면 수레를 멈추겠다고 한 뜻⁷을 마침내 펼 수 있게 된 것인가. 내가 눈으로 보고 흥을 기탁하는 것도 끝내는 운수와 때에 맡길 따름이다.

2 全成安: 생물년 미상. 고려 말의 문신으로 忠穆王 연간(1344~1348)에 생존하였으며 수원 부사를 지냈다는 사실 외에는 자세한 사적이 전하지 않는 인물이다.

3 牧隱: 李穡(1328~1396)의 호이다.

4 목은이…… 지었는데: 이색의 『牧隱集』 권4에 실린 「水原府客舍池亭記」를 가리킨다.

5 사랑하고 어루만지는데: 원문은 '字撫'인데 '字'자는 '아이를 낳아 기르다'는 本義에서 파생되어 '사랑하다'라는 뜻이 있다.

6 연꽃을…… 말: 北宋 周惇頤가 군자의 덕을 연꽃에 비유하여 형상화한 「愛蓮說」을 가리킨다.

7 꽃이…… 뜻: 李穡, 「水原府客舍池亭記」, "훗날 내가 공을 이루고 물러남에 이 고을을 지나다가 만약 연꽃이 피는 때를 만나게 된다면 반드시 수레를 멈추고 누정에 올라 나의 이 기문을 읽은 후에 떠나가리라.(異日, 穡也功成乞退, 道過斯邑, 若值荷花開時, 必停車上亭, 以讀吾此記而後去.)"라고 한 내용을 가리킨다.

이 해⁸ 초봄 그믐날 씀.

| 原文

天順癸未春，予方居閑，有投簡者，成均司成孔頴·禮曹佐郎金九英，皆水原府人也。簡曰：“府館之東，有蓮池，或亭或樓，成毀興廢，其來甚久。今堙鬱傾圯，人不可處。驪江閔先生孝悅爲明府，政成多暇，爲之憫然，欲復其舊，命工鳩材，悉撤而新之，七閱月而告成。爲楹者凡三，爲補棟者二十餘，廣其舊池，又鑿其北，樓於是宛然在池中。制度既壯，丹牖又明，島嶼回互，花卉幽閑，自池有亭樓以來，所未曾有也。工不移時，役不及民，而能復舊物也如是，其可不傳也耶！請爲記以遺後。”

昔全安成⁹之爲是亭也，牧隱嘗爲記，如僕者安能繼其後歟！夫物之成毀有數，事之興廢有時，因成而毀，因廢而興，循環無端。其爲亭爲樓，爲成毀興廢也，何莫非物與事合，數與時會者哉！先生處世常澹然，爲政亦務字撫，不爲虛飾，而首爲之憫然復其舊，增大之而後已，何哉！

物毀有當成之數，事廢屬可興之時，此先生所不能自己，而茲池之一大遇也。僕雖拙，亦不能不爲之記，而愛蓮之說，景概之美，不暇及焉。嘻，牧隱花開停車之志，竟得伸歟！僕之寓目托興，終亦付之數與時爾。

是年孟春之晦記。

| 解題

신숙주가 수원부의 동쪽에 있는 누정인 운금루雲錦樓에 쓴 기문으로, 고려 때 전성안이 지은 건물을 민효열閔孝悅이 증축하게 된 경위를 서술하면

8 이 해 : 공기 등의 편지를 받은 1463년을 가리킨다.

9 안성 : 『東國輿地勝覽』 및 李穡의 「水原府客舍池亭記」에 의거해 '成安'으로 바로잡았다.

서 이색이 과거에 쓴 기문을 인용하여 자신의 소회를 밝혔다.

| 主題語

신숙주申叔舟, 보한재保閑齋, 수원부水原府, 공기孔頴, 김구영金九英, 전성안全成安, 민효열閔孝悅, 이색李穡



무추정에 대한 짧은 기문

無錐亭小記



남학명南鶴鳴(1654~1722), 『회은집晦隱集』 권2



翻譯

권 석주權石洲¹의 시에,

사람들은 송곳 세울 땅도 없다 하지만 人無立錐地,

나는 본래 송곳도 없다네² 而我本無錐.

라고 하였다. 을미년(1715, 숙종 41) 가을, 나는 수원水原 갈등촌葛藤村³에 도착하였는데 한 이랑의 땅도 없어서⁴ 장난스레 거처에 편액을 쓰기를 '무

1 권 석주: 조선 중기의 저명한 시인인 權輿(1569~1612)을 가리킨다. 본관은 안동이고 자는 汝章이며 석주는 그의 호 鄭澈의 문인으로 평생 벼슬하지 않고 시와 술로 삶을 보냈다.

2 사람들은 …… 없다네: 이는 권필의 五言古詩인 『貧』의 제5-6구로, 권필의 문집인 『석주집』에는 '置'자로 되어 있는 것을 남학명은 '立'으로 인용하였다. 이 작품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 가난을 주제로 한 것으로, 가난을 수용하며 옛사람의 遺風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작품이다.(권필, 『石洲集』 권1, 韓國文集叢刊 75집, 8-9쪽 참조)

3 葛藤村: 수원의 한 지명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는 미상. 지금의 華城市 蓬潭邑에 있었던 葛潭面 芑等里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연석환, 『남학명의 『회은집』 역주』,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196쪽) 한자 표기가 달라 확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생각된다.

4 한 …… 없어서: 『禮記』, 『儒行』편에 “儒者는 한 이랑의 집에 사는데 담으로 둘러싼 방에 울타리 문과 쪽문이 있고, 대자리 문과 옹기 들창이 있다.(儒有一畝之宮, 環堵之室, 簞門圭窻, 篷戶甕牖.)”라고 하여 유학자의 검소한 삶을 강조한 내용이 있는데 이를 활용한 표현이다.

추정無錐亭⁵이라 하였다. 사인동舍人洞⁶에 머무를 때 매년 임 소암任疎菴⁶의

깊은 가을의 국화 기운	深秋菊氣,
향기는 옷에 스며들고	香襲衣裳,
저물녘 소나무 소리	薄暮松聲,
한기가 자리에 엄습하네 ⁷	寒侵几杖.

라는 구절을 읊었는데, 갈등촌에 와서는 항상 동과東坡⁸의

푸른 산은 약속 있는 듯 오랫동안 사립문 앞에 있는데 靑山有約長當戶,
흐르는 물은 무정하여 절로 연못으로 흘러드네 流水無情自入池.⁹

라는 구절을 읊조렸다. 매우 의미가 있으니 또한 옛 사람이 시를 지은 뜻이리라.

原文

權石洲詩曰: “人無立¹⁰錐地, 而我本無錐.” 乙未秋, 我到水原葛藤村, 無一畝, 戲題寓舍曰無錐亭. 留舍人洞時, 每詠任疎菴 “深秋菊氣, 香襲衣裳; 薄暮松聲, 寒侵几杖”之句, 及到葛藤, 每吟東坡 “靑山有約長當戶, 流水無情

5 舍人洞: 지금의 東大門 바깥의 동 이름으로, 朴舍人洞이라고도 한다. 일찍이 남학명의 부친 南九萬이 은퇴 후 이곳에 지낼 생각으로 집을 지어 남학명 역시 이곳에서 지낸 적이 있다. 한편 남학명은 「舍人洞小記」(『晦隱集』 권2)라는 작품을 통해 이곳에서의 정취를 표현한 바 있다.

6 임 소암: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문장에 뛰어났던 임숙영任叔英(1576~1623)을 가리킨다. 자는 茂淑이며 소암은 그의 호이다. 1601년(선조 34)에 진사가 되었고, 1611년(광해군 3)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박사, 부수찬, 지평 등을 역임하였다.

7 깊은 …… 엄습하네: 임숙영의 「藏拙窩上樓文」(『疏菴集』 권7) 구절로, 이 작품은 임숙영이 자신의 벗인 玄谷 鄭百昌(1588~1635)을 위해 지어 준 것이다.

8 동파: 중국 北宋 때의 지명한 문인인 蘇軾(1036~1101)을 가리킨다. 동파는 그의 호이다.

9 푸른 …… 흘러드네: 소식의 「刁同年草堂」(『東坡全集』 권5, 四庫全書本)의 제3~4구이다.

10 立: 『석주집』에는 '置'로 되어 있다.

自入池”之句, 甚有意味, 亦古人賦詩之義也.

| 解題

회은晦隱 남학명南鶴鳴(1654~1722)이 1715년(숙종 41) 가을에 수원 갈등촌에 무추정無錐亭을 짓고 그곳에서의 정취情趣를 서술한 기문으로, 한시漢詩의 인용을 통해 자신의 정감情感을 표현하였다.

| 主題語

회은晦隱, 남학명南鶴鳴, 권필權鞞, 갈등촌葛藤村, 무추정無錐亭, 사인동舍人洞, 임숙영任叔英, 소식蘇軾

오도나루를 건너는 기문

渡梧島津記



서종화徐宗華(1700~1748), 『약헌유집藥軒遺集』 권5



| 翻譯

오동도梧桐島는 수원부水原府에 속하며 그 나루는 물이 넓고 험하여 왕래할 때 반드시 조류潮流를 살펴야 한다. 나는 섬 안에 거친 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10월 6일에 금로리金蘆里²에서 새벽같이 밥을 먹고³ 출발하여 장차 섬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이날 조수의 징후가 진시辰時에 있다고 하였다. 십여 리를 가 어떤 사람을 만나 잠깐 이야기를 하였고, 다시 7리쯤을 가 나루머리에 닿았다. 날은 이미 정오가 가까워 가는데 조수의 형세는 썰물로 향하고 있기에 서둘러 급히 배를 불렀다. 배는 건너편에서 노를 저어와 잠시 후에 도달하였는데, 조수가 더욱 물러나니 급히 배로 내려가 물가를 따라 끌어 몇 바닷⁴을 올라가자 바로 섬 꼭대기가 보였다. 배를 돌려 어

1 梧桐島 : 지금의 아산만과 남양만 인근에 위치하였던 섬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위치는 분명치 않다. 본문의 내용에 따르면 서종화는 이곳에 자기 소유의 밭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며, 이곳에서 지은 한시 작품인 「梧島阻雨」(서종화, 『藥軒遺集』 권1)가 전한다.
2 金蘆里 : 구체적인 위치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새벽같이 …… 먹고 : 원문의 '麪食'은 일찍 일어나 침상 위에서 곧바로 밥을 먹음을 뜻하는 말로, 『春秋左傳』 文公 7년조에 출전이 있다.
4 바닷 : 원문은 '巘'로, 활을 쏘아 화살이 미치는 거리를 의미한다.

지러이 건너 중류中流에 이르자 배가 조수를 이기지 못하여 점점 함께 아래로 내려가더니 거의 섬 끄트머리를 치고 지나갈 뻔하였다. 뱃사공이 발로 땅을 구르며 말하기를,

“여기를 지나면 멈추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나는 특히 힘을 써서 상앗대를 잡고 버티도록 독려하면서 또 두 노비에게 곁에서 노를 젓도록 하였다. 신시申時⁵가 되어 겨우 배를 섬 아래 나루어귀에 댔다. 뱃사공이 손바닥을 보여 주는데 손바닥이 벗겨져 피가 흘렀고, 두 노비는 심하게 헐떡거리며 숨을 쉴 수 없는 것 같았다. 배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갔다. 나 역시 매우 피로하였는데, 누워서 다음과 같이 스스로 생각하였다.

오늘 길이 험하여 처음에는 일찍 출발하여 중도에 지체되지 않고 잘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미 그렇지 않게 되어 한없이 고난을 겪었다. 만약 사공이 남다른 노력으로 노를 젓지 않고 두 노비가 곁에서 붙들어 도와주지 않았다면 조수와 함께 떠내려가 바다에 빠질 뻔하였을 것이다.

이로 인하여 또다시 생각하였다.

사람이 배우는 것이 어찌 이와 다르겠는가. 열 살부터 서른 살까지 혈기가 점차 왕성해지는 것은 조수가 바야흐로 밀려드는 것이요, 서른 살부터 마흔 살 넘어가게 되면서 혈기가 점차 쇠퇴하는 것은 조수가 바야흐로 물러가는 것이다. 혈기가 점차 왕성해지는 때에는 배우는 것이 쉬워 마치 조수를 따라 바다를 건너는 것 같고, 혈기가 점차 쇠퇴하는 때에는 배우는 것이 어려워 마치 조

수를 거슬러 바다를 건너는 것 같다.

나는 어려서 이 학문에 뜻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나이는 이미 서른두 살이 되었다. 반생⁶은 이 나이에 이미 흰 머리⁷가 보였으나 또한 흰머리를 뽑은 것이 거의 스무 개에 가깝다. 안색은 아름답고 붉던 것이 변하여 주름이 생겼고 중간에 질병을 겪으며 위엄이 사라지고 신기⁸는 약해져 버렸다. 서적에 대해서는 책을 덮으면 번번이 잊어버리고 더하여 세상일이 요란하고 어지러워 초심을 돌아보자니 공허하여 성취가 없었다.

만약 뱃사공이 손바닥에 피를 흘리는 것과 같은 수고를 꺼리지 않고 또 좌우에서 이끌어 주는 공이 있다면 거의 해안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그렇지 않다면 점점 장차 조류와 함께 떠내려가 건널 곳이 없게 되리니, 두렵지 않겠는가!

이 밤에 이를 적어 스스로 경계하면서 또 동지들에게 보이는 것은 협조의 공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 原文

梧桐島屬水原府，其津水廣而險，往來必候潮。余有薄田在島中，十月六日，蓐食金蘆里，發將入島，是日潮候在辰。行十餘里，逢人少話，又行七里許抵津頭。日已禺中，潮勢向退，急呼舟。舟自越邊搖櫓，移時方來，潮益退矣，急下舟，遵澁曳上數帳地，正望島上頂。回舟亂渡，迨至中流，舟不勝潮，浸浸與之俱下，幾挨過島尾。舟子頓足曰：“過此將無止泊矣。”余督殊力撐篙，又教兩奴從傍鼓柁。日晡，僅僅挽泊島下港口。舟子示掌，掌脫流血，兩奴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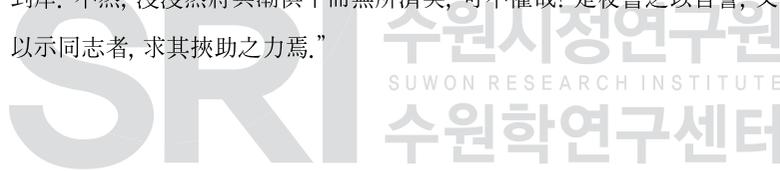
6 潘生：중국 쑤나라 때의 시인 潘岳(247-300)을 일컫는다. 그의 『秋興賦』 서문에서 “쑤나라 14년에 내 나이 서른둘이 되었는데 처음 흰 머리가 보였다.(晉十有四年，余春秋三十有二，始見二毛)”라고 하였다. 『六臣注文選』 권13 참조
7 흰 머리：원문은 ‘二毛’로, 흰 머리카락과 검은 머리카락이 섞여 반백이 된 상태를 가리킨다. 『春秋左傳』 僖公 22년조에서 “군자는 거듭 상해를 입히지 않으며 반백의 늙은이를 사로잡지 않는다.(君子不重傷·不禽二毛)”라고 한 데 출전이 있다.

5 신시：오후 3시에서 5시 사이로, 통상 저물녘을 가리킨다.

吼不能息. 下舟入田舍.

余亦疲甚, 臥而自念: “今日之行艱矣. 初若早發, 無中途之止滯, 可得利涉, 而既不然, 以喫無限生受. 苟微舟子之殊力撐篙, 兩奴之從傍挾助, 幾乎與潮俱下而入於海矣.”

因又轉而思之: “人之爲學, 何異是? 自十歲至三十, 氣血漸盛, 是潮之方進也; 自三十而過四十, 氣血漸衰, 是潮之方退也. 氣血漸盛之時, 爲學之易, 如順潮而渡; 氣血漸衰之時, 爲學之難, 如逆潮而渡. 余少時有意斯學, 荏苒之間, 年已三十有二. 潘生是歲, 既見二毛, 余亦摘白者幾二十根. 顏色之韶丹, 變而生皴, 中經疾病喪威, 神氣羸損, 凡於書籍, 掩卷輒忘, 重之世故擾汨, 環顧初心, 廓落無成. 倘或不憚舟子掌血之勞, 又有左右提撕之助, 庶可到岸. 不然, 浸浸然將與潮俱下而無所濟矣, 可不懼哉! 是夜書之以自警, 又以示同志者, 求其挾助之力焉.”



解題

약헌 서종화가 1731년 자신의 토지가 있는 오동도로 들어가는 과정을 기록한 기문이다. 섬으로 가는 과정에서 조류 때문에 고생한 일을 상세히 서술하고, 자신이 30대가 되어 기력이 쇠퇴하고 학문에 대해 의욕이 꺾이는 것에 대해 우려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해 나아갈 것을 다짐하였다.

主題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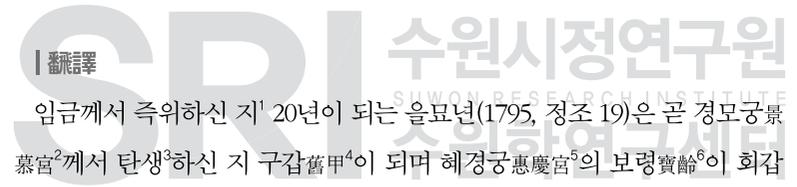
약헌藥軒, 서종화徐宗華, 오동도梧桐島, 조류潮流

「화성행행도」에 대한 기문

華城幸行圖記



홍경모洪敬謨(1774~1851), 『관암전서冠巖全書』 13책



翻譯

임금께서 즉위하신 지 20년이 되는 을묘년(1795, 정조 19)은 곧 경모궁景慕宮²께서 탄생³하신 지 구갑舊甲⁴이 되며 혜경궁惠慶宮⁵의 보령寶齡⁶이 회갑回甲이 되시는 해이다. 정월正月 16일, 임금께서 친히 경모궁과 혜경궁께 존호尊號를 올리시고, 21일에 왕대비전王大妃殿⁷·혜경궁·중궁전中宮殿⁸을 모

- 1 즉위하신 지: 원문은 '御極'으로, '등극하다' '즉위하다'의 의미이다.
- 2 景慕宮: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1735~1762)를 가리킨다. 경모궁은 원래 성종 때 지어진 것으로 창경궁의 후원인 춘春園이었는데, 영조 40년(1764)에 사도세자의 사당인 垂恩廟를 이곳으로 옮겨 온 뒤 정조가 즉위하면서 이곳을 경모궁으로 고쳐 불렀다.
- 3 탄생: 원문은 '誕彌'로, 『詩經』, 『大雅·生民』편의 "열 달을 다 채우고 먼저 낳기를 마치 작은 양처럼 하였다. (誕彌厥月, 先生如達.)"라고 한 데 출전이 있는 표현이다.
- 4 舊甲: 회갑과 같은 말로 60년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사도세자의 생년은 1735년이고 정조가 즉위한 지 20년이 되는 을묘년은 1795년(이 해는 정조 19년이나 즉위년을 포함하여 20년으로 계산한 것임)이어서 한 갑자가 순환하였으므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 5 惠慶宮: 정조의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1735~1816)를 가리킨다. 본관은 풍산으로 洪鳳漢(1713~1778)의 딸이다.
- 6 寶齡: 임금 등 지위가 높은 사람의 나이를 높여 부르는 말이다.
- 7 王大妃殿: 先王의 왕비를 지칭하는 말로, 여기에서는 영조의 繼妃인 貞純王后 김씨(1745~1805)를 가리킨다. 본관은 경주이고 金漢壽(1723~1769)의 딸이다.
- 8 中宮殿: 왕비가 거처하는 곳으로, 왕비를 가리키는 말이다. 여기에서는 정조의 왕비인 孝懿王后 김씨(1762~1821)를 가리킨다. 본관은 청풍이고 金時黈(1722~1772)의 딸이다.

시고 비궁⁹에 참배하셨다. 자진¹⁰께서는 진작례¹⁰를 행하시고, 자궁¹¹께서는 알묘례¹¹를 행하시며, 곤전¹²께서는 묘현례¹²를 행하셨으니, 대개 이 날이 바로 탄신과 회갑의 날이었기 때문이다.

윤 2월 9일, 임금께서 친히 자궁을 모시고 화성¹³에 행차하시어 현릉원¹³에 참배하시고 행궁¹⁴으로 돌아오시니, 성대하게 칠작¹⁵의 의식¹⁵을 거행하고 일제히 만 년¹⁶의 축원을 바쳤으며, 성인¹⁷을 찾아가 뵈고 선비를 시험하며 노인을 봉양하고 백성에게 은혜를 내리, 어가¹⁸가 8일 동안 움직임에 돌아오실 때¹⁸까지 모든 것들이 평안하였고 안팎의 크고 작은 사람들이 고무¹⁹되고 기뻐하였다. 환궁²⁰하셔서 정리소²¹에 명하여 의식을 그린 그림의 의궤²²의 첫머리에 싣고 간행하여 반포하도록 하셨으니, 아아 성대하도다!

신이 적이 생각건대, 우리 임금께서 올해가 돌아옴을 슬퍼하시고 다하지 않는 성스러운 효성²³을 성대히 하시니, 선진²⁴들의 현책²⁵에 성대함이 드러나 있다. 또한 천 년 동안에도 만나기 어려운 기회를 만나 나라에서 처음 행하는 예식을 거행하게 되었으니, 예는 의의²⁶로써 일이고 정²⁷은 예로 말미암아 퍼지게 되었네. 이 해에 이 경사를 맞아 이 땅에서 이 예식을 거행함은²⁸ 조금이나마 그리움을 붙여 정성을 펴는 방법이

되니, 임금의 마음은 공경스럽고 근엄하여 조금도 풀어지는 때가 없으며 광채가 주변을 에워싸 거행하지 않은 일이 없었네. 장락당²⁹에서 술잔을 받들고 낙남헌³⁰에서 술자리 마련하여, 삼가 북두³¹에 술 따르며 남산에 예배³²하고 제사를 지냈구나.¹⁹ 우리 여러 노인들과 함께 자애로운 은혜를 널리 퍼는 것은 노인을 높이는 뜻이고, 너희 사민³³을 위로하고 자애로운 덕으로 모두를 배부르게 함은 법도를 헤아리는 도이며, 이로써 옛 성왕께 절하고 과거를 설행³⁴하며 장대³⁵에 임하고 열병³⁶을 하는데 이르는 것은 문무를 함께 쓰는 방법이다. 정성스런 예식을 잘 펴고 세상에 드문 성대한 전례³⁷를 다 거행하니, 이는 참으로 우리 동방에 처음 있는 성대한 일이요 실로 천 년에 한 번 만나기 어려운 경사스러운 일이다. 신은 여러 사람들의 뒤를 따라 기쁘게 깃발의 아름다움³⁸을 보았으며, 또한 그림의 형상으로 인하여 부연하여 기문³⁹을 짓고 아래에 기록하였으니, 이로써 우리 천 승⁴⁰ 임금⁴¹의 효성과 봉양을 칭송하노라.

신 홍조영⁴²이 삼가 기록한다.

궁궐에서 나왔다가 궁궐로 돌아가시는 그림 出還宮圖

을묘년 윤 2월 9일, 임금께서 혜경궁을 모시고 화성으로 행차하셨다.

초엄⁴³을 울리자 병조⁴⁴에서 여러 시위⁴⁵들을 단속하여 장위⁴⁶

9 闕宮 : 종묘를 가리키는 말이나 여기에서는 사도세자의 사당인 경모궁을 지칭한다. '비궁'은 원래 나라의 조상을 모신 사당을 가리키는 말로, 『詩經』, 「비궁」편은 魯나라 僖公이 주나라의 비궁을 복원한 일을 찬미한 작품이다.
 10 慈殿 : 왕대비의 다른 말로, 정순왕후 김씨를 가리킨다.
 11 慈宮 : 대비(임금의 어머니)의 다른 말로, 혜경궁 홍씨를 가리킨다.
 12 坤殿 : 중궁전의 다른 말로, 효의왕후 김씨를 가리킨다. 『周易』에서 乾卦는 양효(一)가 중첩된 것으로 하늘과 남성을 상징하며, 坤卦는 음효(--)가 중첩된 것으로 땅과 여성을 상징하므로 붙은 명칭이다.
 13 칠작의 의식 : 七爵禮라고도 하며, 궁중의 연회 등에서 일곱 차례 술잔을 돌리는 의식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爵'은 술잔을 의미한다.
 14 돌아오실 때 : 원문은 '回鑾'으로, 옛날 임금과 왕비의 수레를 '鑾駕'라고 부른 데서 기원하여 임금 부부가 외출했다 돌아오는 것을 '회란'이라고 불렀다.
 15 整理所 : 1794년(정조 18)에, 수원성 완성, 莊獻世자의 顯隆園 정화, 水原 行宮의 정비 등을 기념하기 위해 수원에서 열리게 될 국왕 친림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설치된 임시 관청이다.
 16 儀軌 : 이 행사를 정리하여 기록한 『園幸乙卯整理儀軌』를 가리킨다.
 17 顯冊 : 왕실 예식의 내용을 기록한 글로, 玉冊을 따위를 가리킨다.
 18 이 …… 거행함은 : 이 부분은 정조가 圓行과 2년 전인 1793년(정조 17)에 신하들에게 하교한 말을 그대로 인용해 왔다.(정조, 『弘齋全書』 권28, 「華城進饌日論中外輪音」 참조)

19 장락당 …… 지냈구나 : 이 부분은 정조의 「華城進饌日論中外輪音」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왔다.(정조, 『弘齋全書』 권28, 「華城進饌日論中外輪音」 참조)
 20 四民 : 원래는 士農工商 사민을 이르는 말이나 여기에서는 鰥寡孤獨, 즉 홀아비와 과부, 고아와 자식 없는 늙은이 등 외롭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다.
 21 깃발의 아름다움 : 원문은 '羽旄之美'로, '우모'는 새 깃털과 소 꼬리로 만든 깃발을 의미하는바, 여기에서 깃발의 아름다움이란 정조의 능행과 관련된 행사 예식의 성대한 정황을 상징하는 뜻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22 千乘 임금 : 乘은 수레를 세는 단위로, 고대의 제후는 전제에 수레 천 승을 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후를 천승이라고 부른다. 여기에서는 임금과 같은 뜻으로 쓰였다.
 23 洪祖榮 : 홍경모의 원래 이름이다.
 24 初嚴 : '嚴'은 임금의 거동과 같은 나라의 큰 행사가 있을 때 복을 쳐서 관원들을 경계하고 엄숙한 뜻을 보이는 일을 가리킨다., 초엄, 이엄, 삼엄이 있어 각각 복을 3번씩 쳤다.

衛²⁵와 노부鹵簿²⁶를 인정문仁政門 밖에 진열하였고, 도성에 머무르는 관리들은 각기 용복戎服을 입고 칼만 차고서 모두 조방朝房²⁷에 모였다. 행차를 모시고 따르는 관리들은 미리 한강을 건너 각기 용복을 입고 칼을 차고 깃털을 꽂고서 기다리는데 건너편 동쪽 서쪽에 순서대로 섰다.

이엄二嚴을 올리자 여러 시위들이 각기 부대를 감독하여 평상시처럼 들어와 늘어서고, 사복시 정司僕寺正이 돈화문敦化門에서 말을 올리고 합문閣門²⁸ 밖에서 수레를 올리며 다시 내합문內閣門 밖에서 가마를 올렸다. 도성에 머물 백관들은 돈화문 밖으로 나아가고, 행 도승지行都承旨 이조원李祖源, 행 좌승지行左承旨 이만수李晩秀, 행 우승지行右承旨 이익운李益運, 우부승지右副承旨 유한녕俞漢寧, 동부승지同副承旨 이조원李肇源, 가주서假注書 류원명柳遠鳴·구득노具得魯, 기주관記注官 김양척金良倜, 기사관記事官 오대중吳泰曾, 정리 당상整理堂上 심이지沈頤之·서유방徐有防·이시수李時秀·서용보徐龍輔·윤행임尹行恁, 검교 직각檢校直閣 남공철南公徹, 검교 대교檢校待敎 서유구徐有筮를 비롯한 여러 호위하는 관리들은 각기 복장을 입고 모두 합문 바깥에 이르러 명령을 기다렸으며,²⁹ 좌통례左通禮³⁰는 합문 바깥에 이르러 무릎을 꿇고 중엄中嚴³¹을 아뢰었다.

삼엄三嚴을 올리고 북소리가 그치자 안팎의 문을 열며, 좌통례는 무릎을 꿇고 외판外辦³²을 아뢰었다. 임금께서 곤룡포를 입고 철릭帖裏³³에 깃을 꽂고 수레에 올라 나아가시니, 산선繼扇³⁴과 시위侍衛는 평상시 의식대로

하였다. 좌우 통례가 앞에서 인도하고 상서원尙瑞院 관원이 옥새玉璽를 받들고 앞에서 갔다.

어가御駕가 돈화문 바깥에 이르자 좌통례가 무릎을 꿇고 수레에서 내리시기를 계청啓請하였다. 임금께서 수레에서 내려 악차輓次³⁵로 들어가시자 상의尙儀³⁶가 내엄內嚴³⁷을 청하고 잠시 후에 다시 바깥에 준비됨을 알렸다. 자궁께서 가교駕橋에 올라 나아가시어 영춘문迎春門·천오문千五門·만팔문萬八門·보정문保定門·승지문崇智門·집례문集禮門·경화문景化門·동룡문銅龍門·건양문建陽門·숙장문肅章門·진선문進善門을 거쳐 돈화문敦化門 바깥에 이르렀다. 임금께서 관위板位에 이르러 맞이하시고 좌통례는 무릎을 꿇고 말에 오르시기를 청하니 임금께서 말에 오르시고 시위 및 호가扈駕하는 신하들이 말에 올랐다. 어가가 움직여 출발하고 청연淸衍과 청선淸璿³⁸ 두 군주郡主³⁹가 따랐다. 승례문崇禮門으로 나와 울원현栗園峴 앞길에 이르러, 길가에서 구경하는 백성들을 금지하지 말라 명하였다.

만천교蔓川橋를 경유하여 노량驤梁 주교舟橋⁴⁰의 홍살문紅箭門에 이르렀다. 임금께서 말에서 내려 자궁의 가마에 나아가 안부를 물으시고, 이에 먼저 용양봉저정龍驤鳳翥亭⁴¹에 가서 친히 자궁께서 머무실 방의 온돌과 수라, 반찬을 살펴보고 다시 막차幕次⁴²로 나오시어 자궁을 맞이해 내차內次⁴³로 따라 들어가셨다. 도성에 머무는 백관들이 전송하고 배종陪從하는

25 仗衛 : 손에 병기를 든 侍衛를 뜻한다.
 26 鹵簿 : 국왕이 주재하는 행사에 앞서 마련하던 儀仗(지위가 높은 사람이 행차할 때 위엄을 보이기 위해 격식을 갖추어 세우는 물건이나 무기 등을 가리키는 말)이다.
 27 朝房 : 대신들이 朝會를 기다리는 장소로 直房이라고도 한다. 통상 대궐 문 옆에 있었다.
 28 閣門 : 便殿(임금이 거처하면서 업무를 보던 곳으로, 창덕궁의 경우 宣政殿을 가리킴)의 앞문을 일컫는 말이다.
 29 명령을 기다렸으며 : 원문은 伺候를, 웃어른의 명령을 기다리는 일을 뜻한다. 다른 말로 待候라고도 한다.
 30 左通禮 : 조선시대에 예식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通禮院의 으뜸 관직으로, 정3품 벼슬이다.
 31 中嚴 : 바깥 준비가 다 되어 임금의 거동을 알리는 嚴이다.
 32 外辦 : 임금이 거동할 때 의장, 호종 등을 제자리에 정돈시킨다.
 33 帖裏 : 상하의를 따로 구성하여 허리에 연결시킨 袍이다.
 34 繼扇 : 임금이 행차할 때 따르는 의장의 하나로, 베로 만든 우산을 임금이 앞서 나아가게 한다.

35 輓次 : 임금이 거동할 때 잠깐 쉬 수 있도록 장막을 친 곳이다.
 36 尙儀 : 조선시대 內命婦의 정5품 女官으로, 일상에서의 각종 예의 절차를 관장하는 벼슬.
 37 內嚴 : 世子나 世孫이 거동할 때에 경계의 신호로 올리는 두 번째 북소리로, 임금에게 쓰는 中嚴과 구별하여 이르는 말이다.
 38 淸衍과 淸璿 : 정조의 두 동생인 청연공주(1754~1821)와 청선공주(1756~1802)이다.
 39 郡主 : 왕세자의 정실에서 난 딸의 封爵으로, 정이품에 해당한다.
 40 舟橋 : 배를 이어서 만든 임시 다리이다.
 41 龍驤鳳翥亭 : 1791년(정조 15)에 정조가 현릉원에 갈 때, 노량에 주교를 설치하고 건너가기 전에 잠시 쉬어 가던 곳이다. 지금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32길 14-7에 있다.
 42 幕次 : 의식이나 거동 때 임시로 장막을 쳐서 임금이나 고관 등이 잠깐 머무는 곳이다.
 43 內次 : 원래는 혼례 때 문 안에서 옷을 갈아입는 곳을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에서는 혜경궁 홍씨가 임시로 머무는 막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백관들은 각기 차례로 나아갔다. 정리사⁴⁴가 점심식사를 올리니 임금께서 친히 살피시고는 자궁께 올렸다.

오시⁴⁵ 초 2각에 삼취⁴⁶할 때가 되자 임금께서 군복으로 갈아입고 자궁의 가마를 모시고 출발하셨다. 통례⁴⁷와 상의⁴⁸가 위의 의식과 같이 하고 아래는 이를 따를 것을 찬청⁴⁹하였다. 만안현⁵⁰을 경유하여 문성동⁵¹ 앞길에 이르러 청포장⁵²을 설치하도록 명하시고 자궁의 가마를 받들어 잠시 쉬면서 안부를 여쭙셨다. 정리사가 미음과 차를 올리니 임금께서 손으로 받들어 자궁의 가마 안에 올리셨다. 잠시 후 하교하시기를,

“내가 마땅히 먼저 행궁⁵³에 가서 직접 살피볼 것이니 시위와 백관은 이전처럼 자궁의 어가를 배종하고 단지 병방 승지와 사관만 뒤를 따르라.”

하시고는 이에 출발하여 시흥현⁵⁴ 행궁⁵⁵에 가서 주변을 살피시고는 악차로 다시 나오시어, 장용영⁵⁶에 명하여 당마⁵⁷를 늘어세우고 자궁의 어가가 도착하는 곳을 차차로 와서 아뢰도록 하셨다.

자궁의 어가가 고을의 문 밖에 이르자 임금께서 맞이하여 따라서 내차로 들어가셨다. 정리사가 저녁식사를 올리니 임금께서 친히 살피고 자궁께 올리시고 악차에서 나오셨다. 하교하시기를,

“날씨가 맑고 화창하여 자궁의 건강이 매우 편안하시니 경사스럽고 다행함

44 整理使 : 임금이 거동할 때 행궁의 수리 및 기타 일을 맡아 보던 벼슬로, 戶曹判書가 임시로 겸직한다.
45 三吹 : 군대가 출발할 때 세 번 나팔을 불던 일이다.
46 贊講 : 의식에서 식순에 따라 당사자가 행할 일을 청하는 일이다.
47 靑布帳 : 푸른 천으로 만든 휘장이다.
48 時講 : 정조는 현릉원에 갈 때 淸川을 경유하면서 1794년(정조 18)에 금천 지역에 행궁을 건설하였는데, 이듬해 금천현이 시흥현으로 바뀌면서 금천행궁이 시흥행궁으로 바뀌었다. 현재는 없어졌고 옛 터에는 상가 건물이 들어서 있다.
49 壯勇營 : 정조 17년(1793)에 설치된 禁衛 조직이다. 한양 도성과 수원유수부의 宿衛 업무를 담당하였다.
50 塘馬 : 말을 타고 최후의 임무를 맡아 보던 군사이다.

을 이길 수 없다.”

하시고는 승지와 사관, 각신⁵⁸과 시위하는 여러 신하들에게 음식을 하사하셨다. 하교하시기를,

“이는 자궁께서 하사하시는 것이니 각기 배불리 먹으라.”⁵⁹

하셨다.

초 10일 묘시⁶⁰, 임금께서 시흥 행궁에 납시어 하교하시기를,

“비가 올 듯하여 자못 긴장되니 일찍 출발하지 않을 수 없겠다. 시위하는 군사들은 즉시 정돈하고 기다려라.”

하셨다. 묘시 정각에 삼취를 하고 출발하여 대박산⁶¹ 들판을 거쳐 안양점⁶² 앞길에 이르렀다. 자궁의 어가를 모시고 잠시 쉬면서 미음과 차를 올리고, 장산⁶³ 모퉁이를 지나 청천⁶⁴ 들판을 이르렀다. 임금께서 말에서 내려 자궁의 어가에 가 안부를 여쭙고, 원동천⁶⁵을 거쳐 먼저 사근점⁶⁶ 행궁⁶⁷에 가셨다. 자궁의 어가가 도착하니 맞이하여 입차로 따라 들어가 점심을 올리셨다. 하교하시기를,

“비의 기세가 비록 그치지 않으나 행궁을 새로 건설하여 건물들이 얹고 드러나 있어 모시고 묵어가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백관과 군사들이 비에 노출되어 옷이 젖으니 마땅히 생각할 바이다. 여기에서 화성과의 거리가 1사⁶⁸가

51 배불리 먹으라 : 원문은 '飽德'인데, 『詩經』, 「大雅·既醉」편에서 “이미 은택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셨으니 임금께서 만년토록 큰 복을 누리소서.(既醉以酒, 既能以德, 君子萬年, 介爾景福)”라고 한 데서 연한 표현이다.
52 사근점 행궁 : 지금의 경기도 의왕시 의왕시청 별관 자리에 있던 행궁이다.
53 술 : 옛날 중국에서 군대의 하루 행군 거리인 30리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우리나라 기준으로 50리이다.

되지 않으니 오늘 도착할 수 있을 듯하다.”

라 하시고 곧바로 삼취를 명하셨다.

임금께서 우비를 입으시고 자궁의 어가를 모시고 출발하여 미륵현에 이르렀는데 길이 자못 진창이었다. 임금께서 말에서 내려 자궁의 어가 앞애가 안부를 여쭙셨다. 괴목정槐木亭을 지나 진목정眞木亭에 이르러 총리대신 總理大臣 우의정右議政 체제공蔡濟恭이 길 왼편에서 맞이하고 외영外營 친군위親軍衛가 길을 끼고 어가를 맞이하였으며, 고취鼓吹와 여령女伶⁵⁴ 또한 와서 대령하였다. 임금께서 자궁의 어가를 모시고 잠시 쉬면서 미음과 차를 올리고, 잠시 후에 갑주를 갖추어 갈아입고 출발하셨다.

화성華城 성문에 도착하여 군문軍門⁵⁵에 들어가는 절차를 행하여 作門⁵⁶안으로 들어가셨다. 여러 대장들 및 화성유수華城留守 조심태趙心泰가 장관 이하를 이끌고 무릎을 꿇고서 길 왼편에서 맞이하였다. 어가가 장안문長安門⁵⁷으로 들어가 종 거리의 좌우 군영의 앞길과 신흥루新豐樓,⁵⁸좌익문左翊門⁵⁹을 거쳐 중앙문中陽門⁶⁰으로 들어가 화성행궁 봉수당奉壽堂⁶¹에 이르러 말에서 내리셨다. 자궁을 따라 장락당長樂堂⁶²에 들어가 저녁을 올리셨다.

15일 진시辰時 정각, 임금께서 자궁을 모시고 시흥 행궁으로 돌아가셨다. 복내당福內堂⁶³에서 중앙문으로 나와 좌익문, 신흥루를 거쳐 장안문 바깥에 이르러, 맞이하러 나온 문, 무과의 신규 급제자들에게 명하여 화개

54 鼓吹와 女伶 : '고취'는 궁중의 예식에서 북을 치고 피리를 부는 악대이며, '여령'은 예식에서 儀仗을 드는 여자 종을 가리킨다.
 55 軍門 : 軍營의 문이다.
 56 作門 : 파수를 두어 잡인이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게 지키던 문이다.
 57 長安門 : 수원 화성의 北門이다.
 58 新豐樓 : 화성행궁의 外三門이자 正門이다.
 59 左翊門 : 화성행궁의 신흥루 뒤, 中陽門 앞에 있는 中三門(內三門과 外三門 중간에 세우는 문)이다.
 60 中陽門 : 화성행궁의 내삼문이다.
 61 奉壽堂 : 화성행궁의 正殿이다.
 62 長樂堂 : 화성행궁의 內堂으로, 정조가 화성 능행 때 자궁(혜경궁 홍씨)의 침소로 사용하고자 세운 건물이다.
 63 福內堂 : 화성행궁의 內堂으로 정조가 행차 때 머무르던 건물이다.

무동華蓋舞童⁶⁴을 거느리고 자궁의 어가 앞에서 동서로 나뉘어 반열을 이루어 5리 정도에 이르러 뒤떨어지도록 하였다. 어가가 진목정 다리에 이르러 자궁의 어가를 모시고 잠시 쉬며 미음과 차를 올리셨다. 이에 미륵현을 거쳐 먼저 사근 행궁에 이르러 악차에 임하시어 각기 일을 맡은 차사원 差使員⁶⁵을 불러 만나시고는 고을의 폐단과 백성의 병폐를 물으셨다. 자궁의 어가가 이르자 맞이하여 따라 내차에 들어가 점심을 올리신 뒤 출발하여 안양교 앞길에 이르러 자궁의 어가를 모시고 잠시 쉬며 미음과 차를 올리셨다. 이에 대박산 들판을 거쳐 먼저 시흥 행궁에 가 자궁의 어가가 도착하자 맞이하시고는 따라 내차에 들어가시어 저녁을 올리셨다.

16일 묘시卯時 정각, 임금께서 자궁의 어가를 모시고 출발하셨다. 문성동 앞길에 이르러 지역의 부로父老들과 백성들을 불러 만나셨다. 번대방蕃大坊⁶⁶ 들판에 이르러 자궁의 어가를 모시고 잠시 쉬면서 미음과 차를 올리셨다. 이에 민안현을 거쳐 먼저 노량 행궁에 가시어 자궁의 어가가 도착하자 맞이하여 따라서 용양봉저정에 들어가 점심을 올리셨다. 임금께서 각 점站的 중간 길마다 자궁의 어가를 모시고 잠시 쉬면서 친히 미음과 차를 올리시는데, 점에 도착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가 주변을 살피시고, 매번 식사를 올릴 때에도 친히 살펴보고 올리시기를 한결같이 시흥점에서와 같이 하셨다.

임금께서 악차에서 나와 여러 신하들에게 하교하시기를,

“여드레 동안의 행차에 수고로운 거동이 많았으나 자궁의 체후가 매우 건강하시니 지금 돌아감에 경사스럽고 다행스러운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다. 원차 元子⁶⁷는 내가 출궁한 날로부터 매일같이 편지를 보내 안부를 물었는데, 지금

64 華蓋舞童 : '화개'는 日傘을 가리키는 말인바, '화개 무동'은 일산을 들고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아이를 가리킨다.
 65 差使員 : 差使, 즉 임금이 중요한 임무를 위해 파견하던 임시 벼슬을 가리킨다.
 66 蕃大坊 : 지금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이다.
 67 元子 : 아직 세자에 책봉되지 않은, 임금의 맏아들. 여기에서는 純祖를 가리킨다. 당시 순조는 6세였는데 이어지는 부분에서 정조가 현릉원에 다녀오는 동안 매일같이 편지를 써 보냈다고 언급되었다.

또 편지가 왔으니 경들은 살펴보라.”

하시고는 편지⁶⁸ 두 장을 꺼내 보여 주셨는데, 그 하나에는

봉수당에서의 진찬연^{進宴宴}과 낙남헌에서의 양로연^{養老宴}, 산호^{山呼}⁶⁹ 산호 또 산호, 천세^{千歲} 천세 삼천세.

라 하였고, 다른 하나에는

오늘 빌 것이니 앞드려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라 하셨다. 여러 신하들이 편지를 들고 두 번 세 번 읽고는 일어나 아뢰기를,

“앞드려 원자의 편지를 보니 실로 우리 동방^{東方}의 환없는 복입니다.”

하였다. 잠시 후에 곧바로 삼취를 명하셨다. 임금께서 말에 올라 자궁의 어가를 모시고 주교를 건너 출발하셨다. 도성에 머무르던 백관들이 융복을 입고 강가에서 맞이한 후에, 배중환 백관과 반열을 합하여 차례대로 임금을 모시고 궁궐로 돌아오시기를 출발할 때의 의례와 같이 하였다. 좌통례가 무릎 꿇고 해엄^{解嚴}⁷⁰을 아뢰고 병조는 하교를 받들어 방장^{放仗}⁷¹하였다.

68 편지 : 원문은 ‘睿書’인데, ‘예’는 신하가 임금이나 왕비에 대해 사용하던 경칭이다. 이를테면 편지를 ‘예서’라 하는 외에도, 황제의 文德을 ‘睿文’이라 한다.

69 山呼 : ‘山呼萬歲’ 또는 ‘山呼千歲’의 줄임말로, 임금에게 축하하는 뜻으로 만세를 세 번 외치는 일을 가리킨다.

70 解嚴 : 경계나 단속을 풀다.

71 放仗 : 儀仗을 풀어 본디의 상태로 돌려보내다.

반차도 班次圖

정리사^{整理使}⁷²인 경기감사^{京畿監司} 서유방^{徐有防}이 전배^{前排}⁷³와 인마^{印馬}와 갑마^{甲馬}⁷⁴를 거느리고 어가^{御駕}를 이끌며 앞서 가고, 장교^{將校}와 서리^{書吏}가 뒤에서 수행한다. 정리대신^{整理大臣}⁷⁵ 우의정^{右議政} 체재공^{蔡濟恭}은 전배를 거느리고 앞에 가면서, 녹사^{錄事}⁷⁶와 장교^{將校}가 뒤에서 수행한다. 선상^{先廂}⁷⁷은 훈련도감^{訓練都監}의 마병초관^{馬兵哨官}⁷⁸ 1명이 인기^{認旗}⁷⁹와 고수^{鼓手} 각 1명씩을 거느리고 말을 타고서 앞에서 이끈다. 별기대^{別騎隊}⁸⁰ 84명은 말 5마리씩이 한 대^隊가 되어 그를 따르고, 마병별장^{馬兵別將} 1명은 인기와 고수 각 1명씩을 거느리고 기^旗, 북, 전배, 갑마^{甲馬}가 그를 따르고, 좌우 초관은 말 5마리씩이 한 대가 되어 그를 따르고, 보군초관^{步軍哨官} 1명은 걸어가는 고초기^{高招旗}⁸¹와 인기와 고수 각 1명씩을 거느리고 그를 따르고, 좌부^{左部}, 좌사^{左司}⁸² 전조^{前哨} 3대는 나란히 가면서 그를 따르고, 좌총^{把總}⁸³ 1명은 인기와 고수 각 1명씩과 영기^{旌旗} 두 쌍을 거느리고 그를 따르고, 보군 초관 1명은 인기와 고수 각 1명씩을 거느리고 그를 따르고, 좌부, 좌사, 중초 3대는 나란히 가면서 그를 따르고, 당보기^{塘報旗}⁸⁴ 4

72 整理使 : 화성 능행의 일정을 담당하기 위해 만든 整理所의 우두머리이다.
73 前排 : 임금이 거동할 때 御駕 앞에서 가는 宮屬(각 궁의 아전 밑에 딸린 종)으로, 軍牢, 令旗 등속을 가리킨다.
74 印馬와 甲馬 : 인마는 玉璽를 싣고 가는 말, 갑마는 갑옷을 싣고 가는 말을 가리킨다.
75 整理大臣 : 『원행음묘정리의계』의 반차도에는 ‘總理大臣’으로 되어 있다.
76 錄事 : 조선시대 議政府, 中樞院에 속한 京衙前의 상급 서리이다. 기록을 담당하거나 문서, 錢穀 등을 관장하였다.
77 先廂 : 임금이 거동할 때 앞서 가는 군대이다.
78 哨官 : 조선시대 종9품의 무관직으로, 哨(100명의 군사로 편성된 군사 조직)를 통솔한다.
79 認旗 : 조선시대에 각 군영 지휘관이 사용하던 신호용 깃발로, 지휘용인 司命旗에 응답하는 깃발이다.
80 別騎隊 : 조선 후기에 군영에 소속되어 임직 등을 담당하던 兵種이다.
81 高招旗 : 군대를 지휘하고 호령할 때에 쓰던 軍旗의 하나. 기면이 다섯 개로 동서남북 중앙의 다섯 방위에 따라 빛깔을 달리하고 팔괘를 그렸다.
82 左部, 左司 : 조선시대 군제 편제의 하나로, 각 군영의 군대를 중, 좌, 우 3부로 나누고, 각 부를 다시 중, 좌, 우 3리로 나누었다.
83 把總 : 조선 후기에 각 군영에 두었던 종4품 무관으로, 司(총 아래에 5개씩 둔 군사 조직이며, 600명의 군사로 구성됨)를 통솔한다.
84 塘報旗 : 군사 행위에서 중요 정보를 알리기 위해 사용하던 깃발이다.

명이 그를 따른다.

훈련대장訓鍊大將 이경무李敬懋는 대기치大旗幟, 전배, 인마, 갑마, 관이貫耳,⁸⁵ 영전令箭⁸⁶을 거느리고 그 뒤를 따르고, 차지집사次知執事 2명은 좌우로 나뉘고 장교와 서리 등이 뒤에서 수행한다. 중군中軍 윤득규尹得逵는 깃발과 북, 전배와 갑마, 관이, 영전을 거느리고 그 뒤를 따른다.

금군별장禁軍別將 류효원柳孝源은 깃발과 북, 전배, 인마, 갑마를 거느리고 그 뒤를 따르고 장교가 뒤에서 수행한다. 선구금군先驅禁軍 25명은 말 5마리로 대를 이루어 그 뒤를 따르고, 양산陽繖, 수정장水晶杖, 금월부金鉞斧⁸⁷가 그 뒤를 따르고, 근장군사近仗軍士⁸⁸가 그 뒤를 따르고, 결속색⁸⁹ 서리結束色書吏가 그 뒤를 따르고, 병조兵曹와 총부總府의 당상堂上이 그 뒤를 따른다.

어보마御寶馬⁹⁰가 그 뒤를 따르는데 인도引路⁹¹ 2명이 앞에서 인도하며 상서원尙瑞院⁹² 관원이 뒤에서 수행한다. 통례通禮와 인의引儀⁹³가 그 뒤를 따르고, 별운검別雲劍⁹⁴ 4명이 그 뒤를 따르고, 보검 차비중사差備中使, 차비선전관差備宣傳官이 그 뒤를 따르고, 유서차비諭書差備⁹⁵가 그 뒤를 따르고, 선예나인先詣內人 9명이 그 뒤를 따르고, 궁임宮任 2명이 그 뒤를 따르고,

85 貫耳 : 죄인을 호수하기 전, 조리돌림을 할 때 죄인의 귀를 깨는 데 쓰던 화살이다.
 86 令箭 : 군령을 전달하는 화살이다.
 87 陽繖……金鉞斧 : 이상은 다 儀仗의 명칭으로, 양산은 일산 모양에 가로 둘러 꾸민 형질을 늘어뜨리고 자루가 긴 것, 수정장은 水精珠를 은으로 감싼 나무 자루에 매달고 철사를 구부려 불꽃 모양으로 만들어 수정주 주변에 건 의장이고, 금월부는 금칠을 한 도끼를 붉은 장대에 꿰 의장으로, 수정장과 짝이 되는 것이다.
 88 近仗軍士 : 근장은 조선시대에 임금의 좌우에서 侍衛하는 일을 맡던 中央軍으로, 200여 명 규모이다.
 89 結束色 : 조선시대에 兵曹에 딸린 관아로, 대궐 안에서 또는 거동 때 소란스럽게 떠드는 것을 금하는 일을 맡아 보았다.
 90 御寶馬 : 어보(임금의 인장, 즉 玉璽)를 신고 가는 말이다.
 91 引路 : 행렬의 앞에서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다.
 92 尙瑞院 : 조선시대에 麗寶(옥새), 符牌(명부, 마패 등) 등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관아이다.
 93 通禮와 引儀 : 통례는 조선시대 通禮院(조회, 제사에 관한 의식을 맡은 관아)의 정3품 벼슬이고, 인의는 종6품 벼슬이다.
 94 別雲劍 : 임금이 거동할 때 雲劍(별운검이 차는 칼로, 칼집은 어퍼로 싸고 주홍색을 칠하며, 장식은 은을 씌)을 차고 좌우에서 호위하던 임시 벼슬이다.
 95 諭書差備 : 관찰사나 절도사, 방어사 등이 부임할 때 왕이 내리던 명령서를 전달하기 위해 임시로 임명하던 관직이다.

검칙 장교檢飭將校 1명이 그 뒤를 따르고, 자궁의롱마慈宮衣籠馬⁹⁶ 2마리가 그 뒤를 따르고, 차지 장교 2명이 그 뒤를 따른다.

정리사整理使인 수어사守禦使 심이지沈頤之가 깃발과 북과 전배, 인마, 갑마를 거느리고 그 뒤를 따르고 장교와 서리가 뒤에서 수행한다. 가전별초駕前別抄⁹⁷ 50명이 말 5마리가 대가 되어 그 뒤를 따른다. 정가교⁹⁸를 끄는 말 4마리가 그 뒤를 따르고, 정가교가 그 뒤를 따르고, 검칙장교檢飭將校 1명이 그 뒤를 따르고, 나인 2명이 그 뒤를 따르고, 사복시첨정司僕寺僉正⁹⁹이 뒤에서 수행한다. 독¹⁰⁰이 그 뒤를 따르고, 용기龍旗¹⁰¹가 그 뒤를 따르고, 의장은 두 줄로 나누어 그 뒤를 따르고, 전부前部의 고취鼓吹가 그 뒤를 따르고, 계라선전관啓螺宣傳官¹⁰²이 그 뒤를 따르고, 나인 2명이 그 뒤를 따르고, 검칙 장교 1명이 그 뒤를 따르고, 대기치가 그 뒤를 따르고, 차지 교련관, 전배 차지 교련관, 대령待令 교련관이 함께 그 뒤를 따르고, 훈련도감 초요기招搖旗,¹⁰³ 장용영 초요기가 2줄로 나누어 그 뒤를 따르고, 나각,¹⁰⁴ 각角,¹⁰⁵ 북, 징이 그 뒤를 따르고, 용기초요기겸차비선전관龍旗招搖旗兼差備宣傳官이 그 뒤를 따르고, 수라가자水刺架子¹⁰⁶가 그 뒤를 따르고, 정리낭청整理郎廳¹⁰⁷이 전배를 이끌고 그 뒤를 따르고, 장교와 서리가 뒤에서 수행한다.

정리사인 총융사總戎使 서용보徐龍輔가 깃발과 북, 전배, 인마, 갑마를 이

96 慈宮衣籠馬 : 慈宮(혜경궁 홍씨)의 의복을 넣어 보관하는 장룡을 신고 가는 말이다.
 97 駕前別抄 : 御營廳에 소속되어 임금이 거동할 때 어가 앞에서 호위하던 禁軍이다.
 98 正駕轎 : 임금이 타는 가교(특별히 꾸며 임금이 타는 가마)이다.
 99 司僕寺僉正 : 사복시(궁중의 가마나 말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에 두었던 종4품 벼슬이다.
 100 독 : 이가나 군대의 행렬 앞에 세우는 대장기로, 큰 창에 소꼬리를 달거나 戟에 삭모를 달아 만든다.
 101 龍旗 : 임금이 거동할 때 행렬의 앞에 세우던 기. 누런 바탕에 용과 구름이 그려져 있으며 가장자리에 붉은 화염을 그린다. 말을 탄 장교가 깃대를 잡고 군사 4명이 깃대에 맨 줄을 한 가닥씩 잡아당기 고서 간다.
 102 啓螺宣傳官 : 계라(소리를 불어 군악이 시작되는 것을 왕에게 啓聞하는 일)를 담당하는 선전관이다.
 103 招搖旗 : 軍陣이나 행군할 때 대장이 장수들을 지휘하는 데 쓰던 신호용 군기로,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고 대장의 신분에 따라 크기, 색깔 등이 다르다.
 104 나각 : 소라껍데기로 만든 옛 군악기이다.
 105 角 : 뿔로 만든 나팔이다.
 106 水刺架子 : 정조와 자궁이 먹을 음식 재료를 신고 가는 수레이다.
 107 整理郎廳 : 혜경궁 홍씨의 조카인 洪守榮이 당시 정리 낭청으로 호종하였다.

끌고 그 뒤를 따르고, 장교와 서리가 뒤에서 수행한다. 나인 2명이 그 뒤를 따르고, 내관 2명이 그 뒤를 따르고, 검칙장교 1명이 그 뒤를 따르고, 가후 선전관 駕後宣傳官이 대를 이루고 승선선전관이 대를 이루고 별군직別軍職이 대를 이루고 별수가장관이 대를 이루어 차례대로 그 뒤를 따르고, 차지 교련관 2명이 그 뒤를 따른다. 자궁의 가교를 이끄는 말 8마리가 그 뒤를 따르고, 어갑주마 御甲冑馬¹⁰⁸ 2마리가 그 뒤를 따르고, 나인 2명이 그 뒤를 따르고, 검칙장교 1명이 그 뒤를 따르고, 근장군사 12명이 그 뒤를 따르고, 어승인마 御乘引馬¹⁰⁹ 2마리가 그 뒤를 따르고, 금군 2명이 그 뒤를 따르고, 신전수 信箭手¹¹⁰ 2명이 그 뒤를 따르고, 신전선전관 2명이 그 뒤를 따르고, 나인 2명이 그 뒤를 따른다. 자궁의 가교가 그 뒤를 따르고, 협련군 挾鞞軍¹¹¹ 80명, 무예청 총수 銃手 80명, 군뢰 軍牢¹¹² 20명, 순시기 巡視旗¹¹³ 4쌍, 영기 令旗¹¹⁴ 5쌍, 중월도 中月刀¹¹⁵ 2쌍, 별감시위 別監侍衛가 가교의 인마 머리 부분부터 좌우로 열을 나누어 자궁의 가교를 호위하면서 간다. 과총 1명과 초관 1명, 문기수 門旗手¹¹⁶ 1명은 순령기 巡令旗 앞에, 장관 2명, 장교 2명은 자궁의 가교 뒤에 있으며, 승선 선전관 1명이 그 뒤를 따르고, 의금부 도사 2명이 그 뒤를 따르고, 서리 2명, 나장 羅將¹¹⁷ 20명이 그 뒤를 따르고, 근장군사 2명, 별감 別監 6명이 그 뒤를 따르고, 대가 大駕¹¹⁸가 그 뒤를 따른다.

108 御甲冑馬 : 임금의 갑옷과 투구를 싣고 가는 말이다.
 109 御乘引馬 : 임금이 탈 예비 말이다.
 110 信箭手 : 신전(임금이 교외에 거동할 때 선전관을 시켜서 각 황에 군령을 전하는 데 쓰던 화살이다. 5개의 화살에 화살촉에는 '승' 자를 새겼고 그 아래에 '信' 자를 쓴 삼각형의 비단 조각의 표를 하나씩 나누어 달았음)을 들고 가던 군사로 생각된다.
 111 挾鞞軍 : 훈련도감에 딸려 거동 때 연(임금이나 왕비 등의 가마)을 호위하던 군사이다.
 112 軍牢 : 군대 안에서 죄인을 다루던 병졸이다.
 113 巡視旗 : 軍隊 안에서 작당하여 범죄를 저지른 자를 순찰하여 잡아올 때에 쓰는 기이다.
 114 令旗 : 군중에서 軍令을 전할 때 쓰던 기이다.
 115 中月刀 : 크기가 중간 정도 되는 偃月刀이다.
 116 門旗手 : 훈련도감에 딸려 門旗(陣門 밖에 세우던 軍旗)를 들던 군사이다.
 117 羅將 : 조선시대 관아에 속한 使令의 하나이다.
 118 大駕 : 임금이 타는 수레이다.

다. 일산 日傘, 산선 繖扇¹¹⁹이 이 뒤에서 따라가고, 통장 統長¹²⁰ 1명, 군뢰 2쌍, 홍령기 3쌍, 협마무예청 挾馬武藝廳¹²¹ 30명, 협마순뢰 挾馬巡牢 30명이 대가를 앞뒤에서 호위하면서 가고 협연군 挾鞞軍의 뒷부분¹²²까지는 걸어서 간다. 지구관 知鞞官¹²³ 1사람이 어가 앞에 서고 사령 14명, 별수가 別隨駕 3명, 당상내승 堂上內乘¹²⁴ 1사람이 위내 衛內¹²⁵ 안에 있고, 어용복마 御用卜馬¹²⁶ 3마리가 그 뒤를 따르고, 난후초관 欄後哨官¹²⁷ 1사람이 그 뒤를 따르고, 난후야병 牙兵¹²⁸ 34명이 그 뒤를 따른다.

정리사인 사복시 司僕寺 제조 提調 이시수 李時秀, 내의원 內醫院 부제조 副提調 이만수 李晩秀가 각기 전배를 거느리고 그 뒤를 따르고, 집사와 서리가 뒤에서 수행한다. 청연군주 淸衍郡主와 청선군주 淸璿郡主¹²⁹의 두 쌍교 雙轎¹³⁰가 그 뒤를 따르고, 궁임 宮任 2명과 외빈외 賓 2명이 두에서 따르고, 검칙장교 2명이 그 뒤를 따르고, 장용영 지구관이 대를 이루고, 제본사 除本仕¹³¹ 패장 牌將이 대를 이루고, 선기장용위 善騎壯勇衛가 대를 이루고, 주마선기 대 走馬善騎隊가 대를 이루어¹³² 차례대로 그 뒤를 따르고, 사복시 司僕寺 마적색서리 馬籍色¹³³ 書吏 1명, 대령서리 待令書吏 1명, 당별감 唐別監¹³⁴ 8명이 그

119 繖扇 : 베로 우산같이 만든 의장으로, 임금에 앞서간다.
 120 統長 : 武藝別監의 짚을 거느리는 우두머리이다.
 121 挾馬武藝廳 : 훈련도감에 소속되어 왕의 호위를 맡았던 무예청이다.
 122 뒷부분 : 원문은 '尾扇'인데 군대 행렬에서 부대의 뒷부분을 가리키는 말이다.
 123 知鞞官 : 훈련도감의 장교 계급의 한 벼슬이다.
 124 堂上內乘 : '내승'은 조선시대 內司僕寺(임금의 말과 수레를 관리하던 관청)에 소속된 관직 명칭이므로, '당상 내승'은 내승 중 당상관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생각된다.
 125 衛內 : 임금이 거동할 때 위병이 호위하는 수레의 전후좌우를 말한다.
 126 御用卜馬 : 임금이 쓸 여러 물품을 실어 나르는 말이다.
 127 欄後哨官 : 조선시대에 군대의 행진 때 행렬의 뒤끝을 경비하는 초관(한哨를 거느리는 종9품 무관 직)이다.
 128 牙兵 : 조선시대에 군사의 한 종류로, 장군 밑에서 중요한 방위의 임무를 담당한다.
 129 淸衍郡主와 淸璿郡主 : 정조의 두 동생인 청연공주(1754~1821)와 청선공주(1756~1802)이다.
 130 雙轎 : 쌍가마로, 말 두 마리가 각각 앞뒤 채를 메고 가는 가마이다.
 131 除本仕 : 조선시대에 관원이 결직된 경우에 임시로 본 벼슬의 사무를 면하게 하는 것이다.
 132 善騎壯勇衛가 …… 이루어 : 선기장용위와 주마선기대 둘 다 조선시대 장용위에 속한 마병 부대, 즉 騎兵 부대의 명칭이다.
 133 馬籍色 : 조선시대에 사복시에 딸린 부서의 하나로, 말에 관한 일을 맡아 보았다.
 134 唐別監 : 조선시대에 掌苑署 및 掖庭署 소속 관리로 임금의 시중을 담당한다.

뒤를 따르고, 병방승지兵房承旨와 각신閣臣, 주서注書, 한림각속관翰林閣屬
 官 각 1명, 사복시 첨정과 내승, 계자중관啓字中官,¹³⁵ 약물대령의관藥物待令
 醫官, 등촉방중관燈燭房中官 각 1명이 행을 나누어 그 뒤를 따르고, 가후 선
 전관이 대를 이루고 감관監官¹³⁶이 대를 이루어 그 뒤를 따르고, 인신마印
 信馬와 치중마輜重馬¹³⁷가 그 뒤를 따르고, 후상장용위後廂壯勇衛 96명은 말
 5마리씩 대를 이루어 그 뒤를 따르고, 선기장善騎將¹³⁸ 1명이 인기와 고수,
 군뢰, 갑마를 거느리고 그 뒤를 따르고, 선기대 좌초左哨가 말 5마리씩 대
 를 이루어 그 뒤를 따르고, 선기 별장 1명이 인기, 고수, 전배, 깃발, 북, 갑
 마를 거느리고 그 뒤를 따르고, 선기장 1명이 인기, 고수, 군뢰, 갑마를 거
 느리고 그 뒤를 따르고, 선기대 우초右哨가 말 5마리씩 대를 이루어 그 뒤
 를 따른다.

장용대장壯勇大將 서유대徐有大有가 큰 기치旗幟와 전배, 인, 갑마, 관이, 영
 전을 거느리고 그 뒤를 따르고, 차지 집사 2명은 앞에서, 장교와 서리는 뒤
 에서 수행한다. 아병 10명은 뒤에서 차단하고, 종사관은 전배를 거느리고
 그 뒤를 따르고, 장교 1명이 뒤에서 수행한다. 당보기, 고초기, 인기, 고수
 각 1명이 그 뒤를 따르고, 초관 1명이 중사中司와 중초中哨¹³⁹ 3대를 거느리
 고 평행平行으로 그 뒤를 따르고, 중사中司의 파총 1명이 전배를 거느리고
 그 뒤를 따르고, 초관 1명이 인기와 고수를 거느리고 그 뒤를 따르고, 중사
 와 후초 3대가 평행으로 그 뒤를 따르고, 내시 2명이 그 뒤를 따르고, 사알
 2명, 사약司藥¹⁴⁰ 2명, 의관醫官 4명, 사지事知¹⁴¹ 4명이 행렬을 나누어 그 뒤

135 啓字中官 : 조선시대에 啓字印(임금의 도장의 하나이다. '啓'자를 새긴 나무 도장으로, 임금의 계가를 받은 문서에 찍음)을 관리하는 내시로, 계자내관이라고도 한다.
 136 監官 : 조선시대에 관청이나 궁궐에서 문, 곡식 등의 출납을 맡아 보던 관리이다.
 137 印信馬 치중마輜重馬 : 각각 조선시대에 도장과 군수품을 싣는 말을 가리킨다.
 138 善騎將 : 조선시대 善騎隊(말을 잘 타는 군대)를 지휘하는 무장으로, 亞將을 임명한다.
 139 中司와 中哨 : 조선시대에 한 군영의 군대를 左部, 右部로 편성하고, 그 밑에 각각 中司, 左司, 右司를 두고, 다시 그 밑에 중사는 각각 3哨를, 좌사·우사는 각각 5초를 거느리게 하였다.
 140 司藥 : 조선시대 掖庭署에 딸린 벼슬로, 大殿 및 각 문의 열쇠를 보관하는 일을 맡아보았다. 정6품의 잡직이다.
 141 事知 : 조선시대 造紙署(종이 만드는 일을 맡아 보던 관아)의 종6품 衙門 벼슬이다.

를 따르고, 그 뒤를 따르고, 그 뒤를 따르고, 그 뒤를 따르고, 병조 금훤낭
 청禁喧郎廳¹⁴² 1명이 그 뒤를 따르고, 도승지가 그 뒤를 따르고, 승지 3명과
 사관 2명과 각신 2명이 그 뒤를 따르고, 각리閣吏¹⁴³ 2명과 근장군사 1명이
 앞에서 인도하고, 내의원 제조가 그 뒤를 따른다.

장용위제조 이명식李命植이 깃발과 북과 전배를 거느리고 그 뒤를 따르
 고, 경연관經筵官¹⁴⁴ 2명이 그 뒤를 따르고, 가후금군駕後禁軍 50명이 말 5
 마리마다 대를 이루어 그 뒤를 따르고, 표기標旗¹⁴⁵가 그 뒤를 따르고, 차비
 도총부낭청都摠府郎廳이 그 뒤를 따르고, 각 군문의 정원대령교련관政院待
 令敎鍊官과 별무사別武士 9명이 행을 나누어 뒤를 따른다.

병조판서 심환지沈煥之는 깃발과 북과 전배를 거느리고 그 뒤를 따르고,
 장교 1명이 그 뒤를 따르고, 동반東班과 서반西班 각사의 당상관과 낭청
 이 그 뒤를 따르고, 난후금군攔後禁軍¹⁴⁶ 25명이 말 5마리마다 대를 이루어
 그 뒤를 따르고, 당보기, 고초기, 인기는 손에 들고 걸어서 뒤따르고, 고수
 는 말을 타고 그 뒤를 따르고, 초관은 좌사와 전초군 3대를 이끌고 평행으
 로 그 뒤를 따르고, 좌사와 파총 1명은 전배와 깃발, 북을 거느리고 그 뒤
 를 따르고, 초관 1명은 인기와 고수를 거느리고 그 뒤를 따르고, 좌사와 중
 초군 3대는 평행으로 그 뒤를 따르고, 초관 1명은 인기와 고수를 거느리고
 그 뒤를 따르고, 좌사와 후초군 3대는 평행으로 그 뒤를 따른다.

성인을 뵈는 그림 講聖圖

11일 묘시卯時 초에 임금께서 군복軍服을 갖추고 말을 타고 나오시어 중
 양문中陽門·좌익문左翊門·신평루新豐樓를 거쳐 팔달문八達門¹⁴⁷으로 나

142 禁喧郎廳 : 조선시대 堂下官으로서 임금의 거동 때 함부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드는 사람을 단속하
 는 관원이다.
 143 閣吏 : 奎章閣의 서리이다.
 144 經筵官 : 조선시대에 국왕의 학문 지도와 강론을 위해 설치한 경연의 관직이다.
 145 標旗 : 兵曹의 主旗이다.
 146 攔後禁軍 : 행렬에서 뒤를 막는 군대로, 攔後軍이다.
 147 八達門 : 화성의 南門이다.

오셨고 향교문¹⁴⁸ 밖에서 이르러 말에서 내리셨다. 명륜당¹⁴⁹ 대차¹⁴⁸로 드시니 백관¹⁴⁹들이 이로 인하여 어가를 따르는 복색¹⁴⁹으로 성묘문¹⁵⁰ 밖에서 반열을 이루었다. 예방¹⁵⁰과 병방의 승지, 좌우사관¹⁵⁰은 복장을 조복¹⁴⁹으로 바꾸어 입었다. 임금께서는 면복¹⁴⁹으로 바꾸어 갖추어 입고 동협문¹⁵⁰으로 들어가 동쪽 계단을 올라 판위¹⁵⁰에 이르러 서쪽을 향하여 섰다가 사배례¹⁵¹를 행하셨다. 사당 안에 올라가 봉심¹⁵⁰을 끝내시고는 명륜당¹⁵²으로 돌아와 군복으로 갈아입으시고 향교문 바깥으로 나와 말에 올라 팔달문을 거쳐 신흥루로 들어가 환내¹⁵³하셨다.

친히 낙남헌에 임하여 문과·무과 합격자를 발표하는 그림

親臨洛南軒文武科放榜圖

임금께서 문묘¹⁵⁴에 이르러 하교하시기를,

“승지가 먼저 우화관¹⁵⁴에 가서 유생들이 먼저 입장하도록 하고, 시관¹⁵⁴은 예를 행하고 문제를 내걸 때 환궁을 기대려 행하라. 알성¹⁵⁵할 때 반열에 참여할 유생들은 태학에서 알성할 때 집사 유생의 예에 따라 어가를 따라 입장하게 하라.”

하셨다.

148 대차 : 나라에서 큰 행사나 의식이 있을 때 임금이 거동하여 임시로 머물던 장막이다.

149 冕服 : 임금의 정복으로, 익선관¹⁵⁰을 쓰고 곤룡포¹⁵⁰를 입은 복장을 가리킨다.

150 板位 : 문무백관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세우는 팻말로, 여기에서는 정조의 위치를 표시하는 팻말을 가리킨다.

151 四拜禮 : 네 번 절하는 의식이다.

152 明倫堂 : 성균관과 향교 등의 중앙 강당이다. 강학이 이루어지는 핵심 건물이다.

153 還內 : 임금이 쉼내의 다른 전각에서 寢殿으로 돌아오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여기에서는 정조가 화성의 숙소로 돌아온 일을 의미한다.

154 于華觀 : 화성유수부의 숙소로, 원래 이름은 八達館이었다. 왕을 상징하는 殿牌를 모신다.

155 謁聖 : 임금이 文廟에 참배하는 일이다.

행궁으로 돌아오셔서 친히 낙남헌¹⁵⁴에 임하시니, 문과독권관¹⁵⁴ 文科讀券官 좌의정 유언호¹⁵⁴ 兪彦鎬, 행 사직¹⁵⁴ 司直 심이지¹⁵⁴ 沈頤之, 예조판서 민중현¹⁵⁴ 閔鍾顯, 행 부사직 이병정¹⁵⁴ 李秉鼎, 이조판서 윤기동¹⁵⁴ 尹耆東, 병조판서 심환지¹⁵⁴ 沈煥之, 형조판서 이재학¹⁵⁴ 李在學, 공조판서 이가환¹⁵⁴ 李家煥, 대독관¹⁵⁴ 對讀官 행 부사직 채홍원¹⁵⁴ 蔡弘遠, 병조참지 정약용¹⁵⁴ 丁若鏞, 행 부사직 임희존¹⁵⁴ 任希存, 검교대교¹⁵⁴ 檢校待敎 서유구¹⁵⁴ 徐有榘, 부수찬¹⁵⁴ 副修撰 최헌중¹⁵⁴ 崔獻重, 병조정랑 홍낙유¹⁵⁴ 洪樂游, 부사과¹⁵⁴ 副司果 이희갑¹⁵⁴ 李羲甲, 부정자¹⁵⁴ 副正字 조석중¹⁵⁴ 曹錫中, 무과고관¹⁵⁴ 武科考官 판부사¹⁵⁴ 判府事 이병모¹⁵⁴ 李秉模, 호조 판서 이시수¹⁵⁴ 李時秀, 행 부호군¹⁵⁴ 副護軍 이유허¹⁵⁴ 李儒敬, 참고관¹⁵⁴ 參考官 행 부사직 이유허¹⁵⁴ 李儒慶, 부교리 서유문¹⁵⁴ 徐有聞, 선전관 이상일¹⁵⁴ 李商一과 이유엽¹⁵⁴ 李儒燁이 입시¹⁵⁴ 入侍하여, 자리에 나아가 사배례를 마치고 전殿에 올라 나아가 섰드렸다. 임금께서 심환지와 이병정에게 어제¹⁵⁶ “근상천천세수¹⁵⁶ 謹上千千歲壽賦¹⁵⁷”를 쓰도록 명하시고, 유언호에게 하교하시기를,

“이것은 치사의 말이니, 이를 알고 잘 지으라는 뜻을 응시하는 여러 유생에게 잘 알려주고, 시관은 이 제목을 가지고 우화관에 가 시권¹⁵⁴을 거두어 돌아오라.”

하셨다. 이에 응사인¹⁵⁸을 차례대로 호명하도록 명하셨다. 활쏘기 가 끝나고 과차¹⁵⁹를 위해 입시하니,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화성¹⁵⁴에서 2명을 뽑고 광주¹⁵⁴, 시흥¹⁵⁴, 과천¹⁵⁴에서 각 1명씩을 뽑으라.”

156 御題 : 임금이 직접 출제한 과거 시험 문제이다.

157 謹上千千歲壽賦 : 賦의 주제로 출제한 '근상천천세'는 정조가 이틀 뒤인 13일에 혜경궁 홍씨를 위해 마련한 進饌宴에서 지어 바친 致詞(경사가 있을 때 올리던 頌德의 글)의 구절이기도 하다.

158 應射人 : 활쏘기에 응하는 사람이다.

159 科次 : 조선시대에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의 성적에 따른 순위를 매기는 일이다.

하셨다. 시권을 살펴 봉미封彌를 뜯어내고,¹⁶⁰ 문과에서 최지성崔之聖 등 5명을, 무과에서 김관金寬 등 56명을 뽑았다.

미시未時 정각에 방방放榜¹⁶¹ 할 때가 다가오자 종친과 문무백관이 각기 용복戎服을 입고 거인擧人¹⁶²은 공복公服을 입고서 1각 전에 입시하여 자리에 나아갔다. 이조와 병조의 정랑이 방榜과 흥패함을 각기 상에 올려두었다. 임금께서 용복에 깃을 꿇고 나와 어좌御座에 오르시자 문무백관이 사배례를 끝내고 반열로 돌아가 서로를 향해 섰다. 문무과 방방관放榜官¹⁶³이 동쪽과 서쪽 계단에서 나뉘어 올라와 각자 자리에 나아가고, 승지 두 사람이 나아가 어좌 앞에 무릎을 꿇고 방방을 아뢰고 부복俯伏¹⁶⁴한 뒤 일어나 좌우로 나뉘어 나가 각기 문, 무과 방방관의 북쪽에 가 서쪽을 향해 서고, 집사자 4명은 문무과 방안榜案¹⁶⁵을 마주 들고 그를 따랐다. 승지가 각기 방을 취하여 방방관에게 주고, 방방관은 무릎을 꿇고 받은 뒤 서서 마주하고 펼치면 승지는 모두 돌아가 모시는 자리로 돌아왔다. 문과 방방관이 1등을 외치자 거인이 왼쪽에서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고, 무과 방방관이 1등을 외치자 거인이 오른쪽에서 들어와 자리에 나아갔다. 차례로 사이를 두고 외치는 것이 끝나자 방방관은 물러나고 거인이 사배례를 행하며, 이조와 병조의 정랑은 각기 방안의 남쪽에 나아가 서로를 향해 섰다.

승지 두 사람이 어좌 앞에 나아가 부복한 뒤 하교를 받든 뒤 좌우로 나뉘어 나와 각기 이조와 병조 장랑의 북쪽에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서고, 집사자가 문무과 흥패안을 마주 들고 그를 따랐다. 승지가 각기 흥패함을 취하여 정랑에게 주고, 정랑은 무릎을 꿇고 받은 뒤 일어서서 동쪽과 서쪽 계

160 封彌를 뜯어내고 : 원문은 '扉名'인데, 과거에 급제한 답안지의 봉미(답안지 오른편 끝에 응시자의 인적사항을 적고 봉하여 붙인 것)를 뜯어내고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61 放榜 : 과거 급제자를 발표하는 것. 이와 더불어 합격자에게 합격 증서인 흥패와, 어사화를 하사하는 의식을 放榜禮라 한다.
 162 擧人 : 원래 科擧에 응시하는 사람을 '거인'이라 부르는데, 여기에서는 합격자를 가리킨다.
 163 放榜官 : 과거 급제자의 이름을 발표하는 벼슬아치이다.
 164 俯伏 :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는 예절이다.
 165 榜案 : 급제자 명단인 榜을 올려놓은 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단으로 내려가 거인들에게 하사하고, 다음으로 어사화御賜花와 술과 안주를 하사하고, 다음으로 개蓋¹⁶⁶를 하사하였다. 거인들이 사배례를 행하고 마차나 나왔다.

대치사관代致詞官¹⁶⁷이 앞으로 나아가 어좌 앞에서 다음과 같이 치사하였다.

정사政事를 의논하는 구관具官¹⁶⁸ 신된 아무개 등이 이번에 하늘이 열리고 운수가 좋은 때를 만나 현명하고 뛰어난 사람들을 등용하였으니, 예식을 마땅히 축하할 일이다.

축하가 끝나자 종친과 문무백관이 사배례를 행한 뒤 나갔고, 임금께서 어좌에서 내려와 악차輻次¹⁶⁹로 드셨다.

자궁을 모시고 현릉원에 가시는 그림 陪慈宮詣顯隆園圖

12일 인시寅時 정각에 임금께서 자궁을 모시고 현릉원顯隆園에 가시는데, 군복軍服을 갖추어 입고 말에 오르셨으며 자궁은 가교駕橋¹⁷⁰를 타고 출발하셨다. 중앙문中陽門, 좌익문左翊門, 신평루新豐樓를 거쳐 팔달문八達門으로 나오시어 상류점점上柳川店 앞길에 이르러 자궁의 어가를 모시고 잠시 쉬면서 미음과 차를 올리셨다. 약방제조藥房提調¹⁷¹ 심환지沈煥之에게 앞으로 나오라 명하여 하교하시기를,

“자궁의 체후體候가 도중에는 줄곧 건강하시어 경사스럽고 다행스러움을 이기지 못하였는데, 얼마 뒤 가마 앞에서 안부를 여쭙 때에는 옥음이 고르지 않

166 蓋 : 日傘의 일종으로, 儀仗의 한 가지이다.
 167 代致詞官 : 致詞를 대신 읽는 사람을 가리킨다.
 168 具官 : 구체적인 官爵을 생략하고 대신 쓰는 표현이다.
 169 輻次 : 임금이 거동할 때 잠깐 쉴 수 있도록 장막을 친 곳이다.
 170 駕橋 : 임금이 타는, 특별히 꾸민 가마이다.
 171 藥房 提調 : '약방'은 內醫院의 다른 이름이고, '제조'는 관청의 우두머리가 아닌 사람이 그 관아의 일을 다스리게 하던 벼슬로, 종1품 또는 종2품의 관리가 맡을 때 제조라 하였다.

아 자궁의 체후가 편치 못하심을 우러러 알 수 있으니 참으로 헤아릴 수 없이 답답한 일이다. 경은 먼저 원소園所에 가서 자궁께서 복용하실 삼령차¹⁷² 한 첩을 즉시 달여 놓고 기다리라.”

하시고는 출발하시어 하류천¹⁷³, 황교¹⁷⁴, 웅봉¹⁷⁵, 대황교¹⁷⁶, 유첨현¹⁷⁷을 지나 유근교¹⁷⁸ 앞길에 이르러 여러 신하 및 장관 이하에게 모두 말에서 내리라고 명하셨다. 만년제¹⁷⁹를 지나 동구¹⁸⁰에 이르러 하교하시기를,

“시위¹⁸¹하는 사람과 말은 화소¹⁸² 근처에 난입하여 나무를 손상시키지 말도록 하라.”

하셨다. 임금께서 먼저 재실¹⁸³ 바깥 막차에 가 자궁의 어가를 맞이하여 재실로 들어가, 임금께서 친히 삼령차를 받들어 자궁께 올리셨다. 참포¹⁸⁴와 오서대¹⁸⁵로 갈아입으시고 작은 수레에 오르시고, 자궁은 덮개가 있는 작은 수레에 올라 원園 위에 이르셨다. 두 군주가 자궁을 따라 장막 안에 들어가자마자 비통함이 절도¹⁸⁶를 벗어나 옥음이 바깥에까지 들렸다. 임금께서 정리소에 명하여 삼령차를 올리게 하였으나 자궁께서 복용하기를 허락하지 않으시니 임금께서 또한 당황스러워 하며 걱정하셨다. 정리사 등이 장막 바깥에서 아뢰기를,

“성상¹⁸⁷의 마음을 비록 매우 억누르기 어렵사오나 자궁의 마음이 더욱 슬퍼져 자궁의 체후가 혹시라도 평온함을 잃게 될 것을 어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172 삼령차 : 인삼과 복령을 달여 만든 차로, 원기회복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73 화巢 : 산불을 막기 위해 능원, 묘 등의 해자 밖에 있는 풀과 나무를 불살라 버린 곳이다.
 174 驂袍 : 제사 때 임금이 입는 얼은 청색 옷이다.
 175 烏犀帶 : 코뿔소의 뿔로 장식한 허리띠로, 주로 상복에 착용하였다.

까. 하물며 날이 이미 저물려 하니, 엎드려 바라건대 너그러이 위로하는데 온통 힘쓰시어 어가를 돌리도록 명하시옵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씀하시기를,

“궁을 나설 때 자궁께서 매우 너그러이 억누르겠다고 하교하셨는데, 여기에 이르러 비통한 마음이 절로 가슴 속에서 생겨나니, 나도 이미 스스로 억누르지 못하거늘 하물며 자궁의 마음이라.”

하시고는 이에 친히 찻잔¹⁸⁸을 받들어 드시기를 권하셨다. 참배하실 때 친히 제사지내는 일과 사원례¹⁸⁹는 모두 안에서 예식을 행하였다. 잠시 뒤 자궁의 어가를 모시고 홍살문 밖에 이르러 수레를 멈추라 명하시고는 능위를 한참 바라보시다가 수레를 돌리셨다. 하류천에 이르러 잠시 쉬면서 미음을 올리시고, 각신과 승지, 사관에게 음식을 하사하셨다. 이에 출발하여 팔달문으로 들어가 신평루를 지나 자궁을 모시고 장락당으로 들어가셨다.

봉수당에서 진찬연을 여는 그림 奉壽堂進饌圖

13일, 임금께서 봉수당에 나아가 자궁께 음식을 올리실 때가 이르러, 정리 대신 이하가 융복을 갖추어 입고 여러 위병¹⁹⁰들을 감독하여 전문¹⁹¹ 바깥마당에 늘어서고, 의장¹⁹²은 전의 마당 좌우에 배열하며, 산선¹⁹³, 청개¹⁹⁴, 홍개¹⁹⁵, 정절¹⁹⁶, 봉선¹⁹⁷, 작선¹⁹⁸ 각 2개씩을 기둥

176 찻잔 : 원문은 '茶種'인데, 차를 따라 마시는 종지를 뜻한다.
 177 辭園禮 : 능침을 하직할 때 올리는 예식이다.
 178 繼扇 : 베로 우산같이 만든 의장으로, 임금에 앞서간다.
 179 靑蓋 : 푸른 생초를 써 만든 일산 모양의 의장. 용이나 학 모양을 그려 넣었다. 붉은 김으로 감싼 일산 모양 의장은 紅蓋라 부른다.
 180 旒節 : 使者가 들고 가는 의장이다.
 181 鳳扇 : 긴 대나무 자리가 달린 부채 가장자리에 쇠를 두르고 녹색 실로 꿰맨 뒤 붉은 비단 바탕에 봉황을 그려 넣은 의장이다.

옛을 물고¹⁹⁵ 나는 장락당長樂堂에 봄에 머물고 舍飴駐我長樂春
 성현을 축수하니 너 화봉인華封人 오게 하였네. (상商) 祝聖徠汝華封人

봄이 긴 장락당에서 말술 따르니 즐거워라 春長樂酌斗
 화봉인의 세 가지 축복으로 어머니 장수 기원하네. (각角) 華祝至三壽母

자식 돕고 손자 보내시니 그 공 어찌 그리 높으신가. 翼子諭孫功何巍
 수많은 복록福祿 밝게 빛나네. (치微) 穰穰福祿光輝

함지咸池의 북과 운문雲門의 금琴 咸池鼓雲門琴
 옥장玉漿과 영액瑤液¹⁹⁶ 해마다 따르리. (우羽) 玉漿瑤液年年斟

창을 마치자 내려가 자리로 돌아갔다.
 여집사(통찬)가 임금을 인도하여 주렴 바깥에 이르니 여관(상궁)이 이
 어서 인도하여 수주정壽酒亭¹⁹⁷ 남쪽에 이르러 북쪽을 향하여 서시고 음악
 은 「여민락 령」을 연주하였다. 여관(상식)이 수주壽酒¹⁹⁸를 따라 무릎을 꿇
 고 임금께 올리니 임금께서 잔을 받아 자궁의 자리 앞에 이르러 무릎을 꿇
 고 잔을 여관(상식)에게 주시니 여관이 전하여 받들어 자리 앞에 두었다.
 여집사가 임금을 인도하여 나와 주렴 바깥에 이르시니 여집사(통찬)가 앞
 에서 인도하여 배위에 이르러 북쪽을 향해 무릎을 꿇었다. 여집사(대치사
 代致詞¹⁹⁹)가 임금의 배위 앞에 나아가 북쪽을 향해 무릎을 꿇고 다음과 같
 이 치사하였다.

195 옛을 물고 : 원문은 '舍飴'인데, 옛을 입에 물고 녹여서 손자에게 먹인다는 뜻으로 노년에 손자와 즐겁
 게 노는 것을 의미한다. (『後漢書』 「皇后紀」 참조)
 196 玉漿과 瑤液 : 둘 다 신선이 마신다고 전해는 신화 속의 음료로, 맛있는 술을 비유하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다.
 197 壽酒亭 : 국가의 경사스러운 잔치에서 술잔을 올려놓는 탁자이다.
 198 壽酒 : 장수를 기원하는 술이다.
 199 代致詞 : 致詞를 대신해 읽는 벼슬이다.

국왕은 삼가 건륭乾隆 60년 윤二月 13일을 맞이하여, 효강 자회 정선 휘목
 혜민孝康慈禧貞宣徽穆惠嬪²⁰⁰ 저하邸下께옵서 왕실의 아름다운 덕을 이으시어 바
 닷가 집에 산가지를 더하는²⁰¹ 장수를 받으시고 복이 자손들에게 흐르며 경사
 가 어머니께 미쳤습니다. 삼가 빛나는 자리에 모시고 공경히 술잔을 따라 바
 치니, 어머니의 연세를 알아²⁰² 매우 기쁘며 송축의 소리 산과 같이 울려 퍼집
 니다. 아아, 즐겁도다. 이 연회에 만물이 모두 모였으며, 화창한 봄날 맞이하
 여 하늘의 도움에 보답합니다. 어머니²⁰³은 더욱 장수하시어 큰 복 받으시리
 니,²⁰⁴ 태평한 만 년 억 년 끝없이 유구하리라. 경하하는 마음 이기지 못하여
 삼가 천천세千千歲 장수를 기원하는 마음 바칩니다.

치사가 끝나자 여집사(통찬)가 임금을 인도하여 주렴 바깥에 이르렀고,
 여관(상궁)이 이어받아 인도하여 전 안의 옥위褥位²⁰⁵로 나아가 무릎을 꿇
 었다. 여관(상궁) 자궁의 자리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선지宣旨²⁰⁶를 아
 뢰기를,

“전하와 더불어 경사스러운 일을 함께 하옵습니다.”

라고 하였다. 자궁께서 잔을 드시니 음악은 「여민락」과 「천세만세곡千歲萬
 歲曲」을 연주하였다. 여관(상식)이 나아가 빈 잔을 받고 수주정에 다시 놓

200 孝康慈禧貞宣徽穆惠嬪 : '효강자회정선휘목'은 혜경궁 홍씨(헌경왕후)의 尊號이고 '혜민'은 別號이다.
 201 바닷가 …… 더하는 : 원문은 '海屋'인데 이는 '海屋添籌(籌添으로도 씀)'의 줄임말로, 어떤 노인이 바
 닷물이 쏠림으로 변할 때마다 집에 산가지를 하나씩 던져 넣던 것이 세 칸 집에 가득 찼다고 한 데서
 연원하여 장수를 축하하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된다. (『東坡志林』 참조)
 202 연세를 알아 : 『論語』 「里仁」권의 "부모님의 연세는 알지 않을 수 없다.(父母之年, 不可不知也)" 부분
 을 의식한 표현으로 생각된다.
 203 원문은 '萱暉'인데, '어머니의 처소가 빛난다.'는 뜻이다. 옛날에 어머니의 처소를 '원당'이라 한 데서
 비롯되었다.
 204 받으시리니 : 원문은 '誕受'인데 접수 또는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書經』 「微子之命」권에서 "하늘이
 보우하시라 그 명을 받아들이다노라.(皇天眷佑, 誕受厥命)"라고 한 데서 연원한 표현이다.
 205 褥位 : 요를 깔아 놓은 임금의 자리이다.
 206 宣旨 : 詔書를 일컫는 말이다.

고 음악을 멈추었다. 여관(상식)이 임금을 인도하여 나와 주렴 밖에 이르고, 여집사(통찬)가 앞으로 인도하여 배위에 이르러 무릎을 꿇는다. 여집사(찬장)가 삼고두삼叩頭²⁰⁷를 외치니 임금께서 세 번 머리를 조아리셨고, 산호山呼²⁰⁸를 외치니 임금께서 손을 맞잡아 이마에 대고는

“천세千歲.”

라 하셨고, 산호를 외치니

“천세.”

라 하셨고, 다시 산호를 외치니

“천천세千千歲.”

라 하셨다. 무릎 머리를 조아리고 산호를 외치는 것은 의빈과 척신과 백관 및 명부의 여관女官 이하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일제히 소리 내어 호응하였다.

임금께서 재배하실 때 음악은 「낙양춘곡」을 연주하였고 의빈과 척신, 백관이 모두 재배하자 음악을 멈추었다. 여집사(통찬)가 임금을 인도하여 주렴 바깥에 이르면 여관(상궁)이 이어받아 인도하여 전 안의 옥위에 나아간다. 여집사가 의빈과 척신을 인도하여 각기 모시는 자리로 나아가고, 여관(전찬)이 ‘궤蹠’을 외치자 임금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내외 명부와 의빈, 척신, 백관이 무릎을 꿇었다.

207 三叩頭 : 세 번 머리를 조아리는 의식이다.

208 山呼 : ‘山呼萬歲’ 또는 ‘山呼千歲’의 줄임말로, 임금에게 축하하는 뜻으로 만세를 세 번 외치는 일을 가리킨다.

정리사가 임금께 휘건을 올리니 음악은 「여민락 령」을 연주하였고 올리는 것이 끝나자 음악을 멈추었다. 다음으로 찬안饌案²⁰⁹을 올리니 음악은 「여민락 만」을 연주하였고 올리는 일이 끝나자 음악을 멈추었다. 다음으로 꽃을 올리니 음악은 「여민락 령」을 연주하였고 올리는 일이 끝나자 음악이 그쳤다. 여관(전빈)이 내, 외명부의 찬탁饌卓을 설치하고 여집사는 의빈과 척신의 찬탁을 설치하였다. 여관과 여집사가 꽃을 흩뿌리고 집사는 술과 음식을 배풀고 꽃을 뿌렸다. 정리사 1명이 중앙문中陽門 밖으로 나가 음식을 살피고 점검하였고, 승지와 병조 판서가 동쪽과 서쪽의 반열을 가지런히 정비하였으며, 각 영궐의 장수와 병졸, 각 사司의 관리와 노비들에게 모두 차등을 두어 음식을 나누어 주는데 각기 꽃 한 송이씩을 꽂았다.

인위가 이끌어 백관을 모시고 나와 자궁계 탕을 올리니 음악은 「여민락 만」을 연주하였고 올리는 일이 끝나자 음악을 멈추었다.

첫 번째 잔을 올릴 때 「헌선도獻仙桃」²¹⁰를 공연하고 음악은 「여민락」과 「환환곡桓桓曲」을 연주하였다. 여관(상궁)이 임금을 수주정으로 인도하고, 여관(상식)이 무릎을 꿇고 임금께 수주를 따르니 임금께서 잔을 받아 자궁의 자리 앞에 가 무릎을 꿇고 잔을 여관(상식)에게 주셨다. 여관이 잔을 받아 자궁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니 자궁이 잔을 들어 올리기를 마치고서 여관에게 잔을 주시자 여관(상식)이 무릎을 꿇고 잔을 받아 임금의 주정酒 후에 가 잔羞으로 술을 따라 자궁께 올렸다. 자궁께서 잔을 받아 여관에게 주자 여관이 무릎을 꿇고 잔을 받아 임금의 앞에 올리니 임금께서 잔을 받아 들고 마신 후 부복하고 일어나셨다. 주정에 이르러 여관이 무릎을 꿇고 잔을 받고 임금께서 자리로 돌아가셨다. 여관(전빈)이 내명부와 외명부에 술을 돌리고 여집사는 의빈과 척신에게 술을 돌렸다. 임금께 탕을 올리고 여관과 여집사가 내명부와 외명부 및 의빈과 척신에게 나누어 탕을 드렸

209 饌案 : 進宴 때 임금에게 올리던 음식상이다.

210 獻仙桃 : 고려 때 들어온 唐樂呈才(宋나라에서 유래한 궁중무용)의 하나로, 정월 보름 밤의 연회에 임금을 송축하기 위해 王母가 仙界에서 내려와 선계의 복숭아(仙桃)를 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 공연이 끝나자 음악을 멈추었다.

임금께서 다시 두 번째 잔을 올리시니 「금척金尺」²¹¹과 「수명명受明命」²¹²과 「하황은荷皇恩」²¹³을 공연하고 음악은 「여민락」과 「청평악淸平樂」²¹⁴을 연주하였다. 앞의 의례儀禮와 마찬가지로 탕을 올리고 술을 돌렸다. 공연이 끝나자 음악을 멈추었다.

세 번째 잔부터 네 번째 잔까지는 자궁의 뜻으로 명부 및 외빈인 영의정 홍낙성洪樂性, 광은부위光恩副尉 김기성金箕性이 삼가 세 번째 잔을 올렸다. 「포구락抛毬樂」²¹⁵과 「무고舞鼓」²¹⁶를 공연하고 음악은 「여민락」과 「오운개서조곡五雲開瑞朝曲」²¹⁷을 연주하였다.

네 번째 잔을 올릴 때 「아박牙拍」²¹⁸과 「향발響鉞」²¹⁹을 공연하고 음악은 향악기鄕樂器와 당악기唐樂器의 협주로 「천세만세곡千歲萬歲曲」²²⁰를 연주하였다.

다섯 번째 잔을 올릴 때 「학무鶴舞」²²¹를 공연하고 음악은 「여민락」과 「유황곡惟皇曲」²²²를 연주하였다.

여섯 번째 잔을 올릴 때 「연화대蓮花臺」²²³를 공연하고 음악은 「여민락」과

「향항곡恒恒曲」를 연주하였다.

일곱 번째 잔을 올릴 때 「수연장壽延長」를 공연하고 음악은 「여민락」과 「하운봉곡夏雲峯曲」²²⁴을 연주하였다. 공연이 끝나자 음악을 멈추었다.

「處容舞」를 공연하며 음악은 향악기와 당악기의 협주로 「정음악井邑樂」과 「여민락與民樂」을 연주하였다. 「침수무尖袖舞」를 공연하며 「낙양춘洛陽春」을 연주하였다. 공연이 끝나자 다시 외빈인 동돈녕 홍낙신洪樂信 등 세 사람이 차례대로 축수를 바쳤다. 음악이 그치자 여령 두 사람이 나아가 주렴 바깥에 이르러 가운데에서 동서로 나뉘어 북쪽을 향해 서서 다음과 같이 어제御製 악장을 불렀다.

자궁의 덕 순수하셔라	慈德之純
두터워 만물을 싣고 있으니 ²²⁵ 이름하기 어렵네	厚載難名
넓고 인자한 마음 조용히 움직여	默運弘慈
태평성대 도와 여섯구나 (궁舊)	佑啓太平

온갖 복록 모여들어	百祿是遒
그 이르는 것 냇물과 같으니	其至如川
자손들은 번성하고	子孫振振
경사는 해마다 일어나리라 (상齋)	吉慶年年
북두성처럼 이름답고 ²²⁶	如斗之郤
송산崇山같이 높으시네	如嵩之高
옥책玉冊에 상서로움 기록하고	瑤冊紀瑞

211 金尺 : 조선 초에 만들어진, 당악정제의 하나인 '夢金尺'을 가리키는데, 鄭道傳이 太祖의 공덕을 칭송하기 위해 만든 樂章「몽금척」을 舞曲으로 꾸민 것이다.
 212 受明命 : 조선 태종 2년(1402)에 河崙이 太宗에게 지어 바친 악장을 정제화한 당악 정제이다. 태종이 명나라로부터 왕으로 인정받은 사실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213 荷皇恩 : 조선 세종 1년(1419)에 卞季良에게 명하여 짓게 한 「하황은곡」을 정제화한 당악 정제이다. 사신을 접대하는 자리에서 쓰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214 淸平樂 : 고려시대에 송나라에서 전래된 詞樂이다. 昇平을 구가하고 임금을 축수하는 내용이다.
 215 抛毬樂 : 송나라에서 전래한 당악정제의 하나로, 공 던지기 놀이[抛毬戲]를 형상화한 춤이다.
 216 舞鼓 : 고려 때부터 전해지는 향악정제의 하나로, 忠烈王 때 李混이 유배되었을 때 바닷가에서 얻은 뗏목으로 큰 북을 만들어 이를 연주하며 춤추었던 데서 기원했다고 전해진다.
 217 五雲開瑞朝曲 : 당악 정제의 반주 음악의 하나이다.
 218 牙拍 : 고려 때에 만들어진 궁중 무용의 하나로, 이에 대한 반주가 「動動」이다.
 219 響鉞才 : 조선시대 궁중 정제인 響鉞舞를 가리킨다. 심벌즈와 유사하게 생긴 향발을 가지고 춤을 춘다.
 220 千歲萬歲曲才 : 당악 정제의 반주 음악의 하나이다.
 221 鶴舞 : 향악 정제의 하나로 연못에서 노는 학을 형상화한 춤이다.
 222 惟皇曲 : 1433년(세종 15)에 제사에 쓰이기 위해 지은 악장에 춤을 더한 것이다.
 223 蓮花臺 : 고려 때부터 전해지는 당악 정제의 하나로, 蓬萊에서 내려온 두 童女가 연꽃술로 태어났다. 임금의 덕에 감격하여 가무로 報恩하는 내용이다.

224 夏雲峯曲 : 송나라의 詞樂으로, 「고려사」 「樂志」에 실려 전한다.
 225 두터워……있으니 : 「周易」 坤卦에서 "땅은 두터워 만물을 이고 있으니 덕이 無疆함에 부합한다. (坤厚載物, 德合無疆)"라고 한 데서 연원한 표현이다. 혜경궁 홍씨는 여성이므로 그 덕을 陰과 여성을 상징하는 곤괘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226 이름답고 : 원문은 郤인데 여기에서는 勗의 의미로 쓰여 '이름답다'로 번역하였다.

춘주春酒²²⁷로 연모燕毛²²⁸ 벌이네 (각角) 春酒燕毛

아, 자궁의 덕이여 於休慈德

이 화갑花甲 맞이하시어 撫茲花甲

이때에 화華 땅을 시찰하시니 時觀于華

사물의 채색 주변을 둘러쌌네 (치微) 物采匝匝

이 새 고을 즐거우니 樂此新邑

노랫소리 집집마다 더해가네 謠頌戶增

만 년 억 년토록 維萬維億

해와 달 항상 떠오르리라 (우羽) 日月恒升

부르기를 마치고는 내려와 자리로 돌아갔다.

임금께서 흥낙성 등에게 하교하시기를,

“나 소자小子가 몇 년 동안 바란 것이 오늘 잔을 올리는 일이었는데, 날씨는 맑고 온화하며 자궁의 체후는 강녕康寧하니 기쁘고 경사스러운 마음을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

하니 흥낙성 등이 말하기를,

“만 년의 화축華祝이 이 해 이 날에 더욱 절실하고, 일진日辰은 길하고 좋으며 화려한 의식은 순조롭게 이루어졌으니, 성상聖上의 효성이 전해진 바 아님이

없습니다. 경사스러운 모임에 외람되게도 배종陪從하게 된 것은 신 등의 행운입니다.”

하였다.

여관(상식)이 나아가 자궁 앞과 임금 앞에서 상을 치우니 음악은 「여민락 만」을 연주하였다. 여관 및 여집사가 명부 및 의빈과 척신의 탁자를 치우고서 음악을 멈추었다. 여관(전찬)이 일어나도 좋다고 하고, 여관(상궁)이 임금을 인도하여 나와 주렴 바깥에 이르고 여집사(통찬)가 앞에서 인도하여 배위에 이르렀다. 여집사는 의빈과 척신을 이끌고 내려와 배위에 나아가고, 음악은 「낙양춘」을 연주하였다. 임금이 두 번 절하고 의빈과 척신이 두 번 절하니 음악을 멈추었다. 여집사(통찬)가 인도하여 임금이 나가시니 음악은 「여민락 령」을 연주하였고, 합문 안에 이르러 음악을 멈추었다. 여집사가 의빈과 척신을 나누어 이끌고 나가고 여관(전빈)은 내명부와 외명부를 나누어 이끌고 다시 배위로 나아가는데, 음악은 「낙양춘」을 연주하였다. 내명부와 외명부가 두 번 절하니 음악을 멈추었다. 여관(전찬)이 나아가 자궁의 자리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예식이 끝났음을 아뢰었고, 여관(전빈)이 내명부와 외명부를 나누어 이끌고 나갔다. 자궁께서 자리에서 내려오니 음악은 「여민락 령」을 연주하였고, 다시 합문 안에 이르시자 음악을 멈추었다.

임금께서 어제시御製詩²²⁹를 써서 내려주시기를,

성대한 복 풍족하니 새로이 명을 맞이해야지 弗祿穰穰迓命新
생황과 통소 불며 청춘에 머무는구나 鳳笙鑾吹駐青春
땅은 화華 지역 살피는데 부합하니 地符觀華騰三祝

227 春酒：三亥酒라고도 하며, 음력 정월 上亥日에 찹쌀죽을 밀가루와 반죽해 독에 넣고, 中亥日에 찹쌀가루와 팥쌀가루를 쪄 독에 넣고, 下亥日에 흰쌀을 쪄 독에 넣어 빚은 술. 『詩經』 「七月」 편에서 “이 춘주 빚어 정수를 돌네.(爲此春酒, 以介眉壽)”라고 한 데서 연원하여 장수를 기원하는 축수의 술로 쓰인다.

228 燕毛：잔치를 할 때 머리털 색으로 앉는 차례를 정하는 것 또는 그 잔치를 의미한다. 『中庸章句』 제19 장 참조)

229 御製詩：임금이 직접 지은 시이다.

세 가지 축원 날아오르고²³⁰

해는 유흥절流虹節 ²³¹ 에 이르러 육순에 올랐네	歲屆流虹躋六旬
안팎의 손님들은 꽃나무 숲에 모였고	內外賓仍芳樹會
동반東班 서반西班은 꽃보다 나은 사람들이네	東西班是勝花人
해마다 그저 오늘 같기를 원하니	年年只願如今日
장락당長樂堂 안에서 술이 몇 번이나 돌았는가 ²³²	長樂堂中酒幾巡

라 하시고는 연회에 참여한 여러 신하들에게 이어서 지어 바치도록 하였다. 정리 제신整理諸臣에게 하교하시기를,

“오늘의 예식은 참으로 천 년에 처음 있는 경사인데, 돌아오는 갑자년은 자궁의 칠순이 되니 그때 현릉원에 참배하고 진찬進饌하는 일을 또한 마땅히 오늘과 같이 해야 하겠다. 오늘 썼던 탁자와 술잔 등의 도구를 화성부華城府에 보관해 두고 십 년 후에 다시 돌아올 일을 기다리게 하라.”

하였다.

신평루에서 쌀을 하사하시는 그림 新豐樓賜米圖

14일, 임금께서 친히 신평루에 오셔서 백성들에게 쌀을 하사하시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죽을 먹이셨다. 장차 궁을 나서려 할 때 하교하시기를,

“본부本府의 일반 백성과 굶주린 백성들이 그 숫자가 4,819명이라고 하니, 쌀

230 華……날아오르고 : 요 임금이 華 땅을 시찰할 적에 화 땅의 封人이 요 임금에게 아뢰기를 “아, 성인을 축원하노니, 성인께서 장수하고 부유하고 아들 많이 두게 하소서.(噫, 請祝聖人, 使聖人壽富多男子)”라고 한 일을 활용한 표현이다.(『莊子』, 『天地』편 참조)

231 流虹節 : 임금의 탄신일을 뜻한다. 黃帝의 아들 少昊氏는 어머니 女節이 무지개같은 별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감응하여 잉태하였다고 한 데서 유래한 표현이다.

232 이 작품은 정조의 『弘齋全書』 권6에 「華城進饌日口占, 示與宴諸臣, 以寓萬年祝岡之誠」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을 하사할 때 승지承旨를 나누어 보내라고 한 것은 이미 명을 내렸다. 가승지假承旨 이유경李儒敬은 사창社倉²³³으로, 조진관趙鎭寬은 산창山倉으로, 홍인호洪仁浩는 해창海倉으로 가라고 한 것은 이미 먼저 어제 하교하였다. 일일이 효유曉諭²³⁴한 것은 저들로 하여금 자궁慈宮의 은혜로 쌀을 하사하고 죽을 먹여줌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한결같이 친림親臨함은 혹시라도 소홀하거나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성 안팎의 백성들 및 진휼할 백성들에게는 내가 마땅히 친림하여 나누어 줄 것이다.”

하셨다. 또 하교하시기를,

“굶주린 백성과 일반 백성에게 죽을 먹이고 쌀을 하사하는 일은 일제히 거행하되 쌀 부대를 먼저 옮겨 누각 아래에 두었다가 나누어줄 때 시끄럽지 않게 하라. 시간이 아직 이르니 혹 오지 못한 자들에게도 차례로 알려주어 한 사람이라도 혹 빠뜨리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때가 되자 임금께서 융복을 입고 말에 올라 나와 신평루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자리에 오르셨다. 승지와 사관史官과 시위侍衛하는 자들은 평상시 의례대로 하였다. 본부本府의 관장 정동협鄭東協이 일반 백성 50구口와 굶주린 백성 261구를 거느리고 종종걸음으로 들어오니 쌀을 하사하고 죽을 먹이라 명하셨다. 승지 이조원李肇源에게 하교하시기를,

“너는 아래로 가서 쌀은 배로 주고 죽은 균등하게 먹이며, 쌀을 하사하고 죽을 먹이는 것이 모두 자궁의 은혜에서 나온 뜻임을 여러 백성들에게 효유하라.”

233 社倉 : 조선시대에 還穀을 저장해 두던 창고이다.

234 曉諭 : 깨닫도록 알려 주다.

하시고, 또 하교하시기를,

“선전관은 죽 한 그릇을 가지고 오라. 내가 직접 어떠한지 볼 것이다.”

하셨다.

이에 흠아비 20구, 과부 24구에 각각 쌀 6말, 고아 6구에 각각 쌀 1말, 진
흠할 백성 중 장년壯年인 남자 38구에 각각 쌀 1말 2되와 소금 8홉, 노인인
남자 56구와 장년인 여자 41구, 노인인 여자 71구에 각각 쌀 1말, 소금 8
홉, 약한 남녀 55구에 각각 쌀 8되와 소금 6홉을 하사하고, 각 창을 건주
어 쌀과 소금을 배로 지급하였다.

임금께서 좌승지 이만수李晩秀에게 하교하시기를,

“지금 바야흐로 양로연을 베푸는 것은 노인을 높이라는 뜻에서이니, 노인들
이 오랫동안 바깥에서 더디게 기다리도록 할 수 없다. 내 장차 낙남현으로 돌아
가려 하니, 경은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와서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일일이 죽
을 먹이고, 비록 혹 늦게 오거나 때에 맞추지 못하는 자가 있더라도 절대 식은
죽을 먹이지 말라. 직접 살피고 점검하여 혹여라도 소홀히 하지 말도록 하라.”

하셨다. 잠시 뒤에 낙남현으로 돌아가셨다.

낙남현에 친히 임하시어 양로연을 베푸시는 그림 親臨洛南軒養老宴圖
임하여 행차하실 시기가 정해지고 먼저 고을의 조정 관리 중 나이가 70
세인 사람, 사士와 서인庶人 중 나이가 80세인 사람, 조정 관리와 사, 서인
중 나이가 61세인 사람 등 여러 노인들에게 연회에 참석하도록 명하였다.

14일 진시辰時, 이엄을 올리자 선전관이 고수鼓手와 악사樂師를 거느리
고 들어와 깃발을 드는 자리에 섰다. 삼엄을 올리자 인의가 3품 이하의 여

러 노인들 및 서인庶人인 화성의 노인들을 이끌었는데, 전 참의 이석조李
奭祚 등 384인이 지팡이를 짚거나 부축을 받고 들어와 자리로 나아갔다.
좌통례가 외관外辦²³⁵을 아뢰자 임금께서 융복을 갖추어 입고 낙남현에 남
시었다. 선전관이 깃발을 들고 음악은 「여민락 령」을 연주하였다. 향로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평상시의 의례처럼 일산과 부채로 시위侍衛하였다. 음
악이 그치지 인의가 여러 노인들 중 2품 이상으로 어가를 수행한 노인 영
의정 홍낙성洪樂性, 우의정 체제공蔡濟恭, 영돈녕 김이소金履素, 판부사 이
명식李命植, 판돈녕 이민보李敏輔, 수어사 심이지沈頤之, 행 도승지 이조원
李祖源, 행 대사간 서유신徐有臣, 호조 참관 조운형曹允亨 등 15인이 들어와
자리에 나아갔다. 전의가



“국궁鞠躬, 배拜, 재지再至,²³⁶ 흥興, 평신平身하시오.”

라고 창하니, 여러 노인들이 지팡이를 내려놓고 국궁을 하였고 음악은 「낙
양춘」을 연주하였다. 절하고[배] 일좌재지하고[재지] 몸을 일으켜[흥] 바로
세우니[평신] 음악을 멈추었다. 인의가 전殿에 오를 노인들을 나누어 이끄
니 처음과 같이 지팡이를 짚고 부축을 받으며 쪽과 서쪽 계단에서 올라갔
다. 장차 전에 들어가려 할 때 임금께서 임금의 자리 앞에 걸터 앉을 평상
을 설치하라 명하시고 하교하시기를,

235 外辦: 임금의 거동 때 儀仗과 扈從들을 제자리에 정돈시키는 일을 뜻한다.

236 再至: 一坐再至의 줄임말로, 노인은 절할 때 예를 모두 갖추기가 어려우므로 무릎을 한 번 꿇고 머리를 두 번 땅에 대는 것으로 절을 대신하는 일을 가리킨다.

“내가 마땅히 여러 노인들을 위해 일어날 것이니, 이로써 노인을 공경하는 뜻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좌통례가 자리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노인들을 위해 일어서실 것을 청하니 임금께서 일어나 노인들에게 자리에 나아가도록 명하셨다. 임금께서 자리에 오르시고 노인들도 자리에 나아가며, 서인들은 계단 아래에 줄지어 앉았다.

악사 두 사람이 동쪽과 서쪽 계단에서 올라와 기둥 바깥까지 나아가서 가운데에서 북쪽을 향해 서서 다음과 같이 악장樂章을 불렀다.²³⁷

좋은 날은 더디게 흘러가고	化日遲遲
구장鳩杖 ²³⁸ 은 느릿하구나	鳩杖徐徐
누군가는 조정 관리 ²³⁹ 출신이고	或抽朝籍
누군가는 시골 마을에서 왔네	或從村閭
누런 머리털 흐트러져	黃髮鬢鬢
임금께서 웃으며 바라보시네	上笑以視
너희들 어찌 아는가	汝等豈知
이것이 자궁께서 하사한 것임을	寔慈宮賜
자궁께서 세상에 나시어	慈宮荷天
회갑을 맞으시니	周甲載屆

237 악장을 불렀다: 『정조실록』에는 이때 부른 악장의 제목이 「化日曲」이며 지은이는 蔡濟恭이라고 하였다. 이 작품은 체제공의 『樊巖集』 권18에도 수록되어 있다.
238 鳩杖: 임금이 70세가 되어 致仕한 사람에게 하사하는 지팡이로, 비둘기 모양 장식이 되어 있다.
239 조정 관리: 원문은 '朝籍'인데 관원의 명부를 가리킨다.

백성들과 가정의 노인들에게²⁴⁰ 用數厥庶
 복을 퍼주시었네 戶耄家艾

임금께서 그 뜻에 순종하여 王庸順志
 삼가 주구²⁴¹를 살피셨나니 奉省珠邱
 이미 보배로운 음식 올려 既進寶饌
 은혜가 한 고을에 두루 미쳤네 惠咸一州

여러 노인들 취하고 배불리 羣老醉飽
 절하고 머리 조아리며 정성을 바쳤다네²⁴² 拜稽獻芹

바친 정성 무엇인가 獻芹伊何
 북두²⁴³와 남산²⁴³처럼 장수하시기를 北斗南山
 바라는 마음이라네

창을 마치고 내려가 자리로 돌아갔다.
 전악典樂²⁴⁴이 악공과 금琴, 슬瑟, 생황, 통소 연주자를 이끌고 올라와 자리에 나아가니 임금께서 황주건黃紬巾을 나누어 주고 노인들에게 지팡이 머리에 묶도록 명하시고 각기 비단 한 단씩을 하사하였다. 정리사가 술을 올리니 음악은 「여민락 령」을 연주하였고, 올리기를 마치자 음악을 멈추었다. 음식을 올리니 음악은 「여민락 만」을 연주하였고, 집사가 노인들에

240 백성들에게……퍼주시고: 원문은 '用數厥庶'인데 『書經』 「洪範」편에서 인용해 온 표현이다.
241 珠丘: 舜임금을 蒼梧 들만에 장사지냈는데 참새같은 새가 푸른 모래구슬을 물어와 언덕이 되어 이를 '주구'라고 불렀다고 전해진다. 여기에서는 사도세자의 능인 현릉원을 가리킨다.
242 정성을 바쳤다네: 원문은 '獻芹'인데 하찮은 정성을 뜻한다. 어떤 사람이 마나리를 맛보고 맛이 있어 부자에게 바쳤더니 부자가 먹어보고 배가 아프다 하였으므로 무안해 했다는 고사가 전한다.(『列子』 「楊朱」篇 참조)
243 北斗와 南山: 북두성과 남산은 군주의 장수를 상징하는 대상이다. 북두는 『晉書』 「天文志」에서 "북두는 군주의象이다.(斗爲人君之象)"라고 한 데서 연원하였고, 남산은 『詩經』 「小雅·天保」편에서 "남산의 장수와 같이(如南山之壽)"라고 한 데서 연원하였다.
244 典樂: 조선시대 掌樂院에 딸린 정6품 벼슬이다.

게 음식을 베풀어주고 음악을 멈추었다. 근시近侍가 꽃을 올리니 집사가 노인들에게 꽃을 뿌렸다.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자리는 참으로 수역壽域²⁴⁵이라 하겠다. 어제 비록 모두에게 꽃을 꽃아주었으나 오늘 반열에 참여한 자들에게 꽃 하나씩을 더 꽃아주어 늘 있지 않는 성대한 연회임을 알게 해야겠다.”

하셨다.

정리사가 첫 번째 잔을 올릴 때 채제공이 말하기를,

“이 경사스러운 모임을 맞이하여 석류錫類의 은혜²⁴⁶가 신 등에게까지 미쳤으니 구구한 마음으로 송축하는 마음이 배나 절실해집니다. 원컨대 잔을 올릴 때 송축하여 옛사람이 하던 뜻을 본받고자 합니다.”

하니 홍낙성이 말하기를,

“신이 외람되게 노인들의 첫머리에 있으니 남산과 북두의 잔을 신이 마땅히 먼저 바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경의 말이 다 좋으니 경이 먼저 하고, 우의정과 영돈령 및 삼중신三重臣이 차례대로 각기 한 잔씩 올리라.”

하셨다. 홍낙성이 잔을 올리며 만세를 부르니 음악은 「낙빈악樂賓樂」의

245 壽域 : 사람들이 다 천수를 누리는 태평성대를 가리킨다.

246 錫類의 은혜 : 효를 다른 사람들에게 파급시킨 은혜를 말한다. (『詩經』, 「既醉」편 참조)

「녹명鹿鳴」과 「천보天保」를 연주하였다. 채제공이 두 번째 잔을 올리며 만세를 부르니 음악은 「낙빈악」의 「관저關雎」와 「작소鵲巢」를 연주하였다. 김이소가 세 번째 잔을 올리며 만세를 부르니 음악은 「낙빈악」의 「남유嘉魚」와 「남산有臺」를 연주하였다. 이명식, 이빈보, 심이지가 차례대로 잔을 올리며 만세를 부르니 음악은 향악기와 당악기를 협주로 연주하였다. 임금께서 번번이 일어나 잔을 받으시었다. 술이 세 순배 돌고서 채제공이 말하기를,

“춘대春臺²⁴⁷의 수역壽域을 옛날에 말로만 듣더니 이제 다행스럽게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하니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수의 변화는 자궁의 덕에 연유하는 것이며 노인들이 취하고 배부른 것도 자궁께서 하사하신 것이다. 오늘 노인들이 잔을 올리며 축수祝壽하는 것도 모두 자궁께 돌릴 일이다.”

하셨다. 홍낙성 등이 말하기를,

“원컨대 노인들의 나이를 전궁殿宮과 원자궁元子宮께 바칩니다.”

하니 임금이 말씀하시기를,

“경 등이 쟁반 안의 검은콩을 손으로 싸 올리면 마땅히 원자에게 보낼 것이다.”

하시어 홍낙성, 채제공이 손으로 싸 올리자 임금께서 받아 탁자 위에 두

247 春臺 : 태평성대의 은화한 기상을 뜻하는 말이다. 『老子』 20장에서 “사람들 화락하여 마치 큰 잔칫상 받은 듯, 봄 누대에 오른 듯하다.(眾人熙熙, 如享太牢, 如春登臺)”라고 한 데서 연원한 말이다.

셨다. 하교하시기를,

“나는 평소 술 마시기를 좋아하지 않으나 오늘 취하게 되는 것은 온전히 기쁨을 알아서이니, 경들 또한 다 취하라.”

하니 채제공이 말하기를,

“신이 비록 주량酒量이 없지만 어찌 감히 취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호위 밖에서 구경하는 사람들 중에 노인이 있다면 많고 적음을 묻지 말고 모두 술과 음식을 나누어 주라.”

하셨다. 채제공이 말하기를,

“우모羽旄²⁴⁸의 아름다움을 보려고 멀리서 찾아온 노인들을 이루 헤아릴 수 없으며, 저기 담장처럼 둘러싼 사람들 중 태반은 노인입니다.”

하니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두가 사람의 상서祥瑞이니 많을수록 좋다. 어제 음식상에 남은 것들을 나누어 주어 자궁의 덕으로 배불리 먹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셨다. 마침내 늘어서 앉기를 명하시고 음식상 4개를 가지고 그 앞으로

248 羽旄: 임금이 거동할 때 쓰는, 깃을 꽂은 모자로, 여기에서는 임금을 가리킨다.

나아가 두루 자궁의 은혜를 알려주고 일일이 균등하게 나누어 주니, 모두 일어서 춤추며 천세千歲를 부르고는 각기 남은 음식을 싸서 나갔다.

인이가 2품 이상 노인들을 이끌고 배위拜位로 돌아가 국궁을 하게 하니, 음악은 「낙양춘」을 연주하였다. 절을 하고 일좌제지를 하고 몸을 일으켜 바로 세우니 음악을 멈추었다. 좌통례가 무릎을 꿇고 예식이 끝났음을 아뢰었다. 임금께서 자리에서 내려와 어제시御製詩²⁴⁹를 써 내려주시기를,

학 같은 머리카락에 구장鳩杖 짚고 앞뒤로 모여드니 鶴髮鳩筇簇後前
낙남현落南軒의 잔치에 해동의 기운 온화하네 海東和氣洛南筵
원컨대 노인들 장수를 기약하여 願將羣老期頤壽
자궁慈宮께 만만년 절하고 바치라 拜獻慈宮萬萬年

라 하고, 홍낙성에게 명하여 낙남현에 걸고 연회에 참여한 여러 신하들에게 모두 이어서 지어 바치라고 명하였다. 선전관이 깃발을 드니 음악은 「여민락 령」을 연주하였다. 침전寢殿으로 돌아가시니 음악을 멈추었다.

성에서 군사 훈련을 하는 그림 城操圖

대가大駕가 화성 행궁에 이르러 색승지色承旨가 어느 날에 성조례城操禮²⁵⁰를 거행할지 여쭙었다. 하루 전에 장용 의사壯勇外使가 군령기軍令旗를 청하여 원문轅門²⁵¹을 매다는 기일을 여쭙었다. (깃발과 북은 행궁 문 밖에 벌려 두었다)

선전관宣傳官이 무릎을 꿇고 첫 번째 신호를 한다고 아뢰니(나팔수를 불

249 이 작품은 정조의 『弘齋全書』 권6에도 「洛南軒, 行養老宴, 七十者暨六十一歲者與焉, 拜用一坐再至之禮. 羣老將就位, 予爲羣老興. 既升堂, 酒行三遍, 喻示羣老求和」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250 城操禮: '성조는 성을 중심으로 하여 군사를 조련하는 일을 가리키는 말로, '성조례'는 군사 조련을 행하는 의식을 가리킨다.

251 轅門: 軍營 혹은 軍門을 가리키는 말이다. '원문'은 원래 수레의 끝채를 마주 세워 문의 모양을 만든 것을 가리킨다.

러 거행한다) 각 장령은 행궁 문 바깥에서 대기하였고 성정군城丁軍²⁵²은 무기를 들고 성에 올랐다. 선전관이 무릎을 꿇고 두 번째 신호를 한다고 아뢰니(나팔수를 불러 거행한다) 임금께서 갑옷과 투구를 갖추시고 낙남 현에 남시었다.

병조 판서가 무릎을 꿇고 호적號笛²⁵³ 신호로 관초官哨를 모아 발방發放²⁵⁴할 것을 아뢰니(선전관이 명에 따라 일어나 응답하고 물러갔다) 선전관이 무릎을 꿇고 관초를 모이게 하는 호령을 한다고 아뢰었다(호적수를 불러 거행했다). 각 장수들이 모두 계단 아래에 도착하여 좌우로 나누어 서로를 향하여 마주섰다. 선전관이 무릎을 꿇고 징을 울려 호적을 그친다고 아뢰니(징수를 불러 거행했다) 각 장수들이 차례대로 참여하여 뱃고(성의 장수들은 양쪽에 꿰어앉아 한 번 읊하고, 치총雉摠²⁵⁵과 초관哨官²⁵⁶은 양쪽에 꿰어앉아 두 번 읊었다. 매 반班이 출입할 때 뇌자牢子²⁵⁷들이 크게 소리 쳤다) 물러나 다시 계단 아래 원래 땅으로 내려갔다.

병조 판서가 무릎을 꿇고 발방發放할 것을 아뢰었고(명에 따라 일어나 응답하고 물러갔다), 병조 판서가 전하기를 관초들이 오고갈 때 각기 나란히 한 소리로 응하여 몸을 돌려 위를 향하라고 하였다. 선전관이 무릎을 꿇고 궤고跪鼓²⁵⁸를 아뢰니(고수를 불러 거행하였다) 관초들이 모두 무릎을 꿇었다. 병조 판서가 발방하기를,

“관초들은 듣거라. (응답²⁵⁹) 같은 성에서 운명을 같이 하니 (응답) 군사들은

각기 지키고 막되 (응답)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 말고 (응답) 멋대로 이동하지 말라. (응답) 몸을 숨기거나 명령을 어기면 (응답) 군법으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응답)”

하였다. 각 반에서 차례대로 보고하고 머리를 조아리고(명에 따라 일어나 응답하고 물러갔다) 관초들은 서로 향하여 섰다.

병조 판서가 응원장應援將이 오고 갈 때 각기 일제히 한 소리로 응답하고 몸을 돌려 위를 향하도록 전하였다. 선전관이 무릎을 꿇고 궤고를 아뢰니(고수를 불러 거행하였다) 응원장들이 모두 무릎을 꿇었다. 병조 판서가 발방하기를,

“응원장은 듣거라. (응답) 적의 무리가 틈을 엿보다 (응답) 한꺼번에 충돌해 오면, (응답) 임기응변하여 응원하는 것은 (응답) 온전이 너희들의 힘에 달렸다. (응답) 지체하여 일을 그르치게 한다면 (응답) 군법으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응답)”

하였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머리를 조아렸다(명에 따라 일어나 응답하고 물러갔다).

병조 판서가 무릎을 꿇고 관초들을 땅으로 내려가게 한다고 아뢰니(명에 따라 일어나 응답하고 물러갔다), 선전관이 무릎을 꿇고 징을 두 번 울리고 대취타大吹打²⁶⁰를 연주한다고 아뢰었다(징수를 불러 거행하였다). 때를 헤아려 징을 세 번 울려 대취타를 그쳤다.

좌통례가 무릎을 꿇고 중엄을 아뢰니 선전관이 무릎을 꿇고 세 번째 신호를 한다고 아뢰었다(나팔수를 불러 거행하였다). 좌통례가 무릎을 꿇고

252 城丁軍 : 장용외영에 소속되어 화성을 수비하던 각종 군사를 두루 일컫는 말로, '城丁'이라고도 한다.
 253 號笛 : 신호로 부는 피리이다.
 254 發放 : 여기에서는 명령을 내린다 정도의 의미로 사용된 듯하다. 원래 의미는 총이나 대포 따위를 쏘는 것이다.
 255 雉摠 : 성가퀴를 맡아 지키는 把摠(각 군영의 종4품 벼슬)으로, 城將보다는 아래, 초관보다는 위의 직책이다.
 256 哨官 : 조선시대 병사 집단인 哨(100인 단위)를 통솔하던 종9품 관직이다.
 257 牢子 : 각 군영에 소속된 특수 군인. 죄인을 문초, 구금하거나 형벌을 집행하는 일 등을 맡는다.
 258 跪鼓 : 군사들이 무릎을 꿇도록 지시하는 북을 가리키는 듯하다.
 259 응답 : 말을 하는 사이사이에 “예!”라고 응답하는 것을 가리키는 듯하다.

260 大吹打 : 吹打(군중에서 나팔, 소라, 대각 등을 불고 징, 북 등을 치는 군악)와 細樂(군중에서 취타가 아닌 장구, 북, 피리 등으로 구성한 군악)을 갖춘 軍樂이다.

외판外辦을 아뢰자 임금께서 말을 타고 행궁 문 밖으로 나오시니, 색승지가 깃발과 북을 앞에 두게 하고 머무르시기를 아뢰었다. 선전관이 남색과 백색의 신전信箭²⁶¹을 받들어 무릎을 꿇고 신포信砲²⁶² 세 발을 발사한다고 아뢰었다(교련관을 불러 거행하였다). 이에 무릎을 꿇고 징을 두 번 울리고 대취타를 연주한다고 아뢰었다(징수를 불러 거행하였다). 대가大駕가 장춘각藏春閣, 우화관于華觀, 미로한정未老閣 앞길을 경유하여 장대將臺²⁶³의 작문作門 바깥에 도착하니 선전관이 무릎을 꿇고 징을 세 번 울려 취타를 멈춘다고 아뢰었다. 외사外使²⁶⁴가 대 아래에서 포를 발사하고 천아성天鵝聲²⁶⁵을 연주하니 각 군사들이 세 번 함성을 질렀고 징을 쳐 그쳤다. 선전관이 무릎을 꿇고 징을 두 번 울리고 대취타를 연주한다고 아뢰니(징수를 불러 거행하였다), 사면四面의 성의 장수들이 일제히 취타를 연주하였다. 외사가 무릎을 꿇고 맞이하다가 대가가 지나가는 즉시 따라가 원문 밖에서 대기하였다. 대가가 장차 장대에 이르러 할 때 선전관이 무릎을 꿇고 징을 세 번 울려 취타를 멈춘다고 아뢰니(징수를 불러 거행하였다), 사면四面의 성의 장수들이 또한 취타를 그쳤다. 이에 무릎을 꿇고 나鑼²⁶⁶를 울린다고 아뢰니 주변의 깃발을 좌우로 나누어 세우고 징을 울려 그쳤다. 대가가 단壇에 올랐다(황문기수黃門旗手²⁶⁷가 또한 작문作門²⁶⁸을 막았다).

○ 문을 조금 열 때 병조 판서가 무릎을 꿇고 조금 문을 연다고 아뢰니(명에 따라 일어나 응답하고 물러났다) 선전관이 무릎을 꿇고 조금 문을 연다고 아뢰고 취타를 연주하였다(징수를 불러 거행하였다). 이에 무릎을 꿇고 징을 세 번 울린다고 아뢰니 취타를 멈추었다(징수를 불러 거행하였

261 信箭: 임금이 교외에 거동할 때 선전관을 시켜서 각 향에 군령을 전하는 데 쓰던 화살이다.
 262 信砲: 신호할 때 발사하는 화포이다.
 263 將臺: 장수가 올라서 지휘하는 높은 대이다.
 264 外使: 수원 장용 외영의 主將인 壯勇外使를 가리킨다. 통상 수원 유수가 겸임하였다.
 265 天鵝聲: 군사를 모으기 위해 길게 부는 나팔 소리를 뜻한다.
 266 鑼: 타악기의 하나로 징과 비슷하나 정보다는 작고 大鎗보다 큰 것이다.
 267 黃門旗手: 누런 색의 문기(조선 시대에 진문 밖에 세우던 군기의 하나)를 맡아 드는 사람이다.
 268 作門: 임금이 거동할 때 거동하는 장소에 사람들의 출입을 단속하기 위해 포장을 설치하고 파수하는 군사를 사면에 배치하여 문의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다). 병조 판서가 먼저 참여하여 보고(두 무릎을 꿇고 한 번 읍하였다) 다음으로 선전관(두 무릎을 꿇고 두 번 읍하였다), 다음으로 뇌자, 순시수巡視手, 취수吹手, 고수鼓手 등이 반열을 나누어 머리를 조아렸다(명에 따라 일어나 응답하고 물러났다).

○ 단에 오르실 때 병조 판서가 무릎을 꿇고 승단포升壇砲²⁶⁹를 쏜다고 아뢰니(명에 따라 일어나 응답하고 물러났다) 선전관이 무릎을 꿇고 단에 오르시는 호령을 아뢰고(교련관을 불러 신포를 세 번 발사하였다) 징을 두 번 울리고 대취타를 연주하였다(뇌자들이 세 번 큰 소리로 외치고 뇌자 한 사람은 나아가 무릎을 꿇고 문을 연다고 크게 소리치며, 기수는 소리에 응하여 깃발을 휘두르며 물러갔다). 선전관이 무릎을 꿇고 징을 세 번 울린다고 아뢰니 취타를 멈추었다(징수를 불러 거행하였다).

○ 깃발을 올릴 때 병조 판서가 무릎을 꿇고 깃발을 올린다고 아뢰니(명에 따라 일어나 응답하고 물러났다) 선전관이 무릎을 꿇고 깃발을 올리는 호령을 아뢰고(교련관을 불러 신포를 한 번 발사하였다) 북을 두드리고 나鑼²⁷⁰를 울리기를 모두 3번 하니, 큰 백기를 우뚝 세우고서(각 면의 성의 장수들이 동시에 포에 응하고 북을 두드리고 나를 올리면서 방색기方色旗²⁷¹를 올렸다) 징을 울려 멈추었다(각 면에서 동시에 징과 나와 북 울리는 것을 멈추었다). 외사外使가 원문轅門에서 달려와 참여하여 보고(두 무릎을 꿇고 한 번 읍하였다) 대 위에 머물렀다. 색승지가 재추宰樞²⁷²들이 북을 잡을 것을 아뢰었다(선전관이 훈련원을 불러 재추가 북을 잡을 것을 전하고 훈련원 정이 소리에 응하여 북을 두드렸다).

○ 길에 매복埋伏할 때 병조 판서가 무릎을 꿇고 매복을 한다고 아뢰니(명에 따라 일어나 응답하고 물러났다) 선전관이 무릎을 꿇고 매복하는

269 升壇砲: 閱武, 操鍊 등의 의식에서 임금이 단에 오를 때 이를 알리는 신호로 쓰는 포이다.
 270 鑼: 타악기의 하나로 징과 비슷하나 정보다는 작고 大鎗보다 큰 것이다.
 271 方色旗: 다섯 방위에 따라 각기 빛을 달리한 기이다. 동쪽은 파란색, 서쪽은 흰색, 남쪽은 빨간색, 북쪽은 검은색, 중앙은 노란색이다.
 272 宰樞: 문무 대신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호령을 아뢰었고(교련관을 불러 신호를 세 번 발사하였다), 각 면에서 포에 응하여 동시에 징의 가장자리를 울리고 매복하니(면마다 10명씩 각기 삼안총三眼銃²⁷³과 기화전起火箭²⁷⁴ 등의 무기를 가지고 성을 나와 나누어 매복하였는데 매복한 한 명마다의 거리는 1리였다) 징을 울려 그쳤다.

○ 성문을 닫을 때 병조 판서가 무릎을 꿇고 성문을 닫는다고 아뢰니(명에 따라 일어나 응답하고 물러났다) 선전관이 무릎을 꿇고 성문을 닫는 호령을 아뢰었고(교련관을 불러 신호를 세 번 발사하였다), 징을 두 번 울리고 대취타를 연주하였다. 성문을 닫자 징을 울려 그치고, 무릎을 꿇고 남함吶喊²⁷⁵의 호령을 아뢰니(교련관을 불러 신호를 세 번 발사하였다) 천아성天鵝聲을 연주하고 함성을 지르기를 세 차례 하고서 징을 울려 그쳤다.

병조 판서가 肅靜砲²⁷⁶를 쏜다고 아뢰니(명에 따라 일어나 응답하고 물러났다) 선전관이 무릎을 꿇고 숙정의 호령을 아뢰니(교련관을 불러 신호를 한 번 발사하였다) 숙정패肅靜牌²⁷⁷를 세우고 표미기豹尾旗²⁷⁸를 세웠다. 선전관이 무릎을 꿇고 휴식의 호령을 아뢰니(교련관을 불러 신호를 한 번 발사하였다) 나를 올렸다가(각 면에서 동시에 신호에 응하여 나를 올렸다) 징을 울려 그쳤다.

○ 한 면에서 조련을 하고 해당 면에서 매복을 할 때 포를 쏘고 햇불을 들어 정보를 알리면 그 면의 성의 장수 역시 숫자대로 포를 쏘고 햇불을 들었다. 병조 판서가 무릎을 꿇고 아무 면의 조련을 아뢰니(명에 따라 일어나 응답하고 물러났다) 선전관이 무릎을 꿇고 아무 면을 조련하는 호령을 아뢰었고(교련관을 불러 신호를 숫자대로 발사하였다) 이에 무릎을 꿇

고 기립의 호령을 아뢰었다(교련관을 불러 신호를 한 번 발사하였다). 자바라²⁷⁹를 울려 각 병사들이 일어나자 징을 울려 그쳤다. 해당 방위 색깔의 큰 깃발을 세우고 북을 두드리고 천하성을 불며 깃발을 위아래로 흔들었다(해당 면의 일이 없는 군사가 고품치며 나는 듯이 달려와 응원하였다). 해당 면에서 적이 100걸음 이내에 이르렀다고 보고하니 자체적으로 호령하여 낭기狼機²⁸⁰와 조총을 번갈아 쏘았다. 다시 적이 50걸음 이내에 이르렀다고 보고하니 사수가 일제히 발사하였다.

선전관이 무릎을 꿇고 북을 두드리고 나를 울린다고 아뢰니(교련관을 불러 신호를 한 번 발사하였다) 즉시 북을 두드리고 나를 올렸다. 해당 면에서 적이 성 아래에 도달했다고 보고하니 성 위에서 돌을 던졌다. 적이 이미 패하여 물러갔다고 보고하니 징을 울려 나와 북을 그치게 하였다. 다시 적이 이미 멀리 날아나 소굴로 돌아갔다고 보고하니 선전관이 무릎을 꿇고 징을 울려 나와 북을 그치게 한다고 아뢰었다(징수를 불러 거행하였다). 이에 무릎을 꿇고 일이 없는 군사들이 신지信地²⁸¹로 돌아가는 호령을 아뢰자(교련관을 불러 신호를 한 번 발사하였다) 해당 면의 깃발을 세워 안쪽을 향해 흔들고, 징을 두 번 울리고 대취타를 연주하였다(해당 면에서 동시에 신호에 응하여 취타를 연주하였다). 일이 없는 군사들이 각기 신지로 돌아가고서 징을 울려 취타를 그쳤다(해당 면에서 동시에 취타를 그쳤다). 선전관이 무릎을 꿇고 휴식의 호령을 아뢰니(교련관을 불러 신호를 한 번 발사하였다) 나를 올렸다가(해당 면에서 동시에 신호에 응하여 나를 올렸다) 징을 울려 그쳤다. 병조 판서가 무릎을 꿇고서 아무 면의 조련이 끝났다고 아뢰었다(명에 따라 일어나 응답하고 물러갔다).

○ 사면四面에서 일제히 조련하였다(위의 한 면을 조련하는 방식과 같이 사면에서 일시에 거행하였다).

273 三眼銃 : 三穴砲, 즉 조선 후기에 세 개의 포신을 겹쳐 만든 작은 포를 가리킨다.

274 起火箭 : 원문은 '起火'로, 의식의 신호로 사용하는 불화살을 가리킨다.

275 吶喊 : 여러 사람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는 일을 뜻한다.

276 肅靜砲 : 군사를 조련할 때 엄숙하고 조용히 하라는 신호로 쏘는 포이다.

277 肅靜牌 : 조선시대에 군령으로 엄숙하고 조용히 하라는 뜻으로 '肅', '靜' 두 글자를 써서 세우던 나무 패이다.

278 豹尾旗 : 조선시대 군대 깃발의 하나로, 표범의 꼬리를 그린 깃발이다. 이 기를 세운 곳에는 군사가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였다.

279 자바라 : 놋쇠로 만든 타악기이다. 서양 악기 중 심벌즈와 비슷한데 크기는 조금 작다.

280 狼機 : 화포의 하나인 佛狼機를 가리킨다. 서양의 화기를 받아들여 조선식으로 개조한 것이다.

281 信地 : 정해진 위치 또는 구역을 뜻한다. 여기에서는 군사들이 수비를 담당하는 곳을 의미한다.

○ 성문을 열 때 병조 판서가 무릎을 꿇고 성문을 연다고 아뢰니(명에 따라 일어나 응답하고 물러갔다), 선전관이 무릎을 꿇고 성문을 여는 호령을 아뢰고서(교련관을 불러 신호를 세 번 쏘았다) 징을 두 번 울리고 대취타를 연주하였다. 성문을 열고서 징을 울려 그쳤다.

○ 매복을 거두어들일 때 병조 판서가 무릎을 꿇고 매복을 거두어들인다고 아뢰니(명에 따라 일어나 응답하고 물러갔다), 선전관이 무릎을 꿇고 매복을 거두어들이는 호령을 아뢰고서(교련관을 불러 신호를 세 번 쏘았다) 나팔을 불게 하고(각 면에서 동시에 신호에 응하여 나팔을 불었다) 매복을 거두어들이고서 징을 울려 그쳤다.

○ 성에서 내려갈 때 병조 판서가 무릎을 꿇고 성에서 내려간다고 아뢰니(명에 따라 일어나 물러갔다), 선전관이 무릎을 꿇고 성을 내려가는 호령을 아뢰고서(교련관을 불러 신호를 세 번 쏘았다) 징을 두 번 울리고 대취타를 연주하였다(각 면에서 동시에 신호에 응하여 취타를 연주하였다). 각 병사가 성에서 내려가자 징을 울려 그쳤다. 선전관이 무릎을 꿇고 휴식의 호령을 아뢰니(선전관을 불러 신호를 한 번 쏘았다) 나팔을 울리고 징을 울려 그쳤다.

야간 훈련을 하는 그림 夜操圖

밤을 기다려 병조 판서가 무릎을 꿇고 훈련을 시작할 것을 아뢰니(명에 따라 일어나 응답하고 물러나며, 이하에서 아뢰는 때 일어나고 응하는 것은 모두 이에 따름), 선전관이 무릎을 꿇고 첫 번째 시도를 한다고 아뢰었다(나팔로 거행). 각 병사들은 성에 오르고, 병조 판서가 무릎을 꿇고 매복할 것을 아뢰니, 선전관이 무릎을 꿇고 매복하는 호령을 한다고 아뢰었다(신포信砲 3발). 징 가장자리를 울려 매복하고(각 면에서 모두 징의 가장자리를 울림), 징을 울려 그쳤다. 선전관이 무릎을 꿇고 두 번째 신호를 한다고 아뢰었다(나팔로 거행). 각 관원들이 도착하여 일제히 발사하는데 철차는 한결같이 주간 훈련의 예에 의하였다. 선전관이 무릎을 꿇고 세 번째 신호

를 한다고 아뢰었다(신포 3발).

○ 성문을 닫을 때 병조 판서가 무릎을 꿇고 성문을 닫을 것을 아뢰니, 선전관이 무릎을 꿇고 성문을 닫는 호령을 한다고 아뢰었다(신포 3발). 징을 2번 치고 대취타大吹打를 연주하니 성문을 닫고 징을 쳐 그쳤다. 이어서 무릎을 꿇고 납함唵喊²⁸²의 호령을 한다고 아뢰었다(신포 1발). 천아성天鵝聲²⁸³을 불고 납함을 모두 3차례 하고서 징을 울려 그쳤다(주간 훈련 때 깃발을 내리도록 보고하지 않았다면 호령은 주간 훈련의 예와 같음).

○ 햇불을 올릴 때 병조 판서가 무릎을 꿇고 햇불에 점화點火할 것을 아뢰니, 선전관이 무릎을 꿇고 햇불에 점화하는 호령을 한다고 아뢰었다(신포 3발, 가지 3개에 점화). 햇불 4자루에 점화하고(각 면에서 모두가 포에 응하여 불을 피우고 햇불을 붙임), 선전관이 무릎을 꿇고 햇불에 불을 붙이는 호령을 한다고 아뢰니(신포 1발, 천아성을 불) 햇불에 불을 붙였다(각 면에서 포에 응하여 햇불에 불을 붙이고 납함을 3번). 선전관이 무릎을 꿇고 불 끄는 호령을 한다고 아뢰어(신포 3발) 햇불을 껐다(각 면에서는 포에 응하여 햇불을 끄).

○ 깃발을 내릴 때 병조판서가 무릎을 꿇고 깃발을 내릴 것을 아뢰니, 선전관이 무릎을 꿇고 깃발을 내리는 호령을 한다고 아뢰었다(신포 1발). 북을 두드리고 쟁과리를 울리기를 모두 3번 하고 깃발을 내렸다(각 면에서는 포와 나팔, 북이 3번 소리 나는 데 응하여 깃발을 내림).

○ 등불을 매달 때 병조판서가 무릎을 꿇고 등불을 매달 것을 아뢰니, 선전관이 무릎을 꿇고 등불을 매다는 호령을 한다고 아뢰었다(신포 3발, 가지 3개에 점화). 북을 두드리고 쟁과리를 울리기를 모두 3번 하고 오색의 쌍등雙燈을 달고(각 면에서는 포 소리에 응하여 점화하고 쟁과리와 북을 세 번 치고 등을 매달았다. 각 살반이²⁸⁴에서는 일시에 등을 매달고 성 안

282 唵喊 : 적진을 향해 돌진할 때 군사들이 일제히 고향을 지르는 것이다.

283 天鵝聲 : 나라에 일이 있을 때 군사를 모으기 위해 길게 부는 나팔 소리이다.

284 살반이 : 과녁의 앞뒤와 양쪽에 화살이 날아와 꽂히도록 쌓은 것이다.

의 인가(人家) 문 위에도 각기 등 하나씩을 달고, 본가(本家)의 한 사람이 앉아 지킴) 징을 울려 그쳤다. (각 면에서도 징을 울려 그쳤다). 선전관이 무릎을 꿇고 휴식의 호령을 한다고 아뢰니(신포 1발), 나팔을 불고(각 면에서는 포에 응하여 나팔을 불) 징을 쳐 그쳤다.

○ 밤 시각을 알릴 때, 병조 판서가 무릎을 꿇고 밤 시각 알릴 것을 아뢰니, 선전관이 무릎을 꿇고 밤 시각 알리는 호령을 하고 북을 치고 종을 울린다고 아뢰었다(중은 징으로 대신함). 선전관이 무릎을 꿇고 밤 시각을 정하는 호령을 한다고 아뢰니(신포 1발, 천아성을 불), 경고(更鼓)²⁸⁵를 한 번 치고 딱딱이를 쳤다(각 면에서는 딱딱이 소리가 서로 이어져 한 바퀴를 돌면 다시 시작). 약 2경의 때에 선전관이 무릎을 꿇고 2경을 알리는 호령을 한다고 아뢰니(신포 1발, 천아성을 불), 전경(傳更) 선전관은 무릎을 꿇고 불을 당기는 호령을 한다고 아뢰었다(신포 1발, 가지 1개에 점화). 불 당기는 것이 끝나자 선전관이 무릎을 꿇고 납함을 하는 호령을 한다고 아뢰니(포를 쏘고 천아성을 불며 3번 납함을 함), 징을 울리면 끝내는 것을 전에 수경(守更)²⁸⁶을 할 때와 같이 하였다. 사면의 윤조(輪操)와 제조(齊操)²⁸⁷는 한결같이 주간 훈련의 예에 의하였다. 5경에 이르렀을 때 선전관이 무릎을 꿇고 북을 치고 종을 울리는 일을 아뢰었다(해 뜨기 전에 거행함).

○ 등불을 내릴 때 병조 판서가 무릎을 꿇고 등불을 내릴 것을 아뢰니, 선전관이 무릎을 꿇고 등불을 내리는 호령을 한다고 아뢰었다(신포 1발). 북을 두드리고 나팔을 울리기를 3번 하고서 등불을 내리고(각 면은 모두 등불을 내림) 징을 쳐 그쳤다. 성문을 열고 매복군을 거두어들이고 성에서 내려오는 절차는 한결같이 주간 훈련의 예에 따라 거행하였다. 선전관이 무릎을 꿇고 첫 번째 신호를 한다고 아뢰니, 징 가장자리를 울리고 깃발은

285 更鼓 : 밤 시간을 알리기 위해 치던 북이다.

286 守更 : 書雲觀(천문, 역수, 각루 등의 일을 맡아 보던 관청)의 관원이 물시계나 해시계를 지켜보다가 更點을 알리던 일이다.

287 輪操와 齊操 : 한 營門의 군대가 돌림차례로 훈련하거나 그렇게 하는 훈련을 '윤조'라 하고, 한꺼번에 훈련하는 것을 '제조'라 한다.

3행으로 나누어 세웠다. 이어서 무릎을 꿇고 두 번째 신호를 한다고 아뢰었다. 대가(大駕)가 행궁(行宮)으로 환궁하셨다.

득중정에서 활쏘기를 하시는 그림 得中亭御射圖

임금께서 득중정(得中亭)²⁸⁸에 남시어 활쏘기를 하셨다. 영의정 홍낙성(洪樂性), 수어사 심이지(沈頤之), 경기감사 서유방(徐有防), 호조판서 이시수(李時秀), 장용외사 조심태(趙心泰), 내사 서유대(徐有大), 총융사 서용보(徐龍輔), 행 좌승지 이만수(李晩秀), 행 우승지 이익운(李益運), 정리사 윤행임(尹行恮), 검교직각 남공철(南公轍), 초계문신 서준보(徐俊輔)·조석중(曹錫中), 수가장관 오의상(吳毅常)·이석(李皙)·이광익(李光益)·이희(李熾)·조기(趙岐) 등이 임금을 모시고 따라갔다.

임금께서 유엽전(柳葉箭)²⁸⁹을 여섯 순(巡)²⁹⁰ 쏘아 24발을 명중시키셨고, 소포(小布)²⁹¹에 다섯 순 쏘아 24발을 명중시키셨고, 장혁(掌革)²⁹²에 한 순 쏘아 세 발을 명중시키셨다.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활쏘기가 비록 육예(六藝)²⁹³ 가운데 한 가지 일이지만 또한 기예(技藝)에 가깝기 때문에 버려 두고 익히지 않은 것이 이미 4년이나 되었으니, 오늘 명중시킨 것은 역시 우연일 뿐이다.”

하시고는 홍낙성을 돌아보며 말씀하시기를,

288 得中亭 : 1790년(정조 14)에 화성행궁에 세운 정자로 활쏘기를 하던 곳이다. 원래 낙남헌 자리에 있던 것을 1794년(정조 18)에 옮겨지었다고 전해진다.

289 柳葉箭 : 조선 중기 이후에 신설된 무과 시험에서 사용되었던 화살로, 화살촉이 머드나무처럼 생겼다 해서 '유엽전'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290 巡 : 활쏘기의 단위로 화살 다섯 발을 1순이라 한다.

291 小布 : 작은 무명으로 만든 과녁이다.

292 掌革 : 손바닥만한 무명 또는 가죽으로 만든 과녁이다.

293 六藝 : 고대 중국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던 여섯 가지 과목이다. 『周禮』에는 禮, 樂, 射, 御, 書, 數의 여섯 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경은 팔순의 원로인데도 소포에 세 발이나 명증시켰으니²⁹⁴ 역시 희귀하다 할 만하다.”

하시고, 이에 여러 신하들에게 음식을 내리셨다. 날이 저문 뒤에 다시 작은 표적을 설치하고 좌우에 두 개의 햇불을 밝히라 명하시고는 두 순을 쓰아 다섯 발을 명증시키셨다.

| 原文

上之御極二十年乙卯，卽景慕宮誕彌舊甲，惠慶宮寶齡周甲之歲也。正月十六日，上親上尊號于景慕宮惠慶宮。二十一日，陪王大妃殿·惠慶宮·中宮殿，展拜于闕宮。慈殿行奠酌禮，慈宮行謁廟禮，坤殿行廟見禮，蓋是日卽誕彌舊甲之日也。粵閏二月初九日，上親陪慈宮幸華城，祇拜顯隆園，還詣行宮，誕舉七爵之儀，齊獻萬年之祝，謁聖試士，養老惠民，移蹕八日，回鑾萬安，中外大小，鼓舞歡欣。及還宮，命整理所，繪畫縉儀之圖，弁諸儀軌之首，刊印頒帛，猗歟盛矣！

臣竊惟我聖上愴是歲之復回，藹聖孝之不置，先進顯冊，闡徽揚休。又以值千載難逢之會，舉國朝初行之禮，禮以義起，情緣禮伸。是年是慶，是地是禮，爲一分寓慕展誠之方，而聖心洞屬，無時少弛，物采罔匱，靡事不舉。奉觴長樂之堂，置酒洛南之軒。敬斟北斗，拜獻南山。同我羣老，誕敷慈恩，尊年之義也；徠尔四民，咸飽慈德，絜矩之道也；以至乎拜先聖而設科，臨將臺而閱兵，文武并用之術也。誠禮克伸，曠典畢舉，此誠我東方初有之盛事，而實是千載難逢之慶會也。臣從諸生之後，欣瞻羽旄之美，且因繪畫之象，演以爲紀，錄之下方，以頌我聖上千乘之孝養焉。臣洪祖榮恭紀。

294 세 …… 적증시켰으니 : 『園行乙卯整理儀軌』 권1 「御射」 조목에 의하면 흥낙성은 정조와 함께 유업전 여섯 순을 쓰았는데 1순부터 3순까지 각 한 발씩 총 3발을 명증시키고 4순부터 6순까지는 한 발도 명증시키지 못하였다. 참고로 해당 조목에는 이날 활쏘기의 상세한 결과가 정리되어 있어 참고할 만하다.

出還宮圖

乙卯閏二月初九日，上陪惠慶宮幸華城。

鼓初嚴，兵曹勒諸衛，陳仗衛鹵簿於仁政門外，留都百官各服戎服只佩劔，俱集朝房。陪從百官預爲渡江，各服戎服，佩劔插羽以待，越邊東西序立。

鼓二嚴，諸衛各督其隊，入陳如常，司僕寺正進馬於敦化門，進輿於閣外，又進駕轎於內閣門外。留都百官就敦化門外，行都承旨李祖源·行左承旨李晚秀·行右承旨李益運·右副承旨俞漢寧·同副承旨李肇源·假注書柳遠鳴·具得魯·記注官金良倜·記事官吳泰曾·整理堂上沈頤之·徐有防·李時秀·徐龍輔·尹行恁·檢校直閣南公轍·檢校待²⁹⁵教徐有渠及諸護衛之官，各服其服，俱詣閣外伺候，左通禮詣閣外跪啓中嚴。

鼓三嚴，鼓聲止，闕內外門，左通禮跪啓外辦。上御袞龍帖裏插羽，乘輿以出，繖扇侍衛如常儀。左右通禮前導，尙瑞院官捧寶前行。

駕至敦化門外，左通禮跪啓請降輿。上降輿入幄次，尙儀請內嚴，少頃又白外備。慈宮乘駕轎以出，由迎春門·千五門·萬八門·保定門·崇智門·集禮門·景化門·銅龍門·建陽門·肅章門·進善門，至敦化門外。上詣板位祇迎，左通禮跪啓請乘馬，上乘馬，侍衛及扈駕之臣上馬畢。駕動進發，清衍·清璫兩郡主從。出崇禮門至栗園峴前路，命民人之夾路觀光者勿禁。

由蔓川橋，至鷺梁舟橋中紅箭門。上下馬詣慈駕前問候，仍先詣龍驤鳳翥亭，親審慈宮所御房埃及水刺饌品，還出幄次，祇迎慈駕，隨入內次。留都百官祇送，陪從百官各就次。整理使進午膳，上親審以進于慈宮。

午初三吹時至，上改具軍服陪慈駕進發。通禮尙儀贊請並同上儀，下倣此。由萬安峴至文星洞前路，命設青布帳，奉慈駕少駐問候，整理使進米飲茶盤，上手奉以進于慈宮轎內。少頃教曰：“予當先詣行宮親審，侍衛及百官依前陪從於慈駕，只兵房承旨史官隨後。”仍進發詣始興縣行宮周審，還出幄次，命壯勇營排立塘馬，慈駕所到處次來奏。

295 待: 원문은 '待'로 되어 있으나 문맥을 고려하여 바로잡았다.

慈駕至縣門外，上祇迎隨入內次。整理使進夕膳，上親審以進于慈宮，出御幄次，教曰：“日氣清和，慈候萬康，不勝慶幸。”仍宣饌於承史閣臣侍衛諸臣，教曰：“此慈宮所賜，其各飽德也。”

初十日卯時，上御始興行宮，教曰：“雨意頗緊，不可不趁早進發，侍衛軍兵卽爲整待。”卯正三吹進發，由大博山坪至安養店前路。奉慈駕少駐，進米飲茶盤，由長山隅至晴川坪。上下馬詣慈駕前問候，仍由院洞川先詣肆觀店行宮，慈駕至祇迎，隨入內次，進午膳。教曰：“雨勢雖不止，行宮新建，房舍多淺露，有難陪奉經宿。且百官軍兵之露處沾濕，在所當念。此距華城不滿一舍，今日可以入抵矣”，命直下三吹。

上御雨具，陪慈駕進發，至彌勒峴，路頗泥滑。上下馬詣慈駕前問候。由槐木亭至眞木亭，摠理大臣右議政蔡濟恭祇迎于路左，外營親軍衛夾路迎駕，鼓吹女伶亦來待。上奉慈駕少駐，進米飲茶盤，少頃改具甲冑進發。

到華城城門，行入軍門節次，入作門內。諸將臣及華城留守趙心泰率將官以下跪迎路左，大駕入長安門，由鍾街左右軍營前路·新豐樓·左翊門入中陽門，至華城行宮奉壽堂下馬。隨慈宮入長樂堂，進夕膳。

十五日辰正，上陪慈宮還詣始興行宮，自福內堂出中陽門，由左翊門·新豐樓至長安門外，命文武新恩之祇迎者，率華蓋舞童，分東西成班於慈駕前，至五里落後。駕至眞木亭橋，奉慈駕少駐，進米飲茶盤。仍由彌勒峴先詣肆觀行宮御幄次，召見各務差使員，詢問邑弊民瘼。慈駕至，祇迎隨入內次，進午膳後進發，至安養橋前路，奉慈駕少駐，進米飲茶盤。仍由大博山坪，先詣始興行宮，慈駕至祇迎，隨入內次，進夕膳。

十六日卯正，上陪慈駕進發。至文星洞前路，召見境內父老民人。至蕃大坊坪，奉慈駕少駐，進米飲茶盤。仍由萬安峴先詣鷺梁行宮，慈駕至祇迎，隨入龍驤鳳翥亭，進午膳。上每於各站中路，奉慈駕少駐，親進米飲茶盤，到站時必先詣周審，每進膳親自審視以進，一如始興站焉。

上出御幄次，教諸臣曰：“八日行幸，勞動既多，而慈候康寧，今當回鑾，不勝慶幸矣。元子自予出宮日，每日再上書問候，今又書至，卿等其見之。”仍出

示睿書二紙，其一若曰：“奉壽堂進饌，洛南軒養老，山呼山呼再山呼，千歲千歲三千歲。”其一若曰：“今日拜謁，伏喜伏喜。”諸臣擊玩再三，起而奏曰：“伏觀睿書，實我東方無疆之福矣。”少頃命直下三吹。上乘馬，陪慈駕渡舟橋進發。留都百官以戎服江頭祇迎後，與陪從百官合班，以次侍衛還宮，並如來儀。左通禮跪啓解嚴，兵曹承教放仗。

班次圖

整理使京畿監司徐有防，率前排·印·甲馬，導駕先行，將校·書吏陪後。整²⁹⁶理大臣右議政蔡濟恭，率前排先詣，錄事·將校陪後。先廂，訓練都監馬兵哨官一人，率認旗·鼓手各一人，乘馬先導，別騎隊八十四人，五馬作隊次之，馬兵別將一人，率認旗·鼓手各一人，乘馬旗·鼓·前排·甲馬次之，馬兵哨官一人率認旗·鼓手各一人乘馬次之，左右²⁹⁷哨五馬作隊次之，步軍哨官一人率高招旗·認旗·鼓手各一人步行次之，左部·左司·前哨三隊平行次之，把摠一人率認旗·鼓手各一人·令旗二雙次之，步軍哨官一人率認旗鼓手各一人次之，左部·左司·中哨三隊平行次之，塘報旗四人次之。

訓練大將李敬懋率大旗幟·前排·印·甲馬·貫耳·令箭次之，次知執事二人分左右，將校·書吏等陪後。中軍尹得達率旗·鼓·前排·甲馬·貫耳·令箭次之。

禁軍別將柳孝源率旗·鼓·前排·印·甲馬次之，將校陪後。先驅禁軍二十五人五馬作隊次之，陽繖·水晶杖·金鉞斧次之，近仗軍士次之，結束色書吏次之，兵曹·摠府堂上次之。

御寶馬次之，引路二人前導，尙瑞院官員陪後。通禮·引儀次之，別雲劍四人次之，寶劍差備中使·差備宣傳官次之，諭書差備次之，先詣內人九人次之，宮任二人次之，檢飭將校一人次之，慈宮衣籠馬二次之，次知將校二人次之。

296 整：『園幸乙卯整理儀軌』에 의하면 체제공은 總理大臣 자격으로 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摠'의 잘못으로 생각된다.

297 右：원문은 '左'로 되어 있으나 문맥을 고려하여 바로잡았다.

整理使守禦使沈頤之率旗·鼓·前排·印·甲馬次之,將校·書吏陪後,駕前別抄五十人五馬作隊次之.正駕轎馬四次之,正駕轎次之,檢飭將校一人次之,內人二人次之,司僕寺僉正陪後.纛次之,龍旗次之,儀仗分兩行次之,前部鼓吹次之,啓螺宣傳官次之,內人二人次之,檢飭將校一人次之,大旗幟次之,次知教鍊官·前排次知教鍊官·待令教鍊官並次之,訓練都監招搖旗·壯勇營招搖旗分兩行次之,螺·角·鼓·鉦次之,龍旗招搖旗兼差備宣傳官次之,水刺架子次之,整理郎廳率前排次之,將校·書吏陪後.

整理使摠戎使徐龍輔率旗·鼓·前排·印·甲馬次之,將校·書吏陪後.內人二人次之,內官二人次之,檢飭將校一人次之,駕後宣傳官作隊,承傳宣傳官作隊,別軍職作隊,別隨駕將官作隊,以次次之,次知教鍊官二人次之.慈宮駕轎引馬八次之,御甲胄馬二次之,內人二人次之,檢飭將校一人次之,近仗軍士十二人次之,御乘引馬二次之,中禁二人次之,信箭手二人次之,信箭宣傳官二人次之,內人二人次之.

慈宮駕轎次之,挾輦軍八十人·武藝廳銃手八十人·軍牢二十人·巡視旗四雙·令旗五雙·中月刀二雙·別監侍衛,自駕轎引馬之首,左右分列,衛護慈駕而行.把摠一人·哨官一人·門旗手一人在巡令旗之前,將官二人·將校二人在慈駕之後,承傳宣傳官一人次之,義禁府都事二人次之,書吏二人·羅將二十人次之,近仗軍士二人·別監六人次之,大駕次之.日傘繖扇陪後,統長一人·軍牢二雙·紅令旗三雙·挾馬武藝廳三十人·挾馬巡牢三十人,衛護大駕前後而行,止於挾輦尾局步行.知穀官一人立於駕前,使令十四名·別隨駕三人·堂上內乘一人在於衛內,御用卜馬三次之,欄後哨官一人次之,欄後牙兵三十四人次之.

整理使司僕寺提調李時秀·內醫院副提調李晚秀各率前排次之,執事·書吏陪後.清衍郡主·清瑤郡主兩雙轎次之,宮任二人外賓二人隨後,檢飭將校二人次之,壯勇營知穀官作隊,除本仕牌將作隊,善騎壯勇衛作隊,走馬善騎隊作隊以次次之,司僕寺馬籍色書吏一人·待令書吏一人·唐別監八人次之,兵房承旨·閣臣·注書·翰林閣屬官各一人,司僕寺僉正·內乘

·啓字中官·藥物待令醫官·燈燭房中官各一人分行次之,駕後宣傳官作隊,監官作隊次之,印信馬·輜重馬次之,後廂壯勇衛九十六人五馬作隊次之,善騎將一人率認旗·鼓手·軍牢·甲馬次之,善騎隊左哨五馬作隊次之,善騎別將一人率認旗·鼓手·前排·旗·鼓·甲馬次之,善騎將一人率認旗·鼓手·軍牢·甲馬次之,善騎隊右哨五馬作隊次之.

壯勇大將徐有大率大旗幟·前排·印·甲馬·貫耳·令箭次之,次知執事二人在前,將校·書吏陪後.牙兵十人攔後,從事官率前排次之,將校一人陪後.塘報旗·高招旗·認旗·鼓手各一人次之,哨官一人領率中司·中哨三隊平行次之,中司把摠一人率前排次之,哨官一人率認旗·鼓手次之,中司·後哨三隊平行次之,內侍二人次之,司謁四人·司鑰二人·醫官四人·事知四人分行次之,兵曹禁喧郎廳一人次之,都承旨次之,承旨三人·史官二人·閣臣二人次之,閣吏二人·近仗軍士一人先導,內醫院提調次之.

壯勇營提調李命植率旗·鼓·前排次之,經筵官二人次之,駕後禁軍五十人五馬作隊次之,標旗次之,差備都摠府郎廳次之,各軍門政院待令教鍊官別武士九人分行次之.

兵曹判書沈煥之率旗·鼓·前排次之,將校一人次之,東·西班各司堂郎次之,攔後禁軍二十五人五馬作隊次之,塘報旗·高招旗·認旗手步隨,鼓手乘馬次之,哨官領率左司·前哨軍三隊平行次之,左司·把摠一人率前排·旗·鼓次之,哨官一人率認旗·鼓手次之,左司·中哨軍三隊平行次之,哨官一人率認旗鼓手次之,左司後哨軍三隊平行次之.

謁聖圖

十一日卯初,上具軍服乘馬以出,由中陽門左翊門新豐樓出八達門,至鄉校門外下馬.入明倫堂次,百官因以隨駕服色成班於聖廟門外.禮·兵房承旨·左右史改服朝服,上改具冕服,入自東夾門,陞東階詣板位西向立,行四拜禮.陞詣廟內奉審訖,還御明倫堂,改具軍服,出鄉校門外乘馬,由八達門入新豐樓還內.

親臨洛南軒文武科放榜圖

上將詣聖廟，教曰：“承旨先詣于華觀，儒生先令入場，試官行禮及懸題，待回鑾爲之。謁聖時參班儒生，依太學謁聖時執事儒生例，使之隨駕入場也。”及還詣行宮，親臨洛南軒，文科讀券官左議政俞彥鎬·行司直沈頤之·禮曹判書閔鍾顯·行副司直李秉鼎·吏曹判書尹著東·兵曹判書沈煥之·刑曹判書李在學·工曹判書李家煥，對讀官行副司直蔡弘遠·兵曹參知丁若鏞·行副司直任希存·檢校待教徐有架·副修撰崔獻重·兵曹正郎洪樂游·副司果李義甲·副正字曹²⁹⁸錫中，武科考官判府事李秉模·戶曹判書李時秀·行副護軍李儒敬，參考官行副司直李儒慶·副校理徐有聞·宣傳官李商一·李儒燁，入就位行四拜禮訖，陞殿進伏。上命煥之·秉鼎書御題曰：“謹上千千歲壽賦”教彥鎬曰：“此致詞語也，知此善作之意，曉諭於應試諸生，試官持此題詣于華觀，捧券以來。”仍命應射人以次呼名。射畢科次入侍，上曰：“華城取二人，廣州·始興·果川各取一人。”考券拆名，文取崔之聖等五人，武取金寬等五十六人。

未正放榜時至，宗親·文·武百官各服戎服，舉人公服，前一刻入就位。吏·兵曹正郎以榜及紅牌函，各置於案。上具戎服插羽以出陞座，文武百官四拜訖，回班相向立。文武科放榜官分自東西階陞各就位，承旨二人進，當座前跪啓放榜，俯伏與分左右出，各詣文武科放榜官之北，西向立，執事者四人，對舉文武科榜案隨之。承旨各取榜授放榜官，放榜官跪受立對展，承旨俱還侍位。文科放榜官唱第一名，舉人由左入就位，武科放榜官唱第一名，舉人由右入就位。以次相間唱訖，放榜官退，舉人行四拜，吏·兵曹正郎各就榜案之南相向立。

承旨二人進當座前，俯伏承教，分左右出，各詣吏·兵曹正郎之北西向立，執事者對舉文武科紅牌案隨之。承旨各取紅牌函授正郎，正郎跪受興，降自東西階，分賜舉人，次賜花及酒肴，次賜蓋。舉人行四拜訖出。

298 曹：저본에 '밭'로 되어 있으나 일반적인 관례에 의거하여 고쳤다.

代致詞官進當座前，致詞云：“議政具官臣某等，茲遇天開景運，賢俊登庸，禮當慶賀”云云。賀訖，宗親文武百官四拜出，上降座入幄次。

陪慈宮詣顯隆園圖

十二日寅正，上陪慈宮詣顯隆園，具軍服乘馬，慈宮御駕轎以出。由中陽門·左翊門·新豐樓出入達門，至上柳川店前路，奉慈駕少駐，進米飲茶盤，命藥房提調沈煥之進前，教曰：“慈候在途一向康寧，不勝慶幸，俄於轎前問候之時，玉音不調，慈體之欠安，可以仰認，誠萬萬悶迫。卿其先詣園所，慈宮進服蓼苓茶一貼，卽爲煎待。”仍進發，由下柳川·皇橋·甕峯·大皇橋·迤瞻岬，至迤觀橋前路，命諸臣及將官以下皆下馬。由萬年堤至洞口，教曰：“侍衛人馬，勿令攔入於火巢近處，使樹木有損也。”上先詣齋室外幕次，祇迎慈駕入齋室。上親奉蓼苓茶進于慈宮。改具黻袍烏犀帶乘小輿，慈宮御有屋小輿詣園上。兩郡主從慈宮纔入帳內，悲慟過節，玉音至達於外。上命整理所進蓼苓茶，慈宮不許進服，上亦焦遑掩抑。整理使等從帳外奏曰：“聖懷雖萬萬難抑，豈不仰念慈心之轉益悲疚，慈候之或致欠和耶！況日勢已晚，伏望務盡寬慰，亟命回鑾焉。”上曰：“出宮時慈宮以十分寬抑爲教矣，到此悲愴之懷，自發於中，予既不能自抑，況慈心乎！”仍親奉茶鍾勸進。展謁親享及辭園禮，並自內行禮。少頃奉慈駕至紅箭門外，命駐輿，瞻望園上良久，始回鑾。至下柳川少駐，進米飲，宣飯於閣臣承史。仍進發入八達門，由新豐樓陪慈宮入長樂堂。

奉壽堂進饌圖

十三日，上詣奉壽堂，進饌于慈宮時至，整理大臣以下，具戎服督諸衛，陳列於殿門外庭，儀仗於殿庭左右，繖扇·青蓋·紅蓋·旒節·鳳扇·雀扇各二於前楹簾外東西。

女執事擊執前三刻，女官·女執事·女伶等各服其服入就位，整理使陳鼓樂於庭中。儀賓戚臣陪從百官，俱以戎服各就外位。前二刻，內外命婦各具

禮服就外位，引儀分引陪從百官入就拜位，前一刻女官【尙宮】等俱詣內閣伺候，女官【尙儀】跪，贊請內嚴，又跪白外備。

慈宮具禮衣，尙宮前導以出，樂作與民樂令。既陞座，爐烟升，樂止。女執事【通贊】詣內閣跪啓中嚴，女官【典贊】引內外命婦入就拜位。女官【司贊】曰：“再拜”，樂作洛陽春曲，內外命婦再拜。女官【典贊】引內外命婦各就侍位，女執事引儀賓戚臣入就拜位。女執事【通贊】跪啓外辦。

上具戎服出，樂作與民樂令。女執事【通贊】前導詣拜位北向立，樂止。女執事唱再拜，樂作洛陽春曲。上再拜。儀賓·戚臣·陪從百官同，樂止。女官唱進揮巾【女執事傳唱，後倣此】，整理使詣帳外奉進揮巾，樂作與民樂令。內侍傳捧授女官【尙食】，女官跪進于慈宮座前，樂止【傳捧節次，後倣此】。進饌案，樂作與民樂慢，進訖，樂止。進花，樂作與民樂令，進訖，樂止。女伶二人進至簾外，當中分東西北向立，唱御製樂章曰：

嘉會屬昇平，昇平今有象。厥象問如何，老人中天朗。【宮】

含飴駐我長樂春，祝聖徠汝華封人。【商】

春長長樂酌斗，華祝至三壽母。【角】

翼子詒孫功何巍，穰穰福祿光輝。【徵】

咸池鼓雲門琴，玉漿瑤液年年樹。【羽】

唱訖降復位。

女執事【通贊】導上至簾外，女官【尙宮】承引至壽酒亭南，北向立，樂作與民樂令，女官【尙食】酌壽酒跪進于上，上受爵詣慈宮座前跪，以爵授女官【尙食】，女官傳捧置于座前。女執事導上出至簾外，女執事【通贊】前導詣拜位，北向跪。女執事【代致詞】進當上拜位前北向跪，致詞曰：“國王恭遇乾隆六十年閏二月十三日，孝康慈禧貞宣徽穆惠嬪邸下，嗣京室徽，膺海屋壽，福流文孫，慶邁魯母。恭陪于華，敬斟以斗，喜深知年，頌騰如阜。於樂斯讌，萬品咸囿，迎春之和，答天之佑。萱暉彌永，弗祿誕受，太平萬億，無疆悠久。不勝慶抃之忱，謹上千千歲壽。”

致詞訖，女執事【通贊】導上至簾外，女官【尙宮】承引就殿內褥位跪。女官

【尙儀】進當慈宮座前跪白宣旨曰：“與殿下同慶。”慈宮舉爵，樂作與民樂千歲萬歲曲。女官【尙食】進受虛爵，復於壽酒亭，樂止。女官【尙食】導上出至簾外，女執事【通贊】前導至拜位跪。女執事【贊唱】唱三叩頭，上三叩頭，唱山呼，上拱手加額曰：“千歲”，唱山呼曰：“千歲”，唱再山呼曰：“千千歲。”凡叩頭山呼，儀賓·戚臣·百官及命婦女官以下，皆於立位齊聲應之。

上再拜，樂作洛陽春曲，儀賓·戚臣·百官皆再拜，樂止。女執事【通贊】導上至簾外，女官【尙宮】承引就殿內褥位。女執事分引儀賓·戚臣各就侍位，女官【典贊】唱跪，上跪，內外命婦儀賓·戚臣·百官跪。

整理使進上揮巾，樂作與民樂令，進訖，樂止。次進饌案，樂作與民樂慢，進訖，樂止。次進花，樂作與民樂令，進訖，樂止。女官【典贊】設內外命婦饌卓，女執事設儀賓戚臣饌卓。女官女執事散花，執事者宣酒饌散花。整理使一人出中陽門外，看檢饌品，承旨及兵曹判書整飭東西班次，各營校卒各司吏隸，皆分饋有差，各插一花。

引儀引陪從百官出，進湯于慈宮，樂作與民樂慢，進訖，樂止。

第一爵奏獻仙桃呈才，樂作與民樂·桓桓曲。女官【尙宮】導上詣壽酒亭，女官【尙食】酌壽酒跪進于上，上受爵詣慈宮座前跪，以爵授女官【尙食】。女官受爵進于慈宮座前，慈宮舉爵進訖，以爵授女官，女官【尙食】跪受爵，詣上酒亭，以盞酌酒進于慈宮，慈宮受盞以授女官，女官跪受盞進于上前，上受盞舉飲訖，俯伏興。至酒亭，女官跪受盞，上還座，女官【典贊】行內外命婦酒，女執事行儀賓戚臣酒。進湯于上，女官·女執事分供湯于內·外命婦及儀賓戚臣。呈才訖，樂止。

上又進第二爵，奏金尺呈才·受明命·荷皇恩呈才，樂作與民樂·清平樂。進湯行酒如上儀。呈才訖，樂止。

自第三爵至第七爵，以慈旨命婦及外賓領議政洪樂性·光恩副尉金箕性奉進第三爵。奏拋毬樂呈才，舞鼓呈才，樂作與民樂·五雲開瑞朝曲呈才。

第四爵奏牙拍呈才·響鉞呈才，樂作鄉唐交奏，千歲萬歲曲呈才。

第五爵奏鶴舞呈才，樂作與民樂·惟皇曲呈才。

第六爵奏蓮花臺呈才，樂作與民樂·恒恒曲呈才。

第七爵奏壽延長呈才，樂作與民樂·夏雲峯曲。呈才訖，樂止。

處容舞進，樂作鄉唐交奏，井呂樂與民樂，尖袖舞進，奏洛陽春曲。呈才訖，又命外賓同敦寧洪樂信等三人以次獻壽。樂止，女伶二人進至簾外，當中分東西北向立，唱御製樂章曰：

慈德之純，厚載難名。默運弘慈，佑啓太平。【宮】

百祿是適，其至如川。子孫振振，吉慶年年。【商】

如斗之邵，如嵩之高。瑤冊紀瑞，春酒燕毛。【角】

於休慈德，撫茲花甲。時觀于華，物采匝匝。【徵】

樂此新邑，謠頌戶增。維萬維億，日月恒升。【羽】

唱訖，降復位。

上教樂性等曰：“予小子幾年企祝，即今日進爵，而天氣清和，慈候康寧，欣慶之忱，何可容喻？”樂性等曰：“萬年華祝，尤切於是年是日，而日吉辰良，縉儀順成，莫非聖孝攸致。叨陪慶會，臣等之幸也。”

女官【尙食】進慈宮前上前撤案，樂作與民樂慢。女官及女執事撤命婦及儀賓戚臣卓，樂止。女官【典贊】唱可起，女官【尙宮】導上出至簾外，女執事【通贊】前導至拜位，女執事引儀賓戚臣降就拜位，樂作洛陽春曲，上再拜，儀賓戚臣再拜，樂止，女執事【通贊】導上出，樂作與民樂令，至閣內樂止。女執事分引儀賓戚臣出，女官【典賓】分引內外命婦還就拜位，樂作洛陽春曲。內外命婦再拜，樂止。女官【典贊】進當慈宮座前，跪白禮畢，女官【典賓】分引內外命婦出。慈宮降座，樂作與民樂令，還至閣內，樂止。

上書下御製詩曰：“菲祿穰穰迓命新，鳳笙鑾吹駐青春。地符觀華騰三祝，歲屆流虹躋六旬。內外賓仍芳樹會，東西班是勝花人。年年只願如今日，長樂堂中酒幾巡。”

令與宴諸臣廢進。教整理諸臣曰：“今日之禮，誠千載初有之慶，而來甲子年當爲慈宮七旬，其時拜園進饌，又當如今日。今日所用盤卓尊爵之具，留藏華城府，以待十年之重回也。”

酒行三遍，濟恭曰：“春臺壽域，古聞其語，今幸於身親見矣。”上曰：“壽考之化，由於慈德，羣老醉飽，亦慈宮之賜，今日羣老之稱觴上壽，皆歸之慈宮也。”樂性等曰：“願以羣老之年，獻于殿宮與元子宮矣。”上曰：“卿等略以盤中黑豆，手裏以進，當送于元子矣。”樂性·濟恭手裏以進，上捧置御案，教曰：“予素不嗜飲，而今日之醉，專爲識喜，卿等亦爲盡醉。”濟恭曰：“臣雖無酒戶，安敢不醉？”上曰：“仗外觀光之中如有老人，不問多少，並分饋酒食也。”濟恭曰：“爲瞻羽旄之美，老人自遠方來者不可勝計，彼如堵如墻者，太半是老人矣。”上曰：“一是人瑞，愈多愈好，以昨日饌案所餘分頒，俾飽慈德好矣。”遂命列坐，持饌案四卓就其前，遍諭慈恩，一一均頒，皆起舞呼千歲，各收裏膳餘而出。

新豐樓賜米圖

十四日，上親臨新豐樓，四民賜米，饑民饋粥。將出宮，教曰：“本府四民饑民，其數爲四千八百十九人云，賜米時分送承旨，已有成命。假承旨李儒敬往社倉，趙鎮寬往山倉，洪仁浩往海倉，先以昨日下午教。一一曉諭，俾知慈恩賜米饋粥，一如親臨，無或遺漏也。城內外四民及賑民，則予當親臨頒賜矣。”又教曰：“饑民四民之饋粥賜米，一齊舉行，而米包先爲輸置樓下，頒給之際無得喧雜。日勢尙早，或有未及來者次知委，俾無一夫之或漏也。”

時至，上具戎服乘馬以出，詣新豐樓，降馬陞座，承史侍衛如常儀，本府判官鄭東協率四民五十口饑民二百六十一口趨入，命賜米饋粥。教承旨李肇源曰：“爾其下去，米則倍給，粥則均饋，而以米粥之賜饋，皆出慈恩之意，曉諭羣民也。”又教曰：“宣傳官持一椀粥來，予當親看其如何矣。”

於是賜鰥二十口·寡二十四口各米六斗，孤六口各米四斗，賑民男壯三十八口各米一斗二升塩八合，男老五十六口女壯四十一口女老七十一口各米一斗塩八合，男女弱五十五口各米八升塩六合，而比各倉米塩倍給。

上教左承旨李晚秀曰：“今方設養老宴，其在尊年之義，不可使羣老許久遲待於外班。予將還御洛南軒，卿則留在此處，四民之來待者一一饋粥，雖

或有後來未及時者，切勿以冷粥饋之，親自看檢，毋或泛忽也。”少頃還御洛南軒。

親臨洛南軒養老宴圖

臨幸定期，先戒府中羣老朝官年七十，士庶年八十，朝官士庶年六十一歲人命與宴。

十四日辰時，鼓二嚴，宣傳官率鼓樂入就舉旗位。三嚴，引儀引羣老三品以下及庶人華城老人，前參議李奭祚等三百八十四人，或杖或夾扶，入就位。左通禮啓外辦，上具戎服出御洛南軒。宣傳官舉旗，樂作與民樂令，爐烟升，繖扇侍衛如常儀。樂止，引儀引羣老二品以上隨駕老人領議政洪樂性·右議政蔡濟恭·領敦寧金履素·判府事李命植·判敦寧李敏輔·守禦使沈頤之·行都承旨李祖源·行大司諫徐有臣·戶曹參判曹允亨等十五人入就位。典儀曰拜，贊儀唱鞠躬·拜·再至·興·平身，羣老釋杖鞠躬，樂作洛陽春曲。拜，一坐再至，興，平身，樂止。引儀分引羣老應陞殿者，仍杖夾扶如初，由東西階陞。將入殿，上命設坐榻於御次之前，教曰：“予當爲羣老興，以示尊年之意也。”左通禮進當座前，跪請爲羣老興，上興命羣老就位。上陞座，羣老就位，庶人列坐於階下。

樂師二人陞自東西階，進至楹外，當中北向立，唱樂章曰：“化日遲遲，鳩杖徐徐。或抽朝籍，或從村閭。黃髮鬢鬢，上笑以視。汝等豈知？寔慈宮賜。慈宮荷天，周甲載屆。用敷厥庶，戶壘家艾。王庸順志，奉省珠邱。既進寶饌，惠咸一州。羣老醉飽，拜稽獻芹。獻芹伊何，北斗南山。”唱訖降復位。

典樂引工歌琴瑟笙簫陞就位，上命分頒黃紬巾，使羣老繫杖頭，各賜帛一段。整理使進酒，樂作與民樂令，進訖樂止。進膳，樂作與民樂慢，執事者設羣老饌，樂止，近侍進花，執事者散羣老花。上曰：“此日此席，眞箇壽域。昨日雖皆簪花，今日參班者加插一花，以識不常有之盛會也。”

整理使將進第一爵，濟恭曰：“當此慶會，錫類之恩至及於臣等，區區之忱，倍切頌祝。願進爵呼嵩，以效古人稱兕之義矣。”樂性曰：“臣忝居羣老之首，

南山北斗之卮，臣當先進矣。”上曰：“卿言儘好，卿其先之，右相領敦寧及三重臣以次各進一爵也。”樂性進爵山呼，樂作樂賓樂鹿鳴·天保曲。濟恭進第二爵山呼，樂作樂賓樂關雎·鵲巢曲。履素進第三爵山呼，樂作樂賓樂南有嘉魚·南山有臺曲。命植·敏輔·頤之以次進爵山呼，樂作鄉唐交奏。上輒興受爵。

引儀引羣老二品以上俱復拜位鞠躬，樂作洛陽春曲。拜，一坐再至，興，平身，樂止。左通禮跪啓禮畢。上降座書下御製詩曰：“鶴髮鳩筇後前，海東和氣洛南筵。願將羣老期頤壽，拜獻慈宮萬萬年。”命樂性書揭于洛南軒，仍命與宴諸臣並廢進。宣傳官舉旗，樂作與民樂令，還內，樂止。

城操圖

大駕詣華城行宮，色承旨稟何日行城操禮。前一日，壯勇外使稟請軍令懸之轅門期日【旗鼓擺列于行宮門外】。

宣傳官跪啓稟掌一號【呼喇叭手舉行】，各將領聽候于行宮門外，城丁軍執器登城。宣傳官跪啓稟掌二號【呼喇叭手舉行】，上具甲冑出御洛南軒。

兵曹判書跪啓稟掌號笛，聚官哨聽發放【宣傳官命起應退】，宣傳官跪啓稟聚官哨號令【呼號笛手舉行】。各將領俱到階下，分左右相向立定。宣傳官跪啓稟鳴金號笛止【呼鉦手舉行】，各將領以次參現【城將兩跪一揖，雉摠·哨官兩跪兩揖，每班出入，牢子大喝】，退還階下原地。

兵曹判書跪啓稟聽發放【命起應退】，兵曹判書傳云：官哨過來，各齊應一聲，轉身向上。宣傳官跪啓稟跪鼓【呼鼓手舉行】，官哨俱跪。兵曹判書發放曰：“官哨聽着【應】。同城共命【應】，人各守禦【應】，毋得喧譁【應】，毋得擅動【應】。駁奸違令【應】，軍法不饒【應】。”各班挨次報叩頭【命起應退】，官哨相向立定。

兵曹判書傳云：應援將過來，各齊應一聲，轉身向上。宣傳官跪啓稟跪鼓【呼鼓手舉行】，應援將俱跪。兵曹判書發放曰：“應援將聽着【應】。賊衆伺隙【應】，一擁衝突【應】，臨機應援【應】，專賴爾力【應】。遲延誤事【應】，軍法不饒

【應】”如前叩頭【命起應退】。

兵曹判書跪啓稟官哨下地方【命起應退】，宣傳官跪啓稟鳴金二下，大吹打【呼鉦手舉行】。量其時鳴金三下，吹打止。

左通禮跪啓中嚴，宣傳官跪啓稟掌三號【呼喇叭手舉行】。左通禮跪啓外辦，上乘馬出行宮門外，色承旨稟旗鼓在前請駐蹕。宣傳官奉藍白信箭，跪啓稟放信砲三聲【呼教鍊官舉行】。仍跪啓稟鳴金二下，大吹打【呼鉦手舉行】。大駕由藏春閣·于華觀·未老間亭前路，到將臺作門外，宣傳官跪啓稟鳴金三下，吹打止【呼鉦手舉行】。外使於臺下放砲，吹天鵝聲，各兵吶喊共三次，鳴金止。宣傳官跪啓稟鳴金二下，大吹打【呼鉦手舉行】，四面城將一體吹打。外使跪迎候，過即隨行，聽候轅門外。大駕將至將臺，宣傳官跪啓稟鳴金三下，吹打止【呼鉦手舉行】，四面城將亦吹打止。仍跪啓稟鳴鑼，邊旗幟分立左右【呼鑼手舉行】，鳴金止。大駕登壇【黃門旗手，又捍作門】。

○小開門，兵曹判書跪啓稟小開門【命起應退】，宣傳官跪啓稟小開門，吹打【呼鉦手舉行】。仍跪啓稟鳴金三下，吹打止【呼鉦手舉行】。兵曹判書先行參現【兩跪一揖】，次宣傳官【兩跪兩揖】，次軍牢，巡視手吹鼓手等分班叩頭【命起應退】。

○升壇，兵曹判書跪啓稟放升壇砲【命起應退】，宣傳官跪啓稟升壇號令【呼教鍊官放信砲三聲】，鳴金二下，大吹打【牢子大喝三聲，牢子一人進跪大呼開門，旗手應聲揮旗而退】。宣傳官跪啓稟鳴金三下，吹打止【呼鉦手舉行】。

○升旗，兵曹判書跪啓稟升旗【命起應退】，宣傳官跪啓稟升旗號令【呼教鍊官放信砲一聲】，播鼓鳴鑼共三通，卓起大白旗【各面城將一體應砲，播鼓鳴鑼，升方色旗】，鳴金止【各面一體鳴金鑼鼓止】。外使由轅門趨入參現【兩跪一揖】，仍留臺上。色承旨稟宰樞執鼓【宣傳官呼訓鍊院傳云宰樞執鼓，訓鍊院正應聲播鼓】。

○發伏路，兵曹判書跪啓稟發伏路【命起應退】，宣傳官跪啓稟發伏路號令【呼教鍊官放信砲三聲】，各面一體應砲鳴金邊，發伏路【每面十名，各領三眼

銃起火等器，出城分伏，每伏一名相去²⁹⁹里】，鳴金止。

○閉城門，兵曹判書跪啓稟閉城門【命起應退】，宣傳官跪啓稟閉城門號令【呼教鍊官放信砲三聲】，鳴金二下，大吹打。閉城門，鳴金止，仍跪啓稟吶喊號令【呼教鍊官放信砲一聲】，吹天鵝聲吶喊共三次，鳴金止。兵曹判書跪啓稟放肅靜砲【命起應退】，宣傳官跪啓稟肅靜號令【呼教鍊官放信砲一聲】，立肅靜牌，豎豹尾旗。宣傳官跪啓稟休息號令【呼教鍊官放信砲一聲】，鳴鑼【各面一體應砲鳴鑼】，鳴金止。

○一面操該面伏路，放砲舉起火報警，本面城將亦放砲舉起火如數。兵曹判書跪啓稟某面操【命起應退】，宣傳官跪啓稟某面操號令【呼教鍊官放信砲如數】，仍跪啓稟起立號令【呼教鍊官放信砲一聲】。吹吽囉，各兵起立，鳴金止。立該方色大旗，播鼓，吹天鵝聲，點旗【該面遊兵吶喊飛趨應援】。該面報賊到百步內，自主號令，狼機鳥銃輪放。又報賊至五十步內，射手齊發。

宣傳官跪啓稟播鼓鳴鑼【呼教鍊官放信砲一聲】，即播鼓鳴鑼，該面報賊到城下，城上打石。報賊已敗退，鳴金鑼鼓止。又報賊已遠遁回巢，宣傳官跪啓稟鳴金鑼鼓止【呼鉦手舉行】。仍跪啓稟遊兵回信地號令【呼教鍊官放信砲一聲】，立該面旗向內點，鳴金二下，大吹打【該面一體應砲吹打】。遊兵各回信地，鳴金吹打止【該面一體吹打止】。宣傳官跪啓稟休息號令【呼教鍊官放信砲一聲】，鳴鑼【該面一體應砲鳴鑼】，鳴金止。兵曹判書跪啓稟某面操畢【命起應退】。

○四面齊操【如上一面操式，四面一時舉行】。

○開城門，兵曹判書跪啓稟開城門【命起應退】，宣傳官跪啓稟開城門號令【呼教鍊官放信砲三聲】，鳴金二下，大吹打。開城門，鳴金止。

○收伏路，兵曹判書跪啓稟收伏路【命起應退】，宣傳官跪啓稟收伏路號令【呼教鍊官放信砲三聲】，掌喇叭【各面一體應砲掌喇叭】，收伏路，鳴金止。

○下城，兵曹判書跪啓稟下城【命起應退】，宣傳官跪啓稟下城號令【呼教鍊官放信砲三聲】，鳴金二下，大吹打【各面一體應砲吹打】。各兵下城，鳴金止。

299 - : 원문에는 '우'로 되어 있으나 「정조실록」 및 「을묘원행정리의궤」 등을 참조하여 바로잡았다.

宣傳官跪啓稟休息號令【呼宣傳官放信砲一聲】，鳴鑼【各面一體應砲鳴鑼】，鳴金止。

夜操圖

候夜，兵曹判書跪啓稟起操【命起應退，此下啓稟時，起應皆倣此】，宣傳官跪啓稟掌一號【喇叭舉行】。各兵登城，兵曹判書跪啓稟發伏路，宣傳官跪啓稟發伏路號令【信砲三聲】。鳴金邊發伏路【各面一體鳴金邊】，鳴金止，宣傳官跪啓稟掌二號【喇叭舉行】。各官到齊發放，節次一依晝操例。宣傳官跪啓稟掌三號【喇叭舉行】。

○閉城門，兵曹判書跪啓稟閉城門，宣傳官跪啓稟閉城門號令【信砲三聲】。鳴金二下大吹打，閉城門，鳴金止。仍跪啓稟吶喊號令【信砲一聲】。吹天鵝聲，吶喊共三次，鳴金止【晝操時若不稟落旗，則號令同晝操例】。

○演炬，兵曹判書跪啓稟演炬，宣傳官跪啓稟演炬號令【信砲三聲，起火三枝】。燃炬四柄【各面一體應砲舉起火燃炬】，宣傳官跪啓稟點炬號令【信砲一聲，吹天鵝聲】，點炬【各面應砲點炬吶喊三次】。宣傳官跪啓稟仆炬號令【信砲三聲】，仆炬【各面應砲仆炬】。

○落旗，兵曹判書跪啓稟落旗，宣傳官跪啓稟落旗號令【信砲一聲】。播鼓鳴鑼共三通，落旗【各面應砲鑼鼓三通落旗】。

○懸燈，兵曹判書跪啓稟懸燈，宣傳官跪啓稟懸燈號令【信砲三聲，起火三枝】。播鼓鳴鑼共三通，懸五色雙燈【各面應砲起火，鑼鼓三通懸燈。各塚一時懸燈，城內人家門上各懸燈一盞，以本家一人坐守】，鳴金止【各面鳴金止】。宣傳官跪啓稟休息號令【信砲一聲】，鳴鑼【各面應砲鳴鑼】，鳴金止。

○傳更，兵曹判書跪啓稟起更，宣傳官跪啓稟起更號令，發播撞鐘【鐘以金代】。宣傳官跪啓稟定更號令【信砲一聲，吹天鵝聲】，打更鼓一次梆鳴【各面梆鳴相暎一遍，周而復始】。約二更之時，宣傳官跪啓稟二更號令【信砲一聲，吹天鵝聲】，傳更宣傳官跪啓稟走火號令【信砲一聲，起火一枝】。走火畢，宣傳官跪啓稟吶喊號令【放砲，吹天鵝聲，吶喊三次】，鳴金止如前守更。四面輪操

·齊操一依晝操例。行至五更時，宣傳官跪啓稟發播撞鐘【照前舉行】。

○落燈，兵曹判書跪啓稟落燈，宣傳官跪啓稟落燈號令【信砲一聲】。播鼓鳴鑼共三通，落燈【各面一體落燈】，鳴金止。開城門，收伏路，下城節次一依晝操例行。宣傳官跪啓稟掌一號。鳴金邊旗幟分立三行，仍跪啓稟掌二號。大駕還詣行宮。

得中亭御射圖

上御得中亭御射。領議政洪樂性·守禦使沈頤之·京畿監司徐有防·戶曹判書李時秀·壯勇外使趙心泰·內使徐有大·摠戎使徐龍輔·行左承旨李晚秀·行右承旨李益運·整理使尹行恁·檢校直閣南公轍·抄啓文臣徐俊輔·曹錫中·隨駕將官吳毅常·李哲·李光益·李熾·趙歧等陪射。御射柳葉箭六巡，獲二十四矢，小布五巡，獲二十四矢，掌革一巡，三中。上曰：“射雖六藝中一事，而亦近於技，故拋而不習者已四年，今日之中亦偶然耳。”顧謂樂性曰：“卿以八耋元老，小布三中，亦可謂稀貴矣。”仍宣諸臣飯。日暮後又命設小的，列二炬於左右，御射二巡獲五矢。

解題

관암 홍경모가 1795년 윤2월에 있었던 정조의 화성 능행慶幸을 그림으로 그린 「화성행행도」의 내용을 부연 설명한 기문이다. 모두 11편의 소기小記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작품들은 해당 그림의 상황을 매우 상세하게 설명 및 묘사하였다. 이 작품의 내용은 『원행을묘정리의궤圖幸乙卯整理儀軌』의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많은 한편으로 내용의 상략詳略 등에 차이가 있다.

主題語

관암冠巖, 홍경모洪敬謨, 화성華城, 화성행행도華城幸行圖, 경모궁景慕宮,

혜경궁惠慶宮, 정조正祖, 현릉원顯隆園, 반차도班次圖, 알성謁聖, 낙남헌洛南軒,
방방放榜, 봉수당奉壽堂, 진찬연進饌宴, 신흥루新豐樓, 양로연養老宴, 성조
城操, 야조夜操, 득중정得中亭, 어사御射

화성에 대한 기문

華城記



홍경모洪敬謨(1774~1851), 『관암전서冠巖全書』 17책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 翻譯 |

우리 정조대왕正祖大王 기유년(1789, 정조 15) 가을, 현릉원顯隆園을 수원의 화산花山으로 옮겨 모시고 읍치邑治를 유천柳川으로 옮겼다. 5년이 지난 계축년(1793, 정조 23)에 유수부留守府로 승격시켜 체모體貌를 높였으며, 행궁行宮을 두어 우러르고 의지하는 마음을 붙였다. 이에 이 일로 인하여 화성에 성을 쌓고 여러 사람들의 마음으로 완성하였으니, 교산喬山¹의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겹겹이 감싸 보호하며 사방이 모여들어 만 대 동안 우러러보게 되었다. 참으로 대성인大聖인의 큰 효성과 웅대한 계획이 바다에 건주고 하늘에 닿을 정도가 아니었다면 그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이제 성과 언뫼이 포괄하는 곳을 보면 실로 하늘이 내리신 땅으로, 바로 삼남三南의 요충지에 해당하며 엄연히 경기京畿를 장악하여 억만 년 오랜 세월 동안 선침仙寢²을 감싸 보호하며 행궁을 막고 지켜 서울을 보호하는 곳이니,

1 喬山 : 橋山, 전설 속 중국의 黃帝를 장사지낸 곳이라고 전해진다.

2 仙寢 : 왕릉의 寢殿을 가리키는 말로, 王陵을 달리 이르는 말로 널리 쓰인다.

이는 실로 삼대三代³의 성세盛世에도 없었고 지금 처음 보게 된 것이다.

성의 둘레는 4,600걸음으로 총 12리이다. 성의 체제는 가로가 길고 완만히 기울어져 바야흐로 봄날 버들잎의 모양과 비슷하니, 대개 지명의 '유천'을 취한 것이다. 그런데 성의 이름을 '화華'라고 한 것은 현릉원이 화산에 있기 때문에 '화花'와 '화華'가 서로 통함을 취한 것이며 또한 '화華 땅의 사람이 성인에게 축원을 드리는' 뜻을 붙인 것이다.

아, 지금 15년 사이에 정호鼎湖의 활과 검⁵을 붙잡을 수 없지만 풍읍豐邑⁶의 누대와 망루는 옛날 그대로이니, 잊지 못하는 생각을 가진 것이 어찌 단지 이 성에 거주하면서 아침저녁으로 가리키는 사람뿐이겠는가. 이에 성⁷의 특별한 제도와 웅대한 건축물의 굉장한 규모를 상세히 기록하여 우리 선왕께서 모든 임금의 으뜸이 되는 효성과 만물에 두루 미치는 지혜를 송축하노라.

성城

성의 전체 국면은 동쪽을 향해 열려 있고 팔달산八達山이 우뚝하게 뒤편의 진산鎭山⁸이 되었고, 일-자의 모래밭은 평평하여 가까이에 안산案山⁹이 되었다. 가운데로는 큰 하천이 남북으로 지나 사각이 모두 높고 여덟 개의 문이 서로 갈마드니, 참으로 만 년 동안 금성탕지金城湯池¹⁰가 될 땅이

3 三代: 중국의 夏, 殷, 周 세 시대를 지칭하는 말로, 태평성대의 대명사로 쓰인다.
 4 華…… 드리는: 『莊子』 「天地」에 요임금이 화 땅을 방문하였는데, 그곳의 국경지기가 요임금에게 장수와 부유함, 다산을 축원하고자 하였는데 요임금이 이 세 가지는 무위자연의 덕을 기르는 방법이 아니라며 거절하였다. 이에 국경지기가 성인은 자연을 따라 살아가면 될 일이라는 요지로 요 임금을 비판한 내용이 나온다.
 5 鼎湖의…… 검: 중국의 지명으로, 고대 전설 속 임금인 黃帝가 용을 타고 승천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황제가 승천할 때 용 수염이 내려와 황제가 그것을 잡고 올라가니 신하들이 그것을 따라 잡자 수염이 끊어지며 황제의 활과 같이 땅에 떨어졌다 한다. 여기에서 연원하여 임금 또는 임금의 崩御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던 바, 여기에서는 정조를 가리킨다.
 6 豐邑: 한나라 高祖의 고향인 沛豐읍을 가리키는 말로, 제왕 혹은 그의 고향을 비유하는 표현이다.
 7 城: 원문은 '粉堞'으로, 성 위에 낮게 쌓아 석회를 바른 담장, 즉 성가퀴를 가리킨다.
 8 鎭山: 도읍지나 고을 뒤에 있는 큰 산, 즉 主山을 가리키는 말이다.
 9 案山: 풍수지리에서 집터나 밭자리 맞은편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말이다. 主山과 상대된다.
 10 金城湯池: 쇠로 만든 성과 그 둘레에 파 놓은 뜨거운 물로 가득 찬 못이라는 뜻으로, 방어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성, 나아가 침범하기 어려운 장소를 비유하는 말이다.

다. 중국의 성제城制는 반드시 안팎으로 겹쳐 쌓는데, 이는 들판에 쌓은 성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성터는 산등성이나 산기슭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이점을 편리하게 이용하니 공사하고 건축하는 수고를 들이지 않으며, 절로 안을 다질 수 있으니 겹쳐 쌓을 필요가 없다. 제도가 다른 까닭은 바로 땅의 형세가 달라서인 것이다.

성의 높이는 2장을 기준으로 하며, 산 위는 5분의 1을 줄여 모두 돌로 쌓았고 돌은 모두 그 길이를 취하여 세로로 늘어놓아 그 뿌리를 깊게 하였다. 다음으로는 돌맹이를 뿌리 주위로 두르고 몽둥이로 부수어 빈틈을 메우고, 다시 두드려 쌓아 두께를 반 장 정도 늘이고, 다음으로는 흙을 섞어 이것으로 안을 다진다. 모두 계산하면 성의 두께는 최소 5장이 되고 위는 또한 3장 정도 된다. 성의 제도는 바닥에서부터 허리에 이르기까지 끝에서 안으로 들어서 그 형세가 마치 줄어드는 듯이 만들고, 허리 이상은 끝에서 밖으로 튀어나오게 하여 그 형세가 마치 내려다보듯 하게 하여 성의 몸체가 절로 홀 모양이 되게 한다. 터를 따라 돌면서 흙을 쌓아 대략 4~5장 너비가 되니 모두 계산하면 주위가 27,600척으로 4,600보가 되며, 리별로 계산하면 12리 남짓이 된다.

성문은 넷인데 북쪽이 장안문長安門, 남쪽이 팔달문八達門, 동쪽이 창룡문蒼龍門, 서쪽이 화서문華西門이다. 수문水門은 둘인데 화홍문華虹門과 남수문南水門이다. 암문暗門¹¹은 다섯, 적대敵臺는 넷, 노대弩臺는 둘, 공심돈空心墩¹²은 셋, 봉돈烽墩은 하나, 치성雉城은 여덟, 포루砲樓는 다섯, 포루舖樓¹³는 다섯, 장대將臺는 둘, 각루角樓¹⁴는 넷, 포사舖舍¹⁵는 셋으로, 모두 계산하면 문門, 초譙, 치雉, 포舖, 대臺, 둔墩 등이 점유한 땅이 원래 성의 6분

11 暗門: 성벽에 누대 없이 만들어 놓은 작은 문이다. 적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만들어 평소에는 돌로 막아 두었다가 필요할 때에 비상구로 사용하였다.
 12 空心墩: 속에 공간이 있게 만든 돈대(조금 높은 평지)이다.
 13 舖樓: 舖兵(軍鋪에서 망을 보거나 驛站에서 공문을 전달하는 병사이다. 여기에서는 전자의 의미)을 두어 수비하기 위해 지은 戍樓를 말한다.
 14 角樓: 성벽 위의 모서리에 지은 누각이다. 적의 동태를 살피기 위한 것이다.
 15 舖舍: 軍鋪(宮城의 밖에 巡邏軍이 머무는 건물)나 驛站(역마를 바꾸어 타는 곳)으로 쓰는 건물이다.

의 1이다.

성은 북쪽의 평평한 평지에서 시작되어 동쪽으로 용연龍淵 아래에서 일어나 대천大川을 가로지르는데 냇물 안에 물을 끊고 모래로 개척한 것이 25보인데 이것이 북수문(화홍문)의 터가 된다. 냇물 서쪽에서 북쪽으로 124보 3척 정도 나아가면 북동포루北東砲樓의 터가 되는데 둘레는 21보 1척이다. 누대의 서쪽 128보 되는 곳은 북동치北東雉의 터가 되는데 둘레는 20보이고, 북동적대北東敵臺와 서로 이어지며 대의 둘레는 22보 1척이다. 마침내 꺾여 서쪽을 향해 42보를 가면 북문(장안문) 터가 되며 너비는 26보이고 웅성襄城¹⁶의 둘레는 55보이다.

웅성에서 서쪽으로 41보 4척 되는 곳이 북서적대北西敵臺이고 또한 둘레가 22보 1척이며, 대의 서쪽 156보 되는 곳이 북서포루北西砲樓 터로 둘레가 22보이다. 또 누대 서쪽 90보 되는 곳이 북은구北隱溝인데 도랑의 너비는 2보 5척이며 성 바깥의 실개천을 끌어와 성 안 북쪽 연못에 저장해 둔다. 북은구 서쪽으로 37보 되는 곳이 북포루北舖樓 터로 둘레 17보이며, 북포루 서쪽으로 또 100보 되는 곳이 서북공심돈西北空心墩 터로 둘레 23보이다. 꺾여 남쪽으로 향하여 15보 4척 되는 곳이 서문(화서문) 터로 너비는 14보 4척이고 웅성의 둘레는 29보이다.

여기에서 평지가 다하고 산을 따라 올라가 146보 되는 곳이 서북각루西北角樓가 되며, 굴곡진 곳을 평평하게 하여 산등성이 절반이 안으로 산타山托¹⁷을 만들었다. 또 70보 되는 곳이 서일치西一雉 터로 둘레가 16보 1척이다. 서일치 남쪽으로 점차 높은 곳으로 향하여 121보 4척에 이르러 서포루를 만들었으니 18보 4척의 터이다. 누대의 남쪽 104보 되는 곳이 서이치西二雉이고 14보 5척 되는 터이다. 또 남쪽으로 90보를 가면 팔달산 정상에 이른다.

16 襄城: 성문을 보호하고 성을 튼튼히 지키기 위하여 큰 성문 밖에 圓形이나 方形으로 쌓은 작은 성이다.
17 山托: 산이 안쪽이 되도록 성을 쌓아, 內城을 쌓을 필요 없이 산 자체가 내성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성은 정상부터 높아져 안은 넓어 8면의 노대 및 2층의 장대 터가 있다. 여기에서 44보를 가면 그 형세가 조금 낮아져 서암문 터에 이르며, 은밀히 한 굽이 꺾이는데 문의 너비는 1보 1척이다. 다시 그 등성을 따라 남쪽으로 향하여 곧바로 126보를 내달리면 서포루西舖樓이니 20보의 터이다. 또 포에서 남쪽으로 140보 되는 곳이 서삼치西三雉로 14보 4척의 터이고, 치 남쪽 90보 되는 곳이 서남암문西南暗門의 터로 문의 너비는 1보 2척이다. 그 정남쪽 한 산기슭으로 곧바로 암문 바깥으로 나가면 용도甬道 터를 만들었는데 길이는 177보에 너비는 6보이고 3면의 둘레는 367보이다. 서남각루(화양루)의 터는 그 남쪽 꼬트머리에 있다.

암문에서 꺾여 동쪽으로 향하면 남성南城의 터가 시작되는데, 형세는 점점 험해져서 101보를 가면 남포루이고 그 터는 20보 2척이다. 누대에서 동쪽으로 또 90보 되는 곳은 남치 터로 둘레가 14보 2척이다. 아래로 평지에 이르러 71보 되는 곳에 삼문三門의 은구隱溝를 만들었는데 도랑의 너비는 4보이고, 성 안 냇물의 서쪽 지류를 끌어 왔다. 냇물 동쪽에서 40보 1척 되는 곳이 남서적대南西敵臺로 22보 1척의 터이고, 또 41보 되는 곳이 남문(팔달문) 터로 너비 25보 4척에 웅성의 둘레는 55보이다.

웅성에서 동쪽으로 41보 1척 되는 곳이 남동적대南東敵臺로 그 둘레는 또한 22보 1척이다 또 22보 되는 곳이 남암문南暗門 터이고 너비가 3보이다. 여기부터 30보 4척을 가면 남공심돈南空心墩에 이르는데 그 터는 26보이다. 마침내 꺾여 북쪽으로 향하여 73보를 가면 남수문南水門 터이고 물을 끊고 모래로 개척하기를 북수문과 똑같이 하였으며 그 너비도 역시 25보이다. 수문 동쪽에서 평지를 지나 30보를 가면 다시 산 위의 터로 올라가는데 그 형세가 자못 험준하다. 또 30보를 가면 넓혀서 동남각루東南角樓 터를 만들었는데 정상은 높고 평평하다. 북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동일치東一雉 터에 이르고, 666보를 가면 이곳이 일자문성一字文星¹⁸이 되어

18 一字文星: 풍수지리 용어로, 높고 낮은 봉우리가 없이 '一'자 모양으로 생긴 案山을 가리킨다.

성이 그 뒤를 에워싸고 있다. 각루에서 북쪽으로 59보 3척을 가면 17보의 동삼치東三雉 터가 있고, 다시 123보 1척을 가면 동이포루東二舖樓가 있으며 15보 3척의 터이다. 포에서 105보를 가면 봉돈烽墩 터가 있는데 돈은 성 바깥으로 튀어나왔고 둘레는 23보 4척이다. 돈의 북쪽으로 114보를 가면 동이치東二雉이고 16보의 터이며, 또 110보를 가면 동포루東砲樓로 20보의 터이고, 누대의 북쪽으로 110보 2척을 가면 다시 17보의 터가 열리니 바로 동일치東一雉이다. 치에서 북쪽으로 125보를 가면 동일포루東一舖樓이고, 포의 터는 17보 1척이다. 이곳에서 조금 동쪽으로 굽어지면 북쪽으로 동문(창룡문) 터에 이르는데 그 사이는 186보 2척이고 문의 너비는 16보 2척, 웅성의 둘레는 24보이다.

웅성 머리에서 곧바로 북쪽으로 96보를 가면 동북노대東北弩臺가 있고 둘레는 16보 2척이며, 또 서북쪽으로 꺾여 60보를 가면 동북공심돈東北空心墩이 있다. 돈대 뒤로 꺾여 서쪽으로 150보를 가면 동장대東將臺 터가 있다. 성은 대의 뒤편으로 활 모양으로 굽어 서쪽으로 동암문東暗門 터가 나오는데 그 사이의 높낮이는 166보이고 문의 너비는 또한 1보 2척이다. 문의 서쪽에서 조금 북쪽으로 조금 높아져 137보를 가면 동북포루(각건대)로 15보 4척의 터이다. 또 서쪽으로 돌아 아래로 76보 4척을 가면 벽성巖城으로 40보의 땅이며 그 사이에 북암문北暗門이 그중 1보를 점유하고 있으며 문의 동쪽은 18보이고 서쪽은 21보이다. 벽성 서쪽머리에서 북으로 돌아 다시 높아져 19보를 가면 동북각루東北角樓(방화수류정訪花隨柳亭) 터이니 옛날의 이른바 용머리 위이며 용연은 그 북쪽에 있다. 누대에서 서쪽으로 44보를 가면 산이 다하고 내가 되며 솟아오른 곳에서 그친다.

이것이 대체로 성터의 대략이 된다.

장안문 長安門

장안문長安門은 성의 북문北門으로 행궁行宮의 왼편 약간 동쪽 780보 되

는 곳에 있다. 문은 안팎으로 홍예虹蜺¹⁹를 건설하였다. 안쪽 면의 좌우는 성의 둘 중에서 크고 잘 다듬어진 것으로 문 곁의 오른쪽 면을 만들었는데 무사武砂라고 한다. 좌우의 외장대外長臺²⁰의 둘다리는 각 23층이고, 바깥 면 또한 무사를 문 양 쪽에 붙였다. 문은 철엽鐵葉²¹으로 싸고 빗장을 갖추었다. 홍예의 덮개 판 바닥에는 구름을 그렸고 안팎의 홍예 위에는 장군²² 모양의 무사와 2층의 장대를 더하였고 누조漏槽²³를 각 4개씩 설치하였다. 바깥 면의 평평한 성가퀴는 안쪽 담장과 같으나 넓어서 동서쪽 담장 바깥으로 나왔다. 여기에 이르면 높이는 6척이어서 웅성巖城 위의 작은 홍예 문과 연결되며, 타구壕口²⁴ 10개를 늘어놓고 네모 모양의 총혈銃穴²⁵ 12개를 만들었다. 동서의 성가퀴 가운데에는 각기 작은 판자문을 설치하였고, 담장 안에는 2층 누대를 올려 전체 높이가 32척 9촌, 위아래 각 10칸이며, 아래층 안은 7포包,²⁶ 바깥은 5포이고 널빤지를 바닥에 깔았다. 좌우의 협간夾間²⁷은 각각 둘인데 서쪽 협간의 제1칸과 동쪽 협간의 제2칸에는 각기 난간이 구부러진 층계를 설치하여 위층으로 통하게 하였다. 그리고 서쪽은 북쪽에서 올라가며 동쪽은 남쪽에서 올라가는데, 서쪽 계단 아래에는 살문[箭門]²⁸에 자물쇠를 설치하여 임금께서 임어臨御하셨을 때 열도록 하였다. 위층의 안팎은 모두 7포이고 정간과 좌우 제1협간은 너비가 모두 아래 층과 같은데 모두 널빤지를 깔고 사면에 널빤지 문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19 虹蜺 : 홍예문(문의 윗부분을 무지개 모양으로 반쯤 둥글게 만든 문)이다.
 20 外長臺 : 누운 장대이다. 장대는 장대석(섬돌 층계나 축대를 쌓는 데 쓰는, 길게 다듬어 만든 돌)을 말한다.
 21 鐵葉 : 火攻이나 총탄을 방어하기 위해 대문짝에 철판 쪽으로 물고기 비늘 모양을 만들어 붙여 박는 것을 말한다.
 22 장군 : 술, 간장 따위의 액체를 담아서 옮길 때에 쓰는 그릇이다. 오지로 만들기도 하고 나뭇조각으로 통 메우듯이 짜서 만들기도 하는데, 중두리를 뉘어 놓은 모양으로 한쪽 마구리는 편평하고 다른 한쪽 마구리는 半球形이며 작은 아가리는 위쪽에 있다.
 23 漏槽 : 성의 바깥면 위에 지은 다락집 둘레에 모인 물이 흘러내리도록 한 홈이다.
 24 壕口 : 성가퀴이다.
 25 銃穴 : 몸을 숨긴 채로 총을 쏘기 위하여 성벽, 보루 따위에 뚫어 놓은 구멍이다.
 26 包 : 처마를 장식적으로 길게 내밀기 위하여 처마 도리 밑에 처마를 받쳐 한 짝은 部材이다.
 27 夾間 : 正間의 좌우 양쪽에 있는 방이다.
 28 箭門 : 살을 가로 세로로 넣어 끈 문이다.

삼면에는 모두 짐승 얼굴을 그리고 호로전안(葫蘆箭眼)²⁹을 뚫었으며 안쪽 면에는 태극을 그렸는데 3토 단청³⁰을 칠했다. 편액은 지돈녕(知敦寧) 조운형(曹允亨)이 쓰고, 상량문(上樑文)은 우리 할아버지 문헌공부군(文獻公府君)³¹께서 하교(下敎)를 받들어 짓고 쓰셨다.

북용성(北甕城)은 장안문의 외성(外城)이다. 『성서(城書)』³²에서는

“용성은 정성(正城)의 크기에 따르며 모양은 용기를 반으로 가른 것 같다.”

라고 하였다. 문 위에 적루(敵樓)³³를 세우지 않는 것은 정성이 가로로서 있어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용성은 정문(正門)의 좌우 무사 각 7보로부터 일으켜 벽돌을 쌓아 성을 만들었으며, 바깥 면에는 현안(懸眼)³⁴을 16개 뚫고 안쪽 면에는 누조(8개)를 벽돌로 만들었다. 옛 제도에는 혹은 왼쪽, 혹은 오른쪽 한쪽 문만을 열었는데 지금은 사벽팔달(四關八達)³⁵의 뜻을 취하여 가운데에 문을 설치하여 정문과 마주하게 하였으니, 두 문의 사이는 10보 8척이고 돌로 안팎에 홍예문을 만들었다. 두 문짝은 정문처럼 쇠를 얹어 빗장을 설치하였다. 개 관 위는 벽돌을 쌓고 그 위에 오성지(五星池)³⁶를 설치하였는데, 오성지의 모습은 돼지 구유와 같고 5개의 구멍에 크기는 되와 같으니 적이 불로 문을 태우려 한다면 물을 내려부을 수 있는 것이다. 오성지 위에는 성가퀴 9첩(堞)³⁷을 설치하고 그 좌우는 각기 한 층을 낮추어 철뚝자 모양의 성가퀴 7첩을 설치하였다. 성과 만나는 부분에 다시 철자 반

29 葫蘆箭眼 : 활을 쏠 수 있도록 문에 낸 호리병 모양의 구멍이다.
 30 3토 단청 : 磊綠 · 嬌朱紅 · 朱紅肉色으로 칠한 단청을 가리킨다.
 31 文獻公府君 : 홍경모의 조부인 耳溪 洪良浩(1724~1802)를 가리킨다.
 32 城書 : 명나라 때 郭子章(1543~1618)이 지었다고 하는 책으로, 성의 제도를 설명하였다고 한다.
 33 敵樓 : 敵臺(성문 양옆에 외부로 돌출시켜 용성과 성문을 적으로부터 지키는 네모꼴의 대)이다.
 34 懸眼 : 성벽의 위에서 아래로 군데군데 낸 홈이다. 성벽을 기어오르는 적병에게 끊는 물을 쏟아 붓기 위하여 만들었다.
 35 四關八達 : 사방으로 열리고 팔방으로 통한다. 四通八達과 같은 뜻이다.
 36 五星池 : 적의 火功에 대비하기 위하여 성문 위에 만들어 놓은 수조이다. 벽돌을 쌓아 만들었는데, 다섯 개의 구멍을 내어 물이 흘러내리게 되어 있다.
 37 堞 : 女牆(성가퀴)은 사이사이가 끊어져 있고 끊어진 곳을 堞口라고 하며, 타구로 끊어진 여장의 한 단위를 첩이라 한다. 첩의 개수로 성벽의 길이를 표시하기도 한다.

모양으로 층을 만들어 각기 총안(銃眼) 하나씩을 뚫었다. 안쪽 면은 평평한 성가퀴를 두르고 용성 위에는 모두 네모난 벽돌을 깔았으며 좌우 끝에는 벽돌 홍예문과 작은 널빤지 문을 설치하여 성의 위와 통하게 하였다. 문의 양쪽 곁에는 또한 평평한 성가퀴를 설치하였다.

북성(北城)의 적대(敵臺)³⁸ 2개는 장안문의 좌우 각 53보 되는 곳에 있다. 옛 제도에는 70보 되는 곳에 대 하나를 세우고 활, 화살, 화장(火槍)³⁹을 대 위에 갖추어 두도록 하였다. 『성서』에서 말하기를,

“오늘날의 성은 화살과 탄환이 꼭 필요하지 않으니, 비록 창이나 낭선(狼筴)⁴⁰같은 무기도 또한 위로 찌르면 여유가 있고, 온전히 높은 대의 양 가장자리에 의지해 살펴보면 적이 곧바로 성 아래에 도달할 수도 없다. 또한 곡선을 그리며 날아오는 화살이나 비껴 날아오는 탄환이 우리 대 위의 사람을 해칠 수 없다.”

라고 하였다. 대략 이 제도를 모방하여 대의 높이를 원래 성의 성가퀴와 나란하게 하고, 반은 성 바깥으로 나오고 반은 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현안 3개를 설치하였다. 철뚝자 모양의 성가퀴로 에워싸고 바깥 3면은 11첩을 쌓아 각기 총안을 뚫었다. 안쪽 면은 좌우로 평평한 성가퀴를 각 1첩씩 쌓고 그 안을 비우고 돌계단을 설치하여 대 위와 통하게 하였다.

팔달문 八達門

팔달문(八達門)은 성의 남문(南門)으로, 행궁(行宮)의 오른쪽 조금 동쪽 500보에 있는데 제도는 장안문과 같다. 편액은 지돈녕(知敦寧) 조운형(曹允亨)이 썼고, 상량문은 봉조하(奉朝賀) 이명식(李明植)이 하교를 받들어 지었으며, 그 아들인 송도유

38 적대 : 성문 양옆에 외부로 돌출시켜 용성과 성문을 적으로부터 지키는 네모꼴의 대이다.
 39 火槍 : 화약을 달아 놓은 창으로, 총을 가리킨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
 40 狼筴 : 낭선창(조선시대에, 아홉 층부터 열한 층의 가지가 달려 있고 창대 끝과 가지 안쪽에 쇠붙이로 만든 날카로운 날이 있는 창)이다. 쇠 또는 대로 만드는데, 길이는 열다섯 자, 무게는 일곱 근이다.

수松都留守 면응冕膺이 하교를 받들어 썼다.

남옹성南甕城은 팔달문의 외성外城으로, 안팎으로 홍예문을 만들고 모두 벽돌로 쌓았으며 현안 12개를 설치하였다. 옹성 위의 바깥쪽 먼 좌우에는 ‘철凸’자 모양 성가퀴를 각 9첩씩 쌓았고, 나머지는 북옹성과 같으며 적대 역시 북대北臺와 같다.

창룡문蒼龍門

창룡문蒼龍門은 성의 동문東門으로, 서남쪽으로 행궁과 1,040보 떨어져 있다. 제도는 장안문, 팔달문과 같은데 좌우 성가퀴 안쪽에 누대 6칸을 올리고 바닥에는 널빤지를 깔았다. 편액은 판부사判府事 유언호兪彦鎬가 쓰고, 상량문은 검교 직각檢校直閣 윤행임(후에 죄를 지어 죽었다)이 하교를 받들어 짓고 썼다.

동옹성東甕城의 제도는 옛날에 한쪽만을 연다는 뜻을 취하여 옹성을 쌓되 성문 왼편에 이르러서는 원래 성에 닿지 않게 하고 외문外門을 설치하지 않아 서울 흥인지문興仁之門의 옹성 제도와 같게 하였다. 문의 오른편에서 6보 되는 곳에서부터 일으켜 문의 왼편 역시 6보 3척 되는 곳에서 그치며, 성과 접하지 않은 곳은 그 사이가 4보인데 안쪽 면에 돌을 쌓고 바깥쪽에 벽돌을 쌓아 안에 벽돌로 누조를 설치하였다. 사방을 둘러 평평한 성가퀴를 쌓고 밖에 현안 3개를 뚫었으며, 성가퀴 4첩을 쌓고 원·근 총안 14개를 뚫었다. 옹성 위에는 회반죽을 다져 쌓고 그 남쪽 끝에 돌계단을 설치하여 위로 원래 성과 통하게 하였다.

화서문華西門

화서문華西門은 성의 서문西門으로, 동남쪽으로 행궁과 460보 떨어져 있다. 홍예문과 누각의 제도는 창룡문과 같은데, 다만 좌우의 돌 층계를 굽어지게 하여 층을 만들었다. 편액은 우의정右議政 체재공蔡濟恭이 썼고 상량문은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 서유린徐有隣이 하교를 받들어 짓고 썼다.

서옹성西甕城의 제도는 동옹성東甕城과 같다.

남암문南暗門은 팔달문의 동쪽 79보 3척 되는 데 있고 남쪽을 향해 조금 후미진 데 있다. 암문이란 성의 샛문이다. 옛 제도에는 깊고 후미진 곳에 샛문을 두어 적들이 그 길을 알지 못하게 하였고, 사람과 가축, 식량 등을 거두어 성 안으로 들어올 때 모두 이 구멍을 통하였다. 흙을 채워 문을 막으면 성과 하나가 되니 통하는 것을 막아 변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성에다 돌로 홍예문을 설치하였는데 제도는 정문과 같으나 약간 작다. 문 위에는 덮개판을 설치하고 널빤지 위에 회반죽을 더하여 안팎으로 좁게 성가퀴를 쌓았으며, 바깥에는 비예睥睨⁴¹를 설치하되 누대나 망루는 세우지 않고 단지 흙을 채우고 잔디를 입혀 상 위의 길과 통하게 하였다. 문에는 쇠를 얹어 빗장을 설치하기를 또한 정문과 같게 하였다.

동암문東暗門은 동장대東將臺 서쪽 166보 되는 데 있는데 동쪽에 있으면서 북쪽을 향하였고 벽돌을 쌓아 안팎으로 홍예문을 만들어 말 한 마리가 지나갈 수 있게 하였다. 문 위에는 벽돌을 깔고 누대나 망루를 세우지 않았으며, 다만 오성지와 하나의 큰 원 모양 성가퀴를 설치하여 마치 나무 전봉戰棚⁴²의 제도와 같다. 좌우에는 각기 비예를 갖추고 안쪽 면에 평평한 성가퀴를 설치하였으며 나머지는 남암문과 같다.

북암문北暗門은 동북각루東北角樓의 동쪽 40보 되는 곳에 있고 벽돌 성의 사이 안쪽에 홍예문을 만들었으며, 또한 벽돌을 쌓았다. 문 꼭대기에는 둥근 성가퀴를 쌓았는데 제도는 동암문과 같다. 홍예문 사이에 돌계단을 설치하여 들어가는 곳은 높고 나오는 곳은 낮게 하였는데 땅의 형세가 그러해서이다.

서암문西暗門은 서장대西將臺 남쪽 44보 되는 곳에 있으니 팔달산 남쪽 산기슭 사이이다. 성을 꺾어지게 쌓아 문은 북쪽을 향하여 있으니 바깥에

41 睥睨: 俾倪와 같은 말로, 성 위에 낮게 쌓은 담, 즉 성가퀴를 뜻한다.

42 戰棚: 고대에 성의 담장 위에 방어용으로 만든 것으로, 긴 나무를 성가퀴 위에 올리는데 대체로 敵樓와 비슷한 건축 구조물인데 임시로 금방 만들어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 보면 문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 벽돌로 홍예문을 만들고 안팎으로 평평한 성가퀴를 쌓았으며 나머지는 다른 제도와 같다. 문은 산허리에 있고 길은 성 위로 나 있어서 이에 문 안의 체석⁴³이 절로 네모난 구덩이를 이룬다. 돌다리를 그 북쪽에 세워 위아래 밝고 어두운 길을 통하게 하였다.

서남암문西南暗門은 서암문의 남쪽 367보 되는 곳에 있으니, 실로 용도⁴⁴가 시작되어 화양루華陽樓와 통하는 길이다. 벽돌로 홍예문虹蜺門을 만들고 위에는 안팎으로 평평하게 성가퀴를 만들었다. 담장 안에 건물을 만들었으니 이것이 포사舖舍인데 사방 한 칸이고 온돌을 만들었다. 사면에 널빤지 문을 설치하고 바깥에는 짐승의 얼굴을 그렸는데 붉은 흙을 썼다. 높은 곳에 있어 멀리까지 보이니 병사를 두어 위급한 정황을 보고하게 하는데 적당하다.

북수문北水門의 편액은 '화홍문華虹門'이며 방화수류정⁴⁵訪花隨柳亭의 서쪽 44보 되는 곳에 있다. 광교산光敎山의 큰 냇물이 성을 가로지르고 있어 여름마다 물이 불어 번번이 범람하는 걱정이 있었다. 처음 성을 쌓을 때 먼저 물길을 파 트이고 넓게 하였으며, 일곱 칸의 무지개 모양⁴⁶ 돌다리를 만들어 물 위로 7개의 문이 물을 건너도록 하였다. 안팎의 홍예 사이 좌우로 각각 돌기둥 4개씩을 세웠다. 홍예가 서로 만나는 곳에는 잠자리 무사⁴⁷武砂를 붙이고 가운데에는 장군 모양 무사를 더하였다. 이에 다리 돌을 깔고 다리 위 안팎 면에 장대석을 설치하였다. 다리 너비는 31척이고 길이는 95척이며, 바깥쪽 장대 위에 누조 7개를 설치하고 그 위에 벽돌을 쌓아 성가퀴를 만들었으며 타구는 설치하지 않았다. 아래쪽에 방안과 대포 구멍 8개를 뚫고 위에는 작은 포 구멍 14개를 뚫었다. 안쪽 면은 단지 장대만 보존하고 누혈 6개를 뚫었다. 동서 양 끝에는 8면의 돌기둥을 세워 위에는 교룡蛟龍 형상을 새겼다. 서쪽 기둥의 북쪽, 동쪽 기둥의 동쪽에는 모두 짧은 담장을 쌓고 널빤지 문을 설치하여 동쪽 성의 길과 통하게 하였

43 砌石 : 壇의 사방 바깥에 쌓은, 직사각형으로 다듬은 돌을 말한다.

다. 다리 위 북쪽 가까운 곳에 누대 6칸을 건설하여 성 위로 높이 솟게 하였고, 사면으로 분합⁴⁴을 설치하고 동, 서, 남 삼면에 연잎 모양 난간을 붙였다. 난간 아래로는 벽돌을 둘러 담장을 만들고 그 남쪽 가운데 한 칸을 비워 드나들고 공격하기에 편리하도록 하였으니, 그 제도가 포루와 같다. 북쪽 면의 분합 바깥을 물려 널빤지 위에 전투용 판잣집을 만들고 널빤지 문 아래로는 벽돌 성가퀴와 이어지게 하였으며, 바깥에는 짐승 얼굴을 그리고 전안⁴⁵과 총안⁴⁶을 뚫었다. 단청은 푸른색을 바탕으로 하되 진채⁴⁷를 쓰지 않았다. 다리 아래 7개의 홍예에는 각각 철로 살문⁴⁸을 설치하고 줄을 양쪽 문에 걸어 당겨 다리 표면의 돌 구멍에 관통시켜 나오게 하였으며, 고리를 달아 자물쇠를 더하였다. 문 안의 양쪽 기슭의 석축은 높이가 4척이고, 바깥 석축은 높이가 5척이며, 위로 성의 몸체와 연결되어 전체 높이가 16척이다. 이것이 실로 시내의 동쪽과 서쪽으로 서로 마주하고 꺾여 원성元城 양 머리가 다하는 곳이 되었고, 전투용 판잣집의 좌우로는 각 29척이 떨어져 있다. 이에 또 3개의 타구와 성가퀴를 좌우 벽돌로 쌓은 성벽 위에 설치하여 접하게 하였다. 편액은 사인⁴⁹ 유한지俞漢芝가 쓰고, 상량문은 판부사⁴⁹尹塾이 하교를 받들어 지었다.

남수문南水門은 구천⁴⁸ 위에 있다. 큰 냇물이 화홍문華虹門에서 곧바로 750보를 흘러 구천에 이르러 성의 수구⁴⁹가 되는데, 성을 쌓다 여기에 이르러 다시 수문을 만들어 화홍문과 마주하여 그 흐름을 이끌게 하였다. 돌을 엮어 9칸의 홍예를 만들고 철 살문과 자물쇠를 설치한 것은 화홍문의 제도와 같다. 9개의 홍예 좌우로는 각각 간주석⁴⁹ 8개를 세우고

44 分閘 : 주로 대청과 방 사이 또는 대청 앞쪽에 다는 네 쪽 문이다. 여름에는 돌씩 접어들어 올려 기둥만 남고 모두 트인 공간이 된다.
 45 箭眼과 銃眼 : '전안은 화살을 쏘기 위해 성벽에 뚫은 작은 구멍이고, '총안'은 총을 쏘기 위해 성벽에 뚫은 작은 구멍이다.
 46 眞彩 : 진하게 쓰는, 불투명하고 흰색적인 채색으로, 주로 단청에 쓴다.
 47 살문 : 원문은 '箭門'인데 살을 가로세로로 넣어서 찬 문을 가리킨다.
 48 龜川 : 지금의 수원천이다.
 49 間柱石 : 사이 사이에 설치하는 돌기둥이다.

돌다리를 놓았다. 다리의 길이는 95척이고 너비는 19척이며 안팎 면에 각기 장대를 설치하였다. 안에는 누혈 5개를 설치하고 밖에는 벽돌로 십돌을 붙이고 긴 포사鋪舍⁵⁰를 만들었는데 나무와 돌은 쓰지 않고 단지 벽돌을 쌓아 그 꼭대기를 평평하게 하였으며 사방 벽은 그 가운데를 비웠다. 포사의 길이는 다리와 같고 너비는 다리의 3분의 2, 꼭대기는 높이 9척이며 위에 덮개 판이 있다. 포사의 안은 수백 명을 수용할 수 있고, 바깥 면에 3층의 포혈 57개를 뚫었고 안쪽 면에는 홍예로 된 작은 문 셋을 세웠다. 포사 꼭대기에는 벽돌을 깔아 길을 만들었고 그 바깥 면에는 큰 원형으로 벽돌 성가퀴 9첩을 쌓아 아홉 홍예의 머리에 맞도록 하였다. 총안 셋을 뚫었고 구멍 사이는 네모 모양 성가퀴 8첩을 쌓았으며 또한 총안 하나를 뚫었다. 동서 양쪽 끝에는 또 평평한 성가퀴를 설치하여 원성元城과 접하게 하고, 다시 꺾여 안쪽을 향하여 홍예로 된 작은 문을 설치해 정상의 길과 통하게 하였다.

동북노대東北弩臺는 창룡문蒼龍門 북쪽 96보에 있다. 치雉⁵¹ 위에 벽돌로 대를 쌓았는데 대의 높이는 18척이다. 벽돌로 쌓는 제도는 사방에 그 모퉁이를 날카롭게 하고 별 허리처럼 그 기세를 깎아낸다. 성 바깥으로 길게 빼 튀어나오게 한 부분이 20척 5촌이며 현안 2개를 뚫고 위에 둥근 성가퀴를 설치했다. 세 면이 각각 1타塚이며 바깥 면의 두 모퉁이에는 또한 둥근 성가퀴를 꺾이게 접어놓고 모두 방안 3개를 뚫었고, 타마다 좌우로 철凸 자 모양 성가퀴를 또한 1타씩 끼고 있다. 안쪽 면의 양쪽 모퉁이는 평평한 성가퀴를 꺾이게 접어 넣고 가운데에 벽돌로 층계를 설치하여 돌계단과 이어지게 하고, 대 위에는 사각 벽돌을 깔았다.

서북공심돈西北空心墩은 화서문華西門의 북치北雉 위에 있다. 『성서城書』에서 말하기를,

50 鋪舍 : 軍鋪나 驛站으로 쓰는 건물이다.

51 雉 : 성벽에 기어오르는 적을 쏘기 위하여 성벽 밖으로 군데군데 내밀어 쌓은 돌출부이다. 성벽을 앞이나 옆에서 보호하는 구조물로서, 그 위에 성가퀴를 쌓았다.

“벽돌을 삼면에 쌓고 그 가운데를 비워 두며, 중간 2층에 널빤지로 누대를 만들고 나무 사다리로 오르내린다. 공간空眼⁵²을 많이 두어 엿보거나 불랑기佛狼機,⁵³ 백자총百子銃⁵⁴을 쏘는 데 편하도록 하니 적은 화살과 탄환이 어느 쪽에서 나오는지 알지 못한다.”⁵⁵

라고 하였다. 지금 이 제도를 모방하여 치에다 돈대를 설치하고, 서쪽과 북쪽 두 면에 각기 현안 두 개를 내었다. 그 위에는 벽돌을 쌓아 그 안을 비게 하고 위에 가로세로 각 2칸의 건물을 올렸으며, 위 아래에 마루청을 설치하여 누대라면 2층, 포사라면 3층으로 하였고 층마다 벽돌 면에 불랑기 포 구멍 20개를 뚫었다. 위층에는 벽돌면 위에 널빤지를 두르고 문마다 각기 전안을 뚫었다. 위 2층에는 각기 마루청을 설치하고 별도로 덮개판 하나를 밀고 당겨 열었다 닫았다 하게 하여 나무 사다리로 오르내리는 길과 통하게 하였으며, 아래층 안쪽 면에는 벽돌로 홍예 작은 문을 설치하였다.

남공심돈南空心墩은 남암문南暗門 동쪽 치雉의 위에 있으며, 그 제도는 서북돈西北墩(서북공심돈)과 같으나 작다. 치의 동쪽과 남쪽 두 면에 각기 현안 두 개를 뚫고 위에는 평평한 성가퀴를 설치하였으며, 면마다 두 개의 총안을 뚫었다. 담장 안 세 면은 각기 3척씩을 비워 군사들이 기술을 쓰는 것을 용납하게 하였다. 가운데에 돈대를 벽돌로 쌓아 그 안을 비웠으며, 벽돌 위에 한 칸짜리 건물을 올리되 널빤지 문은 설치하지 않았다.

동북공심돈東北空心墩은 노대弩臺 서쪽 60보에 있다. 성탁城托⁵⁶의 위, 성

52 空眼 : 적의 동정을 살피거나 적을 쏘기 위하여 성벽이나 보루 같은 데에 뚫어 놓은 구멍이다.

53 佛狼機 : 조선 중기에 제작된 서양식 청동제 화포이다. 서구의 화포를 들여와 조선식으로 변형한 것으로, 발사틀인 母砲와 실탄을 장전하여 모포에 삽입해 발사하는 子砲로 분리된다.

54 百子銃 : 백자총통으로, 불씨를 손으로 점화하여 발사하는 有筒式 화기이다.

55 벽돌을 …… 한다 : 『성서』의 해당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나, 古今圖書集成에 수록된 『經濟彙編』 권294 「戎政典·攻守諸器部彙考二」에 실린 「敵臺圖說」에 대한 설명에서 이 부분이 확인된다. 다만 마지막 구절인 “以便窺規放打佛狼機百子銃, 敵不知矢彈之出自何方” 부분은 『경제회편』에 “以便窺規, 以便放鳥銃弩箭之類”로 되어 있다.

56 城托 : 성가퀴를 받치는 성 위의 턱이다.

가퀴의 안에 요동遼東과 계주薊州⁵⁷의 평둔平墩 제도를 모방하여 벽돌을 쌓아 둥근 돈대를 만들어 겹으로 돌렸다. 안팎의 둥근 모양 사이는 그 가운데를 비웠는데, 주변에는 2층으로 덮개 널빤지를 대 모두 군사들로 하여금 몸을 가리도록 하였다. 바깥에는 총안을 뚫고 겹하여 그 밝음을 취하게 하였는데, 위 구멍은 26개, 아래 구멍은 14개이다. 위, 아래 덮개 널빤지 위에는 모두 진흙과 회를 쌓았다. 아래 층 가운데가 빈 곳에서부터 구불구불한 벽돌 층계를 통해 올라가면 위층의 건물 올린 곳에 이르게 된다. 그 제도는 기둥이 6개에 평평한 성가퀴를 두르고 위아래에 포혈 23개와 누혈 6개를 뚫었다. 아래층 안쪽 면에는 벽돌로 홍예 작은 문을 설치하고, 또 문 동쪽 가운데가 빈 곳은 막아서 온돌을 만들고 방안方眼⁵⁸을 창으로 삼아 지키는 병졸들이 들어가 머무르게 하였다.

봉돈烽墩은 일자문성一字文星⁵⁹의 위, 동이포와 동이치上 사이에 있어 행궁行宮을 살피고 있다. 사방에 이미 성을 쌓고 파수를 설치해 잘 살펴보는 책임을 맡긴 것은 척후斥候⁶⁰의 뜻을 붙인 것이니, 멀리 물과 육지에서 경계를 보고하는 것은 더욱 없을 수 없는 일이다. 마침내 철성凸城의 제도를 따라 봉돈을 두고 벽돌을 쌓아 성 몸체보다 넓게 하였다. 성 바깥쪽으로 끌어 길게 나오게 한 것이 18척인데 마치 치의 형태처럼 크다. 바깥 면은 돌을 5층으로 쌓아 현안 2개를 뚫었다. 안쪽 면은 굽혀서 3층을 만들었는데 제1층은 높이 4척에 위에는 5개의 화두火竈⁶¹를 설치하였고 성가퀴 위로 6척 올라와 있으며 거구炬口⁶²는 허리쯤에 있다. 5개의 화두 사이에 성가퀴를 늘어 붙이고 양쪽 끝은 꺾여 안으로 향하도록 하였고, 세 면에는 포혈 18개를 뚫었다. 아래 2층에는 돌로 계단을 쌓았는데 너비가 각 1척 4

촌이고 높이 3척 정도로, 또한 꺾여 세 면에 벽돌 성을 쌓아 총안 18개와 누혈 1개를 뚫었다. 좌우의 굽은 계단을 통해 올라가 거구의 길과 통하게 하였는데 계단은 각기 10층이며 두 번의 계단 끝은 이어지게 하여 벽돌로 쌓았고 들보 없는 기와로 집을 덮었으니 남북으로 각 1칸씩이다. 남쪽에는 온돌을 두었는데 지키는 병졸이 머무르는 곳이고, 북쪽은 널빤지를 깔았으니 기계를 저장해 두는 곳이다. 돈대 몸체에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기에 이르며, 양쪽 끝 좌우는 길이가 각 16척이다. 계단 뒤쪽으로 네 모진 성을 만들었고 계단 위에 또 짧은 담장 3층을 설치하여 아래로 두 건물과 이어진다. 전면의 두 칸은 벽돌로 담장을 둘러 건물과 나란하게 하였고 가운데에 홍예로 된 작은 문을 설치하였다. 저너머다 남쪽 첫 번째 봉향대에서 햇불 하나를 들면 동쪽으로 용인龍仁 석성산石城山 육봉陸峰⁶³에서 응하고 서쪽으로 본부本府 흥천대興天臺의 해봉海烽⁶⁴에서 응한다. 이외의 네 봉향대는 급한 일이 아니라면 불을 피우지 않는다고 한다.

서북각루西北角樓는 화서문華西門의 남쪽 146보에 있다. 산 위 굽어지는 곳에 들보 5개짜리 건물을 세우고 널빤지를 깔아 다락을 만들었다. 사면을 평평한 난간으로 두르고 위에는 널빤지 문을 설치하였고 바깥 면에는 모두 짐승의 얼굴을 그리고 전안을 뚫었다. 안쪽 면에는 태극太極을 그렸고 그 서남쪽 한 칸은 비워서 층계를 설치하여 북쪽으로 다락 위에 이어지게 하였다. 동남쪽 한 칸은 마룻바닥의 널빤지 아래에 벽돌로 담장을 둘러 온돌을 설치하여 지키는 병졸이 머무르게 하였다.

동남각루東南角樓는 구천龜川 위 일자문성一字文星의 꼭대기에 있는데, 성이 산의 형세로 인해 여기에 이르러 가파르게 뚝 끊어진다. 누대는 성 위로 튀어나와 멀리 평야를 바라보고 있으며 그 제도 역시 들보 다섯에 네 칸이다. 다 널빤지를 깔고 동쪽 처마 아래에 층계를 설치하였다.

57 遼東과 薊州 : 요동은 지금의 遼寧省 일대이고, 계주는 지금의 北京市와 河北省 지역을 가리킨다. 조선시대에 연경에 가는 사신들이 거쳐 가던 곳이다.

58 方眼 : 사각형 구멍이다.

59 一字文星 : 산 정상에 일자 모양으로 평평한 산을 가리키는 風水 용어이다.

60 斥候 : 적의 형편, 지형 등을 정찰하고 탐색하는 일이다.

61 火竈 : 불을 피워 烽火를 올리는 곳으로, 봉향독이다.

62 炬口 : 봉향독에서 봉화를 붙이는 구멍이다.

63 陸峰 : 육지에 있는 봉향독이다.

64 海烽 : 바다 가운데에 있는 섬에 설치한 봉향독 또는 그곳에서 드는 봉화이다.

포루砲樓는 모두 다섯인데 그 제도는 똑같다. 철쭉 자 모양을 성 몸체에 붙여 치雉와 비슷하게 하고, 건물을 올렸는데 높이는 포사舖舍와 같고 3층에 가운데를 비운 것이 대략 공심돈의 제도와 비슷하다. 모두 벽돌을 썼고 아래는 넓고 위는 거두어들여 모두 옛날 제도의 형세를 따랐으며, 화포를 많이 감추어 두어 위아래로 모두 발사하게 하였다. 지대地臺⁶⁵ 위에는 벽돌을 쌓아 들보 다섯 개짜리 건물을 지어 성 바깥 세 기둥으로 끌어 나오게 하였는데, 길이와 높이는 들보와 접하고 두텁기는 처마와 같게 하였다. 바깥 면의 지대 위 사이에는 대포 혈석穴石⁶⁶ 2개를 두고 좌우 면에는 3개의 혈석을 두었다. 벽돌 구덩이 안에는 땅에서 5척 떨어진 곳에 위로 벽돌에 의지하여 세 면에 널빤지를 깔아 두르고 총혈 15개를 뚫었다. 또 널빤지를 두른 곳 10척 위에는 세 칸의 다락 널빤지를 깔고 다락 위 세 면에는 또 총안 15개를 냈다. 그리고 바깥 면 총안 위에는 또 전안 4개를 뚫고, 좌우 면에는 위쪽 가까이에 벽돌을 뚫어 작은 널빤지 문을 3개 설치하였는데, 바깥에는 짐승 얼굴을 그리고 각기 전안을 뚫었으며 문 사이 벽돌 면에도 또한 두 개의 전안을 뚫었다. 안쪽 면은 성탁城托⁶⁷에 의지하여 전부 돌을 쌓고 그 위에 널빤지 문을 설치하였다. 문지방 안 마루 끝은 사방 4척을 비워서 별도로 덮개 널빤지를 설치하고 밀고 당겨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게 하고, 나무 사다리를 이어 아래로 구덩이 안과 통하게 하였다.

북동포루北東砲樓는 화홍문華虹門 서쪽에 있다.

북서포루北西砲樓는 북서적대北西敵臺 서쪽에 있다.

서포루西砲樓는 서북각루西北角樓 남쪽에 있는데, 들보 3개짜리 건물을 올리고 문지방 안 마루 끝은 벽돌로 계단을 쌓았으며 나머지는 위의 제도와 같다.

남포루南砲樓는 서남암문西南暗門 동쪽에 있다.

65 地臺 : 건물이나 구조물 밑의 지면에 터를 잡고 돌 등으로 쌓은 부분이다.

66 대포 혈석 : 대포를 쏘도록 만든 구멍돌(구멍 뚫린 돌)이다.

67 城托 : 성가퀴를 받치는, 성 위의 턱이다.

동포루東砲樓는 봉돈烽墩 북쪽에 있다.

북포루北舖樓는 북서포루北西砲樓 서쪽 129보 5척에 있다. 치雉가 성 바깥으로 19척 나와 있고, 들보 5개짜리 건물을 지었는데 제도는 동북포와 같다. 세 면의 평평한 성가퀴는 곧바로 누대 바닥과 접하며, 각기 사포혈射砲穴⁶⁸을 내고 안쪽 면에는 나무 층계를 설치하였다.

동포루東舖樓는 돌이다. 첫 번째는 창룡문蒼龍門 남쪽 186보 2척에 있다. 치가 성 바깥으로 23척 나와 있고, 현안 1개를 뚫었다. 위에는 세 칸짜리 긴 포사舖舍를 세웠는데 높이는 성가퀴보다 튀어나왔다. 동쪽 2칸에는 널빤지를 깔아 다락을 만들었는데 문은 설치하지 않았다. 벽돌 안쪽 면 1칸은 누운 듯한 나무사다리를 설치하여 세 면에 바로 평평한 성가퀴를 붙여 둘러 포사의 널빤지 위로 튀어나오게 하였다. 누대 바닥에 각기 원근총안을 내었다. 두 번째는 봉돈 남쪽에 있고 제도는 1포와 같으며, 한 칸은 널빤지를 깔고 한 칸에는 사다리를 설치하였다.

치雉는 모두 8개인데 사실 16개이다. 위에 건물을 올린 것을 포舖라 하는데 포가 그중 5개이며, 안을 비우고 벽돌을 쌓은 것을 돈墩이라 하는데 돈이 그중 2개이고, 위에 쇠뇌 쏘는 군사를 매복시킨 것을 노대弩臺라 하는데 노대가 그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위에 건물을 올리지 않고 단지 성가퀴만 있는 것이 치의 본래 제도라 하겠는데, 지금 말하는 8치라는 것은 대와 포가 섞여 있고 거리도 대략 같으니, 옛 법에는 50타에 치 하나씩을 둔다 하였다. 평은 몸을 감추고 엿보기를 잘하기 때문에 이 상象을 취한 것이다. 적이 만약 와서 성벽에 붙는다면 우리는 화살을 굵히고 탄환을 기울게 할 수 없으니 저들의 갈고리와 몽둥이에 이미 성의 뿌리가 뽑히게 될 것이다. 만약 좌우에서 치를 향해 탄환과 화살이 교대로 날아온다면 나는 듯한 누대와 구름 위에 있는 듯한 사다리를 또한 어찌 만들 수 있겠는가. 치의 제도는 철쭉 모양을 성벽에 붙여 높이는 성과 나란하게 하고 길이와 너비

68 射砲穴 : 포를 발사하는 구멍이다.

는 대략 3장으로 하며, 바깥 면에는 현안 하나를 뚫는다. 그 주변의 장단은 땅과 형세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 성은 굴곡이 많으므로 만약 모퉁이나 문을 만났다면 절로 치의 형상이 이루어져 정성正城⁶⁹을 호위하니, 이것이 타와 걸음을 계산하지만 옛날에 준할 수 없는 이유이다.

북동치北東雉는 북동적대北東敵臺의 동쪽에 있어 대와 서로 이어져 있다. 삼면의 성가퀴를 나누어 5첩으로 만들고 각기 방안方眼 구멍 3개를 뚫었다.

서일치西一雉는 화서문華西門의 남쪽 타구塚口 위에 있는데, 또한 벽돌을 덮었다.

서이치西二雉는 동포루西砲樓의 남쪽에 있다.

서삼치西三雉는 서포루西舖樓의 남쪽에 있고, 성가퀴는 양쪽 끝이 원래 성 안쪽으로 3척 들어가 있으며, 서로 마주하고 굽어져 꺾여 그 안은 비어 있어서 적대敵臺 안쪽 면의 제도와 같다.

남치南雉는 남포루南砲樓의 동쪽에 있고 여장女牆의 제도는 서삼치西三雉와 같다.

동삼치東三雉는 동이포루東二舖樓의 남쪽에 있다.

동이치東二雉는 在동포루東砲樓의 남쪽에 있다.

동일치東一雉는 동일포루東一舖樓의 남쪽에 있다.

중포사中舖舍는 각건대角巾臺 아래 320보에 있다. 포는 치雉 위에 있으면 포루舖樓라 하고 성 안에 있으면 포사舖舍라고 하니, 무릇 성 바깥 길에 잠복하여 경계를 알리는 것이다. 각자 해당 성벽에서 포에 응하여 보고하면 포사의 병졸 또한 깃발이나 포로 응해야 하니, 이것이 성을 지키는 약속이다. 매향동梅香洞 제1 산마루에 그 갑작스레 높아지는 것을 취하여 2칸의 층집을 세웠는데, 아래에는 온돌 1칸을 두고 남쪽 1칸은 비워두고서 나무 사다리를 설치하여 위층과 통하게 하였다. 위의 2칸은 모두 널빤지를 깔고 널빤지 문을 돌렸다.

69 正城: 원래의 성이라는 뜻의 '元城'과 유사한 의미의 단어로 보인다.

내포사內舖舍는 행궁 뒤 담장 안쪽 왼편 기슭 미로한정未老間亭 북쪽에 있고 포사의 벽돌 단청은 중포사와 같다.

봉수당 奉壽堂

임금님 13년 기유년(1789, 정조 13) 가을, 수원 부치府治⁷⁰를 팔달산 아래에 건설하고 그 관청을 그대로 행궁으로 만들었다. 정당正堂⁷¹에 임금이 '장남헌壯南軒'이라고 쓰신 편액이 있고 또 '화성행궁華城行宮'이라고도 하고 또 '봉수당奉壽堂'이라고도 하였다. 을묘년(1795, 정조 19) 봄, 임금께서 혜경궁惠慶宮을 모시고 현릉원顯隆園⁷²에 참배하시며 이 건물에서 진찬연進饌宴을 베풀었으므로 이름이 붙게 되었다. 당시에는 유수로 하여금 업무를 보게 하였다. 건물의 제도는 들보가 일곱에 21칸이며, 안팎의 행각行閣⁷³은 모두 91칸인데 옛날에 세운 것이 43칸이고 갑인년(1794, 정조 18) 가을부터 새로 지은 것이 또한 48칸이다. 새로 지은 것은 정당 동북쪽 모퉁이에서 바로 이어 북쪽의 각도閣道⁷⁴으로 이어지는 길이고, 또 동쪽으로 꺾여 옛 행각에 접해 있다. 각도에서 제3칸부터 용마루와 이어져 서쪽으로 북행각北行閣이 되며, 다시 꺾여 남쪽으로 서행각이 되어 장락당長樂堂⁷⁵ 뒤 행각과 서로 이어진다. 여기에서 짧은 널빤지 담장을 세워 동쪽으로 중영문重英門에 이르러 장락당 서북쪽 모퉁이와 접하게 되니, 실로 두 당의 뒷마당이 나뉘는 경계이다. 정당의 앞면은 중앙문中陽門의 안으로 모두 옛날에 세운 것인데, 다만 북쪽 가의 다락 위 곳간 동쪽 행랑行廊과 중앙문中陽門 바깥 북쪽 행각과 이어진 것은 모두 새로 세웠다. 중앙문 행각 남쪽은

70 府治: 官衙가 있는, 고을의 중심지이다.

71 正堂: 몸체의 대청 또는 한 구획 내에 지은 집들 가운데 주된 집체를 뜻하는 말인데, 여기에서는 正殿(왕이 조회하던 궁전)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72 顯隆園: 원문은 '園所'인데 王世子, 王世子嬪과 왕의 私親 등의 무덤이다. 여기에서는 정조의 아버지 思悼世子の 무덤인 현릉원을 가리킨다.

73 行閣: 궁궐 또는 절 등에서 몸체의 둘레를 둘러싼 줄행랑이다.

74 閣道: 複道(건물과 건물 사이에 비나 눈을 맞지 않도록 지붕을 씌워 만든 통로)이다.

75 長樂堂: 화성행궁의 內堂으로, 혜경궁 홍씨가 乙卯園行 때 머물던 곳이다.

실로 유여택維興宅⁷⁶의 북쪽 행각이 되며, 북쪽은 문 안쪽에서 연달아 세운 것이 12칸이고, 그대로 꺾여 남쪽으로 좌익문의 왼쪽 행각과 접하며, 또 좌익문 오른쪽 행각의 남쪽에 새로 2칸을 세워 외정리소外整理所와 접하게 하였다. 상량문은 판부사判府事 이병모李秉模가 하교를 받들어 지었다.

장락당 長樂堂

장락당長樂堂은 봉수당奉壽堂의 남쪽에 있는데 서쪽으로 서로 이어져 있고, 임금께서 쓰신 편액이 있다. 당의 제도는 들보가 일곱에 13칸이며, 온돌은 8칸이다. 북쪽 2칸은 봉수당의 양방涼房⁷⁷과 통하며 동, 서, 남 3면은 모두 퇴헌退軒이 있고, 서쪽 면의 평평한 난간 위에는 분합分闈⁷⁸과 온돌을 설치하였다. 칸마다 장지⁷⁹를 설치하고 방과 병을 중첩시켜 열면 빈번이 특 트인다. 단청을 칠하지 않았으며, 서남쪽으로 기둥을 물려서 이어지는 각도를 세워 북내당 뒤쪽 행각과 통하게 하였다. 각도의 두 번째 칸은 회계 칠한 담장으로 경계를 만들고 작은 문을 두 개 설치하였는데, 서쪽을 다복문多福門, 동쪽을 장복문長福門이라 하였다. 앞쪽 면 마당 동쪽에 경룡관景龍館⁸⁰이 있어 높이는 누대의 제도와 같다. 그 아래에는 널빤지 문을 설치하였는데 지락문至樂門이라 하며, 봉수당 남쪽 행각의 앞길로 통한다. 뒷면의 행각은 봉수당 서쪽 행각으로부터 이어져 9칸을 세워 북내당의 서쪽 별당과 접하게 하였다. 상량문은 내각제학內閣提學 정민시鄭民始가 하교를 받들어 지었다.

76 維興宅 : 화성 행차 때 정조가 머물며 신하들을 접견하던 장소로, 평소에는 화성유수가 머무는 곳이다.
 77 涼房 : 사면으로 문을 내어 시원하게 만든 방이다.
 78 分闈 : 주로 대청과 방 사이 또는 대청 앞쪽에 다는 네 쪽 문이다. 여름에는 돌씩 집어 들어 올려 기둥만 남고 모두 트인 공간이 된다.
 79 장지 : 원문은 '障子'로, 장방과 방 사이, 또는 방과 마루 사이에 칸을 막아 끼우는 문을 뜻한다.
 80 景龍館 : 장락당의 外門으로 사용된 부속 건물이다.

경룡관 景龍館

경룡관景龍館은 장락당長樂堂 앞에 있는데, 들보가 다섯에 4칸 반이며, 사면에 평평한 난간을 두르고 위에 분합을 설치하고 널빤지를 깔아 누대를 만들었다. 아래에는 3개의 널빤지 문을 설치하였으니 바로 지락문至樂門으로, 단청은 칠하지 않았다. 남쪽과 북쪽 양 가장자리에 이어서 각도를 세웠고, 북쪽 4칸은 봉수당 동남쪽 모퉁이와 통하며, 남쪽 2칸은 유여택의 서쪽 각도와 접해 있다. 모두 널빤지를 깔았다. 편액扁額은 판서判書 조종현趙宗鉉이 썼고, 상량문은 도승지 황승원黃昇源이 하교를 받들어 지었다.

북내당 福內堂

행궁行宮의 내당內堂을 북내당이라고 하며 들보는 다섯에 열여덟 칸이고 임금께서 쓰신 편액이 있다. 역시 기유년에 창건하였다. 그 동남쪽 안팎의 행각行閣은 모두 옛 건축물이고 북쪽 온돌의 서쪽에 또 옛 건물 세 칸이 있다. 갑인년(1794) 가을에 그 제도를 따라 연이어 다섯 칸을 지었으니 이것이 서별당西別堂이며, 모두 앞 물림칸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서부터 또 꺾여 서쪽 행각이 되는데 남쪽으로 옛 행각으로 접해 있다. 그 북쪽 끝은 장락당의 서쪽 행각과 서로 이어진다. 상량문은 예조 판서禮曹判書 민중현閔鍾顯이 하교를 받들어 지었다.

유여택 維興宅

유여택維興宅은 북내당의 동쪽 행각 바깥에 있고 들보가 다섯에 8칸이며, 경술년(1790, 정조 14) 봄에 창건하였고 '은약헌隱若軒'이라고 편액을 달았다. 제1칸은 전퇴인데 그대로 공신루拱辰樓 한 칸을 지었고, 뒷면에는 용마루가 이어져 꺾여 서쪽으로 집 5칸을 붙이고 아울러 북쪽으로 2칸을 붙였다. 무릇 옛날에 세운 것이 16칸인데 갑인년(1794) 가을 그 옛 건물을 그대로 증축하여 온돌 4칸 반을 고쳐 배치하고, 북쪽에 두 칸을 붙여 또 온돌을 배치하여 연결시켰다. 또 그 북쪽에 연휘문延暉門 한 칸을 붙이고 그 서쪽

처마에는 물림기둥을 붙여 장간의 양방(涼房)에 접하게 하였다. 또 꺾여 서쪽으로 이어 각도를 만들어 경룡관(景龍館)의 남쪽 창문과 통하게 하였으니 실로 서쪽에 붙인 건물의 북쪽 물림칸이다. 을묘년 봄, 편액을 ‘유여택’이라고 치니 행차하실 때의 소차(小次)⁸¹이다. 좌우 행각은 모두 병진년 여름에 새로 세웠다. 왼편 가장자리 북쪽의 행각은 13칸이고 오른편 가장자리의 남쪽 행각은 들보가 다섯에 22칸 반이며 서쪽 끝은 북으로 꺾여 4칸 반이 되어 정당의 남쪽, 가어문(嘉魚門)의 오른편과 접한다. 앞 면의 행각은 모두 옛날에 세운 것이고 중수(重修)한 것은 오직 남쪽 끝의 온돌 2칸이 새로 지은 것이다. 북쪽 끝의 빈 행랑 2칸에는 빈희문(賓曦門)을 설치하여 외정리소(外整理所)⁸²와 통하게 하였다. 편액은 참의(參議) 류성모(柳師模)가 썼다.

낙남헌 洛南軒

장남헌(壯南軒) 북쪽에 예전에는 득중정이 있었는데, 경술년(1790)에 활쏘기를 하신 뒤에 편액을 명하신 것이다. 갑인년에 그 정자를 노래당 서쪽으로 옮기고 그 터를 넓혀 낙남헌을 지었다. 건물의 제도는 들보가 일곱에 14칸 반으로, 기둥 안팎으로 널빤지를 깔았으며 기둥 안에는 위에 소란반자(盤子)⁸³를 설치하고 좌우와 뒤쪽 기둥에는 모두 분합을 설치하였고, 뒤쪽 물림칸에는 연잎 모양 평평한 난간을 설치하였다. 꺾여 노래당(老來堂)과 통하는데 사방 면 처마와 계단 위에는 모두 네모난 벽돌을 깔았고, 앞면과 동쪽 면에는 모두 벽돌을 높이 4척으로 쌓았으며 쌍사(雙絲)⁸⁴ 모양으로 돌을 다듬어 가로세로로 꾸몄다. 앞면의 가운데에는 3칸의 디딤돌이 각 3층

81 小次 : 임금이 거동할 때 잠시 쉬기 위해 막을 쳐 놓은 곳을 일컫는 명칭인데 여기에서는 임금이 잠시 쉬어가는 건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82 外整理所 : 수원에 있는 정리소를 서울의 정리소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다. 정리소는 화성 축조, 현룡원 정화, 행궁 정비 등을 기념하기 위한 親臨 행사를 준비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관아이다.
 83 소란반자 : 반자널에 해초 무늬를 그린 반자(지붕 밑이나 위층 바닥 밑을 편평하게 하여 치장한 각 방의 윗면)이다.
 84 雙絲 : 기둥이나 창문틀 또는 창문 울거미에서 두 줄이 오목하게 들어간 쇠시리(나무의 모서리나 표면을 도드라지거나 오목하게 깎아 모양을 내는 일 또는 그런 것) 또는 그 모양이다.

으로 있고 중앙 칸 좌우로는 누운장대⁸⁵를 설치하였으며, 좌우 협간(夾間)⁸⁶에는 각기 구름을 새긴 대우석(大隅石)⁸⁷을 붙였다. 마당 동북쪽에 작은 못이 있어 사방 25척이며 주변은 돌을 쌓았고 중간에 작은 섬이 있다. 연못 북쪽에 취병(翠屏)⁸⁸을 설치하였고 또 그 북쪽에 짧은 담을 쌓아 작은 문을 설치하였다. 낙남헌 앞면에 이르면 홍살 널빤지 담장이 이어져 곧바로 서쪽으로 26보를 가 그치며, 담장 아래에는 병풍처럼 부련(步聯)⁸⁹이 늘어서 있어 편의대로 열었다 닫았다 하며 서쪽 담장 머리에 접해 있다. 깃발과 북을 배열하여 서는 일이 있으면 나무로 막았던 것을 비우고 치워 마당을 넓힌다. 서쪽 담장 안에 장춘각(藏春閣)이 있는데 바로 옛날에 세운 것이고, 또한 취병으로 경계를 삼았다. 편액은 지돈녕 조윤형(曹允亨)이 썼고, 상량문은 이조 판서 심환지(沈煥之)가 하교를 받들어 지었다.

노래당 老來堂

낙남헌 서쪽 한 칸 뒤에 용마루가 이어져 남쪽으로 꺾여 들보 다섯에 7칸짜리 건물을 세웠으니 이것이 노래당(老來堂)이다. 대청 한 칸은 낙남헌과 한 장자(障子)⁹⁰만큼 떨어져 있다. 앞면은 물림기둥이 있어 모두 널빤지를 깔았고, 연잎 모양 평평한 난간으로 둘러싸였다. 북쪽은 낙남헌 뒤 물림칸과 접해 있고 남쪽은 득중정(得中亭)과 통하는데, 모두 단청을 칠하고 처마와 계단에는 벽돌을 깔았다. 마당 동쪽은 회칠한 담장으로 막고 가운데에는 벽돌로 홍예(虹蜺)⁹¹로 된 작은 널빤지 문을 설치하였는데 난로문(難老門)⁹²이라 하였다. 그 북쪽 끝 처마와 계단 위에는 또 부채 모양 작은 문이 있어 가풍문(歌

85 누운장대 : 들계단 양쪽에 길게 누인 장대석이다.
 86 夾間 : 중앙 칸(正間)의 좌우 양쪽 방이다.
 87 大隅石 : 기단의 모서리에 세운 돌이다.
 88 翠屏 : 꽃나무의 가지를 이리저리 틀어서 문이나 병풍 모양으로 만든 물건이다.
 89 步聯 : 널빤지 담장(板牆)의 발받침이다.
 90 障子 : 방의 아래간이나 또는 방과 마루 사이에 가리어 막은 문이다. 미닫이와 같이 되었으나 운두가 썩 높고 문지방이 낮게 되어 있다.
 91 虹蜺 : 무지개 모양의 아치 형상을 가리킨다.
 92 難老門 : ‘난로’란 『詩經』 「魯頌·泮水」편에서 魯侯를 송축하여 “이미 맛난 술 드셨으니 길이 늙지 않음을 내릴 것이다.(既飲旨酒, 永錫難老)”라고 한 데서 연원하여 늙지 않고 장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風門⁹³이라 하였다. 건물의 편액은 좌의정 채제공이 썼고, 상량문은 상호군 上護軍 정범조 丁範祖가 하교를 받들어 지었다.

득중정 得中亭

노래당 老來堂과 이어진 용마루가 서쪽으로 꺾여 득중정이 되었으니, 어필 御筆을 받들어 편액으로 걸었다. 처마 안을 조금 물려 평평한 난간을 만들고 판문 板門으로 이어져 비바람을 거둬 막아준다. 계단 앞에는 어사대 御射臺가 있어 위에는 네모난 벽돌을 깔았다. 온돌 동쪽의 깔판 2칸과 또 그 동쪽 2척 아래의 깔판 및 온돌, 그 남쪽 가의 물림기둥은 일직선으로 서로 이어져 봉수당 奉壽堂의 북쪽 각도 閣道와 접하여 있는데 모두 단청을 칠하지 않았다. 정자 서쪽에 세 칸을 붙이고 또 남쪽으로 꺾여 네 칸을 지었는데 봉수당의 서쪽 행각과 서로 이어져 있다. 상량문은 할아버지 문헌공부 文獻公府君⁹⁴께서 하교를 받들어 짓고 쓰셨다.

미로한정 未老開亭

미로한정은 후원 서쪽 담장 안에 있으며 옛날의 이른바 육면정 六面亭이다. 길은 득한문 得開門으로 통하며 경물을 관람할 수 있다.

신평루 新豐樓

행궁 行宮의 외삼문 外三門 위층을 신평루라 하는데, 기유년에 세운 것이고 처음 이름은 진남루 鎭南樓였다. 갑인년 가을에 누대의 좌우에 남북의 군영 軍營을 창건하여 두고 이에 행각 行閣을 누대에 붙이고 양 날개를 나누었으며 그 바깥은 각기 군랑 軍廊과 접하도록 하였다. 또한 누대의 편액을 '신평'이라 고치고 그 단청을 다시 새롭게 칠하였다. 누대를 나와 열아

93 歌風門 : '가풍'은 「대풍歌」를 노래한다는 뜻이다. 「대풍가」는 漢나라 高祖가 고향 沛縣에 들러 그곳 사람들과 잔치를 벌이면서 부른 노래로, 천하를 차지한 감회를 서술하였다.

94 文獻公府君 : 홍경모의 조부인 耳溪 洪良浩(1724~1802)를 가리킨다.

홉 걸음을 내려가면 새로 설치한 돌다리가 있으니 바로 홍살문 안쪽의 거동길⁹⁵로 또한 '신평교 新豐橋'라고 이름을 지었다. 상량문은 우의정 右議政 윤기동 尹耆東이 하교를 받들어 지었다.

방화수류정 訪花隨柳亭

방화수류정 訪花隨柳亭은 벽돌 성의 서북 19보 용연 龍淵의 위에 있으니 바로 동북각루 東北角樓이다. 광교산 光敎山의 한 기슭이 남쪽으로 선암산 仙巖山이 되었고, 또 서쪽으로 몇 리를 가 용머리에서 멈추고 북쪽을 향해 열려 있다. 용머리란 용연 龍淵⁹⁶의 위에 불쑥 솟은 바위이다. 성이 이곳에 이르면 산과 들만이 만나고 물이 아래에서 돌아 대천 大川에 이르게 되니, 이곳은 실로 동북쪽 모퉁이의 요해처이고, 장안문 長安門을 잡아 당겨 화홍문 華虹門에 접하게 하여 기각지세 掎角之勢⁹⁷로 서로 의지하여 한쪽 면을 제어한다.

마침내 언덕을 따라 성을 쌓고 바위를 경영하여 누대를 세우고 편액을 '방화수류정'이라 하였다. 동서로 세 칸인데 가운데는 온돌을 두었고, 북쪽으로 한 칸을 붙이고 남쪽으로 반 칸을 물리며 서쪽 한 칸은 또 끌어 두 칸을 늘렸다. 남쪽으로 내어 밖으로 물린 것은 제도가 곱자와 같으며, 평평한 난간을 두르고 위에는 만근자 쇠창 鎖窓⁹⁸을 설치하였다. 온돌의 네 면에도 또한 만자 장자 障子를 갖추었고, 온돌의 면과 판자를 칸 면은 평평하게 하였다. 남, 동, 북쪽 세 모퉁이는 다섯 번 꺾인 팔각 八角으로 각각 종횡의 짧은 들보를 올렸다. 용마루의 서까래는 들쭉날쭉하여 건물 위를 말듯이 추어올리고 있고, 망새⁹⁹를 교차시켜 꽃고 가운데 세 마디 절병통 節瓶桶¹⁰⁰

95 거동길 : 임금이 거동하는 길이다.

96 龍淵 : 방화수류정 아래의 연못이다.

97 掎角之勢 : 사슴을 잡을 때 앞에서는 뺨을 잡고 뒤에서는 다리를 잡는 형세라는 뜻으로, 서로 옹하여 적을 견제하는 것을 가리킨다.

98 鎖窓 : 쇠사슬의 무늬를 새긴 창문이다.

99 망새 : 전통 건물의 용마루 양쪽 끝머리에 엮는 장식 기와이다. 매의 머리처럼 쭈불거지고 모가 난 두 뺨에 눈알과 깃 모양의 선과 점을 새겼다.

100 節瓶桶 : 궁궐이나 정자 등의 지붕마루 가운데에 세우는, 기와로 된 항아리 모양의 장식이다.

은 아득하게 높이 솟았다. 동북쪽 평평한 난간 밖에는 또 처마를 따라 널빤지를 깔아 성 머리를 아슬아슬하게 누르고 있다.

마침내 겹으로 교란¹⁰¹을 설치하고 밖에는 전봉^{戰棚} 널빤지 문 16개를 설치하였는데 제도는 겹친 병풍 같다. 위에는 전안 각 1개씩을 내고, 아래에 총안 각 2개씩을 뚫었다. 안쪽 면에는 절지^{折枝}¹⁰²를 그리고 정간의 소란반자는 연잎 모양을 바탕으로 삼았다. 동북쪽 교란 아래의 성 표면은 벽돌이고 위아래로 총안 19개를 뚫고 널빤지를 깔았다. 아래 서남쪽도 역시 벽돌을 둘러 담을 만들고 담의 남쪽에 벽돌 홍예의 작은 문을 설치하였다. 동쪽의 물림 난간 아래에도 역시 널빤지 문을 설치하여 숨은 병사가 발사하도록 하였는데, 포루의 제도와 같게 하였다. 정문 남쪽 처마는 섬돌과 벽돌로 대^臺를 만들었는데 돌을 깎아서 주변을 따라 돌렸으며, 대의 높이는 4척이고 위에 네모난 벽돌을 깔아 짝 지어 하는 활쏘기의 음양^{揖讓}의 의례를 용납할 수 있게 하였다. 대 위의 서북쪽에는 각기 높은 난간과 층계를 설치하여 정자 위와 통하게 하였고, 대 아래 동쪽과 남쪽 두 면에도 또한 4층의 섬돌을 설치하였다. 그 남쪽 11보에 짧은 담장을 쌓고 살문을 설치하였다. 편액은 지돈녕 조윤형^{曹允亨}이 썼고 상량문은 좌승지 이서구^{李書九}가 하교를 받들어 지었다.

각건대 角巾臺

각건대는 방화수류정의 동쪽 135보에 있으니, 바로 동북포루^{東北舖樓}이다. 땅의 형세가 돌연 가장 높아져 용머리를 굽어보며 누른다. 『성서^{城書}』에서 말하기를,

“치^雉의 위에 건물을 올린 것을 포^舖라 하니, 치에 었드려 있는 군사들을 보

호하기 위한 것이다.”

하였다. 치는 성 밖으로 튀어나와 있고 들보 5개까리 건물을 올려 널빤지를 깔아 누대를 만들었으니 들보 일곱에 3칸이다. 성가퀴 위로 높이 솟았고 세 면에는 모두 벽돌을 썼다. 담장 안에는 겹으로 벽돌 계단을 쌓았고 높이는 난간 바닥에서 그친다. 벽돌 계단 위아래로는 네모진 총혈과 누혈을 뚫었다. 누대 위의 사면에는 널빤지 문을 설치하였고 바깥 면과 좌우에는 각기 사안을 내고, 안쪽 면에는 벽돌 계단을 설치하여 오르내리게 하였다. 상량문은 관서 김재찬^{金載瓚}이 하교를 받들어 지었다.

화양루 華陽樓

화양루는 용도^{甬道}¹⁰³의 남쪽 끝에 있는데 땅이 멀어 마음대로 형승지^{形勝地}를 점유하고 있다. 누대는 모두 6칸으로, 남쪽에는 난간을 두르고 널빤지를 깔았으며 3면에는 널빤지 문을 설치하였다. 북쪽에는 분합을 설치하고 분합 밖에는 네모진 벽돌을 깔았다. 상량문은 봉조하 서유신^{徐有臣}이 하교를 받들어 지었다.

영화정 迎華亭

장안문^{長安門}으로 나와 북쪽으로 5리쯤 떨어진 곳, 기하동^{菱荷洞} 입구 진목정^{真木亭} 아래에 내를 막아 독을 쌓았으니 만석거^{萬石渠}라 한다. 을묘년 가을부터 물을 저장하여 호수를 열고, 이에 남쪽 언덕 위에 정자 하나를 세워 깊은 물을 굽어보고 비옥한 땅을 평평히 바라보니 올라 바라보는 빼어난 경관은 경기 남부에서도 빼어나다 할 만하다. 누정은 모두 8칸이며, 북쪽으로 2칸 온돌을 설치하였고 남쪽으로 가로 두 칸에 널빤지를 깔았다. 세 면과 온돌의 뒤는 모두 반 칸을 물리고 연잎 모양 난간을 돌렸다. 온돌의 사방 면으로는 모두 쇠창^{瑣窗}과 장자^{障子}를 설치하였다. 서쪽으로

101 交欄: 亞자 모양으로 꾸민 난간이다.

102 折枝: 꽃가지와 나뭇가지를 그린 것이다.

103 甬道: 군량을 운반하고 매복을 서기 위하여 낸, 양쪽으로 담을 쌓은 좁은 길이다.

는 큰 문을 설치하고 남쪽으로는 작은 문을 설치하였으며 주위로는 네모난 담장을 쌓았다. 병진년 가을에 주필¹⁰⁴하실 때 편액을 명하기를 ‘영화정’이라 하셨으니, 이에 유수가 인수인계하는 장소로 삼았다. 유수 조심태¹⁰⁵가 편액을 쓰고, 판관 홍원섭¹⁰⁶이 상량문을 지었다.

서장대 西將臺

서장대西將臺는 팔달산八達山 꼭대기에 있는데, 올라가 멀리 바라보면 팔방이 모두 통하여 석성산石城山 봉화烽火와 황교皇橋¹⁰⁵의 물이 마치 자리¹⁰⁶에 둔 것 같고, 한 성의 완급과 사방 벽의 허실은 마치 손바닥 위를 가리키는 듯하다. 산 둘레 백 리 안쪽의 동정은 모두 앉아서 변화를 제어할 수 있으니, 드디어 돌을 쌓아 대臺를 만들고 위에 층각層閣을 세웠다. 앞쪽 면의 받침돌은 4층인데 섬돌이 셋에 계단은 4개이고, 좌우로 큰 붉은색 의간桅杆¹⁰⁷을 나누어 세워 두었다. 아래 층 누각의 제도는 9칸이고 중간의 한 칸에는 널빤지를 깔아 바닥을 만들고 연잎 모양 평평한 난간을 둘렀으며, 뒷면에는 분합分閘을 설치하였다. 문미門楣¹⁰⁸ 위에는 임금께서 쓰신 네 글자 큰 글씨의 ‘화성장대華城將臺’ 편액을 삼가 걸었다. 사면이 각기 길게 시령을 끌어 대고, 사방 모퉁이에 각기 시령 하나씩을 붙여 모두 네모난 벽돌을 깔았다. 바깥 기둥은 둥근 기둥 12개이고 팔각형의 돌기둥으로 받쳤다. 위층 한 칸은 사면에 교창交窓¹⁰⁹을 설치하고 역시 널빤지를 깔아 바닥으로 삼았는데 그대로 아래층의 반자盤子¹¹⁰가 되니, 바로 소란반자의 제도이다. 그 서북쪽 모퉁이에는 사다리모 위층과 통하게 하였고, 옥상 가운데

104 住蹕: 임금이 거동하는 도중에 잠시 어가를 멈추고 머무르는 일이다.

105 皇橋: 大皇橋이다. 지금의 경기도 수원시 수원비행장 인근에 있던 다리모, 正祖의 陵幸 때 사용되었던 다리이다. 지금은 隆慶 경내에 잔여 석재로 복원해 두었다.

106 자리: 원문은 ‘雉席’인데 깔고 앉는 방식을 뜻하며, 여기에서 매우 가까운 곳이라는 의미가 파생되었다.

107 桅杆: 큰 깃대이다.

108 門楣: 창문 위에 가로 댄 나무이다. 그 윗부분 벽의 무게를 받쳐 준다.

109 交窓: 分閘 위에 가로로 길게 짜서 끼우는 채광창이다.

110 盤子: 지붕 밑이나 위층 바닥 밑을 평평하게 하여 치장한 각 방의 윗면이다.

에는 3마디의 절병통節瓶¹¹¹을 세웠다. 대 위에서 위층의 마룻보¹¹²까지 전체 높이는 21척이다. 대 뒤로는 8면의 노대弩臺를 세웠는데, 『무비지武備志』¹¹³에서 말하기를,

노대는 위가 좁고 아래가 넓으며 대 위에 건물을 올리는데 제도가 전봉戰棚¹¹⁴과 같다. …… 안에는 노수弩手¹¹⁵가 들어간다.

라고 하였다. 이제 그 제도를 모방하되 조금 다르게 하여 건물을 올리지 않고 대는 8면으로 하되 깎은 듯 높이 솟아오르게 하여 높이가 12척이다. 지대地臺 위에는 벽돌로 면을 만들고 돌을 깎아 모퉁이를 만들었다. 위에는 장대석을 더하고 일곱 면에 철뾰자 모양의 성가퀴를 설치하고 총안을 뚫었다. 그 정동正東쪽 한 면을 비워 9단의 돌계단을 설치하고, 대 위에는 네모난 벽돌을 깔아 가운데에 다시 네모난 대를 쌓았다. 상량문은 좌의정 채제공蔡濟恭이 하교를 받들어 지었다.

동장대 東將臺

동장대東將臺는 성의 동북쪽 사이에 있다. 선암산仙巖山¹¹⁶의 한 맥脈이 매향동梅香洞을 끼고 도니, 그 가운데 산등성이를 따라서 험준함에 의지하고 있다. 높은 데 있어 두루 보이고, 남북으로 허리띠처럼 동성東城¹¹⁷을 둘렀으니 참으로 전체 성 중에서도 가장 좋은 땅이고 이요 대장이 먼저 의지할 곳이다. 마침내 3층의 대를 쌓았는데 아랫대의 앞쪽 면에는 잡석을 쌓

111 節瓶: 궁궐이나 정자 등의 지붕마루 가운데에 세우는, 기와로 된 항아리 모양의 장식이다.

112 마룻보: 대들보 위의 동자기둥 또는 높은 기둥에 얹혀 중도리와 마룻대를 받치는 들보이다.

113 武備志: 明나라 茅元儀가 지은 兵書이다.

114 戰棚: 고대에 성의 담장 위에 방어용으로 만든 것으로, 긴 나무를 성가퀴 위에 올리는데 대체로 敵樓와 비슷한 건축 구조물인데 임시로 금방 만들어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15 弩手: 화살이 잇따라 나가도록 장치한 쇠뇌를 쏘는 射手이다.

116 仙巖山: 동장대를 설치한 동쪽 구릉을 가리키는 말이다.

117 東城: 화성의 일부 구간을 가리키지만, 東南閣樓부터 華虹門 동쪽까지 이르는 구간이다.

고 이어서 짧은 담을 건설하여 전체 높이가 12척이다. 중간 대의 석축은 높이가 8척 5촌이고 그 높이의 반을 잘라 4척을 조금 물려 또 한 층을 만들어 총수銃수가 숨어서 쓰기 편하게 하였다. 가운데와 좌우에 외장대(外長臺)¹¹⁸를 설치하여 흙으로 메워 평평하게 하였으니, 아랫대에서 곧바로 올라오고 말을 타고 달려와도 방해가 되지 않게 하였다. 중간 대의 좌우에는 큰 붉은색 의간(桅杆)을 나누어 세웠다. 중간 대에서 올라가 3칸의 디딤돌이 있는데 5~6계단이며 좌우로 외장대를 붙였다. 협간의 좌우로는 구름을 새긴 큰 컛돌¹¹⁹을 붙였다. 윗대 석축은 높이 5척 7촌이고 위에 20칸의 넓은 건물을 세웠는데 삼포팔작(三包八雀)이다. 기둥 안팎과 사면의 덧돌¹²⁰에는 모두 네모난 벽돌을 깔고 좌우로 분합을 설치하였다. 뒷기둥 가운데에는 3층의 평평한 난간을 설치하였고 높은 곳에 온돌 한 칸을 설치하고 좌우 한 칸 바닥 한 층에는 널빤지를 깔고 각각 2층의 평평한 난간을 설치하였다. 또 그 좌우 한 칸 바닥 한 층에는 널빤지를 깔고 창과 분합을 들렀으며, 북쪽 가장자리 덧돌 위에는 한 층의 벽돌 섬돌을 더하였으니 이곳이 사대(射臺)이다. 뒷면의 성체는 활을 당긴 것처럼 생겼고, 그 내탁(內托)¹²¹으로 인하여 문석대(紋石臺)¹²²를 쌓았다. 대 위는 뒤로 성가퀴와 접하고 영룡장(瓏牆)¹²³을 지나 내려가면 윗대의 오른편, 중간 대의 왼편에 이르게 되는데, 각각 작은 문 하나를 세워 아랫대에서 그쳤다. 좌우에는 행각(行閣)을 붙이고 앞면은 짧은 담장으로 막아 좌우 문의 행랑과 접하게 하였다. 담장 바깥에는 넓게 조련장을 만들었다. 상량문은 직제학 이만수(李晩秀)가 하교를 받들어 지었다.

118 外長臺 : 누운 장대를 뜻한다. 장대는 장대석(섬돌 층계나 축대를 쌓는 데 쓰는, 길게 다듬어 만든 돌)을 말한다.

119 컛돌 : 石築의 모퉁이에 쌓는 돌이다.

120 덧돌 : 집체의 낙숫물이 떨어지는 곳의 안쪽으로 돌려 가며 놓은 돌이다.

121 內托 : 바깥쪽은 성벽을 쌓되 안쪽은 흙으로 경사를 이루게 하여 성벽을 지탱하도록 하는 것이다.

122 紋石臺 : 석재를 모양 있게 쌓아 석축면을 보기 좋게 한 대이다.

123 瓏牆 : 벽돌이나 기와를 띄엄띄엄 쌓아 장식으로 문양을 만든 담이다.

만석거 萬石渠

만석거(萬石渠)는 영화정(迎華亭) 아래에 있다. 하천을 끊어 제방을 쌓아 물을 저장하고 수문을 설치하여 관개(灌溉)의 이익을 일으켰다. 주변은 1,022보이고 위쪽의 깊이는 7척, 아래쪽의 깊이는 11척이며 둑의 길이는 725척이다. 남쪽은 흙 언덕에서 시작되어 북쪽의 돌벼랑에서 끝난다. 그 벼랑에 수구(水口)를 뚫어 물길을 통하게 하고 나무다리로 건너다니게 하였으니 이를 하여 여의교(如意橋)라 하는데 너비는 둑의 등성이와 나란하며 그대로 연로(輦路)¹²⁴가 된다.

또 남쪽 머리 제방이 시작되는 곳에 물웅덩이 하나를 파서 나무를 우물난간의 틀처럼 깎아 가로로 세워서 겹쳐 묻고 네모난 구멍을 관통시켜 관개하는 수로를 이끌게 하였다. 안쪽 면에는 수문을 설치하고 가로로 14겹의 칸막이 판자를 대어 항상 잠그고 흙으로 봉하여서 안에서 바라보면 웅덩이가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 관개할 때가 이르면 널빤지를 열어 물을 풀어놓는데 그 많고 적음에 적합하게 하니, 그 아래에 이익을 누리는 밭이 몇 천 이랑이나 된다. 이곳을 대유평(大有坪)이라 한다.

용연 龍淵

용연(龍淵)은 북성(北城) 바깥에 있는데 모양은 반달 같고 둘레는 210걸음에 깊이는 6척이다. 가운데에 작은 섬이 있고 땅 위 성 주변에는 방화수류정(訪花隨柳亭)이 있다. 정자 아래 바위는 옛날에 용머리(龍頭)라 불렀는데 낚시를 할 만한 장소이다. 연못 서쪽에는 교룡(蛟龍)의 머리를 돌로 조각하여 설치하였으니, 물이 불어나면 이곳에서 화홍문(華虹門) 바깥으로 물이 흘러나온다.

| 原文

我正廟己酉冬，遷奉顯隆園于水原之花山，移邑治於柳川。越五年癸丑，

124 輦路 : 임금의 거동하는 길이다.

陞留府，以尊體貌，置行宮以寓瞻依。於是乎因華爲城，衆心以成，喬山松柏，拱護增重，而四方爲之會同，萬代爲之瞻仰。苟非大聖人達孝宏謨准于海而極于天，其孰能與乎此哉！

今見城池之包絡，實是天作之地，而正當三南之要衝，儼爲畿輔之控扼。維億萬年地久天長，以拱護于仙寢，捍衛于行宮，而爲京師之翼蔽，此實三代之盛所未有而於今勗覩者也。

城之周凡四千六百步，總爲十二里，城之體橫長緩仄，類方春柳葉狀，蓋取地名之爲柳川。而城之名曰華，以園在花山，取花與華相通，亦寓華人祝聖之意也。

噫！於今十五年之間，鼎湖之弓劍莫攀，豐邑之樓櫓依舊，則於乎不忘之思，奚但居是城而朝暮指點者乎！於是乎詳記粉堞之殊制，華構之宏規，以頌我先王冠百王之孝·周萬物之智也。

城

城之全局，向東開面，八達之山，屹爲後鎮，一字之砂，平作近案。中受大川，經其南北，四角俱高，八門相錯，眞是萬年金湯之地。中國城制，必外內夾築，此由野城之多故也。我東城址，多附岡麓，因利乘便，不費工築，而天作內托，不用夾築。其所殊制，卽地勢之異宜也。

城高准二丈，山上則減五之一，皆以石築，石皆取其長而縱布之，俾深其根，次以塊石環根而峙，衆椎粉碎，實其罅隙，仍加搗築，厚延半丈，次配以土，是爲內托，通計城厚下可五丈，上收亦可得三丈。城制自底至腰，引而內之，其勢若縮，自腰以上，引而外之，其勢若頰，使城身自成圭形，而循址培土，約濶四五丈，通計周圍爲二萬七千六百尺，作四千六百步，以里計之則爲十二里有奇。

城之門四，北曰長安門，南曰八達門，東曰蒼龍門，西曰華西門。水門二曰華虹門·南水門，暗門五，敵臺四，弩臺二，空心墩三，烽墩一，雉城八，砲樓五，舖

樓五，將臺二，角樓四，舖舍三，并計門譙雉舖臺墩等所占地，爲元城六分之一。

城自北坪平地始，東起於龍淵之下，跨越大川，川之內截水拓沙二十五步，是爲北水門【華虹門】之址。自川西稍進近北一百二十四步三尺而爲北東砲樓之址，周二十一步一尺。樓之西一百二十八步而爲北東雉之址，周二十步，與北東敵臺相連，臺之周爲二十二步一尺。遂轉曲向西四十二步而爲北門【長安門】之址，濶二十六步，其甕城之圍爲五十五步。

自甕而西四十一步四尺而爲北西敵臺，亦周二十二步一尺，臺之西一百五十六步而爲北西砲樓之址，周二十二步。又自樓西九十步而爲北隱溝，溝濶二步五尺，以引城外細渠，俾貯城內北池之水。自溝西三十七步而爲北舖樓之址，周十七步，自舖西又一百步而爲西北空心墩之址，周二十三步。轉曲向南十五步四尺而爲西門【華西門】之址，濶十四步四尺，甕城之圍爲二十九步。

於是平地盡而緣山而上，一百四十六步而爲西北角樓，仍其屈曲拓平，岡脊之半，內作山托，又七十步而爲西一雉之址，周十六步一尺。自雉南漸向崔嵬，至一百二十一四尺而爲西砲樓，十八步四尺之址。樓之南一百四步而爲西二雉，十四步五尺之址。又其南九十步而至八達山頂。

城自頂高，內關八面弩臺及二層將臺之址。自此四十四步，其勢稍下，至西暗門之址，隱折一曲，門濶一步一尺。復因其脊向南，直馳一百二十六步爲西舖樓，二十步之址。又自舖南一百四十步而爲西三雉十四步四尺之址，雉南九十步而爲西南暗門之址，門濶一步二尺。其正南一麓直抽暗門之外，作甬道之址，長一百七十七步，濶六步，三面周三百六十七步。西南角樓【華陽樓】之址在其南端陡絕處。

自暗門轉曲向東，仍開南城之址，勢稍崎嶇，至一百一步而爲南砲樓，其址二十步二尺。自樓而東，又九十步而爲南雉之址，周十四步二尺。下至平地爲七十一步，而作三門隱溝，溝濶四步，以導城內川西支派之流。自溝東四十步一尺而爲南西敵臺二十二步一尺之址，又四十一步而爲南門【八達門】之址，濶二十五步四尺，甕城之圍爲五十五步。

自甕而東四十一步一尺而爲南東敵臺，其周亦二十二步一尺。又二十二步而爲南暗門之址，濶三步。自此三十步四尺而至南空心墩，其址二十六步。遂轉曲向北七十三步而爲南水門之址，截水拓沙如北水門之爲而其濶亦二十五步。自水門之東過平地三十步而更起山上之址，其勢頗峻。又三十步而拓作東南角樓之址，頂高而平。溯北縣延至東一雉之址，徑六百六十六步，是爲一字文星而城包其後。自角樓北五十九步三尺而有東三雉之址十七步，又一百二十三步一尺而爲東二舖樓十五步三尺之址。自舖一百五步而爲烽墩之址，墩出城外者周爲二十三步四尺。墩之北一百十四步而爲東二雉十六步之址，又一百十步而爲東砲樓二十步之址，樓之北一百十步二尺而又開十七步之址，卽東一雉也。自雉而北一百二十五步而爲東一舖樓，舖之址十七步一尺。自此稍東轉彎而北至東門【蒼龍門】之址，其間爲一百八十六步二尺而門濶十六步二尺，甕城之圍二十四步。

自甕頭直北九十六步而爲東北弩臺，周十六步二尺，又西北折六十步而爲東北空心墩，自墩後轉曲而西一百五十步而爲東將臺之址。城因臺後彎環而西爲東暗門之址，其間高下一百六十六步而門濶又一步二尺。門之西少北稍高，一百三十七步而爲東北舖樓【角巾臺】十五步四尺之址，又西轉而下七十六步四尺而爲甕城四十步之地，而其間北暗門占其一步，門東十八步，門西二十一步。自甕城西頭北轉，更高十九步而爲東北角樓【訪花隨柳亭】之址，古所謂龍頭之上，而龍淵在其北。自樓而西四十四步，山盡而爲川，止於起處。此蓋一城基址之大略也。

長安門

長安門，城之北門也，在行宮之左稍東七百八十步。門設內外虹蜺。內面左右，以城石之體大精鍊者，作門傍石面，名曰武砂。左右臥長臺石梯各二十三層，外面亦附武砂兩扇。門裏鐵葉具橫扇。虹蜺蓋板底面雲氣，內外虹蜺上加缶形武砂及二層長臺，設漏槽各四。外面平女牆同內牆而濶則出東西牆外。至此高爲六尺，以接甕城上小虹蜺，列置堞口十，開方眼鏡穴十二。東

西女牆當中，各設小板門，牆內起樓二層，通高三十二尺九寸，上下各十間，下層內七包外五包而舖板爲底。左右夾間各二，西夾第一間及東夾第二間，各設曲欄層梯，以通上層。而西則自北而上，東則自南而上，西梯下設箭門關鎖，臨御時乃開。上層內外並七包，正間及左右第一夾間，濶皆與下層同，並舖板，四面設板門。而三面皆面獸面，穿葫蘆箭眼，內面則畫太極，用三土丹腹。扁額知敦寧曹允亨書，上樑文我王考文獻公府君奉教撰并書。

北甕城長安門之外城也，城書云：“甕城隨正城大小，狀如半割甕。”門上不建敵樓者，以有正城橫立可禦也。甕自正門左右武砂各七步而起，甕築爲城，外面穿懸眼十六，內面設甕漏槽八。古制偏開一門，或左或右，而今取四關八達之義，當中設門，以對正門，兩門之間爲十步三尺，石作內外虹蜺。兩扉裏鐵施扇如正門。蓋板上累甕甕，上設五星池，五星池狀如豬槽，留五孔大如升，敵以火焚門則可以下水者也。池上設女牆九堞，其左右各低一層設凸形女牆七堞。至接城處，又以半凸作層，各穿銃眼一穴。內面周以平女牆，甕上盡舖方甕，左右端設甕虹蜺小板門，以通城上。門之兩傍，亦設平女牆。

北城敵臺二，在長安門之左右各五十三步。古制七十步立一臺，弓箭火槍俱置臺上。城書云：“今之城不必矢彈，雖槍筈亦上刺有餘，全仗高臺兩邊顧視，敵不得直至城下。又不能屈矢斜彈以傷我臺上之人。”略做是制，臺高與元城女堞齊，半出城外半入城內，有懸眼三。繚以凸形女牆，外三面十一堞，各穿銃眼。內面左右平女牆各一堞，虛其中而設石礮，以通臺上。

八達門

八達門城之南門也，在行宮之右稍東五百步，制同長安門。扁額知敦寧曹允亨書，上樑文奉朝賀李命植奉教撰，其胤松留冕膺奉教書。

南甕城八達門之外城也，內外虹蜺，皆以甕成，設懸眼十二。甕上外面左右，凸形女牆各九堞，餘同北甕城，敵臺亦如北臺。

蒼龍門

蒼龍門城之東門也，西南距行宮一千四十步。制同長安·八達，而左右女牆內起樓六間，鋪板爲底。扁額判府事俞彥鎬書，上樑文檢校直閣尹行恁。後罪死奉教撰并書。

東甕城之制，取古偏開一面義築甕，至城門之左，不接元城，不設外門，如京城興仁之門甕制。自門右六步而起，止於門左亦六步三尺，而與城不接處，其間爲四步，內面石築，外則甕築，內設甕漏槽。四周以平女牆，外穿懸眼三，設女牆四堞，穿遠近銃眼十四。甕上鋪灰杵築，其南端設石礎，上通元城。

華西門

華西門城之西門也，東南距行宮四百六十步。虹蜺門樓之制，并同蒼龍門，但左右石梯，轉曲作層，扁額右議政蔡濟恭書，上樑文弘提徐有隣奉教撰并書。

西甕城制如東甕城。

南暗門在八達門之東七十九步三尺，向南稍僻。暗門者，城之間門也。古制置間門於奧僻處，使敵不明其路，而人畜輜糧之收入城內者，皆由此竄。填土塞門則與城爲一，所以備通塞而應機變也。因城而設石虹蜺，制如正門而稍小。門上設盖板，板上加灰，內外夾築女牆，而外設睥睨，不建樓櫓，只實土被莎，仍通城上之路，門扇裹鐵施扇亦如正門。

東暗門在東將臺之西一百六十六步，居東向北，甕築爲內外虹蜺，可通一騎。門上鋪甕，不建樓櫓，只設五星池及一大圓女牆，如木戰棚之制。左右各具睥睨，內面設平女牆，餘同南暗門。

北暗門在東北角樓之東四十步，甕城之間內外虹蜺，亦以甕築。門頂設圓女牆，制如東暗門。虹蜺間設石礎，入高出下，地勢然也。

西暗門在西將臺之南四十四步，卽八達南麓之間，築城轉折，門則向北，自外望之，不知有竄。甕作虹蜺，內外設平女牆，餘同他制。而門在山腰，路出城上，於是門內砌石，自成方坎。設礎其北，以通上下明暗之徑。

西南暗門在西暗門之南三百六十七步，實甬道所起而華陽樓之通路也。甕

作虹蜺，上設內外平女牆。牆內建屋，是爲鋪舍，方一間，仍置溫堞。四面設板門，外畫獸面，用丹雘。據高瞭遠，宜於置卒報警也。

北水門扁曰華虹門，在訪花隨柳亭之西四十四步。光教大川橫截一城，每當夏潦，輒有汎濫之患。築城之初，先事水道，疏而廣之，設七間虹蜺石橋，跨川上七門。內外虹蜺之間，各豎左右柱石四。其虹蜺相接處，附蜻蜓武砂，當中加缶形武砂。仍鋪橋石，橋上內外面設長臺石。橋濶三十一尺長九十五尺，外面長臺上設漏槽七，上累甕爲堞，不設堞口。下穿方眼大砲穴八，上穿小砲穴十四。內面則只存長臺而穿漏穴六。東西兩端豎八面石柱，上刻螭形。西柱之北·東柱之東，皆築短垣，設箭板門，以通東城之路。橋上近北建樓六間，高出堞上，四面設分閣，而東西南三面附荷葉欄干。欄下繞甕爲牆，虛其南當中間，以便出入放射，制如砲樓。北面分閣外退，板上設戰棚，板門下接甕堞，外畫獸面，穿箭銃眼。丹雘以綠爲質，不用眞彩。橋下七虹蜺各設鐵箭門，以索鉤引兩扇，貫出橋面石眼，施環加鎖。門內兩岸石築高四尺，外石築高五尺，上接城身，通高十六尺。此實川東川西相對轉曲，爲元城兩頭盡處，而與戰棚左右相去各二十九尺。於是又設三堞女牆於左右甕堞之上以接之。扁額士人俞漢芝書，上樑文判府事尹塾奉教撰。

南水門在龜川之上，大川自華虹直流七百五十步而至龜川爲一城水口，築城至此，又作水門，與華虹對起，以導其流。駕石爲九間虹蜺，設鐵箭關鎖如華虹之制。九虹蜺左右各豎間柱石八，跨以石橋，橋長九十五尺濶十九尺，內外面各設長臺。內設漏穴五，外附甕砌，仍作長鋪，不用木石，只累甕而平其頂，四壁而虛其中。鋪長與橋齊，廣居橋三之二，頂高九尺，上有蓋板。鋪之內足以容衆數百，外面穿三層砲穴五十七，內面列虹蜺小門三。鋪之頂鋪甕爲路，其外面設大圓甕女牆九堞，以當九虹蜺之首。穿銃眼三，穴間以方女牆八堞，亦穿銃眼一穴。東西兩端又設平女牆以接元城，而又轉曲向內，設虹蜺小門以通頂上之路。

東北弩臺，在蒼龍門之北九十六步。雉上築甕爲臺，臺高十八尺。甕築之制，四方而刻其隅，蜂腰而削其勢。引長出城外二十尺五寸，穿懸眼二穴，上設圓

女牆。三面各一垛，外面兩隅亦以圓垛曲摺，並開方眼三穴，每垛左右夾以凸女牆亦一垛。內面兩隅，以平女牆曲摺，中設甃，承以石梯，臺上鋪以方甃。

西北空心墩，在華西門北雉之上。城書云：“磚砌三面空其中，中二層以板爲樓，用木梯上下，多置空眼，以便窺覘放打佛狼機百子銃，敵不知矢彈之出自何方。”今倣是制，因雉設墩，西北二面各開懸眼二穴。其上甃築而空其心，上架以屋，縱橫各二間，設上下廳板，以樓則二層，以舖則三層，每層甃面開狼機砲穴二十。上層甃面上繚以板，門各穿箭眼。上二層各開廳板，另蓋一板，推挽開闔，以通木梯陞降之路，下層內面設甃虹蜺小門。

南空心墩，在南暗門東雉之上，其制一如西北墩而小。雉之東南二面，各開懸眼二穴，上設平女牆，每面置兩銃眼。牆內三面各空三尺，以容兵夫之用技。當中而墩，甃築而空其心，甃上架屋一間，不設板門。

東北空心墩，在弩臺西六十步。城托之上女堞之內，倣遼薊平墩之制，甃築爲圓墩而重匝之。內外圓之間空其心，周以二層盖板，皆使兵夫庇身。外穿銃眼，兼取其明，上穴二十六，下穴十四。上下蓋板上，并築泥灰。自下層空心，由甃梯羊腸而上，則至上層架屋。其制六楹，繚以平女牆，穿上下砲穴二十三漏穴六。下層內面設甃虹蜺小門，又於門東空心，截作溫埃，方眼爲牖，使守卒入處。

烽墩在一字文星上，東二舖東二雉之間，爲行宮案照。四城旣築，設把守而責瞭察，以寓夫斥候之義，則遠而水¹²⁵陸報警，尤爲不可無者也。遂因凸城之制置烽墩，築甃高於城身之上，而引長出城外十八尺，如雉形而大。外面石築五層，甃築六十二層，穿懸眼二穴。內面屈作三層，第一層高四尺，上設五火竇，出女堞上六尺，炬口在腰。五竇之間列附女堞，兩端轉曲向內，三面具砲穴十八。下二層甃，濶各一尺四寸，高三尺餘，亦轉折作三面甃城，穿銃眼十八漏穴一。由左右曲甃而上，以通炬路，甃各十層，兩邊甃端，連以甃築之，屋覆以無梁之瓦，南北各一間。南則置埃，守卒所處，北則鋪板，器械所

貯。自墩身之入於城內者至此，兩隅左右，長各十六尺。因其甃背作一方城，甃上亦設短牆三層，下連兩屋。前面兩間，甃垣與屋齊，當中設虹蜺小門。每夕於南一竇舉一炬，東應龍仁石城山陸烽，西准本府興天臺海烽。外此四竇，非有警急，不可以火云。

西北角樓，在華西門之南一百四十六步，山上轉曲處，建屋五梁，并鋪板作樓。四面平欄，上設板門，外面皆面獸面，穿箭眼。內面則面太極，虛其西南一間，設層，北接樓上。東南一間，廳板下繚甃爲牆，設溫埃以處守卒。

東南角樓，在龜川上一字文星之頭，城因山勢到此陡絕。樓出城上，迴臨平野，其制亦五梁四間。并鋪板，設層梯於東檐之下。

砲樓凡五，其制如一。凸附城身類於雉，架屋而高齊於舖，三層而空其心，略似墩制，皆用甃磚，下濶上收，以寓古制再突之勢，而多藏火砲，上下俱發者也。地臺上仍以甃築，架屋五梁，引出城外三楹，而長高與梁接，厚與檐齊。外面地臺上間，置大砲穴石二，左右面置三石。甃坎內去地平五尺，上依甃，三面繞以鋪板，開銃穴十五。又於繞板上十尺，乃鋪三間樓板，樓上三面又開銃眼十五。而外面銃眼上，又穿箭眼四，左右面則近上穿甃設小板門三，外面獸面，各穿箭眼，門間甃面亦雙穿箭眼。內面則因其城托全以石築，其上設板門。闕內廳端，虛其方四尺，另設蓋板，推挽開闔，承以木梯下通坎內。

北東砲樓，在華虹門之西。

北西砲樓，在北西敵臺之西。

西砲樓，在西北角樓之南，架屋三梁，闕內廳端，以甃爲梯，餘如上制。

南砲樓，在西南暗門之東。

東砲樓，在烽墩之北。

北舖樓，在北西砲樓之西一百二十九步五尺。雉出城外十九尺，架屋五梁，制如東北舖。而三面平女牆直接樓底，各開射砲穴，內面設木層梯。

東舖樓二。第一舖在蒼龍門之南一百八十六步二尺。雉出城外二十三尺，穿懸眼一穴。上建三間長舖，高出女牆。東二間舖板爲樓，不設門，甃內面一間，臥設木梯，三面直附平女牆，繚出鋪板上。樓底各開遠近銃眼。第二舖在

125 水：원문에 '火'로 되어 있으나, 『華城城役儀軌』에 근거하여 고쳤다.

烽墩之南，制如一舖，而一間舖板一間設梯。

雉凡八所而其實十六。上架以屋者謂之舖，而舖居其五；空心而斲者謂之墩，而墩占其二；上伏弩手曰弩臺，而臺即其一。然則上無架屋，只有女牆者，是雉之本制，而今所謂八雉，與臺舖相間，步武略同，古法五十堞置一雉。雉能藏身善伺，故取是象也。敵若來附城面，則我不能屈矢斜彈，而彼之鉤杆已拔城根。苟使左右對雉丸鏃交及，則飛樓雲梯，亦何所施也！雉之制凸附城面，高與城齊，長濶約三丈，外面有懸眼一穴。其周圍長短，隨地因勢，自有參差，大抵城多轉曲，若遇角遇門，則自成雉形，以衛正城，所以計堞計步之不准於古也。

北東雉在北東敵臺之東，與臺相連。三面女牆分作五堞，各穿方眼三穴。

西一雉在華西門之南堞口上，亦蓋以斲。

西二雉在西砲樓之南，西三雉在西舖樓之南，女牆兩端入元城內三尺，相對曲摺而虛其中，如敵臺內面之制。

南雉在南砲樓之東，女牆之制，與西三雉同。

東三雉在東二舖樓之南。

東二雉在東砲樓之南。

東一雉在東一舖樓之南。

中舖舍在角巾臺之下三百二十步。舖在雉上則爲舖樓，在城內則爲舖舍，凡城外伏路之報警也。各自該城面應砲以報，則舖舍之卒亦應旗砲，此守城之約束也。於梅香洞第一脊，取其突然中高，建二間層舍，下置溫埃一間，虛南一間，設木梯以通上層。上二間并舖板，繚以板門。

內舖舍在行宮後牆內左麓耒老間亭之北，鋪甃丹墀如中舖。

奉壽堂

上之十三年己酉秋，建水原府治於八達山下，以其府衙仍作行宮。而正堂有御書扁額曰壯南軒，又曰華城行宮，又曰奉壽堂。乙卯春，上陪惠慶宮拜園所，進饌于是堂故名之。常時則使留守坐衙。堂之制七樑二十一間，內外

行閣凡九十一間，舊建爲四十三間，自甲寅秋新建又四十八間。其新建則正堂東北隅，直連以北閣道，又東折而接于舊行閣。自閣道之第三間，連甃而西，是爲北行閣，仍折而南，是爲西行閣，與長樂堂後行閣相連。而自此築短板牆東至重英門，接於長樂堂西北隅，實兩堂後庭之分界也。正堂前面則中陽門之內，皆是舊建，而只北邊樓上庫之東平廊，與中陽門外北行閣相連者，並新建。中陽行閣南則實爲維與宅之北行閣，北則自門內連建者十二間，仍折而南接于左翊門之左行閣，又於左翊門右行閣之南，新建二間，以接外整理所。上樑文判府事李秉模奉教撰。

長樂堂

長樂堂在奉壽堂之南，近西相連，有御書扁額。堂制七樑十三間，溫埃八間。北二間與奉壽堂涼房通，東西南三面俱有退軒，西面平欄上設分閣溫埃。每間設障子，重房複壁，開輒洞豁。不用丹墀，由西南退楹連建閣道，以通福內堂之後行閣。自閣道第二間界以粉垣，設二小門，西曰多福，東曰長福。前面庭東有景龍館，高如樓制。其下設板門，名曰至樂，以通奉壽堂南行閣之前路。後面行閣，自奉壽堂西行閣連建九間，以接福內堂之西別堂。上樑文內閣提學鄭民始奉教撰。

景龍館

景龍館在長樂堂之前，五樑四間半，四面平欄，上設分閣，鋪板爲樓。下設三板門，卽至樂門，不施丹墀。南北兩邊，連建閣道，北四間通奉壽堂之東南隅，南二間接維與宅之西閣道。并鋪板。扁額判書趙宗鉉書，上樑文都承旨黃昇源奉教撰。

福內堂

行宮內堂曰福內堂，五樑十八間，有御書扁額。亦於己酉新建，其東南內外行閣，皆是舊建，而北溫埃之西，又有舊建三間。甲寅秋仍其制連建五間，是

爲西別堂，並具前退。自此又折而爲西行閣，南接于舊行閣。其北端則與長樂堂西行閣相連。上樑文禮曹判書閔鍾顯奉教撰。

維與宅

維與宅在於福內堂東行閣之外，五梁八間，庚戌春勅建，扁以隱若軒。第一間前退，仍作拱辰樓一間，後面連甍而折，爲西附舍五間，並與北附二間。凡舊建十六間，甲寅秋仍其舊而增葺之，改排溫堦四間半，而於北附二間，又排溫堦以連之。又其北附以延暉門一間，其西檐附以退楹，接于正間涼房。又轉曲而西連作閣道，以通景龍館之南牖，實西附舍之北退也。乙卯春改額曰維與宅，是爲行幸時小次。左右行閣，並於丙辰夏新建。左邊北行閣十三間，右邊南行閣五樑二十二間半，其西端北折爲四間半，接于正堂之南嘉魚門之右。前面行閣並舊建，而重修者唯南端溫堦二間，卽是新建，而北端空廊二間，設賓曦門，以通外整理所。扁額參議柳師模書。

洛南軒

壯南軒之北，舊有得中亭，庚戌御射後命扁者也，甲寅秋，移其亭於老來堂之西，廣拓其址，仍建洛南軒。軒制七樑十四間半，楹內外鋪板，而楹內則上設藻井，左右及後楹，並設分閣，後退設荷葉平欄。轉折而通老來堂，四面檐階上並鋪方甍，前面及東面皆用甃砌高四尺，以雙絲鍊石縱橫緣飾。前面當中有三間步石各三層，正間左右設卧長臺，左右夾間各附雲刻大隅石。庭之東北有小池，方二十五尺，周以石砌，中有小島，池北設翠屏，又其北築短牆，設小門。至軒之前面，繼以紅箭板牆，直西二十六步而止，牆下有趺聯列如屏，從便開闔，接于西牆之頭，有擺立旗鼓之事，則洞撤樹塞，以廣庭除。西牆之內有藏春閣，卽是舊建，而亦以翠屏爲界，扁額知敦寧曹允亨書，上樑文吏曹判書沈煥之奉教撰。

老來堂

洛南軒西一間之後，連甍南折，爲五樑七間，是爲老來堂。廳一間，與洛南軒隔一障子。前面退楹並鋪板，繚以荷葉平欄。北接洛南後退，南通得中亭，並施丹甍，檐階鋪甃。庭東遮以粉牆，當中設甃虹蜺小板門，名曰難老。其北端檐階上又有單扇小門，名曰歌風。堂之扁額，左議政蔡濟恭書，上樑文上護軍丁範祖奉教撰。

得中亭

自老來堂連甍西折而爲得中亭，奉揭御書扁額，檐內有小退，設平欄，承以板門，重遮風雨。階前有御射臺，上鋪方甍。溫堦之東，鋪板二間，又其東低二尺，鋪板及溫堦，其南邊退楹一直相連，以接奉壽堂北閣道，並不施丹甍。亭之西附以三間，又南折四間，與奉壽堂西行閣相連。上樑文王考文獻公府君奉教撰并書。

未老間亭

未老間亭在後苑西牆之內，舊所謂六面亭也，路由得間門，可以眺覽景物。

新豐樓

行宮之外三門上層曰新豐樓，己酉所建，而初名鎮南樓。甲寅秋，勅置南北軍營于樓之左右，仍以行閣附于樓，分作兩翼，其外面各接于軍廊。又改樓扁曰新豐，重新其丹甍。出樓下十九步，有新設石橋，卽紅箭門內御路也，亦名曰新豐橋。上樑文右議政尹蕃東奉教撰。

訪花隨柳亭

訪花隨柳亭，在甃城西北十九步龍淵之上，卽東北角樓也。光教一麓，南爲仙巖，又西迤數里，止于龍頭，向北開面。龍頭者，卽淵上斗起之巖也。城至此而爲山野之交，水滙於下，達于大川，此實東北隅要害處，而控長安接華

虹，犄角相須，以制一面者也。

遂緣厓而城，据巖而樓，扁曰訪花隨柳亭。東西三間，中置溫埃，北附一間，南退半間，而西一間又引長二間。南出退外，制如曲尺，繚以平欄，上設卍字鎖窓。溫埃四面，亦具卍字障子，埃面與鋪板平。南東北三隅，五折八角，各架縱橫短樑。葺桷參差，卷抽屋上，鸞頭交簇，而當中三節瓶桶，縹緗高聳。東北平欄外，又循檐鋪板，危壓城頭。

遂重設交欄，外施戰棚板門十六，制如屏壘。上開箭眼各一，下穿銃眼各二。內面面折枝，正間藻井，荷葉爲質。東北交欄下城面甃，穿上下銃眼十九，鋪板。下西南亦繚甃爲牆，而牆南設甃虹蜺小門。東退欄下，亦設板門，以備藏兵舫放，如砲樓之制。正門南檐砌甃爲臺，削石緣邊，臺高四尺，上鋪方甃，可容耦射揖讓之禮。臺上西北各設高欄層梯，以通亭上，臺下東南兩面亦設四層步石，其南十一步築短垣設箭門，扁額知敦寧曹允亨書，上樑文左承旨李書九奉教撰。

角巾臺

角巾臺在訪花隨柳亭之東一百三十五步，卽東北鋪樓也。地勢突然最高，俯壓龍頭，城書云：“雉上架屋謂之鋪，所以底伏雉之兵夫也。”雉出城外，架屋五樑，鋪板爲樓，七楹三間。高出女牆，三面皆用甃甃。牆內重築甃甃，高止欄底。甃甃上下，穿方眼銃穴漏穴。樓上四面設板門，外面及左右各開射眼，內面設甃梯升降。上樑文判書金載瓚奉教撰。

華陽樓

華陽樓在甬道南端，地廻而擅占形勝。樓凡六間，南設繚欄鋪板，三面設板門，北設分閣，閣外鋪方甃，上樑文奉朝賀徐有臣奉教撰。

迎華亭

出長安門北距五里許，芰荷洞之口眞木亭之下，截川築堤，名曰萬石渠。自

乙卯秋，貯水開湖，仍起一亭於南岸之上，俯鑑泓渟，平臨膏沃，登觀之勝，可擅畿南。亭凡八間，北縱二間溫埃，南橫二間鋪板。三面及溫埃之後，皆退以半間，繚以荷葉欄干。溫埃四面，皆設瑣窓障子。西設大門，南設小門，周以方垣，丙辰秋駐蹕時，命扁曰迎華亭。仍作留守交龜之所。留守趙心泰書額，判官洪元燮撰上樑文。

西將臺

西將臺在八達山頂，登臨眺望，八方皆通，石城之烽·皇橋之水，如置衽席，一城緩急·四壁虛實，若指諸掌。環山百里之內，凡有動靜，皆可坐而制變，遂築石爲臺，上建層閣。前面臺石四層，三階四級，左右分立大紅桅杆。下層閣制九間，中一間鋪板爲底，繚以荷葉平欄。後面設分閣，楣上奉揭御書扁額華城將臺四大字。四面各引長一架，四角各附一架，并鋪方甃。外楹圓柱十二，承以八面石柱。上層一間，四面設交窓，亦鋪板爲底，仍作下層盤子，卽藻井之制。其西北隅用層梯以通上層，屋上當中豎三節瓶桶，自臺上至上層宗樑，通高二十一尺。臺後築八面弩臺，武備志云：“弩臺上狹下¹²⁶濶，臺上架屋，制如戰棚，內容弩手。”今倣其制而稍異之，不架以屋，臺則八面削成孤聳，高十二尺。地臺上砌甃爲面，剡石爲隅。上加長臺，設凸形女牆於七面，穿銃眼。虛其正東一面，設九級石梯，臺上鋪方甃，當中又築方臺。上樑文左議政蔡濟恭奉教撰。

東將臺

東將臺在城之東北間。仙巖一脈，彎抱梅香之洞，仍其中脊負險。乘高通望南北，襟帶東城，眞一城之勝地，元戎之先據也。遂築臺三層，下臺前面築以雜石，仍設短牆，通高十二尺。中臺石築高七尺五寸，折其高之半，稍退四尺，又作一層，以便銃手藏放。當中左右設卧長臺，填土而平之，由下臺直上，

126 下：원문에 ‘-’로 되어 있으나, 『華城城役儀軌』에 근거하여 고쳤다.

不碍騎走. 中臺左右, 分立大紅桅杆. 由中臺而上, 有三間步石五六級, 左右附臥長臺. 夾間左右, 附雲刻大隅石. 上臺石築高五尺八寸, 上建二十間廣廈, 三包八雀. 楹內外及四面檐階, 並鋪方甃, 左右設分閣. 後楹當中設三層平欄, 高置溫埃一間, 其左右一間低一層鋪板, 各設二層平欄. 又其左右一間低一層鋪板, 繚以窓閣, 北邊檐階上加一層甃砌, 是爲射臺. 後面城體如張弓, 因其內托而築紋石臺. 臺上後接女堞, 過玲瓏牆而下, 至上臺之右中臺之左, 各立一小門, 止於下臺. 左右附行閣, 前面遮以短牆, 接於左右門廊. 牆外廣治操場. 上樑文直提學李晚秀奉教撰.

萬石渠

萬石渠在迎華亭下. 截川築堤, 貯水設閘, 以興灌溉之利. 周回一千二十二步, 上深七尺, 下深十一尺, 堤長七百二十五尺. 南起於土岸, 北止於石厓. 因其厓而鑿作水口, 以通流洩之路, 跨以木橋, 號曰如意橋, 濶與堤脊齊, 仍作輦路. 又於南頭起堰處, 設一水竇, 剡木如井欄之機, 橫豎疊植, 方穴貫通, 以導灌溉之路. 內面設閘, 橫施十四層隔板, 常加關閉. 封之以土, 自內望之, 不知有竇, 及至灌溉之時, 開板放水, 適其多寡, 其下蒙利之田幾千頃, 是之謂大有坪.

龍淵

龍淵在北城外, 形如半月, 周二百十步, 深六尺. 中有小島, 地上城角, 有訪花隨柳亭. 亭下之巖古稱龍頭, 可作釣臺. 池西設石刻螭頭, 水盛則由此吐出于華虹門之外.

解題

홍경모洪敬謨가 화성華城 및 행궁行宮의 규모와 부속 건물 등에 대한 사

실을 정리한 기문으로,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의 내용을 주로 활용하여 관련 사실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主題語

관암冠巖, 홍경모洪敬謨, 화성華城, 행궁行宮, 정조正祖, 현릉원顯隆園



임금을 모시고 화성에 다녀온 기문

扈駕華城記



홍경모洪模(1774~1851), 『관암전서冠巖全書』 14책

| 翻譯

경오년(1810, 순조 10) 가을 8월 28일 임금께서 화성에 행차하시어 장차 건릉健陵과 현릉원顯隆園을 배알拜謁하는 예를 행하러 하셨으니 예禮이고, 겸하여 원자元子の 탄생을 아뢰려 하셨으니 경사慶事이다. 이날 축시丑時 정각에 행 도승지行都承旨 홍의호洪義浩, 행 좌승지行左承旨 이해우李海愚, 행 우승지行右承旨 이호민李好敏, 좌부승지左副承旨 서유문徐有聞, 우부승지右副承旨 김상휴金相休, 동부승지 신재명申在明, 가주서假注書 조의순趙毅淳 · 홍희조洪羲祖, 기사관記事官 김양순金陽淳 · 홍경모洪敬謨, 검교직제학檢校直提學 박종경朴宗慶 · 홍석주洪奭周, 직제학直提學 이존수李存秀, 검교직각檢校直閣 이노익李魯益, 검교대교檢校待教 박기수朴綺壽가 차례대로 합문閣門 바깥에 이르러 사후伺候¹하였다.

삼엄三嚴을 울리자 임금께서 용복戎服을 갖추어 입고 가교駕輜에 올라 선 화문宣化門과 협양문協陽門을 거쳐 돈화문敦化門으로 나와 출발하시고 병

1 伺候 : 等待와 같은 말로, 윗사람의 지시나 명령 따위를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는 일이다.

방 승지兵房承旨 서유문, 가주서 홍희조洪羲祖 · 기사관 홍경모는 위내衛內²에 늘어섰다.

승례문崇禮門을 나와 울원현栗園峴에 이르렀는데 비가 많이 내리고 밤은 옷칠을 한 듯 어두우며 등불은 켜졌다 꺼졌다 하니 시위 군병에게 우비를 갖 추라 명하였다. 나업산羅業山 앞길 만천蔓川을 지나 노량진鷲梁津 백사장에 닿았다. 임금께서 가교에서 내려 말을 타고 잠시 머무셨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김이도金履度가 무릎을 꿇고 강을 건너는 절차를 아뢰니 선전관宣傳官은 의식대로 거행하였다. 여기는 주교舟橋를 지나 용양봉저정龍驤鳳翥亭³에 이르러 행궁으로 들어가고 승지와 사관史官과 시위侍衛하는 자들이 문 바깥에 모시고 섰다.

날이 밝자 임금께서 군복軍服으로 갈아입시고 말을 타고 나와 비를 무릅쓰고 출발하였는데 길이 상당히 진창이어서 말은 앞으로 잘 나아가지 못했다. 만안현萬安峴과 문성동文星洞을 거쳐 시흥현始興縣 행궁에 도착하여 주정소晝停所에서 잠깐 머물렀다가 곧바로 삼취三吹⁴를 하고 출발하여 사근평驛觀坪에 이르렀다. 병방 승지가 어가로 나아가 판부사判府事 한용구韓用龜가 길 왼편에서 맞이한다고 아뢰었다. 신시申時가 지나 화성에 도착하여, 장안문長安門과 신흥루新豐樓를 거쳐 중앙문中陽門으로 들어가 행궁에 임어臨御하셨다. 유시酉時 초에 화령전華寧殿에 이르러 전배展拜하고 안으로 돌아온 후, 승지와 사관史官과 시위侍衛하는 자들에게 물러나 병방 승지와 주서와 함께 합문 바깥에서 유숙留宿하도록 명하였다.

2 衛內 : 임금이 거동할 때 衛兵이 호위하는 수레의 전후좌우를 가리키는 말이다.
3 서울 동작구의 노량진 수원지 건너편에 있는 누정으로, 정면 6칸, 측면 2칸 규모이다. 정조가 현릉원을 방문할 때 한강에 주교를 가설하여 강을 건넜는데 이때 御駕를 잠시 머물게 하고 쉬어 갈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용양봉저’라는 이름은 이 정자에서 바라보는 경관이 북쪽으로는 산이 우뚝하고 동쪽에 서는 한강이 흘러들어 마치 용이 꿈틀대고 봉황이 훨훨 나는 듯하다고 하여 정조가 직접 지은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정조가 지은 『龍驤鳳翥亭記』, 『弘齋全書』 권14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음). 축조 시기는 1789년(정조 13) 이후로 추정된다.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되어 있다.
4 三吹 : 군대가 출발할 때 나팔을 세 번 불던 일을 가리키며, 여기에서는 행차의 출발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뜻한다.

28일에 장차 현릉원에 도착하려 할 때 군령을 이미 내려 여위⁵ 또한 용복을 입도록 하였는데, 빗줄기가 퍼부어 끝내 겔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약원⁶과 정원⁷(승정원)이 구계⁸로 군령⁹을 정지할 것을 청하자 임금께서 답하시기를,

“현릉원에 전배하는 것은 미력한 정성을 펴는 일이니, 비를 무릅쓰고 일을 행하는 것은 도리어 정성스러운 예에 흠이 된다. 마땅히 내일 전배해야겠다.”

하셨다. 이에 장남헌¹⁰으로 나오시어 수원부 유수¹¹ 김이익¹²을 불러 만나보시고는 품사각신¹³ 심상규¹⁴에게 물러가라 명하시고 승정원에 하교하시기를,

“아까 했던 말¹⁵은 비록 백관과 병사들의 노고 때문에 한 말이었으나 비의 기세가 더 축축해지고 도로가 진창이 되어 더위나 추위와는 다른 점이 있으니, 내일도 반드시 오늘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전배 일자는 오늘로 다시 정하고, 화령전에 작헌례¹⁶를 올리는 것은 또한 궁으로 돌아간 후에 마땅히 때에 따라 행하도록 하겠다.”

하시고 이에 곧바로 삼취를 하고 가교를 출발시키셨다. 여러 승지들이 빗속에서의 거동은 상하가 의용¹⁷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절선¹⁸의 방도에도 어긋난다고 주청¹⁹하였으나 임금께서 허락하지 않으셨

5 輿衛 : 임금의 수레와 그것을 호위하는 병사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6 口啓 : 직접 말로 아뢰다.
 7 壯南軒 : 화성행궁의 正殿으로, 화성유수부의 東軒이기도 하다.
 8 稟事閣臣 : 승지가 입시할 때 여쭙어 청할 일이 있으면 승지와 함께 입시하던 각신을 지칭하던 말이다.
 9 아가 했던 말 : 바로 앞 내용에서 현릉원 참배를 다음 날 하겠다는 하교를 의미한다. 원문의 ‘口啓’는 임금이 구두로 신하에게 批答을 내리는 것을 가리킨다.
 10 酌獻禮 : 왕이나 왕비였던 조상 또는 文廟에 왕이 친히 제사하던 예식을 뜻한다.
 11 節宣 : 때에 따라 몸을 잘 조리한다.

다. 좌의정¹⁰ 김재찬¹¹과 우의정¹² 김사목¹³을 비롯한 여러 각신¹⁴과 옥당¹⁵ 관원들이 외반¹⁶에서 들어와 어가 앞으로 나아가 함께 계사¹⁷를 구두로 전달¹⁸하기를,

“능원¹⁹에 참배하는 것은 묘궁²⁰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비가 여전히 그치지 않아 위는 젖고 아래는 진창이어서 오가기가 힘듭니다. 앞드려 간청하오니, 다시 군령을 내리시어 정성스러운 예식²¹에 구차함이 없게 하고 몸조를 적절히 하도록 하옵소서.”

하였다. 임금께서 또 허락하지 않으시자 대신과 여러 신하들이 다시 연달아 아뢰었다.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좌상²²이 말한 ‘성례²³’ 두 글자는 매우 절실하고 마땅히 능행²⁴ 일자는 다시 내일로 하여 거행하라.”

하시고는 가마에서 내려 다시 행궁으로 들어가셨다. 오시²⁵에 화령전에 이르러 작헌례를 행하시고 친히 신평루에 입하시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쌀을 하사하셨다. 안으로 돌아와 승지와 사관과 시위하는 자들에게 물러나 병방 승지 및 주서와 함께 합문 밖에서 유숙하라고 명하셨다.

29일에 내리던 비가 개기 시작하여 하늘도 청명해졌다. 묘시²⁶ 정각에 임금께서 용복을 갖추어 입으시고 말에 올라 중앙문과 팔달문으로 나오시어 먼저 건릉에 도착하여 친제²⁷를 행하시고, 다음으로 현릉원에 도착하여 알릉례²⁸를 행하시고 건릉 재실²⁹로 돌아오셨다. 잠시 후에 출발하여 대황교³⁰에 이르러 승지에게 전교하시기를,

12 玉堂 : 弘文館의 다른 이름이다.
 13 外班 : 중앙이 아닌 외곽의 班次이다.

“명륜당明倫堂에 들러 본부本府의 유생들을 시취試取¹⁴하라.”

하셨다. 어가가 교궁校宮¹⁵ 바깥에 도착하자 말에서 내려 명륜당으로 들어가셨는데, 유생 중에 1명도 와서 대령하는 자가 없고 먼저 재생齎生¹⁶ 몇 사람이 마당에 들어가 예를 행하였다. 제목을 건 후¹⁷에 출발하여 행궁으로 돌아오셨다. 신시申時 후에 임금께서 봉수당奉壽堂에 납시어 어전의 전배前排 및 무예정武藝廳의 무예를 관람하셨는데, 병방 승지 및 한주翰注¹⁸를 불러 참석하도록 하라고 명하셨다. 저녁이 되어 가자 사알司諫¹⁹을 통해 하교하시기를,

“우승지와 한주는 와서 연화문 밖에 대령하라.”

하시니 이호민, 홍희조, 홍경모가 문 밖으로 갔다. 임금께서 남여監典를 타고 서장대西將臺에 이르시니 이호민 등이 따라 대 아래에 이르러 임금께서 잠시 머물다가 안으로 돌아오셨다. 밤에 고시考試²⁰하여 김철원金喆遠 1명에게 급제及第를 내렸다. 승지와 사관과 시위하는 자들에게 물러나 병방 승지와 함께 합문 바깥에서 유숙하도록 명하셨다.

30일 묘시卯時 초에 임금께서 장차 궁으로 돌아가시려 하여 군복을 입고 말에 올라 장안문으로 나와 출발하시어 지지대遲遲臺에 이르러 예방승지에게 비각碑閣을 봉심奉審할 것을 명하셨다. 어가가 사근평 앞길에 도착하

14 試取 : 과거시험을 보아 인재를 뽑다.
15 校宮 : 文廟를 가리키는 말이다.
16 齎生 : 성균관 혹은 향교에 재학 중인 유생들을 가리킨다.
17 제목을 …… 후 : 향교에서 실시한 과거 시험의 科題를 걸었다는 말로, 시험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18 翰注 : 翰林과 注書, 곧 藝文館 檢閱과 承政院 注書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19 司諫 : 조선시대에 임금의 명령을 전달하는 일을 맡아 보던 정6품의 雜職이다.
20 考試 : 과거의 성적을 살펴 등수를 정하는 일을 가리킨다.

여 신전信箭²¹을 내려 원편 작문作門²²을 열게 하고 판부사判府事 한용구韓用龜를 불러 만나셨다. 시흥행궁 주정소에 도착하였다가 잠시 뒤 출발하여 노량진 주교를 건너 남관왕묘南關王廟에 들르셨다. 임금께서 갑주를 갖추어 입으시고 전작례奠酌禮를 행하시고, 승지와 사관과 시위하는 헌관獻官들은 갑주를 갖추어 입었다. 행사가 끝나고 출발하여 궁으로 돌아왔다. 문안을 드린 후에 한원翰苑²³으로 돌아와 숙직하였다.

예문관 검열藝文館檢閱 신臣 홍경모洪敬謨가 삼가 기록한다.

| 原文

庚午秋八月二十七日, 上幸華城, 將祗謁于健陵顯隆園, 禮也; 兼以告元子誕生, 慶也. 是日丑正, 行都承旨洪義浩·行左承旨李海愚·行右承旨李好敏·左副承旨徐有聞·右副承旨金相休·同副承旨申在明·假注書趙毅淳·洪義祖·記事官金陽淳·洪敬謨·檢校直提學朴宗慶·洪奭周·直提學李存秀·檢校直閣李魯益·檢校待教朴綺壽, 以次詣閣外伺候.

鼓三嚴, 上具戎服乘駕輜, 由宣化門協陽門, 出敦化門進發, 兵房承旨徐有聞·假注書洪義祖·記事官洪敬謨班於衛內.

出崇禮門至栗園峴, 雨大霑, 夜黑如漆, 燈燭明滅, 命侍衛軍兵兩具. 歷羅業山前路蔓川, 抵鷺梁沙場. 上降駕輜, 乘馬少駐. 兵曹判書金履度, 跪啓稟渡涉節次, 宣傳官舉行如式. 駕過舟橋, 詣龍驤鳳翥亭入行宮, 承史侍衛侍立於門外.

天明上改具軍服, 乘馬以出, 冒雨進發, 路頗泥濘, 馬不能前. 由萬安峴文星洞詣始興縣行宮, 晝停少頃, 直下三吹, 進發至肆觀坪, 與兵房承旨進駕

21 信箭 : 임금이 교외에 거동할 때 선전관을 시켜서 각 황에 군령을 전하는 데 쓰던 화살이다.
22 作門 : 임금이 거동할 때 거동하는 장소에 사람들의 출입을 단속하기 위해 포장을 설치하고 파수하는 군사를 사면에 배치하여 문의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23 翰苑 : 藝文館의 다른 명칭이다.

前奏, 判府事韓用龜路左祇迎之由. 申後到華城, 由長安門新豐樓入中陽門御行宮, 西初詣華寧殿展拜還內後, 命承史侍衛權退, 與兵房承旨注書留宿閣外.

二十八日將詣陵園, 軍令已下, 輿衛亦戒, 而雨勢滂沱, 終無霽意. 藥院政院口啓請寢軍令, 上答曰: “陵園展拜, 是伸微誠也, 冒雨行事, 反欠於誠禮, 當於明日展拜矣.” 仍出御壯南軒, 召見水原府留守金履翼, 稟事閣臣沈象奎纒命退, 教于政院曰: “俄者口批, 雖以爲百官軍兵之勞苦爲言, 雨勢之沾濕, 道路之泥濘, 有異於寒暑, 則明日必無異於今日. 展拜日子以今日還爲進定, 華寧殿酌獻禮, 亦於還宮後當隨時爲之.” 仍直下三吹, 出御駕輦. 諸承旨奏以雨中動駕, 非徒上下之失儀, 亦有違於節宣之方, 上不許. 左議政金載瓚·右議政金思穆諸閣臣玉堂自外班而入, 進詣輦前合辭口達曰: “陵園展謁, 異於廟宮. 顧今雨猶不止, 上霑下漚, 難以周旋. 伏乞更頒軍令, 俾誠禮無苟, 節宣適宜焉.” 上又不許, 大臣諸臣更辭連達, 上曰: “左相所奏誠禮二字, 極爲切當, 陵幸日子更以明日爲之.” 降輦還入行宮. 午詣華寧殿行酌獻禮, 親臨新豐樓, 賜饑民米. 還內, 命承史侍衛權退, 與兵房承旨注書留宿閣外.

二十九日宿雨開霽, 天宇晴朗. 卯正上具戎服, 乘馬以出中陽門八達門, 先詣健陵行親祭, 次詣顯隆園, 如²⁴謁陵禮, 還健陵齋室. 少頃進發, 至大皇橋, 教承旨曰: “歷臨明倫堂, 試取本府儒生.” 駕到校宮外下馬, 入御明倫堂, 儒生無一來待者, 先以齋生數人入場行禮. 懸題後, 進發還行宮. 申後上御奉壽堂, 觀御前前排及武藝廳武技, 命召兵房承旨及翰注入參. 日向夕, 以司謁教曰: “右承旨與翰注來待延和門外.” 好敏·義祖·敬謨趨入門外, 上御藍輿, 詣西將臺, 好敏等隨至臺下, 上少駐還內. 夜考試取, 金喆遠一人賜第. 命承史侍衛權退, 與兵房承旨留宿閣外.

三十日卯初, 上將還宮, 具軍服乘馬以出長安門, 進發至遲遲臺, 命禮房承旨奉審碑閣. 駕次肆觀坪前路下信箭, 開左列作門, 召見判府事韓用龜. 詣

24 如: 문맥상 '行'의 오자로 판단된다.

始興行宮晝停, 少頃進發, 涉鷺梁舟橋, 歷臨南關王廟. 上具甲冑行奠酌禮, 承史侍衛獻官俱以甲冑. 行事訖, 進發還宮. 問安後還直于翰苑.

藝文館檢閱臣洪敬謨恭紀.

| 解題

순조 10년(1810) 8월에 순조純祖는 화성華城에 행차하여 정조正祖의 건릉健陵과 사도세자思悼世子的 현릉원顯隆園에 참배²⁵하였는데, 이때 37세였던 홍경모는 기사관記事官으로서 이 행차에 참여하여 임금을 호종扈從하였다. 그는 같은 해에 호종 경험을 정리하여 이 글을 지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 主題語
관암冠巖, 홍경모洪敬謨, 순조純祖, 화성華城, 건릉健陵, 현릉원顯隆園

25 순조는 …… 참배하였는데: 순조의 기문 중에 「健陵展謁記」라는 작품이 있으나 이때의 일을 기록한 것은 아니고, 6년 전인 1804년의 능행을 기록한 것이다.

수원의 새로운 누대에서 잔치를 벌인 데 대한 기문

水原新樓宴集記



최항崔恒(1409~1474), 『태허정문집太虛亭文集』 권1

翻譯

수원부사水原府使 민후閔侯¹가 고을 사람들 前前 성균사에成均司藝 임수경林守謙² 군을 통해 나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신사년辛巳年에 제 아버지³께서 남양南陽에 계실 때 70세⁴가 이미 가까워지자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님을 봉양할 것을 청하여 특별히 임금의 은혜를 받아 이 고을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고을은 한 도道가 모여드는 요충지인데, 객사客舍 동쪽에 옛날에 연정蓮亭⁵이 있었으나 기울어지고 무너져 거의 다 없어져 가고 연못 역시 마르고 황폐해졌습니다. 사자使者가 더위를 만나게 되면 쉬어 갈

1 민후 : 閔孝悅(1405~1482). 자는 誠甫이고 閔大生의 3남이다. 1429년(세종 11) 문과에 급제하여 동지중추부사를 지냈으며, 세조 7년(1461)을 전후하여 수원 부사로 재직했던 사실이 『世祖實錄』을 통해 확인된다. 이 작품 또한 이 시기를 전후하여 지어졌을 것이다.
2 임수경 : 林守謙(1405~?), 자는 益之, 호는 葛谷이다. 1447년(세종 29) 문과에 급제하여 同知成均館事 등을 지내고 세조 때 左翼原從功臣에 봉해졌다. 시호는 愼翁이다.
3 제 아버지 : 閔大生(1372~1467). 蔭仕로 관직에 진출하여 僉中樞府事를 지내고 96세까지 장수하였다. 韓明滄의 장인이기도 하다.
4 70세 : 원문은 '稀齡'인데 '稀年', '古稀' 등과 같은 말이다. 唐 杜甫의 시 「曲江」에서 "술빛은 항상 가는 곳마다 있지만 / 인생에 70은 옛날부터 드물다네.(酒債尋常行處有, 人生七十古來稀)"라고 한 구절에서 유래하였다.
5 蓮亭 : 연꽃을 구경하기 위해 연못가에 지은 정자이다.

곳이 없게 되었으니, 고을 사람들이 모두가 그곳을 새롭게 고치기를 원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다행히 지금 백성들의 일에 여가가 많아 장인을 모집하고 재물을 모아 철거하고서 누대를 세웠으며, 누대의 남쪽과 북쪽으로 연못을 파 연을 심고, 중간에 섬을 만들어 아름다운 화초를 심었습니다. 해마다 연꽃이 피면 비단결 같은 구름이 밝게 비치며 맑은 향기가 풍겨 자못 무우舞雩에서 바람 쐬는 흥취⁶를 더하였습니다.

임오년(1462년, 세조 8) 여름에 건물이 처음 완성되어 우리 매제妹弟인 상당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滄 공이 장인을 뵈러 가기 위해 휴가를 청하자 임금께서 잔치를 베풀어 은혜를 내리셨으니, 지금은 경조윤京兆尹인 감사監司 이석형李石亨 공을 이 누대로 맞이하여 잔치를 행하였습니다.⁷

올해(1463년, 세조 9) 여름에는 상당부원군이 우의정으로서 다시 휴가를 청하여 가족들을 이끌고 방문하자 임금께서 다시 잔치를 하사하시고 또 중관中官⁸을 보내어 향기로운 술과 진귀한 안주를 내리셨으며 곁하여 어의御衣를 아버지께 보내셨으니, 지금 감사인 김종순金從舜 공이 또 이 누대에 와서 잔치를 여셨습니다. 저는 동생인 진위振威 군수 효흔孝欣 및 자손과 친척들 남녀 백여 명과 함께 참석하였고 원군의 수령들 및 교류하는 사대부 중 관직에서 물러나 있는 사람들이 모두 손님 자리를 채웠습니다. 서로 더불어 임금의 은혜를 칭송하고 성대한 일을 즐거워하며 즐거움을 다하고서야 끝이 났습니다.

얼마 뒤 우리 아버지께서 서울로 가셔서 사은謝恩하였는데 임금께서 중궁中宮과 함께 편전便殿에 납시어 인견하시면서 아버지께 술을 하사하시고 원손元

6 무에서 …… 흥취 : 원문은 風乎之趣인데, 『論語』 「先進」에서 공자가 제자들의 포부를 묻자 曾點이 "늦봄에 봄옷이 완성되면 어른 대여섯 명, 아이 예닐곱 명과 함께 沂水에서 목욕하고 舞雩에서 바람 쐬고 노래하며 돌아오겠습니다.(莫春者, 春服既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라고 한 데서 유래한 표현으로 보인다.
7 임오년 …… 행하였다 : 『세조실록』 8년 5월 6일 기사에 "상당부원군 한명회가 남양에 가서 장인인 중추원부사 閔大生을 觀觀하려고 하직하니, 경기 관찰사에게 유시하여 민대생의 집에 잔치를 내려 주게 하였다.(上黨府院君韓明滄親妻父中樞院副使閔大生于南陽辭, 諭京畿觀察使, 賜宴于大生家)"라는 기록이 있다.
8 中官 : 內侍의 다른 이름이다.

孫⁹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음 날 아버님을 중추부사中樞府事에 제수除授하시고 자헌대부資憲大夫의 품계를 더해 주셨으니, 성은을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¹⁰ 우리 누대가 완성되어 이로 인해 임금께서 잔치를 열어 주시어 낙성하였으니 하늘이 하신 것이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며, 누대의 다행이자 저의 다행이고 또한 우리 가족의 다행입니다. 어찌 다행스러운 일이 이렇게 지극한 데까지 이른 것입니까!

우리 아버님은 그대의 아버님¹¹과 동년생이고 그대는 나와 가까우니¹², 어찌 전말을 기록하여 나의 누대를 화려하게 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임 군 역시 나와 동년배이니 요청이 역시 은근합니다.

민후가 성은에 감격하여 기쁨을 기록하려 함이 이와 같으니, 나는 도를 즐거워하는 자로서 감히 거칠고 졸렬하다고 사양하지 못하였다.

내가 생각하기에, 효는 모든 행동의 근원이고 장수는 오복五福¹³의 으뜸이다. 그러나 장수는 참으로 하늘에 달려 있어 사람이 기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효는 비록 나에게 달려 있지만 더욱이 세상 사람들이 잘하기 어려운 것이다. 무릇 자식 된 자로서 누가 아버지의 장수를 바라고 자신의 효도와 봉양을 다하기를 원하지 않겠는가만 그 소원을 이루는 자는 드물

9 元孫:睿宗의 맏아들인 仁城大君으로, 1461년(세조 7)에 태어났으나 1463년 10월에 3살의 나이로 요절하였다.
 10 얼마…… 있겠습니까:『세조실록』9년 4월 22일 기사에 “한성부윤으로 奉朝請인 閔大生이 남양부에 살고 있으므로, 임금이 일찍이 경기 관찰사로 하여금 慰宴하게 하였는데, 민대생이 궁궐에 와서 사은하였다. 임금이 중궁과 더불어 思政殿에 나아가 引見하고, 술을 내려 주며, 內女로 하여금 元孫을 안고 나와 민대생에게 보이게 하였다. 민대생은 바로 원손의 外舅 한명회의 장인이다. (漢城府尹奉朝請 閔大生居南陽府, 上嘗令京畿觀察使慰宴, 大生詣闕謝恩, 上與中宮御思政殿引見, 賜酒, 令內女抱元孫出視, 大生, 即元孫外舅韓明滄之妻父也)”라는 기록이 있다.
 11 그대의 아버님: 최항의 아버지인 崔士柔(1372~1458)를 가리킨다. 자는 徽之로, 1402년(태종 2)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 사예를 지내고 通政大夫에 올랐다.
 12 그대는…… 가까우니: 원문은 ‘菰(菰는 보통 瓜로 씹)藹’인데 덩굴이 뻗어 서로 얽힌 오이와 쑥이라는 의미이며 주로 姻戚 관계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여기에서는 서로 가까운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13 五福: 유학에서 이야기하는 다섯 가지 복으로, 첫째가 장수, 둘째는 부유함, 셋째는 康寧함, 넷째는 덕을 좋아함, 다섯째는 천수를 다 누리라는 것이다. 『書經』, 『洪範』, “五福: 一曰壽, 二曰富, 三曰康寧, 四曰攸好德, 五曰考終命.”

다. 혹 인수印綬를 두르지 못하여¹⁴ 가정을 편안히 하지 못한다면 아버지께 근심을 끼쳐 드리게 되는 것일 따름이니 효를 이룰 수 있겠는가. 혹 몸과 마음을 다하느라¹⁵ 바빠 아버이 슬하를 멀리 떠나 있게 된다면 언부를 묻는 일을 또한 계속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니 효를 어찌 다할 수 있겠는가. 하물며 세월은 이미 손살같이 흘러가고 나무에는 바람이 그치지 않으니 비록 효도하고자 하나 누가 효도할 수 있겠는가. 옛사람이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¹⁶을 기뻐하고 멀리 가는 것¹⁷을 한스러워 하여 구름을 바라보는 시름¹⁸이 마음에 맺히고 날을 아끼는 정성을 스스로 그만두지 못했던¹⁹것은 모두 이 때문이었다.

지금 민후는 명문가²⁰의 장손으로 문단²¹의 우두머리가 되어, 일찍이 과거에서 장원급제하고 고귀한 벼슬자리를 거쳐 침지중추僉知中樞에 발탁되었으니, 부모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윗사람의 지우知遇를 얻은 것이 지극하다 하겠다. 그럼에도 오히려 노래자老萊子처럼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릴²²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생각하여 돌아가는 옷깃을 장차 흘날리려 함에, 효성

14 印綬를…… 못하여: 원문은 ‘朝組未紆’인데 ‘朝組’는 조정에 선 사람, 즉 관리가 차는 印綬를 의미하므로, 인수를 차지 못한다는 것은 관리가 되지 못함을 뜻한다.
 15 몸과…… 다하느라: 원문은 ‘盡瘁’인데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친다는 의미의 ‘鞠躬盡瘁’를 줄인 표현이다. 『後出師表』에 출전이 있다.
 16 벼슬길에…… 것: 원문은 ‘奉檄’으로,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벼슬하는 것을 의미한다. 漢나라 때 毛義가 빈곤하고 어머니가 연로하였는데, 수령으로 삼는다는 檄書를 받어서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한 ‘奉檄色喜’(또는 ‘毛子檄’)라는 말이 있다. (『後漢書』, 『劉平王望等傳序』 참조)
 17 멀리…… 것: 子路負米의 줄임말로, 공자의 제자인 子路가 가난하여 매일 쌀을 등짐으로 저서 백 리 밖까지 운반하여 그 운임을 받아 양친을 봉양했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孔子家語』, 『致思』편 참조)
 18 구름을…… 시름: 구름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며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함을 의미한다.
 19 날을…… 못했던: 『論語』, 『里仁』편 “부모님의 연세는 알지 않을 수 없으니,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두렵다. (父母之年不可不知也, 一則喜, 一則懼)”에 대한 朱熹의 주석에서 “항상 부모의 나이를 알고 있으면 이미 그 장수하신 것이 기쁘고, 또 그 노쇠하신 것이 두려우므로 날을 아끼는 정성을 절로 그만 둘 수 없게 되는 것이다. (常知父母之年, 則既喜其壽, 又懼其衰, 而於愛日之誠, 自有不能已者)”라고 하였다. ‘날을 아끼는 정성’이란 부모님을 모시는 하루하루를 아깝게 생각하여 정성을 다한다는 의미이다.
 20 명문가: 원문은 ‘嚮聯’인데 높은 벼슬을 한 사람이 계속해서 배출되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명문가’로 번역하였다.
 21 문단: 원문은 ‘翰苑’으로 ‘文翰(글을 잘 짓는 사람)이 모이는 곳’을 의미한다.
 22 老萊子처럼…… 드릴: 원문은 ‘萊娛’인데 이는 ‘老萊娛親’의 줄임말로, 춘추시대 楚나라의 노래자가 나이 70에도 부모님을 기쁘게 헤드리기 위해 색동옷을 입고 어리광을 부렸던 데서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는 것을 비유하는 뜻으로 사용된다. (『藝文類聚』 권20 참조)

으로 다스림²³이 바야흐로 융성하여 100리 땅에 임명되어²⁴ 부자²⁵가 서로 바라보며, 남는 시간에 잇달아 부친을 계승하였으니,²⁶ 나랏일 하느라 부모님 돌보지 못하는²⁷ 탄식이 없고 밖에서 충성하고 안에서 효도하는²⁸ 아름다움이 있구나. 구순九旬의 학 같이 흰 머리털로 아주 건강히 당堂에 계시며, 한 쌍의 부임하는 수레²⁹ 연꽃처럼 빛나니, 멀건 가깝건 간에 그 즐거움 어떠한가.

또한 상당부원군이 사위³⁰가 되어 대려帶礪의 공훈³¹을 가지고서 조정의 무거운 명망을 받고 있으니, 매번 알현을 청할 때마다 은총을 특별히 내려 주셨다. 하액霞液³²과 진귀한 안주로 비와 이슬 같은 큰 은혜 쏟아지고, 선선들의 뛰어난 음악으로 조정에서 성대한 연회 베풀어 주셨다. 궁궐에서 보낸 사신 별처럼 임하고 아름다운 손님들 안개처럼 모여드니, 붉은 얼굴과 흰 머리털로 즐겁게 자리에 와, 형은 붙들고 동생은 부축하며, 술잔을 순서대로 받는다. 오서금대烏犀金帶³³와 은인銀印, 인수印綬³⁴ 번쩍이고 사

23 효성으로 다스림 : 원문은 '孝治'로, 『孝經』, 「孝治」편에서 "옛날 밝은 임금들은 효성으로 천하를 다스려 감히 작은 나라 신하를 버리지 않았거든 하물며 公侯와 伯, 子男에 있어서랴 (昔者, 明王之以孝治天下也, 不敢遺小國之臣, 而況於公侯伯子男乎!)"라고 하였다.

24 임명되어 : 원문은 '分符'로, 符節을 나누어 받음, 곧 지방 수령에 임명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민효열이 수원 부사에 임명된 것을 가리킨다.

25 부자 : 원문은 '喬梓'인데, 『尚書大傳』권4에서 周나라 때의 현자인 商子가 南山 남쪽에 우뚝하게 서 있는 喬라는 나무는 아버지의 도를 상징하고, 북쪽에 낮게 고개를 숙인 梓라는 나무는 자식의 도를 상징한다고 한 데서 유래한다.

26 부친을 계승하였으니 : 원문은 '趨庭'으로, 『論語』, 「季氏」편에서 "일찍이 홀로 서 계실 때 아들 鯉가 종걸음으로 마당을 지나고 있었다. 말씀하시기를 '시를 배웠느냐?' 하여 대답하기를 '아직입니다.' 하니 '시를 배우지 않으면 말할 수 없다.' 하시자 리가 물러나 시를 배웠다. (嘗獨立, 鯉趨而過庭. 曰: '學詩乎?' 對曰: '未也.' '不學詩, 無以言.' '鯉退而學詩')"라고 한 데서 유래한다.

27 나랏일 …… 못하는 : 이 부분은 『詩經』, 「小雅·四牡」편에서 "나랏일 소홀히 할 수 없어 / 어머니 봉양할 겨를도 없네. (王事靡盬, 不遑將母)"라고 한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28 밖에서 …… 효도하는 : 원문은 '出孝入忠'인데 문맥상 '出忠入孝'의 의미로 보아야 한다.

29 부임하는 수레 : 원문은 '扈衛'인데 지방 수령이 행차할 때 쓰는 검은 색의 수레 덮개를 의미한다.

30 사위 : 원문은 '壻腹'으로, 晉나라 때 郗鑒이 王導의 집안에서 사윗감을 고르려 하였는데, 王羲之만은 동쪽 평상에서 배를 드러내고[袒腹] 태연히 누워 있었기에 그를 사위로 삼았다는 고사가 있다. (『世說新語』, 「雅量」편 참조)

31 대려의 공훈 : '帶礪'는 대대로 爵祿을 누리는 공신을 지칭하는 말이다. (『史記』, 「高祖功臣年表」 참조)

32 霞液 : 도교의 도사들이 마시는 새벽이슬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는 임금이 하사하는 술을 의미한다.

33 烏犀金帶 : 검은 물소뿔과 금 장식을 한 허리띠이다.

34 銀印, 印綬 : 은인은 은으로 만든 도장이고 인수는 관리가 차는 인끈으로, 높은 관직을 지닌 사람을 상징한다.

방 자리 온화하고 즐거우니, 서로 더불어 존귀한 분 앞에서 크게 취하여 그 매우 조화로운 기상은 묘사할 수 없도다. 연못과 누대는 빛을 발하고 산천은 다채로운 경치를 보여주니, 천시간에 다시 어떤 즐거움이 있어 이것을 대신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하겠다.

아, 인간에게 반드시 생기는 어려운 경사가 어떻게 해서 한 집안에 모였는가. 부모님은 누리기 어려운 장수를 누리시고 자식은 다하기 어려운 효성을 다하였으며, 구중궁궐九重宮闕의 총애와 은총을 입고 사방에서 보고 감동하는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으니, 고개를 돌려 손가락을 꼽아 보아도 오직 민후만이 온전히 아름다우니, 어찌 우연이겠는가.

이에 이르러 말한다면 민후의 아름다운 목소리는 이 누대에 기대어 더욱 높이 퍼지고, 누대의 뛰어난 경관은 우리 민후에 의탁하여 더욱 드러날 것이니, 이것이 어찌 사물과 운수가 부합하여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민후는 충성忠誠으로써 윗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또한 기쁨으로써 백성을 부려 백성들이 기쁜 마음이 없을 수 없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참으로 효로 말미암아 아버이를 기쁘게 하여 그것을 임금 섬기는 데까지 옮겨 가게 하고 미루어 백성을 사랑한 것이 그러하였으니, 효가 인仁을 실천하는 근본이라는 말³⁵을 여기에서 또한 볼 수 있으며, 민후의 명성과 실질이 서로 부합하였음을 또한 이로 인하여 대략 볼 수 있다. 누대에는 비록 완성과 무너짐이 있으나 이름은 마땅히 썩지 않고 영원히 남을 것이니, 후대 사람들이 마땅히 계승할 방법을 생각해야 하리라.

누대여 누대여, 태을太乙의 배³⁶인가, 염계濂溪³⁷의 물가인가. 어떻게 하면 한 번에 백 척尺을 올라 벽통배碧筒杯³⁸의 향기 맡고 붉은 구름의 시에

35 효가 …… 말 : 『論語』, 「學而」편에서 "孝와 悌는 仁을 행하는 근본인가(孝弟也者, 其爲仁之本與)"라고 하였다.

36 태乙의 배 : 송나라 화가 李公麟이 그린 「太乙真人蓮葉圖」에 송나라 韓駒가 시를 썼는데 그 시에 "태을 진인 연잎의 배를 탔는데(太乙真人蓮葉舟)"라는 구절이 있다.

37 濂溪 : 北宋 때 유학자인 周敦頤가 살던 곳으로, 주돈이는 이곳의 명칭을 따 자신의 호로 삼았다.

38 碧筒杯 : 연잎으로 만든 술잔이다.

화답하여, 나의 오늘 날아오르듯 앉아 생각하는 숨은 흥취를 즐길 것인가!

| 原文

水原府使閔侯, 个邑人前成均司藝林君守謙謂余書云: “歲辛巳, 吾扁父在南陽, 稀齡已迫, 乞歸養, 特荷上恩守茲府. 府爲一道走集之衝, 客舍東, 舊有蓮亭, 傾圮殆盡, 池亦湮蕪. 使客之遇暑者, 無所於憩, 邑人咸願新之而未遑者久矣. 幸今民事多閒, 乃募工鳩材, 撤而樓焉, 池于樓之南與北而種蓮, 爲中島植嘉卉. 每荷花開則雲錦照耀, 清香旁午, 頗增風乎之趣.

壬午夏, 棟宇初成, 吾私上黨府院君韓公明澮請告謁舅, 上賜宴以寵之, 監司今京兆尹李公石亨迎致斯樓而設焉.

今歲之夏, 上黨以右議政, 又請告挈家來謁, 上又賜燕, 復遣中官, 賜香醞珍饌, 兼以御衣遺翁, 今監司金公從舜, 又就斯樓開筵. 吾與弟振威守孝欣泊子孫親屬男女百餘人俱, 遠近守宰及交遊士大夫之休退者, 咸在賓席, 相與翊上恩而樂盛事, 極歡乃罷.

旣而吾翁詣京謝恩, 上與中官, 御便殿引見, 命翁進爵, 且見元孫焉. 翌日, 除翁中樞府使, 階加資憲, 上恩可勝言耶! 吾樓成而因設賜宴以落之, 天也, 非人也, 樓之幸耶, 吾之幸耶, 抑吾親之幸耶, 何幸之至此極耶!

吾翁與若翁同年生, 若與吾菘葛也, 盍記顛末, 以侈吾樓? 況林亦吾同年也, 請之亦勤.”

侯之感上恩, 欲以志喜者如是, 予所樂道也, 敢以燕拙辭.

予惟孝爲百行之源, 壽乃五福之先也. 然壽固在天, 非人之所可必; 孝雖在我, 尤世之所難能也. 凡爲人子, 孰不欲願親之壽考而盡己之孝養乎? 得遂其願者尠焉. 其或朝組未紆, 家甍莫保, 則適以貽親憂耳, 孝其可得遂乎? 其或盡瘁鞅掌, 遠離親膝, 則音問且不嗣矣, 孝豈可得盡也! 況隙駒已馳, 樹風不止則雖欲孝, 誰爲孝乎! 古人所以喜奉檄, 恨負米, 結望雲之愁, 竭愛日之誠而不能自己者, 皆以此也.

今侯以蟬聯之胤, 爲翰苑之秀, 早捷魁科, 歷敷華聯, 驟擢僉知中樞, 所以慰親心而獲上知者至矣. 猶念萊娛日短, 歸袂將拂, 孝治方隆, 宸眷旋加, 分符百里, 喬梓相望, 割鷄餘間, 聯翩趨庭, 無靡盬不遑之嘆, 有出孝入忠之美. 九旬鶴髮, 康強在堂, 一雙白蓋, 輝映蓮萼, 莫遠具邇, 其樂如何!

又況上黨爲其坦腹, 帶礪元勳, 岩廊重望, 每請展謁, 特紆宸眷. 霞液珍羞, 霈雨露之洪私; 仙侶勝樂, 敞雲天之盛宴. 中使星臨, 嘉賓霧擁, 紅顏白髮, 怡然中處, 昆扶季掖, 舉酬逸逸, 犀金銀艾照映, 四座熙熙融融, 相與酌盃乎尊前, 其太和氣象, 莫得而描. 池臺爲之生輝, 山川爲之動色, 不知天壤間復有何樂可以代此也.

吁, 人間難必之慶, 胡然萃乎一家? 親而享難享之壽, 子而盡難盡之孝, 承九重之寵恩, 動四方之觀感, 回頭屈指, 獨閔侯專美, 豈偶然哉!

至是而言則侯之英聲, 憑斯樓而益高, 樓之勝槩, 托吾侯而益顯, 此豈物與數合而然者歟! 侯能忠以悅乎上, 又能悅以使民, 民無不懽心者. 良由孝以悅親, 而移諸事君, 推諸子民者然也, 孝是爲仁之本, 此亦可見, 而侯之名實相孚, 亦可因此而槩見也. 樓雖有成毀, 而名則當垂於不朽, 後之來者, 宜思所以繼之哉!

樓乎樓乎, 太乙之舟乎, 濂溪之畔乎? 安得一登百尺, 聞碧筒之香, 和紅雲之詠, 以賞吾今日飛翰坐想之逸興乎!

| 解題

민대생閔大生은 수원 객사 동쪽의 연정蓮亭을 새로이 증축하였는데 그의 아들 민효열閔孝悅이 최항崔恒에게 서문을 부탁하였다. 이에 최항은 민대생이 세조世祖에게 받은 특별한 은전과 아들 민효열의 효성을 세밀하게 묘사하면서 연정 증축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 主題語

최항崔恒, 태허정太虛亭, 수원水原, 연정蓮亭, 신루新樓, 민대생閔大生,
민효열閔孝悅, 효孝

수원 만의사에서 임금께 축원을 올리는 화엄법회를 연 일에 대한 기문

水原萬義寺祝上華嚴法華會衆目記



권근權近(1352~1409), 『양촌선생문집陽村先生文集』 권12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 翻譯

수원水原의 동쪽 수십 리에 만의사萬義寺라는 절이 있는데 비보禪補를 하기 위한 옛 사찰이다. 무너지고 문을 닫은 지 이미 오래되어 잡목으로 숲이 우거져 있었다. 황경皇慶² 연간에 천태종天台宗의 진구사珍丘寺 주지인 대선사大禪師 혼기混其³가 와서 남은 터를 보고는 중건하여 새롭게 하였고, 삼장三藏 선공琯公⁴이 이어받아 주관하면서 임금께 아뢰어 임금의 분부로 묘연결사妙蓮結社⁵에 소속되게 하였고 문인들이 대대로 뒤를 이었다. 세월이 오래 지나 실로 천태종의 법을 일으키는 사찰이 되어, 세금을 거두는 발이 있게 되고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게 되자 이익을 좋아하는 무리들이 또한 절을 차지하고자 하였다.

- 1 萬義寺 : 통일신라 때 창건된 龍珠寺의 末寺로, 지금의 경기도 화성시 중동 140번지 舞鳳山에 있다.
- 2 皇慶 : 元仁宗의 첫 번째 연호(1312~1313)이다.
- 3 混其 : 충선왕 연간의 승려이다.
- 4 三藏 琯公 : 충렬왕-충숙왕이다 연간에 활동한 고려 후기의 승려로, 법명은 義旋이다. 호는 順菴, 본관은 평양으로 平壤君 趙仁規의 4남이다. 瑩原寺, 萬義寺 등의 주지를 역임했고 원나라를 오가며 불교 발전에 기여하였다.
- 5 妙蓮結社 : 고려 忠烈王이 1284년(충렬왕 10)에 자신의 願刹로 창건한 사찰인 妙蓮寺에서 열렸던 信行結社이다. 묘연사는 지금의 황해북도 개성시에 있었다.

근래에는 천태종과 조계종에서 서로 주지를 임명하다가 그 후에 조계종에서 빼앗아 소유하려고 하여 법사法司⁶에 송사하였다. 당시의 논의로는

사찰에 밭과 사람이 있는 것은 삼보三寶⁷에 공양供養하기 위한 것이지 주지의 이익 때문이 아니다. 그런데 두 종파가 다투는 것은 다만 이것이 있기 때문이니, 이는 없는 것만 못하다.

하여, 이에 노비 약간 명은 수원부水原府에 맡겨 소속시키고, 본 사찰은 다시 천태종에 귀속시켰다.

지금 임금께서는 왕통王統을 계승하여 중흥하고 각종 정무政務⁸를 새롭게 하시며, 곧 조종祖宗의 법도대로 따라 삼보를 존중하고 중시하여 임금의 교화를 돕게 하였다. 이때 천태종 용암사龍巖寺의 주지인 대신사大禪師 중대광重大匡 봉복군奉福君 신조神照가 일찍이 현릉玄陵⁹의 총애를 받았는데 여러 신하들을 버리는 데 미쳐서는¹⁰ 그리위하고 명복 빌기를 오렐수록 더욱 힘썼다.

홍무洪武 무진년(1388, 창왕 14)에 전쟁이 일어나 국가의 안위가 숨 한번 내쉬는 사이에 변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조공照公은 완산完山 이 시중李侍中¹¹의 휘하에 있으면서 능히 장상將相들과 큰 계책을 정하여 의병을 일으켜 군사를 돌리게 하고 종묘와 사직을 안정시켜 오늘날 중흥의 왕업을 열게 하였다. 임금께서 마음으로 가상히 여겨 경오년庚午年(1390) 8월에 특

별히 공패功牌¹²를 하사하시고 만의사 및 그 노비들을 영원히 그의 법손法孫¹³에게 전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절에 밭 70결結¹⁴을 주어 부처님께 공양하고 승려들이 밥 먹는 용도에 보태도록 하였다.

조공은 이에 임금의 은혜에 더욱 감격하여 축원을 통해 만분의 일이나 마 보답할 생각을 하고, 이에 바랑에 쌓아 두었던 백은白銀 한 덩어리를 팔아 신미년辛未年(1391) 정월에 특별히 7일 간의 소재도량消災道場¹⁵을 설치하였다. 임신년壬申年(1392) 2월에는 또 법회法會를 베풀었는데, 의복衣服과 좌구座具, 띠, 버선 등을 모두 갖추고 좋은 제수祭需와 특별한 음식 등을 풍부하고 정결하게 구비하였으며, 임금께 아뢰어 압불소押佛疏¹⁶를 받고 대천태종사大天台宗師인 국일도 대선사國一都大禪師 현견玄見 등 운석韻釋¹⁷ 330명을 초대하니, 모두 당시에 천태종의 덕이 높은 승려들이었다. 외호外護¹⁸는 전 홍제사洪濟寺 주지 대신사大禪師 명일명一 등 190명이었고 제집사諸執事는 감찰원선사監察院禪師 각항覺恒 등 190명이었다. 처음에는 화엄삼매참의華嚴三昧懺儀¹⁹를 열었고 『묘법연화경』을 강론하며 환사環師가 풀이하여 삼칠일三七日이 되어서야 끝났으니, 그가 임금의 장수와 나라의 복과 백성의 구제와 만물을 이롭게 함을 축원한 것이 넓다고 할 만하다.

우리 아버지 영가군永嘉君²⁰께서 친히 임금의 명을 받아 봉향奉香하고 오게 되었으므로, 내가 안석과 지팡이²¹를 가지고 따라가 성대한 행사를 참

6 法司：司法과 刑獄 등을 관장하는 관서이다.

7 三寶：불교에서 佛, 法, 僧을 삼보라 하며, 각각 부처와 관계된 물건(불상 등), 불법과 관계된 물건(경전 등), 승려와 관계된 물건(승방 등)을 가리킨다.

8 각종 정무：원문은 '庶政'으로, 『주역』 賁卦(䷖) 象傳에 "산의 아래에 불이 있는 것이 비레이다. 군자는 이로써 각종 정무를 밝히고 감히 송사를 관결하지 않는다.(山下有火, 賁. 君子以明庶政, 無敢折獄)"라고 한 데서 연원한 표현이다.

9 玄陵：고려 恭愍王의 陵號로, 여기서는 공민왕을 지칭한다.

10 여러…… 미쳐서는：공민왕이 세상을 떠난 사실을 가리킨다.

11 李侍中：조선 太祖 李成桂를 가리킨다. 完山은 이성계의 본관인 全州를 지칭한다.

12 功牌：功臣의 지위를 인정하는 牌로, 功臣牌라고도 한다.

13 法孫：한 스승에게서 佛法을 이어받아 대를 이은 제자들이다.

14 結：논밭 넓이의 단위로, 세금을 계산할 때 썼다. 1결은 1동의 열 배로, 그 넓이는 시대에 따라 달랐다.

15 消災道場：재앙을 물리치기 위하여 베푸는 도량이다.

16 押佛疏：불교를 가까이 한다는 내용을 담은 上疏文. 押은 '親狎'의 '狎'과 통한다.

17 韻釋：운치가 있는 승려 또는 詩僧(시를 잘 짓는 승려)을 가리키는 말이다.

18 外護：원래 승려 이외의 사람 중 佛法을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여기에서는 법회를 할 때 여기에 드는 일체의 비용과 의복·음식 등 물질적인 문제를 담당 주선하는 일을 맡은 사람을 가리킨다.

19 懺儀：참회하는 의식이다.

20 永嘉君：여말선초의 문인으로 權近의 부친이었던 權僖(1319~1405)를 가리킨다. 그는 공민왕 때 紅巾賊을 물리치는 데 공을 세운 후 門下贊成事에 이르러 영가군에 봉해졌다.

21 안석과 지팡이：원문은 '几杖'으로 노인이 사용하는 물건들이다.

관하였다. 하루는 조공^{照公}이 일의 시말을 기록하여 후세에 보이기를 부탁하였다. 내가 생각하건대 석씨^{釋氏}는 인륜을 제거하고 임금과 아버지를 버렸으니 이 세상에 붙여 살면서도 이 세상을 저버리는 자들로서, 우리 유가^{儒家}에서 꾸짖는 바이다. 사대부^{士大夫}로 이 세상에 뜻을 가진 사람들은 공업^{功業}을 수립하여 임금과 아버지에게 보답하려 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나, 할 수 없는 사람이 많은 것이 사람들의 공통된 근심이다. 지금 조공은 비록 불가에 몸담고 있지만 오히려 임금과 재상들에게 지우^{知遇}를 입어 국가에 공을 수립함이 이치럼 탁월하고, 전심으로 힘을 다하여 좋은 인연을 맺음으로써 반드시 임금과 아버지께 보답하려 함이 또한 이치럼 간절하니, 이는 실로 이 세상을 저버리지 않고 사대부들이 미칠 수 없는 것이다.

돌아보건대 나는 재주 없어 일찍이 방축^{放逐}당하였다가 특별히 어진 임금과 현명한 정승의 살리기 좋아하는 은덕을 입어 성명^{性命}²²을 보존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신 은혜가 하늘처럼 끝이 없어 비록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지만 힘이 미치지 못하였다. 이번 이 법회^{法會}에서 부처님을 우러러 대하여 대중들과 한소리로 임금을 위해 만수무강을 축원함으로써 조금이나마 미천한 신하의 구구한 뜻과 소원을 펴게 되었으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바이다. 그러므로 사양하지 않고 기록을 짓는다. 법회 때의 여러 조목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나열하였다.

홍무^{洪武} 25년 임신년(1392, 태조 1) 중춘^{仲春} 하순에 쓴다.

| 原文

水原之東數十里，有寺曰萬義，裨補古刹也。壞廢既久，鞠爲榛莽。皇慶間，天台珍丘寺住持大禪師混其來觀遺址，重營以新，三藏璇公繼而主之，申啓于上，判屬妙蓮，門人相傳。歲紀已遠，實爲天台作法之社，收租有田，執役

22 性命：생명이라는 의미로, 여기에서는 목숨을 뜻한다.

有軀，嗜利之徒亦欲得焉。

比者天台·曹溪互差住持，厥後曹溪仍欲奪而有之，訟于法司，時議以爲：‘寺有田口，所以供三寶，非以爲主僧之利。兩宗交爭，徒以有此也，是不如無。’乃以臧獲若干口委屬水原府，而以本寺還屬天台。

今主上繼統中興，更新庶政，式遵祖宗之法，崇重三寶，俾贊王化。時有天台龍岳寺住持大禪師重大匡奉福君神照，嘗被玄陵寵昵之恩，及棄群臣，思慕追福，久而益力。

洪武戊辰，師旅方興，國家安危，變在呼吸，時照公在完山李侍中麾下，能與將相共定大策，舉義回軍，以安宗社，以開今日中興之業。上心是嘉，越庚午秋八月，特賜功牌，將萬義寺及其奴婢，使永傳于法孫，又給寺田七十結，以贍供佛飯僧之用。

照公於是益感上賜，思所祝釐以報萬一，乃貸囊鉢所貯白銀一錠，辛未正月，特設七日消災道場。壬申二月，又張法會，衣服座具帶襪咸備，嘉羞異膳供具豐潔，啓聞于上，受押佛跏，邀請大天台宗師國一都大禪師玄見等韻釋三百三十指，皆一時天台碩德也。外護前洪濟寺住持大禪師明一等一百九十指，諸執事監院禪師覺恒等一百九十指。初展華嚴三昧懺儀經，講妙法蓮經，環師踞解，歷三七日而訖，其所以壽君福國濟生利物之願可謂博矣。

吾家尊永嘉君親承上命，奉香而來，予陪几杖，參覩盛事，一日，照公囑記端末以示于後。

予惟釋氏，去人倫棄君親，寓斯世而負斯世者，吾儒之所訾也。士大夫有志于斯世者，莫不欲樹功業而報君親，然有不得者衆，人之通患也。今照公雖居釋苑，尚能遇知於君相，樹功於國家，如此其卓卓也，專心竭力，以結勝因，必報德於君父，又如此其懇懇也，是誠不負斯世而士大夫有所不逮者也。顧予不才，嘗遭放竄，特蒙聖君賢相好生之德，獲保性命，以至今日。再造之恩，昊天罔極，雖欲小報，力莫能逮。今於斯會，仰對佛聖，得與大眾同聲祝上，以祈萬年無疆之壽，小伸下臣區區之志願，誠所幸也。故不辭而爲之記。在會衆目，詳列于後。

洪武二十五年蒼龍壬申仲春下澣記.

| 解題

양촌陽村 권근權近이 1392년(태조 1)에 지은 것으로, 수원水原 만의사萬義寺에서 신조神照가 임금에게 축원을 올리기를 위한 화엄법회華嚴法會를 개최하게 된 연원을 설명한 글이다.

| 主題語

양촌陽村, 권근權近, 만의사萬義寺, 혼기混其, 의선義旋, 신조神照, 화엄법회華嚴法會

진남루에 대한 기문

鎮南樓記



이정구李廷龜(1564~1635), 『월사선생집月沙先生集』 권37

| 翻譯

경기도의 고을 37개 중에서 가장 큰 곳이 수원水原이다. 가장 크기 때문에 두터운 명망을 지닌 사람을 뽑아 쓰며, 3도호都護, 2군郡, 7현縣¹을 예하 隸下에 두어 한강 이남의 큰 진鎮이 된다. 고을은 평원의 넓은 들판 가운데 있어 험준한 산과 골짜기가 없고 부치府治² 동쪽 10리에 산이 우뚝하게 길가에 삐죽 솟아 있으니, 세속에서 독성산秃城山이라 한다. 산에는 나무가 없어 바라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듯하여 이 때문에 산의 이름이 생긴 것이다.³ 하지만 사람들은 범범하게 보고 특이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임진년(1592, 선조 25)에 일본이 크게 군대를 일으켜 (우리나라를) 유린하니 나라 안의 견고한 성과 큰 보루들이 연이어 함락되었다. 도원수都元帥 권율權慄이 남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싸우다가 이곳에 들어와 의거하여 서울의 적에게 항전하였는데, 적이 병사를 풀어서 몇 차례나 위협하였

1 3도호……7현: 3도호부란 富平·南陽·仁川을 가리키고 2군은 安山·安城, 7현은 振威·陽川·龍仁·衿川·陽城·通津·金浦를 가리킨다.『新增東國輿地勝覽』, 『水原都護府』 참조

2 府治: 고을의 관아가 있는 중심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3 산에는…… 것이다: 쉼은 대머리 또는 민둥산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으나 끝내 감히 꺾박하지 못하였으니, 이에 사람들은 이 성이 좋은 형세를 얻어 나라의 요충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듬해 적이 물러나면서 주둔하고 있었는데 조정에서는 이곳의 산성을 고쳐 세워 적을 막고 지키기를 도모할 논의를 하였다. 임금께서 먼저 독성 禿城에 대해 물으셨고 서애西厓 유 상국柳相國⁴과 서경西峯 유 관찰柳觀察⁵이 실로 찬성하였다. 드디어 방어사防禦使 변후邊侯⁶에게 명하여 이 성을 살피게 하고, 또 면포綿布 수백 필을 하사하여 편의를 보아 주었다. 변후가 사수射手로 쓸 군민軍民을 모집하여 장정 500명을 얻고서 임금의 명으로 상을 내리고 진졸陣卒로 삼아 그 일을 보고하고 이 성은 지킬 만함을 극력 이야기하였다. 임금께서 그렇다 생각하시고 드디어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일을 도모하도록 하셨으니, 비록 크게 일을 베풀지는 않았지만 성이 만들어진 것은 대체로 이때 시작되었던 것이다.

정유년(1597, 선조30) 난리 때 적이 경계까지 쳐들어왔으나, 고을 백성들이 들어가 지키면서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후로 지키는 자가 혹 적임자가 아니어서 군대의 마음과 성의 대비가 날로 해이해지고 무너져 갔다. 고故 상국相國 해원 윤공海原尹公⁷은 돌아가실 때 표문表文을 남겨 독성과 수원부를 수리하고 수신帥臣⁸을 보내어 방어사防禦使로 삼아 겸임토록 하기를 영변寧邊과 경성鏡城의 제도처럼 할 것을 요청하였다.⁹ 이

4 서애 유 상국: 당시 재상이었던 서애 柳成龍(1542~1607)을 가리킨다.
5 서경 유 관찰: 당시 京城安撫使였던 서경 柳根(1549~1627)을 가리킨다.
6 방어사 변후: 임진왜란 당시 京畿防禦使였던 변후 邊應星(1552~1616)을 가리킨다.
7 해원 윤공: 조선 중기의 문신인 윤두수 尹斗壽(1533~1601)를 가리킨다.
8 帥臣: 兵馬節度使와 水軍節度使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여기에서는 성을 지킬 신하를 의미한다.
9 고 …… 요청하였다: 해당 劄子가 『朝鮮王朝實錄』 선조 34년(1601) 3월 17일 조에 실려 있는 바,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伏以愆前, 所以愆後; 居重, 乃是御輕. 海賊畿退, 卽生款塞之謀, 而羈縻不許, 遂絕懷音之信, 必有以也. 年幾周矣, 朝野咸有燕雀之憂. 聖上遠攬陰雨之策, 大臣既受體察之命, 諸將亦有防助之任, 海上之備, 似有所措, 京輔之衛, 反無所持. 昔趙普欲繕都城, 宋太祖不可曰: ‘使寇至此, 其誰駐足耶?’ 今日之勢, 豈可徒待都中砲殺, 而不爲之所乎? 水原在畿輔爲最雄, 武人幾至千數, 實吾東精兵處也. 前有累次操鍊而設險, 亦得禿城之地. 臣之妄意, 若設兵營, 以文武中重望之人差送, 以備邊司屯田幾千石穀, 分番教養, 民不改聚, 兵皆土着, 皆成手下之使, 坐收澤潏之效, 聞變而趨, 何往不可? 龍津·婆娑·佐贊, 皆在當前不遠之地, 隨賊鋒所向, 或伏或前, 自有餘力矣. 若是則水營, 姑依法典, 還爲僉使, 令此兵使, 依他道節制, 事務歸一, 軍政有統矣. 忠清兵營, 遠在海美, 羽檄到後, 若爲馳赴, 形分神散,

에 이 문제를 조정에 하달하니, 모두 타당하다고 여겼다. 마침내 본주本州의 도성을 지키러 올라오는 육군과 경창京倉에 운송되어 들어가는 전세田稅를 면제하여 모두 이 성에 소속시켜 병력과 군량으로 삼도록 하였다. 그리고 문무文武를 겸비하고 위풍을 갖추고 실무에 익숙한 사람을 선발하여 지키게 하였는데, 변후邊侯가 다시 이 직책에 임명되었다.

변후는 와서 그 성을 높게 쌓도록 하고 해자를 깊게 파도록 하고 우물을 파서 백성들이 목마르지 않게 하고 밭을 일구어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게 하였으며, 궁노弓弩·석거石車·포화砲火·기계器械 등을 널리 설치하였다. 여가에는 날마다 군사들과 함께 공격하고 방어하는 대비와 말 달리고 활 쏘며 공격하고 찌르는 기술을 항상 적과 대하고 있는 것처럼 훈련하여 모두 쓰일 만하게 하였다. 한 해가 지나자 성안에 거주하는 백성이 또한 2백 가구를 넘었고 사찰과 관청도 모두 백여 곳이나 되었다. 이 일이 알려지자 근신近臣을 보내 군사들의 노고를 호쾌犒餽¹⁰하고 그 기예를 시험하도록 하였다. 임금께서는 가상하게 여기시고 군사들에게 차등을 두어 포상하고, 특별히 변후에게 태복마太僕馬¹¹를 하사하시며 따뜻한 말씀으로 칭찬하셨다. 이에 군사들의 마음은 서로 기뻐하고 백성들의 뜻은 크게 견고해져, 잘 정비된 성벽에 깃발이 면모를 일신하여 우뚝하게 경기 지역의 웅장한 관문이 되었으니, 아아, 부지런하구나!

변후가 성의 남쪽 모퉁이 깎아지른 벼랑, 골짜기 위에 초루譙樓¹²를 만들어 나그네들이 모여드는 곳으로 삼았는데, 자못 넓고 푹 트여 있어 좋아할 만하였다. 진남루鎮南樓라 이름을 짓고서 나에게 기문記文을 지어 달라고

似乏精銳之氣. 若以文義選設守令, 爲行營, 風和時, 則例爲留駐, 教鍊不輟, 秋風·鳥嶺, 亦在居中應援之處, 可以臨時控制, 豈不愈於四五日程退在之地乎? 臣於行在時, 屢以黃海兵營設置爲未便, 獻議請停, 聖上超然遠覽, 不計些少之弊, 確然審斷. 頃於南方赴戰, 國恤屆衛, 始得見之, 似有兵家頭緒. 臣之庸劣無識之罪, 至此大矣. 且武臣可用者, 一人有關. 墨襄臨戎, 謫中召用, 亦有前規. 此時何時, 膠守常例哉? 臣之愚妄之見, 在於甚後居重之意, 不勝惓惓懼懼之至.” 윤두수는 이 차자를 올리고 채 한 달이 못 되어 4월 7일에 세상을 떠나게 된다.

10 犒餽: 음식을 베풀어 군사들을 위로하다.
11 太僕馬: 太僕寺(궁중의 수레와 말을 관리하던 관아)에서 기르는 말이다.
12 譙樓: 宮門이나 城門의 바깥면 위에 지은 다락집을 가리킨다. 門樓라고도 한다.

청하기에 마침내 이 성의 전말을 적어 준다.

때는 만력萬曆 31년 계묘년(1603, 선조 36) 늦가을이다.¹³

이 기문은 대개 그 당시에 변후가 고조부께 요청하여 얻은 글인데, 기문 안에 산성의 형편과 창건의 전말이 환하게 기록되어 있다. 생각하기에 분명히 현판에 새겨 벽에 걸었을 텐데 지금은 없으니, 아마 중간에 전쟁을 만나 소실되어 그런 것인지 모르겠다. 참으로 흠이 되는 일이라 할 만하다. 아들 정보鼎輔¹⁴가 이 고을의 수령이 되자 내가 따라가 베끼고 새겨 벽 위에 걸었다. 경신년(1740, 영조 16) 아무 달 아무 날, 불초不肖 후손 우신雨臣 삼가 쓰다.¹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정연구원의
수원시정연구원의
수원시정연구원의
수원시정연구원의

畿邑三十七, 最大者曰水州, 最大故選用重人, 而隸三都護二郡七縣, 爲漢南巨鎮. 州居平原曠野之中, 無山谿險阨之阻, 治東十里, 有山巍然斗起於道傍者, 俗謂之禿城山. 山無樹木, 望之童童然, 山之得名以此. 而人視之泛常, 不以爲奇.

壬辰, 日本大勢兵蹂躪, 國中堅城巨砦, 相繼陷衄. 都元帥權慄提殘兵轉鬪, 入據于茲, 以抗京師之賊, 賊放兵屢劫, 終不敢逼, 於是人知茲城之得形便而爲國要衝也.

翌年賊退屯, 朝廷亟議繕築山城, 以圖拒守. 上首以禿城爲問, 西崖柳相國·西垞柳觀察, 實贊成之. 遂命防禦使邊侯巡審茲城, 且賜綿布累百匹, 聽

13 때는 …… 늦가을이다: 『華城志』에는 이 구절 다음에 “月沙記”라는 구절이 더 있다.
14 아들 鼎輔: 李鼎輔(1693~1766). 자는 士受, 호는 三洲이며, 1732년(영조 8)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중 추부사를 지냈다. 시호는 文簡이다. 그는 1739년(영조 15) 9월부터 1741년 8월까지 수원부사로 재직하였다. 이정보의 가계는 李廷龜→李明漢→李一相→李成朝→李雨臣→李鼎輔로 이어진다.
15 이 …… 쓰다: 이 부분은 이정구의 현손 李雨臣(1670~1744)이 이석의 기문 뒤에 붙여 놓은 書後로, 『월사선생집』에는 실려 있지 않고 『華城誌』에만 실려 전하는 글이다. 본문 이해를 위해 덧붙여 둔다. 이우신의 자는 伯說, 호는 十灘으로, 蔭補로 출사하여 호조참판을 지냈다.

其便宜. 侯募射軍民, 得丁壯五百, 以上命頒賞, 仍爲陣卒, 上其事, 極言茲城可守, 上以爲然, 遂命有司經紀之, 雖不能大有張設, 而城之創, 蓋始此.

丁酉之亂, 賊薄于境, 而府民入保, 恃而無恐. 厥後守者或非其人, 軍心與城械, 日弛而圯. 故相國海原尹公, 臨亡遺表, 請修禿城廢府, 使遣帥臣爲防禦使以兼之, 如寧邊·鏡城之制. 下其議于廷, 咸以爲宜. 遂除本州, 陸軍之上衛都城者, 田稅之運入京倉者, 咸屬於茲, 爲兵與糧. 命選文武有威風練事務者爲之守, 邊侯遂再膺是命.

侯至則築其城使高, 鑿其溝使深, 浚井使民不渴, 耕田使民不飢, 廣設弓弩·石車·砲火·器械. 暇則日與其軍練習, 攻戰守禦之備, 馳射擊刺之技, 恒如對敵, 舉可爲用. 逾年, 城中居民, 亦過二百戶, 寺刹解宇, 竝百餘區. 事聞, 命遣近臣犒勞其軍, 試閱其技. 上嘉之, 賞士卒有差, 特賜侯太僕馬, 溫諭以獎之. 於是軍心胥悅, 衆志大固, 壁壘整整, 旗幟一新, 屹然爲畿輔雄關, 吁其勤矣!

侯就城南隅, 跨懸崖臨絕壑, 創起譙樓, 以爲賓旅翔集之所, 頗軒豁可愛. 名之曰鎮南樓, 請余爲記, 遂書茲城之顛末以畀之云.

時萬曆三十一年癸卯季秋.

此記蓋其時邊侯請于高祖考得文, 而其記文中山城形便創始顛末, 昭昭載錄. 想必刻板揭壁, 而今也無, 無乃闕失於中間炳燹而然耶! 誠可爲欠事也. 家兒鼎輔作宰是府, 余迫寫入刻揭于壁上云爾. 後庚申月日, 不肖孫雨臣謹書.

| 解題

월사月沙, 이정구李廷龜가 1603년(선조 36)에 독성산성禿城山城의 방어사인 변응성邊應星의 요청을 받아 성의 문루門樓인 진남루鎮南樓에 붙인 기문이다. 이 글에서 이정구는 독성산성의 중요성과 함께 변응성이 이 산성을

보수하고 군사들을 잘 훈련시켜 전쟁에 효과적으로 대비한 점을 거듭 강조하여 부각시켰다. 진남루는 현재 터만 남아 있다.

| 主題語

월사月沙, 이정구李廷龜, 수원水原, 독성산禿城山, 변응성邊應星, 진남루 鎮南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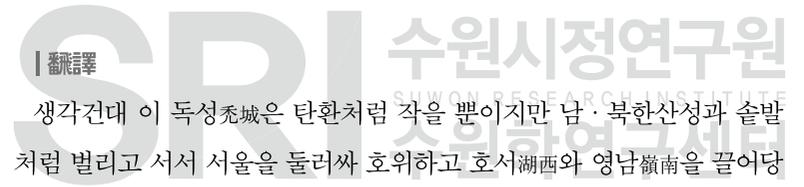


진남루를 중수한 일에 대한 기문

鎮南樓重修記



이의풍李義豐(?~1754), 『화성지華城誌』 권2



| 翻譯

생각건대 이 독성禿城은 탄환처럼 작을 뿐이지만 남·북한산성과 솔밭처럼 벌리고 서서 서울을 둘러싸 호위하고 호서湖西와 영남嶺南을 끌어당기면서 우뚝하게 좌보左輔¹ 중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작다고 해서 그 임무가 작다고 할 수 없고, 황폐해지고 무너졌으면 수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성의 남쪽에 옛날에 진남루鎮南樓라는 누대가 있어 성을 쌓게 된 전말과 누대를 세우게 된 처음과 끝을 월사月沙 이상국李相國께서 다 기록해 두셨는데,² 올라가서 바라보는 빼어난 경관과 지키는 형편의 방법 역시 모두 갖추어 기재되어 있으니, 참으로 이른바 “한 문공韓文公의 다리 아래는 문장을 지을 곳이 아니다.”³라는 것이다. 하물며 나는 활쏘기와 말 타기를 업

1 左輔: 漢나라 三輔(한나라 때 경기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 셋으로 분할한 구역으로, 京兆尹, 右扶風, 左翊衛를 말함) 중 좌익위의 별칭이다. 경조윤의 원편에 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2 月沙…… 기록해 두셨는데: 李廷龜가 「鎮南樓記」(『月沙集』 권37)를 지은 일을 가리킨다. 독성과 관련된 기록에서 이정구의 기문은 거의 빠짐없이 언급되고 있다.
3 韓文公의…… 아니다: 이 부분은 朱熹의 「答陳庸仲」(『晦菴集』 권49)의 구절을 그대로 인용해 온 것이다. 이 글에서 주희는 袁州의 학기學記를 지어 달라는 진부중의 청에 대해 이 말을 하면서, 이미 韓愈(한 문공)가 지은 글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또 기문을 쓸 수 없다고 하였다.

으로 삼고 있어서⁴ 문필⁴文筆에 익숙하지 않거늘 감히 그 뒤에 한 마디 말이 라도 더할 수 있겠는가.

다만 들보 위의 필적을 살펴보면, 누대는 기해년(1599, 선조 32)에 창건되었고 병진년(1676, 숙종 2)에 중수⁵重修되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 위엄이 꺾 막히게 되고 용마루는 흔들리고 들보는 부러져 거의 무너지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나는 부임해 와 마침 그 때를 만나 개연⁶慨然히 부흥시킬 뜻을 가지고서, 이에 아영장⁵亞營將 김경유⁵金景游 군에게 맡겨 편의에 따라 지휘하여 그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김 군 역시 늙어⁶糜餘를 덜어내어 재목을 모으고 장인을 모집하여, 그 옛 터에다 기초를 고치고 말단을 바꾸어 크고 훌륭하게 만들고⁷ 그 제도를 새롭게 하였으니, 그 일 처리하는 재주와 힘들게 노력한 정성은 기쁘고 가상히 여길 만한 것이다.

또 생각해 보면, 기해년부터 병진년까지는 78년이고 병진년부터 올해까지도 78년이다. 전후로 연수⁸年數가 기약하지 않았음에도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은 해가 돌고 별이 돌아 또한 조물주가 그렇게 하도록 하여 그렇게 된 것인가. 아아, 기이하구나. 후세 사람이 만약 다시 오늘의 뜻과 같이 있어서 수리하여 이 누대가 영원토록 우뚝하게 한다면, 마땅히 우리나라의 빛나는 운수와 더불어 억만 년 동안 끝이 없으리라. 여기에 기록하여 찾아 올 이들에게 보여 준다.

계유년(1753, 영조 29) 6월 상완⁸上浣, 부백⁸府伯 이의풍⁸李義豐.

4 활…… 있어서: 자신이 武臣임을 나타낸 표현이다. 이의풍은 무과에 급제하여 평생을 무신으로 살았다.
5 亞營將: 亞營은 조선시대 지방 觀察使를 보좌하는 都事를 일컫는 말인데, 여기에서는 수원 부사인 이의풍을 보좌하는 副使 벼슬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6 糜餘: '糜'은 창고라는 뜻으로, 국가 예산(여기에서는 수원부의 예산)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나머지만 예산을 집행한 뒤의 잔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7 크고…… 만들고: 원문은 '輪焉奐焉'인데, 『禮記』, 「檀弓下」편에서 뜰나라 獻文子가 집을 짓자 장로들이 송축하기를 "아름다워라, 우뚝함이어, 아름다워라, 훌륭함이어!(美哉輪焉, 美哉奐焉)"라고 한 데서 유래한 표현이다.
8 上浣: 상순이다.

| 原文

惟茲禿城彈丸之小耳, 而與南北漢鼎峙, 環衛京師, 控引湖嶺, 屹然爲左輔之一重鎮. 其不可以叢爾而小之一任, 其廢墮頽圯而莫之葺理也, 明矣.

城之南, 舊有樓曰鎮南, 而築城之顛末, 起樓之始終, 月沙李相國記之悉矣. 登臨眺望之勝, 控制形便之方, 亦皆備載焉, 眞所謂韓文公脚下不是做文章處者也. 矧余業弓馬 不嫻文墨者, 又敢措一辭於其後耶!

但以樑上筆蹟觀之, 樓創於己亥, 重修於丙辰, 而年久震蹇, 棟撓而柱摧, 幾至頽壓之境. 余之來蒞, 適丁其時, 慨然有修舉之意, 乃屬亞營將金君景游, 而從便指揮, 資其工役. 金君亦捐出糜餘, 鳩材而募工, 仍其舊址, 改礎而易尾, 輪焉奐焉, 一新其制, 其幹辦之才, 勤悴之誠, 可嘉可尚也.

且念自己亥至丙辰, 爲七十八年; 自丙辰至今年, 亦七十八年. 前後年數之不期而暗合者, 有若歲周而星回, 抑亦造物者使然而然耶! 吁, 可異矣! 後之人, 若復如今日之志而嗣而葺之, 庶斯樓之永久歸然, 當與我聖朝熙運, 億萬年無疆矣. 茲爲之記, 以示來者.

癸酉六月上浣, 府伯李義豐.

| 解題

독성禿城의 정문인 진남루⁸鎮南樓는 여러 차례 몰락과 중수를 거듭하였는데, 이의풍⁸李義豐은 1753년에 수원 부사로 부임해 와서 진남루를 중수하고, 그 경과를 서술한 기문을 지었다. 이 글에서 그는 독성의 존재 가치, 진남루 중수의 원인과 경과 등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 主題語

이의풍⁸李義豐, 독성禿城, 진남루⁸鎮南樓, 이정구⁸李廷龜, 김경유⁸金景游

독성을 중수한 일에 대한 기문

禿城重修記



박기수朴綺壽(1774~1845), 『화성지華城誌』 권2

翻譯

성이 작더라도 작으면 험해야 하니 어째서인가? 성이 작으면 병사를 나누지 않고서도 쉽게 지키며, 성이 험하면 적이 올라오기 어려워 쉽게 적을 물리친다. 그러므로 “백 명이 험한 곳을 지키면 천 명이 지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옛날 왜적이 여러 길과 큰 성들을 공격해 오니² 바람을 바라보며 지키지 못한 자가 얼마나 많았겠는가만, 금산金山과 화왕火旺같은 곳은 모두 탄환처럼 작지만 (적을) 막아내어 계속 지켜낼 수 있었고 독성禿城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로 말미암아 말한다면 성이 작다고 해서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금산과 화왕은 내가 아직 보지 못하였고, 독성은 일찍이 길 가는 중에 올라 바라본 적이 있을 뿐이었다. 지금 이 고을에 머물러 지내게 되어 비로소 올라 형세를 살펴보게 되었는데, 평야 가운데 봉우리 하나가 갑작스레

1 백……없다: 『戰國策』 「齊策」에 나오는 말로, 蘇秦이 합종을 위해 齊나라 宣王에게 유세하면서 한 말이다.
2 공격해 오니: 원문은 ‘板蕩’인데, 「板」과 「蕩」은 모두 『詩經』 「大雅」의 편명으로 주나라 厲王이 무도하여 나라가 혼란해짐을 풍자한 시이다. 이로 인해 ‘판탕’은 국가의 혼란 또는 사회의 동요를 일컫는 표현으로 쓰이게 되었다.

솟아올랐고 봉우리 꼭대기가 성이 된다. 사방은 단절되었고 주위는 3리 정도 되며, 가운데에 못집을 두고 민가는 수백 호를 넘지 않는데 기축을 기를 곳은 없다. 그 누대를 ‘진남루鎮南樓’라 하니 이곳이 관사官廨의 정당正堂³이다. 전해지는 말로는, 옛날 원수元帥 권 공權公⁴이 이 성을 지킬 적에 성 안에 샘이 적어 오랫동안 지키기 힘들었는데 적이 정탐하여 이를 알고서 급히 공격하려 하였다. 권 공이 이에 병사들을 시켜 적을 향해 말을 세우고 쌀가루를 뿌려 말을 씻게 하였다. 적이 바라보고 말하기를,

“성 안의 물이 또한 말을 씻기기에도 충분한가?”

하고는 포위를 풀고 떠나갔다고 한다. 성의 시말始末은 월사月沙 이 공의 기문⁵에 다 적혀 있다.

아아, 옛날 장헌세자莊獻世子께서 온천에 행차⁶하시다 마침 남교南橋의 물이 불어 진남루에 올라 하루 묵어 가시면서 활쏘기를 하여 다섯 발 중 네 발을 적중시켰다. 선조先朝 기유년(1789, 정조 13)에 이르러 현릉원顯隆園⁷을 화산花山⁸으로 이장移葬하면서 이 산을 바라보니 마치 두 팔로 안아 지키는 듯한 모습이였다. 이듬해 봄, 원소園所로부터 어가御駕가 이 성에 행차하여 부로父老들을 불렀을 때 옛날의 일을 물어보셨다. 또 그 후에 선왕을 안정한 곳이 현릉원과 같은 곳이었으니, 이 성은 장차 수많은 제사를 거치면서 항상 원릉園陵을 안아 지킬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이 성의 중요

3 正堂: 大廳을 일컫는 말이다.
4 元帥 權公: 임진왜란 때 조선의 都元帥로 일본군을 격퇴하는 데 큰 공을 세운 權傑(1537~1559)을 가리킨다. 그는 임진왜란 중에 독성에 주둔하며 우키다 히데이에(宇喜多秀家, 1572~1655)가 이끄는 일본군을 물리쳤는데, 그 과정은 본문에 기술된 바와 같다.
5 月沙 …… 기문: 李廷龜의 『鎮南樓記』(『月沙集』 권37)를 가리킨다.
6 莊獻世子께서 …… 행차: 장헌세자는 정조의 아버지 思悼世子이며, 그는 1760년(영조 36) 7월에 병을 다스리기 위해 溫陽溫泉에 다녀온 바 있다.
7 顯隆園: 정조의 아버지 思悼世子의 무덤으로, 지금의 隆陵이다.
8 花山: 용릉의 主山으로, 지금의 경기도 화성시 화산동에 있다.

함은 더욱이 옛날에 비할 바가 아니며, 또한 새로운 부치⁹와 30리¹⁰ 떨어져 있어 가까이에서 표리^{表裏}의 형세가 되니 어찌 작다 하겠는가.

그 사이에 수축^{修築}을 하지 못하여 성의 토대는 대반이 씻겨 내려갔고 성가퀴는 남아 있지 않으며, 남문은 거의 무너져 버렸다. 나는 이에 옛사람들이 남긴 위엄을 슬퍼하고 원릉이 중시됨을 생각하여, 무너진 것을 쌓아 견고하게 하고 썩은 것을 바꾸어 새롭게 하였는데, 성은 작아도 비용은 많이 들었다. 8월에 시작하여 10월에 끝났으며, 공사를 감독한 총리^{總理}중군 김상순^{金相順}이 그 일을 현판에 적어 주기를 요청하므로 내가 그를 따랐다.

신묘년(1831, 순조 31) 10월, 유수^{留守} 박기수^{朴綺壽} 쓰다.

| 原文
城無小，小欲險，何也？城小者，兵不分而易守；城險者，賊難登而易退。故曰：百人守險，千人不敢過也。在昔倭寇之板蕩諸路大城，望風失守者何限，而如金山·火旺，皆以彈丸之小，能拒守樹纒，禿城亦然。由此言之，城其可以小而忽之哉！

金山·火旺，吾未之見也。禿城曾余路上寄矚而已。今茲居留茲土也，始登覽體勢，平野之中，突起一峯，峯頭爲城。四面斗絕，周可三里而中置倉廩，民家不過數百，而無所芻牧。其樓曰鎮南，是官舍正堂也。傳者曰：昔元帥權公守此城，城中泉少，難以久守，賊覘知之，欲急功。權公乃使卒向賊立馬，以米屑揚而灑之。賊望見曰：“城中之水，亦足以洗馬耶？”遂解去。城之始末，月沙李公記之盡矣。

嗚呼，昔莊獻世子溫幸，適南橋水漲，登鎮南樓宿一宵，乃射的五發四中。

9 府治：지방 행정 구역의 하나인 府의 邑治(고을 관아가 설치된 중심지)를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華城을 가리킨다.
10 30리：원문은 '一畝'인데 '사'는 30리를 가리킨다.

至先朝已西，遷園花山，越瞻茲城，如拱護然。翌年春，自園所駕幸茲城，召父老，詢及昔年遺事。又其後先王弓鉞之藏，與園同局，則茲城也，其將歷萬禩而常拱園陵。由是茲城之重，尤非前日之比，且距新治一舍，而近爲表裏之勢，豈可小之哉！

間闕修築，城根半汰，女堞無遺，至於南門，幾乎倒矣。余於是慨前人之遺烈，念園陵之所重，凡其崩者築而固之，朽者易而新之，城小而費鉅。始於仲秋，訖于孟冬。董役者總理中軍金相順，請書其事于板，余從之云。

辛卯孟冬，留守朴綺壽記。

| 解題
박기수^{朴綺壽}는 1831년(순조 31)에 수원 유수^{水原留守}로 부임해 와서 독성^{禿城}을 중수^{重修}하였는데, 이때 공사를 감독했던 김상순^{金相順}의 요청에 따라 기문을 지었다. 이 글에서 박기수는 독성과 관련된 다양한 일화들을 소개하였으며, 특히 이곳이 융건릉^{隆乾陵}과 가까워 그곳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 主題語
단재^{坦齋}, 박기수^{朴綺壽}, 독성^{禿城}, 권율^{權慄}, 현릉원^{顯隆園}

건릉을 찾아빈 일에 대한 기문

健陵展謁記



순조純祖(1790~1834), 『순재고純齋稿』 권3

翻譯

봄과 가을마다 능陵을 찾아뵙는 것은 예禮이다. 그렇지만 나는 나이가 어
려서 건릉健陵¹에는 갈 수 없었으니, 여러 능에 비해 훨씬 멀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올봄에 뜻이 있었다가 곧 정지하고 가을을 기다렸던 것이다. 당
초 가을에 종백宗伯²에게 길일吉日을 택하라고 명한 것이 8월 28일이었다.

이날 어가를 움직여 노량露梁의 주교舟橋³를 경유하여 잠시 용양봉저정
龍驤鳳翥亭⁴에 머물렀고, 낮에 시흥현始興縣에서 쉬었다가 이내 화성에 도
달하여 유여택維輿宅⁵에서 잤다. (유여택은) 선왕께서 설치하신 것으로 원
행園行 때 어가가 다시 임하게 된지 15년이 지났다. 산천을 돌아보면 선왕
께서 눈여겨보시던 것들이 가득하고 눈에 닿는 것마다 감흥을 일으키며,

- 1 健陵 : 조선 제22대 왕 正祖의 능이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인 隆陵과 함께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481번길 21번지에 위치해 있다.
- 2 宗伯 : 예조판서의 다른 이름이다.
- 3 舟橋 : 배를 띄워 강을 건널 수 있게 만든 다리이다. 물에 뜬 다리라는 뜻으로 '浮橋'라고도 한다. 주교의 가설과 관련하여 『舟橋指南』과 같은 책이 있어서 참고가 된다.
- 4 龍驤鳳翥亭 : 서울 동작구의 노량진 수원지 건너편에 있는 누정으로, 정면 6칸, 측면 2칸 규모이다. (자세한 내용은 본서에 수록된 洪敬護의 『扈駕華城記』의 각주 3번 참조)
- 5 維輿宅 : 화성행궁의 건물 중 하나로, 1790년(정조 14)에 건립되어 당초 이름을 隱若軒이라 하였다가 1796년에 증축하면서 이름을 유여택으로 고쳤다.

다음 조정에서 능소陵所에 가서 배알拜謁하고 이에 능 위에 올라 봉심奉審
해 보니 상설象設⁶은 엄연하여 평소와 다를 것이 없어, 마치 위엄 있는 용
안龍顏을 뵈고 옥음玉音을 듣는 듯하였다. 하지만 끝내 막연하니 소자小子⁷
가 붙잡고 불러도 어디에 미치겠는가. 친제親祭⁸를 행하고 능을 떠나면서
배회하며 바라보니 눈물이 흐를 따름이다. 상로지감霜露之感⁹에 비록 조금
이나마 위안이 된다고는 하지만 송백지비松栢之悲¹⁰는 이로부터 더욱 깊어
진다.

보여步輿¹¹를 타고 현릉원顯隆園¹²에 이르러 의식대로 참배하고 제사를
지낸 뒤 화성華城으로 돌아와 대황교大皇橋에서 잠시 머무르면서 본부本府
의 노인들을 불러 만나고 위로하였다. 신평루新豐樓에 이르니 시간이 이미
늦어 있었다. 다음 날 화령전華寧殿에 가서 참배하고 작헌례酌獻禮를 행하
고는 즉시 출발하여 시흥에서 묵고 다음 날 아침에 출발하여 봉저정鳳翥亭
에 이르러 잠깐 쉬었다가 주교舟橋를 건너 남관왕묘南關王廟에 잠깐 들렀
다 마침내 궁으로 돌아왔는데 날은 여전히 이른 시간이었다.

이번 원행은 모두 4일이 걸렸고, 날씨가 청명하고 화창하였는데 안량리
安梁里에 도착했을 때 잠깐 비가 내렸지만 금방 개어 가마 가는 길이 조금
만 젖은 것은 또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선침仙寢¹³에 참배하는 일을 몇
년 동안 수고롭게 생각만 하다가 비로소 올가을에 성취하게 되었으니 소
자의 애도하고 그리워하는 아픔을 거의 위로할 수 있게 되었구나! 삼가 기
록하노라.

- 6 象設 : 능이나 園에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石物과 시설이다.
- 7 小子 : 순조가 정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 8 親祭 : 입금이 직접 제사를 지내는 일을 가리킨다.
- 9 霜露之感 : 부모님이나 조상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한자 성어이다. 『禮記』 「祭義」권에 “서리와 이슬이 내려 군자가 그것을 밟으면 반드시 슬픈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추워서 그런 것이 아니다. (霜露既降, 君子履之, 必有愴愴之心, 非其寒之謂也)”라고 하였다.
- 10 松栢之悲 : 소나무와 측백나무는 항상 푸른 모습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지만 인간은 늙어 죽을 수밖에 없는 데 대한 悲感이다.
- 11 步輿 : 노인이나 다리가 불편한 사람을 위한 가마이다. 앞과 뒤에서 사람이 메도록 되어 있다.
- 12 顯隆園 : 정조의 부친이자 순조의 조부인 思悼世子の 능이다. 후에 隆陵으로 바뀌었다.
- 13 仙寢 : 선왕들의 陵園이다.

갑자년甲子年(1804, 순조 4) 9월 하순에 쓴다.

| 原文

春秋拜陵, 禮也. 而予以冲年, 未克行健陵, 視諸陵最遠故也. 是以今春有意旋停, 以俟秋也. 初秋命宗伯擇吉, 八月二十有八日也.

是日動駕, 由露梁舟橋, 少駐於龍驤鳳翥亭, 晝停于始興縣, 仍詣華城, 維與宅宿焉. 先王之所設始, 而園幸駕臨歲再焉者十有五年也. 顧瞻山川, 聖矚森然, 觸目興感, 翌朝詣陵所拜謁, 仍登陵上奉審, 象設儼然, 無異平時, 若將覲威顏聆玉音, 而終焉冥漠, 小子攀號, 何所逮及? 仍行親祭而辭陵, 回徨瞻望, 有淚而已. 霜露之感, 雖云少慰, 而松柏之悲, 自此益深.

以步輿詣顯隆園, 展拜行祭如儀, 還于華城, 駐蹕於大皇橋, 召見本府父老勞問, 到新豐樓, 更鼓已下矣. 翌日詣華寧殿瞻拜, 仍行酌獻之禮, 即爲發行, 宿于始興, 翌朝進發, 至鳳翥亭少駐, 渡舟橋歷拜于南關王廟, 遂還宮, 日猶早也.

是行也凡四日, 而清明和暢, 到安梁里, 少有驟雨而旋即開霽, 輦路浥塵, 還可幸也. 仙寢展拜, 幾年勞思, 而始成於今秋, 庶可以慰小子孺慕之痛歟! 謹爲之記.

歲在甲子季秋下澣書.

| 解題

순조純祖가 1804년(순조 4)에 부친인 정조正祖의 건릉健陵을 찾아 능을 봉심奉審하고 제사를 올린 일¹⁴을 술회한 기문이다. 순조는 즉위 후 몇 년

14 1804년에 …… 일 : 순조는 1810년(순조 10)에도 건릉에 참배한 일이 있으며 이때에는 洪敬謨가 수행한 뒤 그 경험을 「鳳駕華城記」라는 기문으로 기록한 바 있는데, 이 작품이 묘사한 1804년 능행과는 별도의 사건이다.

동안 건릉에 참배하지 못했던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 부친에 대한 애끓는 효심과 충정을 매우 절실하게 묘사하였다.

| 主題語

정조正祖, 건릉健陵, 순조純祖



함포고복격양실에 대한 기문

含哺鼓腹擊壤室記



이만수李晩秀(1752~1820), 『극원유고履園遺稿』 권2

翻譯

우리 춘궁¹ 저하² 아래에서 보령³이 7세가 되자 깊고 밝은 바탕은 하늘이 완성해 주시고 때마다 총명해지시고 날마다 새로워지시니 아름다운 명성이 사방에 통하였다. 우빈객⁴ 죽석⁵ 서공⁶은 두 조

하루는 내가 기국소재⁶로 공을 방문하였더니 문에 ‘함포고복격

- 1 춘궁 : 왕세자를 달리 이르는 말이다. 왕세자의 거처가 궁궐 동쪽에 있던 데서 유래한 표현이다.
- 2 저하 : 임금 등 지위가 높은 사람의 나이를 높여 부르는 말이다.
- 3 죽석 서공 : 徐榮輔(1759~1816). 죽석은 그의 호이고, 본관은 달성, 자는慶世이며, 대제학 有臣의 아들이다. 1789년에 문과에 장원한 뒤 수원부 유수, 대제학 등을 지냈다. 문집 『竹石文集』이 전한다.
- 4 두 조정 : 서영보가 벼슬했던 正祖, 純祖 연간을 가리킨다.
- 5 문청공이 …… 일 : 문청공은 정조의 元孫輔養官이자 서영보의 할아버지였던 南有容(1698~1773)을 가리킨다. 그는 世孫이 된 정조를 세 살 때부터 무릎에 앉혀 놓고 가르쳤기 때문에 정조가 그 은혜를 잊지 못하였다고 하는바, 문청공이 세자를 보좌한 고사란 바로 이 일을 가리킨다. 정조는 그를 위해 지은 致祭文中에서 그의 은혜를 다음과 같이 숭회한 바 있다. 『弘齋全書』 권20, 『奉朝賀南有容致祭文』, “경은 과인에게 실로 甘露이요 傳說이었으니, 지성으로 가르치고 인도하여 시종 한결같았네. 자세히 가르쳐 뭇매함을 깨우쳐 주니 격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게 하였으며, 兩儀와 四象을 손으로 짚고 입으로 가르쳐 주었다.(脚於寡人, 實兼盤說. 至誠訓迪, 終始如一. 諄諄隔蒙, 不激不驟. 兩儀四象, 手指口授)”
- 6 紀菊小齋 : 서영보의 서재인 듯한데 자세한 내용은 미상이다.

양지실⁷을 擊壤⁸의 室⁹이라는 편액이 달려 있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물었더니 공이 말하기를,

“이는 춘궁 저하의 글을 모방해 쓴 것입니다. 일전에 주연⁷에서 『십구사략⁹』의 「제요기¹⁰」를 진강¹¹하였는데, 강이 끝나고 친히 필묵¹²을 가져다 네 폭의 글씨를 쓰시니, 첫째는 ‘수부다남자¹³요, 둘째는 ‘함포고복격양¹⁴이며, 셋째는 ‘모자부전 토계삼등¹⁵’, 넷째는 ‘기인여천 기지여신¹⁶’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화평 지역 봉인¹⁷의 축원¹⁸으로 신 등이 감히 저하게 바치지 않았던 것인데 저하게서 온화한 기색으로 받아들여졌고, ¹² 두 번째는 신 영보에게 하사하셨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춘계방¹³의 관원들에게 나누어 하사하셨습니다. 신은 감사드리며 소매에 넣고 돌아와 영원히 집안에 전하는 가보로 삼고 이 여섯 글자로 실¹⁹에 편액을 달았습니다. 신은 이 총명한 빛을 받들어 장차 밭 갈고 우물 뚫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백성들¹⁴을 위해 밝은 은택을 노래하였으니 어찌 지극한 영화이며 큰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하고서는 저하의 글씨를 꺼내어 보여 주었는데, 종이를 펼치자마자 상

- 7 胄筵 : 書筵이라고도 하며 왕세자를 위해 講學하는 모임을 의미한다.
- 8 壽富多男子 : 요 임금이 華 땅을 시찰할 적에 화 땅의 封人이 요 임금에게 아뢰기를 “아, 성인을 축원하노니, 성인께서 장수하고 부유하고 아들 많이 두게 하소서.(噫, 請祝聖人, 使聖人壽富多男子)”라고 하였다.(『莊子』 「天地」편 참조)
- 9 含哺鼓腹擊壤 : ‘함포고복’은 실컷 먹고 배를 두드린다는 뜻으로, 『莊子』 「馬蹄」편에 나오는 말이다. ‘격양’은 요 임금 때 유행했다는 「擊壤歌」로, 태평성대를 노래한 가요이다.
- 10 茅茨不剪, 土階三等 : 생활을 매우 검소하게 함을 지칭한 말이다. ‘茅茨不剪’은 지붕을 따로 이되 끝을 베어 가지런하게 하지 않는 것이고, ‘土階三等’은 흙으로 뜯을 쌓되 세 계단만 쌓는다는 뜻이다. 『史記』 「太史公自序」에 나오는 말이다.
- 11 其仁如天, 其知如神 : 요 임금을 칭송하는 말로, “帝堯은 하늘처럼 어질고 신처럼 지혜로워 가까이하면 해와 같고 바라보면 구름과 같다.(帝堯者芳薰, 其仁如天, 其知如神, 藐之如日, 望之如雲)”라 하였다.(『史記』 「五帝本紀」 참조)
- 12 받아들여졌고 : 이 부분은 문맥상 하사한다는 의미의 ‘授’로 보아야 할 듯하다.
- 13 春桂坊 : 世子侍講院을 春坊이라 하고 世子翊衛 司를 桂坊이라고도 하는데, 이 두 관서를 함께 가리킨다.
- 14 밭 …… 백성들 : 밭 갈고 우물 뚫는다는 것은 「격양가」의 내용이고, 알지 못한다는 것은 「격양가」와 마찬가지로 요 임금 시대의 태평함을 노래한 「康衢謠」의 내용이다.

서로운 빛이 이미 문과 창을 놀라게 하였고, 삼가 열람함에 구조가 균일하고 바르며 신이한 풍채가 유동하며 단아하고 엄숙하며 돈후하여 존귀한 기운이 흘러넘쳤다. 대개 어린 나이에 붓을 놀려 절로 천기天機를 얻으셨으니, 성정性情이 발현하여 글씨 앞에 일이 있으니, 문단에서 글씨 익히는¹⁵ 선비가 배워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에 몇 번이나 들고 감상하며 공경하는 마음이 솟아남을 이기지 못하여 다음과 같이 칭송하였다.

이런 일이 있는가. 공이 성대한 은혜를 입는 일을 만나게 된 것은 참으로 세상에 없는 특별한 예우禮遇이다. 그러나 공은 바야흐로 고요阜陶와 기夔 같은 현명한 신하로 성대한 소韶¹⁶를 돕고 성운星雲¹⁷을 노래하였으니 「격양가擊壤歌」 부르는 시골 노인은 그 사람이 아니다. 저하께서 이 글씨를 써 공에게 하사하신 것은 적이 깊고 밝은 뜻이 있으실 것이다. 공으로 하여금 임금의 덕을 받들어 보좌하며 밝은 덕에 물들게 하여, 덕으로 교화하는 일이 완성되고 큰 도를 일으켜, 동쪽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안정된 삶과 즐거운 일을 가지고서 어질게 장수하면서 임금의 은덕을 노래하게 하고자 하심이니, 금호槿湖의 늙은 어부 역시 그 조화 안의 사람이 될 것이다.

하고는 마침내 서로 바라보며 웃었다.

며칠이 지나 공이 보리保釐¹⁸의 명을 받게 되자 나는 무릎을 꿇었다 일어나 말하였다.

“죽옹竹翁이 새로 부임하게 된 직책은 옛 화봉인華封人이 살던 곳입니다. 기억

15 글씨 익히는 : 원문은 臨池인데 書法을 익히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後漢 때 서예가인 張芝가 글씨를 익힐 때 집안의 옷가지에 글씨 연습을 하고 나서 옷을 빨곤 했으므로 “못가에 입혀 글씨를 연습하여 연못물이 다 먹빛이 되었다.(臨池學書, 池水盡黑)”라고 한 데서 유래하였다.(『後漢書』, 『張奐列傳』 참조)

16 성대한 소 :韶는 순임금의 음악을 가리킨다.

17 星雲 :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百官들과 함께 부른 노래인 卿雲歌를 가리킨다. 위의 소와 함께 태평성대의 노래이다.

18 保釐 : 백성을 보호하고 다스린다는 말로, 지방관으로 부임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하기에 옛날 을묘년(1795, 정조 19) 봄에 우리 선왕先王께서 자궁慈宮의 어가를 모시고 화성행궁에 행차하시면서 봉수당奉壽堂에서 잔치를 여시고 낙남현洛南 縣에서 양로연을 베풀셨으니, 학처럼 흰 머리털에 구장鳩杖¹⁹을 짚고서 끊임없이 각기 그 나이를 아뢰어 지금까지 성대한 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수와 부귀와 아들 많이 낳기를 축원하는 것²⁰은 여기에 있으며, 실컷 먹고 배를 두드린다는 노래 역시 여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번 글씨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죽옹이 명을 제수除授받게 되어 마치 부절符節이 맞아떨어지는 것과 같은 일이 있게 되었으니, 어찌든지 공의 집에 편액을 달고 그 집안에 가보로 전하게 되는 일에 그칠 뿐이겠습니까. 종묘사직의 억만년 무강無疆한 기틀이 실로 여기에 있으니 아아, 성대합니다!”

나는 비록 들뜬 상태에서 지취를 감추고 있어 세자 저하²¹를 가까이서 뵈지는 못하지만, 지금 죽옹竹翁에 대한 은총을 마음으로는 적이 더붙어 영광으로 여기고 있다. 삼가 훈목薰沐²²을 하고 그 일을 기록하며, 또한 소장공蘓長公²³이 하사받은 자미紫薇 시²⁴에 차운次韻하여 목을 빼고 바라보는²⁵ 작은 정성을 드러내 본다. 시는 다음과 같다.

19 鳩杖 : 손잡이를 비둘기 모양으로 조각한 지팡이로, 70이 되어 致仕한 사람에게 하사하는 물건이다.
20 장수와 …… 것 : 龜息금이 華 땅을 순행할 때 그 지역의 封人이 요 임금에게 장수와 부유함, 아들 많이 낳을 것을 축수하였던 일을 가리킨다.(『莊子』, 『天地』편 참조)
21 세자 저하 : 원문은 ‘离光’이다.
22 薰沐 : 향을 몸에 뿌리고 머리를 감아 몸을 깨끗이 한다. 경건함과 공경을 표시하는 방법이다.
23 蘓長公 : 송나라 때의 문호인 蘇軾(1037~1101). 蘇洵의 장자이자 그 문장이 세상의 으뜸이었기 때문에 ‘장공’이라 불렀다.
24 하사받은 …… 시 : 原詩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9월 15일, 邇英閣에서 『論語』를 강론하여 한 편을 마치고 執政과 講讀, 史官에게 東宮에서 연회를 베풀었다. 또 中使를 보내어 친히 쓰신 시 각 한 수씩을 하사하셨는데, 내가 받은 「紫薇花」 절구는 다음과 같다. “絲綸閣 아래에서 문서 정리하느라 조용한데 / 鐘鼓樓 물시계 소리 길구나. / 황혼에 홀로 앉았으니 누가 벗인가 / 紫薇花만이 紫薇郎을 마주하였네.” 다음 날 각기 표문으로 사래하고 또 시 한 편을 바쳤는데 내 시는 다음과 같다.(九月十五日, 邇英講讀語終篇, 賜執政講讀史官燕于東宮, 又遣中使就賜御書詩各一首. 臣軾得紫薇花絕句, 其詞云: “絲綸閣下文書靜, 鐘鼓樓中刻漏長. 獨坐黃昏誰是伴, 紫薇花對紫薇郎.” 翌日各以表謝, 又進詩一篇. 臣軾詩云) 『東坡全集』 권17) 참고로 이는 宋 哲宗 元祐 2년(1087)에 있었던 일이다.
25 목을 …… 바라보는 : 원문은 ‘延頸’으로, 우러러 그리워한다는 의미이다.

4중의 음악과 노래²⁶ 우레처럼 땅에서 나와
 팔백 년 왕업²⁷ 나무 심었네
 승화문²⁸에서 날마다 빛나는 자리 열리고
 이극²⁹의 문에 임하니 금원³⁰이 빛나네
 보령은 오히려 입학³¹할 나이³¹도 안 되셨지만
 뛰어난 지혜와 총명함 천성에 근본하였네
 죽석 거사³²는 문청공³³의 손자
 빈객³⁴으로서 보좌하고 이끌기를 몽천³⁴같이 하였네

四重樂歌雷出地
 八百洪基種樹戲
 承華日闡緝熙筵
 貳極門臨禁苑翠
 寶齡猶未齒學年
 睿知聰明本乎天
 竹石居士文清孫
 賓師輔導如蒙泉

강³⁵이 끝나고 자리에서 나아가 은총을 내려주시니
 눈 빛깔 궁전지³⁶에 별이 움직이는 듯한 글자
 증씨³⁷의 『사략³⁸』의 「도당기³⁹」
 큰 붓으로 특별히 쓰시니 빛이 사방에 비추었다네

講罷筵前拜寵賜
 雪色宮箋昭回字
 曾氏史略陶唐記
 大筆特書光被四

좋은 옥 아름다우니 전³⁴에서 나오
 채색한 봉황 훨훨 날아 아침 햇빛 선명하다

良玉孚尹出于闕
 彩鳳翔舞朝陽鮮

26 4중의 …… 노래 : 漢나라 明帝가 태자였을 때 악공이 그를 찬양하기 위해 지어 바친 네 편의 樂府詩인 「日重光」, 「月重輪」, 「星重輝」, 「海重潤」을 가리키는 말이다.
 27 팔백 …… 왕업 : 周나라는 東周 400년, 西周 400년을 유지하였으므로 팔백 년 왕업이란 주나라를 가리킨다.
 28 承華門 : 太子宮의 문 이름이다.
 29 貳極 : 두 번째 높은 자리라는 뜻으로, 왕세자를 지칭한다.
 30 禁苑 : 궁궐의 後苑이다.
 31 입학할 나이 : 원문은 '齒學'으로, 『禮記』, 「文王世子」에서 “한 가지 일을 행함에 사람들이 세 가지 풀을 모두 얻게 되는 것은 오직 세자일 뿐이니, 이는 세자가 學宮에서 年齒를 따짐을 이른다.(行一物而三善皆得者, 唯世子而已, 其齒於學之謂也)”라고 한 데서 연원하였다.
 32 宮箋紙 : 궁중에서 사용하던 종이이다.
 33 曾氏의 史略 : 증씨는 『십팔사략』을 편찬한 元나라 曾先之이며, '사략'은 『십팔사략』을 가리킨다. 서영보가 순조의 글씨를 받았을 때가 甯筵에서 『십팔사략』의 「제요기」편을 강독했을 때였기 때문에 이 구절을 쓴 것이다.
 34 闕 : 于闐을 가리키며, 옛날 서역의 나라 이름으로 좋은 옥의 생산지로 유명하다고 한다.

그중의 「강구요³⁵」와 「격양가³⁵」
 가장 뛰어난 동파³⁶의 「자미편³⁶」이로다
 필력은 중후하여 태산³⁷처럼 고요하고
 마음의 획은 이미 하늘에 영원함을 비는 일³⁷ 접쳤네
 총명하신 생각은 온통 태평성대³⁸에 있으니
 육예³⁹에서 노니시는 것³⁹은 또한 훈화⁴⁰와
 같은 성인을 뒤따르고자 하심이라

글자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아름다워
 열 겹으로 싸 봉래궁⁴¹에서 받들고 나왔네
 책 있는 작은 방 은구⁴² 같은 편액
 보배로 간직하며 집안에 전해 자손들⁴³에게
 경계⁴³하리라

35 康衢謠와 擊壤歌 : 주 14 참조.
 36 東坡의 紫微篇 : 주 24 참조.
 37 하늘에 …… 일 : 원문은 '祈天永'인데 『書經』, 「周書·召誥」편에서 주나라 成王이 도읍을 옮기려 召公을 시켜 먼저 터를 보게 하였는데, 도읍이 완성된 후 소공이 왕에게 “왕께서 덕을 쓰는 것이 하늘의 영원명을 비는 것입니다.(王其德之用 祈天永命)”라고 한 말에서 연원하였다.
 38 태평성대 : 원문은 '熙皞世'인데, '회호'는 '熙熙皞皞'의 줄임말로 和樂하고 自得한 모양, 즉 태평성대를 가리킨다. '회회'는 『老子』에서 사람들은 화락하여 마치 잔칫상을 받은 듯, 봄날 누대에 오른 듯하다.(衆人熙熙, 如享太牢, 如登春臺)라고 한 데서, '호호'는 『孟子』, 「盡心上」에서 “성왕의 백성은 자득한 듯하다.(王者之民, 皞皞如也)”라고 한 데서 각각 연원한 표현이다.
 39 六藝에서 …… 것 : 원문은 '游藝로, 『論語』, 「述而」편에서 “도에 뜻을 두고 德에 의거하며 仁에 기대고 藝에 머문다.(志於道, 據於德, 依於仁, 游於藝)”라고 한 데서 연원한 표현이다.
 40 勸華 : 『書經』에서 堯임금을 放勳이라 하고 舜임금을 重華라 하였다.
 41 蓬萊宮 : 신선이 사는 궁전이다.
 42 銀鈎 : 뛰어난 필법을 형용한 말이다. 『晉書』, 「索靖傳」에서 삭정의 초서 글씨에 대해 사람들이 “아름답기는 은 갈고리 같고, 나무끼기는 놀란 난새 같다.(婉若銀鈎, 飄若鸞鷲)”라고 칭찬한 데서 연원한 표현이다.
 43 자손들 : 원문은 '阿戎'로 원래 다른 사람의 아들을 높여서 부르거나 사촌동생을 지칭하는 표현인데, 여기에서는 문맥상 '자손들'로 번역하였다.

만 년 기쁨을 이어받은 노魯나라의 장수하는 어머니⁴⁴ 萬年承歡魯壽母
 날마다 세 번씩 문안드린 주周나라 문왕文王과 무왕武王⁴⁵ 三朝問安周文武
 원컨대 그대가 화축華祝⁴⁶으로 세자⁴⁷를 축원하면 願君華祝祝离明
 백성들 밭 갈고 우물 파니⁴⁸ 온 세상 사람들⁴⁹ 즐거우리라 耕鑿群生樂率普

原文

我春宮邸下寶齡躋七，睿質天成，時敏日新，令聞四達。右賓客竹石徐公以兩朝碩德，詞苑宗匠，夙夜匪懈，殫誠輔導，克追文清公翼儲故事。

一日晚秀訪公于杞菊小齋，楣顏有扁曰：‘含哺鼓腹擊壤之室’，問其何義。公曰：“此睿翰之仿書也。日者胄筵進講十九史畧帝堯紀，講畢親御翰墨，書下四幅，第一曰壽富多男子，第二曰含哺鼓腹擊壤，第三曰茅茨不剪土階三等，第四曰其仁如天其知如神。其一華封之祝，臣等不敢有獻于邸下，邸下康色而受之，其二賜臣榮輔，其三其四，分賜春桂坊官。臣拜稽袖而歸，永作傳家之寶，以此六字扁于室。臣承此寵光，將爲耕田鑿井不識不知之氓，歌咏睿澤于桑榆日月，豈非至榮大幸乎！”

仍出示睿翰，纔展紙祥光已驚戶牖，及敬覽，結構勻正，神采流動，端嚴敦厚，貴氣盎然。蓋冲齡運筆，得自天機，性情所發，畫前有事，非筆苑臨池之士所可學而能也。乃擊玩累回，不勝欽從，攢頌曰：“有是哉！公之遭遇蒙被

44 魯나라의 …… 어머니 : 『詩經』, 「魯頌·闕宮」편에서, “노나라 임금의 잔치 벌이며 기뻐하시니, 착한 부인과 장수하시는 어머니가 계시는구나.(魯侯燕喜, 令妻壽母)”라고 한 데서 연원한 표현이다.

45 날마다 …… 武王 : 『禮記』, 「文王世子」편에서 “문왕은 세자일 때 王季에 날마다 세 번씩 문안을 드렸다.(文王之爲世子, 朝於王季日三)”라고 하였다.

46 華祝 : 華 지역 封인의 축원을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각주 8번 참조.

47 세자 : 원문은 ‘离明’으로, 『周易』離卦가 밝은 해를 상징하므로 임금의 밝은 덕, 군주 지위의 세습, 세자의 지위 등을 뜻하는 표현으로 쓰인다.

48 밭 …… 파니 : 원문은 ‘耕鑿’인데, 『擊壤歌』에서 유래한 구절로 백성들이 부지런히 노동하며 생활의 안정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49 온 …… 사람들 : 원문은 ‘率普’인데 『詩經』, 「北山」편에서 “하늘 아래 모든 곳 왕의 땅 아님이 없으며, 넓은 땅 끝까지 왕의 신하 아님이 없다.(普天之下, 莫非王土, 率土之濱, 莫非王臣)”라고 한 데서 연원한 표현이다.

之盛，誠曠世異數也。然公方與臯夔元凱，贊章詔而歌星雲，擊壤之野老，非其人也。邸下之書此而賜公者，竊睿意。欲使公承佐聖化，薰陶睿德，德化而成而大猷升，環東土林林葱蔥者，咸得安生樂業，歌帝力於仁壽之域，而槩湖老漁，亦化中物也。”遂相視而笑。

居數日，公膺保釐之命，晚秀蹶而起曰：“竹翁新蒞之職，卽古華封人之所居也。記昔乙卯之春，我寧考奉慈駕幸華宮，稱觴于奉壽堂，設養老宴于洛南軒，鶴髮鳩杖，于于嶠嶠，各獻其年，式至今傳爲盛事。然則壽富多男之祝，於斯乎在；含哺鼓腹之謠，亦於斯乎在。向者睿翰之宣賜，今日竹翁之除命，若有符契者存，奚但公扁于室寶于家而止哉！宗社億万年無疆之基，寔於斯乎在，於乎盛矣！”

晚秀雖屏跡田野，不獲昵覲離光，今於竹翁之寵錫，心竊與有榮焉。謹薰沐記其事，又次蕪長公賜書紫薇詩韵，庸伸延頸之微忱。詩曰：

四重樂歌雷出地，八百洪基種樹戲。承華日闈緝熙筵，貳極門臨禁苑翠。寶齡猶未齒學年，睿知聰明本乎天。竹石居士文清孫，賓師輔導如蒙泉。講罷筵前拜寵賜，雪色宮箋昭回字。曾氏史畧陶唐紀，大筆特書光被四。良玉孚尹出于闔，彩鳳翔舞朝陽鮮。就中康衢擊壤謠，絕勝東坡紫薇篇。筆力重如嶽嶽靜，心畫已卜祈天永。睿思最在熙皞世，游藝亦追勅華聖。字字星斗粲瑤空，十襲擊出蓬萊宮。圖書小室銀鈎扁，寶藏傳家誠阿戎。萬年承歡魯壽母，三朝問安周文武。願君華祝祝离明，耕鑿群生樂率普。

解題

서영보徐榮輔는 순조純祖가 세자일 때 스승이었는데 순조가 직접 쓴 ‘함포고복격양含哺鼓腹擊壤’을 자신의 서재 명칭으로 삼고, 이 일을 이만수李晩秀와 함께 이야기하며 당시의 감흥에 젖었다. 이만수는 그 일을 자세히 서술하여 순조의 덕을 칭송하고 서영보를 격려하는 내용의 기문을 지어 서영보에게 주었다.

| 主題語

이만수李晩秀, 극원履園, 함포고복격양실舍哺鼓腹擊壤室, 서영보徐榮輔,
순조純祖

천풍해도정에 대한 기문

天風海濤亭記



김택영金澤榮(1850~1927), 『소호당문집韶漢堂文集』 권4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 翻譯

지난 갑오甲午·을미乙未년 사이에 천지가 뒤집어져 조정의 선비들 중
에 그만둔 사람이 많았는데 교리郊理 김영의金永儀² 군이 그중 한 명이다.
군의 집은 수원水原 바닷가 장사산壯士山³ 아래에 있는데 바다란 곧 발해
渤海의 동쪽 경계이다. 그를 따라 배우는 자들은 장사산 위로 나아가 기둥
몇 개를 세우고 정자를 만들어 군 및 여러 사람들이 쉬는 장소를 만들었
다. 군은 거기에 ‘천풍해도지정天風海濤之亭’이라는 편액을 쓰고서 조카인
참서參書 응수應洙를 시켜 나에게 말하기를,

“기문을 써 주십시오. 그대는 비록 나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일찍이 그대를
본 적이 있고, 그대의 문장을 좋아함을 그치지 못하였으니, 그대가 뜻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1 갑오…… 뒤집어져 : 갑오년인 1894년에 甲午改革이, 을미년인 1895년에 乙未事變이 일어난 일을 각각 가리킨다.

2 김영의 : 金永儀(1854-?). 1888년 별시문과에 급제하였고 교리를 지냈다. 본관은 광산, 자는 陽叟이다.

3 壯士山 : 『수원읍지』 등에도 등장하지 않는 지명이어서 정확한 위치는 미상이다.

하였다. 나는 수원에 가본 적이 없어 김여금 하여금 한두 번 구술하게 한 다음에야 이른바 천 길이나 우뚝하다는 장사산과, 산자락에 용솟음쳐 산을 침식해 간다는 하늘의 바람과 바다의 파도와, 산의 정상에서 드높이 솟아 있다는 널빤지와 난간, 기둥과 서까래가 비로소 눈앞에 있는 것처럼 방불彷彿하게 되어 정신이 그와 더불어 내달릴 수 있게 되었다.

아아, 천하가 생겨난 지 오래 되었으되 옛 성인은 사라지고 세상의 변화는 층층이 생겨나 오늘에 이르러 극에 달하였다. 군이 찬술繼述한 옛 집안 이름난 선현들의 가업家業과 안에 쌓아 둔 이윤伊尹과 안자顔子⁴의 뜻과 학문으로 어찌 일찍이 하루라도 세상에 나아가 나라에 보답할 생각을 잊은 적이 있었겠는가만, 사정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이른바 하늘에 바람 불고 바다에 파도치는 그 안으로 돌아갈 따름이다. 금마문金馬門과 옥당서玉堂署⁵를 오가던 발걸음 돌려 어물전과 소금장수의 반열에 나아가게 되었고, 관모와 관복 입고 인수印綬 차던 꾸밈을 거두어 샅샅이 쓰고 짚신 나막신 신는 틈에 섞이게 되었으니, 마음에 맺히고 근심이 극에 달하였으리라. 때로 이 정자에 올라 배회한다면 저 아득한 하늘과 바다가 어찌 수천만 리뿐이겠는가. 섬들이 떠 있고 배들은 한가로우며 교룡蛟龍이며 물고기 자라가 출몰하고 오리와 기러기, 거위가 날아오르며, 해와 달, 구름과 안개 선명하여 눈을 어지럽게 하고 천 가지 만 가지 풍경들이 좌우로 어지러이 모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아득하게 근심을 잊게 하는 바가 있으리라. 군은 이것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는가.

그러나 내가 시험 삼아 상상해 보면, 낮이 장차 저녁이 되어 바닷바람이 더욱 불고 바다의 파도가 더욱 몰아치면 흐릿한 가운데 갑작스레 원근과 유무의 사이에서 누가 격경擊磬 양囊을 따라 들어가는 사람⁶이 될 것이며,

4 伊尹과 顔子 : 이윤은 湯임금 때의 제상으로 그를 도와 하나라를 멸망시키고 선정을 베푼 인물이며, 안자는 공자의 수제자인 顔回를 가리킨다.
5 金馬門과 玉堂署 : 翰林院의 별칭인데 여기에서는 조선의 藝文館을 가리킨다.
6 격경 …… 사람 : 『論語』 「微子」편에서 노나라가 쇠락하여 예악이 무너지자 “소사 양과 격경 양은 바다로 들어갔다.(少師陽擊磬囊, 入於海)”고 한 일을 가리킨다.

누가 공자와 함께 뗏목을 타려는 사람⁷이 될 것이며, 누가 노중련魯仲連 선생과 물에 빠지는 사람⁸이 될 것인가. 나는 또한 군의 근심이 때때로 다시 생겨나 오래 머무르지 못할까 저어된다.

| 原文

曩在甲午·乙未之間, 天地翻覆, 朝彥多廢, 校理金君永儀其一也. 君家在水原海口壯士山之下, 海即渤海之東際也. 從學者就壯士山之上, 架數椽爲亭, 以爲娛君及羣息之所. 君爲之署之曰天風海濤之亭, 使從子參書應洙謂余曰: “記之. 子雖不識吾, 吾則嘗見子矣, 好子之文, 不能已也, 子可無意?” 余未至水原也, 使參書口述之一再, 然後所謂壯士山之巖擊千丈者, 所謂天風海濤之蕩瀾齧食於山之趾者, 板檻楹桷之縹緲飛出乎山之頂者, 始彷彿在目中, 而神與之馳矣.

嗚呼, 天下之生久矣, 聖神徂謝, 世變層生, 至于今日而極矣. 以君所繼述故家顯賢之緒業, 及所蘊蓄伊尹顔子之志學, 曷嘗一日忘進身報國, 而事有無可奈何者, 則安歸焉? 歸乎所謂天風海濤之間而已矣. 回金馬玉堂之步, 躡之于魚商鹽賈之班; 斂冠裳佩綬之飾, 混之于簞笠屣屨之間, 心之所結, 憂之所極. 時登乎此亭而盤桓焉, 則彼其天海渺茫, 何翅數千萬里? 島嶼之沉浸, 舟楫之容與, 蛟龍魚鼈之出沒, 鳧鴈鵝鴨之飛止, 日月雲烟之明鮮絢爛, 景狀萬千, 左右紛集, 有可以使人悠然而忘憂者矣, 君其捨此而何之哉?

然吾試想像, 日之將夕, 天風益發, 海波益蕩, 蒼茫倏忽, 遠近有無之際, 孰爲擊磬囊之所從入者乎, 孰爲孔子之所欲桴者乎, 孰爲魯仲連先生之所欲蹈者乎? 吾又恐君之憂有時乎復作, 而不能以久留也.

7 공자와 …… 사람 : 『論語』 「公冶長」편에서 공자는 시대를 한탄하며 “도가 행해지지 않으니, 뗏목을 타고 바다로 떠갈까 보다.(道不行, 乘桴浮于海)”라고 한 일을 가리킨다.
8 노중련 …… 사람 : 노중련은 戰國時代 齊나라 사람으로, 秦나라의 신하가 되느니 차라리 “동해에 빠져 죽겠다.(蹈東海而死)”라고 한 일을 가리킨다.(『史記』 「魯仲連列傳」 참조)

| 解題

김영의 金永儀의 제자들은 그와 더불어 설 목적으로 장사산 아래에 천풍해도정 天風海濤亭을 짓고서 1898년(광무 2)에 김택영 金澤榮에게 기문을 부탁하였다. 그는 이 글에서 김영의가 때를 만나지 못해 물러나게 됨을 아쉬워하면서 종종 이 정자에 올라 근심을 풀 것을 주문하였다.

| 主題語

김택영 金澤榮, 소호당 韶護堂, 천풍해도정 天風海濤亭, 장사산 壯士山, 김영의 金永儀



명륜당을 중수한 일에 대한 기문

明倫堂重修記



이경원 李慶遠, 『수원부읍지 水原府邑誌』

| 翻譯

옛날에는 정치를 할 때 학교 學校보다 우선시되는 것이 없었다. 학교란 인재를 교육시키고 풍속을 교화하는 근본이다. 삼대 三代의 정대한 시대에는 정치가 융성하고 풍속이 아름다워 현명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무수히 있었던 것이 어찌 다른 방법이 있어서였겠는가. 가 家에는 숙塾이 있고 당 黨에는 상庠이 있으며 술 術에는 서序가 있고 국 國에는 학 學이 있어, 사 四術²을 숭상하고 사교 四教³를 세워 봄과 가을로는 예악 禮樂을 가르치고 겨울과 여름으로는 시서 詩書를 가르쳤으니, 계발하고 이끌어 완성시키는 방법에 또한 모두 차례와 등급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학교 제도는 옛날의 제도를 모방하여 서울에 국학 國學을 세우고, 또 고을에 따라 각기 향교 鄉校를 두어 전 殿, 무 廡, 문 門, 당 堂, 재 齋,

1 家에는 …… 있어 : 「禮記」, 「學記」편의 구절이다. 500가구를 黨이라 하고, 10리(1리 100가)를 術이라 하였다. 塾, 庠, 序, 學은 모두 학교의 명칭이다.
 2 四術 : 詩, 書, 禮, 樂 등 네 가지의 經術을 일컫는 말이다.
 3 四教 : 옛날의 네 가지 교육 과목으로, 文, 行, 忠, 信 또는 詩, 書, 禮, 樂 등으로 다양하게 언급된다. 본문에서는 앞서 사술이 거론되었으므로 문, 행, 충, 신의 네 과목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서序, 고庫, 예廡, 포廡, 벽溜이 또한 모두 규범과 법도가 있었다. 유자儒者⁴들로 하여금 그 사이에서 학업을 연마하고 휴식을 취하며⁵, 성현들을 우러러 흠모하고 칭송하며 본받게 하도록 하였으니, 그 처음 세운 뜻이 여기에서 성대해졌다 하겠다.

후대에 이르러 선비를 기르는 정치가 점차 쇠락하여 지방 고을의 학관學官도 폐지되었으니, 수령이 된 자들이 실로 사유師儒⁶의 책임을 겸하였으나 회계 보고⁷를 급선무로 여기고 소송을 판결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학교의 가르침을 잘 닦고 밝혀 역복械櫟의 교화⁸를 돕는 사람이 적었다. 이 때문에 학교의 명칭이 비록 있어도 그 실질은 행해지지 않아 현악에 맞추어 노래하는 소리⁹가 들리지 않고 예속禮俗이 진작되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논의를 서로 견주어 보며 격렬하게 다투니, 강당에서 읊하고 사양하는 강당이 싸우는 곳이 되어버렸다. 이는 견식이 있는 자들이 깊이 개탄하는 일이다.

나는 유독 수성백隋城伯 조후趙侯¹⁰가 정치에서 학교를 앞세움에 깊이 감탄하며 이를 기록하여 후세에 보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현종顯宗 경자년(1660, 현종 1)에 수원부 향교를 옮겨 지으면서 명륜당의 기초를 쌓았는데 날이 춥고 땅이 습하여 견고하게 완성하지 못하였다. 세월이 오

4 儒者 : 원문은 '布衣博帶'인데, '포'는 보통 '褒'로 쓰며, "넉넉한 옷과 큰 허리띠"라는 뜻으로 유학자들의 일반적인 차림새를 의미한다.
 5 學업을 …… 취하며 : 『禮記』 「學記」 편에서 "군자는 학문을 함에 (太學에서) 학문에 전념하며 휴식을 취한다.(君子之於學也, 藏焉修焉, 息焉游焉)"라고 하였다.
 6 師儒 : 고대의 敎官 혹은 學官을 가리키는 말로, 여기에서는 향교의 총책임자인 都有司를 지칭한다.
 7 회계 보고 : 원문은 簿書期會로, 지방 정부의 한 해의 회계를 장부에 정리하여 규정된 기한 내에 중앙 정부에 보고하는 일을 가리킨다.
 8 械櫟의 교화 : 『械櫟』은 『詩經』 「大雅」의 편명으로, 문왕이 인재를 잘 등용하여 백성들을 교화하였음을 찬미한 노래이다.
 9 현악에 …… 소리 : 예악으로써 교화함을 뜻한다.
 10 隋城伯 趙侯 : '수성'은 수원의 별칭이며, '백'은 지방 장관을 뜻하므로 수원 부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조후'는 趙正萬(1656~1739)으로, 본관은 林川이고 자는 定而, 호는 寤齋이다. 1681년(숙종 7) 진사가 되어 수원 부사, 형조 판서 등을 역임하고 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문집 『寤齋集』이 전한다. 그는 1726년(영조 2) 9월에 수원에 부임하여 1727년 6월에 충청 감사로 옮겼다. 한편 본문의 주석에서는 '正'이 '定'으로 되어 있는데 오류이다.

래지 않아 곧바로 기울고 무너져 내렸으니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을 바라보면 탄식이 일었다. 조후는 처음 부임해 와서 옛 규례에 따라 공자의 사당을 배알拜謁하였는데, 물리나 이 당에 앉아 우러르고 굽어보며 크게 한숨 쉬고 말하기를,

“큰 집이 장차 기울어지려 할 때 나무 하나로는 지탱하기 어렵다.”¹¹라고 한 말이 이것을 말함인가.”

하고는 마침내 고쳐 지을 생각을 하여, 재생齋生¹²인 유흥기俞興基 대재大哉, 운함尹誠 성재成再, 정만장鄭晩章 대기大器, 이의현李益鉉 중찬仲燦, 민상우閔相禹 사익士益, 윤후尹侯 대중大仲과 함께 공사를 계획하고는 장차 적당한 때에 공사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전에 부백府伯인 김후金侯 러礪¹³가 이미 이 일에 뜻이 있어서 월급에서 약간의 쌀을 털어내어 경비에 밀친을 대었다. 얼마 되지 않아 관직이 바뀌어 떠나가게 되자 조후가 그 실마리를 따라 여러 가지로 일처리를 하여 다시 돈 수백 꿩미와 쌀 10여 곡斛¹⁴을 얻었다. 재력이 이미 갖추어져 일은 모이지 않음이 없게 되었으니, 백성을 부리지 않음에도 사람들이 모여들고 농번기를 방해하지 않음에도 틈이 생겨, 병오년(1726, 영조 2) 9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이듬해 4월에 끝났다. 마침내 날을 정해 낙성하였는데, 조후가 재齋에 나아가 고하기를,

“이 명륜당을 지은 것은 아름다운 경관을 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대개

11 큰 …… 어렵다 : 隋나라 王通의 『中說』 「事君」 편에서 “文中子가 물리나 董常에게 말하기를, ‘큰 집이 장차 무너지려 하면 나무 하나로는 지탱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文中子)退而謂董常曰: ‘大廈將顛, 非一木所支也.’”라는 말을 인용한 것이다.
 12 齋生 : 성균관 또는 향교에서 기숙하며 공부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居齋 儒生의 줄임말이다.
 13 金侯 礪 : 김려(1675~1728), 본관은 慶州이고 자는 用汝, 호는 雪齋이다. 1713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경기도사, 수원부사, 충청도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문집 『雪齋集』이 전한다. 그는 1725년(영조 1)부터 1726년(영조 2)까지 수원 부사로 근무한 바 있고, 그의 후임자가 바로 조정만이다.
 14 斛 : 10말을 1푼이라 한다.

장차 여러분들을 선왕의 도로 인도하여 무릇 효제孝悌의 가르침과 예양禮讓의 절도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옛 성인들은 지역 사람들의 예를 제어하여 현명한 사람을 존경하고 노인을 봉양하게 하였으니 효제와 예양이 여기에 갖추어졌다. 그러므로 『예기禮記』에서 이르기를 ‘지역을 관찰하면 왕도王道가 편리함을 알 것이다.’¹⁵라고 하였던 것이니, 이미 이 명륜당을 새롭게 하였는데 어찌 이 예를 행하여 그 실질을 닦지 않겠는가.”

하니 모두가 말하기를,

“알겠습니다.”

하였다.

이에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신정申愷을 주빈으로, 장헌掌憲¹⁶ 최도문崔道文과 침랑寢郎¹⁷ 윤관주尹觀周를 개선介僎¹⁸으로 삼고, 조후가 직접 주인이 되어 예를 행하였다. 원근의 유자儒者들이 듣고서 모두 구름처럼 모여들어, 때때로 자리에 올라 제물을 바치고¹⁹ 「녹명鹿鳴」²⁰편을 노래하였으며, 술잔을 주고받으며 오르내림에 절도가 있었다. 악정樂正²¹이 준비를 아뢰고 사정司正²²이 예식을 감독하니,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위엄 있는 몸가짐을 공경히 하고 삼가며 그 선한 마음을 일으켜 감탄하지 않는 사람

15 지역을 …… 것이다: 『禮器』, 『鄉飲酒禮』편의 구절이다.

16 掌憲: 掌命(司憲府의 정4품 벼슬)의 다른 말이다.

17 寢郎: 조선시대에 종묘, 능 등의 승과 參奉 등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다.

18 介僎: 고대의 향음주례에서 보좌 역할을 맡는 사람으로, 주빈을 돕는 사람을 '개'라 하고 주인을 돕는 사람을 '진'이라 하였다.

19 제물을 바치고: 원문은 '折俎'인데 犧牲을 찢어 祭器에 담은 것 또는 그러한 행동을 가리키는 말이다.

20 鹿鳴: 『詩經』, 『小雅』의 편명으로, 毛序에서 “여러 신하와 좋은 손님을 대접하는 시이다.(燕群臣嘉賓也)”라고 설명하였다. 여기에서 연원하여 임금이 신하들에게 베풀어 주는 잔치 또는 고을의 장관이 과거 시험관 및 합격자들을 초청하여 베푸는 잔치를 녹명연이라고 한다.

21 樂正: 周나라 때 樂官의 장으로, 國學에서 음악 교육을 담당한다.(『禮記』, 『王制』편 참조) 조선시대에는 성균관에서 음악을 가르치던 종4품 벼슬인 司藝를 악정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22 司正: 鄉飲酒禮에서 예식을 감독하는 사람이다.

이 없었다. 아아, 예교禮教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이렇게 빠른 것인가.

일이 끝나고 나서 다음 날에 양로예養老禮²³를 거행하였고 또 다음날에 향사례鄉射禮²⁴를 거행하였다. 단지 건물이 장차 기울어지려는 것을 우뚝하게 수리했을 뿐만 아니라 성주成周 시대²⁵의 성대한 예식이 폐기되어 거행되지 않던 것을 순서대로 모의하여 실행하였으니, 진실로 다스림의 요체와 백성을 교화하는 근본을 깊이 아는 자가 아니라면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이후에 부사가 되는 사람이 조공의 아름다운 행적을 계승할 수 있다면 다시 희공姬公²⁶의 예를 행하고 개미가 배워 익히는²⁷ 교화를 고무시킬 것이다. 또 선비 된 자들 또한 조후가 교육하고 이끄는 뜻을 계승할 수 있다면 보고 느끼고 흥기興起하여 우리 마음에서 돌이켜 추구하여, 백성의 몇몇한 도리와 만물의 법칙의 근본이 본성에 갖추어져 있음을 알아 효제孝悌와 예양禮讓의 실질을 닦고 실천하게 되리니, 안으로 부모를 섬기고 밖으로 어른을 섬긴다면 수월한 지역에서 장차 문명 교화가 잘 펼쳐지고 민속이 날로 변함을 보게 되리라. 그리고 교화가 미치는 곳마다 또한 반드시 사방 고을에서 흠모하여 행실을 본받으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그 미치는 바가 넓어지며 선왕이 학교를 세우는 정치가 또한 이로 인하여 점차 부활될 것이다. 이 어찌 유독 조후한 사람만의 의로움이겠는가. 수원의 많은 선비들에게 다행스러운 일이다. 내가 “기록하여 후세에 보이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은 단지 건물 하나만의 형세와 공정을 기록할 만하다고 한 것이 아니다.

23 養老禮: 나이가 많고 덕망이 있는 노인들을 때에 따라 초대하여 술과 음식을 제공하며 공경하고 예를 표하던 예식이다.

24 鄉射禮: 周나라 때 鄉學에서 인재를 천거할 때 활쏘기를 통해 실력을 가리던 행사를 가리킨다. 후대에는 향교에서 잔치와 더불어 시행함으로써 도덕의 흥기를 도모하던 의식이 되었다.

25 成周 시대: 周나라 周公이 成王을 보좌하던 태평성대를 일컫는 말이다.

26 姬公: 周公 묘를 가리킨다.

27 개미가 …… 익히는: 원문은 ‘蟻術’로, 『禮記』, 『學記』에서 “개미는 수시로 흙을 물어 나르는 일을 배워 익힌다.(蟻子時術之)”라고 하여 꾸준히 학문에 몰두하는 것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쓰인다.

조후(이름은 정만正萬, 자는 정이定而이다)는 일찍부터 시詩를 잘하여 명성이 있었고, 사마시司馬試에 장원하고서 여러 차례 수령守令이 되었는데 그때마다 잘 다스린 것으로 가장 잘 알려졌다. 마침내 발탁되어 수원 부사에 제수되는 데 이르렀다가 다시 호서 관찰사湖西觀察使로 영전하였으니, 조정에서 칭찬하며 등용하는 것이 대개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랐다.

1 原文

古者, 爲政莫先於學校. 學校者, 教育人才, 導達風化之本也. 三代盛際, 所以治隆俗美, 而賢才蔚興者, 豈有他道! 以家有塾, 黨有庠, 術有序, 國有學, 崇四術, 立四教, 春秋教以禮樂, 冬夏教以詩書, 啓牖²⁸作成之方, 亦皆有次第品節故也.

惟我國家學校之制, 依倣于古昔, 旣立國學於京師矣, 又於遂州遂縣, 各置鄉校, 而殿廡門堂齋序庫庖廡, 亦皆有規度. 使布衣博帶之士, 莊修遊息於其間, 興慕誦法乎聖賢, 其創始之義, 於是乎盛矣.

逮夫後來, 養士之政漸衰, 而外州之學官又廢焉, 則爲守宰者, 實兼師儒之責, 而惟以簿書期會爲急, 訟獄聽斷爲重, 而鮮能修明庠序之教, 以贊棧樸之化者. 是以學校之名雖在, 而其實不舉, 弦歌無聞, 禮俗不興, 甚或至於言議相較, 忿爭乖激, 鬻堂揖讓之地, 便作鬪鬪之場, 此有識之所深慨也.

余獨於隋城伯趙侯之政先學校, 深有感歎, 坊以爲此不可不書以示後也. 本府鄉校移建, 在於顯廟庚子年 明倫堂築基, 以時寒地濕, 不克堅完. 歲月不久, 就傾頽圯敗, 屋支柱觀瞻興歎. 趙侯下車之初, 以故事謁夫子廟下, 仍退坐斯堂, 俯仰太息曰: “大廈將傾, 隻木難支者, 此之謂也.” 遂有改創之意, 與齋中儒生俞興基大哉·尹誠姓再·鄭晚章大器·李益鉉仲燦·閔相禹士益·尹侯大仲, 商度功役, 而將及時經治之前, 府伯金侯礪已有志斯, 出捐月

28 牖: 문맥상 '牖'로 보아야 한다.

俸如千米斛 資其經費. 未幾移官而去, 趙侯因其緒而多般料理, 又得錢數百緡, 米十餘斛. 財力旣俱, 事無不集, 不役民而募, 不妨農而隙, 始工於丙午九月, 告訖於明年四月. 遂卜日落城, 趙侯進齋而告之曰: “斯堂之設, 非爲觀美而止也. 蓋將導諸生以先王之道, 使知夫孝悌之教, 禮讓之節也. 古之聖人, 制鄉人之禮, 尊賢養老而孝悌禮讓備焉. 故記曰: ‘觀於鄉, 而知王道之易易’, 旣新斯堂, 盍行斯禮, 以修其實?” 僉曰: “諾.”

乃戎申同樞愷爲賓, 崔掌憲道文·尹寢郎觀周爲介僕, 趙侯自爲主人而行禮焉. 遠近章甫, 聞皆雲集, 往往登筵, 薦折俎, 歌鹿鳴, 獻酬交錯, 乘降有節. 樂正告備, 司正董禮, 凡在位者 莫不敬慎其威儀 興歎其善心. 吁, 禮教感人之速, 有如是夫!

旣卒事, 明日行養老禮, 又明日行鄉射禮. 不但棟宇之將傾者, 翼然改觀, 成周盛禮之廢而不舉者, 次第講行, 苟非深知爲治之要, 化民之本者, 烏能及此哉!

使後之莅是府者, 能繼趙公之美, 而復行姬公之禮, 鼓動蛾術之化, 而爲士者, 亦能承趙侯教迪之意, 因其觀感興起, 而反求諸吾心, 知夫民彝物則之本俱於性, 而修行孝悌禮讓之實, 入以事其父兄, 出而事其長上, 則隋城一域, 將見文教之克闡, 民俗之日變. 而風聲所暨, 亦必有四方郡縣之興慕而效行者, 則其所及者廣, 而先王學校之政, 亦皆因此而漸復矣. 豈獨爲趙侯一人之義, 隋城多士之幸而已哉! 余所謂不可不書以示後者也, 不但一堂面勢工程可記也.

趙侯【名定²⁹萬, 字定而】早有能詩聲, 魁司馬, 累典州府, 輒以治最聞. 遂至擢拜隋城伯, 又轉湖西觀察使, 朝家獎用, 盖異常調云.

29 定: 正의 誤字이다.

| 解題

수원부水原府 향교鄉校의 명륜당明倫堂은 1660년(현종 1)에 처음 지어진 후 건물이 기울고 무너지게 되자 1726년(영조 2) 당시 부사였던 조정만趙正萬의 주도로 다시 지어졌다. 이에 대해 이경원李慶遠이 기문記文을 지어 학교 제도의 역사와 의의를 설명하고, 수원 명륜당 중수 관련 사실을 정리하였다. 다만 어떤 경위로 언제 그가 기문을 지었는가는 확인되지 않는다.

| 主題語

이경원李慶遠, 조정만趙正萬, 명륜당明倫堂, 향교鄉校, 수원水原, 예교禮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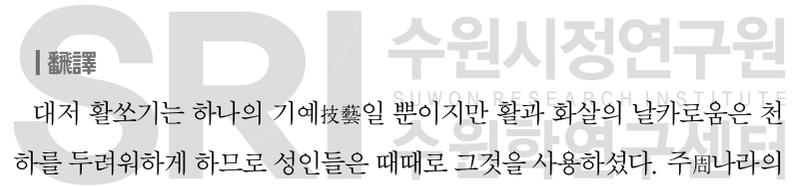


임금께서 낙남헌에서 활쏘기를 하신 일에 대한 기문

洛南軒御射記



윤행임尹行恣(1762~1801), 『석재고碩齋稿』 권12



| 翻譯

대저 활쏘기는 하나의 기예技藝일 뿐이지만 활과 화살의 날카로움은 천하를 두려워하게 하므로 성인들은 때때로 그것을 사용하였다. 주周나라의 동관東官에는 궁인弓人의 직책이 있었으니 대체로 역시 그 덕행을 여기에 서 볼 수 있다. 내면의 뜻이 바르면 외부의 몸가짐이 옳게 되며, 살피는 것이 확고한 후에야 비로소 그 적중을 말할 수 있으니,¹ 활쏘기에는 어짊의 도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적중하는 것은 너의 힘이 아니다.”²라 한 것이니, 이는 성인聖人と 범인凡人이 나뉘는 까닭이다.

생각건대 우리 임금께서 왕위에 오르신 지 20년이 되는 을묘년(1795)은 우리 현릉원顯隆園과 자궁慈宮께서 탄신하신 지 회갑回甲이 되는 해이다. 그 2월 윤달에 임금께서는 자궁을 모시고 현릉원에 참배하고 향례享禮

- 1 내면의 …… 있으니 : 『禮記』 「射義」에서 “내면의 뜻이 바르고 외부의 몸가짐이 옳은 후에야 활과 화살을 쥐는 것이 세밀하고 견고해지며, 활과 화살을 쥐는 것이 세밀하고 견고한 다음에야 적중을 말할 수 있으니 이는 덕행을 살필 수 있는 것이다.(內志正, 外體直, 然後持弓矢審固, 持弓矢審固, 然後可以言中, 此可以觀德行矣)”라고 한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 2 적중하는 …… 아니다 : 『孟子』 「萬章下」편에서 “과녁에까지 이르는 것은 너의 힘이지만 적중시키는 것은 너의 힘이 아니다.(其至爾力也, 其中非爾力也)”라고 한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를 행하시고서 화성부華城府로 돌아오시어 연례燕禮³를 행하셨다. 임금께서 자궁께 축수祝壽⁴하고 노인들과 여러 은퇴한 관리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시고, 이로 인하여 여러 신하들과 함께 친히 낙남헌洛南軒에서 활쏘기를 하시어 다섯 발을 연달아 적중시키셨는데, 적중시킬 때마다 즐거움이 절도에 맞았고 호위하는 무사들이 모두가 천세千歲를 외쳤다.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천자는 사궁射宮⁵에서 (공사貢士들을) 시험하였는데, 그 몸가짐이 예에 맞고 그 절도가 악에 맞으면 많이 적중시킨 자는 제사에 참여할 수 있다.⁶

하였고, 『시경』에 이르기를

크고 작은 관리들 제자리에 있지 않고

임금 계신 곳에 모시고서

연례燕禮를 행하고 사례射禮를 행하니

편안하면서도 영예롭다⁷

하였다. 무릇 (임금께서) 난연鸞輦을 따라가 선침에 제사 올리심은 마치 살아계신 듯 사모하심이요, 술잔을 올리고 축수祝壽하심은 받들어 기뻐하시는 정성이며, 우리 노인들에게 나아가 잔치를 베풀도록 하교하심은 석류錫類⁸의 덕이다. 이미 향례를 행하시고 연례를 행하셨으며, 연례를 행

3 燕禮 : 조정에서 군신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베푸는 연회를 가리킨다. 엄격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의식이다.

4 祝壽 : 장수를 기원한다.

5 射宮 : 천자가 大射禮를 행하는 곳으로, 선비들을 시험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6 천자는 …… 있다 : 『예기』 「射義」의 내용이다.

7 크고 …… 영예롭다 : 이 시는 현전 『시경』에는 보이지 않으며, 『예기』 「사의」편에 실려 전하는 逸詩이다.

8 錫類 : 효자의 덕행이 널리 퍼져 사람들을 감화시킴을 말한다. 『시경』 「既醉」편에 “효자가 효도를 그치지 아니하니, 길이 너에게 선함을 주리라.(孝子不匱, 永錫爾類)”라고 하였다.

하시고 다시 사례射禮를 행하시니, 또한 주관周官의 사례와 그 뜻은 마찬가지로이다. 아아, 성대하도다! 이는 참으로 성인의 활쏘기로서 더할 바 없이 좋은 것이구나. 하물며 새로운 고을에 성을 쌓고 그 거처를 장대하게 하시며, 몸소 활과 활을 가지고 쏘시면 머물거나 뜨지 않았으니, 성인의 작은 뜻을 우러러 알 수 있겠다. 그리고 내면이 올바르고 외면이 옳아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이 천지 가운데 절로 부합하시니 어찌 사람의 힘으로 미칠 수 있는 것이겠는가. 자공子貢이 말하기를,

“그 음악을 들으면 그 덕을 알 수 있다.”⁹

라고 하였으니, 신은 이 활쏘기를 보고서 성인의 덕의 만분의 일이라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原文

夫射一藝耳，然弧矢之利，以威天下，聖人有時用之也。周之冬官，有弓人之職，蓋亦觀其德行焉爾，內志正，外體直，審固而後，始言其中，則射有仁之道，故曰其中非爾力，此聖凡之所以分也。

惟我聖上御極之二十年乙卯，卽我顯隆園暨慈宮誕彌回甲之歲也。其仲春之閏，上陪慈宮，謁于園，行享禮，還御華城府，行燕禮。上壽于慈宮，召耆耄庶老賜之宴，因與諸臣親射洛南軒，五矢連獲，獲輒樂以節之，衛士皆呼千歲。禮曰：“天子試之於射宮，其容體比於禮，其節比於樂，而中多者得與於祭。”詩曰：“小大莫處，御于君所，以燕以射，則燕則譽。”夫陪鸞享寢，如在之慕也；稱觴祝齡，奉歡之誠也；造我黃髮，式讌以教，錫類之德也。既享而燕，燕而復射，又與周官之射禮，其義一焉。於乎盛哉！此真聖人之射而無以

9 그 …… 있다 : 『맹자』 「公孫丑 上」에 나오는 말이다.

尙矣. 况城于新邑, 以壯厥居, 而躬御弧矢, 發不留揚, 則聖人之微意, 有可以仰認. 而內正外直, 無過不及, 自合乎天地之中, 豈人力之可及哉! 子貢曰: “聞其樂而知其德, 臣請觀於是射, 而知聖人之德之萬一也.”

| 解題

정조正祖는 1795년의 현릉원 원행園行 때 연례燕禮와 사례射禮를 행하였는데, 윤행임尹行恁은 기문을 지어 이 사실을 기록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전통적으로 유가에 전승되어 온, 활쏘기의 철학적 의미를 상기하면서 정조가 성인의 품모를 유감없이 보여 주었음을 칭송하였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 主題語
석재碩齋, 윤행임尹行恁, 현릉원顯隆園, 정조正祖, 낙남헌洛南軒, 어사御射, 연례燕禮, 사례射禮

화청관에 대한 기문

華請館記



홍원섭洪元燮(1744~1807), 『태호집太湖集』 권5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 翻譯
수원시정연구원

화성華城의 부치府治를 옮겨 지은¹ 지 5년이 되는 계축년(1793, 정조 17), 처음으로 관제官制를 고쳐 도호부都護府를 유수부留守府로 승격시키고 부사府使는 유수 겸 행궁관리사留守兼行宮整理使 장용 외사壯勇外使로 정2품의 품계가 되었다. 후 특별히 장상將相을 제수하여 8관찰사觀察使 2분사分司의 위에 있게 하여 이에 관직이 높아질수록 직책도 신임 받게 되었으니, 우리 만 년 선침仙寢의 땅²을 융성하고 아름답게 하는 일이다. 이에 그 관문을 보완하고 그 울타리를 두텁게 한 일이 참으로 윤희를 받아 갖추어지게 되었다.

옛 제도에는 통판通判³ 1명이 있어 공무를 맡아 보았는데, 이에 이르러 다시 설치하고 외영종사外營從事를 겸하게 하고서 그로 하여금 대부大府⁴를 받들어 보좌하게 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옛 부사의 직책과 같이 하면서

1 화성의 …… 지은: 『水原郡邑誌』에 따르면 원래 수원부 읍치는 龍伏面에 위치해 있었으나 1789년(정조 13)에 顯隆園을 옮겨 오면서 新機里로 옮겼다.
2 만 …… 땅: 思悼世子の 顯隆園이 있는 화성 지역을 가리킨다.
3 通判: 判官을 일컫는 말이다.
4 大府: 상급 관청을 일컫는 말이다.

지휘하고 보고하며 임면任免하게 하였으니, 유수를 대하는 것이 마치 다른 수령이 감사監司⁵를 대하는 것과 같게 되었다. 얼마 뒤에 인부印符⁶를 하사하고 녹봉祿俸을 설치하여 노비와 아전을 나누고, 유수는 그날로 관청을 설치하였다.⁷ 그런데 통판에게는 관사館舍가 없었으므로 당초 임금께서 안성군 守安城郡守 김노성金魯成이 재주와 공적이 모두 넉넉하므로 행재소行在所⁸로 불러 오게 하여 통판에 제수하시고, 어명御命으로 기초로부터 하나를 설치하고 하나를 배푸는 데에도 모두 품지稟旨⁹를 거치게 하셨다.

이해 3월에 김후金侯가 행궁의 동쪽 몇십 걸음쯤 되는 것에 관아 터를 살펴보고 나무와 돌을 모으고 기와와 벽돌을 쌓아, 장정은 모두 고용하여 백성들은 일이 있는지 듣지도 못했지만, 관아의 안팎으로 곳간과 공해公廩, 부엌과 마구간이 1년도 되지 않아¹⁰ 완성되었다. 임금께서는 통판의 관아가 완성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다시 신臣 노성을 불러 직접 쓰신 큰 글씨 ‘화청관華誦館’ 3자를 하사해 주시고 그 정사를 보는 당堂에 걸도록 하셨다. 성대하도다, 이 또한 다른 고을에서는 없었던 일이었다.

적이 없드려 ‘화청華誦’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화華 땅을 순행巡幸한다.’¹¹ 라는 말에서 취한 것이다. 대개 관리는 요충 임금의 관리가 되고 백성은 요 임금의 백성이 되어, 지위가 높다고 해서 위에서 임금 보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지위가 낮다고 해서 아래에서 요구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게끔 하고자 하신 것이다. 임금께서 뜻을 붙인 것이 심원하니, 다만 그로 하여금 축복을 바라게만 하신 것은 아닐 따름이다.

무릇 화성에 통판이 있는 것은 옛날에 봉인封人¹²이 있는 것과 같다. 우리 임금께서는 숭고하고 넓은 덕으로 국이나 담장을 보고도 그리워하는 마음¹³을 지니셨으니, 해마다 정월이 되면 선조의 원침園寢에 예를 올리셨다. 수레는 반드시 화성華城을 지나면서 세금을 줄이고 곤궁함을 구휼하시며 재주를 시험하고 공적에 상을 내리시어, 단비가 흘러내리는 듯한 은택이 화성 지역에 빛나게 흘러넘쳤다. 그러니 임금께서 친히 백성을 가까이 살피시며, 눈¹⁴을 돌려 노인에게 지문을 구하시는¹⁵ 것이 또한 요 임금이 화 지역을 살피신 것과 같다고 하겠다.

요 임금이 천하를 다스리신 지 50년 만에 백성은 화목하고 풍속은 밝아졌지만, 그럼에도 오히려 화 땅에 가 백성을 살피셨으니, 그 뜻은 다스려지고 다스려지지 않고의 근심이 없었던 적이 없으셨다. 만약 화 땅의 사람들이 윗사람에게 신임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봉인이라는 자 역시 요 임금의 신하일 것이니, 비루하더라도 반드시 은밀한 데서 문란하면서 축원을 올리며 아첨하는 데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들은 이미 요 임금으로부터 봉해지고 요 임금의 신하로 자라오면서 그 화락하고 밝음을 보았으니, 바라보면 구름 같고 나아가면 태양과 같아 장수와 부유함과 아들 많이 낳기를 축원한 것은 정성이 말로 드러나고 사랑이 축원에 드러남에도 성대하여 그만둘 수 없는 것이 있음이리라. 이제 우리 동방의 땅 수천 리를 통틀어 경작하고 우물 파며 쉬는¹⁶ 자들 중에 누

5 監司 : 觀察使의 다른 명칭이다.
 6 印符 : 印綬, 즉 관리의 증표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7 유수는 …… 설치하였다 : 1793년(정조 17) 水原都護府가 華城留守府로 승격되면서 유수는 화성행궁에서 업무를 보게 되었고, 유수를 보좌하는 관관은 별도로 지방행정을 주관하는 貳衛(두 번째 관아)를 설치하였던바, 그것이 바로 화청관이다.
 8 行在所 : 임금이 거동할 때 머무르는 곳이다.
 9 稟旨 : 임금께 아뢰어 敎旨를 받는 일이다. 여기에서는 일일이 임금(정조)의 확인을 받고 일처리를 했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10 1년도 …… 않아 : 원문은 ‘不寒暑’인데 겨울과 여름이 한 번씩 지나가지 않은 때라는 의미이므로 1년도 되지 않았음을 가리킨다.
 11 華 …… 巡幸한다 : 堯 임금이 華 땅을 시찰할 적에 그곳의 封人(국경을 지키는 관리)이 요 임금에게 아뢰기를 “아, 성인을 축원하노니, 성인께서 장수하고 부유하고 아들 많이 두게 하소서.(噫, 請祝聖人, 使聖人壽, 富, 多男子)”라고 하였다는 고사가 있다.(『莊子』, 『天地』편 참조)

12 封人 : 옛날의 관직 이름으로, 사적과 경계 지역을 지키는 일을 담당한다.
 13 국이나 …… 마음 : 순 임금은 요 임금이 세상을 떠난 후에 추모하는 마음이 지극하여 자리에 앉으면 요 임금이 담장에서 보이는 것 같고, 밥을 먹으면 국그릇에 요 임금의 얼굴이 아른거렸다는 고사가 전한다.(『後漢書』, 『李固列傳』, 참조)
 14 눈 : 원문은 ‘重瞳’인데 이 말은 겹눈동자라는 뜻으로, 舜 임금이 겹눈동자였으므로 후대에는 제왕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15 노인에게 …… 구하시는 : 원문은 ‘黃髮’인데 『書經』, 『秦誓』편에서 “이 누런 머리카락 노인들에게 지문을 구하면 잘못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尙猷詢茲黃髮, 則罔所愆)”라고 한 말에서 연원한 표현이다.
 16 경작하고 …… 쉬는 : 원문은 ‘耕鑿作息’인데, 요 임금 때 정치가 잘 되어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불렀다는 擊壤歌에서 연원한 표현이다.

가 성인聖人의 장수와 부유함과 아들 많기를 원하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우모羽旄¹⁷의 아름다움은 오직 화성 백성들만이 해마다 항상 보는 것이다. 임금께서는 이곳에서 행차를 쉬어 가실 적에 반드시 그 수령을 불러 백성들의 괴로움을 물어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가렴주구苛斂誅求¹⁸가 일어났느냐? 접대¹⁹가 괴롭느냐? 도랑과 밭두둑은 하자가 있느냐? 자제들은 폐단이 있느냐?”

하셨으니, 무릇 화성에서의 근심거리라면 앞에서 다 이야기하게 하지 않으심이 없었다. 옛날의 행행幸이란 이것을 말하는 것이었다. 만약 작은 시내가 하수河水가 맑아지는²⁰ 데 방해가 된다면 이는 수령이 우리 임금의 공평한 교화를 잘 선양하지 못하는 것이니, 직책을 욕되게 하는 것이 누가 더 심하겠는가.

이 때문에 임금께서 이 공관公館에 이름을 하사하실 때 요 임금의 말이라 해서 사양하지 않고, 백성들이 즐겁고 화평한 모습 보기를 기약하신 것이니, 봉인封人이 장수와 부유함과 아들 많이 낳기를 이야기한 것은 참으로 온화한 모습 보기를 그만둘 수 없는 마음에서 우려난 것이어서 이 또한 우리 임금께서 스스로 닦으신 공이라 하겠다. 김후가 화성의 관관이 된 일 같으면 처음으로 용이 빛나는 듯한 보배로운 붓글씨를 받은 것은 특별히 김후에게 영광스럽고 특이한 일이니, 이는 그가 규범을 수립하고 교화를 밝혀 성인의 다스림으로 인도하고 고양시켜 「천보天保」²¹편과 「중사蠡斯」²²

17 羽旄: 임금이 거동할 때 쓰는, 깃을 꽂은 모자이다. 임금을 가리키는 표현으로도 많이 사용된다.
18 苛斂誅求: 세금을 혹독하게 거두고 백성들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는다는 의미의 한자성어이다.
19 접대: 원문은 '供億'으로, 필요한 물건을 헤아려 지급한다는 의미에서 접대한다는 의미가 파생된 단어이다.
20 河水가 맑아지는: 원문은 '河清'인데, 黃河의 물이 맑아진다는 뜻으로 태평성대가 찾아오게 됨을 비유하는 표현이다.
21 天保: 『詩經』의 편명으로, 정사를 잘 펴는 군주를 칭송하는 내용의 작품이다.
22 蠡斯: 后妃가 투기심이 없고 자손이 메뚜기처럼 번성하여 和樂한 복을 누린다.

편을 임금의 수레²³ 다니는 길에서 올려퍼지게 하는 것이 그 직책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나는 이 고을의 수령이 되어 다행스럽게도 옛날처럼 화목하고 밝은 모습을 직접 보았으니, 장차 수령들과 함께 한목소리로 축복을 청할 것이다.

드디어 춤추는 듯한 마음으로 기록하였다.

| 原文

華城府治移柵之粵五年癸丑, 始更官制陞都護府爲留守府, 府使爲留守兼行宮整理使壯勇外使, 秩正二品, 或特授將相, 在八觀察使二分司上, 於是爲官愈尊而職愈親, 所以隆美我萬年仙寢之地. 仍其關輔而重其藩衛者, 寔允且備.

舊制有通判一員, 中省之, 至是復置而兼外營從事, 俾承佐大府, 以聽民理事如故府使職, 而節制期會黜陟, 於留守, 如它守令之於監司也. 既而頒印符設俸廩, 分隸吏卒, 留守即日開府. 而顧通判無階次, 初上以安城郡守金魯成才績俱茂, 召至行在除通判, 勅以經紀貳之使, 自根基而其一設一施, 皆經稟旨.

是歲三月, 金侯相其衙址於行宮之東幾十武有奇, 鳩木石峙瓦甍, 丁皆用賃, 民不聞役, 而衙之外內廡廡庑, 不寒暑而工告訖. 上聞通判衙成, 又召臣魯成, 畀以御書華請館三大字, 使顏其政事堂, 盛矣哉! 此又它州郡所未得也.

竊伏惟念華請之義, 有諸取觀華, 而盖欲官堯官民堯民, 不以高而忽交修於上, 不以卑而絕交責於下. 聖人之寓旨深遠, 非徒使之祈祝也已.

夫華之有通判, 猶古之封人也. 我聖上以巍蕩之德, 有羹牆之慕, 每歲月正, 展禮先園. 車駕必過華而蠲其租, 恤其窮, 試才賞功, 霈恩流澤, 光溢于華. 而上所親民察邇, 回重瞳而詢黃髮, 亦堯之觀華也.

堯治天下且五十年, 其民熙熙, 其俗皞皞, 然猶于華而觀也, 其意未嘗無治

23 임금의 수레: 원문은 '鑾和'로, '남'은 임금이 타는 수레를 끄는 말의 재갈에 다는 방울이고 '화'는 수레 채 끝에 댄 나무에 다는 방울을 뜻한다.

歟不治之憂。苟使華有不獲乎上，則其封人者，亦堯之臣也，汙必不至於泯其隱而媚其祝也。彼既受堯封而長堯民，見其熙熙然皞皞然，望之也雲，就之也日，則其日壽日富日多男，誠發於辭，愛見於願，藹然有不能已者。今我環東土數千里耕鑿作息者，孰不願聖人之壽富多男也！

然而羽旄之美，唯華民歲常覩焉。上之駐蹕于此也，必召其長吏，問民疾苦，若曰：“誅求興歟？供億煩歟？溝澍病歟？子弟弊歟？”凡爲瘼於華者，莫不使之陳於前，古者行幸，是之謂也。若使涓流而累河清者，是長吏不克宣揚我聖人平章之化，其蔑職孰甚焉。

是以上之錫名斯館，不以堯之辭辭之，而期見民之熙熙皞皞，與其封人之日壽日富日多男，誠發愛見藹然不能已者，是又我聖自上自修之工也。至若金侯之判于華，肇也而龍光寶墨，特於侯而榮異之，則其樹規度明教化，以導揚聖人之治而誦天保·螽斯之什於鑾和之路者，侯之職也。不佞忝守是府，幸於身見上世熙皞之象，而將與侯同聲而講祝，遂蹈舞而爲之書。

| 解題

홍원섭洪元燮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지은 작품²⁴으로, 화성 관관華城判官의 관아官衙인 화청관華請館에 대한 기문이다. 이 글에서 홍원섭은 수원의 관제官制의 변화 과정과 화청관의 건립 과정을 소상히 설명하고, 이것을 가능하게 한 정조正祖의 공덕을 다채롭게 칭송하였다.

| 主題語

홍원섭洪元燮, 태호太湖, 화청관華請館, 화성華城, 유수留守, 관관判官, 정조正祖

24 다른 …… 작품 : 『太湖集』에 해당 작품의 제목 아래에 小註로 “代人作”이라는 내용이 부기되어 있다.

명고서원을 중수한 일에 대한 기문

明臯書院重修記



남구만南九萬(1629~1711), 『약전집藥泉集』 권28

| 翻譯

명고서원明臯書院은 광주廣州 구포鷗浦¹에 있으니, 바로 포지浦渚 조趙 선생²을 배향配享한 곳으로 이곳이 실로 선생의 선영先塋³이요 고향⁴이다. 선생에게는 지팡이 짚고 신발 신고서 휴식하시던 장소인데 후대 사람들이 제사를 모시고 학문을 연마하는 땅으로 삼았다. 생각건대 우리 선생께서 마치 계신 듯하고 후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의지하는 것이 참으로 장차 천백 세대 동안 새로운 것이다.

대개 듣건대 서원을 창건한 때는 현종顯宗 원년 경자년(1660)이고 제사를 받들어 모신 것은 2년 신축년(1661)이며 사액賜額을 받은 것은 10년 기유년(1669)이라고 하였다. 당초 역량에 여유가 없어 건물은 혹 소략하였

- 1 廣州 鷗浦 : 지금의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원리 일대이다.
- 2 포지 …… 선생 : 趙翼(1579~1655). 浦渚는 그의 호이고 본관은 豐壤이며 자는 飛卿이다. 1602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좌의정을 지냈다. 시호는 文孝이다.
- 3 先塋 : 원문은 '松楸'로 소나무와 가래나무를 지칭하는 말이다. 무덤가에 이들 나무를 많이 심기 때문에 '선영'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인다.
- 4 고향 : 원문은 '桑梓'로 뽕나무와 가래나무를 지칭하는 말이다. 『詩經』, 「小弁」편에 “부모님 심으신 뽕나무와 가래나무 / 반드시 공경해야 하네(維桑與梓, 必恭敬止)”라고 한 데서 부모님이 사시던 고향을 가리키는 뜻으로 많이 쓰인다.

고, 그후 세월이 오래되면서 기둥과 들보가 혹 흔들리고 무너졌다. 서원의 제생諸生인 임필주任弼周와 송경주宋經周 등이 동지들을 모아 거느리고서 몇 년 동안 경영하여 수리하여 고쳤으니, 기울어졌던 것은 바로게 되었고 위태하던 것은 편안하게 되었으며 무너졌던 것은 온전해졌고 어두웠던 것은 밝아져, 침묘寢廟⁵들과 계단은 평온하고 엄숙해졌다. 또 그 남은 재목을 가지고 전사청典祀廳⁶ 왼쪽에 별당을 지어서 제생들이 편안히 휴식하는 장소로 삼았고, 부엌과 여물 광⁷의 무너지고 폐기된 곳에 이르기까지 또한 모두 차례대로 수리하였다.

공사가 끝나고서 제생들이 모여 의논하여 강당講堂을 충효당忠孝堂이라고 주 부자朱夫子⁸께서 남긴 필적筆跡을 모아 현판으로 걸었다. 동재東齋는 사물四勿⁹이라 하였고 서재西齋는 삼성三省¹⁰, 외문外門은 입덕入德, 전사청은 비사주愆祀廚¹¹, 별당은 양정재養正齋¹²라 하였으니, 모두 진학進學에 뜻을 두어 반드시 명칭을 돌아보고 의미를 생각하고자 하였다. 이에 제생들이 또 모여 의논하기를,

“서원이 세워진 지 대개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일을 기록하여 후세에 보여 주지 못하고 있으니 마땅히 빨리 도모해야 합니다.”

하고, 마침내 일의 시말始末을 갖추어 나에게 글을 요청하였다. 나는 다

5 寢廟: 과거에 종묘의 正殿을 廟라 하고 後殿을 寢이라 하였던 바, 여기에서는 사당을 가리킨다.
 6 典祀廳: 서원에서 제사와 관련된 일을 맡아 보는 공간으로, 제수 마련 등을 담당하였다.
 7 여물 광: 여물을 보관하는 곳간이다.
 8 朱夫子: 朱熹를 가리킨다. 夫子는 '선생님'이라는 의미의 敬稱이다.
 9 四勿: 『論語』, 『顏淵』편에서 공자가 克己復禮의 방법으로 제시한 非禮勿視, 非禮勿言, 非禮勿動, 非禮勿聽 네 가지를 일컫음.
 10 三省: 『論語』, 『學而』편에서 曾子가 매일같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항목으로 다음 세 가지이다. “爲人謀而不忠乎? 與朋友交而不信乎? 傳不習乎?”
 11 愆祀廚: '비사'는 『書經』, 『洛誥』편에서 “밤낮으로 제사를 삼간다.(夙夜愆祀)”라고 한 데서 연원한 명칭이다.
 12 養正齋: '양정'은 『周易』, 『蒙卦』에서 “어렸을 때에 바름을 기르는 것이 성인 되는 공부이다.(蒙以養正, 聖功也)”라는 말에서 연원하였다.

음과 같이 글을 지었다.

지금 여러분의 뜻이 매우 성대하니, 장차 무슨 말로 답을 할 것인가. 우리 선생의 높은 도덕과 돈독한 충효는 나라의 역사에 기재되어 있고 조정에서 찬양하여 기록하였고 후현後賢들이 칭송하여 서술한 것이 갖추어져 있으니, 이제 어찌 감히 다시 참람된 말을 더하겠는가. 바다와 산이 에워싸고 시내와 산이 두 손을 마주한 듯 읍하여, 하늘이 만들고 땅이 감추어 영령을 편안히 모시는 곳으로 삼아 여부廬阜의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¹³과 함께 일컬어지는 것으로 말하자면 비단 내가 가서 뵈고 올라 살펴보지 못하여 말할 수 없을뿐더러, 설령 상상하여 자세히 말한다 해서 또한 이 서원에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또 여러분이 선현을 흠모하고 사당을 세워 앞에서 창건하고 뒤에서 수리하여 경영하고 주관한 부지런함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진실로 가상히 여길 만하나, 또한 분명 여러분들이 오늘 나에게 기문을 청한 이유는 아닐 것이다.

예로부터 나라를 세우고 백성을 다스릴 때에 가르침과 배움을 우선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말할 만한 점이 있다. 『예기禮記』에서 “가(家)에는 숙塾이 있고 당(黨)에는 상庠이 있고 수(庠)에는 서(序)가 있고 국(國)에는 학(學)이 있다.”¹⁴ 하였으니, 지금 서울의 태학太學과 지방 고을의 향교는 모두 이른바 '학'이라는 것이니, 나라에서 공적으로 하는 것이고 관청에서 통솔하는 곳이다. 서원 같은 곳은 바로 당(黨)庠과 수(庠)序 부류로, 가(家)塾에 비해 조금 공적이어서 더 무거운 곳이다. 비록 크고 작은 등급이 있고 넓고 좁은 차이가 있으나 옛날에 나라를 세울 때에 가르침과 배움을 우선으로 삼음에 있어서는 동일한 의미이다. 그렇다면 숙과 상과 서와 학이 이와 같이 구비된 것은 무릇 선비를 가르치는 것을 급선무로 여겨서이다.

13 白鹿洞書院: 朱熹가 廬山에 세운 서원이다.
 14 家에는…… 있다: 『예기』, 『學記』편의 구절이다. '가'는 25가구를 의미하고, '당'은 500가구이다. 원문의 '術'은 '肄'의 오자로 12,500가구이며 먼 교외 바깥 지역을 뜻한다. 國은 나라의 도읍을, 學은 太學을 각각 의미한다.

옛날의 성인과 이전의 스승들의 석전釋奠과 석채釋菜¹⁵로 말하면 또한 처음 가르치는 한 가지 일로, 학교를 세운 본래의 뜻이 아니다. 그렇다면 선비가 되어 학, 교, 상, 서에 들어간 자가 다만 처음 가르침을 받을 때에 피변皮弁을 쓰고 공경하는 도道¹⁶만 알고, 학업을 공손히 익히며 개미처럼 수시로 학습하는 뜻¹⁷을 알지 못한다면 또한 어찌 자신을 위하는 학문에 보탬이 있겠는가. 이는 또한 국가에서 학교를 설치한 것에 보답하는 뜻이 아닐 것이다.

또 학교에서 제사하는 바는 공자와 맹자 이하 여러 성현들이고, 서원에 서 제사지내는 바는 근대 지역의 명현名賢들이어서 경중의 다름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의 선비들은 학교는 느긋하게 여기고 서원은 급하게 여겨 사람들이 혹 이 때문에 서로 헐뜯는데,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맹자孟子는 “군자의 은택도 다섯 세대면 끊긴다.”¹⁸라 하였고, 보고 아는 것과 들어 아는 것을 논하실 적에도 역시 시는 곳의 가깝고 먼 것으로 말씀하셨다.¹⁹ 이 때문에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을 천하에 외고 잊지 않은 자가 없으나 추로鄒魯²⁰에 유독 선비가 많다고 하며, 양성陽城이 누추한 진흙 땅에 머무를 때 덕의 훈도를 받아 선량해진 자가 몇 천 명²¹이었으니,

15 釋奠과 釋菜 : '석전'은 고대의 학교에서 옛 성인과 스승들에게 제물을 갖추어 제사지내는 의식을 말하며, '석채'는 고대에 입학할 때 옛 성인과 스승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의식을 말한다.
 16 皮弁을 …… 道 : '피변'은 고대에 쓰던, 흰 사슴의 가죽으로 만든 관이다. 『禮記』, 『學記』에서 “太學에서 처음 가르칠 때에 피변으로 釋菜를 올림은 공경하는 도를 보이는 것이다.(大學始教, 皮弁祭菜, 示敬道也)”라고 하였다.
 17 개미처럼 …… 뜻 : 『禮記』, 『學記』에서 “개미가 수시로 (흙을 물어 나르는 일을) 분다는 것이 이것을 말함인가.(蟻子時術之, 其此之謂乎)”라고 하였다.
 18 군자의 …… 끊긴다 : 『孟子』, 『離婁下』편의 구절인데, ‘斬於五世’ 구는 「맹자」에 ‘五世而斬’으로 되어 있다.
 19 보고 …… 말씀하셨다 : 『孟子』, 『盡心下』편에서 맹자는 선왕의 도를 보고 안 사람과 들어 안 사람을 대비하여 논하면서 공자 이후 맹자 당대까지는 성인의 도를 보거나 들은 사람이 없음에 대해 한탄하며 “공자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가 100여 년이니, 성인의 세대와의 거리가 이처럼 멀지 않으며, 성인이 거주하신 곳과 이처럼 가까운데도 아무도 없으니, 그렇다면 또한 아무도 없을 것인가.(由孔子而來至於今, 百有餘歲, 去聖人之世, 若此其未遠也; 近聖人之居, 若此其甚也, 然而無有乎爾, 則亦無有乎爾)”라고 하였다.
 20 鄒魯 : ‘추’는 맹자의 고향이고 ‘노’는 공자의 고향이다. ‘추로’는 문화가 번성한 곳을 지칭하는 표현으로도 쓰인다.
 21 陽城이 …… 명 : 唐 韓愈(768-824)의 「諫臣論」(『昌黎先生集』 권14)에서 어떤 사람이 양성(736-805)에 대해 “누추한 쑤나라에 지내면서 진나라의 누추한 사람들 중에 그 덕의 훈도를 받아 선량해진 자가 몇 천 명이었습니다.(居于晉之鄙, 晉之鄙人, 薰其德而善良者幾千人)”라고 칭찬한 말을 인용해 온 것이다. 다만 이 작품에서 한유의 논지는 諫議大夫로 있으면서 제대로 간언을 하지 않은 양성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어서 본문에서 인용해 온 내용과는 맥락이 다르다.

이 어찌 시대가 멀지 않고 거주한 곳이 가깝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양성도 그러하였는데 허물며 단지 양성과 같은 일을 할 뿐만이 아닌 자에 있어서 이겠는가.

이 때문에 지금 세상의 선비들이 이에 지역의 현명한 선비들에게 훈도薰陶받고 사숙私淑하여 감발하고 흥기해서 얻은 효과가 혹 몸과 마음에 간절하게 느껴짐이 많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사당과 서원에 받들어 모실 때 관부官府²²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각기 사림士林들이 함께 모은 것으로 완성하는데, 치우친 마음과 얽은 식견을 지닌 자들은 도리어 이 때문에 비난을 하고 있으니, 만약 국가에서 선비를 가르치는 방법으로 말한다면 또한 마땅히 장려해야 하고 금해서는 안 될 듯하다.

비록 그러하나 맹자는 선비와 벗하는 것을 논함에 한 지역으로부터 이루어 온 나라와 세상에 이르렀는데, 오히려 부족하다 여겨 또 반드시 위로 옛사람을 벗하는 데까지 이르렀다.²³ 지금 선비 된 사람들이 만약 스승을 지역의 명현들을 존경하고 스승으로 여겨 얹과 행실이 날마다 고상하고 현명한 데로 나아간다면 또한 장차 반드시 옛 성현으로 기약할 것이다. 이는 바로 동산東山에서 태산泰山에 오르고 강으로 말미암아 바다에 도달한다²⁴는 말이니, 어찌 여러분들이 마땅히 힘쓸 일이 아니겠는가. 이것으로 기문을 삼는다.”

22 官府 : 원문은 '公家'인데 조정 또는 관아를 가리키는 말이다.
 23 맹자는 …… 이르렀다 : 『孟子』, 「萬章下」편에서 “한 고을의 좋은 선비라야 한 고을의 좋은 선비와 벗할 수 있고, 한 나라의 좋은 선비라야 한 나라의 좋은 선비와 벗할 수 있으며, 천하의 좋은 선비라야 천하의 좋은 선비와 벗할 수 있다. 천하의 좋은 선비와 벗하는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해서 또다시 위로 올라 옛사람을 논하니, 그 詩를 의우며 그 글을 읽어도 그 사람됨을 알지 못한다면 되겠는가? 이 때문에 그 시대를 논하는 것이니 이것이 위로 올라가서 옛사람을 벗한다는 것이다.(一鄉之善士, 斯友一鄉之善士; 一國之善士, 斯友一國之善士; 天下之善士, 斯友天下之善. 以友天下之善士爲未足, 又尙論古之人. 頌其詩, 讀其書, 不知其人, 可乎? 是以論其世也, 是尙友也)”라고 한 말을 이른다.
 24 東山에서 …… 도달한다 : 『孟子』, 「盡心上」편에서 “공자께서魯나라 東山에 올라 노나라를 작다 여기셨고, 太山에 올라 천하를 작다고 여기셨다. 그러므로 바다를 구경한 자에게는 어지간한 물은 물이라 할 수 없고, 성인의 문하에서 공부한 자에게는 어지간한 말은 말이라 할 수 없다.(孔子登東山而小魯, 登太山而小天下, 故觀於海者, 難爲水; 遊於聖人之門者, 難爲言)”라고 하였다.

原文

明臯書院在廣州鷗浦，卽浦渚趙先生之所享祀，茲實先生之松楸也桑梓也。於先生杖履息游之處，作後人尸祝藏修之地。惟我先生之如在與夫後人之瞻依，固將千百世如新矣。

蓋聞勸建院宇，在顯廟元年庚子，奉薦俎豆在二年辛丑，賜以額號在十年己酉。以當初事力之未裕也，結構或有疏略，以其後歲月之浸久也，棟宇或有撓圯。院之諸生任弼周·宋經周等，糾率同志，經營累年，乃得以修改，傾者正，危者安，侈者完，黜者明，寢廟孔安，庭除載肅。又以其餘材作別堂於典祀廳之左，以爲諸生燕息之所，至若庖廡之頽廢者，亦皆次第葺之。

工既訖，諸生合議，名講堂曰忠孝，而集朱夫子遺筆揭之，名東齋曰四勿，名西齋曰三省，名外門曰入德，名典祀廳曰愍祀之廚，名別堂曰養正之齋，皆所以寓意進學，必欲其顧名思義也。於是焉諸生又合議曰：“院之設蓋久，而尙未有記事，以視于後，宜速圖之。”乃具事始末，請文于余。余作而曰：

今諸生之意甚盛，將以何言答之哉！我先生道德之高，忠孝之篤，國史之紀載，朝家之褒錄，後賢之稱述備矣，今何敢復加以僭說？至若海嶽環擁，溪山拱揖，天作而地藏之，以爲揭虔安靈之所，與廬阜之白鹿並稱者，非但余不得歷謁而登覽，無可以爲言，設令想像而詳言之，亦何足爲斯院之重也！又若諸生慕賢而建祠，勸前修後，經紀董事之勤，誠有足尙者，然亦必非諸生今日所請以爲記。

若乃自古建國君民，以教學爲先，則誠有可言者矣。禮曰：“家有塾，黨有庠，術有序，國有學”，今京都之太學，郡邑之鄉校，皆所謂學，所以公之於邦國，領之於官府者也。若書院則乃是黨庠術序之類，而比之家塾，稍公而加重者也。雖其大小有等，廣狹有差，其於古之建國，以教學爲先者，同一意也。然則塾庠序學，如其備置者，凡以教士爲急。

至於先聖先師之釋奠釋菜者，亦是始教之一事，非建學之原本也。然則爲士而入學校庠序之中者，只知其始教皮弁示敬之道，而不知其孫業蛾子時術之義，則亦何益於爲己之學，亦非所以報國家設教之意也。

且學校之所祀，乃是孔孟以下群聖賢，書院之所享，乃是近代鄉邦之名賢，不無輕重之殊，而今之爲士者，乃有緩於學校而急於書院，人或以此相訾訾，余意則有不然者。孟子言：“君子之澤，斬於五世”，其論見知與聞知，亦以居之近遠爲言。是以孔孟之訓天下無不誦讀，而鄒魯獨稱多士，陽城居晉鄙，薰德而善良幾千人，此豈非世不遠而居之近故耶！陽城且然，而況不但爲陽城者乎！

以此今世之士，乃於鄉邦之賢，薰陶私淑，感發興起，其所得之效，或多裨切於身心者。故其爲之尊奉於祠院也，不藉公家之力，各以其士林通共鳩聚者成之。人之褊心淺見者，反以此爲譏，若以國家教士之方言之，亦恐當獎而不當禁也。

雖然孟子論友士，自一鄉推之至於一國天下，猶以爲不足，又必至於尙友古人，今之爲士者，若能尊師鄉邦之名賢，知行日進於高明，則又將必以古聖賢爲期。此乃自東山而登泰山，由江河而達于海之說也，豈非諸生所當勉者乎！是爲記。

解題

광주廣州 구포鷗浦에 있는 명고서원明臯書院은 포저浦渚 조익趙翼을 배향한 곳인데, 서원의 유생들이 서원을 중수重修하고서 남구만南九萬에게 기문을 부탁하였다. 남구만은 이 글에서 지역의 선현들을 추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행실을 본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主題語

약천藥泉, 남구만南九萬, 명고서원明臯書院, 조익趙翼

항미정에 대한 기문

杭眉亭記



박기수朴綺壽(1774~1845), 『화성지속편華城志續篇』

翻譯

소 장공蘇長公¹은 서호西湖가 항주杭州의 얼굴이라고 하였는데,² 나는 죽 만제祝萬堤³ 또한 수원의 서호라고 생각한다. 무릇 서호가 서호가 된 것은 곱고 아름다워서만 그런 것은 아니고, 호수 아래 수십 리에 크게 관개灌溉의 이익이 있어서이다. 지금 이 둑은 그 크기가 강처럼 드넓어 또한 수십 리 먼 곳까지 미치고 있으니, 이는 그 이로움이 서호에 뒤처지지 않는 것이다. 먼 산은 눈썹처럼 가로질러 있고 밝은 물결은 거울같은 수면에 비치니, 비록 연과 계수나무와 같은 좋은 경치는 없으나 긴 둑의 버들빛 햇빛을 가리며 일렁인다. 둑 안에서 나는 봉어가 아주 많아 병혈丙穴⁴의 아름다

1 蘇長公 : 宋나라 때의 대문장가 蘇軾(1037~1101)을 가리키는 말이다. 소식이 蘇洵의 큰아들이면서 그의 문학이 백 대의 으뜸이 될 만하였으므로 '장공'이라는 호칭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소식의 동생 蘇轍은 '少公'으로 불렀다.
2 소 장공…… 하였는데 : 소식, 『東坡全集』 권57, 『杭州乞度牒開西湖狀』, "항주에 서호가 있는 것은 사람에게 눈썹과 눈(얼굴)이 있는 것과 같으니 없앨 수 없습니다.(杭州之有西湖, 如人之有眉目, 蓋不可廢也)"
3 祝萬堤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조선 후기의 저수지로, 화성 서쪽에 있어 西湖라고도 불린다. 1799년(정조 23)에 축조되었고 박기수는 1831년에 이곳에 항미정을 세웠다. 경기도 기념물 제200호로 지정되어 있다.
4 丙穴 : 지금의 陝西省 略陽縣 동남쪽의 大丙山에 있는 구멍으로, 左思의 『蜀都賦』에서 "좋은 물고기가 병혈에서 나고 좋은 나무는 褒谷에 모여 있네.(嘉魚出於丙穴, 良木攢於褒谷)"라고 하여 좋은 물고기가 많이 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움이 있으니 낚시꾼들이 모여들고, 한두 척 고깃배가 항상 안개 낀 드넓은 물 사이를 오가니, 참으로 그림 속 풍경이다. 또한 이 둑은 마침 서쪽에 있어 서호라고 불리기도 될 것이다. 비록 그리하나 항주에 있었다면 호숫가의 이름난 정자들이 얼마나 많았겠는가만, 여기에 있어서 둑이 완성된 지 4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그마한 건물도 없으니 어째서인가.

내가 이 고을에 머무르며 이 일에 뜻을 두었지만 재목을 얻을 방법이 없었다. 우연히 들으니 성 북쪽에 폐사廢寺 몇 칸이 있는데 버려진지 오래되어 그 재목을 여전히 쓸 수 있다고 하였다. 드디어 절을 철거하고 재목을 옮겨와 둑 위에 작은 정자를 만들었다. 물을 마주하고 산기슭에 기대어 단청을 새로 칠하였으며, 여러 보좌진과 함께 가서 낙성식을 하고, 회를 마련하여 술자리를 열었다. 자리가 무르익자 말하기를,

"이 땅은 평소 메마르고 척박하여 관개灌溉의 이익이 적었다. 우리 선왕⁵께서 내탕금內帑金⁶ 3만 금을 털어내어 이 둑을 만드시자 화성華城 지역 사람들이 만년의 유택遺澤을 입게 되어 그 즐거움을 즐기고 그 이익을 누리게 되었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아아, 이전의 임금 잊지 못하노라.'⁷ 하였으니, 이 정자가 만들어진 것은 아름다운 덕을 드날리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들은 아는가?"

하니 모두가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5 우리 선왕 : 正祖를 가리킨다.
6 內帑金 : 조선시대에, 內帑庫에 넣어 두고 임금이 개인적으로 쓰던 돈이다.
7 아아…… 못하노라 : 『詩經』, 『周頌·烈文』편의 구절이다.

“내가 이미 득을 향주의 서호에 빗대었으니 ‘항미(杭眉)’로 내 정자에 이름을 지으면 괜찮겠는가?”

하니 모두가 말하기를

“좋습니다.”

하였다. 마침내 붓을 가져다 기문(記文)을 지었다.

신묘년(1831, 순조 31) 초겨울, 유수(留守) 박기수(朴綺壽)가 쓴다.

| 原文

蘇長公以爲：西湖杭州之眉目。余謂：祝萬一坡，亦水城之西湖也。夫西湖之爲西湖，非惟佳麗明媚之謂也。下湖數十里，大有漑田之利也。今茲之陂，其大如江餘潤，亦及數十里之遠，此其利不下於西湖也。遠山橫黛，明波倒鏡，雖無荷桂之勝，而長堤柳色，掩映搖曳，陂中產鮒極多，有丙穴之美，釣徒攸歸，一二漁艇常往來於烟靄浩渺之間，眞畫中景也。且是陂也，適在於西，謂之西湖可也。雖然在杭則湖上名亭何限，而在此則堤成四十年，尙無尺椽之架，何哉？

余之居留茲土，有意此事，而顧無所得材。偶聞城北有廢寺數間，棄之久矣，其材猶可用。遂撤而移之，是爲堤上小亭也。面水依麓，丹雘載新，與諸賓佐，往而落之，設醴行酒。酒酣語曰：“茲土素磽瘠，少灌溉利，我先王捐出帑財三萬金，成此一堤，華人蒙被⁸萬年遺澤，樂其樂而利其利。詩云：‘於乎，前王不忘’，斯亭之作，所以揄揚德美，諸君其知之乎？”咸曰：“唯。”余既以堤比諸杭之西湖，以杭眉名吾亭，可乎？”咸曰：“善。”遂援筆而爲之記。

8 被：『수원부읍지(水原府邑誌)』에는 '피(披)'로 되어 있으나 문맥을 고려하여 바로잡았다.

辛卯孟冬，留守朴綺壽記。

| 解題

수원부 유수(留守) 박기수(朴綺壽)는 축만제(祝萬堤) 주변에 정자가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다가 주변 폐사지의 재목을 활용하여 정자를 짓고, 자신이 축만제를 서호에 빗댄 것에 착안하여 ‘항미(杭眉)’라는 이름을 붙인 뒤 그 경과를 정리한 기문을 지었다.

| 主題語

박기수(朴綺壽), 항미정(杭眉亭), 축만제(祝萬堤), 서호(西湖)

항미정을 중수한 일에 대한 기문

杭眉亭重修記



이유원李裕元(1814~1888), 『가오고략嘉梧業略』 12책

| 翻譯

내가 약관弱冠의 나이로 신평新豊¹에서 노닐 때 외삼촌 단재坦齋 박 공朴公²이 이 고을을 다스리셨는데, 성의 서쪽 둔전屯田가의 튀어나온 곳을 넓혀 작은 정자를 일으켜 ‘항미杭眉’라고 이름을 붙이셨다.

30여 년이 지나 내가 서주西樞³로서 은혜로이 여가를 얻어 이곳에 유수留守로 오게 되었다.⁴ 하루는 명거命車⁵를 타고 둔대墩臺와 전각殿閣을 순찰하다가 성 서쪽 둔전의 정자에 이르러 탄식하기를,

“이는 우리 외삼촌께서 지으신 것인데, 비바람을 맞고 안개와 흠비에 갈라져

1 新豊 : 한나라 고조는 천하를 통일한 뒤 부친이 고향을 그리워하자 고향 豊縣을 그대로 본떠 만들고 풍현의 주민들을 이주시켜 ‘新豊’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전해진다. 여기에서는 정조가 조성한 수원 화성 지역을 의미한다.

2 단재 박공 : 履坦齋 朴綺壽(1774~1845)를 가리킨다. 그는 1831년(순조 31) 2월에 水原 留守로 부임하여 1832년 정월까지 근무하였다. 『水原郡邑誌』 참조

3 西樞 : 조선시대에 中樞府를 가리키는 말이다.

4 유수로 …… 되었는데 : 이유원은 1865년(고종 2) 2월에 수원 유수로 부임하여 같은 해 5월에 사직하였다. 『水原郡邑誌』 참조

5 命車 : 종2품 이상의 벼슬아치가 타던 수레이다. 썩 긴 쯤대에 외마귀가 밀로 달리고, 앞는 데는 의자 비슷하게 되어, 위는 꾸미지 않았으며 두 개의 긴 채가 달려 있다.

옛날에 반짝이던 것이 지금은 황량해졌구나.”

하고는 마침내 대략 지붕을 잇되 새로운 규모를 베풀지는 않았으나 주인이 노닐고 즐길 정도는 되게 하였다. 정자는 큰 들판을 삼키고 평평한 여울을 당기고 있으며 때로 고깃배가 그 사이를 오가는데, 강어귀 채색한 다리에서 술을 팔고 그물을 말리고 하는 것이 이 정자의 빼어난 점이다. 무릇 서호西湖⁶는 천하에서도 빼어난 곳이어서 항주杭州의 백미白眉가 되는 곳이지만 느린 뗏목으로는 갈 수 없어 단지 『서호지西湖志』⁷를 한 번 읽어볼 따름이다. “십 리 연꽃과 온 가을 계수나무⁸를 이곳에서 이파리 하나 따고 향기에 한번 젖어 본다면 또한 고을 사람들이 즐기고 신평의 경관이 되기에 충분할 것이다. 편액은 풍고楓臯 김 공金公⁹이 썼고 옛 기문은 단재공이 지었다. 둔전은 화성 사람들이 이익을 얻는 곳으로, 만석거萬石渠¹⁰로 물이 흘러들어가는 곳이 이곳이다.

| 原文

余弱冠遊新豊時, 舅叔坦齋朴公保釐是營, 拓城西屯邊突處而起小亭, 名曰杭眉.

後三十餘年, 余以西樞蒙恩暇, 出守茲土. 一日命車巡墩臺, 至城西屯亭歎曰: “是吾舅氏之所構也, 風雨被之, 霧靄泐之, 昔之所焜耀者, 今焉蕪薈.” 遂略葺之, 不施新規, 足爲主人之所遊嬉也. 亭吞大野挹平瀨, 時有漁艇往來

6 西湖 : 중국 강남 지역에 있는 유명한 호수로, 경관이 아름다워 많은 시인묵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7 서호지 : 명나라 때 田汝成이 지은 『西湖遊覽志』를 말한다. 이 책은 서호의 경관을 묘사하고 관련된 시문들을 모아 놓은 책으로, 16세기에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조선에 서호에 대한 취미가 유행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8 십 …… 향기 : 宋나라 때 시인인 柳詒이 서호의 풍경을 읊은 『望海潮詞』에 나오는 구절이다.

9 풍고 김공 : 조선 후기 문신인 풍고 金祖淳(1765~1832)을 가리킨다.

10 萬石渠 : 1795년(정조 19)에 수원 화성 주변에 조성한 저수지이다. 화성 주변에는 동서남북 네 방향에 네 개의 저수지를 만들었는데, 이중 북쪽에 있는 것이 만석거이다.

其間, 沽酒曬網於畫橋渡頭, 此亭之尤也. 夫西湖天下之尤, 作杭州之眉, 而
 騫槎不到, 但讀西湖志一統而已. 十里荷花, 三秋桂子, 於此地摘一葉沾一
 香, 亦堪爲州人遊而做新豐觀耳. 扁額楓臯金公之書, 而舊記坦齋公所撰.
 屯爲華人之所蒙利, 灌于萬石渠者是也.

| 解題

굴산橘山 이유원李裕元이 1865년(고종 2)에 자신의 외삼촌인 박기수朴
 綺壽가 수원을 다스릴 때 지었던 향미정杭眉亭을 중수한 뒤에 붙인 기문이
 다. 다른 문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작품으로 향미정의 내력을 잘 보여 주
 고 있어 가치가 있는 글이다.



| 主題語

굴산橘山, 이유원李裕元, 박기수朴綺壽, 향미정杭眉亭

향미정을 중수한 기문

重修杭眉亭記



신석희申錫禧(1808~1873), 『화성지속편華城志續篇』

| 翻譯

화서문華西門을 나서 서쪽으로 6~7리를 못 가 산등성이가 사방을 에워
 싸고 붓도랑과 밭두둑은 넓고 평평하며 큰 호수가 있다. 삼면은 산과 경
 계를 이루어 언덕이 되고 남쪽은 축만제祝萬堤¹가 되니, 호수에 수문水門을
 설치해 두고 물을 가두었다 흘러보냈다 하여 비옥한 농토 수천 이랑에 물
 을 댄다고 한다. 농부들은 이 물을 밭천으로 삼고 어부들은 고기 잡는 일
 로 농사를 대신하니, 호수의 이익이 크다고 하겠다. 호수 주변으로 집들이
 있어 농부와 어부들이 오직 어구漁具와 농기구로 부지런히 한해를 마치는
 데,² 냇가와 산의 구름과 안개, 초목과 새, 물고기의 즐거움을 대개 폄평하
 는 자가 적다. (이곳은) 화성의 재상宰相이 오가는 곳으로, 명사名士들이
 찾아들어 계승할 만한 아름다운 명성이 있을 법한데 장고掌故³에 물어보

1 祝萬堤 : 정조 23년(1799)에 華城을 쌓으면서 축조된 조선시대의 저수지로, 지금의 수원시 팔달구에 위
 치해 있으며 세계 관개시설물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2 부지런히 …… 마치는데 : 이 구절의 원문은 “盼盼焉終歲”로, 『孟子』 「滕文公上」의 “백성의 부모 되어 백
 성들이 부지런히 장차 한해를 다하도록 수고하여도 그 부모를 기르지 못하게 한다.(爲民父母, 使民盼盼
 然, 將終歲勤動, 不得以養其父母)” 구절을 변용한 것으로 보인다.
 3 掌故 : 나라의 故實이나 관례, 예악 따위를 관장하는 벼슬아치이다.

아도 이름난 유적으로 증명할 수 없었다.

탄재⁴ 박 공⁵은 작은 정자에 의지하여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비하면서 ‘항미정’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지금 관중추부사⁶ 이 공⁵이 중수⁷ 놓았는데 6~7년 사이에 아침저녁으로 기울고 무너졌으니, 부서진 것을 고치고 떨어진 것을 세우는 것은 뒷사람의 책임이다.

나는 더욱 두려워져 넉넉하게 재물을 모아⁸ 장인들에게 명하여 그 일에 힘쓰도록 하면서, 더욱 몇 개의 기둥을 확장하여 새롭게⁹ 하되 기울어 있던 것을 가지런하게 만들고 흔들리던 것을 높게 하여, 옛 경관을 바꾸지 않고서 아름다움을 더하였다. 공사가 끝나고서 빈료¹⁰와 장리¹¹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낙성¹²하였다. 바람은 맑게 불어오고 수면은 춤추는 듯, 담황색 주렴과 수놓은 난간은 물에 비쳐 일렁였다. 술이 무르익자 술잔을 높이 들고 이렇게 말했다.

파공¹³은 서호¹⁴를 고치도록 아뢰는 글에서 ‘서호는 항주¹⁵의 일골이다.’라고 하셨으니,¹⁶ 이 정자의 이름은 이 때문이 아닌가!

하였다.

공은 항주¹⁷에서 16년 동안 통판¹⁸을 지내고 다시 지주¹⁹가 되어

4 탄재 박 공 : 항미정을 처음 세운 박壽를 가리킨다.
 5 관중추부사 이 공 : 박기수의 甥姪인 橋山 李裕元을 가리킨다. 그는 1865년에 수원 유수로 부임해 와서 항미정을 중수하고 重修記를 지은 바 있다.『嘉梧藥略』 12책 참조)
 6 넉넉하게 …… 모아 : 원문은 ‘鳩嘉肺之羨’인데, ‘嘉肺’의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으나 ‘재물’이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고, ‘羨’에는 ‘넉넉하다’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이와 같이 번역하였다.
 7 새롭게 : 원문은 “敝之”인데 ‘폐’ 자에 옛 것을 깨뜨린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새롭게 하다’로 번역하였다.
 8 坡公은 …… 하셨으니 : 소식, 『東坡全集』 권57, 『杭州乞度牒開西湖狀』, “항주에 서호가 있는 것은 사람에게 눈썹과 눈(얼굴)이 있는 것과 같으니 없앨 수 없습니다.(杭州之有西湖, 如人之有眉目, 蓋不可廢也)”
 9 通判 : 송나라 때 각 지방에 파견하던 地方官이다.
 10 知州 : 중국의 州를 맡아 다스리는 州의 長官이다.

2년 후에 떠났는데, 상주²⁰하여 본로²¹의 공미²²를 3분의 1로 감면해 주도록 청하고, 상평미²³와 도승첩²⁴을 덜어내 팔고²⁵ 죽과 약제를 베풀어 다양한 방법으로 재난²⁶을 구제하였다.²⁷ 이에 정치가 잘 소통되고 사람들은 화목해졌으며, 유람하고 읍고 감상하며 서호와 산의 정취를 다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시에는 대체로 구선²⁸과 고산²⁹, 전당³⁰, 옥천³¹과 냉천³², 호구³³와 영은³⁴, 옥청³⁵과 동소³⁶, 망해³⁷와 망호³⁸의 작품이 많으니, 풍류와 문체가 작품 안에 빛나고 있다. 서호라는 한 지역은 공을 얻어 더욱 드러나게 되었고, 상하 8백여

11 上奏 : 임금께 말씀 올림. 여기에서는 소식이 『杭州乞度牒開西湖狀』(각주 8번 참조)을 올린 일을 가리키는데, 이 글에 소식의 공미 감면, 상평미와 도승첩의 판매 등을 논한 내용이 실려 있다.
 12 本路 : ‘로’는 송나라 때의 행정구역 명칭으로 唐나라 때의 道를 고친 것이다. 明清 시대의 省과 같다.
 13 供米 : 供物로 바치는 쌀이다.
 14 常平米 : 곡식 가격 조절을 위해 가격이 오르면 쌀을 풀어 배를 사들이고, 가격이 떨어지면 배로 쌀을 사들이던 것을 말한다.
 15 度僧牒 : 백성이 중이나 도사가 되려고 출가할 때에 관청에서 증빙으로 주는 문서이다. 度牒이라고도 하며, 당송 시대에는 관청에서 돈을 받고 도승첩을 발급하여 軍政에 충당하였다.
 16 덜어내 팔고 : 원문은 ‘減糶로, 흉년이 들었을 때 쌀값이 오르면 나라에서 상평창의 쌀을 풀어 가격을 조정하는 일을 뜻한다.
 17 재난 : 원문은 ‘隔並’으로, 음양의 조화가 어그러져 수해와 가뭄 등의 재해가 닥치는 것을 의미한다.
 18 上奏하여 …… 구제하였다. 소식은 원수 4년(1089)에 항주 태수로 부임하여 항주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폈는데, 이중 본문과 관련된 내용을 『宋史』 권338 『蘇軾傳』에서 찾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항주에 도착해 보니 큰 가뭄과 기근, 역병이 한꺼번에 생겨 있었다. 소식은 조정에 本路의 上供米를 3분의 1로 감면해 줄 것을 청하고, 다시 度僧牒을 하사받아 쌀과 바꾸어 굶주린 자들을 구제하였다. 이듬해(1090) 봄, 다시 가격을 낮추어 常平米를 팔아 죽과 약제를 많이 만들고, 의원을 끼워 관리를 보내어 구역을 나누어 병을 다스리게 하니, 살아난 자들이 매우 많았다.(既至杭, 大旱饑疫並作, 軾請於朝免本路上供米三分之一, 復得賜度僧牒, 易米以救饑者. 明年春, 又減價糶常平米, 多作饘粥藥劑, 遣使挾醫, 分坊治病, 活者甚衆)” 본문의 내용은 사실상 「소식전」의 이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9 九仙 : 아홉 종류의 신선이다. 上仙, 高仙, 火仙, 玄仙, 天仙, 真仙, 神仙, 靈仙, 至仙을 일컫는다. 『雲笈七籤』 권3 참조)
 20 孤山 : 항주의 서호 주변에 있는 산으로, 송나라 때 林逋가 이곳에 은거하며 매화를 심고 학 키우기를 좋아하여 孤山處士라고 불렸다.
 21 錢塘 : 서호가 있는 浙江省의 별칭이다.
 22 玉泉 : 서호 주변에 있던 산과 그곳에 있던 샘의 이름으로, 이곳에 玉泉寺라는 사찰이 있다.
 23 冷泉 : 서호 서쪽 靈隱寺 앞 飛來峰 아래에 있는 샘의 이름이다.
 24 虎丘 : 지금의 蘇州市 서북쪽에 있는 산으로 海涌山이라고도 불리며, 吳王 闔閭의 무덤이 있던 곳으로 도 전해진다.
 25 靈隱 : 서호 주변에 있는 산의 이름이며, 이곳에 유명한 사찰인 영은사가 있다.
 26 玉清 : 道教에서 말하는 세 仙境인 옥청, 上清 · 太清의 하나. 옥황상제가 사는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27 洞霄 : 洞霄宮. 항주 남쪽 大滌山과 天柱山 사이에 있던 도교 사원이다.
 28 望海와 望湖 : 둘 다 서호 주변에 있던 건물로, ‘망해’는 ‘望海樓’를, ‘망호’는 ‘望湖亭’을 뜻한다.

년 동안 지금까지도 혁혁하게 광채를 발하고 있으니, 성대하지 않은가.

나 같은 자가 어찌 옛 사람들의 빼어난 고적古跡과 나란히 할 만하겠는
가만, 다행히 성인의 시대에 살면서 분사分司²⁹의 위임을 외람되게도 맡아,
한가한 때 휴식을 취하면서³⁰ 조금씩 경쟁하는 일을 멈추고 혼탁한 것을
씻어내어,³¹ 날짐승과 물짐승과 더불어 함께 임금의 은혜에서 헤엄치며,
삼가 축만제祝萬堤 위에 나아가 북쪽을 향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우러러 천
만 년 장수를 축원할 따름이다.

객들이 말하기를,

“좋습니다. 어찌 이로써 기문을 쓰지 않으십니까?”

하였다. 임신년(1872, 고종 9) 6월,³² 유수留守 신석희申錫禧가 쓰다.



| 原文

出華西門而西，里不滿六七，岡巒周匝，溝塍平遠，有大湖。三面界山爲岸，
南則爲祝萬堤，開湖，瀉洩之，溉良田數千頃云。農資于水，廩以綱代耕，湖
之利，博哉！並湖而屋，農與漁已惟罾罾畚鍤之盼盼焉終歲，溪山雲烟，草樹
禽魚之樂，蓋平章者渺矣。華宰相之所廻翔，勝流竭來，意有遺芬之可襲，而
詢諸掌故，名迹無徵。

坦齋朴公庇一小亭，以待遊人，名曰杭眉。今判樞橋山李公重葺之，六七年
間，朝夕且傾圮，修廢舉墜，後來者責爾。

29 分司 : 관아를 나누어 설치하던 제도이다. 여기에서는 신석희 자신이 수원 유수가 된 것을 뜻한다.
30 한가한 …… 취하면서 : 원문은 '休其餘閑'인데, 이 구절은 歐陽脩의 「眞州東園記」에서 그대로 쓰인 것
이 있는 바, 이를 인용해 온 것으로 생각된다.
31 조금씩 …… 씻어내어 : 원문은 '息蹀汰濁'으로, '이는 明 王世貞의 「弇山園記」 두 번째 작품(『弇州續稿』
권59)에서 인용해 온 것이다.
32 6월 : 원문은 '流月'인데, 우리나라 고유 명절의 하나인 流頭가 있는 달이라 하여 음력 6월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인다.

不佞滋懼，鳩嘉肺之羨，命工而敦其事，益拓數架而敞之，敬而整，撓而隆，
毋易舊觀而有加美焉。既告成，從賓僚將吏，飲而落之。風來漚漚，水面如舞，
縑簾畫欄，倒蘸熨皺。酒酣揚擘旅，語曰：

坡公奏修西湖狀曰：“西湖杭州之眉目。”斯亭之名，其以是歟！公通判於杭
十六年，復爲知州，二年而去，奏免本路供米三之一，減糶常平米·度僧牒，
施餽粥藥劑，多方以濟隔並。於是政通人和，遊覽吟賞，極湖山之趣。故其詩
蓋多九仙·孤山·西湖·錢塘·玉泉·冷泉·虎丘·靈隱·玉清·洞霄·
望海·望湖之作，風流文彩，映發於篇章之間。西湖一區，得公而彌顯，上下
八百有餘年，尙今赫赫有光氣，不其盛哉！

如不佞者，何足媿侔於古人勝蹟，而幸生聖人之世，謬膺分司之寄，休其餘
閑，息蹀汰濁，與羽毛鱗介，同泳渥澤，恭就祝萬堤上，北向頓首，仰祝千萬
歲壽而已。客曰：“善。盍以是爲記？”

壬申流月，留守申錫禧識。



| 解題

신석희申錫禧는 수원 유수水原留守로 부임해 와 부서진 향미정을 새로이
중수하고, 낙성식에서 사람들에게 했던 말의 내용으로 기문을 엮었다. 그는
이 글에서 소식蘇軾이 항주杭州에서 백성들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던
사실과, 항주에서 지은 작품들 중에 아름다운 것이 많음을 강조하면서 중국
의 서호와 향미정이 있는 수원 서호의 모습이 겹쳐지도록 묘사하였다.

| 主題語

신석희申錫禧, 향미정杭眉亭, 축만제祝萬堤, 박기수朴綺壽, 소식蘇軾, 서호
西湖

항미정을 증진한 일에 대한 기문

杭眉亭重建記



오익영吳益泳(1849~?), 『화성지 속편華城志續篇』

翻譯

화성華城은 큰 도회지이다. 성과 연못이 굳건하고 누대의 경관은 굉장하고 화려하며, 지키고 비축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어 환란에 대비하고¹, 백성과 물산은 풍부하여 삼부三輔²에서도 으뜸이다. 서쪽에 큰 호수가 있어 만석거萬石渠와 통해 있는데, 수천 이랑 밭에 물을 대고 있어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그에 의지하고 있다. 이는 참으로 선조先朝께서 이곳에 은택을 베풀어 영원히 그 영향을 받은 것³이라, 남기신 은택과 남은 은혜가 성대하게 산천과 도로, 농토와 마름 연못의 사이에 입혀짐이니 아아, 성대하도다!

호수의 서쪽 언덕에 정자 하나가 있어 빛나는 산에 의지하고 넓은 물줄기를 한 손에 쥐고 있으니, 이것이 ‘항미’로 이름 붙여진 이유이다.

1 환란에 대비하고: 원문은 ‘陰雨’인데 『詩經』, 『豳風·鸛鳴』편에서 “비가 내리기 전 / 저 뽕나무 뿌리를 거두어다가 창문에 감아 둔다면 / 지금 이 아래에 있는 백성들 / 혹시라도 감히 나를 업신여기겠는가.(迨天之未陰雨, 徹彼桑土, 綢繆戶戶, 今此下民, 或敢侮予)”라고 한 데서 유래하였다.
2 三輔: 漢나라 때 近畿 지역을 셋으로 분할하여 장안 동쪽을 관할하는 京兆尹, 長陵 북쪽을 관할하는 左馮翊, 渭城 서쪽을 관할하는 右扶風이라 하였다. 여기에서는 경기도 지역을 지칭하는 뜻으로 쓰인다.
3 이곳에 …… 것: 원문은 ‘過化存神’으로, 『孟子』, 『盡心 上』에서 “군자가 지나가면 教化되며,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神妙해진다. 그러므로 위아래로 천지와 함께 흐르니, 군자가 어찌 조금만 보탬이 있다고 하겠는가.(夫君子所過者化, 所存者神, 上下與天地同流, 豈曰小補之哉)”라고 한 데서 연원하여 성인이 이르는 곳에 백성들이 그 감화를 받지 않음이 없어 영원히 그 정신의 영향을 받는 것을 일컫는 말로 쓰인다.

지금 총리영總理營⁴이 기보畿輔 관찰부觀察府⁵가 되어 부오部伍⁶가 관할하니 제도가 다시 새로워져 업무가 많은 것이 옛날에 부끄럽지 않다. 내가 와서 다스리게 된 이듬해 여름,⁷ 공무의 여가에 더위를 피하려 말을 달려 서쪽 둔전의 호숫가에 이르러, 옛사람들이 오가던 지남 자취와 남은 향기를 찾아보았다. 이 정자는 비바람에 기울고 무너져 단지 옛 터만 남아 있었다. 고을 노인들에게 물어보니 하나같이 말하기를,

“이 정자를 세우고 보수한 것은 역력히 날짜와 달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만한 학자와 현명한 분들의 풍류와 문체가 문과 벽에 빛나고 있었으나 지금은 다 사라져버리고 증명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였으니, 무릇 사물이 흥성했다 쇠퇴하는 것이 이와 같은가!

나는 슬프고 두려워 이에 봉급을 털어내어 장인에게 명해 다시 새롭게 하도록 하였는데, 장수와 보좌하는 관리들, 고을 노인들이 서로 더불어 스스로 술 빚어 기꺼이 그것을 도와 백성들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서도 그 일에 힘썼다. 들보와 서까래, 널빤지와 난간 사이에서 건축의 규모는 옛 경관에 준거하여 옛날보다 사치스럽게 하지 않아, 며칠 만에 완성되었다.

드디어 빈료賓僚와 고을 관리들과 함께 술 마시며 낙성落成하였다. 한 면의 호수 빛은 흉금胸襟을 가로질러 거울처럼 펼쳐져 있고, 물과 하늘이 한 가지 색이며 농부들 노랫소리 사방에서 울려 퍼지고 어부들 노래하며 서로 화답하였다. 사람들이 모두 술잔을 들고 축하하여 말하기를,

4 摠理營: 조선 순조 2년(1802)에 수원부에 둔 중앙 군영이다. 정조 17년(1791)에 두었던 장용영의 외영을 축소하여 둔 것이다.
5 畿輔 觀察府: 경기 관찰부를 의미하며, 1895년(고종 32)에 전국의 행정구역을 13도 체제로 개편하면서 경기 관찰부를 수원에 두었다.
6 部伍: 군대의 장관이다.
7 이듬해 여름: 오익영은 1896년(고종 33) 7월부터 1898년(고종 35) 3월까지 觀察使로 근무했으므로 부임한 이듬해는 1897년(고종 34)을 가리킨다.

“이번에 폐기되고 추락한 것을 들어 고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공께서 (이 일을) 서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생각건대 나는 잘못된 명령에 함부로 응하여⁸ 더욱이 부끄러워 짐을 감당할 수 없거늘, 옛 현인들의 풍류와 운치, 뛰어난 정취에 방불할 수 있겠는가. 적이 생각건대 그 끄트머리에 이름을 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것이니 직접 그 일을 기록하였다. 호수와 산의 안개와 구름의 빼 어남, 재상들이 오가는 즐거움 같으면 여러 공자들의 글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으니 또 무엇을 더하겠는가. 옛 편액과 함께 새로 새겨 차례대로 걸어 두고, 이어서 찾아올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바가 있기를 기다릴 뿐이다.

해는 정유년(1897, 고종 34) 단오端午, 관찰사觀察使 해주海州 오익영吳益泳이 쓴다.

| 原文

華大都也. 城池鞏固, 樓觀宏麗, 護儲胥備陰雨, 民物殷繁, 甲於三輔. 西有大湖, 疏萬石渠通, 灌數千頃田, 民至今賴之. 寔先朝過化存神, 遺恩餘渥, 藹然被山川道路稻壠菱塘之間, 猗其盛矣!

湖之西岸, 有一亭, 據嶽光, 把灑流, 是杭眉之所以名也.

今摠理營沿爲畿輔觀察府, 部伍管轄, 制度更新, 簿務之繁, 非昔日媿. 不佞來治之明年夏, 迨公暇屏驪, 至西屯湖上, 訪前人竭來之往躅遺芬. 是亭也, 爲風雨頽圯 但有遺墟. 問里老, 咸曰: “斯亭之創之葺之, 歷歷有日月. 名碩賢公之風流文采, 輝映楣壁, 今湮滅無徵.” 凡物之興替有如是乎!

不佞惕然而懼, 乃捐俸而命工重新之, 將佐耆老, 相與自釀樂助之, 不煩民

8 잘못된 …… 응하여: 자신이 경기 관찰사가 된 것에 대한 謙辭이다. 능력이 없는 자신이 관찰사 직에 제수된 명령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의미이다.

而敦其事. 宗桷板檻之間, 架規撫倣舊觀, 無侈于前, 不日告成.

遂與賓僚鄉吏, 飲而落之. 一面湖光, 襟橫鏡開, 水天一色, 農謳四起, 漁唱互答. 衆皆揚觶而賀曰: “今修廢舉墜, 伊誰之賜? 公其無述乎!” 顧不佞冒膺謬簡, 尙愧不克負荷, 足彷彿乎昔賢之風韻高致也哉! 竊以載名其末爲與榮, 面記其事. 若湖山煙雲之勝, 宰相迴翔之樂, 諸公之文既盡之, 復何加焉? 并以舊扁新刻, 列次揭之, 以俟嗣來者觀感云爾.

歲丁酉端陽, 觀察使海州吳益泳記.

| 解題

오익영吳益泳은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로 수원에 부임해 와 공무公務의 여가에 향미정杭眉亭을 방문해 보고, 이곳이 몰락한 것을 아쉬워하여 봉급을 털어 중수重修한 뒤, 사람들의 요청에 응하여 이 기문記文을 지었다.

| 主題語

오익영吳益泳, 향미정杭眉亭, 화성華城, 박기수朴綺壽

화홍문을 중수한 일에 대한 기문

華虹門重修記



이헌식李憲植, 『화성지속편華城誌續篇』

翻譯

엿드려 생각건대, 화영華營은 정조正祖 때 신풍新豐의 땅에 창건한 곳이
고, 화홍문華虹門은 무지개 같은 별이 화저華澤에 흘러넘친다는 뜻²을 취하
여 순조純祖께서 탄생하신 경사를 찬미하였으니, 아아 성대하도다! 문은
현무玄武의 자리³에 있고 붉은 흙을 얇게 발라 여러 누각처럼 화려하게 하
였으며, 방울방울 여러 물줄기가 모여들고 흘러 모여 밤낮으로 그 아래에
깊이 고이니, 대개 한 부府의 목구멍과 같은 곳이다.

을유년(1885, 고종 22) 봄, 명을 받들어 발탁되어 이 고을을 다스리러 와
보니,⁴ 북쪽으로는 광교산의 겹겹이 산봉우리가 보이고 남쪽으로는 독성
禿城의 이어진 진지에 의지하고 있어 또한 삼남三南 지역의 요충지로구나.

- 1 新豐: 漢나라 때 高祖는 그 아버지가 長安에 있으면서 고향을 잊지 못하자 驪邑을 그 고향인 豐邑과 같게 고치고 풍읍의 백성들을 이주시켜 살게 하고서 '신풍'이라 부르게 한 일이 있다.
- 2 무지개 …… 뜻: 『宋書』 『符瑞志上』에서 "帝擘 少昊氏의 어머니 女節은 별이 무지개처럼 화저로 흘러가는 것을 보고 얼마 뒤 꿈에서 감응하여 소호씨를 낳았다.(帝擘 少昊氏, 母曰女節, 見星如虹, 下流華澤, 既而夢接意感, 生少昊)"라고 하였다.
- 3 玄武의 자리: 현무는 북쪽을 관장하는 신이므로 현무의 자리란 북쪽을 의미한다. 즉 화홍문의 위치가 화성 북쪽임을 표현한 것이다.
- 4 을유년 …… 보니: 이헌식은 1885년(고종 22)에 수원 유수에 임명되어 1887년(고종 24) 3월까지 근무하였다.(『水原府邑誌』 참조)

구슬 쌓인 언덕 창오산蒼梧山의 구름⁵은 천 년에 이르는데, 가까이 석교石橋와 매향교梅香橋로 통하여 삼영三營⁶이 되며, 맑고 넓은 문루門樓 서로 이어져 있고 성벽과 누대 마주서 있다. 호수 너머 항미정杭眉亭은 은근히 그려 놓은 듯한 수면 위에 비치고, 산꼭대기 누르고 있는 장대將臺는 울타리처럼 규모를 갖추어 보호한다. 우뚝하게 북극성의 자리에 가깝고 도도히 남국南國의 버리가 되며, 맑은 구름과 가벼운 바람 한낮의 꽃과 버들 핀 운정云亭⁷에 불어오고, 영험한 못과 나는 듯한 누각에는 자성子城⁸이 그 땅에 용과 소라처럼 감췌으니, 무릇 밝고 그늘진 천만 가지 형상이 모두 문에 있는 것들이다.

이해 여름, 큰비가 물동이를 뒤집은 듯이 쏟아지니 골짜기 여울물은 화난 듯 흘러넘쳐, 기둥은 떠다니고 난간은 무너졌으며 높은 누각은 바라보니 매우 위태로웠다.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꺼리지 않고 그 공사를 시작하여, 특별히 걱정해주시는 가르침을 입어 백성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 공사가 끝났으니, 여의교如意橋⁹의 공사와 비교해 본다면 더 나을 뿐만이 아니었다. 낙성하는 날에 강구요康衢謠¹⁰를 부르고 화서국華胥國¹¹을 칭송하며, 빛나게 서로 즐기고 혼연히 서로 뜻을 얻으니, 마치 다시 물가의 무지개를 다시 본 것처럼 무궁한 축복¹²이었다. 마침 세자¹³께서 대를 이어 비추어 천명을 받으시니, 소호씨少昊氏가 태어날 적에 별이 무지개처럼 흘렀던 상

- 5 구슬 …… 구름: 원문은 '珠邱梧雲'인데, 隆健陵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珠邱'는 舜임금을 蒼梧 들만에 장사지냈는데 참새 같은 새가 푸른 모래구슬을 물어와 언덕이 되어 이를 '주구'라고 불렀다고 전해지는 고사이며, '梧雲'은 바로 이곳에 있던 창오산에서 피어나는 구름을 가리킨다.
- 6 三營: 여기에서는 화성행궁에 설치하였던 壯勇營의 三營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보통 '삼영'은 訓練都監, 禁衛營, 御營廳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 7 云亭: 云云과 亭亭 두 산의 병칭으로, 고대에 제왕들이 封禪 의식을 거행하던 곳이다.
- 8 子城: 본성의 주변이나 곁에 작게 쌓은 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 9 如意橋: 화성 북쪽에 축조했던 萬石渠에 놓았던 다리이다.
- 10 康衢謠: 堯임금 때 천하가 태평하게 잘 다스려지자 백성들이 불렀다는 노래이다.(『列子』, 「仲尼」편 참조)
- 11 華胥國: 黃帝가 낮잠을 자다 꿈에 가보았다는 이상 국가이다.(『列子』, 「黃帝」편 참조)
- 12 무궁한 축복: 원문은 '無疆之林'로 『書經』, 「太甲中」편에서 인용해 온 구절이다.
- 13 세자: 원문은 '高明'으로 『周易』, 『說卦傳』에서 "萬는 불이며 태양이다.(萬爲火, 爲日)"라고 한 데서 연원하여 태양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는데, 여기에서 파생되어 임금이나 세자를 지칭하는 말로도 쓰인다.

서로움은 이 문에 있는 것이다. 지금 증진한 것이 어찌 단지 화성 백성들만의 경사이겠는가. 온 나라의 경사이다.

나는 유수留守의 직책에 있으면서 새로 건축하는 일을 맡게 되었으니, 단지 눈앞을 밝히고자 한 것이 아니라 성현의 교화의 만분의 일이라도 본받고자 하여 감히 기문記文을 짓는다.

지금 임금이 23년 병술년(1886, 고종 23) 7월 일, 자헌대부資憲大夫 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 이헌식李憲植이 하교를 받들어 삼가 지었다.

| 原文

伏以華營是正廟朝創建新豐之地，而華虹門者，取虹流華渚之義，歸美于純廟朝誕降之慶，猗歟盛矣！門在玄武之躡，縹緲丹墀，爲諸閣之華，而涓滴衆流，聚合成滙，日夜泓渟於其下，蓋一府之喉咽也。

歲在乙酉春，承命擢秩來按此都，北瞰于光教疊嶂，南踞于禿城連鎮，抑亦三南之要衝也歟！珠邱梧雲迄千載，而密通石橋梅香爲三營，而淡蕩譙樓相接，堞榭對起，跨湖杭眉，隱暎於畫圖之鏡面；壓岨將臺，拱護於藩屏之標準。崑崙近北辰之居，滔滔爲南國之紀。淡雲輕風，午天之花柳云亭；靈沼鞏閣，子城之龍螺其地，而夫暉陰萬千之象，皆門之有也。

是年夏，潦雨飜盆，峽湍衝駛，柱漂檻圯，窿然一閣，見甚岌岌。不憚省費，經始其役，特蒙軫念之有劃，不煩民而工訖，較諸如意橋之役，不啻優焉。落之日，歌康衢頌華胥，熙乎相樂，欣乎相得，如復見渚虹無疆之休，而適際高明繼照誕膺，少昊流虹之瑞，則此門之在。今重建，奚但華民之慶？乃是一國之慶也。顧以職忝居留，事在修新，非徒煥乎目前，欲效聖化之萬一，敢爲之記。

上之二十三年丙戌七月日，資憲大夫水原府留守李憲植奉教謹撰。

| 解題

이헌식李憲植은 1885년(고종 22)에 수원 유수로 부임해 왔는데, 이듬해 폭우로 인해 화홍문華虹門이 피해를 입자 이를 수리하고 직접 기문記文을 지었다. 그는 이 글에서 화홍문 주변의 경치를 묘사하고 중수重修 경위를 비교적 간결하게 정리하였다.

| 主題語

이헌식李憲植, 화홍문華虹門, 화성華城, 정조正祖, 순조純祖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수원水原의 상량문上樑文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장안문 상량문

長安門上樑文



홍양호 洪良浩(1724~1802), 『이계집 耳溪集』 권4

번역

엿드려 생각건대, 주周나라는 제후를 봉봉하고 채지采地¹를 주어 왕실의 병풍이 되게 하였고, 한漢나라는 원읍園邑²을 두어 물 뿌리고 비질하는 일을 돕게 하였다. 대체로 선조를 받들고 효를 생각하려면 반드시 선침仙寢을 지키고 삼가 제사 지내는 일을 무겁게 여겨야 하고, 뿌리를 강하게 하고 가지를 약하게 하는 것³이 수도를 높이고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고을⁴에 이 홍예문 虹蜺⁵을 우뚝 세운 것이다.

생각건대 이 화성華城의 대도호부大都護府는 실로 우리나라⁶의 우부풍右

- 1 采地: 중국 고대에 卿大夫에게 주는 封地이다.
- 2 園邑: 중국 漢나라 때 陵園에 두어 능원을 지키게 했던 고을을 가리킨다.
- 3 뿌리를 …… 것: 원문은 '強幹弱支'로, 지방 세력을 덜어 중앙 권력을 강하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 한자성어이며 출전은 『史記』 「漢興以來諸侯王年表序」이다. '強干弱枝'로 많이 쓴다.
- 4 조상의 …… 고을: 원문은 '桑梓之郡'으로,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고향을 가리키는 말이다. 『詩經』 「小弁」 편에서 유래하였다. 여기에서는 현릉원이 있는 수원 지역을 가리킨다.
- 5 虹蜺門: 문얼굴의 윗머리가 무지개 모양처럼 반쯤 둥글게 된 문. 일반적으로 성문은 홍예문 위에 누각을 올리는 형태로 지어진다.
- 6 우리나라: 원문은 '箕那'인데, 이는 箕子의 지역이라는 뜻으로,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말이다.

扶風⁷이다. 땅은 바다를 등지고 한강을 임하여 수도에서 100리 되는 경계에 있고, 영호남으로 가는 길목을 장악하고서 사방으로 통하는 넓은 길이 모이는 곳에 자리하였으니, 아름답도다! 나라의 보배로운 산하山河여. 과연 하늘이 성인을 모시도록⁸ 마련한 곳이다. 신훈神龍이 턱 아래에 구슬을 희롱하는 듯한 모습은 형세가 웅장한 종산鍾山⁹ 같고, 금빛 연꽃이 꽃술 속의 꽃받침을 토해 내는 듯한 모습은 좋은 기운이 왕성한 용릉春陵¹⁰ 같다.

『청오경靑鳥經』¹¹으로 우리 높은 언덕을 점치니 검은 거북이 이 새로운 고을에서 먹고 사는구나. 전수灑水의 서쪽과 간수澗水의 동쪽을 살폈듯¹² 지리地理를 살펴 터를 정했고, 옛 패현沛縣에 신평新豐을 만들었던 것처럼¹³ 백성의 뜻에 따라 편안히 살게 하였다. 산천은 그 위치를 바꾸지 않으니 의관을 갖추어 입고 오시는 것을 오래도록 볼 것이요, 닭과 개들 각각 그 집을 아니 엄연히 분유粉榆의 사당¹⁴이 되었구나.

이에 궁궐에서는 달마다 어머니 뱃을 예를 행하고 길일에 해마다 성묘하는 의식을 정하였네. 옥 술잔 친히 잡으시니 사모하는 마음 끝이 없고, 활과 갈 가까우니¹⁵ 항상 담장을 바라보는 정성¹⁶을 붙이노라. 산성에 남은

- 7 右扶風: 중국 한나라 때 서울을 지키어 다스리던 벼슬이다. 左馮翊, 京兆尹과 함께 '三輔'라 한다.
- 8 성인을 모시도록: 사도세자의 능침이 이곳에 모셔져 있음을 의미한다.
- 9 鍾山: 중국 崑崙 서북쪽에 있는 산으로 일설에는 崑崙山이라고도 하며 좋은 옥이 많이 난다.
- 10 春陵: 後漢 光武帝의 고향이다.
- 11 靑鳥經: 漢나라 때 인물로 전해지는 靑鳥子가 지었다는 최초의 풍수지리서이다.
- 12 전수 …… 살폈듯: 周公은 遷都할 터를 고르기 위해 여러 곳의 지리를 살핀 뒤 길하다고 판단한 전수와 간수 사이로 정하였다. 전수는 洛陽 도성 중간을 관통하는 강이며 간수는 그 서쪽을 감싸고 도는 강이다.
- 13 옛 …… 것처럼: 漢나라 高祖는 중국을 통일한 후에 그의 부친이 고향을 그리워하자 驪邑을 고향인 沛縣의 豐邑과 똑같이 고치고 고향 백성들을 이곳으로 이주시킨 뒤 '新豐'이라고 불렀다. '신평'이란 '새로운 풍읍'이라는 의미이다.
- 14 분유의 사당: 한나라 고조의 고향 마을에 있던 사당을 가리키며, 후대에는 고향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15 활과 …… 가까우니: 원문의 '弓劍'은 활과 검이라는 뜻인데, 중국 전설 속 임금인 黃帝가 용을 타고 승천했을 때 황제의 활이 땅에 떨어졌다 하며, 황제를 橋山에 장사지냈는데 산이 무너져 관은 탕 비고 오직 황제의 검만 남아 있었다고 한다. 이후에 '궁검'은 세상을 떠난 제왕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의미로 널리 쓰이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현릉원을 가까이에 모시게 된 일을 가리킨다.
- 16 담장을 …… 정성: 원문은 '見牆'으로, 堊土가 세상을 떠난 뒤에 舜임금이 仰慕한 나머지, 밥을 먹을 때는 요 임금의 환영이 국그릇 속에 비치고[見羹, 爇아 있을 때는 담벼락에 나타났다[見牆]는 고사가 있다. 지극히 사모하여 그리워하는 심정을 표현하는 말이다.

백성은 경술년(1790, 정조 14)에 가던 길을 멈추고 하셨던 말씀¹⁷을 여전히 외우고, 월악산月岳山의 고승高僧은 일찍이 북쪽 언덕이 절을 세우기 좋은 땅이라 전하였네. 백성이 끊이지 않고 따라오니 어찌 무릉茂陵의 호걸들을 번거롭게¹⁸ 할 것이며, 집과 우물이 빗 같이 늘어서 있으니 태반은 낙양 재상들의 동산 같구나. 진실로 성을 쌓고 못을 파지 않으면 어떻게 백성을 포용하며 사람을 기르겠는가.

규圭¹⁹를 바로 하여 그림자를 재며 금어金興²⁰을 멈추고 언덕에 올랐고, 산을 안고 시내를 둘러싸고 있으니 옥도끼를 날려 경계를 정하였네. 관리들이 따르고 서민들이 따라서 진실로 협력하니 이미 어진 도위都尉의 진실한 정성을 체험하였고, 사람이 피하고 귀신이 피하여 참여하니 지난날 처사處士가 계획한 것²¹과 은연중 맞는구나. 이에 대사太史에게 명하여 날을 잡게 하고 사공司空에 명하여 공역功役을 헤아리게 하였도다. 숙지산孰知山²²에서 돌을 캐니 기이하게도 땅에서 만 개의 돌덩이가 나왔고, 안면도安眠島²³에서 기둥을 베어 오니 잠간 사이에 바람은 천 개의 큰 재목을 보냈구나. 우리가 도끼를 휘두르듯 영차 하는 소리 땅을 진동시켰고, 번개가 숲불에 부채질하듯 풀무의 불꽃 하늘로 타올랐네. 먼저 남북으로 방향을 정하여 마침내 남북으로 민가의 터를 닦고, 북두칠성을 따라 위치를 잡으니 옥형玉衡이 아래로 드리웠으며, 명당明堂을 살피 도면을 만드니 현무

17 경술년에……말씀: 정조는 1790년(정조 14)에 현릉원을 참배하였는데, 이때 수원부의 父老들에게 諭示하여 세금을 면제해 주고 식량을 나누어 준 일을 가리킨다. 유시의 내용은 『正祖實錄』 정조 14년 2월 15일 기사에 전문이 실려 있다.
 18 무릉의 …… 번거롭게: 漢나라 武帝 때 흉노족을 막기 위해 호걸 300여 만 명을 무릉으로 이주시킨 일이 있었다.
 19圭: 고대에 해 그림자를 재는 도구, 즉 해시계를 지칭한다. 圭表라고도 한다.
 20金興: 제왕이 타는 수레를 가리킨다.
 21 지난날 …… 것: 柳馨遠(1622~1673)이 『磻溪隱錄』에서 수원 지역이 큰 簞營이 될 만하다고 주장한 일을 가리킨다.
 22孰知山: 지금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산으로, 화성을 축조할 때 이곳에서 采石이 이루어졌다. 지금도 채석장 터가 남아 있어 수원시 향토유적 제15호로 지정되어 있다.
 23安眠島: 지금의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에 속해 있는 섬으로, 태안반도 남쪽에 위치해 있다. 화성 축조 때 이곳에서 큰 목재를 조달하여 썼다고 전해진다.

玄武의 왼쪽이 트였다. 위로 이층 누각을 세우니 높게 구름 밖으로 솟았고, 아래로 십자+字의 길로 통하게 하니 널찍하여 수레 두 대도 용납하겠네. 본받는 것은 낙서洛書의 하나를 따르고 범위는 도성의 3분의 1로 했네. 당긴 활처럼 굽은 모습은 엄숙히 사방에 위엄을 보이는 형세요, 버들잎 드리워지듯 옆으로 길게 뻗은 곳은 완연히 만 마리 말을 뿜 마당이로다. 고을에 수많은 가게를 여니 그 줄은 곧으며, 논밭에는 세 갈래 길을 만드니 마치 숫돌처럼 평평하구나. 금고의 돈으로 백성을 모집하며 3일간 동원하는 것도 하지 않았으며, 시냇물 끌어다 해자垓字를 채워서 절로 7리를 둘러싼 형세 이루었네.

이에 병졸을 모으고 군량을 쌓아 아문衙門을 승격시켜 체모를 높였으며, 개성開城과 강화江華의 제도²⁴를 본받아 관직은 유수留守를 두었고, 장용영외사壯勇營外使의 직명職名을 겸하게 하여 차례를 장상將相과 나란하도록 하였다. 임치臨淄²⁵처럼 수레가 서로 부딪히고 백성들은 모두 쌀밥에 생선국을 먹으며, 호현鄆縣과 두릉杜陵²⁶처럼 뽕나무 삼나무 서로 자라고 수많은 병사들 탄 끼고 말을 달리네. 아이들이 태어나 더욱 번성하므로 인재를 기르는 방도를 두었으며, 현軒에 임하니 여러 선비들 나아가는데 「녹명鹿鳴」²⁷편에 나오는 뛰어난 선비들 무성히 많고, 과녁을 설치하여 활쏘기 재주를 시험하니 「토저坵置」²⁸편에 나오는 간성干城이 될 군인들 현결차구나. 동쪽으로 이 학사李學士의 옛집을 바라보니 다들 나라에 충성할 뜻 굳혀지고, 북쪽으로 김 절도사金節度使의 옛 성벽을 바라보니 적을 무찌르고자 하는 마음 다투어 일어나네. 어찌 팔다리 같은 하동河東 고을이 될 뿐이라, 진양晉陽 같은 보장保障의 진籟이 되리라.

24 개성과 …… 제도: 개성과 강화도에 留守를 둔 것을 의미한다. 유수는 수도 이외의 옛 도읍지나 국왕의 행궁이 있던 곳 및 군사적인 요지에 두었던 유수부의 관직을 말하며, 정2품직이다.
 25臨淄: 춘추시대 齊나라의 수도로, 매우 번화한 거리를 비유하는 표현이다.
 26 호현과 두릉: 중국의 鄆縣과 杜陵(한나라 宣帝의 능)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낙양에 가까웠으므로 勝地로 유명하다.
 27 녹명: 뛰어난 선비를 초대에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묘사한 『시경』 시의 편명이다.
 28 토저: 현결찬 武士의 모습을 묘사한 『시경』 시의 편명이다.

교산喬山²⁹에 소나무 측백나무 울창하여 천년토록 향기 이어질 것이며, 충청과 경기의 수레와 배 모여드니 한 방편의 요충要衝을 차지하리라. 푸른 산봉우리에 구름 장막 펼쳐져 땅 가득한 인가의 연기 굽어보며, 봉생鳳笙³⁰이 연주되는 높은 성루에서 서울로 가는 벼슬아치 길이 전송하겠네. 구평중寇平仲³¹은 술 마시고 도박하면서 변방의 먼지에 놀라지 않았고, 두 소릉杜少陵³²은 누각에 기대어 멀리 임금 계신 곳을 바라보았지.

이에 팔달八達의 송가頌歌를 지어 애오라지 육위가六偉歌에 도움을 주고자 하노라.

아이야 떡을 들보 동쪽에 던져라

팔달산은 높아 사방이 똑같이 보이니

선녀는 금쪽 연주하며 어디에 내려왔나

상서로운 구름이 붉은 해를 들어올리네

아이야 떡을 들보 서쪽에 던져라

돛배는 끝이 없고 바다 구름은 낮으네

유천柳川 일대는 그림 같은 봄이라

뽕나무 짙은 그늘에 빠꾸기 운다

아이야 떡을 들보 남쪽에 던져라

하늘이 만든 선원仙園에 맑은 기운 가득하고

만 년의 주구珠丘³³에 빛이 땅을 비추어 주며

29 喬山 : 黃帝를 장사지낸 橋山을 가리킨다. 여기에서는 현릉원을 의미한다.

30 鳳笙 : 봉황 모양으로 만들어진 笙(관악기의 일종)이다.

31 寇平仲 : 송나라 때의 명신 寇準으로, 평중은 그의 호. 그는 遼의 침입에도 놀라지 않고 술을 마셨다 한다.

32 杜少陵 : 唐나라 때의 詩聖 杜甫로, 소릉은 그의 호이다.

33 珠丘 : 舜임금을 蒼梧 들관에 장사지냈는데 참새같은 새가 푸른 모래구슬을 물어와 언덕이 되어 이를 '주구'라고 불렀다고 전해진다. 여기에서는 사도세자의 능인 현릉원을 가리킨다.

높은 용은 한가로이 노닐며 깊은 연못에 누워 있도다

아이야 떡을 들보 북쪽에 던져라

하늘에 이어진 대로는 먹줄처럼 곧아

멀리서 임금이 내리신 율음律音이 오는데

빙견冰巖³⁴에는 향안香案³⁵의 떡물 배어 있네

아이야 떡을 들보 윗쪽에 던져라

화산華山과 관악冠嶽 우뚝 솟아 마주하니

친위군親衛軍 수백 대는 어리진魚麗陣³⁶을 이루었고

성 꼭대기에서 화각畫角³⁷ 불며 임금 행차 맞이하네

아이야 떡을 들보 아랫쪽에 던져라

햇빛 비치는 물고기 비늘 같은 기와들

김매는 노래 새삼 먹으라는 소리 태평 세상 즐거우니

누런 구름 사방 들관에 가득하여 보기에 좋구나

엮으려 바라건대, 들보를 올린 뒤로 화려한 건물은 손상되지 않고 자물쇠는 더욱 튼튼해지며, 귀암龜巖과 봉수鳳岫는 멀리 정성井星³⁸의 상서로움에 응하고 꽃 같은 봉우리와 버들 같은 시내에 늘 현릉원의 상서로운 기운이 서리게 하소서.

34 冰巖 : 氷巖이라는 누에가 만든 누에고치로, 이것으로 비단을 짜면 타지도 쪼지도 않는다고 한다.

35 香案 : 제사 때 향로 등을 올려 두는 상이다.

36 魚麗陣 : 옛 陣法의 하나이다.

37 畫角 : 쇠뿔로 만든 관악기의 하나로, 곁에 그림을 그려 넣은 것이다.

38 井星 : 28수의 24번째 별자리의 별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임금이 법으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면 이 별이 밝게 빛난다고 한다.

장안문 상량문 인본長安門上樑文印本 발미跋尾³⁹

장안문長安門은 화성華城의 북문北門이다. 처음 화성을 건설할 때 임금께서 사신詞臣들에게 명하시어 어떤 이는 육위문六偉文⁴⁰을 짓고 어떤 이는 편액扁額을 썼다. 문헌공文獻公 부군府君⁴¹께서는 당시에 대제학大提學으로서 명을 받아 장안문의 상량문을 지으셨고, 또 비단에 직접 써 들보 안에 넣으시고 판에 써 들보 문미門楣⁴²에 새겨 걸었다. 부군께서는 일찍이 명을 받들어 국가의 문자를 쓰신 것이 여러 번인데 모두가 근엄하여 법도를 갖추고 있다. 이 본本은 더욱이 원활圓滑하고 고아古雅하여 신령한 무늬가 꿈틀대는 듯하니 참으로 보물로 중시할 만한 것이다.

原文

伏以周建采甸而作翰屏，漢置園邑而供灑掃。蓋奉先思孝，必重衛仙寢而謹明禮，而強榦弱支，所以隆上都而禦外侮。肆於桑梓之郡，屹此虹蜺之門。

惟茲華城大都護州，實是箕邦右扶風。地負海臨漢，跨王京百里之疆，控嶺扼湖，據孔道四達之會，美哉，國有山河之寶！果然天設聖人之藏。神龍弄頷下之珠，鍾山之體勢壯麗；金蓮吐鬚中之萼，春陵之佳氣鬱葱。

迨青烏卜我崇岡，而玄龜食茲新邑。西灑東澗，相地理而占基；舊沛新豐，順民情而奠業。山川不改其列，長瞻衣冠之遊；鷄犬各識其家，儼成粉榆之社。

於是重宸推月觀之禮，吉日定歲省之儀。玉瓚親將，不盡攀栢之慕；弓劍孔邇，常寓見牆之誠。山城遺氓，尚誦庚歲停鑾之教；月岳高釋，曾傳癸岡卓錫

39 長安門上樑文印本跋尾：이 글은 홍양호의 손자인 冠巖 洪敬讓(1774~1851)가 홍양호의 「장안문상량문」 인본의 뒤에 붙여 놓은 짧막한 소감으로, 본문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함께 번역하여 수록한다. 홍경모의 「冠巖全書」 24쪽에 실려 있다.

40 六偉文：上樑文을 일컫는 말로, 투석어인 '兒郎偉'가 여섯 번 나오기 때문에 '육위문'이라고 한다.

41 文獻公 부군：홍양호를 가리킨다.

42 門楣：창이나 문 위에 가로 댄 나무로, 그 윗부분 벽의 무게를 지탱한다.

之符。士女鏹趨，奚煩茂陵豪傑之戶；閭井櫛比，半是洛陽卿相之園。苟不築城而鑿池，則何容民而畜衆？正圭測景，逗金輿而升虛；包山絡川，飛玉斧而定界。卿從庶從之允協，已驗賢都尉忱誠；人謀鬼謀之與能，暗契故處士經畫。爾乃命太史而諏日，勅司空而商功。

斷雲根於孰知之山，異哉地獻萬顆；拔虬棟於安眠之島，條爾風送千章。豐隆運斤；呼邪之聲動地，列缺扇炭，鼓鞀之燄烘霄。先定子午之方，遂闢乾坤之戶，隨斗柄而正位，玉衡下垂，按明堂而成圖，玄武左啓。上起二層之閣，高出浮雲；下通十字之街，潤容方軌。法象履洛書之一，範圍損都城之三。彎回若上弦之弓，儼有威四方之勢；橫長類垂柳之葉，宛是繫萬馬之場。夫里開百堵之塵，其繩則直；阡陌設三條之路，如砥斯平。民募帑金，猶惜用三日之力；壕因溪水，自成環七里之形。

於焉蒐卒乘而峙糗糧，因之升衙門而尊體貌，倣松沁兩都之制，官稱居留；兼壯勇外使之名，秩並將相。臨淄之車轂相擊，人皆飯稻而羹魚，鄂杜之桑麻交加，士多挾彈而走馬。既生齒之益盛，故育才之有方，臨軒進縫掖之羣，濟濟鹿鳴之髦俊，張幟試決拾之藝，赳赳兔置之干城。東瞻李學士之遺庄，咸勵忠國之志；北眺金節度之故壘，競起敵愾之心。豈惟河東股肱之州？抑爲晉陽保障之鎮。

喬山之松柏密邇，護芬苾於千年；湖甸之舟車相交，扼咽喉於一面。張雲幄於翠巘，俯瞰撲地之煙花；按鳳笙於麗譙，長送朝天之冠蓋。寇平仲之飲博，邊塵不驚；杜少陵之倚樓，北辰遙望。茲成八達之頌，聊助六偉之歌。

兒郎偉拋樑東，八達山高四望同，玉女彈琴何處降，祥雲擎出日輪紅。
兒郎偉拋樑西，風帆無盡海雲低，柳川一帶春如畫，桑柘濃陰布穀啼。
兒郎偉拋樑南，天作仙園灑氣涵，萬歲珠丘光照地，老龍閒弄臥深潭。
兒郎偉拋樑北，連天大道如繩直，丹綸遙自日邊來，水籬猶霑香案墨。
兒郎偉拋樑上，華山冠嶽森相向，親軍百隊像魚麗，畫角城頭迎玉仗。
兒郎偉拋樑下，日光照耀魚鱗瓦，勸歌饁唱樂升平，好看黃雲盈四野。
伏願上樑之後，鳥革不騫，魚鱗增重，龜巖鳳岫，遙應井絡之祥光，花岑柳

溪, 常帶金粟之瑞氣.

長安門上樑文印本跋尾

長安門, 華城之北門也. 始城于華, 上分命詞臣, 或製以六偉文, 或書以扁額, 文獻公府君時以大提學, 承命製長安門上樑文, 仍又手書於緞, 納于樑中, 又書於板, 鐫揭樑楣. 府君管奉教書國家文字者屢矣, 率皆謹嚴有法. 而此本尤圓活古雅, 神彩流動, 誠可寶重也.

| 解題

장안문長安門은 화성華城의 북문北門으로, 홍양호洪良浩는 정조正祖의 명을 받아 상량문을 지었다. 이 글에서 홍양호는 수원이 현릉원의 위치로 매우 적절하며, 정조는 순리대로 일을 잘 진행하여 어렵지 않게 건축을 마무리하였다고 칭송했다.

| 主題語

이계耳溪, 홍양호洪良浩, 정조正祖, 장안문長安門, 화성華城

팔달문 상량문

八達門上樑文



이명식李命植(1720~1800), 『일성록日省錄』

| 翻譯

새로운 고을에 두터운 요새를 구축하여 우뚝하게 높은 성이 세워졌고, 층루層樓를 웅장하게 설계하여 화려한 정문을 마주하게 하였네. 어찌 단지 사방에서 서울의 아름다움만을 보게 하려는 것이겠는가. 실로 구중궁궐의 임금께서 선침先寢을 모시는 정성에서 나온 것이라네. 생각건대 이 화성華城 한 구역은 예로부터 경기京畿의 옹호한 요새로, 서울이 백 리도 안 되어 하늘이 지형의 편리함을 만들어 준 곳ियो, 관방關防¹이 삼도三道²와 교차하는 데에 있어 땅은 방어하는 지역에 속한다. 6천 병마兵馬는 모두 오히려 외도감外都監³이라는 호칭이 전해지고, 90방坊의 백성과 물산이 매우 번성하여 우부풍右扶風⁴의 중요함에 양보하지 않는구나.

이에 현릉원顯隆園을 옮겨 봉안奉安한 뒤로 고향⁵을 공경하는 마음 배나

- 1 關防: 변방의 방비를 위해 설치한 요새이다.
- 2 三道: 경기, 황해, 평안도 또는 충청, 전라, 경상도를 아울러 일컫는 말이다.
- 3 外都監: 肅宗이 수원을 명명한 말로, 수원의 馬軍과 步軍의 제도를 訓練都監의 것을 본떠서 만들었기 때문이다.
- 4 右扶風: 중국 한라 때 서울을 지키어 다스리던 벼슬. 左馮翊, 京兆尹과 함께 '三輔'라 한다.
- 5 고향: 원문은 '桑鄉'인데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뜻하는 '桑梓之鄉'의 줄임말이다. 『詩經』, 「小弁」편에 "(부모님이 심으신) 뽕나무와 가래나무도 반드시 공경한다. (維桑與梓, 必恭敬止)"라고 한 데 출전이 있다.

더하는구나. 삼가 만년토록 선침仙寢⁶을 지킬 것이니 다시는 도호부都護府의 옛 치소治所가 아니게 될 것이요, 해마다 우모羽旄⁷를 출발시켜 드디어 고을을 팔다리처럼 중요하게 새로운 규모로 만들었구나. 아무 강과 아무 언덕은 온화하게 한나라 고조高祖가 풍읍豐邑을 옮겨 지은 효성孝誠⁸과 같고, 이 땅을 구획하고 정리하니 아아, 주周나라 성왕成王이 낙읍洛邑을 도모한 것과 같네. 마룻대와 추녀 매우 편안하니 이에 임금의 수레 멈추고, 강보에 아이 업고 수레 끌고서 사람들 서로 이어지니 드디어 도시가 되는 데 이르렀구나. 곡식과 군대 없는 것 없고, 사민四民⁹이 반드시 여기에 있구나. 거리를 마주하고 늘어선 점포들 어깨를 부딪치는 제齊나라 시장¹⁰처럼 북적이고, 부賦를 바치고 경전을 이야기하니 노魯나라 현악기 소리처럼 귀에 가득 울려 퍼지는구나. 인구가 늘어나니 곡식을 거둬 쌓고 저장해야 하며¹¹, 일의 면모가 더욱 중해지니 어찌 성을 쌓고 해자를 파지 않겠는가. 남쪽 이웃 북쪽 들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다해야 하니, 대도시의 이름난 성城은 본디 방어하는 곳이 있다네. 『주역周易』의 무리를 모으는 상象을 체현하여 마침내 옛사람들이 환란이 닥치기 전에 미리 대비한 계책¹²을 따랐네.

난어鸞輿¹³를 멈추고 땅을 살피며 분명하게 경계를 정하였고, 호부虎符¹⁴

6 선침: 임금의 능을 뜻한다. 원문은 '弓劍'인데 중국 전설 속 임금인 황제 黃帝가 용을 타고 승천했을 때 황제의 활이 땅에 떨어졌다 하며, 황제를 橋山에 장사지냈는데 산이 무너져 관은 텅 비고 오직 황제의 검만 남아 있었다고 한다. 이후에 '궁검'은 세상을 떠난 제왕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의미로 널리 쓰이게 되었다.
7 羽旄: 깃털로 장식한 깃발로, 임금을 상징한다.
8 한나라…… 효성: 한나라 고조는 천하를 통일한 뒤 부친이 고향을 그리워하자 고향 豐縣을 그대로 본따 만들고 풍현의 주민들을 이주시켜 '新豐'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전해진다.
9 四民: 士農工商의 네 부류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10 제나라 시장: 제나라의 수도인 臨淄는 당디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매우 번성하였다고 전해진다.
11 거둬…… 하며: 『詩經』, 『公劉』편에 "(집에 남은 자들을 위해서는 양식을) 노적가리에 쌓고 창고에 쌓으며 (길을 떠나는 자들을 위해서는) 마른 양식을 싸노라. (乃積乃倉, 乃裹餼糧)"라는 데 출전이 있다.
12 환란이…… 계책: 원문은 '撤桑'으로, 『詩經』, 『鸛鳴』편에서 "하늘이 아직 장맛비를 내리지 않을 때, 저 뽕나무 뿌리를 가져다가, 문을 청청 감는다면, 이제 너희 사람들이, 혹시라도 나를 업신여기랴. (迨天之未陰雨, 徹彼桑土, 綯繆隴戶, 今女下民, 或敢侮予)"라고 한 데 출전이 있다.
13 鸞輿: 鸞鳥라는 새의 울음소리를 모방한 방울이 달렸다 하여, 임금이 타는 輿을 이르는 말이다.
14 虎符: 한나라 때 군사를 징발할 때 쓰던, 호랑이 모양의 銅製 兵符. 나중에는 官印을 지칭하는 말로도 쓰인다.

를 주어 일을 감독하게 하니 삼태기와 가래 가지고 공사에 달려왔네. 돌은 무진장으로 있으니 땅이 어찌 보배를 아끼겠는가. (독려하는) 큰 북은 (백성들을) 이기지 못하는 음향을 연주하고¹⁵ 사람들은 절로 바랄처럼 달려오네. 마부들 부지런히 힘쓰니 마치 귀신이 힘을 빌려준 듯, 장인匠人이 솜씨를 다하니 갑자기 홍예문虹霓門이 모양을 이루었네. 북문北門의 누대가 완성되자 남쪽 성의 용마루 이미 우뚝하구나. 문설주와 말뚝이 법도에 맞으니 남북의 방위가 어긋나지 않고, 완공이 기일에 맞으니 깊은 밤¹⁶까지 근심하던 성님聖念이 조금 놓이셨네. 재목을 안면도安眠島에서 가져오니 날마다 배와 수레가 실어오는 것을 편안히 보고, 길이 원침園寢으로 통하니 달마다 의관衣冠 내오는 행차 황홀하게 모시네. 백성들 가득 모여 기쁜 얼굴로 얘기하고, 나그네도 모여들어 새로운 광경 구경하네.

이곳 금성탕지金城湯池는 끝없는 기업基業을 길이 수호하고, 푸른 지붕 붉은 서까래는 뽑히지 않는 터전을 영원히 안정시키리라. 조망컨대 모두 쌀과 생선 풍요로운 지역이니 별천지요, 빙 둘러선 건 대부분 부귀한 집들이라 새 터전 기꺼워하네. 비록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양도兩都와 어깨를 나란히 하지만, 위엄과 중요도는 팔도의 으뜸이시오.

만약 해자와 참호를 갖추지 않는다면 백성들을 어떻게 편안히 살게 하겠는가. 원침을 높이는 위의威儀이니 성상의 마음 기쁘네. 공사비용이 모두 내탕고에서 나왔으니 참으로 밝은 덕을 퍼신 것이요, 공사는 농사철을 피했으니 모두들 선대先代 장헌세자莊獻世子の 은혜라 하네.

감히 상량하는 노래를 바쳐서 장인들의 노고에 보답하노라.

아이야 떡을 들보 동쪽으로 던져라

15 큰…… 연주하고: 『詩經』, 『綿』편에서 "모든 답이 다 일어나니 독려하는 북소리가 이기지 못하였네. (百堵皆興, 鼙鼓弗勝)"라는 구절에 출전이 있다. 이 시는 백성들이 나라의 공사를 즐겁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16 깊은 밤: 원문은 '乙丙'으로, 하룻밤을 다섯으로 나누었을 때 두 번째와 세 번째, 즉 오후 10시(乙夜)와 12시(丙夜)를 가리킨다.

용연龍淵¹⁷은 이른 아침에 태양보다도 먼저 붉어지니
상서롭고 조화로운 기운을 한 지역에 가득 얻었네
해마다 순한 비 내리고 조화로운 바람 불리라

아이야 떡을 들보 서쪽으로 던져라
팔달산과 높이가 나란하구나
위쪽 밭에는 밭 가는 소 오가는데
득중정得中亭의 정곡正鵠은 평평하고 낮구나

아이야 떡을 들보 남쪽으로 던져라
유천柳川의 봄물 쪽빛 같구나
선원仙園¹⁸의 석물들¹⁹ 크고 가까우니
아름다운 기운이 아침저녁으로 와 비추네

아이야 떡을 들보 북쪽으로 던져라
붉은 구름²⁰ 곧바로 서울을 가리키네
노인들 기뻐하며 임금의 수레²¹ 맞이하고
봉인封人²²이 성군聖君의 덕을 축원하기를 청하네

아이야 떡을 들보 위로 던져라
우뚝이 경기京畿를 보호하고 방어해 주네
사람들 마음 오랫동안 이미 성이 되었고

강구康衢의 노래²³ 나무꾼 노래와 서로 화답하네

아이야 떡을 들보 아래쪽으로 던져라
풍년이라 누린 구름 들관에 가득하니
문교文教 펼쳐 대학大學²⁴에는 현악기 소리
백 대의 군대는 활과 말 갖추었구나

삼가 바라건대, 상량한 뒤로 땅의 신령이 몰래 도와주고 하늘의 복과 보
살핌이 듬뿍 내리고, 산과 강이 표리表裏가 되어 큰 나라를 감싸서 빛나게
하며, 기둥과 서까래는 우뚝이 영원토록 견고하게 전해지게 하소서.

관중추부사判中樞府事 이명식李命植이 지어 올렸다.

| 原文

設重防於新邑，有屹崇墉；度宏規於層樓，相對華構。豈徒四方觀上都之
美？實出九重奉先寢之誠。惟茲華城一區，從古畿甸雄鎮，京師不百里，而近
天設形便；關防處三道之交，地屬控禦。六千衆兵馬，是總猶傳外都監之稱；
九十坊民物孔殷，不讓右扶風之重。

粵自珠丘之移奉，倍覺桑鄉之敬。恭扈弓劍於萬年，非復都護府舊治；戒羽
旄於每歲，遂侈股肱郡新規。某水某丘，藹乎漢帝移豐之孝；載疆載理，猗歟
周王作洛之圖。棟宇孔安，於焉停蹕；襁輻相屬，遂至成都。

錢穀甲兵之無不有焉，士農工賈之必於斯也。當街列肆，雜然齊市之磨肩；
獻賦談經，洋乎魯絃之盈耳。生齒漸庶，重之乃積乃倉；事面益尊，曷不斯築
斯鑿？南隣北陌，宜盡奠接之方；大都名城，自有捍衛之所爰。體大易蓄衆之

17 龍淵：華城 訪花隨柳亭 가까이의 연못이다.

18 선원：제왕의 능침을 일컫는 말이다.

19 석물들：원문은 '象設'로, 능원의 석물 및 기타 조형물들을 일컫는 말이다.

20 붉은 구름：신선이 머문다고 전해지는 구름으로, 상서로움의 상징이다.

21 임금의 수레：원문은 '翠華'로, 임금의 儀仗 중 비취빛 깃털로 장식한 깃발 혹은 수레 지붕을 뜻한다.

22 封人：변경을 지키는 벼슬아치이다. 여기에서는 華 땅의 봉인이 堯 임금에게 축원한 고사를 가리킨다.

23 강구의 노래：태평성대를 칭송하는 노래로, 『列子』 「仲尼」편에 나온다.

24 태학：원문은 三舍로, 宋나라 때 이후에 태학을 上舍, 內舍, 外舍로 나누었으므로 태학을 '삼사'라 하였다.

象, 聿追古人撤桑之謨.

駐鑾輿而胥原土圭定界, 授虎符而董事, 畚鍤赴工. 雲根效無盡之藏, 地豈愛寶! 磬鼓奏弗勝之響, 人自趨風. 輿徒效勤, 倘鬼神之借力; 工技殫巧, 倏虹蜺之成形. 北門之樓纔完, 南城之棟已屹. 根闌叶度, 子午之方位不差; 事功趁期, 乙丙之聖念稍弛. 材取安島, 穩見舟車之日輪; 路通喬山, 悅陪衣冠之月出. 士女闐而歡欣相告, 行旅簇而觀瞻頓新.

金城湯池, 長護無疆之業; 翠薨丹楹, 永奠不拔之基. 眺望極稻魚之鄉, 別是勝概; 包絡多鍾鼎之宅, 樂此新居. 雖保釐肩於兩都, 獨威重首於八路. 苟不備壕塹之制, 俾民生處休則何? 隆園寢之儀, 於聖心有校. 功費實出內帑, 亶由臧德之宣昭; 力役不奪農時, 咸謂先休之覆燾. 敢效郎偉之頌, 用侑匠氏之勞.

兒郎偉拋樑東, 龍淵曉旭先紅, 盛得祥和一域, 年年順雨調風.
兒郎偉拋樑西, 八達山高與齊, 上田耕牛來去, 中亭畫鶴平低.
兒郎偉拋樑南, 柳川春水如藍, 珠丘象設孔邇, 佳氣日夕來參.
兒郎偉拋樑北, 紅雲直指京國, 父老歡迎翠華, 封人請祝聖德.
兒郎偉拋樑上, 屹然畿甸保障, 衆心久已成城, 衢謠互答樵唱.
兒郎偉拋樑下, 豐歲黃雲滿野, 文教三舍絃歌, 軍容百隊弓馬.
伏願上樑之後, 地靈潛扶, 天休滋至, 山河表裏, 控大邦而有光, 楹枓穹崇, 垂永世而維固.

判中樞府事李命植製進.

| 解題

팔달문八達門은 화성華城의 남문南門으로, 이명식李命植은 정조正祖의 명을 받아 상량문을 지었다. 이 글에서 이명식은 수원 지역이 도회지로 잘 조성되었다고 하면서, 이는 정조의 효심의 발로라고 주장하였다.

| 主題語

이명식李命植, 화성華城, 팔달문八達門, 정조正祖



창룡문 상량문

蒼龍門上樑文



윤행임尹行恁(1762~1801), 『석재집碩齋稿』 권15

| 翻譯 |

병진년(1796, 정조 20) 화성華城 축조가 완성되어 동문東門을 창룡문蒼龍門이라 하였는데, 어명을 받들어 상량문을 지었다.

엿드려 생각건대, 원릉園陵에 본래 혼백이 있으니 의관衣冠을 원묘原廟¹에 모셨으며, 왕공王公이 나라를 지키니 깊은 관문에서 요충지²를 지켰도다. 이 성의 동문東門을 물어보니 특별히 한강 남쪽의 뛰어난 경관이라 하네.

생각건대 이 화성부華城府는 우리 주구珠丘³를 봉한 곳이구나. 누런 닭⁴이 기일期日을 알려 주니 땅이 기이하고 아름다운 곳을 열어 주고, 청오자

- 1 原廟 : 正廟 이외에 따로 세운 別廟를 가리킨다. 漢나라 惠帝 때 고향을 그리워하던 高祖의 마음을 생각하여 고조의 고향인 沛縣에 있던 沛宮을 원묘로 삼았던 데서 기원하였다. 여기에 고조의 의관을 모셔 두고 한 달에 한 번씩 의관을 고조의 종묘로 신고 가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본문에서 “원묘에 의관을 봉안한다”는 말은 이를 가리킨다.
- 2 요충지 : 원문은 ‘襟帶’로, ‘襟’은 험준한 산이 옷자락처럼 펼쳐진 것을, ‘帶’는 강물이 허리띠처럼 둘러싼 것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의미가 파생되어 ‘요충지’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 3 珠丘 : 舜임금을 蒼梧 들관에 장사지냈는데 참새 같은 새가 푸른 모래구슬을 물어와 언덕이 되어 이를 ‘주구’라고 불렀다고 전해진다. 여기에서는 사도세자의 능인 顯隆園(지금의 용릉)을 가리킨다.
- 4 누런 닭 : 원문은 ‘黃鷄’인데, 다섯 방위 색깔 중 중앙의 황색은 十干에서 ‘己’에 해당하고, 닭은 十二支에서 ‘酉’에 해당하므로 기유년을 가리키는 표현인 바, 여기에서 말하는 기유년은 1789년(정조 13)으로, 정조가 현릉원을 화성으로 이장한 때를 가리킨다.

青鳥子⁵가 상서祥瑞를 고하니 하늘이 성인이 문힐 곳을 내려주셨네. 점괘에서 말하기를 용이 누워 있는 듯 길하다 하고, 다른 점괘도 거북점과 맞아 떨어지는구나. 물은 더 맑아진 듯, 산은 더 수려해진 듯, 한 방면의 풍기風氣 처음 열리고, 2년 만에 읍읍이 되고 3년 만에 도회지가 되니 사망의 백성과 물산 점차 성대해졌도다. 대개 이장移葬한 곳을 감추어 지키려 하였으므로 원읍園邑⁶ 경영을 부지런히 하였던 것이다.

옥찰玉札에 그린 그림을 펼치고 금과옥조金科玉條같은 법으로 규범을 만들어, 안으로 장용영壯勇營⁷을 설치하고 밖으로는 정리사整理使를 겸하게 하였으니 가만히 생각하고 멀리 바라본 원대한 법도이며, 아래로는 백성의 힘을 쓰지 않고 위로는 호조판서戶曹判書⁸를 번거롭게 하지 않았으니, 홀로 운용한 깊고 밝은 판단이었구나. 거령巨靈⁹의 도끼로 바위¹⁰를 쪼개니 조물주가 도와준 듯하였고, 별자리는 영실營室¹¹의 케도에서 빛나니 오래지 않아 완성되리라 기약할 수 있었네. 이에 강으로 연못을 만들며 화산華山에 올라 성곽을 만드니¹² 다섯 판版을 쌓으면 도堞¹³가 되고 백 치雉¹⁴를 쌓으면 성벽이 된다네.¹⁵ 첫째는 규모, 둘째는 재료, 셋째는 해자와 참호, 넷째는 기초 다지기이니 임금님 지혜로 세운 계획이며, 음지와 양지를 살펴보고, 흐르는 물을 관찰하고, 습지와 평원을 헤아려,¹⁶ 황간皇澗을 끼

- 5 青鳥子 : 중국 전설 속의 풍수지리학자로, 黃帝 때 혹은 秦漢 때의 인물이라고도 한다. 그가 지었다고 전해지는 풍수지리서인 『青鳥經』이 현전한다.
- 6 園邑 : 陵園의 관리를 위해 설치한 고을이다.
- 7 壯勇營 : 정조 17년(1793)에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한 禁衛 조직. 內營과 外營으로 구성되어 각각 한양 도성과 수원유수부의 宿衛 업무를 담당하는 바, 여기에서는 외영만을 지칭한다.
- 8 호조 판서 : 원문은 ‘大農’으로, 국가 재정을 담당하던 大司農 벼슬을 가리키는 말이다. 여기에서는 조선의 재정을 담당하는 호조의 수장인 호조 판서를 지칭한다.
- 9 巨靈 : 중국 고대 신화에 나오는 강의 신으로, 華山을 쪼갰 인물로 전해진다.
- 10 바위 : 원문은 ‘雲根’으로, 과거에는 구름이 바위에 부딪혀 생겨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겨난 표현이다.
- 11 營室 : 28수 중의 하나인 室宿로, 토목 공사를 관장하는 별자리라고 전해진다.
- 12 이에 …… 만드니 : 이 부분은 漢나라 賈誼의 『過秦論』의 구절을 그대로 인용해 온 것이다.
- 13 堞 : 고대의 담장 건축 때 사용하는 단위로, 版築法으로 담장을 쌓을 때 길이 1版, 높이 5版을 1도라 하였다.
- 14 雉 : 고대에 성 담장의 면적을 계산하는 단위로, 길이 3장, 높이 1장을 1치라 하였다.
- 15 다섯 …… 되었네 : 이 부분은 『春秋公羊傳』 定公 12년 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온 것이다.
- 16 음지와 …… 헤아려 : 이 부분은 『詩經』, 『大雅·公劉』편의 제5장의 구절을 인용해 온 것으로, 이 작품은 公劉(후稷의 증손)가 關 땅에 도읍을 정하여 발전시키는 과정을 서술한 시이다.

고 늘어서 있으니¹⁷ 여러 계책을 모아¹⁸ 지휘하였네.

반드시 웅장한 누대와 망루가 있어야 바야흐로 군세계 지킬 수 있으니, 무거운 것을 끌고 멀리 가고자 수레의 제도를 처음 반포하였고, 방위를 바로잡고 변별하고자 성과 누대를 쌓는 일을 시작하였네. 낙양雒陽에서 천하를 다스린 방법은 바로 송나라 태조太祖가 모든 문을 열게 한 일¹⁹을 우러른 것이요, 대종岱宗을 순수巡狩한 의례는 순쑤 임금이 사방의 문을 연 일²⁰을 갖춘 것이었네. 이에 석목析木²¹의 터를 정하여 마침내 부상扶桑의 언덕을 마주하였네. 팔달산八達山을 끌어당겨 서쪽을 바라보니 위로 푸른 땅이 가깝고, 한 면을 열어 동쪽을 제어하니 앞으로 용성龍城에 임하였구나. 금성탕지金城湯池의 지형을 공고히 하고자 이에 무지개를 타고 가는 형세를 만들었고, 예장豫章과 편남檉楠²²이 모두 모여 바람이 구포鷓鴣²³의 뜻에 불어오며, 무늬 새겨넣은 기둥과 서까래 맑고 새로워 구름이 교연蛟淵의 누각에 이어져 있네. 쇠문이 높고 우뚝하여 장안長安 삼보三輔²⁴의 존귀함에 걸맞고, 금방金榜이 처음 걸리니 동방 7수宿 섭제攝提²⁵의 호칭에 맞는구나. 지키면 견고해지니 명성이 여기에 있다네. 광대하여 더위잡고 오를 수 없으니 참으로 땅의 험준함 의지할 만하며, 푸르디 푸른 것 그 올바란 색이니 하늘의 쓰임 이만한 것 없으라.

17 황간을…… 있으니 : 이 부분은 각주 16번의 시 제6장의 구절을 인용해 온 것이다.

18 여러…… 모아 : 원문은 '屈群策'인데 여기에서 '屈'은 '모으다'는 뜻이다. 明 戚繼光의 『練兵實紀』, 『練將』 편에서 "반드시 널리 물어보고 여럿의 생각을 모으며 여러 계책을 모은다.(必廣詢博訪, 集眾思, 屈群策)"라고 하였다.

19 송나라…… 일 : 송 태조는 새로운 궁전이 완성되자 正殿에 나아가 모든 문을 열라 명하고 이것이 자신의 마음이니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사람들을 모두 볼 수 있다고 말한 고사를 지칭한다. 『宋史』, 『太祖本紀』 참조.

20 순…… 일 : 『書經』 「虞書·舜典」 편에서 "四岳에게 물어 사방의 문을 열어놓고 사방의 눈을 밝히고 사방의 귀를 통하게 하였다.(詢于四岳, 闢四門, 明四目, 達四聰)"라고 하였다.

21 析木 : 28수 중 尾星과 箕星에 해당하는 자리로, 우리나라를 가리킨다.

22 豫章과 檉楠 : 豫章은 枕木과 樟木의 병칭이고 檉楠은 黃檉木과 楠木의 병칭으로, 모두 들보에 쓰이는 큰 재목들이다.

23 鷓鴣 : 수원 지역에 있던 포구의 이름이다.

24 長安 三輔 : 漢나라 때 近畿 지역을 셋으로 분할하여 장안 동쪽을 관할하는 京兆尹, 長陵 북쪽을 관할하는 左馮翊, 渭城 서쪽을 관할하는 右扶風이라 하였다.

25 攝提 : 28수 중의 하나인 亢宿의 별자리 이름으로, 절기를 세우고 조짐을 헤아리는 일을 주관한다.

삼채三采 육등六等²⁶의 빛 맹춘孟春의 어가御駕를 돌리고, 구장九章 오색五色²⁷의 그림 전달 밤 꿈의 상서로움에 부합하는구나. 먼저 새벽 문에 햇빛 비치니 광채는 자라 사는 바다의 상서로운 빛깔에 가깝고, 아침에 그림 그려진 기둥에 구름 날아오니 그림자가 홍저虹渚²⁸의 맑은 물결에 담겼구나. 사람들의 마음으로 완성하여 한 번 다녀오는 것이 법도가 되었네. 하늘 한 가운데 화려한 집을 지으니 아름답구나 산하山河여! 큰 언덕에 많은 기둥으로 능침陵寢 만드니 슬프구나 선친²⁹이여! 임금께서 뽕나무 가래나무³⁰도 반드시 공경하여 고을의 사당을 분유사粉榆社³¹라 하셨네. 한漢나라가 오릉五陵의 호방한 사람들 읊긴 것은 황제의 능³²을 가까이하기 위해서였고, 주周나라가 삼문三門 가까이에 길을 낸 것은 길이 능침을 우러러보고 의지하기를 바라서였다네. 을묘년(1795, 정조 19)에 화성華城에 이르러 장락당長樂堂에서 술잔을 받들어 올리고, 군자가 그 집안을 보전하리니, 「사간斯干」편³³을 연주하였도다. 색은 은 3과 8의 왼쪽 청색³⁴을 취하고 덕은 구오九五의 하늘³⁵에 짝하네. 맑은 밤 밝은 달은 남쪽 누대에 올라 임하실 때 호위하고, 우아한 노래 부르고 투호投壺놀이 하는 것은 북쪽 문이 외적을 막아 주어서이지.

26 三采 六等 : 홀[圭]에 그리는 채색으로, 적, 백, 청의 삼채를 여섯 줄로 긋는 것을 의미한다.

27 九章 五色 : 임금의冕服인 구장복을 가리키는 말이다.

28 虹渚 : 상서로운 무지개의 빛이 물가에 닿았다는 말로, 왕이나 왕비가 태어날 조짐을 의미한다. 『宋書』 「符瑞志」 참조.

29 선친 : 원문은 '霜露'인데 『禮記』 「祭義」 편에서 "가을에 서리와 이슬이 내리면 군자는 그것을 밟아 보고 반드시 슬픈 마음이 생기니 날이 추워 그런 것이 아니다. 봄에 비와 이슬이 내려 땅이 축축해지면 군자는 그것을 밟아 보고 반드시 슬피하며 두려운 마음이 생겨 마치 죽은 부모를 장차 만날 듯한 생각이 들게 된다.(霜露既降, 君子履之, 必有愴惻之心, 非其寒之謂也. 春雨露既濡, 君子履之, 必有怵惕之心. 如將見之)"라고 한 데서 연원하여 돌아가신 부모님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30 뽕나무 가래나무 : 『詩經』 「小弁」 편에서 "(부모님이 심으신) 뽕나무와 가래나무도 반드시 공경한다.(維桑與梓, 必恭敬止)"라고 한 데서 연원하여 고향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31 粉榆社 : 漢나라 高祖의 고향인 沛縣의 豐 땅에 조성하였던 사당. 이곳에 느릅나무 두 그루를 심어 토지의 신으로 삼았으므로 '분유사라 하였다.

32 황제의 능 : 원문은 '金粟'으로, 唐나라 玄宗의 능이 있던 곳이어서 이후 황제의 능을 뜻하는 표현으로 쓰였다.

33 斯干 편 : 『詩經』 「小雅」의 편명으로, 宣王이 宮室을 지은 것을 노래한 시이다.

34 3과…… 청색 : 『河圖』에서 3과 8은 왼쪽에 위치하며 동방을 지칭한다.

35 九五의 하늘 : 『周易』 乾卦 九五에서 "용이 날아올라 하늘에 있다.(飛龍在天)"는 구절을 의미한다.

만년의 송頌으로 삼가 상량을 돕는 노래를 짓는다.

아이야 떡을 들보 동쪽에 던져라
 우러러 보니 앞의 별³⁶이 동궁(東宮)을 비추고 있네
 봉수당의 깊은 봄 바다와 같으니
 천 년의 경사스러운 모임 을묘년³⁷ 기억하리

아이야 떡을 들보 서쪽에 던져라
 비늘 같은 용마루에 한 굵이 붉은 글씨 빛나네
 화려한 빛깔 영화역(迎華驛)³⁸을 감싸고
 득의(得意)하여 화산(華山)³⁹ 북쪽⁴⁰ 말발굽 소리 흠어지네

아이야 떡을 들보 남쪽에 던져라
 발두령의 부드러운 뽕나무 베어다 누에를 기르네
 9월의 빈(邠) 땅 교외에 풍악 소리 들려오고
 붉은 태양 꽃바구니 속 수놓은 새 비단 비추는구나

아이야 떡을 들보 북쪽에 던져라
 지지현(遲遲峴)에 수레 길어 푸른 새끼줄⁴¹ 곧고
 화산(華山)에 가랑비 내리니 어가(御駕) 쉬어 가는데
 밤새도록 갱가(賡歌)⁴² 지어 임금께 바쳤도다

36 앞의 별 : 원문은 '前星'인데 『漢書』 「五行志」에서 心宿(28수 중의 하나인 심수)의 가운데 별은 임금이고 앞별은 태자요, 뒷별은 庶子라고 설명한 데서 '태자'를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
 37 을묘년 : 원문은 '旃蒙'으로, 古甲子에서 '乙'을 '전몽'이라 한다. 여기에서는 정조가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맞이하여 혜경궁을 모시고 현릉원을 찾았던 1795년(을묘년, 정조 19)을 말한다.
 38 迎華驛 : 良才驛을 화성 북문 밖으로 옮기고 名實을 부합시키기 위해 '영화역'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한다.
 39 花山 : 용릉의 主山이 되는 산으로, 지금의 화성시 화산동에 위치하고 있다.
 40 북쪽 : 원문은 '陰'인데 물의 남쪽 또는 산의 북쪽을 '음'이라고 한다.
 41 푸른 새끼줄 : 고대에 천자가 지나가는 길이나 머무르는 곳 주변에 둘러 구획을 정하던 수단이다.
 42 賡歌 : 임금의 시에 신하들이 화답하는 노래이다.

아이야 떡을 들보 위쪽에 던져라
 천문(天文)에 새벽빛 비치니 밝아 오니 계인(雞人)⁴³이 노래하네
 새 성을 만든 것은 임금님 계획
 화산(花山)의 중심 버들잎 모양으로 만들어내셨네

아이야 떡을 들보 아래쪽에 던져라
 비렴(飛廉)⁴⁴이 분주하니 대장장이가 담금질하네
 아홉 폭의 지도를 보태어 오니
 봉화대 그려 그림 안에 넣었구나

엎드려 바라건대, 상량한 뒤로 주(周)나라 말을 화산(華山) 남쪽으로 돌려보내고 양곡(陽谷)⁴⁵에서 제사지내게 하소서. 하늘은 문이 열린 것이요 땅은 문이 닫힌 것이며 끝없이 왕래하는 것을 통(通)이라 하니, 농사짓는 사람은 들관으로 베퉼하는 사람은 조정으로 여행하는 사람은 모두 길에 나오고 싶어 하게 하소서.

原文

丙辰，華城城役成，而東曰蒼龍門，承命製拋樑之文。
 伏以園陵固有神，奉衣冠於原廟；王公以守國，拱襟帶於重關。問是城東之門，特爲漢南之勝。
 念茲華府，封我珠邱。黃鷄啓期，地闢靈區之運；青烏告瑞，天與聖人之藏。卜云吉於龍盤，兆又叶於龜契。水若增清，山若增麗，一方之風氣肇開；二年成邑，三年成都，四境之民物漸盛。蓋軫僊鄉之拱護，故勤園邑之經營。玉札

43 雞人 : 周나라 때 새벽이 오는 것을 알리거나 제물로 쓰이는 닭의 공금 등을 맡았던 벼슬아치이다.
 44 飛廉 : 바람의 신이다.
 45 陽谷 : 중국 고대 전설에서 해가 떠오른다고 하는 곳이다.

披圖，金科設範，內則設壯勇，外則兼整理，穆然遠覽之宏規；下不用民力，上不煩大農，猗歟獨運之睿斷。雲根劈巨霸之斧，若有造物者相之；星緯耀營室之躔，可期不日而成也。於焉因河爲池，踐華爲郭，所以五版而堵，百雉而城。一曰分數，二曰材料，三曰壕塹，四曰築基，寓聖智於籌畧；相其陰陽，觀其流泉，度其隰原，夾其皇澗，屈羣策於指揮。

必待樓櫓之雄，方見鎖鑰之壯。引重致遠，甲轂辰轄之制初頒；正位辨方，子城午樓之役伊始。雒陽經緯之度，正仰宋祖之開諸；岱宗巡狩之儀，宜備虞皇之闢四。乃點析木之次，遂對扶桑之墟。挹八達而西瞻，上近蒼陸；開一面以東制，前臨龍城。將以鞏金湯之形，于是駕虹蜺之勢；豫章梗楠之并湊，風送鷗浦之帆；藻梲棟桷之載新，雲連蛟淵之閣。鐵關高聳，比長安三輔之尊；金榜初懸，應攝提七宿之號。守之則固，名言在茲。蕩蕩乎不得攀，固地險之足恃；蒼蒼者其正色，蓋天用之莫如。

三采六等之輝，時回孟春之駕；九章五色之繪，夢符前夜之祥。先得日於晨門，光襯鰲海之瑞彩；朝飛雲於畫棟，影蘸虹渚之清波。衆心以成，一遊爲度。樹中天之華闕，美哉山河；寢景岡之旅楹，恍焉霜露。顧宸慕必敬桑梓，而邑社迺名粉榆。漢移五陵之豪，蓋爲金粟之密邇；周旁三門之路，長願璇寢之瞻依。乙卯至于洛師，奉觴長樂之酒，君子保其家室，載絃斯干之詩。色取三八之左青，德配九五之天御。清宵朗月，拱南樓之登臨；雅歌投壺，倚北門之外禦。

肆將萬年之頌，恭助六偉之詞。

兒郎偉拋樑東，仰看前星繞震宮，奉壽堂深春似海，千年慶會記旃蒙，
兒郎偉拋樑西，鱗甍一曲耀紅題，紆迴楚色迎華驛，得意花陰散碧蹄，
兒郎偉拋樑南，拂陌柔桑趁養蠶，九月幽郊聞社鼓，朱陽新綉映花藍，
兒郎偉拋樑北，遲遲輦路青繩直，華山小雨住鳴鑾，宿夜賡歌攀御墨，
兒郎偉拋樑上，天門曙色鷄人唱，新城制置由宸謨，模得花心柳葉樣，
兒郎偉拋樑下，飛廉奔走昆吾冶，添來九幅方輿圖，畫鋪烟墩入影寫，
伏願上樑之後，歸周馬於華陽，奠義馭於鳴谷。乾爲戶闔，坤爲戶闔，往來

不窮謂之通，耕者於野，仕者於朝，行旅皆欲出其道。

| 解題

석재碩齋, 윤행임尹行恁이 1796년(정조 20)에 화성이 완성된 후 정조正祖의 명을 받들어 화성의 동문인 창룡문蒼龍門에 상량문을 지어 바쳤다. 윤행임은 다양한 고시를 활용하여 용릉을 이장하고 화성을 건축하게 된 의미를 서술하였다.

| 主題語

석재碩齋, 윤행임尹行恁, 창룡문蒼龍門, 화성華城



화서문 상량문

華西門上樑文



서유린徐有隣(1738~1802), 『일성록日省錄』

翻譯

엿드려 생각건대, 백 도堵¹를 쌓아 선침仙寢을 보호하니 여러 별들이 북극성을 에워싼 듯하고,² 네 문을 세워서 명당明堂을 상징하게 하니 서쪽 방의 오른쪽을 열었네.³ 아름답구나, 성 서쪽의 자물쇠여! 우뚝하게 남국南國의 울타리⁴가 되었도다. 이곳에 성을 쌓고 해자를 파는 크고 먼 계획은 이미 한두 신하가 갖추어 서술하였고, 경영經營하는 지극한 정성과 한결 같은 효성은 마땅히 내외영內外營의 상세한 진술을 따라야 하네.

왕위에 올라 처음 영우원永祐園에 전배展拜⁵하실 때부터 이미 배봉산拜峯山⁶에서 받들어 모실 뜻을 정하셨구나. 둘러싼 아름다운 기운 울창하여 한

1 堵 : 고대의 담장 건축 때 사용하는 단위로, 版築法으로 담장을 쌓을 때 길이 1版, 높이 5版을 1도라 하였다.

2 듯……듯하고 : 이 부분은 「論語」 「爲政」편의 “정치를 덕으로 하는 것은 비유하면 북극성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못별들이 그에게 향하는 것과 같다. (爲政以德, 譬如北辰居其所, 而衆星共之)”의 구절을 인용해 온 것이다.

3 서쪽……열도다 : 원문의 ‘總章’은 천자가 거처하는 大寢의 서쪽 방이고 ‘右个’는 그 서쪽 방의 북쪽이다. 천자는 가을 8월, 즉 늦가을에는 總章右个에서 거처한다. (『禮記』 「月令」 참조)

4 울타리 : 원문은 ‘藩維’인데 『詩經』 「板」편에서 “큰 덕을 갖춘 이 나라의 울타리이고 (价人維藩)”라는 구절에서 연원한 표현이다.

5 展拜 : 임금이 궁궐이나 종묘, 문묘, 능침 따위에 참배하는 일을 가리킨다.

6 拜峯山 : 지금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산으로, 영우원(사도세자의 능인 현릉원의 원래 이름)이 본래 이곳에 위치하였다.

漢나라 패릉瀾陵⁷의 편안함에 모자라지 않지만, 길 잃은 옛 시내 종횡으로 흘러 적이 주周나라의 난수灑水처럼 찌르고 침식할까⁸ 두려워하셨네. 지리를 살펴 은밀히 대사臺史⁹를 보내 거의 백여 리 기호畿湖 지역을 두루 다녀 보게 하였고, 황천皇天을 대하여 삼가 영령의 도움을 기다리며 십수 년 세월 정력을 쏟으셨네. 마침 이때에 영문營門을 새로 설치하니 사람들은 그 단서도 엿보지 못하였고, 그 제도는 당나라의 부병府兵¹⁰과 송宋나라의 상병廂兵¹¹과 같아 심복에게 맡겨 가까이 두셨도다. 삼가 태조와 광묘光廟¹²를 계승하여 호칭을 장용영壯勇營¹³이라 하고서 병법¹⁴을 연마하였으니, 둔전屯田을 열어 군무軍務를 농민에게 부치고 아문衙門을 높여 장수를 두고 사使라고 하였네.¹⁵ 저 영문營門을 바라보고 다투어 군대의 형편이 일신되었다 말하고, 이 호경鎬京¹⁶에 터를 잡으시니 누가 임금의 헤아림으로 먼저 정했음을 알 것인가.

아름답구나, 하늘이 거둬 복을 내리신¹⁷ 천 년 복지福地에, 유씨의 간지인 해 7월 중순에 터를 잡았도다.¹⁸ 진룡眞龍이 구슬을 품었으니 완연히 도사

7 瀾陵 : 漢나라 文帝의 능이다.

8 주나라의……침식할까 : 周나라 文王의 부친 王季를 초산 기슭에 장사지냈는데, 灑水가 묘 아래를 침식해서 왕계의 관 앞쪽이 밖으로 드러나자 관을 꺼내서 다시 3일장을 치렀다는 고사가 있다. (『戰國策』 「魏策」 참조) 이후로 ‘난수’는 이장하는 일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널리 쓰이게 되었으며, 여기에서는 사도세자의 뒷자리가 좋지 않으므로 이장한다는 의미이다.

9 臺史 : 地官을 가리키는 말이다.

10 府兵 : 西魏 때 시작되어 隋唐 시기에 정비된 군사 제도로, 농민들 가운데서 군사를 뽑아 농한기에 훈련을 시키고 지역 방위를 맡기는 대신 세금을 면제해 주었다.

11 廂兵 : 송나라 때 각 지역에서 군사를 모집하여 수도를 지키는 禁軍으로 충당하게 하고 나머지는 지역에 머무르며 훈련 대신 노역만 시켰는데, 이를 상병 혹은 상군이라 하였다.

12 光廟 : 조선 7대 임금 世祖의 廟號이다.

13 壯勇營 : 정조 17년(1793)에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한 禁衛 조직이다. 內營과 外營으로 구성되어 각각 한양 도성과 수원 유수부의 宿衛 업무를 담당하는바, 여기에서는 외영만을 지칭한다.

14 兵法 : 원문은 ‘韜鈴’인데 ‘도’와 ‘금’은 각각 고대의 병법서인 『六韜』와 『玉鈴』을 가리킨다.

15 아문衙門을……하였네 : 1785년(정조 9)에 창설된 壯勇營(국왕 호위 전담 부대)를 1793년(정조 17)에 壯勇營으로 확대 개편하고 지휘관을 壯勇使라고 고쳤던 일을 가리킨다.

16 鎬京 : 周나라 武王이 도읍으로 정하고 거주한 곳이다. 여기에서는 화성을 의미한다.

17 하늘이……내리신 : 원문은 ‘自天申之’인데 이는 『詩經』 「假樂」편에 나오는 구절로 하늘이 도와 거둬 복을 누리다는 의미이다.

18 유씨의……잡았도다 : ‘유’의 간지인 해 7월이란 현릉원을 수원의 花山 자락으로 이장한 정조 13년(1789) 기유년 7월을 말한다.

道師가 의발衣鉢을 전수하는 비결이요, 거북점이 먹을 먹었으니¹⁹성인聖人을 장사지내는 산에 부합하네. 귀신이 감추고 아껴둔 것이 마치 지금을 기다린 듯하고, 일진이 길하고 좋으니 거의 유감이 없으리라. 만약 성과 궁궐, 우물과 마을을 두어 큰 도회지를 양한兩漢의 삼보三輔²⁰처럼 높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요충지²¹를 장악하여 천추만세토록 높은 언덕을 보호할 수 있겠는가. 공경스럽게 상유桑榆의 땅에 나아가 이에 분유사粉榆社²²를 만들고, 초실楚室에서 토규土圭를 헤아리고²³ 주원周原에서 복소리를 들었네.²⁴

읍치邑治를 옮겨 팔달산八達山을 등지게 하니 물고기 비늘처럼 즐비하여 천을 짜놓은 듯하고, 다스리고 지키며 삼군三軍의 명령을 맡게 하니 호부虎符와 금절金節이 찬란하네. 길은 창오蒼梧²⁵에 접하여 오르내리기 매우 가깝고, 세동細洞과 유천柳川에 영문營門을 여니 이름과 실질 헛되지 않구나. 광채가 이전보다 갑절이나 빛나니 안에 축적되어 밖으로 드리남을 알겠고, 문文과 무武를 아울러 쓰니 풀어 주고 죄는 데에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위치가 서울과 지방의 중간에 있으니 호령이 각각 나온다고 말하지 않으며, 직위는 체모體貌가 귀하므로 그 위치位次를 특별히 높게 하였네. 군량을 비축하고 갑병甲兵을 정비하는 것은 원래 똑같은 것이고, 청소를 맡고 정리를 관장하는 것은 도리어 중하지 아니한가. 여기에서 내영內營을 세

운 규모가 외사外使의 토대를 만들려는 뜻에서 나왔음을 알겠네.

삼역三易²⁶에서 취한다면 선천先天과 후천後天의 체體와 용用이 서로 바탕이 되고, 오음五音에 비유하면 징과 경쇠소리의 조리條理가 어지럽지 않네.²⁷ 처음에는 아득해서 맞추기 어려웠는데, 여러 해 동안 안배하고 배치하는 것을 궁리하고 나니 이제는 하나하나 서로 부합하여 크고 작은 것들이 각각 제 자리를 얻었네. 전에는 신하들도 좁은 견해로 큰 뜻을 헤아리다 보니 거의 이해하지 못할 듯하였는데, 이제는 부녀자나 아이들도 구름을 걷고 하늘을 보는 것 같아 모두가 신령스럽고 거룩하다고 말하네. 이는 모두 천리天理에 부합하고 모든 일이 반드시 물정物情에 순응하였기 때문이라네.

두 군영軍營의 한계를 여니 벽루壁壘의 깃발과 북이 찬란하고, 하나의 성을 호위하는 일을 맡기니 우뚝하게 교외의 간성干城이 되었네. 백 치雉²⁸를 넘지 않으니 기자箕子가 만든 평양성平陽城의 제도를 본받고, 삼일을 넘지 않았으니 영대靈臺²⁹를 만들 때 자식처럼 와서 일한 백성들의 노역에 그쳤네. 울림鬱林的 돌³⁰과 조래산徂徠山の 소나무³¹는 땅이 보배를 아끼지 않은 것이고, 영풍鄕風³²의 자귀와 공수公輸³³의 먹줄은 사람마다 모두 재능을 발휘한 것이니, 계축, 갑인, 을묘년 북두칠성의 자루가 돌아 동쪽, 남쪽, 북쪽

19 거북점이……먹었으니: 거북점을 칠 때 거북이 껍질에 먹으로 미리 금을 쳐두고 점을 치는데, 거북이 껍질에 생기는 금이 미리 쳐둔 먹선을 따라 갈라지는 것을 가리킨다.
 20 三輔:漢나라 때 近畿 지역을 셋으로 분할하여 장안 동쪽을 관할하는 京兆尹, 長陵 북쪽을 관할하는 左馮翊, 渭城 서쪽을 관할하는 右扶風이라 하였다.
 21 요충지: 원문은 '襟帶로, '襟'은 험준한 산이 옷자락처럼 펼쳐진 것을, '帶'는 강물이 허리띠처럼 둘러싼 것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의미가 파생되어 '요충지'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22 粉榆社:漢나라 高祖의 고향인 沛縣의 豐 땅에 조성하였던 사당이다. 이곳에 느릅나무 두 그루를 심어 토지의 신으로 삼았으므로 '분유사'라 하였다.
 23 초실……헤아리고: 원문의 '楚室'은 楚丘에 지은 궁궐이며, '土圭'는 1尺 5寸 되는 막대를 땅 위에 세우고 그 그림자로 땅의 중앙을 재는 도구이다. 춘추 시대 衛나라가 狄의 침입을 받고 멸망하자, 文公이 楚丘로 옮겨가서 궁궐을 지었는데, 이때 해의 그림자를 보고서 동서남북의 방향을 잡아 건물을 지은 고사가 있다.
 24 주원에서……들었네: 周나라 太王이 邠 땅에서 狄의 침입을 피해 岐山 아래로 옮겨와서 궁궐을 지을 때에 북을 울리면서 독려했다. 周原은 周나라 평원이다.
 25 蒼梧:舜 임금의 장사지낸 곳이다. 여기에서는 사도세자의 능인 현릉원을 가리킨다.

26 三易:夏나라의 『連山易』,殷나라의 『歸藏易』,周나라의 『周易』이다.
 27 징과……않네:『孟子』,『萬章』의 "공자는 집대성한 분이시다. 집대성이란 종과 같은 금의 소리가 먼저 퍼지게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경쇠와 같은 옥의 소리로 거 뒤들이는 것을 말한다.(孔子之謂集大成. 集大成也者, 金聲而玉振之也)"을 인용해 온 것이다. 여기에서는 정조가 화성을 축조한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조리가 정연했음을 가리킨다.
 28 雉:고대에 성 담장의 면적을 계산하는 단위로, 길이 3장, 높이 1장을 1치라 하였다.
 29 靈臺:周나라 文王이 세운 누대 이름. 문왕이 영대를 지으려 하니 백성들이 달려와 하루도 되지 않아 완성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詩經』,『靈臺』편 참조)
 30 울림의 돌:울림은 중국 광서지방 고을 이름으로, 삼국 시대 吳나라 陸績이 태수를 지낸 곳이다. 육적이 태수의 임기를 마치고 울적에 짐이 없어 배가 가벼워 균형을 잡지 못하자 돌을 배에 실어 무겁게 하니 사람들이 '울림의 돌[鬱林石]'이라고 하며 그의 청렴함을 칭송하였다.
 31 조래산의 소나무:조래산은 중국 산둥성에 있는 소나무숲으로 유명한 산으로, 대들보같이 될 만한 소나무가 잘 자란다고 한다.
 32 鄕風:楚나라 서울 鄕에 살았다는 뛰어난 목수이다.
 33 公輸:춘추시대 말기 魯나라에 살았던 뛰어난 목수이다.

에 아름다운 누각이 우뚝 선 것을 보았네.

손님을 맞이하는 문 사방에 여니 예禮에서 귀하게 여긴 것은 많기 때문 이고, 하나를 들면 나머지 셋으로 반증하는 것은 의리상 하나를 빠뜨릴 수 없어서이네. 태兌로써 기뻐하는 땅에³⁴ 예괘豫卦에서 취하는 공功³⁵을 강구 하였고, 별은 허성虛星이고 밤의 길이는 중간이며 알맞은 중추이니, 곧 서 쪽에 머물러 가을의 수확하는 일을 고르게 차례지은 곳이고,³⁶ 소호씨小皞 氏가 금金을 성덕盛德으로 삼았으니³⁷ 이 또한 만물이 각각 결실을 맺는 방 향이네. 창합풍閨風³⁸을 맞이하여 하늘 높이 올라간 매를 불러오고, 산과 못은 기운이 통하여 기운을 불어서 구름을 지고 있는 무지개를 이루네. 낙 남軒落南軒에 활과 화살 빛나니 부옥산浮玉山³⁹ 신선은 보배를 바치고, 장 락당長樂堂에서 요준堯樽⁴⁰을 올리니 반도蟠桃⁴¹가 안주를 채우네.

높은 누대에서 내려다보니 산은 부월斧鉞을 찬 장수를 내고, 상쾌한 기 운이 때에 맞게 들어오니 초야에는 홀芻로 턱을 괴고 있는 현자⁴²가 많다. 새 고을을 만들어 터전을 안정시키니 형세가 동주東周의 낙양洛陽과

34 태로써……땅에 : 원문의 '兌'는 서쪽[金]을 상징한다. 여기에서는 화서문을 서쪽에 배치하였음을 말한다. (『易小帖』 참조)

35 예괘에서……공 : 이 부분은 『周易』 「繫辭傳」에 “문을 이중으로 하고 목탁을 쳐서 포악한 나그네를 대비하였으니, 예괘에서 취하였다. (重門擊柝, 以待暴客, 取諸豫卦)”의 구절을 인용해 온 것으로, 여기에서는 화서문이 외부의 공격을 막는 의도로 세워졌음을 가리킨다.

36 별은……곳이고 : 이 부분은 『書經』 「堯典」에 “和仲에게 나누어 명하여 서쪽에 머물게 하시니, 昧谷이라 하는 곳이다. 들어가는 해를 공경히 전송하여 가을 수확을 고르게 하니, 밤은 중간이고 별은 虛宿이다. 알맞은 仲秋가 되면 백성들은 평화롭고 조수는 털갈이를 하여 윤택해진다. (分命和仲宅西, 日昧谷, 寅饒納日, 平秩西成, 宵中星虛, 以殷仲秋, 厥民夷, 鳥獸毛毳)”의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가을은 서쪽의 상징으로, 화서문이 화성의 서쪽에 있었기에 이 말을 한 것이다.

37 소호씨가……삼았으니 : 소호씨는 중국 고대의 五帝 중 한 사람으로, 金德으로 왕이 되었다고 하여 金天氏라고도 한다. 金은 오행 중에 서쪽을 상징하는데, 화서문이 화성의 서쪽에 있었기에 이 말을 한 것이다.

38 閨闔風 : 가을철[秋分]에 부는 바람이다.

39 浮玉山 : 전설상의 신선이 사는 산이다.

40 堯樽 : 요 임금의 술잔이다.

41 蟠桃 : 3천 년에 한 번 꽃이 피고 3천 년에 한 번 열매를 맺는다는 전설상의 나무이다.

42 홀로……현자 : 뜰나라 王子猷가 桓溫의 車騎參軍이 되었는데, 환온이 “그대는 근무한지가 오래되어 아마도 여유로워졌을 것 같네.”라고 하자 왕자猷가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고 높은 곳을 쳐다보고 있다가 芻로 턱을 괴고서 “서산에 아집이 오니 상쾌한 기운을 불려옵니다.”라고 한 고사를 지칭한다. 관직에 있으면서 한가한 흥취가 있음을 표현하는 말이다.

비길 만하고, 임금을 바라는 데서 뜻을 취했으니 칭호가 서화西華⁴³에 들어 맞구나. 위세가 산모퉁이에 웅크린 호랑이일 뿐만이 아니니, 여곽藜藿을 뜯지 못하는 호위⁴⁴를 절로 이루었고, 구름 또한 물에 있을 때보다 신령스 러워 우禹 임금이 뚫은 용문龍門과 상대할 만하네.

빙 둘러 군진軍陣이 별처럼 벌려 있으니 현룡원이 영원히 견고할 것이 고, 때는 낙랑樂浪에 먼지가 갠 때이니 빗장을 채워 놀라지 않으리라. 거 리가 강구康衢와 이어져 어가御駕를 맞아서 성인聖人을 축원하고,⁴⁵ 토지는 웅주雍州의 땅과 같아⁴⁶ 누렇게 결실한 곡식을 거두며 소리 높여 노래하 네. 주周나라 왕이 형통한 것⁴⁷을 본받았으니 실로 그 복을 받고, 송宋나라 태조가 활짝 연 것을 본받았으니 바로 나의 마음과 같네. 이에 안과 밖으 로 합쳐서 함께 보니 빈틈없기가 마치 조물주가 한 것처럼 인위의 자취 가 없네.

마을의 빗장 흔들리지 않으니 병단兵團은 다섯 사וו이고, 창고의 고리 그 대로이니 성곽의 둘레 7리나 되네. 지난날 서울에서 기장을 세우고 표준 을 세우지 않았다면 어찌 외부外府에 거푸집에 쇳물을 부어서 만든 것처럼 똑같이 할 수 있었겠는가. 온 나라 사람들이 눈을 비비며 모두들 성상 聖上의 계획이 매우 뛰어난을 우러러보고, 모든 일이 뜻대로 되었으니 자 신의 효도를 미루어 하지 않은 것이 없네.

용대장龍大將과 호대장虎大將⁴⁸은 초楚나라 이광법二廣法⁴⁹과 비슷하고,

43 西華 : 자금성의 서문인 西華門을 가리킨다.

44 여곽을……호위 : 『貞觀政要』 권6 「杜襲」에서 唐나라 太宗이 “이전의 역사에서 ‘맹수가 산림에 있으면 사람들이 산에 들어가 여곽을 뜯지 못하고, 곧은 신하가 조정에 있으면 간사한 자가 음모를 꾸미지 못 한다. (猛獸處山林, 藜藿爲之不採, 直臣立朝廷, 奸邪爲之寢謀)’고 하니, 이것이 집이 공들에게 바라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45 성인을 축원하고 : 요 임금이 華지역을 유람할 때에 그 지역 국경을 지키던 사람이 요 임금을 위해서 ‘장수[壽], ‘부귀[富], ‘아들을 많이 낳음[多男子]’의 내용으로 축원하였다.

46 토지는……같아 : 雍州는 토질이 비옥하여 토지 등급 중 최상의 등급[上土]에 해당하였다.

47 주나라……것 : 이 부분은 『周易』 「隨卦」上六의 爻辭 내용을 인용해 온 것이다.

48 용대장과 호대장 : 효종 때 禁軍을 설치하고 內三廳이라고 불렀으며, 左都別將과 右都別將을 두어 용 대장과 호대장이라 불렀다.

49 二廣法 : 楚나라 태 왕의 친위대를 兩都로 나누고 각 부의 명칭을 ‘廣’이라고 하였다.

고서문古西門과 신서문新西門은 한漢나라의 구풍舊豐과 신평新豐을 고치지 않았네. 합하면 하나의 영營이 되고 나누면 두 개의 국국이 되니, 어찌 새의 날개와 수레의 바퀴 정도일 뿐이겠으며, 여초麗譙⁵⁰보다 화려하고 제운齊雲⁵¹보다 높아 도처가 모두 핑이 나는 듯하고 화살이 나는 듯하니 이것이 이른바 신의 도움을 얻은 것이고, 무너지지 않을 큰 기틀임을 잘 알겠네.

긴 들보를 들어 올리는 때에 삼가 좋은 노래를 부르노라.

아이야 떡을 들보 동쪽으로 던져라

동쪽 땅⁵²에 태화太和의 바람 불어오네

높은 누각에서 멀리 부상扶桑⁵³의 해를 대하니

꽃과 나무가 봄에 앞서 조화의 공을 알리네

아이야 떡을 들보 서쪽으로 던져라

산은 기산岐山의 오동나무와 접하여 봉황이 깃드네

들으니, 잔잔한 바다는 파도가 마치 거울 같아

탈 없이 바람을 타고 만 척 배가 나란히 한다네

아이야 떡을 들보 남쪽으로 던져라

못 산들 공손히 읊하여 조참朝參을 하는 듯하네

해마다 정성스레 제사지내니

동산 나무에 상서로운 조짐으로 감로甘露가 내리는구나

50 麗譙: 전국시대 때 있던 누각으로, 화려화면서로 유명한다.

51 齊雲: 唐나라 때 건축된 누각으로, 구름같이 높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52 동쪽 땅: 원문은 '蒼陸'인데 '창'은 푸른색으로 오행설에서 푸른색은 동쪽을 의미한다.

53 扶桑: 전설에 나오는, 동쪽 바다 속 해 뜨는 곳에 있다고 하는 나무이다. 여기에서는 해가 뜨는 동쪽 바다를 의미한다.

아이야 떡을 들보 북쪽으로 던져라

이 날에 어가가 궁궐로부터 오시네

백 대隊의 용맹한 내외영

척후병과 후군後軍 배 짜듯 찾아드네

아이야 떡을 들보 위로 던져라

자궁慈宮의 수레 하늘에서 임하여 천 승乘 군대 기르네

3월 꽃바람에 질서정연히 잔치 벌이니

남은 은혜 노인에게 미쳐 구장鳩杖⁵⁴을 하사하네

아이야 떡을 들보 아래로 던져라

우뚝히 높은 담장 너른 들판 둘러쌌네

천만 대문 차례로 열리니

선비, 농부, 군사, 장인, 상인들이네

옆드려 바라건대, 상량한 뒤로 나라의 형세는 태산과 같아지고 백성의 마음은 성城이 되며, 교산喬山⁵⁵의 소나무와 삼나무는 길이 영원할 은택恩澤을 띠고 원문輦門의 깃발은 두 영營의 진지陣地에 서로 빛나게 하소서. 사직司直 서유린徐有隣이 지어 올렸다.

| 原文

伏以設百堵而護仙寢, 拱衆星於北辰; 立四門而象明堂, 闢總章之右个。美哉! 西城鎖鑰, 屹然南國藩維。惟其築斯鑿斯之遠略宏圖, 已經一二臣備述; 至若經之營之之至誠達孝, 宜從內外營詳陳。

54 鳩杖: 玉鳩杖의 준말로, 임금이 70세 이상 되는 공신이나 원로대신에게 주던 손잡이 부분을 비둘기 모양으로 조각한 지팡이이다.

55 喬山: 중국 고대의 황제인 黃帝를 장사지냈다고 하는 橋山을 가리킨다.

輿自御極初展園之時，已決拜峯山遷奉之議，環封之佳氣蔥鬱，非乏漢灞陵安安。失道之故流縱橫，竊恐周灤水衝齧，按輿地而密遣臺史，遍踏幾百里畿湖；對皇天而恭俟靈庥，積費十數年日月。適此時營牙之肇創，而衆人端倪之莫窺，其制也唐府宋廂，托心腹而處肘腋。謹述乎太祖光廟，號壯勇而練韜鈴，開屯田則寓兵於農，尊衙門則置將曰使。瞻彼和壘，爭說軍容之一新；宅是鎬京，誰識睿度之先定？

猗歟！自天申之千年福地，卜在太歲酉之七月仲旬。眞龍抱珠，宛道師傳鉢之訣，元龜食墨，叶聖人葬衣之丘。鬼秘神慳，若有待也日，吉辰良，庶無憾乎。苟不置城闕井閭，隆上都於兩漢三輔，則何以襟帶控引衛崇岡於萬歲千秋？肆就敬桑梓之鄉，仍作蔭粉榆之社，測土圭於楚室，聽鼓鼓於周原。

徙邑治而負八達之山，魚鱗櫛比之織織；俾保釐而司三軍之命，虎符金節之煌煌。路接蒼梧，陟降孔邇；營開細柳，名實不虛。精彩倍增，可驗由中而著外；文武並用，何妨弛逸而張勞？地分京鄉，莫曰號令之各主；職貴體貌，特許位次之獨尊。峙猴糧繕甲兵，固所同也；供灑掃掌整理，反不重歟？是知立內營規模，宣出作外使基址。

取之三易，先後天之體用互資；比諸五音，金玉聲之條理不紊。始也落落難合，安排布置之默運多年；今焉節節相符，洪纖巨細之各得其所。顧臣隣傾蠡測管，殆似不識不知；雖婦孺披雲覩天，咸曰乃神乃聖。蓋是舉既合天理，伊衆務必順物情。

拓兩營之範圍，煥然壁壘旗鼓；寄一城之拱護，峙乃郊遂榦楨。百雉毋過，倣箕都父師之制；三日不用，止靈臺子來之民。鬱林石徂徠松，地不愛寶；郢風斤公輸墨，人皆效能，纔經癸甲乙璇杓之轉移，已見東南北綺樓之突兀。

賓門闢四，禮爲貴者以多；舉隅反三，義不可乎闕一。乃於說以兌之地，爰講取諸豫之功，星宵中殷以仲秋，卽義宅平秩成之所，帝小卬金爲盛德，亦萬物各就實之方。闔闔迎風，呼來戾天之隼；山澤通氣，噓成駕雲之虹。耀軒弧於洛南，浮玉效賁；奉堯樽於長樂，蟠桃佐肴。

高臺俯臨，山出仗鉞之將；爽氣時入，野多拄笏之賢。作新邑而奠基，體勢

頡頏於東洛；望美人而取義，稱號折衷於西華。威不啻於負嵎，自成藜採之門；雲亦靈於在水，相對禹鑿之門。

環之以星羅鉤陳，象設永固；時則值塵清樂浪，魚鑰不驚。巷連康衢，迎翠華而祝聖；田臨雍壤，納黃雲而騰謠。象用亨於周王，實受其福；法洞開於宋祖，政如我心。於焉合表裏而儼觀，沕然若造化之無跡。

村扃不擾，兵團五司；倉鏑自如，郭連七里。向不使立經陳紀建標隼於京師，那能如合土範金鑄樣子於外府？八方拭目，皆仰聖籌之出常；百爲從心，莫非孝思之推類。龍大將虎大將，楚廣相須；古西門今西門，漢豐不改。合爲單營，離爲兩局，奚啻若鳥翼車輪；華於麗譙，高於齊雲，著處是翬飛矢棘，是所謂若獲神助，大可見不拔洪基，載舉修樑恭陳善頌。

兒郎偉拋樑東，噓來蒼陸太和風，高樓迥對扶桑日，花木先春造化功。
兒郎偉拋樑西，山接岐梧鳳在棲，聞說重溟波似鏡，乘風無恙萬帆齊。
兒郎偉拋樑南，群巒拱揖似朝參，年年薦蕊心香上，園樹休徵瑞露甘。
兒郎偉拋樑北，是日鑾輿從紫極，百隊狻猊內外營，前茅後殿來如織。
兒郎偉拋樑上，慈駕天臨千乘養，三月花風秩秩筵，餘恩及老頽鳩杖。
兒郎偉拋樑下，屹屹崇墉環大野，萬戶千門次第開，士農軍伍工商者。
伏願上樑之後，國勢如泰，衆心成城，喬山松杉，長帶萬古之雨露；轅門旌纛，交輝二營之風雲。

司直徐有隣製進。

【解題】

화서문華西門은 화성華城의 서문西門으로, 서유린徐有隣은 정조正祖의 명을 받아 상량문을 지어 바쳤다. 이 글에서 서유린은 현릉원顯隆園의 위치와 능원의 조성, 화서문의 건축과 그 경관 등을 다채롭고 상세하게 묘사하였다.

| 主題語

서유린徐有隣, 화성華城, 화서문華西門, 상량문上樑文, 일성록日省錄, 정조
正祖

화홍문 상량문

華虹門上梁文



윤숙尹塾(1734~1797), 『일성록日省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 翻譯

엎드려 생각건대, 빼어난 저 은하수는 하늘에 문장이 되어 밝게 돌고, 무지개는 이곳에 쏟아져 특별한 곳을 표시하여 높이 일어났으니, 옛날의 상서로움 이어받아 새로운 편액 걸었구나.

엎드려 든건대, 성왕成王이 둘째 도읍을 만들 때¹에 선왕의 유지遺志를 따랐고, 좌사左思가 「삼도부三都賦」² 지을 때 빛나는 시대의 큰 규모 갖추어 적었네. 천진天津은 고금의 변화함을 마음대로 하여 이십사절기 밝은 달을 읊은 작품이 전해지고, 땅의 운수는 밝고 어둡고 느리고 빠른 때가 있어 천오백 년 창성한 때를 기다리네.

아, 우리 화성華城은 옛날에 한양의 울타리라고 하였고, 지금은 진양晉陽³의 성과 궁궐이 되었네. 원릉園陵의 소나무와 가래나무 가까우니 매달

- 1 成王이…… 때에 : 周나라 성왕 때 周公으로 하여금 洛邑을 경영하여 이곳을 東都로 삼은 일이 있다.
- 2 三都賦 : 晉나라 문장가 좌사가 10년 동안 고심해 지은 賦 연작으로, 「蜀都賦」, 「吳都賦」, 「魏都賦」로 이루어져 있다.
- 3 晉陽 : 전국 시대 趙簡子가 태수 尹鐸으로 하여금 백성을 안정시켜 국방상 요지로 만들게 한 곳으로, 훗날 외침으로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 이곳에 귀의하여 국난을 극복하였다고 한다. '진양의 성과 궁궐'은 국방의 요충지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의관衣冠을 바람에 쏘이는 의식⁴을 바라보고, 영남과 호남의 길 낮고 평평하니 배와 수레 날마다 모여들어 통하는구나. 비석 돌은 산속 동굴에서 캐냈으니 지명地名이 먼저 부합하였고, 팔달산八達山에서 북스러운 상수리 나무 뽑아 오니 하늘의 마음 볼 수 있었네. 영대靈臺⁵을 지을 때와 같이 날마다 수만 명의 백성들 자식처럼 찾아오고, 장락당長樂堂⁶에서 잔을 올리니 8천 년마다 싹이 트는⁷ 과일을 바쳤네.

이에 화서華胥⁸의 물가에 무지개다리 문을 세웠도다. 봉황은 춤추고 용은 날아올라 초수菡水는 천목산天目山에서 끌어오고,⁹ 교룡蛟龍이 서리고 호랑이 웅크려 진회秦淮는 석두성石頭城에 통하는구나.¹⁰ 우뚝해 북극성北極星에 가까우니 문 앞에는 천 봉우리 화악華岳¹¹처럼 늘어서 있고, 도도히 흘러 남국南國의 벼리가 되니 시내에 한 가닥 무지개 빛 띠 있네. 장안문끼고 팔달문 마주하여 완연히 송宋나라의 관문¹²처럼 웅장하고, 방화수류정訪花隨柳亭을 끼고서 버드나무 늘어진 시내에 입하니 의연히 주周나라의 고문阜門과 응문應門¹³처럼 굳건하구나. 이때에 태양이 비치니 옥녀玉女와

명성明星¹⁴이 황도黃道를 청소하고 화개성華蓋星¹⁵이 가리키니 푸른 무지개와 자색 신기루가 검은 물결에 서로 일렁이는구나.

문이 만 년의 기틀 열었으니 큰 거북이 기둥 아래 엎드리고, 다리는 반달 형세로 만들어지니 물속에서 청룡靑龍을 보네. 눈에 물을 대 누런 구름 일렁이니 큰 들이 눈에 가득하고, 꽃다운 제방에 푸른 물결 솟아넘치니 성대히 흘러 임금님 은택¹⁶과 함께 흐르네. 이 문은 극極의 도를 본받아 곧게 이어져 도성과의 거리가 멀지 않구나. 광교산光敎山의 상서로운 구름과 서로 접하여 신령스러운 무지개 이 강물을 마시며, 화산花山¹⁷의 태양과 달 높이 걸려 연기와 섞여 땅에 닿았네. 만 골짜기의 물방울 받아들여 큰 보를 이루었고, 천 리의 물결 소통시켜 끝내 큰 바다로 돌아가게 하였네. 이곳이 산수山水가 수려한 신선의 고을이요, 땅이 숨기고 하늘이 아껴둔 곳이 드러난 때라고 하네. 굽어보면 내영內營과 외영外營이 비貅와 휴貅¹⁸처럼 나뉘어 배치되어 북예北豫과 남예南豫¹⁹ 같을 뿐만이 아니며, 멀리 바라보면 위아래 마을의 닭과 개를 각기 알아볼 수 있으니 자못 구풍舊豐과 신평新豐²⁰ 같구나. 앞 시내에 임하여 시를 읊고 돌아오며 꽃을 찾고 버들을 따라가는²¹ 기상을 얻고, 이 누대에 올라 굽어보고 우러러보며 하늘 빛 구름 그림자와 더불어 배회하네. 이에 인부들의 어영차 소리²²로 인하여 감히 상

4 衣冠을 …… 의식 : 원문은 '月遊'로 매월 제왕의 의관을 꺼내 바람을 쐬는 것[擧風]이다. 漢나라 高祖의 능침에 보관된 한 고조의 의관을 매달 꺼내어 바람을 쐬 데서 유래하였다. 이후 선왕의 의관을 매달 한 번씩 擧風하는 것을 뜻하는 표현으로 쓰였다.〔漢書〕卷43,「叔孫通傳」 참조)
 5 靈臺 : 周나라 文王이 천문 관측을 위해 궁궐 안에 지은 望臺이다.
 6 長樂堂 : 화성행궁의 內堂으로, 혜경궁 홍씨가 을묘년 圓行 때 머물렀음.
 7 싹이 트는 : 원문은 '甲斯'인데 '甲斯(초목이 발아할 때 씨앗의 외피가 벗어지는 것)'을 잘못 쓴 것으로, 『周易』「解卦」에서 '천지가 풀러 뇌우가 일어나고, 뇌우가 일어나니 온갖 과일과 초목이 모두 싹이 트다.(天地解而雷雨作, 雷雨作而百果草木皆甲斯)'라고 한 데서 연원한 표현이다. 8천 년마다 싹이 트는 것은 『莊子』「逍遙遊」에 등장하는 長壽木인 大椿(8천 년을 봄으로 삼음)을 의식한 표현으로 보인다.
 8 華胥 : 黃帝가 꿈에서 보았다는 이상적인 나라의 이름인데, 여기에서는 화성을 축조한 수원 지역을 비유하는 말이다.
 9 菡水를 …… 끌어오고 : 蘇軾의 「表忠觀碑」에서 "천목산에서 초수가 나는데 용이 날아오르고 봉황이 춤추어 臨安에 모인다.(天目之山, 菡水出焉, 龍飛鳳舞, 萃於臨安)"라고 한 것을 가리킨다.
 10 秦淮를 …… 통하는구나 : 진회는 중국 南京을 흐르는 강이고, 석두성은 옛나라 수도 建業에 쌓은 성 이름이다. 수원 지역의 형세를 비유한 표현이다.
 11 華岳 : 중국의 오대 명산 중 하나인 華山을 가리키는 말이다.
 12 宋나라의 관문 : 宋나라 寇準이 大名府를 지킬 때 遼나라 사신이 왜 명망 있는 구준이 서울에 있지 않고 이곳에 있느냐고 묻자 "주상께서 조정은 별일 없으니 북문을 걸어 잠그는 것은 계가 아니면 불가하다 하셨습니다.(主上以朝廷無事, 北門鎖鑰非準不可)"라고 대답한 이른바 '북문쇄약'의 고사가 있는데 이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13 阜門과 應門 : '고문'은 왕의 성문이며, '응문'은 왕의 正門이다.

14 玉女와 明星 : 둘 다 華山에 산다고 하는 전설 속의 선녀 이름이다.
 15 華蓋星 : 三垣 가운데 紫微垣에 딸린 별자리 이름으로, 임금의 자리를 가리는 日傘을 상징한다.
 16 임금님 은택 : 원문은 '霽澤'으로 원래는 빗물이라는 뜻이나 빗물이 땅을 적신다는 뜻에서 파생되어 은택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쓰인다.
 17 花山 : 용릉의 主山이 되는 산으로, 지금의 화성시 화산동에 위치하고 있다.
 18 貅와 貅 : 비와 휴는 표범의 일종으로 수컷을 '비', 암컷을 '휴'라 한다. 용맹한 군대를 비유하는 표현이기도 한다.
 19 北豫와 南豫 : 宋나라 때 지명인 豫州와 南豫州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20 舊豐과 新豐 : '신평'은 漢나라 高祖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부친을 위해 고향 豐邑의 건물을 그대로 모방하여 만든 고을이며, '구풍'은 신평에 상대하여 옛 풍습을 일컫는 말이다.
 21 꽃을 …… 따라가는 : 宋 程顥의 시 「春日偶成」에서 "구름 담박하고 바람 순하여 한낮이 가까운데, 꽃 찾아 버들 따라 앞 시내를 지나네.(雲淡風輕近午天, 訪花隨柳過前川)"라는 구절을 인용한 것이니, 화홍문 옆에 있는 방화수류정의 명칭이 바로 이 시에서 따온 것이다.
 22 인부들의 …… 소리 : 원문은 '呼嘯'인데 목재나 돌 따위의 무거운 물건을 운반할 때에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 번갈아가면서 내는 소리를 의미한다. '呼嘯'라고도 쓴다.

량을 돕는 노래를 바치노라.

아이야 떡을 들보 동쪽으로 던져라

천추 만세 千秋萬歲도록 이어질 화성 남쪽 궁궐

용이 없드린 다리 아래 맑고 차가운 물 흐르니

원기 元氣가 길이 흘러 무지개 건히지 않겠네

아이야 떡을 들보 서쪽으로 던져라

높은 능침 陵寢 바라보니 아름다운 기운 나란한데

한 그루 오동나무 저물녘에 꽃 피고

아홉 가지 특징²³ 지닌 상서로운 봉황 와서 깃들여 사는구나

아이야 떡을 들보 남쪽으로 던져라

무리지어 나는 갈매기와 해오라기 맑은 못에 가득한데

헤엄치는 물고기도 역시 임금 은혜 무거운 줄 아니

봄 물결 위로 다투어 뛰어올라 향기로운 먹이 무는구나

아이야 떡을 들보 북쪽으로 던져라

하늘같은 대로 大路는 서울로 이어진다네

별처럼 늘어선 사백 군데 고을에서

온갖 사물 무성하여²⁴ 모두 여기 모여드네

아이야 떡을 들보 위쪽으로 던져라

23 아홉 …… 특징 : 원문은 '九苞'로, 봉황의 아홉 가지 특징이라고 전해진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입은 합부로 울지 않고 마음은 법도에 맞고 귀는 멀리까지 잘 듣고 혀는 소리를 잘 내고 깃 색깔은 문채가 나고 벼슬은 붉은 색이고 발톱은 날카롭고 소리는 우렁차고 배는 아무것이나 먹지 않는 것이다.

24 무성하여 : 원문은 '芸芸'인데 『老子』에서 사용된 표현이다.

오성 五星과 밝은 달의 빛 드넓게 비치는구나

백 척의 무지개다리 운수는 새로우니

큰 덕이 강물처럼 흘러 큰 복을 내려주시리

아이야 떡을 들보 아래쪽으로 던져라

온갖 시내 팔팔 흘러 남쪽 들판으로 들어가는데

세찬 물결 밤낮으로 화홍문에 쏟아지니

사랑 만 리²⁵ 아름다운 봄 경치에 백타 白打²⁶를 갈고 닦네

엮드려 바라건대, 상량한 뒤로 붉은 수레에 흰 말을 타고 요충 임금이 화
華 지역을 시찰한 의식²⁷을 본받고, 기린 같은 덕으로 메뚜기처럼 자손이
번성하여²⁸ 소호 少昊가 태어날 때 무지개가 휘감았던 경사²⁹를 잊게 하소
서. 구름같은 문 열어 온갖 복 받아들이니 오이닝쿨처럼 면면히 이어지고,
신령한 샘물 떠 수많은 제책에 더하니 흐르는 물결 용솟음치게 하소서. 이
때에 경성 景星³⁰이 광채를 더하고 「남풍가 南風歌」³¹ 불러 바람을 타네. 하늘
의 명을 경계한 순舜 임금의 노래를 부르고 백관 百官들 일어나 「쟁재가 廣載
歌」³² 부르며, 성에 가득한 사람들 더불어 노래하고 온 세상에 퍼져 나에게
화답하리. 문은 이로써 영구히 보존되고 넷물 또한 쉬지 않으리라.

25 리 : 원문은 '井'인데 고대의 단위에서 1리를 1정이라 하였다.

26 白打 : 발로 하는 놀이로, 우리나라의 제기와 유사한 놀이이다.

27 堯 …… 의식 : 요 임금이 華 지역을 유람할 때에 그 지역 국경을 지키던 사람(封人)이 요 임금을 위해서 '장수[壽], '부귀[富], '아들을 많이 낳음[多男子]'의 내용으로 축원하였다.

28 기린 …… 번성하여 : 원문은 '于麟斯蠡'인데, '우린'은 后妃가 기린처럼 인자한 덕을 지녔다는 내용의 『詩經』 「麟之趾」편에서 연원한 표현이고, '사중'은 후비가 두기심이 없고 자손이 메뚜기처럼 번성하여 和樂한 복을 누린다는 내용의 『시경』 「蠡斯」편에서 연원한 표현이다.

29 少昊가 …… 경사 : 중국 고대의 五帝 중 한 사람인 소호씨가 태어날 적에 어머니 女節이 무지개만한 큰 별이 華渚에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서 소호씨를 낳았다는 고사가 있다. 『宋書』 「符瑞志」 참조.

30 景星 : 나라에 도가 있거나 현인이 출현하면 나타난다고 하는 상서로운 별이다.

31 南風歌 : 순 임금이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 지어 불렀다는 노래.

32 廣載歌 : 순 임금이 신하를 권면하는 뜻의 노래를 부른 데 대해 신하인 阜陶가 임금을 권면하는 뜻으로 화답한 노래.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윤숙尹塾이 지어 올렸다.

| 原文

伏以雲漢倬彼，章一天而昭回；虹流注茲，標特地而高起。誕膺古瑞，載揭新扁。蓋伏聞成王作二京之治，式遵寧考遺志；左思撰三都之賦，備述昭代宏規。天津擅古今繁華，詞傳二十四明月；地運有晦顯遲速，歲待千五百昌辰。

猗與我華城，昔稱漢京藩屏，今作晉陽城關。園陵之松梓密邇，瞻衣冠之月遊；嶺湖之道途底平，通舟車之日湊。發琬琰於空石，地名先符；拔祚械於達山，天心可見。同靈臺之經始，日數萬子來之民；奉長樂之杯觴，歲八千甲圻之果。

乃於華胥之渚，爰立虹橋之門。鳳舞龍飛，引沚水於天目；蛟盤虎踞，通秦淮於石頭。窿隆近北辰之居，門列千峰華岳；滔滔爲南國之紀，川浮一道虹光。肩長安而對達樓，宛是宋鎖鑰斯壯；挾華亭而臨柳澗，依然周皐應有仇。時則日馭臨而玉女明星，備洒掃於黃道，華蓋指而青蜺紫蜃，交凌亂於玄波。

門闢萬年之基，伏玄龜於柱下；橋成半月之勢，見青龍於水中。灌稻田而黃雲穰穰，鉅野盈囿；蘸芳隄而綠波潑潑，霈澤同流。是門也，象極道而直連，去天室而無遠。光嶽之雲霞相接，曳神霓而飲河。花嶺之日月高懸，雜人烟而撲地。受萬谷之涓滴，仍成巨陂；淪千里之波瀾，終歸大海。是謂山明水麗，神仙之府；地秘天慳，呈露之時。俯瞰則內外營狴貅分鋪，不翅若北豫南豫；遠眺則上下村雞犬各識，頗有似舊豐新豐。臨前川而咏歸，得訪花隨柳之氣象；陟斯樓而頰仰，與天光雲影而徘徊。茲因呼邪，敢效贊偉。

兒郎偉拋樑東，千秋萬歲華南宮，偃龍橋下清冷水，元氣長流不霽虹。
兒郎偉拋樑西，瞻望喬陵佳氣齊，一樹梧桐花發夕，九苞祥鳳爰來棲。
兒郎偉拋樑南，群飛鷗鷺滿清潭，游魚亦識君恩重，爭陟春波香餌含。
兒郎偉拋樑北，如天大道連京國，星羅四百域中州，萬象芸芸咸會極。
兒郎偉拋樑上，珠囊金鏡宣鴻朗，虹梁百尺命維新，大德川流承景貺。

兒郎偉拋樑下，百川浩浩歸南野，奔波日夜注虹門，萬井烟花洗白打。

伏願上樑之後，彤車白馬，法神堯觀華之儀；于麟斯螽，承少昊繞虹之慶。開雲扉而納百福，瓜瓞綿綿；酌靈泉而添，萬壽流波滾滾。于斯時也，景星增彩，薰琴御風。勅天宸章，颺百工而賡載；滿城輿誦，播八域而和余。門以永存，川亦不息。

判中樞府事尹塾製進。

| 解題

화흥문華虹門은 수원 화성華城의 북수문北水門이다. 윤숙尹塾은 정조正祖의 명을 받아 상량문上樑文을 지으면서 화성의 의미와 행궁의 웅장한 자태를 차례로 묘사하였다.

| 主題語

윤숙尹塾, 화흥문華虹門, 화성華城, 정조正祖

화성 팔달산 장대 상량문

華城八達山將臺上樑文



채제공蔡濟恭(1720~1799), 『번암집樊巖集』 권58

翻譯

기내畿內 천 리에 사는 백성들¹ 조화롭게 새로 만든 고을에 모였고, 삼군三軍을 빼앗을 수 없는 장수가 멀리 높은 대臺에 임하였으니, 이제 누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랴. 무거운 임무 맡은 자가 장수로구나.

화성華城의 지세는 실로 우리나라의 요새라네. 산과 강이 신령함을 드러낸 것은 완전히 기산岐山 산봉우리에서 용과 봉황이 춤추는 듯한 형세와 비슷하고, 부로父老들이 얼굴 가리고 눈물 흘리는 것은 구지산緱氏山의 생황 소리를 듣는 듯하네.² 큰 나라의 병풍이 곧바로 북쪽의 성궐城闕과 멀지 않고, 중문重門에서 기다리니 삼남三南의 배와 수레가 모두 모이네. 아득히 산이 높고 물이 맑으니 김 장군金將軍의 군센 혼이 있는 듯하고,³ 오랫동안 하늘이 아끼고 땅이 감추어 두었으니, 유 처사柳處士의 남다른 식

1 畿內……백성들 : 『詩經』, 「玄鳥」편에서 “나라의 기내 천 리 백성들이 사는 곳이니(邦畿千里, 維民所止)”라는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2 緱氏山의……듯하네 : 구지산의 신선은 周나라의 太子 晉을 의미한다. 그는 피리를 매우 잘 불어서 피리로 봉황새의 울음소리를 낼 수 있었는데, 구지 정상에서 학을 타고 며칠 머물다가 세상 사람과 작별하고 떠났다고 한다. 여기에서는 죽은 사도세자에 대한 그리움을 가리킨다.
 3 김 장군……듯하고 : 김 장군은 고려 高宗 때의 僉將으로 처인성에서 승리를 거둔 金允侯를 가리킨다.

견이 귀신 같구나.⁴

아, 우리 성상聖上께서 능히 원대한 책략을 펼치셨도다. 구름과 안개가 모여들듯 두루두루 민가民家가 솟아나며, 바람이 불고 해가 비치듯 임금께서 계속해서 윤음綸音을 내리셨네. 3리의 성城과 7리의 곽郭을 쌓으니 하늘에 구름이 끼어 비가 내리기 전에⁵ 헤아릴 수 없는 계략을 냈어요, 한 명에서 만 명이 열 수 없도록 지키는 것은 물이 바야흐로 모여들듯 나라의 복이 이어지게 함이라. 이에 내탕금을 덜어 천 명의 군사들 펼쩍펼쩍 뛰었고, 산의 돌 깎아내자 만 개의 돌덩이 앞다투어 쏟아졌네. 용연龍淵⁶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 공사하는 장정들 비 오듯 흐르는 땀을 식혀주었고, 구포鵑浦⁷의 파도 그치니 바다에서 마치 하늘에 닿을 만큼의 재목을 바치는 듯하였네.

1천 개의 성가퀴 우뚝하니 나라의 위세와 더불어 드높고, 1만 개의 달구 뛰어오르니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 함께 이루었구나. 편안할 때에도 위기를 잊지 않는 것이 귀중하니, 어떻게 지키는 요점을 얻을 것인가. 어린아이 부르듯이 대장에 제수하여 어찌 한漢나라 고조高祖가 한 것처럼 하겠는가.⁸ 대장을 누구로 할지 물으면 괄거병霍去病⁹처럼 용맹한 사람을 이곳에 두어야 할 것이다. 팔달산 정상을 바라보니 천 명을 지휘할 장수가 머물 만하네. 양치楊峙의 아득한 별관에 말이 가고 소가 오는 것 역력히 구별할 수 있고, 사둔莎屯에 무성하게 짙은 수목은 물고기 떼 지어 가듯 새가 날개

4 유 처사……갈네 : 유 처사는 柳馨遠(1622~1673)으로, 『磻溪隱錄』에서 수원 지역이 큰 鎭營이 될 만하다고 주장한 일을 가리킨다.
 5 하늘에……전에 : 『詩經』, 「鵲巢」편에서 “하늘에 구름이 끼어 비가 내리기 전에 뽕나무 뿌리 가져다 문을 열어 두면 너희 백성들 감히 나를 업신여기랴.(迨天之未陰雨, 徹彼桑土, 綢繆繭戶, 今女下民, 或敢侮予)”라는 말을 인용해 온 표현이다.
 6 龍淵 : 수원 화성의 東北角樓 訪花隨柳亭 뒤에 있는 연못이다.
 7 鵑浦 : 지금의 南陽 일대에 있었던 포구로, 정조가 화성에 행차할 때 이곳에 畫停所를 설치하였다.
 8 어린아이……하겠는가 : 漢나라 高祖가 韓信을 불러 대장에 임명하려고 하자, 蕭何가 “왕께서는 평소 에 거만하고 무례하게 행동하시는데, 지금 대장에 임명하면서도 어린아이를 부르는 것처럼 하고 계시니 이렇게 한다면 한신은 떠날 것입니다.”라고 충고하였고, 고조는 그의 말을 따랐다는 고사를 지칭한다. (『史記』, 「淮陰侯列傳」 참조)
 9 霍去病 : 漢나라 武帝 때의 장수로, 흉노를 여러 차례 정벌하여 큰 공훈을 세웠다.

를 편 듯, 무성하게 벌여져 있네. 석성산石城山 맑은 봉화 매일 밤 평안함을 보고하고, 웅대한 남한산성南漢山城은 천년토록 이곳과 기각지세掎角之勢¹⁰를 이루리라. 사방으로 통하면 '강康'이라 하고 오방으로 통하면 '장莊'이라 하는데¹¹ 모두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범위로 들어오고, 전군前軍을 '모茅'라 하고 후군後軍을 '전殿'이라 하는데 손바닥 안을 벗어나지 않는다. 예로부터 산을 먼저 차지한 자가 공이 있으니 어찌 장수를 고르지 않아 적에게 넘겨줄 수 있겠는가.¹² 화산花山¹³은 험하고 가팔라 연화대蓮花臺를 깎아 만든 듯하고, 유천柳川¹⁴은 맑게 흘러가니 세류영細柳營¹⁵을 떠올리게 하네. 이에 안개와 산기운 낀 높은 곳에 마침내 깃발과 북 있는 높은 대를 쌓았도다.

푸른 깃발과 붉은 깃발이 햇빛과 별빛에 일렁이며 서로 비추고, 용기龍旗와 호기虎旗 환하게 나부끼네. 바깥을 제어하며 중앙에 있으니 부월鉄鉞¹⁶에 의지하여 자세히 둘러보고, 높이 올라 멀리 바라보니 금단金壇¹⁷에 기대어 오가네. 생문生門과 사문死門¹⁸으로 기이하게 변하는 방법은 예측할 수 없고, 육벌六伐과 칠벌七伐¹⁹로 적을 무찔러 기린각麒麟閣²⁰에 초상이

10 掎角之勢: 사슴을 잡을 때 뒷발을 잡고 뺨을 잡는다는 뜻으로, 앞뒤에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양면 작전의 형세를 비유하는 말.
 11 사방으로……하는데: 이는 『爾雅』, 「釋宮」편의 설명인데, 원문의 '강'과 '장'을 함께 쓰면 사통팔달의 대로라는 뜻이 된다. 그런데 『이아』의 원문은 오방으로 통하는 것을 '강'이라고 하여 본문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작자의 오류라기보다는 『이아』의 원 내용을 변용하여 독자로 하여금 단어 '강장'을 연상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12 장수를……있겠는가: 『漢書』, 「晁錯傳」에서 "무기가 예리하지 않으면 군사를 적에게 넘겨주게 되고 군사를 쓰지 못하면 장수를 적에게 넘겨주게 된다.(器械不利, 以其卒予敵也; 卒不可用, 以其將予敵也)"라고 하였다.
 13 花山: 용릉의 主山이 되는 산으로, 지금의 화성시 화산동에 위치하고 있다.
 14 柳川: 수원천의 지류로, 순우리말로로는 '버드내'라고 한다.
 15 細柳營: 漢나라 때의 장군 周亞夫의 군영으로, 황제도 군영 없이는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군율이 엄격하였다고 한다.
 16 鉄鉞: 사형을 집행할 때 쓰는 도끼로, 임금이 신하에게 전권을 부여하는 것을 비유하는 표현이다.
 17 金壇: 主將의 거처이다.
 18 生門과 死門: 陣法에서 '생문'은 들어가면 사는 문이고 '사문'은 들어가면 죽는 문을 가리킨다.
 19 육벌과 칠벌: 『書經』, 「牧誓」편에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치고 쫓는 것을 넘지 말고 멈추어 대오를 정돈해야 한다.(懲于四伐五伐六伐七伐, 乃止齊焉)"라고 하였다.
 20 麒麟閣: 漢나라 宣帝가 공신 11명의 초상을 그려 걸어두었던 전각 이름이다.

걸릴 기약 있구나. 백우선白羽扇²¹ 휘두르니 아기牙旗²² 세우고 호각號角 부는 시끄러운 소리 들리지 않고, 어가御駕 지나는 길이 곧게 나니, 행차의 피리 소리 듣고 깃발 보면서 다들 기뻐하네. 바람 앞의 초목도 이름을 알고 산 속의 나물도 캐지 않네. 큰일 맡겨 한 방면을 담당하게 하니 조정에서 의지하고 믿는 것이 어떠하겠으며, 용맹한 군사를 얻어 사방을 지키니 왕국의 안위가 여기에 달려 있네. 무릇 어찌 당唐나라 봉선奉先에서 능침을 들본 것²³처럼 할 뿐이겠는가. 또한 주周나라 낙읍洛邑처럼 지키고 다스린다네.²⁴

이에 기둥이 우뚝하게 서고 더욱 명성과 위엄이 엄연하네. 단청 칠한 사다리 아득해도 힘 들이지 않고 검을 차고 오르며, 화려한 건물 드높아 또한 계책을 운용하는 자리 편안하구나. 산과 계곡 험준하여 안팎의 전체를 알지 않음이 없고, 도랑은 깊고 성가퀴는 높아 굽은 것 작은 것까지 세세한 것까지 두루 살필 수 있네. 군졸들은 용맹함을 팔고자 할 정도²⁵이니 군대 앞에서 무예를 펼치고, 병사들이 한마음으로 장대將臺 위에 정신을 모으네. 선침仙寢은 가까워 아름다운 기운이 없는 때가 없음을 길이 보겠고, 행궁行宮에는 아침저녁으로 곳곳에서 상서로운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항상 가리키겠네.

삼가 군대의 배움을 기록하여 들보 올리는 소리를 돕노라.

아이야 떡을 들보 동쪽으로 던져라

21 白羽扇: 고대에 흰 깃털로 장식한 부채로, 군대의 主將이 작전을 지휘하는 데 사용한다. 蜀나라의 諸葛亮이 싸울 때에는 언제나 백우선을 손에 쥐고 진두에서 군대를 지휘하였다고 한다.
 22 牙旗: 고대에 상아로 만든 큰 깃발로, 대장군의 儀仗으로 사용된다.
 23 당나라에서……것: 당나라 開元 4년(716)에 睿宗의 능인 橋陵을 豊山에 조성한 뒤 이름을 奉先縣으로 바꾸고서 능을 돌보도록 하였다고 전해진다.(『舊唐書』, 「玄宗本紀」 참조)
 24 주나라……다스린다네: 낙읍은 周나라 때 周公이 주나라의 도읍을 옮겼던 곳이다. 여기에서는 수원이 사도세자의 능인 현릉원을 돌봐 주는 곳으로 그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낙읍처럼 제2의 도읍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뜻으로 쓰였다.
 25 용맹함을……정도: 원문은 '賈勇'인데 군졸의 용맹함이 넘쳐 이를 남에게 팔려고 할 정도로 아주 용맹하다는 의미이다.

춘영春營에 아침 해 돋자 북소리 힘차게 울린다
 긴장한 사내 참알參謫하며 신수身手를 자랑하는데
 기상은 허리춤의 오석궁五石弓²⁶이라네

아이야 떡을 들보 서쪽으로 던져라
 하늘과 맞닿은 푸른 바다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
 고래는 감히 봄 물결 일으키지 못하고
 긴 밤 누선樓船²⁷에 목성이 낮게 빛나네

아이야 떡을 들보 남쪽으로 던져라
 독성산禿城山²⁸의 나무에 해질녘 구름 걸렸고
 일찍이 학가鶴駕²⁹가 지나갔던 곳에서
 백성들 지금까지 흐르는 눈물 삼키네

아이야 떡을 들보 북쪽으로 던져라
 비 오지도 않았는데 웬 무지개인가 다리 그림자 반듯하구나³⁰
 성 위로 징소리 피리 소리 끝없으니
 군문軍門의 승전곡임을 알겠네

아이야 떡을 들보 위로 던져라
 전쟁 기운 사라지고 햇빛이 밝게 비추는데

구름 속 춤추는 신선의 소매 사이로
 금꺽 안은 옥녀玉女 아름답게 마주 보네

아이야 떡을 들보 아래로 던져라
 가벼운 갖옷에 허리띠 느슨히 하고 한가로울 때 많은데
 군령이 엄한 거리에는 다니는 사람이 적고
 밝은 달 허공에 걸리니 딱따기 소리 그치네

엎드려 바라건대, 상량한 뒤로 성벽과 망루 변화하여 더욱 금성탕지金城湯池가 되게 하소서. 동도東都와 서도西都가 서남부를 진압하여 푸른 송산崇山과 맑은 위수渭水가 되고,³¹ 남군南軍과 북군北軍이 천문天文에 응하여 현무玄武와 구진鉤陳이 되며,³² 무기고가 연이어 늘어나 모두 한韓나라의 강한 활과 쇠뇌가 나오고, 인정仁政이 널리 퍼져 병사들이 진秦나라의 견고한 갑옷과 예리한 무기를 대적할 수 있게 하소서. 음을 닫고 양을 열어 대장의 명령을 듣고, 맑은 강 평온한 바다에서 밝은 군주를 만세천추萬世千秋 받들게 하소서.

| 原文

千里所止維民和會新大邑，三軍不可奪帥，迢遞臨高臺，今此孰敢侮予，其所托重者將。

日惟華城地勢，實爲青邱關防。山河效靈，宛是岐岑龍鳳之舞；父老掩泣，如聞緱嶺笙鶴之聲。大邦維屏，直北之城闕匪遠；重門以待，三南之舟車并

26 五石弓：5石 무게의 활이다.

27 樓船：다락이 있는 배를 가리킨다.

28 禿城山：지금의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산으로, 權慄 장군이 왜군에게 대승을 거둔 독성산전투가 유명하다.

29 鶴駕：세자가 타는 수레. 죽음의 다른 표현으로도 쓰인다. 여기에서는 현릉원을 이장했던 일을 가리킨다.

30 비……반듯하구나：원문의 '虹'는 무지개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화성의 북쪽에 있는 華虹門의 아치형 교각을 가리킨다.

31 동도와……되고：송산과 위수로 둘러싸인 지역은 역대로 중국의 수도가 많이 자리하였다. 西都인 長安과 東都인 洛陽이 대표적이다. 여기에서 서도는 개성, 동도는 수원 화성을 가리킨다.

32 남군과……되며：현무와 구진은 각각 북쪽과 남쪽에 있는 별 이름이다. 여기에서는 각각 북쪽과 남쪽을 호위하는 군대를 의미하여 북군은 서울에 있는 장용영, 남군은 수원 화성에 주둔한 장용외영을 가리킨다.

臻。漠然山高而水清，金將軍之毅魄如在；久矣天慳而地秘，柳處士之隻眼若神。

猗！我聖明克恢遠略。雲委霧集，湧出撲地之閭閻；風揮日舒，絡繹自天之綸紵。三里城七里之郭，勦神機於迨天未陰；一夫當萬夫莫開，綿國祚於如川方至。於是捐帑金而千軍曲踊，斲山石而萬顆爭來。龍淵送涼，役丁收成雨之汗；鷗浦息浪，海若獻干雲之材。

千堞崢嶸，與國勢而并峙；萬杵騰躍，攬衆心而共成。所貴安不忘危，何以守之得要？如呼小兒拜，寧或漢太祖與同？借問大將誰，宜令霍驃姚在此。粵瞻山八達其上，可坐長千夫之雉。楊峙之迴壑蒼茫，馬去牛來之歷歷可辨；莎屯之邃樾蒼蒨，魚麗鳥翼之隱隱如排。石城晴烽，報平安於每夜；南漢雄鎮，作犄角於千年。四達謂康五達謂莊，盡入指點之際；前軍曰茅後軍曰殿，不出掌握之中。古來先據山者有功，豈可不擇將而予敵？花山翠嶺，侃若蓮花臺削成；柳川滢澹，尙想細柳營制置。乃於煙嵐高處，遂築旗鼓崇臺。

翠蕤紅旂，蕩日星而相照；雲龍風虎，振光耀而交迴。制外居中，仗鈇鉞而顧眄；登高望遠，倚金壇而周旋。生門死門，豹韜之奇變莫測；六伐七伐，麟閣之丹青有期。白羽扇揮，不聞喧於建牙吹角。青繩路直，相告欣於聽籥瞻旄。風前之草木知名，山中之藜藿不採。屬大事當一面，朝廷之倚毗何如，得猛士守四方，王國之安危斯係。夫奚但唐奉先灑掃？抑亦爲周洛邑保釐。於焉棟宇之屹然，益復聲威之儼若。丹梯縹緲，不勞仗劍而登，華構崔嵬，且安運籌之坐。山谿險固，表裏全體之無不諳；溝堞深崇，傍曲纖毫之皆可悉。材官賈勇，逞技藝於軍前；衆旅同心，湊精神於臺上。仙寢咫尺，長瞻佳氣之無時無；行宮暮朝，每指祥雲之起處起。恭疏軍旅之學，助舉兒郎之呼，

兒郎偉拋樑東，春營朝日鼓聲催，健兒參謁誇身手，意氣腰間五石弓。

兒郎偉拋樑西，浮天滄海失端倪，鯨鯢不敢春吹浪，永夜樓船木宿低。

兒郎偉拋樑南，禿城山木暮雲參，曾經鶴駕從容處，民到于今涕淚含。

兒郎偉拋樑北，不雨何虹橋影直，城頭不盡鏡笳聲，認是轅門勝戰曲。

兒郎偉拋樑上，兵氣消爲化日朗，雲裏仙人舞袖間，抱琴玉女嬌相向。

兒郎偉拋樑下，輕裘緩帶多閒暇，令嚴街路少人行，明月懸空擊柝罷。

伏願上樑之後，彩變壁壘，勢增金湯，東西都之鎮坤維，碧嵩清渭，南北軍之應天象，玄武鉤陳，武庫連延，皆從出韓之強弓勁弩，仁政旁達，可以撻秦之堅甲利兵，陰閉陽開，聽元戎五申三令，河清海晏，奉明主萬歲千秋。

| 解題

팔달산八達山 장대將臺는 화성華城의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진 지휘소이다. 채제공蔡濟恭은 정조正祖의 명을 받아 상량문上樑文을 지어 바쳤다. 이 글에서 채제공은 정조의 지혜로 화성을 건축하게 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장대를 쌓아야 하는 필요성, 장대에서 바라보는 경관 등을 다양한 필치로 서술하였다.

| 主題語

채제공蔡濟恭, 변암樊巖, 팔달산八達山, 장대將臺, 화성華城, 정조正祖

화성 동장대 상량문

華城東將臺上樑文



이만수李晩秀, 『극원유고履園遺稿』권6

翻譯

엎드려 생각건대, 별처럼 벌여 있는 삼백 고을 중 이 화성華城 새 고을이 으뜸이요, 육천 병마兵馬 구름처럼 주둔하였고 원수의 높은 단 우뚝하구나. 해 뜨는 모퉁이에 하늘이 만든 곳이네.

무릇 장수는 군사들의 우두머리요, 대臺는 사망에서 높은 곳이다. 주周나라는 10국國으로 연수連帥라는 제도를 두었으니 간성干城이 막아 지키는 방법이었고, 한漢나라는 상장군上將軍의 인印을 줄 때 금단金壇에서 주기 시작하였네. 중임을 맡아 병권을 통제할 수 있다면 성벽과 망루와 깃발의 정채精彩가 모두 변하고,² 여기에서 호령號令을 내려 명령이 시행되면 천지와 풍운風雲의 기정奇正³이 나온다네. 앞에는 물이나 못을, 오른쪽에는 산이나 언덕을 두는 것이 옛 법도이니,⁴ 뽕나무 뿌리를 주워다가 음우陰

1 連帥 : 중국 주周나라 때는 10개 제후국을 '連'이라 하였는데, 10개 제후국의 우두머리를 가리킨다.
 2 성벽과……변하고 : 중국 唐나라의 명장 李光弼은 郭子儀와 함께 安史의 난을 토벌한 1등 공신이다. 이광필이 광자의 후임으로 朔方節度使가 되었을 때 군중에 한번 호령을 내리자 보루와 깃발의 광채가 달라졌다고 한다.
 3 천지……기정 : 천지와 풍운은 팔진八陣 중 네 진의 명칭이며, 기정은 병법에서 말하는 매복이나 기습 등의 방법으로 집전을 벌이는 것[奇]과 정면으로 집전을 벌이는 것[正]을 말한다.
 4 앞에는……법도니 : 이는 口傳되던 병법의 구절로, 특별한 출전을 찾을 수 없고 『漢書』 「淮陰侯列傳」에 처음 보인다.

兩에 대비한다고 『시경詩經』에서 말하지 않았던가.⁵

삼가 생각건대, 우리 성상께서는 성스럽고 신묘하며 문무를 겸비한 자질과 요임금과 순임금, 증자曾子와 민자민閔子騫 같은 효성을 지니셨으니 산마루와 언덕의 칭송,⁶ 태산泰山과 반석磐石 같은 형세가 억만 년 도록 끊임이 없을 것이요, 서리와 이슬의 감정⁷과 국과 담장의 생각이 20년 동안 한결같으셨네.

진룡眞龍⁸이 천 년의 비밀을 열 때 신령스런 거북점이 삼덕三德에 들어맞는다 하였네. 현구軒丘의 궁검弓劍⁹을 안장安葬한 뒤 물은 더욱 맑아지고 산은 더욱 수려해지며, 원침園寢의 석물石物 장엄하니 소나무 무성하고 대나무 뻗뻗하네. 비록 제사 지내는 유사有司가 있으나 항상 성상의 마음은 근심하여 불안하시니, 수레를 타고 해마다 원행圓行을 하시지만 번번이 원소를 떠나는 걸음 더디고 더디시네.¹⁰ 이에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고을¹¹을 돌아보아 우리 고을을 탕목읍湯沐邑으로 만드셨네.¹²

5 뽕나무……않았던가 : 『詩經』 「鸛鳴」편에 “하늘이 아직 곳은비를 내리기 전에, 저 뽕나무 뿌리를 가져다가, 창과 문을 단단히 엮어 놓으면, 지금 너의 아래 백성들이, 감히 나를 업신여기겠는가.(始天之未陰雨, 徹彼桑土, 綢繆彌戶, 今女下民, 或敢侮予)”라고 한 데서 연원하여 不虞의 사태에 미리 대비한다는 뜻이다.
 6 산마루와……칭송 : 『詩經』 「鹿鳴」편에서 “하늘이 너를 보호하여 정했으니 흥성하지 않음이 없으리라. 산과 같고 언덕과 같으며 산등성이와 같고 구름과 같다.(天保定爾, 以莫不興, 如山如阜, 如岡如陵)”라고 하였던 바, 이는 장수를 축원하는 말이다.
 7 서리와……감정 : 부모님이나 선조에 대한 그리움을 뜻한다. 『禮記』 「祭儀」편에서 “서리와 이슬이 내리면 군자는 그것을 밟으며 슬픈 마음이 반드시 생기게 되는데, 추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霜露既降, 君子履之, 必有懷植之心, 非其寒之謂也)”라고 하였다.
 8 眞龍 : 살아 있어서穴을 뚫을 수 있는 산줄기이다.
 9 현구의 궁검 : 軒丘는 黃帝 軒轅氏가 살았다는 곳이며, 弓劍은 활과 검으로 임금의 죽음을 뜻한다. 여기에서는 사도세자의 유해를 가리킨다.
 10 더디고 더디시네 : 『孟子』 「萬章下」편에서 공자가 “魯나라를 떠나실 때에는 ‘더디고 더디구나 나의 떠남이여’라고 하셨으니, 부모의 나라를 떠나는 도리이다.(去魯曰, 遲遲吾行也, 去父母國之道也)”라고 하였다.
 11 조상의……고을 : 원문은 ‘桑梓之郡’으로,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고향을 가리키는 말이다. 『詩經』 「小弁」편에서 유래하였다. 여기에서는 현릉원이 있는 수원 지역을 가리킨다.
 12 탕목읍……만드셨네 : 漢나라 高祖는 중국의 통일한 후에 驪邑을 고향인 豐邑과 똑같이 고치고 ‘新豐’이라고 불렀으며, 자신의 목욕비를 대는 고을로 만들었다. 여기에서는 정조가 사도세자의 무덤을 수원 花山으로 이장하고 수원의 結畿를 모두 본 고을에 보관해 두었다가 園所를 개수하는 일에 들어가 는 물력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위의 마룻대와 아래의 처마는 평이 나는 듯 새가 놀란 듯¹³ 환하게 일신一新되었고, 패수沛水와 풍산豐山에는 닭 우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사방에 들리네. 1년 만에 마을이 되고 2년 만에 고을이 되니, 무릉茂陵처럼 번성한 마을 읍기는 번거로움¹⁴ 없고, 말에서 내려서는 백성을 관할하고 말에 올라서는 군대를 통솔하니, 이에 동도東都의 유후留後로 승격되었네.¹⁵

군대는 오영五營의 통제를 받지 않으니 별도의 군영軍營이요, 땅은 삼도三道가 교차하는 곳에 위치하니 어찌 철옹성이 없겠는가. 관부官府가 있으면 반드시 성곽이 있고 성곽이 있으면 반드시 대臺와 해자가 있어야 하니, 마침내 유천柳川 양면兩邊에 성가퀴를 늘어 세우고 팔달산八達山 아래에 붉은 망루 세웠네. 성상께서 계책을 내시어 규모와 제도는 대략 진양晉陽¹⁶을 본떴고, 내탕금內帑金¹⁷ 덜어내어 공역工役은 공조工曹를 번거롭게 하지 않네.

용이 서려 있고 호랑이가 웅크린 형세 엄연히 금성당지金城湯池를 둘러싸고 있고, 땅이 열리고 하늘이 열려 고아高牙와 대독大蠶¹⁸을 세울 만하네. 협수協守¹⁹가 거느리는 우익羽翼과 삼보三輔는 좌우에서 기각지세犄角之勢를 이루고, 친군親軍의 시위侍衛하는 비貅貅²⁰ 같은 천 명의 군사 봄과 가을로 사냥하여 무예를 연마하네.

아, 대향동梅香洞이란 옛 마을을 바라보니 분사粉社²¹의 명승지로 가장 일컬어지네. 왼쪽엔 석성石城 오른쪽엔 광릉廣陵이 궤안几案에서 굽어보이고, 멀리 가잠伽岑 가까이는 모악毋岳이 자손들처럼 늘어서 있구나.

천천세千千歲를 돌아 땅의 신령이 을묘년의 경사²²에 부합하고, 팔팔문八八門이 열려 하늘의 별이 석목析木²³의 궤도를 나누네. 황제黃帝와 『올료자尉繚子』²⁴가 어찌 꼭 북산北山을 선점하고서야 승리하였던가. 청룡靑龍과 복덕福德의 상象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은 동쪽에서 오는 것이라네.

위대하도다, 백성의 마음이 성城을 이루었고, 우뚝하게 천 자나 흙을 쌓았네. 바람이 휘몰아치고 해가 빨리 달려도 구름 위로 솟은 용마루 우뚝하고, 귀신이 옮긴 듯한 다른 산의 돌 우뚝하구나. 북문北門이 방어에는 더욱 중요하니 구진句陳과 태을太乙²⁵이 궁궐을 에워싸고, 서장대의 기旗와 북이 알맞으니 대종岱宗²⁶과 화악華岳²⁷이 경도京都에서 다스리는 현縣을 나누네. 황하黃河가 맑고 바다가 잠잠하니²⁸ 어찌 용병用兵을 일삼겠으며, 지세地勢가 이롭고 백성이 화합함은 임명한 장수將帥가 있어서라네.

이 웅장한 건물의 아름다움은 쌓고 관 공²⁹ 때문이라네. 팔방의 창이 영롱하니 공중의 누각이 탁 트여서요, 삼군三軍이 엄숙하니 물자기勿字旗를 주목해서라네. 금달금堦³⁰에서 말 달리는 마당을 여니, 이 예禮는 과군표過

13 평이……듯: 『詩經』, 『斯干』편에서 집의 추녀의 모습을 두고 “새가 놀라 낮빛이 변하고 평이 날아가는 듯하다. (如鳥斯革, 如翬斯飛.)”라고 한 구절을 변용한 표현이다.
 14 茂陵처럼……번거로움: 무릉은 한나라 武帝의 능이다. 무릉을 조성하고서 호걸 및 명문가의 집을 그 주변으로 이주시켜 농묘를 유지하고 인구를 분산시켰다. 다만 이는 무릉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였던 것은 아니고 이미 고조 때부터 시행되던 정책이었다.
 15 동도……되었네: 水原留使를 水原留守로 승격하였음을 말한다. 1793년(정조 17년) 1월 12일에 정조가 수원에 행행하였을 때 수원 부사를 수원 유수 겸 壯勇外使 行宮整理使로 승격하고, 첫 수원 유수에 蔡濟恭을 제수하였다.
 16 晉陽: 중국 춘추시대 말기에 쑤나라의 실권자였던 趙簡子가 晉陽太守 尹鐸에게 나라의 보루가 되도록 다스리게 한 곳이다. 이후 국가가 위급할 때 대피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를 뜻하는 표현으로 쓰였다.
 17 內帑金: 임금의 개인 재물을 넣어 두는 창고인 內帑庫에 보관된 돈이다. 즉 임금의 私費를 말한다.
 18 高牙와 大蠶: 둘 다 대장의 깃발이다.
 19 協守: 협수군(화성의 수비를 측면에서 지원하던 군대)을 지휘하는 協守將을 가리킨다.
 20 貅貅: 표범의 일종으로 수컷을 ‘비’, 암컷을 ‘휴’라고 한다.

21 粉社: 漢나라 高祖의 고향 豐邑에 있던 社의 명칭이다. 이후 제왕의 고향을 뜻하는 표현으로 쓰였다. 여기에서는 사도세자의 무덤인 현릉원이 있는 수원을 가리킨다.
 22 을묘년의 경사: 1795년(을묘년, 정조 19)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맞은 경사를 말한다.
 23 析木: 28수 중 尾星과 箕星에 해당하는 자리로, 우리나라를 가리킨다.
 24 尉繚子: 중국 고대의 兵書이다.
 25 句陳과 太乙: ‘구진’은 중앙을 지키는 신령이고, ‘태을’은 북쪽을 지키는 신령이다.
 26 岱宗: 泰山의 별칭으로, 五嶽 가운데 東嶽이다.
 27 華岳: 華山으로, 五嶽 가운데 西嶽이다.
 28 황하가……잠잠하니: 周公이 섭정한지 6년만에 禮樂을 제정하고 천하가 복종하였는데, 越裳氏가 흰 평을 바치면서 바다에 파도가 일지 않은 지 3년이 되었으니 중국에 성인이 있는 듯하다고 한 고사가 있다. 성군이 있어서 나라 안이 안정되고 천하가 태평함을 표현하는 말이다.
 29 쌓고…공: 원문은 ‘築斯壘’인데, 이는 『孟子』, 『梁惠王下』편에서 “이 해자를 파며 이 성을 쌓아 백성과 함께 지켜 죽음을 바치면서 백성이 떠나지 않으면 이는 할만합니다. (壘斯池也, 築斯城也, 與民守之, 效死而民弗去, 則是可爲也)”라고 한 구절을 변용한 것이다.
 30 金堦: 쑤나라 王濟가 말 달리며 활을 쏘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洛陽 교외 北邙山 아래의 금짜라기 땅을 대거 사들인 뒤에, 돌이나 흙 대신에 동전을 췌어 엮어서 울타리를 돌렸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황금 울타리[金堦]’라고 불렀다는 고사가 있다. 『世說新語』, 『汰侈』 참조

君表와 축수곡逐水曲³¹이요, 주부朱附로 과녁 쏘는 짝을 고르니, 그 절주節奏는 「추우騶虞」³²편 「번리孺狸」편의 첫 장이라네. 진격하는 북소리 울리고 후퇴하는 징소리 울리니, 모두 내부의 진에 응하고, 가벼운 갖옷에 느슨한 띠를 하였으니 바로 중군中軍이로다.

다시 나는 듯한 누대 한 층을 올라가 높은 대臺를 향해 사방을 바라보니, 용릉春陵의 상서로운 기운이 땅에 접하여³³ 의관衣冠을 달마다 거풍舉風³⁴하고, 장안長安의 큰 길은 하늘 같아 봉래산蓬萊山의 구름이 가깝구나.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어 고문阜門과 응문應門³⁵에 모이니, 남녘 기뻐하는 노래가 아랫마을 윗마을에 울려 퍼지네. 용연龍淵에 서까래 아스라한 건물을 세우니 천 송이 부용芙蓉이 피고, 홍저虹渚³⁶에 들보 휘어진 건물을 세우니 한 줄기 은하수라네. 세 번 승첩勝捷³⁷하여 위대한 공적을 세운 권 충장公權忠壯公³⁸의 높은 봉우리요, 백세토록 맑은 풍모 최 문창공崔文昌公³⁹의 옛 터로구나.

천부天府의 견고함을 두루 살펴보건대 진실로 우리 성상의 효성에서 나왔네. 궁실宮室이 아름답고 백성과 재물이 많으니 새로운 고을에 천명天命이 영구하기를 바라고, 성과 해자 완공되고 병마兵馬가 숙련되었으니 틀림없이 상도上都보다 융성하리라. 만 그루의 복숭아나무, 자두나무 밑으

31 과군표와 축수곡: 다섯 가지 말 모는 법[五御] 중의 두 가지이다. 과군표는 천자를 나타내는 표시나 자리를 지날 때 예의를 갖추는 것이고, 축수곡은 골짜기의 절벽을 따라 수레를 몰되 물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32 추우: 文王의 德化가 초목과 금수에까지 미친 모습을 묘사한 『詩經』 「召南」의 편명이다.
 33 용릉……접하여: 漢나라 武帝가 春陵侯에 봉한 長沙定王의 아들 劉買의 무덤이다. 여기에서는 사도 세자 무덤을 이장했음을 가리킨다.
 34 舉風: 원문은 '月遊'인데 세상을 떠난 제왕의 옷가지들 한 달에 한 번씩 꺼내어 바람을 쏘이는 것을 일컫는다.
 35 고문과 응문: 황제의 대궐에는 문이 다섯 개가 있는데, 가장 바깥에 있는 높은 문이 阜門이고, 네 번째에 있는 문이 應門이다. 여기에서 고문은 長安門을, 응문은 新豐樓門을 가리킨다.
 36 虹渚: 상서로운 무지개의 빛이 물가에 닿았다는 말로, 왕이나 왕비가 태어날 조짐을 의미한다. 『宋書』 「符瑞志」 참조.
 37 세 번 승첩: 임진왜란 때 금산군의 이치, 수원의 독성산성, 행주산성에서의 승리를 의미한다.
 38 권 충장공: 權慄(1537~1599)를 가리킨다.
 39 최 문창공: 崔致遠(857~?)을 가리킨다.

로 길이 나니 이미 대臺와 소沼가 만들어졌고, 천 이랑의 논밭이 모래섬 같으니 병사들에게 농사를 짓게 하였네.⁴⁰ 이로부터 웅장한 수원성이 구정九鼎과 태러大呂⁴¹보다 중요해졌으니, 어찌 번쩍거리는 금월金鉞이 천리 밖에서 충분히 절충折衝할 뿐이겠는가. 이에 일면一面을 담당하는 계책을 내어 삼가 상량을 돕는 노래를 짓노라.

아이야 떡을 들보 동쪽으로 던져라
 교통기는 오색구름 속에 나무끼는데
 춘영春營의 피리와 북소리엔 전쟁 기운 없어
 바야흐로 초하루 별이 기수箕宿에 이르렀네⁴²

아이야 떡을 들보 서쪽으로 던져라
 무기고 맑고 서리같이 팔방을 두렵게 하네
 소녀풍이 불었다 서풍이 불었다 하는데⁴³
 단 둘레로 점점이 삼기參旗⁴⁴가 가지런하네

아이야 떡을 들보 남쪽으로 던져라
 푸른 하늘에 세 마리 봉황이 가지런히 있어⁴⁵
 해마다 꽃잔에 술을 담아 장수를 축원하니
 수성壽星⁴⁶이 와 비추어 서광이 퍼지네

40 만……하였네: 화성을 축조하면서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萬石渠와 祝萬堤 등의 수리시설을 설치한 일을 가리킨다.
 41 구정과 태러: 周나라의 술으로, 이후 제왕 혹은 왕조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쓰였다.
 42 세상은……이르렀네: 箕宿는 동쪽에 있는 별자리로, 歲星이 이른 곳에 있는 나라에는 복이 있다는 말이 있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가 복을 받아 태평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43 소녀풍이……하는데: 소녀풍이 불면 비가 내리고, 서풍이 불면 비가 그친다.
 44 參旗: 별자리 이름으로, 활과 쇠뇌[石弩]를 사용하는 일을 주관한다.
 45 푸른……있어: 세 마리 봉황은 여기에서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 사도세자의 비 혜경궁, 정조의 비 효의왕후를 가리킨다.
 46 壽星: 南極星을 가리킨다.

아이야 떡을 들보 북쪽으로 던져라
 만고의 현귀玄龜처럼 하늘이 바로 그 색이네
 45개의 별들이 우림羽林에 늘어서 있으니⁴⁷
 군문 출신만이 원용元戎⁴⁸의 직책을 맡는다네

아이야 떡을 들보 위로 던져라
 구중궁궐 여덟 기둥에 비바람 일렁이고
 자미원紫微垣 제좌帝座의 삼원三垣⁴⁹ 중에
 앞쪽 별의 광채가 가장 왕성하네

아이야 떡을 들보 아래로 던져라
 삼천대계⁵⁰의 온 우주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동쪽 서쪽에서
 모두 우리 임금님 궁궐로 들어가네

엎드려 바라건대, 상량한 뒤로 우리나라를 잘 지켜 남산처럼 오래 유지
 되게 하소서. 도끼를 받아 단에 오르니 장수에게는 범할 수 없는 기운이
 있고, 돌 던지고 수레에 뛰어오르는 병사들은 모두 쓸 만한 재목임을 즐겨
 위하게 하소서. 부중府中의 흐르는 듯한 수레와 말 붉은 기에 푸른 덮개요,
 군사 앞의 초목은 색이 변하니 호랑이같이 빼앗고 용처럼 감추게 하소서.
 어가御駕가 이르렀을 때 세류영細柳營의 병사처럼 군용軍容이 있고, 조두쿠

47 45개의……있으니: 羽林은 45개의 별로 이루어진 북방의 별자리이다. 여기에서는 임금을 호위하는 장수가 많음을 가리킨다.
 48 元戎: 군사의 우두머리를 가리킨다.
 49 三垣: 동양 천문학에서 별자리를 셋으로 구획한 것. 北極 부근의 자미원, 獅子宮 부근의 태미원, 蛇尾宮 부근의 천시원을 말한다.
 50 삼천대계: 무한한 세계를 의미한다.

두는 밤에 조용하여 감천甘泉의 봉화⁵¹처럼 편안함을 알릴지이다. 주나라
 문왕이 영대靈臺⁵²를 지었던 것처럼 백성들 동원되지 않고 요 임금이 화華
 땅을 순수巡狩할 때 봉인封人⁵³이 축원한 일⁵³이 우리 임금에게도 이루어지
 게 하소서.

| 原文

伏以星羅三百郡州, 取茲華城新府, 雲屯六千兵馬, 傑然元帥高壇, 出日之
 隅, 維天有設.

夫將者萬夫之長, 臺者四方而高. 周建十連帥之官, 干城所以捍衛, 漢授上
 將軍之印, 金壇即其權輿. 苟能托重而制權, 壁壘旌旗精采之皆變; 於焉發
 號而施令, 天地風雲奇正之所由. 前水澤石⁵⁴山陵, 古之法也, 撤桑土備陰雨,
 詩不云乎!

恭惟我聖上, 聖神文武之姿, 堯舜曾閔之孝, 岡陵之頌泰磐之勢, 惟億萬年
 無疆休, 霜露之感羹牆之思, 蓋二十載如一日.

及夫眞龍啓千齡之秘, 神龜叶三德之占. 軒丘之弓劔載安, 水益清山益秀,
 景寢之象設有儼, 松之茂竹之苞. 雖籩豆有司之存, 恒勤憧憧聖念; 顧鑾蹕每
 歲之幸, 輒覺遲遲吾行. 於是陔言桑梓之鄉, 作我湯沐之郡.

上棟下宇, 翬飛鳥革之煥然一新; 沛水豐山, 鷄鳴犬吠之達于四境. 一年成
 聚二年成邑, 不煩茂陵之徙豪, 下馬管民上馬管軍, 爰陞東都之留後.

兵不受五營之節制, 別是畫戟轅門, 地則處三道之交衝, 詎無金甕鍊壁? 有
 宮府必有城郭, 有城郭必有臺隍, 遂乃列粉堞於兩柳川邊, 聳丹雘於八達山

51 감천의 봉화: 감천은 漢나라 때의 산으로 북쪽의 흉노와 접경지대에 있다. 漢나라 文帝 때 흉노가 북
 쪽 변경을 침입하자 감천에 척후병을 두고 봉화시설을 설치하여 그들을 경계하였다고 한다.
 52 靈臺: 周나라 文王이 세운 臺로, 『詩經』 「大雅·靈臺」편이 있어 이 건물의 건축 과정에 대해 노래하였다.
 53 요 임금이……일: 요 임금이 華지역을 유람할 때에 그 지역 국경을 지키던 사람이 요 임금을 위해서
 '장수[壽]', '부귀[富]', '아들을 많이 낳음[多男子]'의 내용으로 축원하였다.
 54 石: 右의 잘못된 표기이다. 『漢書』 「淮陰侯列傳」에서 "右倍山陵, 前左水澤"이라 하였다.

下。斷自宸策，規制略倣於晉陽，捐出帑藏，工役不勞於虞部。

龍蟠帟踞，儼然環金城而繞湯池；地闢天開，可以樹高牙而建大纛。協守將之羽翼三輔，左右之掎角既成；親軍衛之狶狶千羣，春秋之蒐獮是講。

粵！瞻梅香之舊洞，最稱粉社之勝區。左石城右廣陵，平臨几案，遠伽岑近母岳，羅列兒孫。

千千歲回地靈，符旃蒙之慶；八八門闢天星，分析木之躔。黃帝尉繚之書，何必據北山者勝？青龍福德之象，所貴從東方而來。

偉哉！衆心之成城，屹然千尺之壘土。風揮日霍，突兀層霄之薨；鬼運神輸，崔嵬他山之石。北門之鎖鑰增重，句陳太乙之拱紫宸；西臺之旗鼓相當，岱宗華岳之分赤縣。河清海晏，顧何事於用兵；地利人和，亦有待於命將。

惟此輪焉煥焉之美，蓋因築斯斯之功。八窓玲瓏，披襟空中之閣；三軍靜肅，注目勿字之旗。金埒開舞馬之場，是禮也過君表逐水曲；朱附簡射鵠之耦，其節則騶虞旛狸首章。進鼓退金，皆應子壁，輕裘緩帶，好是中軍。

至若更上飛樓一層，試向高臺四望，春陵之佳氣接地，衣冠月遊，長安之大道如天，蓬萊雲近。海航山梯之會，臯門應門，男欣女悅之謠，南里北里。龍淵起縹緲之桷，千葉芙蓉；虹渚駕蜿蜒之梁，一道河漢。三捷偉績，權忠壯之高峯；百代清風，崔文昌之古址。

周覽天府之固，亶出聖孝之推。宮室之麗，民物之殷，蓋欲永命于新邑；城池既完，士馬既鍊，亦必比隆於上都。萬樹之桃李成蹊，既臺又沼；千畝之禾稼如坻，寓兵於農。從此翼翼水城，重於九鼎大呂，豈直煌煌金鉞，足以千里折衝？肆演當一面之謨，恭陳助六偉之頌，

兒郎偉拋梁東，蛟龍尾角五雲中，春營筋鼓無兵氣，方朔星臨箕水宮。

兒郎偉拋梁西，武庫清霜肅八倪，少女風生金帟嘯，環壇點點參旗齊。

兒郎偉拋梁南，碧落均排丹鳥三，歲歲花樽長樂壽，壽星來照瑞光涵。

兒郎偉拋梁北，萬古玄龜天正色，四十五珠列羽林，師門獨掌元戎職。

兒郎偉拋梁上，九重八柱風雨盪，紫微帝座三垣中，最是前星光彩旺。

兒郎偉拋梁下，三千大界銀潢野，自南自北自東西，摠入吾王大庇廈。

伏願上樑之後，作鎮東國，齊壽南山，授斧登壇，將有不可犯之氣，投石超乘，士皆樂爲用之材，府中之車馬若流，朱旛翠蓋，兵前之草木動色，帟略龍韜，羽旄天回，細柳之介冑有禮，刀斗夜靜，甘泉之烽火報安，周文之爲靈臺，不以民力，帝堯之觀華封，請祝聖人。

| 解題

동장대東將臺는 화성華城 서쪽에 있는 지휘소로, 연무대鍊武臺라고도 불린다. 이만수李晩秀는 정조正祖의 명으로 상량문上樑文을 지어 바쳤다. 이만수는 동장대의 건설 과정과 이곳에서의 광경을 시선의 흐름에 따라 자세히 묘사하였다.

| 主題語

이만수李晩秀, 극원履園, 화성華城, 동장대東將臺, 정조正祖

화양루 상량문

華陽樓上梁文



서유신徐有臣, 『일득록日得錄』

| 翻譯

엿드려 생각건대, 병풍처럼 지키고 도와 규모를 웅장히 하니 경기京畿 원편의 웅혼한 고을이요, 높은 건물을 지으니 성 위의 높은 망루로구나. 지키는 데 걱정이 없어 평온히 다스리는 기상이 있도다.

화성華城의 높고 중한 제도는 삼가 생각건대 성인聖人의 심원한 계획이네. 침원寢園과 매우 가까워 한漢나라 탕목읍湯沐邑¹처럼 중시하고, 호남과 영남을 견제하니 형편이 바로 관방關防이로다. 그래서 성궐城闕과 누대樓臺를 창건하여 산천의 경관을 아름답게 하였네. 주周나라 낙읍洛邑²에 비견되니 체모가 송도松都나 심도沁都³와는 구별되고, 한漢나라 패궁沛宮⁴ 같으니 매번 정월과 2월에 행행行幸하시네. 이에 호랑이가 웅크리고 용이 서린 듯한 기세 더하고, 꿩이 날고 새가 놀란 듯하여 빛이 나는구나. 땅이 숨

- 1 湯沐邑 : 원래는 周나라 때 제후에게 목욕 비용에 충당하라고 내려주는 采地를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한나라 高祖가 驪邑을 고향인 豐邑과 똑같이 고치고 '新豐'이라고 부르면서 탕목읍으로 삼았던 일을 가리킨다.
- 2 洛邑 : 주나라 周公이 주나라의 도읍지를 옮긴 곳이다.
- 3 沁都 : 강화도의 다른 이름이다.
- 4 沛宮 : 한나라 高祖의 고향 沛縣에 있던 별궁으로, 惠帝가 즉위한 후 이곳을 고조의 別廟로 만들었다.

기고 하늘이 아껴서 마치 오늘을 기다린 것 같고, 귀신이 나르고 깎은 듯 3년 만에 완공을 알렸다네.

서장대西將臺⁵에 이르러 갈라져 남쪽 높은 곳이니, 성가퀴에 해 비치면 팔달문八達門의 범위를 볼 수 있고, 채색한 용마루 하늘로 날아오르듯 하니 한 방면의 뛰어난 경관 온전히 보여주네. 화산花山의 아름다운 기운을 창하여 푸른 빛 눈에 들어오고, 유천柳川의 들관 색은 흐릿하여 바람과 안개만 가득 보이네.

생각건대 성조聖朝는 홍범구주洪範九疇의 아홉 번째 오복五福⁶을 누리니 천 년에 한 번 있는 성세盛世로다. 하늘부터 땅까지⁷ 성교聲教⁸와 문물이 성대하며, 동쪽으로 나아가고 서쪽으로 도달하여 덕으로 교화시키는 공과 은택 이름하기 어려워라. 위대하도다, 문치文治를 숭상함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아, 옛 성현에 비해 융숭하구나.

드디어 '화양' 두 글자의 편역을 특별히 아름다운 문루門樓 백 척 처마에 걸었다네. 비록 『주역』에서 예괘豫卦를 취한 의도가 딱따기틀 쳐서 포악한 적을 대비하게 한 것이지만,⁹ 『서경書經』, 『주서周書』에서 말을 돌리는 뜻이 무왕武王이 전쟁을 그치게 하는 것¹⁰임을 보여준다네. 이에 8천 갑병甲兵의 위력을 그치게 하고 삼황오제三皇五帝가 음악으로 다스린 것을 본받으니, 영문營門에서는 피리와 북으로 밤낮 태평한 음악 연주하고, 마을에

- 5 西將臺 : 팔달산 정상에 위치한 華城의 지휘소이다.
- 6 五福 : 壽(장수), 富(부유함), 康寧(건강), 攸好德(도덕을 지킴), 考終命(타고난 명대로 살다 편안히 죽음) 등 다섯 가지 복을 가리킨다.
- 7 하늘부터 땅까지 : 원문은 '上際下蟠'인데 『莊子』, 「刻意」편의 "정신이 사방에 통달하여 흐르게 되면 도달하지 않음이 없으니, 위로는 하늘에 닿고 아래로는 땅속에 서린다(精神四達並流, 無所不匝, 上際於天, 下蟠於地)"라고 한 구절을 변용한 것이다.
- 8 聲教 : 제왕이나 성인이 덕으로 백성을 감화시키는 교육을 가리킨다.
- 9 주역에서……것이지만 : 예괘()의 卦辭에서 "척후를 세워 군대를 나아가게 함이 이롭다. (利建侯行師)"라고 한 말을 가리킨다. 한편 '딱따기틀……것' 부분은 『周易』, 「繫辭傳下」에서 "문을 겹으로 하고 딱따기틀 쳐 포악한 적을 대비한다. (重門擊柝, 以待暴客)"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 10 말을……것 : 『서경』, 「武成」편에서 "말을 華山의 남쪽으로 돌려보내고, 소를 桃林의 들에 풀어놓아 천하에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다. (歸馬于華山之陽, 放牛于桃林之野, 示天下弗服)"라고 한 말을 가리키는데, 이는 무왕이 무력을 쓰지 않고 문치를 행하고자 한 뜻을 나타낸다.

서는 풍악을 울려 시절에 풍년 든 즐거움을 노래하네. 황도黃道¹¹가 열리는 곳에 해가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고, 취화翠華¹²가 올 때 용안龍顏에 기쁜 낮 빛 있음을 알겠네. 성상의 뜻 받들어 삼가 상량하는 노래를 짓고, 아름다운 명을 알리되 허둥대며 화봉인華封人의 축원¹³을 바칩니다.

아이야 떡을 들보 동쪽으로 던져라
 성 위로 해가 떠오르니 상서로운 구름 붉고
 용연龍淵¹⁴의 흐르는 물 평평히 퍼져 흐르며
 열 길 흥에 드리운 일곱 문¹⁵을 마주하네

아이야 떡을 들보 서쪽으로 던져라
 층층이 구름같은 성가퀴 푸른 산도 낮아 보이는데
 성상의 밤 사열査閱 융대戎臺¹⁶가 으뜸이라
 일만 햇불 일천 등불 무수히 늘어섰네

아이야 떡을 들보 남쪽으로 던져라
 봉수鳳岫와 범만範巒¹⁷이 시야에 들어오고
 팔달문 앞 숫돌처럼 평평하여
 수레와 배 다니는 바다와 산길 길은 삼도三道로 통한다네

11 황도 : 지구가 태양을 도는 궤도이다.
 12 취화 : 임금의 儀仗 중에서 비취빛 것으로 꾸민 깃발 또는 수레를 일컫는 말. 임금을 상징하는 의미로도 쓰인다.
 13 화봉인의 축원 : 요 임금이 화지역을 유람할 때에 그 지역 국경을 지키던 사람[封人]이 요 임금을 위해서 '장수[壽], '부귀[富], '아들을 많이 낳음[多男子]의 내용으로 축원하였다는 고사가 전해진다.
 14 용연 : 華城의 북쪽 바깥, 방화수류정에 있는 반달 모양의 연못이다.
 15 열……문 : 화성의 北水門인 華虹門을 가리킨다. 1886년(고종 23)에 수원 유수 이현식李憲植이 중수하고 기문을 지은 바 있다. (본서에 수록된 「華虹門重修記」 참조)
 16 戎臺 : 장수가 군대를 지휘하는 높은 대이다.
 17 鳳岫와 範巒 : 둘 다 산 이름으로 보이나 정확한 것은 미상이다.

아이야 떡을 들보 북쪽으로 던져라
 오색구름 많은 곳에 북극성이 보이네
 비 개인 유천柳川 역력하다 장안長安 길
 버드나무와 푸른 깃발 같은 색이네¹⁸

아이야 떡을 들보 위로 던져라
 하늘의 구수奎宿와 벽수壁宿¹⁹ 찬란하게 빛나네
 낙남현洛南軒의 임금께서 자궁慈宮 잘 받들어
 흰 머리 여러 신신들 불리와 잘 봉양하였네²⁰

아이야 떡을 들보 아래로 던져라
 수많은 집들의 연깃불 마을을 나누네
 두 동이 술로 대청에서 축수祝壽하는 잔 올리니
 원컨대 빈환 땅 풍속²¹으로 풍과 이를 연주하소서

옆드려 바라건대, 상량한 뒤로 금성탕지金城湯池가 영원히 공고하고 단청은 점점 새로워지게 하소서. 처마 끝에 바람 미미한데 처마 밑에서 지저귀는 제비들 서로 축하하며, 난간 머리 달빛 은은한데 성 누대의 까마귀 놀라지 않으리라. 수성壽城의 봄 누대에서 여러 백성들 화목하고, 요순堯舜의 하늘 아래 우리 임금 만년토록 우뚝하게 하소서.

봉조하奉朝賀 서유신徐有臣이 지어 올렸다.

18 버드나무와……색이네 : 이 구절은 北周 시대 庾信의 부 작품인 「三月三日華林園馬射賦」의 구절 「楊柳共春旗一色」을 변용한 것이다.
 19 奎宿와 壁宿 : 28수의 별자리들로, 文運을 주관하는 별이다.
 20 흰……봉양하였네 : 정조가 乙卯 圍幸 때 수원 지역의 노인들을 불러 養老宴을 연 일을 가리킨다. (본서에 수록된 洪良浩의 「華城幸行圖記」 중 「親臨洛南軒養老宴圖」 참조)
 21 圃……풍속 : 이는 『詩經』 「關風」의 「七月」편을 염두에 둔 말로, 「칠월」은 주나라 周公이 조카 成王을 위해 농업을 장려하여 정치를 잘 하도록 당부하는 내용이다. 여기에서는 모든 일의 근본인 농사가 잘 이루어져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고 임금은 정치를 잘 하고 장수하여, 농민들의 민요와 왕실의 雅樂이 조화롭게 연주되는 상황을 노래한 것이다.

| 原文

伏以壯規模於屏翰，畿左雄府；敞輪奐於棟宇，城上高樓。保障無虞，治平有象。

奧若華城崇重之制，恭惟聖人深遠之猷。密邇寢園，寵視自同湯沐；控制湖嶺，形便仍是關防。所以創建城闕樓臺，爲之賁飾山川物色。比周洛邑，體貌別於松都沁都；若漢沛宮，行幸每以正月二月。於是虎踞龍蟠之增氣勢，翬飛鳥革之生輝光。地秘天慳，若有待於今日；神輸鬼斷，告厥成於三莽。

乃若西臺餘支，南維高處，粉堞耀日，可見八門範圍；畫棟翔空，全輸一面形勝。花山之佳氣蔥鬱，蒼翠入瞻；柳川之野色微茫，風烟滿矚。

洪惟聖朝九五弗祿，千一昌辰。上際下蟠，聲明物采之爲盛；東漸西被，薰腴功澤之難名。大哉，莫尚乎右文；猗歟，比隆於前聖！

肆將華陽二字之扁，特揭麗譙百尺之楣。雖是義經取豫之謨，俾待暴於擊析；厥惟周書歸馬之義，示爲武於止戈。于以戢八千甲兵之威，像三五笙鏞之治。營門笳鼓，曉夜昇平之音；村閭簫歌，時節豐稔之樂。黃道開處，仰日馭之駐暉；翠華來時，識天顏之有喜。奉明旨而踧踖，恭陳兒郎之詞；揚休命而周章，請效封人之祝。

兒郎偉拋樑東，城頭日出霽雲紅，龍淵流水平鋪去，七對門垂十丈虹。
兒郎偉拋樑西，層層雲堞翠微低，君王夜閱戎臺甲，萬炬千燈簇簇齊。
兒郎偉拋樑南，鳳岫範圍望裏參，八達門前平似砥，車航瀛嶠路通三。
兒郎偉拋樑北，五雲多處瞻宸極，晴川歷歷長安道，楊柳春旗同一色。
兒郎偉拋樑上，天文奎壁光昭朗，洛南雲日捧瑤皇，鶴髮群仙來善養。
兒郎偉拋樑下，烟火萬家分里社，朋酒公堂稱壽觥，願將鬮俗鳴風雅。
伏願上樑之後，金湯永鞏，丹碧采新。簷角風微，宇宙之語燕相賀；欄頭月隱，埤堦之樓鳥不驚。壽城春臺，熙熙也群黎百姓；堯天舜日，巍巍乎我后萬年。

奉朝賀徐有臣製進。

| 解題

화양루華陽樓는 화성華城 서남쪽에 조성한 감시용 누각이다. 서유신徐有臣은 정조正祖의 명을 받아 상량문을 지으면서, 화성을 만든 정조를 칭송하고 화양루의 외양, 경계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여 서술하였다.

| 主題語

서유신徐有臣, 화양루華陽樓, 화성華城, 서남각루西南角樓, 정조正祖



방화수류정 상량문

訪花隨柳亭上樑文



이서구李書九(1754~1825), 『척재집惕齋集』 권9

| 翻譯

엿드려 생각건대, 용이 서리고 호랑이가 웅크린 듯 높은 담장에 튼튼한 자물쇠 형상이요, 새가 날갯짓하고 꿩이 날아오르는 듯' 층층이 망루는 선기璇璣²의 순서로구나. 한 지방의 아름다움을 마음대로 차지하여 만세토록 태평함을 즐기는도다.

이 화성華城을 돌아보면 우리 서울³을 진무鎭撫한다네. 한漢나라 때 풍의馮翊⁴을 좌보左輔로 삼은 건 서울에 가까워서이고, 명명나라 때 봉양鳳陽⁵에 정예군을 둔 것은 선침仙寢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하늘이 만들고 땅이 설치하여 성세聖世를 기다리니 신령한 거북점에 부합하였고, 산이 맺히고 시내가 녹아 지극한 덕을 돌아보아 유택幽宅으로 주었으니, 이에 금성

1 새가……듯 : 『詩經』, 「斯干」편에서 집의 주녀의 모습을 두고 "새가 놀라 낮빛이 변하고 꿩이 날아가는 듯하다. (如鳥斯革, 如翬斯飛.)"라고 한 구절을 변용한 표현이다.
 2 璇璣 : 북두칠성의 앞 4개 별을 지칭하는 말이다. 화성의 망루 위치가 마치 북두칠성의 국자 모습처럼 꺾여 이어지는 모습을 형상화한 표현이다.
 3 서울 : 원문은 '赤縣'으로, 唐宋 시대에 서울의 중심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4 馮翊 : 漢나라 武帝 때 수도인 장안을 세 구역으로 나누었을 때 원편 구역을 지칭하는 말이다.
 5 鳳陽 : 명 太祖의 고향으로, 이곳에 精兵을 배치하여 태조의 부친의 무덤인 皇陵을 지키게 하였다고 한다.

탕지金城湯池⁶처럼 확고하게 만들고자 새로 공사⁷를 시작하였다. 높은 성가퀴 구름과 이어져 한강 이남의 기운을 더하였고, 웅장한 관문 땅에 꽃혀 호서湖西 지역의 요충지를 제어하였다. 이궁離宮⁸은 태미원太微垣⁹에 의거하여 지었으니 구중궁궐九重宮闕이요, 극락정도는 낭풍전闡風巔¹⁰의 동산을 본뵈었으니 십이옥루十二玉樓¹¹라네. 완성은 백성들 마음에 달려 있어 공역은 백성의 힘 번거롭게 하지 않았다.¹²

저 성가퀴 한 면이 바로 용연龍淵의 상투라네. 만 송이 부용 늘어져 못 봉우리들에 날아올라 춤을 바치는 형세이고, 천 줄기 버들 드리워져 긴 시내에 그물 그림을 펼치는 풍광이구나. 붉은 비람에 고표孤標¹³를 세우니 유수부留守府 전체를 독점한 빼어난 정치요, 푸른 연못에 둥근 거울 굽어보이니 특별히 이국의 풍광 펼쳐지는 듯하네. 마침내 목수에게 명하여 화려한 건물을 짓는구나. 긴 용마루 물가에 걸쳐져 무지개와 함께 이어져 휘어지고, 높은 난간은 별에 닿을 듯 분대粉帶와 함께 비스듬히 이어진다. 붉은 노을 숨었다 나타나며 봄 나무가 만인萬人의 집을 감싸며, 푸른 물결이 휘감아 돌고 안개 낀 가지가 십 리 길을 쓸어낸다. 층층이 기둥과 겹겹의 누대는 이름난 도회지에 번영으로 가득하고, 구름 맑고 바람 가벼워 아름다운 계절을 마음껏 유람하며 즐긴다.

임금께서 돌아보시니 시내와 산은 빛을 발하고, 아름다운 이름 거니 꽃과 나무들 꽃망을 품었도다. 조각한 창을 활짝 여니 봄빛이 나라를 교화할 해를 머물게 하고, 난여鸞輿¹⁴가 때맞춰 이르니 임금의 기운이 상원上苑의

6 金城湯池 : 쇠로 만든 성과 끓는 물을 채운 못이란 뜻으로, 매우 견고한 성과 해자를 지칭하는 말이며, 나아가 침범하기 어려운 장소를 비유하는 뜻으로도 쓰인다.
 7 공사 : 원문은 '版築'인데, 널빤지를 세우고 그 사이에 흙을 다져넣어 벽이나 기타 건축물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8 離宮 : 行宮(임금이 거동할 때 머무는 別宮)의 다른 표현이다.
 9 太微垣 : 사자자리 서쪽 끝부분에 해당하는 별자리로, 천자의 궁정이나 五帝의 자리 등을 상징한다.
 10 闡風巔 : 崑崙山 꼭대기에 있는 산 이름으로, 전설에 신선들이 사는 장소라고 한다.
 11 十二玉樓 : 곤륜산에 天墉城이라는 성이 있는데 그 위에 열두 개의 玉樓가 있다고 한다.
 12 공역은……않았다 : 정조가 華城을 축조하면서 백성들을 함부로 강제 동원하지 않았던 일을 가리킨다.
 13 孤標 : 산이나 나무 등이 특별히 높아 솟아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14 鸞輿 : 임금이 타는 수레이다.

봄과 통하네. 성곽과 강산은 성인의 그리움을 붙인 곳이요, 누대와 초목은
임금의 행차를 바라는 부모老들을 위로하는 마음이라. 상량문을 지어
공손히 송축하노라.

들보 동쪽으로 떡을 던져라
일—자 모양 봄 산이 그림 안에 있는 듯
행궁은 항상 보좌^{輔座}에 오르신 듯하고
扶桑의 상서로운 빛이 새벽에 먼저 붉어지는구나

들보 서쪽으로 떡을 던져라
무지개다리 드리워진 바깥은 제방으로 보호하니
사람마다 유수부의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달 아래 생황 노랫소리 온 집에 똑같이 울려 퍼지네

들보 남쪽으로 떡을 던져라
높은 봉우리에 아득히 저녁 구름 걸려 있네
우림위^{羽林衛}¹⁵ 천 명 기병이 조회하고
푸른 측백나무에 부슬부슬 감로^{甘露}가 내리네

들보 북쪽으로 떡을 던져라
푸른 나무 사이로 치도^{馳道}가 곧구나
위에는 아득히 주필대^{駐蹕臺} 있는데
봄바람에 한 무더기 깃발이 펄럭이네

15 羽林衛 : 조선시대 때 內三廳의 하나로, 백 명씩의 두 부대가 여기에 속하여 장 두 사람이 이를 통솔하였다.

들보 위쪽으로 떡을 던져라
경루^{瓊樓}와 옥우^{玉宇} 멀리 바라보이는데
별 안에 버들, 달 안에는 꽃
천상의 인간 세상 응당 이러하리니

들보 아래쪽으로 떡을 던져라
평평한 논 하얀 물에 양마^{秧馬}¹⁶ 띄웠네
때를 아는 단비에 풍년을 짐쳐 보니
가을 후에 누런 구름 사방 들판에 가득하리

삼가 바라건대, 상량한 뒤로 봄빛이 시들지 않고 땅의 신령스런 기운이
몰래 부축해 주어, 현룡원에 만년토록 왕성한 가기佳氣가 돌고, 견고한 정
천 리에 태산과 반석처럼 영원히 안정되며, 어린 버들과 어린 복숭아나무
모두 영춘^{靈椿}¹⁷이 되고, 갓난아이 늙은이 모두 태평성대를 즐기게 하소서.
아름다운 흥취가 무궁하여 태평한 기상이 있네.¹⁸

原文

伏以龍蟠虎踞，崇墉壯鎖鑰之形；鳥革翬飛，層譙應璇璣之次。擅一方之佳麗，樂萬世之昇平。

睽茲華城，鎮我赤縣。漢馮翊之爲左輔，近接神京；明鳳陽之置重兵，祇陪仙寢。天造地設，待聖世而吐靈；山結川融，眷至德而與宅。爰作金湯之固，庸新版築之功。峻堞連雲，增漢南之氣色；雒關插地，控湖右之要衝。離宮按太微之

16 秧馬 : 모내기할 때 사용하는 간이 의자이다.

17 靈椿 : 중국의 고대 전설에 등장하는, 8천 년을 한 계절로 삼는다는 나무. 『莊子』에 등장한다.

18 『일성록』에는 이 뒤에 “승정원承政院 좌승지左承旨 이서구李書九가 지어 올랐다.”는 문장이 추가되어 있다.

垣, 九重金闕; 寶界象闔風之苑, 十二玉樓. 成則在於衆心, 工不煩於民力.

惟彼雉城一面, 乃在龍淵上頭. 萬朵芙蓉, 群峯獻飛舞之勢; 千行楊柳, 長川展罨畫之光. 建孤標於丹崖, 獨占全府之形勝; 俯圓鏡於碧沼, 特開別區之風烟. 遂命梓人, 載朶華構. 脩棟亘渚, 並綵虹而連蜺; 高檻櫺星, 共粉帶而迤邐. 紅霞掩映, 春樹擁萬人之家; 翠浪縈紆, 烟條拂十里之路. 層楹疊榭, 盛繁華於名都; 澹雲輕風, 樂遊衍於佳節.

回宸矚而流峙動色, 揭美號而花木含榮. 雕窓洞開, 韶光駐化國之日; 鸞輿時度, 御氣通上苑之春. 城郭江山, 卽聖人寓慕之地, 樓臺草樹, 慰父老望幸之情. 屬舉脩樑, 恭伸善頌.

拋樑東, 一字春山似畫中, 行殿常疑開黼座, 扶桑瑞色曉先紅,
拋樑西, 垂虹橋外護金堤, 人人解說留都樂, 月下笙歌萬戶齊,
拋樑南, 喬岑縹緲暮雲含, 羽林千騎朝園日, 翠栢霏微露下甘,
拋樑北, 綠樹中間馳道直, 上有迢迢駐蹕臺, 春風一簇旌旗色,
拋樑上, 瓊樓玉宇遙相望, 星中有柳月中花, 天上人間應一樣,
拋樑下, 平田水白浮秧馬, 知時好雨占豐年, 秋後黃雲盈四野,
伏願上樑之後, 春光不老, 地靈陰扶, 珠邱萬年, 長浮鬱葱之佳氣; 金城千里, 永奠盤泰之宏基. 嫩柳夭桃, 盡作靈春之樹; 黃童白叟, 共樂康衢之民. 佳興無窮, 太平有象.

| 解題

방화수류정 訪花隨柳亭은 화성華城의 북수구문北水口門인 화홍문華虹門 동쪽에 있는 정자로, 이서구李書九는 정조正祖의 명을 받아 이 정자에 대한 상량문을 지었다. 이 글에서 이서구는 선仙의 의취를 풍기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여 그 아름다운 풍경을 강조하여 묘사하였다.

| 主題語

척재惕齋, 이서구李書九, 화성華城, 정조正祖, 방화수류정 訪花隨柳亭



각건대 상량문

角巾臺上櫟文



김재찬金載瓚(1746~1827), 『일득록日得錄』

| 翻譯 |

세 거북점의 점괘가 같아 새로운 고을을 점괘가 가리킨 들판에 정하였고, 백 치雉¹의 높은 성벽이 일제히 경하하니 높은 대臺가 홍문虹門²에 닿아 있네. 공사가 이미 완공되고 나니 때가 기다린 듯하구나.

적이 생각건대, 화성華城은 하늘이 만들어준 땅으로 진실로 선침仙寢의 의관을 달마다 거풍擧風³하는 고을이라네. 물산이 풍부하고 백성이 많으니 멀리서 수십 고을을 관할하고, 산과 하천이 첩첩이 둘러싸 완전히 8백 나라가 회동하는 듯하네.⁴ 마치 옛날 한漢나라 부풍扶風의 규모 같아 관방關防이 삼보三輔⁵의 형세를 견고하게 하고, 이곳에 주周나라 난수潁水의

1 雉: 고대에 성 담장의 면적을 계산하는 단위로, 길이 3장, 높이 1장을 1치라 하였다.
 2 虹門: 문얼굴의 윗머리가 무지개 모양처럼 반쯤 둥글게 된 문이다.
 3 선침의……거풍하는: 원문은 '月遊'로 매월 제왕의 의관을 꺼내 바람을 쐬는 것[擧風]이다. 漢나라 高祖의 능침에 보관된 한 고조의 의관을 매달 꺼내어 바람을 쐬 데서 유래하였다. 이후 선왕의 의관을 매달 한 번씩 擧風하는 것을 뜻하는 표현으로 쓰였다. 『漢書』卷43, 『叔孫通傳』 참조)
 4 8백……듯하네: 이 부분은 『書經』, 『牧誓』편에 "武王이 紂를 정벌할 때 날자를 약속하지 않았는데도 모인 나라가 팔백이었다. (武王伐紂, 不期, 會者八百國)"의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5 三輔: 漢나라 때 近畿 지역을 셋으로 분할하여 장안 동쪽을 관할하는 京兆尹, 長陵 북쪽을 관할하는 左馮翊, 渭城 서쪽을 관할하는 右扶風이라 하였다.

일⁶처럼 능침을 옮겨 받들어 미쳐서는 천지의 신령이 만년토록 전할 언덕 보호하네. 취화翠華⁷있는 공산空山에서는 여전히 일찍이 다녀간 세자를 아직도 생각하고, 향불 피어오르는 영진靈殿에서 친히 받은 용기龍旂⁸를 오래도록 바라보셨네.

생각건대 이 성읍城邑의 이설移設을 점친 것은 탕목읍湯沐邑을 본떠서⁹ 별도로 설치하기 위해서였네. 시초耆草가 묵묵히 움직여서 공역은 호조戶曹¹⁰를 번거롭게 하지 않았고, 지리地利가 참으로 좋아 가까운 곳의 수월한 노역을 만났네. 요지에 방어 공사를 하였으니 7리의곽과 5리의성城¹¹ 뿐만이 아니요, 고을이 비로소 터를 잡으니 어느새 3년 만에 도시가 되고 2년 만에 고을이 되었네.

화산花山의 소나무 측백나무를 바라보니 봉황이 날아오르고 난새가 머무는 듯하고, 엄연히 오래된 분유粉榆의 사당¹²에서는 닭이 울고 개가 짖네. 이에 새로운 성 위에 특별히 작은 누樓를 동쪽에 설치하였는데, 해가 나오는 방향에 말뚝을 세워 방향을 정하고, 사안謝安의 동산東山에서의 고사¹³를 취해 이름을 '각건角巾'이라 하였구나.

화려한 성가퀴가 달을 에워싸고 안은 형상이며 산이 왼쪽에 우뚝하고,

6 圃나라……일: 주나라 文王이 부친을 난수 潁水에 장사지냈는데, 물이 밀어닥쳐 관이 드러나자 문왕은 先君께서 신하와 백성들을 보고자 하여 하늘이 관을 드러나게 한 것이라 하고는 다시 장례를 치렀다는 고사가 전해진다. 여기에서는 顯隆園을 이장한 일을 가리킨다.
 7 翠華: 임금의 儀仗 중에 翠翟로 장식한 旗幟나 車蓋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정조의 행차를 뜻한다.
 8 龍旂: 두 마리 용이 날아오르는 모양을 그린 깃발로, 임금의 행차에 쓰이는 儀仗의 하나이다.
 9 탕목읍을 본떠서: 漢나라 高祖는 중국의 통일한 후에 驪邑을 고향인 豐邑과 똑같이 고치고 '新豐'이라고 불렀으며, 자신의 목욕비를 대는 고을로 만들었다. 여기에서는 정조가 사도세자의 무덤을 수원 花山으로 이장하고 수원의 結畿를 모두 본 고을에 보관해 두었다가 園所를 개수하는 일에 들어가는 물력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10 戶曹: 원문은 '水衡'인데 한나라 때 조세와 화폐 주조 등을 담당했던 관직을 일컫는다.
 11 7리의……城: 『孟子』, 『公孫丑下』편에서 "3리의 성과 7리의 곽을 포위하여 공격해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三里之城, 七里之郭, 環而攻之而不勝)"라고 하였다.
 12 분유의 사당: 한나라 고조의 고향 마을에 있던 사당을 가리키며, 후대에는 고향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13 사안의……고사: 晉나라 때의 신하 謝安(320~385)은 일찍이 조정의 부름에 전혀 응하지 않고 東山에 은거하며 풍류를 즐겼다. 나이 40세가 넘어 벼슬길에 나가서 征討大都督이 되어 苻堅의 백만 대군을 격파하였고, 뒤에 벼슬이 太保에 이르고 建昌縣公에 봉해졌다는 고사가 있다. 『晉書』卷79「謝安列傳」

화려한 누樓는 우뚝 솟아 구름과 이어져 들판의 빛깔 앞에 임해 있네. 사용할 때에는 대독大蠹과 고아高牙¹⁴ 높이 꽃고, 한가할 때에는 가벼운 갖옷에 띠를 느슨히 하네. 노래 부르고 음악 연주하며 경치를 즐기는 이는 대부분 남양南陽의 부호富豪들이고, 활쏘기와 말 타기 겨루는 이는 자는 태반이 무릉茂陵¹⁵의 유협遊俠들이라네.

팔달산八達山의 신령스런 기운 왕성하여 선원仙園을 감싸고서 오래 머물고, 한 진蠶의 모습과 형세 장엄하여 도성을 호위함이 더욱 공고하구나. 어찌 보장保障의 중요도를 더 높였을 뿐이라. 또한 흐르는 하천과 우뚝한 산들도 면모가 새로워진 듯하네. 울창하고 깊은 곳이 있으니 광릉廣陵 여러 봉우리의 숲과 골짜기이고, 특 트여 평평한 곳이 있으니 유천柳川 아홉 굽이의 뽕밭 삼밭이로다.¹⁶ 돛단배 은은하게 주렴 내린 창에 비치고 손을 뻗으면 한 포기 아름다운 곡식을 잡을 수 있을 듯하며, 운무雲霧가 아침 저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고 저 멀리 천 송이의 부용芙蓉을 안을 수 있을 듯하네.

들판이 아득히 넓어 예로부터 곡창지라 불리고, 역관驛館이 적막하여 지금까지 군대 주둔지로 알려져 있네. 비로소 큰 고을 이름난 도회지에서는 반드시 달 보고 바람 쐬는 누대 있음을 알겠구나. 아래에 서까래를 엮고 위에 마룻대를 올려서 집을 지어 외관을 아름답게 꾸미고, 오로五路와 삼도三道¹⁷ 요충지에 위치하여 도회지에 수레와 말이 모여드네. 남쪽 누대에서 달을 감상하며 올라 임하는 도량을 알고, 북문北門에서 술잔을 멈추고서 나라의 위엄 더할 이야기 나누네. 홍예문虹霓門 우뚝하니 반수般僮¹⁸의

14 대독과 고아 : 모두 軍營에서 쓰이는 대장군의 깃발이다.

15 茂陵 : 漢나라 武帝의 능이자 그 능이 있는 지역. 여기에서는 현릉원이 있는 수원을 가리킨다.

16 유천……삼밭 : 이 부분은 朱熹의 『武夷九曲歌』의 九曲에 “九曲이 다할 즈음 앞이 활짝 열리니, 뽕과 삼이 비에 젖고 편평한 시내 보이누나. (九曲將窮豁豁然, 桑麻雨露見平川)”라고 한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朱熹가 노래한 九曲의 경치와 유사한 곳이 있음을 의미한다.

17 三道 : 경기 · 황해 · 평안도를 가리킨다.

18 般僮 : 중국 고대의 전설적인 기술자였던 公輸般과 工僮이다.

재주를 다하였고, 제비와 참새가 함께 날아오르니¹⁹ 낙성落成 축사를 지어 야 하리라.

아이야 떡을 들보 동쪽으로 던져라
하늘이 만든 금성탕지金城湯池 기세 웅장하구나
당 위에서 광활한 창해 바라다 보이니
부상扶桑²⁰의 붉은 해가 먼저 보이네

아이야 떡을 들보 서쪽으로 던져라
태평성대 음악소리 사방에 울려 퍼지네
봄 성은 오히려 신평新豐²¹의 길 같고
닭 울고 개 짖는 수많은 집들 푸른 버들 가지런하네

아이야 떡을 들보 남쪽으로 던져라
석물 놓인 원침園寢에 상서로운 기운이 가득하네
만세 동안 신령이 감추어 둔 길지에
흑룡이 화주火珠²² 세 개 받들고 나오네

아이야 떡을 들보 북쪽으로 던져라
낙양의 성과 궁궐 북극성을 바라보네
부슬부슬 가랑비 버드나무 느릅나무 그늘에 내리는데
농부들 노랫가락 합쳐져 성덕을 노래하네

19 제비……나니 : 집이 落成되었음을 의미하며, 『淮南子』 『說林訓』에 “큰 집이 완성되면 제비와 참새가 깃들 곳이 생겨 서로 축하한다.(大廈成而燕雀相賀)”라고 하였다.

20 扶桑 : 동해에 있다는 신령스러운 나무로, 이 나무 아래에서 해가 솟는다고 한다.

21 新豐 : 漢나라 高祖는 중국을 통일한 후에 그의 부친이 고향을 그리워하자 驪邑을 고향인 沛縣의 豐邑과 똑갈게 고치고 고향 백성들을 이곳으로 이주시킨 뒤 ‘新豐’이라고 불렀다. ‘신평’이란 ‘새로운 풍읍’이라는 의미이다.

22 火珠 : 火齊珠라고도 하는 보배로운 구슬로, 구슬과 유사하게 생긴 돌이라 하기도 한다.

아이야 떡을 들보 위로 던져라
 화산^{花山} 봉우리의 봄빛이 임금 의장 당기네
 동풍이 불어와 천향^{天香}이 전해오니
 운거^{雲車}²³에 울창주^{鬱鬱}가 실려 있음을 알겠네

아이야 떡을 들보 아래로 던져라
 누대 높이 솟아 은하수를 당겨 쏟아지려 하는 듯
 한강 남쪽 사녀^{士女}들 태평시절을 즐기니
 풍요 한 번 마치고 이아^{二雅}²⁴를 연주하네

엎드려 바라건대, 상량한 뒤로 요충지가 더욱 견고하고 누대가 망가지지 않게 하소서. 원침^{園寢}의 나무에 이슬이 내리는 길한 조짐이 있으니 온갖 복록이 넘치는 운을 오래도록 보고, 누대 해자가 일출의 상서로움을 맞이하니 사망에 빛이 나는 아름다움을 기리노라.

전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 김재찬^{金載瓚}이 지어 올렸다.

原文

三龜協兆, 新邑奠食墨之野; 百雉騰賀, 高臺跨偃虹之門, 功旣告成, 時若有待.

竊惟華城天作之地, 寔爲仙寢月遊之鄉. 物阜民殷, 遙管數十州節制; 山萃水複, 宛似八百國會同. 若古漢扶風遺規, 關防壯三輔之勢; 迨茲周灑水移奉, 神祇護萬年之岡. 翠華空山, 尙想鶴馭之曾過; 香火靈殿, 長瞻龍旂之親承.

惟此城邑之移占, 蓋倣湯沐之別設. 神籌默運, 工不煩於水衡; 地利允臧,

功實遇於土國. 關鍵設險, 不啻七里之郭五里之城; 井閭肇基, 居然三年成都二年成邑.

瞻喬山之松栢, 鳳翥鸞停; 儼古社之粉楡, 鷄鳴犬吠. 乃就新城之上, 特置小樓于東, 在羲和暘谷之方, 度以土集; 取安石東山之義, 名曰角巾.

粉堞遶抱月之形, 山容左峙; 麗譙拱連雲之勢, 野色前臨. 用處則大纛高牙, 暇日則輕裘緩帶. 歌管飾勝, 率多南陽之富豪; 弓馬爭能, 半是茂陵之遊俠.

八達之光氣蔥鬱, 繞仙園而長留; 一鎮之體勢崇嚴, 衛上都而益鞏. 奚但保障之增重? 抑亦流峙之改觀. 有蔚乎其深焉, 廣陵諸峯之林壑; 其豁然而平者, 柳川九曲之桑麻. 帆船隱映於簾櫳, 平攬一幅織縠; 雲煙起滅於朝暮, 遙挹千朵芙蓉.

疇野蒼茫, 從古稱生穀之士; 郵亭錯莫, 至今說駐軍之墟. 始知大邑名都之中, 必有月榭風楹之勝創. 下宇上棟之制, 飾繁華於觀瞻處; 五路三劇之衝, 漆輪蹄於都會. 南樓翫月, 識雅量於登臨; 北門留觴, 增國威於談笑.

虹霓載屹, 旣殫般倕之才; 燕雀交飛, 宜申張老之祝,
 兒郎偉拋樑東, 天設金湯氣勢雄, 堂上平臨滄海闊, 扶桑先見日輪紅.
 兒郎偉拋樑西, 太平笙管鬧芳堤, 春城却似新豐路, 鷄犬千家翠柳齊.
 兒郎偉拋樑南, 象設崇岡瑞氣涵, 萬世靈符藏吉地, 驪龍擊出火珠三.
 兒郎偉拋樑北, 洛陽城闕瞻宸極, 濛濛細雨柳楡陰, 半和農謳歌聖德.
 兒郎偉拋樑上, 花峯春色引仙仗, 東風吹到天香來, 知是雲車貯鬱鬱.
 兒郎偉拋樑下, 臺高欲挽銀河瀉, 漢南士女樂昇平, 一關風謠登二雅.
 伏願上樑之後, 鎖鑰彌固, 樓臺不騫. 園樹有降露之祥, 佇見衍百祿之運; 臺隍迎出日之瑞, 舉祝光四表之休.

前弘文館提學金載瓚製進.

23 雲車: 전설상에 신선이 타는 수레. 여기에서는 정조의 어가를 가리킨다.

24 二雅: 『詩經』의 小雅와 大雅로, 소아는 연향에 사용되고 대아는 朝會와 제사에 사용되던 음악이다.

| 解題

각건대角巾臺는 수원 화성華城의 동북포루東北舖樓의 다른 명칭이다. 김재찬金載瓚은 정조正祖의 명을 받아 상량문上樑文을 지으면서, 화성華城 축조의 의의를 설명하고 각건대의 주변 경관을 서정적 필치로 묘사하였다.

| 主題語

김재찬金載瓚, 각건대角巾臺, 동북포루東北舖樓, 화성華城, 정조正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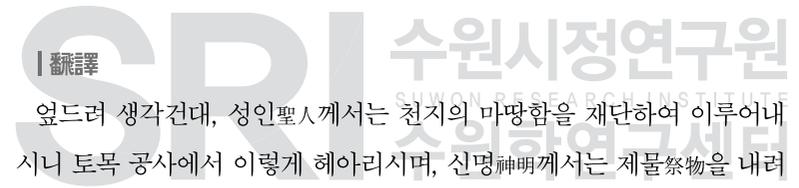


성신사 상량문

城神祠上樑文



홍원섭洪元燮(1744~1807), 『태호집太湖集』 권8



| 翻譯

엿드려 생각건대, 성인聖人께서는 천지의 마땅함을 재단하여 이루어 내시니 토목 공사에서 이렇게 헤아리시며,神明께서는 제물祭物을 내리워 살피시니 사당의 모습을 숭상하는 바이다. 아름다운 대들보 실어 올리니 엉덩이 수레¹가 구르듯 하였도다.

생각건대 이 화성華城은 한漢나라의 삼보三輔²에 의거하고 주周나라의 두 서울을 갖추었도다. 대개 한강의 남쪽, 충청도의 오른쪽의 요충지이니 없을 수 없는 것은 울타리이며, 행궁行宮과 외영外營을 건설함에 또한 어찌 범위를 작게 하겠는가. 땅은 현릉원顯隆園³을 만 년 동안 모실 장소 곁이니 하늘이 백 리 금성탕지金城湯池⁴의 형세를 만드셨도다. 산천이 감싸 보호

1 엉덩이 수레 : 『莊子』 「大宗師」편에서 “내 엉덩이를 수레바퀴로 삼고 내 정신을 말로 삼으니 내가 여기에 올라타리라.(化子之尻以爲輪, 以神爲馬, 子因以乘之)”라고 하였다. 여기에서는 사리에 맞게 순조로운 일처리가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쓰였다.

2 三輔 : 서한 때 경기 지역을 세 지역으로 나누어 관할하도록 한 바, 京兆尹, 左馮翊, 右扶風을 뜻한다.

3 顯隆園 : 원문은 ‘珠邱’인데, 제왕의 능침이 있는 장소를 뜻한다. 舜임금의 무덤에 새가 날아와 구슬을 떨어뜨린 것이 쌓여 언덕을 이루었다는 고사에서 연원하였다. 『拾遺記』 「虞舜」편 참조)

4 金城湯池 : 쇠로 쌓은 성과 끓는 물이 흐르는 堦字라는 뜻으로, 견고한 성을 비유하는 표현이다.

하니 울창하고 아름다운 기운 오릉⁵ 같고, 관문의 방비 허술하니 겹겹이 빗장 채울 장대한 계획 이루었구나. 이에 거북점으로 길한 곳을 점쳤으니 이미 사람들 화합하는 바요, 운근⁶이 기이하게 나타난 것은 실로 신령의 도움에 힘입은 것이다. 비가 내리기 전에 뽕나무 가래나무로 미리 대비하니,⁷ 경⁸과 사⁹, 서민¹⁰들이 모두 따랐다.

절기를 헤아려¹¹ 날이 따뜻해지자 공사가 비로소 시작되었으니, 화홍문¹² 虹門의 물가에서 시작하여 창룡문¹³ 蒼龍門 모퉁이까지 이르렀다. 세 번 추위와 더위가 지나니¹⁴ 온갖 치¹⁵이 펼쳐졌고 하나의 성과 연못에 팔방으로 길이 가지런히 났네. 큰 건물과 풍부한 갑병¹⁶들 안개 같이 구름 같이 많으며, 창고에 쌓아두고 자제¹⁷들 흥기하니 실로 담장이요 실로 해자로다. 이렇게 하여 혹시라도 듣지 못한 물건 없고, 그래서 신령이 편안하지 않음이 없다는 정도도 알겠도다. 성¹⁸은 천하보다 큰 것이 없으나 어찌 단지강이나 산만 하다고만 하겠으며, 예¹⁹는 제사마다 두루 하지 못하나 도리어 조왕신²⁰이나 문신²¹만 못하겠는가. 우리 임금²²께서 백성을 어루만지는 마음으로 선왕께 은혜를 갚는 의식을 치르시고, 말씀하시기를,

“성은 흔들리지 않을 대업²³을 안정시키고 신령은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베풀 것이다. 성을 쌓고 해자를 판 것이 어찌 한두 신하만이 잘해서 된 일이겠

5 五陵 : 長陵, 安陵, 陽陵, 茂陵, 平陵 등 다섯 황제의 능이 있는 咸陽을 가리킨다.
 6 雲根 : 구름이 피어나는 곳 또는 산의 돌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7 비가 …… 하니 : 『詩經』, 『爾雅』에서 “비가 내리기 전 / 저 뽕나무 뿌리를 거두어다가 창문에 감아 둔다면 / 지금 이 아래에 있는 백성들 / 혹시라도 감히 나를 업신여기겠는가. (迨天之未陰雨, 徹彼桑土, 綯繆彌戶, 今此下民, 或敢侮予)”라고 한 데서 유래하여 환난에 미리 대비한다는 의미를 지니는 표현이다.
 8 절기를 헤아려 : 원문은 ‘攝提’로, 28수의 하나인 亢宿에 딸린 별자리 이름이다. 節氣를 세우고 조짐을 헤아리는 것을 주관한다고 한다.
 9 華虹門 : 화성 북쪽의 水門으로, 水口가 일곱 개의 虹蜺로 이루어져 있다.
 10 蒼龍門 : 화성의 東門이다.
 11 세 …… 지나니 : 3년이 흘렀음을 의미한다.
 12 雉 : 성벽에 기어오르는 적을 쫓기 위하여 성벽 밖으로 군대군데 내밀어 쌓은 돌출부이다. 성벽을 앞이나 옆에서 보호하는 구조물로, 그 위에 성가퀴를 쌓았다.
 13 임금 : 원문은 ‘九重’인데 ‘九重宮闕’의 줄임말이다. 임금은 궁궐에 살며 정사를 돌보므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는가. 우리에게 장수를 내리고 복을 내릴 것이니 실로 억만 년 끝없는 기틀이 되리라. 아, 너희 유사²⁴들은 날을 점쳐 건물을 짓고 이름을 ‘성신사’라 하여 때맞춰 제물을 올려 제사를 지내라.”

하셨다.

이에 서남쪽에 터를 잡고 산등성이가 똑바로 뒤가 되도록 방향을 잡고서, 가까이 모시는 신하들은 장인들을 감독하는 데 분주하였고, 유수²⁵는 도면을 살피며 바빠 일하였네. 가리는 부분 잘라 내 햇볕을 받아들이니 3층 계단과 양쪽 행랑이 가지런하고, 장식²⁶은 검소하게 하되 단청은 화사하게 하니 많은 들보와 긴 서까래가 번듯하네. 나무와 돌을 실어다 며칠 만에 위패 모실 곳을 만들었고, 누대와 망루 빙 둘러 주인에게 의지하며 소중한 곳을 드리웠네. 사당과 재실²⁷은 광리왕²⁸에게 제를 올리는 황목²⁹의 그것과 같고, 군악을 쓰고 장수가 제사를 주관하는 것은 붉은 깃발을 꽂고 치우³⁰에게 제를 올리는 것을 닮았구나. 예³¹의 취지에 맞게 제사의 규모를 정하였으니 영원토록 복이 내려질 것이로다.

나라의 위세를 태산³²과 반석³³처럼 공고히 한 것은 문왕이 풍³⁴에 성을 쌓아 왕업³⁵을 빛낸 것과 같고, 백성들이 태평성대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은 주공³⁶이 낙³⁷에 도움을 만들어 하늘의 마음을 얻은 것과 같도다. 요새에서의 밤 순찰은 엄하게 적을 대비하기 위함이고, 길한 날에 제사 지냄은 혼령을 임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는 처음으로 성대한 의식을 거행하는 것이니, 어찌 상량을 축하하는 노래가 없겠는가. 이로써 함께 힘 쓰는 것을 돕고 신령이 임하시기를 바라노라.

아이야 떡을 들보 동쪽으로 던져라

14 장식 : 원문은 ‘山藻’인데 산과 마름 문양을 그려 넣는, 천자의 종묘 장식을 의미한다.
 15 廣利王 : 중국 南海에 산다는 신이다. 바다의 黃木이라는 섬에서 광리왕에게 제사를 지낸다 한다.
 16 蚩尤 : 전설 속 黃帝 때의 인물로 쇠로 무기를 만들어 황제와 싸움을 벌인 인물이다.

문은 구천龜川¹⁷을 마주하고 떠오르는 태양은 붉은데
신령의 눈과 봉화 무엇이 더 눈처럼 흰까
매일같이 평안한 밤이라고 행궁에 보고하네

아이야 떡을 들보 서쪽으로 던져라
등 뒤 푸른 산 태양은 바닥으로 달려가는데
원수元帥 계신 장대將臺에 신령함 역시 머무르고
구름 사이로 엿보이는 깃발들 나란하구나

아이야 떡을 들보 남쪽으로 던져라
산 위 누대와 회칠한 성에서 각角 소리 즐기나니
웅당 성문 앞 길에 사람들 모여들¹⁸을 알겠고
상서禋禘로운 일 썩 많아지고 백성은 번성하리

아이야 떡을 들보 북쪽으로 던져라
장안長安을 굳게 지키니 천 길 높이이고
해마다 대가太駕의 앞길을 호위하며
봉인封人같이 축원하기를 청하는 사람만 허락하노라

아이야 떡을 들보 위쪽으로 던져라
견우성牽牛星이 곧바로 가리키니 신령의 호위 되돌리고
화려하고 높은 누대 마치 별처럼 벌려 있는데
경보 알리는 소리 빛처럼 사방으로 퍼지는구나

17 龜川 : 지금의 수원천을 일컫는 말이다.
18 사람들 모여들 : 원문은 '輻輳'인데 이는 '輻輳並臻'의 줄임말로, 수레바퀴의 살이 바퀴통에 모여들 사람 등이 한곳으로 많이 몰려드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아이야 떡을 들보 아래쪽으로 던져라
단비 내리고 동풍東風 부는데 저 들판 바라보니
보호하고 방위하여 끝내 분명히 풍년이 들 것이라
내 신령의 힘이 우리와 함께 함을 알겠구나

엿드려 바라건대, 상당한 뒤로 사방 교외郊外는 태평함을 누리고¹⁹ 팔문
八門²⁰으로 생기를 맞이하게 하소서. 하늘에는 남두성南斗星 빛나고²¹ 땅에
서는 강구요康衢謠²² 불러 만세토록 태평하며, 군사는 산서山西에서 나고²³
말은 기북冀北에서 나듯이²⁴ 첫째가는 이름난 고을이 되게 하소서.

지금 임금 20년(1796, 정조 20) 병진년 7월 24일, 통훈대부通訓大夫 행 수
원부 판관 신묘 홍원섭洪元燮이 하교를 받들어 지었다.²⁵

| 原文

伏以聖人財成天地之宜，惟土功之是度；明神降監馨香之德，則廟貌之攸
崇。文樑載騰，尻輪若轉。

惟茲華之爲城，據漢三輔，備周二京。蓋漢南湖右之要衝，不可已者藩蔽；

19 태평함을 누리고 : 원문은 '無壘'인데, 쌓을 것을 짓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파생되어 태평무사함을 일컫는 표현으로 쓰인다.
20 八門 : 城을 쌓을 때 보통 8개의 문을 설치하는바, 范成大的『吳郡志』,『城郭』편에 따르면 "하늘의 八風(팔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상징한다고 한다. 여기에서는 華城이 보호하는 수원 지역을 가리킨다.
21 南斗星 빛나고 : 남두성은 남쪽에 있는 별자리로, 북두성과 비슷해서 남두성이라 하였다. 천자의 수명을 관장하는 별이라 하므로, 남두성이 빛난다는 것은 임금이 건강하게 장수함을 상징한다.
22 康衢謠 : 태평성대를 칭송하는 노래로, 『列子』,『仲尼』편에 나온다.
23 軍사는 …… 나고 : 山西는 중국의 崑山과 華山의 서쪽 지역을 가리키는데, 『漢書』,『趙充國傳』에서 "秦漢 이래로 山東에서는 재상이 나고 산서에서는 장군이 난다네.(秦漢以來, 山東出相, 山西出將)"라고 하여 장군이 많이 배출되는 지역으로 유명하다.
24 말은 …… 나듯이 : 冀北은 기 땅의 북쪽이라는 뜻으로, 『左傳』昭公 4년 조에서 "기의 북쪽 땅에서는 말이 생산된다.(冀之北土, 馬之所生)"라고 하여 좋은 말이 많이 나는 지역으로 유명하다.
25 지금 …… 지었다 : 『일득록』에도 「성신사 상량문」이 실려 있는데, 끄트머리에 "이상은 갑인년(1794, 정조 18)에 지어 올린 것이다."라는 주석이 부기되어 있다. 그러나 홍원섭의 『태호집』에는 이와 같이 작품 창작 연월일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서 『일득록』의 주석이 오류임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若行宮外營之建置，亦豈少於範圍？地是萬年珠邱之傍，天設百里金湯之勢。山川控護，鬱佳氣於五陵；關防虛徐，凝壯圖於重鑰。粵厥龜食之叶吉，已收人和；及夫雲根之呈奇，實賴神助。陰雨桑梓之豫寓，卿士庶民之咸從。

肆於攝提載陽，工役始集，起自華虹之渚，迄于蒼龍之陬。三寒暑而百雉斯張，一城塹而八達是翼。宮室之大，甲兵之富，如霧如雲；倉廩攸峙，子弟攸興，實墉實壑。夫惟如是而無物未或聞焉；故知情狀之爲神莫不寧也。城莫大乎天下，豈徒稱及河喬嶽；禮不偏於祀中，反未若于竈戶門。以我九重懷柔之聖心，爰舉先王報施之明典，若曰：“城則奠不拔之業，神則垂不測之功。築斯鑿斯，豈唯一二臣攸同之美；壽我福我，寔效億萬載無疆之基。咨爾有司之臣，其卜日建宇，命曰城神祠，時節降以香祝。”

於是相宅西南，枕岡中正，近侍敦匠於奔奏，留後按圖而拮据。剪幽翳而納高明，三級兩序之秩秩；儉山藻而侈粉臚，旅楹曼桷之閒閒。木石委輸，成不日於揭妥；樓櫓環拱，倚爲主而重輕。明宮齋廬，儼黃木之祀廣利；鏡歌貝冑，象朱旗之祭蚩尤。義起之品節既修，靈長之福履攸降。

鎮泰山盤石之固，濯王功於豐垣；囿春臺壽域之祥，享天心於洛邑。重關金柝，待暴客而言言；吉日駢剛，來揚靈而刻刻。是謂殷禮之肇稱，詎無梁頌之好音。遂贊呼邪，用冀盼饗。

兒郎偉拋樑東，門對龜川浴日紅，神目與烽誰似電，平安夜夜報離宮。
兒郎偉拋樑西，背後青山日馭低，元帥有臺神亦止，雲間睥睨簇旗齊。
兒郎偉拋樑南，山樓粉堞角聲酣，知應輻輳臯門道，禎瑞芸芸萬姓覃。
兒郎偉拋樑北，長安鐵鎖千尋直，年年呵護翠華前，只許封人工請祝。
兒郎偉拋樑上，牽牛正指回神仗，麗譙羅似學星辰，報警昭芒同四放。
兒郎偉拋樑下，膏雨條風觀彼野，保障終須黍稷多，吾知神力同吾社。
伏願上樑之後，四郊無壘，八門迎生。天南斗而地康衢，太平萬世；土山西而馬冀北，第一名都。

上之二十年丙辰七月二十四日，通訓大夫行水原府判官臣洪元燮奉教撰。

| 解題

성신사城神祠는 화성華城을 지키는 신령神靈을 모시는 사당이다. 홍원섭洪元燮은 정조正祖의 명을 받아 상량문上樑文을 지으면서 수원 지역의 지리적 잇점을 강조하여 서술하고, 정조의 효성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서술하였다.

| 主題語

홍원섭洪元燮, 성신사城神祠, 화성華城, 정조正祖



봉수당 상량문

奉壽堂上樑文



이병모李秉模(1742~1806), 『일성록日省錄』

翻譯

엿드려 생각건대, 화성華城 치소治所는 용이 서리고 봉이 날아오르는 모습으로 하늘이 제왕에게 준 고을이요, 봉수당奉壽堂의 완공은 장수하는 학과 거북의 상서에 응한 것으로, 땅이 성인에게 축원한 곳과 부합하네. 너희 노인들을 위로하니 다함께 즐겁고 편안하구나.

삼가 생각건대, 주상 전하께서는 원대한 계획으로 튼튼하게 하시고 지극한 효성¹으로 잘 봉양하셨네. 정일精一함을 전하여 융성한 국운을 거듭 어루만지니, 윗사람과 아랫사람, 신과 인간이 함께 의지하는 바이고, 천오문千五門²을 열고 만팔문萬八門³ 안 영춘헌迎春軒⁴에 머무시며 먹고 자고 기거하는 것이 딱 맞지 않은 것이 없네. 아, 자궁慈宮의 보령寶齡이 막 회갑이 되셨으나 임금님의 생각은 장수⁵에 더욱 간절하시구나. 육순이 돌아와서

1 지극한 효성: 원문은 '錫類'인데, 효자의 덕행이 널리 퍼져 사람들을 감화시킴을 말한다.
 2 千五門: 昌慶宮 명정전 북쪽의 왕실 시위 행각에 있는 문이다.
 3 萬八門: 천오문과 영춘헌 사이를 이어 주는 문이다.
 4 迎春軒: 창경궁에 있던 왕의 서재이다.
 5 장수: 원문은 '介眉'로, 『詩經』, 『七月』에 "술을 빚어다가 장수를 돕는다.(爲此春酒, 以介眉壽)"라는 구절에서 유래하였다.

바닷가 집에 산가지를 더하셨으니⁶ 이치상 반드시 미수眉壽⁷를 누리시리라 확신할 수 있고, 홍범구주洪範九疇⁸를 살펴보고 달력 계산해 보며 다시 끝없는 장수를 누리시기를 바라노라.

사통팔달四通八達의 어가御駕가 머문 이 고을 돌아보니 아름답구나, 만년토록 축수祝壽 잔 올릴⁹ 곳이다. 상서로운 안개가 신평루新豐樓의 나무를 에워싸니 다행히도 자궁慈宮의 수레를 모시고 들르시고, 임금의 의장儀仗이 장락당長樂堂의 꽃을 감싸 안으니 임금의 마음 감절이나 즐거우시네. 고향의 노인들 다투어 모여 이날 빛나는 자궁의 행차를 바라보았네. 딱갈나무와 두릅나무의 기상¹⁰ 바야흐로 흥성하니, 이 땅은 「천보天保」¹¹편의 노래가 적당하구나.

호서湖西 지역을 제어하여 경기京畿 지역을 견고하게 하니 의연히 변화한 궁성이요, 석이石耳를 섞어서 바다의 진미를 올리니 법연法筵¹²의 물채物采에 빛이 나네. 마침내 장남헌壯南軒¹³의 제도로 친히 축수 올리는 당堂을 확장하여, 복두 자루를 당기고 문미門楣¹⁴를 끌어당기니 구름과 해가 빛을 더 밝히고, 남산南山의 나무를 베어다 마룻대를 만드니 연못과 누대의 경관이 바뀌었구나. 승로반承露盤의 이슬¹⁵과 신선의 음료가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고, 푸른 원추리와 붉은 명협萐莆¹⁶으로 대청마루와 섬들을 꾸몄네.

6 바닷가 …… 더하셨으니: 『太平御覽』에 “세 늙은이가 서로 만나 나이를 묻자 한 사람은 대답하기를 ‘바닷물이 뿜나무 받으로 변할 때마다 나는 산가지 하나씩을 던졌는데 지금은 세 칸 집에 가득 찼다.’고 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7 眉壽: 눈썹이 희고 길게 자라도록 오래 사는 수명이라는 뜻으로, 남에게 대하여 축수할 때에 쓰는 말이다.
 8 洪範구주: 서경의 홍범에 기록되어 있는,禹가 정한 정치 도덕의 아홉 원칙이다.
 9 축수 잔 올릴: 원문은 ‘稱頌’인데, 술잔의 한 가지인 兕觥(물소 뿔 모양의 잔)을 든다는 뜻으로, 잔에 술을 따라 올리어 축수함을 이르는 말이다.
 10 딱갈나무와 …… 기상: 인구가 불어 도시가 흥성함을 말한다. 『詩經』, 『綿』편에서 유래하였다.
 11 천보: 『詩經』의 편명으로, 정사를 잘 펴는 군주를 칭송하는 내용의 작품이다.
 12 法筵: 禮式을 갖추고 임금이 신하를 만나 보는 자리이다.
 13 壯南軒: 華城 行宮의 正殿으로, 화성 留守府의 東軒이기도 하다.
 14 門楣: 문얼굴 위에 가로 대는 나무이다.
 15 승로반의 이슬: 漢나라 武帝가 일찍이 建章宮에다 銅으로 만든 신선상을 세워서 동 생만을 받들어 甘露를 받도록 만들었는데, 이것을 마시어 장수를 기원했다고 한다.
 16 萐莆: 堯임금 때에 났었다는 상서로운 풀의 이름.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매일 한 잎씩 났다가, 열셋째부터 그믐날까지 매일 한 잎씩 떨어졌으므로 이것에 의하여 달력을 만들었다고 한다. 작은 달에는 마지막 한 잎이 시들기만 하고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달력 풀 또는 켜력풀이라고 했다.

새로 개편한 내의萊衣¹⁷를 연주하니 화성에 봉한 옛 호칭이라고 읍리에 전하네. 왕명을 보좌하고 또 다시 명하여 하늘이 복을 내리시니, 금년부터 이 해를 길이 누리 자손이 천 명 만 명 끝이 없으리라. 동조東朝¹⁸를 모시고 별과 바다를 노래하니, 어느 곳에선들 부모를 모시지 않겠는가. 「남해南陔」¹⁹편을 연주하고 분유粉榆²⁰에서 잔치를 벌이니 경사가 더더욱 빛이 나네. 술잔 속에 복사꽃처럼 취한 얼굴빛 비치니 마시고서 진성眞性을 수양할 수 있고, 편액에 부상扶桑의 햇살이 꽃히니 보는 이들이 효성에 흥기하노라. 삼가 아름다운 노래를 지어 상량을 돕고자 하네.

아이야 떡을 들보 동쪽으로 던져라

문창성文昌星²¹ 일대가 무지개처럼 둘러싸였네

천향天香이 흠어져 천 송이 개화桂花 되어

봉래산蓬萊山 수주壽酒²² 길이 붉게 비추네

아이야 떡을 들보 서쪽으로 던져라

수자기帥字旗²³ 드높아 흰 구름과 나란한데

장졸將卒들 봄 추위에 모두 솜옷을 입었고

중양문中陽門²⁴ 밖에서 궁중 비단 하사하네

아이야 떡을 들보 남쪽으로 던져라

17 萊衣 : 老萊子の 옷이라는 뜻으로, 부모님에 대한 효성을 상징한다. 여기에서는 이를 활용한 악곡 명칭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18 東朝 : 발을 늘이고 政事를 듣는 太后. 여기에서는 정조의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가리킨다.

19 南陔 : 「詩經」의 편명으로, 연희의 음악이라고 전해진다. 제목은 있으나 시는 현전하지 않는다.

20 粉榆 : 漢나라 高祖의 고향으로, 자신의 고향인 豊에서 느릅나무 두 그루를 심어 토지의 신으로 삼은 데서 유래하였다. 임금의 고향이라는 의미로 널리 쓰인다.

21 文昌星 : 文昌宮의 별로, 文才를 주관하는 별이라고 한다. 文曲星이라고도 부른다.

22 壽酒 : 장수를 기원하는 술이다.

23 帥字旗 : 陣中이나 營門의 뜰에 세우던 대장기. 열두 폭으로 되어 있고 帥자를 검은색으로 썼다.

24 中陽門 : 봉수당 바로 앞의 內三門. 漢 高祖의 고향인 豊邑에 있는 문 이름을 따온 것이다.

침원寢園의 삼나무 노송나무 울창하게 드리워져
새로 돌아난 나뭇가지 이파리 교차하여 그들이 되었으니
뿌리 북돋은 신묘한 공 조화造化에 참여했네

아이야 떡을 들보 북쪽으로 던져라

푸른 밧줄 친 거등길 서울로 통하네

봉인封人²⁵이 뒤의 을묘년에 다시 임금 행차 보니

그대 다행히 수역壽域²⁶에 태어났음을 알겠네

아이야 떡을 들보 위쪽으로 던져라

태평 시대의 원기元氣 좋은 술 같아

거두어서 궁궐에 들어 두 번 절하고 올리니

옛을 입에 문 성모聖母²⁷께서 건강하고 왕성하시구나

아이야 떡을 들보 아래쪽으로 던져라

끝없는 들판에 누런 구름²⁸ 일색이로다

정리곡整理穀²⁹을 마련해 아름다운 검은 기장 주시니

은 세상 두루 길러 주신 은혜 노래로 전하네

엎드려 바라건대, 상량한 뒤로 해와 달이 차오르듯 하고 하늘과 땅의 유구함을 본받게 하소서. 용마루 겹겹이고 정자 겹쳐 있으니 어찌 소나무와 대나무만 무성하리오. 구작례九爵禮³⁰를 올리고 천세 삼창하오니 길이길이

25 封人 : 변경을 지키는 벼슬아치이다.

26 壽域 : 장수하는 사람이 많은 고장. 여기에서는 수원을 가리킨다.

27 옛을……성모聖母 : 옛을 입에 물었다는 것은 손자를 돌보며 편안하게 노후를 보낸다는 뜻의 성어인 '舍飴弄孫'을 말한다.

28 누런 구름 : 농사가 잘 되어 벼가 잘 익어 들판이 누렇게 되었음을 비유하는 표현이다.

29 整理穀 : 整理所 소유의 곡식이다.

30 九爵禮 : 잔을 아홉 번 올리는 의식이다.

왕성하고 장수하게 하소서. 복록과 하늘이 주는 큰 명이 기약한 것처럼 이르고 범식처럼 많이 이르게 하고, 보령寶齡과 성수聖壽가 더욱 높아져 억만년 장수하게 하소서.

원임原任 제학提學 관중추부사判中樞府事 이병모李秉模가 지어 올렸다.³¹

| 原文

伏以華之爲治, 象龍蟠鳳翥, 天與帝王之州; 堂所以成, 應鶴瑞龜徵, 地叶聖人之祝. 徠汝耆耆, 偕我樂康.

恭惟主上殿下, 鞏磐遠猷, 錫類隆養. 以精一傳, 撫重熙運, 上下神人之所共依歸; 開千五門, 駐萬八春, 寢膳起居之靡不順適. 猗茲齡方躋於寶甲, 而聖念益切於介眉. 週六旬而添海屋之籌, 理可徵於必得; 稽九疇而推大衍之策, 願更摯於無疆.

睨茲八達凝鑾之鄉, 美哉萬年稱兕之所. 瑞靄繞新豐之樹, 幸慈駕之陪過; 仙仗擁長樂之花, 倍宸情之忻怍. 桑梓之父老爭集, 此日瞻寶婺之光. 柞臬之氣像方興, 是地宜天保之頌.

控湖服而壯畿輔, 依然禁城之繁華; 錯山膚而登海珍, 煥乎法筵之物采. 遂回壯南軒之制, 爰拓親上壽之堂. 援北杓而拖楣, 雲日增彩; 採南山而作棟, 池臺改觀. 莖露仙漿, 淋漓霄漢; 翠萱丹莢, 藻繪軒墀.

絲管被萊衣之新翻, 邑里傳華封之舊號. 保佑命又申命, 肆皇天降祥, 自今年長此年, 萬子孫無斃. 奉東朝而歌星海, 何處非其承歡? 奏南陵而譙粉榆, 尤有光於飾慶. 杯心映醉桃之色, 飲來可以頤眞; 榜額射扶桑之暉, 觀者爲之興孝. 恭陳嘉頌, 助舉修禱.

兒郎偉拋樑東, 文星一帶繞如虹, 天香散作花千桂, 長照蓬萊壽酒紅.

31 원임…… 올렸다: 『華城城役儀軌』에는 이 문장 앞에 “上之二十年丙辰十一月日 大匡輔國崇祿大夫 判中樞府事”가 더 기록되어 있다.

兒郎偉拋樑西, 帥旗高與白雲齊, 將士春寒皆挾纊, 中陽門外賜宮綈.
兒郎偉拋樑南, 寢園杉檜鬱毳毳, 孫枝子葉交相蔭, 培本神功造化參.
兒郎偉拋樑北, 青繩御路通京國, 封人浚乙重瞻旄, 知爾幸生仁壽域.
兒郎偉拋樑上, 太和元氣如醇醞, 收入宮盤再拜擎, 含飴聖母康而旺.
兒郎偉拋樑下, 黃雲一色漫漫野, 整理穀嘉惟秬秠, 八方率育播之雅.
伏願上樑之後, 譬日月之升恒, 法乾坤之悠久. 重葺複榭, 可但松則茂竹則苞; 九爵三嵩, 永俾熾而昌耆而艾. 第祿與景命, 而滋至如式如期; 寶籌暨聖壽, 而深尊時萬時億.

原任提學判府事李秉模製進.

| 解題

봉수당奉壽堂은 화성행궁行宮의 정전正殿으로, 이병모李秉模는 정조正祖의 명을 받아 상량문을 지었다. 이병모는 이 글에서 혜경궁 홍씨의 장수를 기원하는 한편으로 봉수당의 공사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음을 다양한 수사修辭를 통해 표현하였다.

| 主題語

이병모李秉模, 봉수당奉壽堂, 정조正祖, 화성華城

장락당 상량문

長樂堂上梁文



정민사鄭民始(1745~1800), 『일득록日得錄』

翻譯

엷드려 생각건대, 각도關道¹의 여섯별은 별궁別宮 모양이니 뻣뻣한 대나무 무성한 소나무 숲에 황궁皇宮을 정하였고, 「천보天保」의 구여九如²는 기원하는 훌륭한 말이니, 나라의 복이 떠오르는 해와 초승달보다 장구하리라. 화락하게 백성과 즐기셔서 만 년 토록 이어질 터전 닦으셨네.

삼가 생각건대, 주상 전하께서는 종신토록 부모를 사모하는 정성으로 궁실의 의복에 검소한 덕 있다네. 사서四書와 육경六經의 뜻을 깊이 연구하여 백대를 뛰어넘어 요순堯舜의 마음을 전수받았으며, 일침문日瞻門과 월근문月覲門³ 우러러 보며 천승千乘의 제후로서 몸소 증자曾子和 민자閔子騫처럼 효도하시네.

- 1 關道 : 28수 중 奎宿에 속하는 별자리 이름으로, 천자가 별궁으로 가는 길이나 어가가 지나가는 길을 가리킨다.
- 2 「천보」의 구여 : 『詩經』 「天保」편에서 「산과 같고(如山) 언덕과 같고(如阜) 산마루와 같고(如岡) 구름과 같고(如陵) 넷물이 한창 흘러오는 것과 같으며(如川之方至) 초승달과 같고(如月之恒) 떠오르는 해와 같고(如日之升) 장구한 남산과 같고(如南山之壽) 무성한 송백과 같다(如松柏之茂)라고 하여 '如'자 아홉 개가 들어간 송축의 노래이다. 임금이 덕을 칭송하는 말로 쓰인다.
- 3 일침문과 월근문 : 세종이 종묘 북쪽 담과 창덕궁 남쪽 담이 서로 닿은 곳에 北牆門을 세우고, 조하루와 보름마다 展拜하였다. 정조는 이를 본받아 사도세자의 사당인 景慕宮의 서쪽에 일침문을, 창경궁 북쪽 담장에 월근문을 세우고 한 달에 한 번씩 拜禮하였다.

왕도王道를 지켜 넓고 공평하여⁴ 팔방 먼 지방을 뜰과 앞길처럼 가깝게 여기시고, 아랫사람을 대함에 분명하고 밝게 하여 사표四表⁵를 일월처럼 비추시네. 20년 동안 깊은 사랑과 두터운 은택으로 백성을 화토化土와 춘대春臺⁶에 들여 놓으시고, 억만년 이어질 천명天命을 받아⁷ 나라 기반을 태산 반석처럼 공고히 하셨네.

아, 효성스러운 생각 끝이 없고 큰 덕이 우뚝하여 이룸하기 어려워라. 안락하여 복이 연장됨을 참으로 알겠고, 영세토록 안녕 누리리라 모두 기약하네. 지난날 원園을 읊기러 『청오경靑鳥經』⁸으로 점을 쳤는데, 화성華城에 올라가 거북점에 상서로움과 부합했네. 효성이神明을 감격시키니 하늘이 천재일우의 집을 주고, 풍운이 저서儲胥⁹를 보호하니 땅이 사통오달四通五達의 터를 지켜주었네.

오릉五陵¹⁰의 아름다운 기운 왕성하니 읍을 설치했던 한 고조漢高祖의 고사 본뜨고, 수많은 성가귀의 높은 담 견고하고 장엄하니, 마침내 배도陪都¹¹의 규모를 이루었네. 이에 한 고조가 읍거 설치한 풍읍豊邑에 주성왕周成王이 천도를 도모했던 낙읍洛邑을 소유하였네.

“더디고 더디구나 내 걸음이어.”¹² 하셨으니 산천 어찌 잊으리오. 어렵듯이 마치 무엇을 본 듯하시니 뿡나무와 가래나무¹³도 공경하시네. 선친의

- 4 넓고 공평하여 : 원문은 '平平蕩蕩'인데, 『書經』 「洪範」편에서 “치우치거나 무리짓지 않으면 왕의 도가 넓어질 것이요, 무리 짓지 않고 치우치지 않으면 왕의 도가 평평해질 것이다.(無偏無黨 王道蕩蕩; 無黨無偏, 王道平平)”이라는 말을 활용한 표현이다. 임금이 올바른 도로 세상을 다스림을 의미한다.
- 5 四表 : 사방의 매우 먼 곳이라는 뜻으로, 천하를 의미한다.
- 6 春臺 : 태평성대를 가리킨다.
- 7 천명을 받아 : 이 부분은 『書經』 「召誥」의 “왕께서 천명을 받은 것이 끝없는 아름다움이지만 또한 끝없는 근심이니, 아, 어찌해야 할니까. 어찌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惟王受命, 無疆惟恤, 亦無疆惟恤, 嗚呼曷其, 奈何弗敬)”의 구절을 인용해 온 것이다.
- 8 靑鳥經 : 漢나라 때 인물로 전해지는 靑鳥子가 지었다는 최초의 풍수지리서이다.
- 9 儲胥 : 漢나라 宮館으로, 제왕의 궁전을 의미한다.
- 10 五陵 : 咸陽 부근에 있는, 한나라 황제 다섯 사람의 능이다. 長陵, 安陵, 陽陵, 茂陵, 平陵을 가리킨다.
- 11 陪都 : 수도 이외에 따로 설치한 수도이다. 여기에서는 화성이 한성만큼의 규모로 성장함을 의미한다.
- 12 더디고……걸음이어 : 『孟子』 「萬章下」편에서 공자가 “魯나라를 떠나실 때에는 ‘더디고 더디구나 나의 떠남이여’라고 하셨으니, 부모의 나라를 떠나는 도리이다.(去魯曰, 遲遲吾行也, 去父母國之道也)”라고 하였다.
- 13 뿡나무와 가래나무 : 『詩經』 「小弁」편에 “(부모님이 심으신) 뿡나무와 가래나무도 반드시 공경한다.(維桑與梓, 必恭必敬)”라고 한 데서 연원하여 고향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침묘寢廟가 있는 곳을 어찌 반 걸음이라도 떠나고 싶겠는가. 한 해에 한번 원행園幸하는 일 성상의 마음은 매년 유쾌하지 않으셨네. 성읍城邑을 설치하는 선침仙寢의 호위를 위해서요, 궁부宮府의 창건도 성상의 우러러보고 의지하려는 생각을 담은 것이라네. 이에 길이 탕목읍湯沐邑으로 만들어¹⁴ 신인神人의 마음도 크게 위로하였네.

이에 광고산光教山 남쪽에 집터를 보아 봉수당奉壽堂 뒤쪽에 공역을 하였네. 하늘이 아끼고 땅이 숨겨 오랫동안 효의孝義로 다스리는 때 기다린 곳, 길일 좋은 때에 비로소 인수역仁壽域을 열었네.¹⁵ 월부月斧¹⁶로 솟아 부러 해동海東의 요화瑤華 가지를 깎고, 무지개 들보 공중에 우뚝 올려 초楚 남쪽의 명령冥靈¹⁷을 도리로 없었네.

여기서 크고 우뚝한 아름다운 당堂을 보니 장구하게 이어질 아름다움 짐칠 수 있구나. 낙남현洛南軒과 이어져 있어 창합창합이 궁궐을 열어 놓은 형상이요, 노래당老來堂과 옆으로 통해 밭과 창이 오성五星의 빛을 머금었네. 공사 비용은 전부 내탕금內帑金¹⁸에서 내니 백성들 스스로 즐거이 달려 오고, 경용經用을 문제없이 안배하여 때를 안 넘기고 완공하였네. 화려한 동우 막 완성되었을 때 다행히 자궁慈宮께서 먼저 납시는 것을 보았으니, 집터가 우연찮고 정리가 참으로 마땅하네.

을묘년¹⁹에 다시 돌아온 화갑을 만났으니 고금에 드문 경사요, 경술년²⁰에 어가 들른 일 생각건대 일의 전후가 마치 부절 같구나. 군신君臣이 즐기

는 잔칫상 월전月殿에 오르니 쟁만에 삼천 년에 열리는 열매²¹ 올리고, 자궁慈宮께서 성헌星軒²² 위에 계시니 음악 연주하며 임금의 복인 장수를 기원하는 잔 올리네.

거북점 고찰하신 왕께서 막 화성의 근간을 완성하시고, 잔치 벌여 자궁慈宮의 화갑을 기뻐하시니 노송魯頌「비궁闕宮」의 상서가 먼저 응하였네.²³ 생각건대 영원한 천명을 기원한 이 신궁新宮에서 세상에 드문 성대한 의식을 거행하였네. 붉은 수술로 장식한 중적重翟²⁴이 은하수 씻어 신령스러움을 드러내고 황룡黃龍 대성大星²⁵이 보무寶婺²⁶로 이어져 더욱 빛나네. 용이 춤추고 봉새가 날아오르는 듯한 봉우리들 화산花山²⁷을 마주하고 동쪽으로 희미하고, 새가 놀라고 꿩이 나는 듯한 지붕들은 화악華岳 가까이서 북쪽으로 에워싸고 있네.

어가가 지나가며 이틀 밤 머무는 날이 어찌 매년 한 번뿐이리오. 상석象石 가까운 언덕에 천추만세토록 아름다움 영원하리라. 이후로 영구한 운을 더하여 즐거운 일을 거의 다 누리리라. 며칠 되지 않아 궁이 완성되니 문을 서쪽 남쪽으로 내었고, 하늘이 도와 길하고 이로우니 군자의 거처로다. 고향 패현沛縣의 느릅나무들은 부로父老들이 기뻐하며 맞이하는 것을 오래도록 보고, 낙양洛陽의 꽃나무들은 공경들 모여 사는 것을 즐거워하리라. 분사 전수관分司典守官으로는 행궁 정리사行宮整理使가 있고, 금군禁軍의 우위하는 대오로는 장용외영壯勇外營의 군병을 편제하였네.

마침내 '장락長樂'의 빛나는 편액 걸어 하늘이 주는 큰 명을 잇노라. 상도

14 탕목읍으로 만들어 : 漢나라 高祖는 중국의 통일한 후에 驪邑을 고향인 豐邑과 똑같이 고치고 '新豐'이라고 불렀으며, 자신의 목욕비를 대는 고을로 만들었다. 여기에서는 정조가 사도세자의 무덤을 수원 花山으로 이장하고 수원의 結錢을 모두 본 고을에 보관해 두었다가 園所를 개수하는 일에 들어가는 물력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15 인수역을 열었네 : 원문의 '仁壽域'의 준말로 천수를 누리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태평성대를 가리키는 말이다. 『論語』, 「雍也」에서 "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장수한다. (仁者壽)"에서 유래하였다.
 16 月斧 : 고대 중국 신화에서 달을 닦아서 만들었다는 도끼이다.
 17 冥靈 : 고대 중국 신화에서 오래 산다는 나무 이름이다.
 18 內帑金 : 왕실의 개인 자산을 가리킨다.
 19 을묘년 : 1795년(정조 19)으로, 정조는 혜경궁 홍씨의 화갑을 맞이하여 혜경궁을 모시고 현릉원을 찾았다.
 20 경술년 : 1790년(정조 14)으로, 정조는 2월 15일 현릉원에 참배하였다.

21 삼천……열매 : 3천 년에 한 번 열린다는 신선의 복숭아를 가리킨다. '蟠桃'라고도 한다.
 22 星軒 : 軒轅星官을 가리키는바, 이중 큰 별이 女主를 상징한다고 한다. 여기에서는 혜경궁 홍씨를 가리키는 뜻으로 보인다.
 23 잔치……응하였네 : 『詩經』, 「闕宮」편에 "노나라 제후가 잔치를 벌여 기뻐하시니, 착한 아내와 장수한 어머니가 계시다. (魯侯燕喜, 令妻壽母)"라고 한 테서 연원하여 어머니에 대한 祝壽를 뜻하는 말로 쓰인다.
 24 重翟 : 王后가 타는 다섯 가지 수레 중의 하나이다.
 25 大星 : 星宿 중에 크고 빛나는 별이다.
 26 寶婺 : 婺女星으로, 왕후를 찬양하는 말로 쓰인다.
 27 花山 : 용릉의 主山이 되는 산으로, 지금의 화성시 화산동에 위치하고 있다.

上都를 흥성하게 하여 원침園寢을 호위하니 흔들리지 않을 기반을 닦을 수 있고, 큰 복을 크게 하여 언덕 같으니 길이 불로不老의 노래 부르리라. 악부樂府에 「노래의老萊衣」 곡 전하니 10년 후의 기약을 남겨 두셨고, 당堊의 문에 축수祝壽하는 글자 붙였으니 만수 누리는 큰 복 맞으시리라.

천지와 짝하는 유구한 덕 지니셨으니 왕골자리 오르내릴 때의 편안함을 노래하리라. 누런 머리 검버섯²⁸ 신하가 보좌하는 복 받아 길이 즐거움을 누리시고, 사시四時의 기후 조화로운 지극한 다스림으로 하늘의 복을 크게 받으시리라. 팔달산八達山 기운 맑고 밝으니 건물을 감싸 영원히 공고하고, 만석거萬石渠의 흐르는 물 드넓으니 추녀 그림자 담고서 오래오래 머물리라.

감히 궁실의 완성을 노래한 글을 바쳐 상량하는 노래를 대신하노라.

아이야 떡을 들보 동쪽에 던져라

상서로운 기운 서린 부상扶桑에 붉은 해 떴네

관리들 새벽 파루罷漏 소리 듣고 줄서서 들어가고

훈기 깐 적우기赤羽旗²⁹ 실바람에 나무끼네

아이야 떡을 들보 서쪽에 던져라

선릉 지척에 상서로운 구름 낮게 드리웠네

해마다 임금 오서 깨끗하고 공경히 제사 올리니

봄 낮 행궁에 채색한 의장儀仗 가지런하네

아이야 떡을 들보 남쪽에 던져라

28 누런……핀 : 원문은 '黃髮台背'인데 『詩經』, 「行葦」편에서 "누런 머리에 검버섯 핀 노인 인도하고 도와 오래도록 장수하고 길하여 크게 복을 받으리라. (黃耆台背, 以引以翼, 壽考維祺, 以介景福)"라고 한 데서 연원한 표현이다.

29 赤羽旗 : 흰 깃털로 만든 깃발이다.

이설移設한 신평의 교화 하늘까지 닿았네

경룡관景龍觀³⁰이 화기와氣를 열어 통하게 하여

멀리 노인성老人星 감싸고서 상서로운 빛 머금었네

아이야 떡을 들보 북쪽에 던져라

종남산終南山 백악산白岳山이 구름 속에 우뚝하고

장안문長安門 밖 지지대遲遲臺³¹에서는

지팡이 짚은 노인들 각기 축원을 올리네

아이야 떡을 들보 위로 던져라

고요하고 높은 하늘이 별을 내려 주고

자극紫極³²의 별자리 성한 궤도로 돌아가

하늘과 땅이 모두 환히 빛나는구나

아이야 떡을 들보 아래쪽에 던져라

성대한 잔치에 가곡은 풍風과 아雅 겸하였네

늦지 않고 하늘처럼 삼광三光³³ 시들 때까지 사시리니

승로반의 감로甘露³⁴를 옥잔에 따라 올리네

옆드려 바라건대, 상량한 뒤로 성상께서 하늘처럼 오래 장수하시고 새로운 복이 내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며, 산천이 수놓은 문 수호하여 모든 궁궁

30 景龍觀 : 화성행궁의 부속 건물로, 長樂堂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31 遲遲臺 : 수원에서 서울로 오는 길에 沙斤峴이 있었는데, 그 위에 세워진 누대이다. 정조가 현릉원을 참배하고 돌아올 때, 떠나기가 아쉬워 이곳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서성거렸기에 누대의 이름을 지지대라고 하였다.

32 紫極 : 별 이름으로, 제왕의 궁전을 의미한다.

33 三光 : 해, 달, 별을 함께 일컫는 말이다.

34 承露盤의 甘露 : '승로반'은 한나라 武帝가 천상의 이슬을 받아 불로장생약을 만들기 위해 궁궐에 만들어 놓은 것으로, 20장 높이의 銅 기둥에 올려놓았다고 전해진다. 여기에서는 장수를 축원하는 의미로 쓰였다.

이 다 봄과 같고, 건곤이 우리 궁을 둘러싸서 천문만호千門萬戶가 차례차례 열리게 하소서. 세상에 드문 태평한 시대를 만나 천세 삼창을 함께 올립니다.

규장각 제학 정민시鄭民始가 지어 올렸다.

| 原文

伏從閣道六星是別宮之象，奠皇居於苞竹茂松；天保九如爲善禱之辭，永邦籙於升日恒月。熙然與百姓樂，展也基萬年長。

恭惟主上殿下以終身孺慕之誠，有卑宮非朕之德。深究六經四書之旨，曠百載而傳堯舜心；仰觀日瞻月觀之門，以千乘而躬曾閔行。

會極而平平蕩蕩，庭衢八荒；臨下而赫赫明明，日月四表。二十載深仁厚澤，囿民生於化域春臺；萬億年無疆惟休，鞏邦基於泰山盤石。

猗歟！孝思不匱，崑乎大德難名。固知以安樂而祚延，咸期享休寧而世永。迺者移珠邱而卜青鳥之兆，踐華城而叶墨龜之祥。孝悌感神明，天與千載一遇之宅；風雲護儲胥，地占五達四通之墟。

五陵之佳氣葱葱，爰做置邑之舉；萬堞之高墉仡仡，遂成陪京之規。肆於漢帝之移豐，乃有周王之圖洛。

遲遲曰吾行也，奈山川之難忘？優優如有見焉，惟桑梓之亦敬。衣冠月遊之地，豈跬步之欲離？羽旄歲省之儀，每聖心之不悅。城邑設置，蓋爲仙寢衛護之圖；官府創修，亦寓重宸瞻依之思。永作湯沐之邑，大慰神人之心。

於是相宅於光教山南，興功於奉壽堂後。天慳地秘久待孝義之治，日吉辰良始開仁壽之域。月斧奏技，斲海東瑤華之枝；虹樑聳空，架楚南冥靈之樹。

於焉見輪奐突兀之美，可以占綿遠長久之休。洛南之軒相連，闔闔開九天之象；老來之堂旁達，簾櫳含五星之光。工費悉出帑金，民自樂赴調度，無煩經用，役不時踰。時當華棟之初成，幸見慈宮之先御，地不偶爾，情固宜然。

值乙年花甲之重回，慶古今而罕有；想庚歲翠華之曾過，事前後而若符。需雲

登月殿之中，盤薦三千年結子之實；春暉駐星軒之上，樂侑九五福日壽之觴。

考卜維王，方成豐垣之翰；燕喜壽母，先膺魯宮之祥。惟此祈永命之新宮，并舉曠一有之禱禮。朱總五路，濯清漢而揚靈；黃龍大星，連寶婺而增曜。龍舞鳳翥，對花山而東迷；鳥革翬飛，近華岳而北拱。

信宿輦過之日，豈豈爲於每年一遊；密邇象設之崗，將永休於千秋萬歲。從茲添靈長之運，庶幾盡愉樂之方。不日成經營，西南其戶；自天祐吉利，君子攸芋。沛里粉榆，長見父老之欣迓；洛陽花木，樂有公卿之列居。分司典守之官，有整理行宮之使；句陳擁衛之列，編壯勇外營之兵。

遂揭長樂華扁，是庸迓續景命。隆上都而拱園寢，克奠不拔之基；介景福而如岡陵，永錫難老之頌。樂府傳萊衣之曲，留後期於十春；宮帖帖華祝之詞，迓純嘏於萬壽。

配天地悠久之德，頌莞簟上下之安。黃髮台背之維祺，長有其樂；金膏玉燭之至治，誕膺天休。八達之山氣英英，繞棟宇而永鞏；萬石之渠流浩浩，影觚稜而長留。敢效斯干之章，用替兒郎之唱。

兒郎偉拋樑東，瑞靄扶桑出日紅，鵷鷺聯班趁曉漏，晴薰赤羽帶條風。
兒郎偉拋樑西，仙陵咫尺靄雲低，明禋歲歲來清蹕，春畫行宮綵仗齊。
兒郎偉拋樑南，移豐新化與天參，景龍觀闕通和氣，遙控壽星瑞色含。
兒郎偉拋樑北，終南白岳雲間矗，長安門外遲遲臺，群老扶筇各獻祝。
兒郎偉拋樑上，穆穆高穹垂景貺，紫極星文歸旺躔，天垣地理皆昭曠。
兒郎偉拋樑下，瓊筵歌曲風兼雅，後天不老調三光，仙露金莖薦玉翠。
伏願上樑之後，聖壽天齊，新福川至，山河扶綉，戶都是春於三十六宮，乾坤繞漢，宮次第開於千門萬戶，常逢千清河之會，共獻三呼嵩之誠。

奎章閣提學鄭民始製進。

| 解題

장락당長樂堂은 화성華城 행궁의 침전寢殿으로, 정민시鄭民始는 정조正祖

의 명을 받아 상량문上樑文을 지어 바쳤다. 이 글에서 정민시는 정조의 효성을 강조하여 언급하고, 장락당을 건립하게 된 연유와 경과 등을 화려한 문체로 서술하였다.

| 主題語

정민시鄭民始, 장락당長樂堂, 일득록日得錄, 화성華城, 정조正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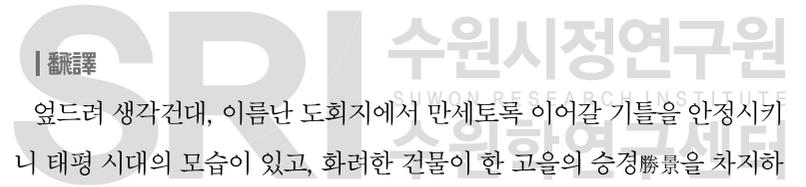


경룡관 상량문

景龍觀上樑文



황승원黃昇源(1732~1807), 『일득록日得錄』



| 翻譯

엿드려 생각건대, 이름난 도회지에서 만세토록 이어갈 기틀을 안정시키니 태평 시대의 모습이 있고, 화려한 건물이 한 고을의 승경勝景을 차지하니 경룡관景龍觀이라 이름 하였네. 땅이 서경西京의 좌풍익左馮翊¹에 해당하니 하늘이 명당明堂의 우개右介²를 열어 주었네.

돌이켜 생각하건대 화성華城 한 지역은 평소 기자箕子가 봉한 큰 고을로 불리는데 경기의 도회지들 중 우뚝하여 닭 울고 개 짖는 소리가 서로 들리고, 산천은 성대한 기운 모여 용과 봉황이 번갈아 날아오르는 듯한 형세를 지녔네. 큰 진鎮과 우뚝한 관문의 형상을 갖추었으니 왕공王公이 요새를 설치한 것이 아름답도다, 넓은 지역에 문명의 조짐 있으니 조화용이 상서로운 기운을 감추어 둔 것이 오래되었네. 그래서 지난 번 원침園寢을 이전할 때 마침내 수원을 승격하여 보호하고 다스리게 하였네. 원침園寢이 태

1 左馮翊: 중국 한나라 때 서울을 지키어 다스리던 벼슬이다. 右扶風, 京兆尹과 함께 '三輔'라 한다.
2 右介: 別宮을 일컫는 말로, 여기에서는 화성 행궁을 지칭한다. 『禮記』 「月令」편에서 "천자는 (정월에) 청양좌계에 거처한다.(天子居青陽左)"라 하였고, 그 주석에서 태묘 남쪽에 '청양우개'가 있고 천자가 3월에 이곳에 거처한다 하였다.

평 시대의 모습을 감추고 있으니 높은 산봉우리에 상서로운 기운이 감돌고, 고향³을 공경하는 전범을 미루어 유수부⁴留守府로 승격시켰네.⁴

원행⁵圓行하고서 환궁하는 길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으니 선친에 대한 지극한 그리움 어찌 위로가 되겠는가. 주구⁵珠丘가 매우 가까우니 매번 풍읍⁶豊邑을 읊긴 것처럼 하고 싶어 하셨네.⁶ 아, 궁부⁷宮府를 창건하니 어느덧 성과 담이 우뚝하구나. 단청한 서까래는 재전⁸齋殿의 법도에 알맞고 주요 관청⁷과 액정서⁸掖庭署가 벌여 있으며, 화려한 성벽은 성대한 도성에 견줄만하고 망루⁹望樓와 여장¹⁰女牆은 우뚝히 솟아있네. 마을 풍경은 흰해져서 경룡관¹¹景龍觀 문 앞은 부잣집이 즐비하고, 행상이 물건을 쌓아놓고 파니 거리는 괴시¹⁰槐市와 유방¹¹柳坊으로 나뉘네.

가득 쌓아 둔 내탕¹²內帑을 다 내어서 공역에 부역을 시키지 않았고, 외영¹³外營 제도를 비로소 갖추었는데 8년이 걸렸을 뿐이네. 금성탕지¹⁴金城湯池 같은 성지¹⁵城池는 보장¹⁶保障이 되었고, 금수¹⁷錦繡 같은 산하는 마침내 큰 도회지를 이루었네. 그리하여 난여¹⁸鸞輿¹¹가 해마다 올 때 행궁에 잠시 입어하심을 보게 되었네. 구중¹⁹궁궐의 깊고 엄밀한 곳을 본떠 중앙에 위치하게 하고, 보좌²⁰寶座의 장엄하고도 정숙한 모습을 보고 편액을 장락당¹²長樂堂이라 하였네. 참으로 한²¹漢나라 장락궁¹³長樂宮의 아름다움에 필적하고 방비하는

3 고향: 원문은 '梓鄉'으로,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고향을 가리키는 말이다. 『詩經』, 「小弁」에서 유래하였다.
 4 유수부로 승격시켰네: 1793년(정조 17)에 水原府를 華城留守府로 승격하였다.
 5 珠丘: 舜임금을 蒼梧 들관에 장사지냈는데 참새 같은 새가 푸른 모래구슬을 물어와 언덕이 되어 이를 '주구'라고 불렀다고 전해진다. 여기에서는 사도세자의 능인 현릉원을 가리킨다.
 6 풍읍을 …… 하셨네: 현릉원 가까이에 궁을 짓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漢나라 高祖는 중국을 통일한 후에 그의 부친이 고향을 그리워하자 驪邑을 고향인 沛縣의 豊邑과 똑같이 고치고 고향 백성들을 이곳으로 이주시킨 뒤 '新豊'이라고 불렀다.
 7 주요 관청: 원문은 '華省'으로, 淸直의 관청[省]을 가리키는 말이다.
 8 掖庭署: 조선 시대 내시부에 속하여 왕명의 전달 및 안내와 궁궐 관리 등을 맡아보던 관청이다.
 9 女牆: 성의 담 위에凹凸 모양으로 올려 쌓은 작은 담이다.
 10 槐市: 漢나라 때 長安에 학생들이 모여서 토산물 등을 무역하던 시장으로, 그곳에 槐樹 수백 그루가 줄지어 서 있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11 鸞輿: 임금의 수레이다.
 12 長樂堂: 혜경궁 홍씨의 침전으로 지어진 건물이다.
 13 長樂宮: 漢나라 때 태후가 거처하던 궁이다. 漢나라 高祖가 母后를 모시기 위하여 세운 궁전으로, 이후 황제의 모후는 모두 이곳에 거처하였다.

문 네 개¹⁴를 열면 나오네.

해가 무시¹⁵를 비추니 홍려시¹⁶鴻臚寺 관원들 일제히 들어가고, 성상¹⁷聖上께서 행궁에 임어하시니 작선¹⁸雀扇이 천천히 열리네. 화려하게 꾸민 문은 우주를 열고 닫는 천기¹⁹天機를 담았으니 천지가 여기 있고, 금색으로 칠해진 편액은 눈부시게 빛나게 할 방법을 생각한 것이니 관²⁰觀과 비교해 어떠한가? 궁궐의 큰 건축이 비로소 완공되니 경룡관²¹景龍觀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하사하셨네. 대궐 문이 높고 크니 당²²唐나라 태종 때의 아름다운 제도를 본떴고, 편액이 찬란하게 빛나니 태호씨²³太皐氏의 아름다운 상서²⁴를 취하였네. 검은 무늬가 검은 말 등에 펼쳐져 있었으니 성인²⁵聖人께서 천명²⁶天命을 받았다는 징표를 상징하고, 신비로운 빛이 꿩이 날아오르는 듯한 건물을 에워싸니 관명²⁷官名을 기록한 제도를 고대까지 소급했네. 선침²⁸仙寢의 의관을 매달 거풍²⁹擧風하는 예³⁰禮¹⁹를 보호하니 침의³¹瞻依²⁰에 효심을 우러러 보고, 사신³²詞臣이 태평 시대의 조짐을 노래하니 밝은 시대에 흥룡³³하는 국운³⁴國運을 어루만지네. 높은 담에 의거하여 지손을 위한 훌륭한 계획을 남겨주고, 우뚝 솟은 누관³⁵樓觀에 임어하시니 군주의 덕³⁶이 알맞도다.

관규³⁷禼圭²¹를 받들어 공경히 제사지내니 구름과 해가 찬란하게 빛나며 상서롭고 조화로운 징후를 보이고, 규벽³⁸奎壁이 반짝이니 초목이 반짝거리며 도는 성신³⁹星辰 빛을 받네. 임금의 의장이 막 붉은 난간을 돌아가면 뜰

14 방비하는 …… 개: 新豊樓의 대문, 左翊門, 中陽門, 景龍觀의 문을 가리킨다.
 15 聖上: 큰 건물에서 참새가 들어 보금자리 트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물 같은 것으로 처마 밑을 둘러친 것이다.
 16 鴻臚寺: 외교, 朝貢, 來聘, 凶儀, 祠廟의 일을 관장한다. 여기에서는 禮賓寺를 가리킨다.
 17 雀扇: 붉은 바탕에 孔雀을 양면에 각각 두 마리씩 그려서 붉은 색깔의 자루에 꿰 의장이다.
 18 태호씨의 아름다운 상서: 태호씨는 伏羲氏로, 중국 고대 신화에 복희씨 시대에 용이 馬圖를 물고 나온 상서가 있어서 百官의 우두머리 명칭에 '龍'자를 써서 '龍師'라고 한 고사가 있다.
 19 선침 …… 예: 원문은 '月遊'로 매월 제왕의 의관을 꺼내 바람을 쐬는 것[擧風]이다. 漢나라 高祖의 능침에 보관된 한 고조의 의관을 매달 꺼내어 바람을 쐬 데서 유래하였다. 이후 선왕의 의관을 매달 한 번씩 擧風하는 것을 뜻하는 표현으로 쓰였다. 『漢書』 卷43, 「叔孫通傳」 참조
 20 瞻依: 아버지처럼 항상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모한다는 말이다. 『詩經』, 「小弁」에 "우러러볼 것이 아버지 어님이 없으며 의지할 것이 어머니 어님이 없도다.(靡瞻匪父 靡依匪母)"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21 禼圭: 降神祭를 지낼 적에 술을 따르는 데 쓰는 기구의 위에 달린 옥으로 된 자루이다.

에 빼곡히 모여 있던 백관들이 길게 따라가고, 둥근 해가 단청한 건물 위로 막 떠오르면 성 안 가득한 연화煙花가 내려다보이네. 『시경詩經』에서 뽕나무 뿌리 가져간 것을 노래하였으니²² 한 방편을 방어하는 계책을 공고히 하고, 요 임금이 화華 땅을 순수巡狩했던 지역과 부합하니 장수長壽를 축원하는 글을 바치네.²³

감히 높고 큰 건물의 아름다움을 칭송하여 목수를 돕는 시를 짓노라.

아이야 떡을 들보 동쪽에 던져라
 창룡문蒼龍門이 궁전을 마주해 서 있고
 봄기운 완연하니 느릅나무 버드나무 푸르며
 따사로운 햇살 아래 붉은 깃발 나무끼네
 아이야 떡을 들보 서쪽에 던져라
 멀리 있는 제방에 아름다운 기운이 길게 떠있고
 마치 복희씨伏羲氏가 직접 용연龍淵²⁴을 본 것처럼
 바람 일으켜 검은 말을 부르네
 아이야 떡을 들보 남쪽에 던져라
 원침園寢의 소나무 측백나무 푸르는데
 축관祝官이 축 읽고 제례악 울리며 옥잔을 올리니
 시신은 벽루은함을 바치네

22 「시경」에서 …… 노래하였으니 : 「詩經」, 「鸛鳴」편에 “하늘이 아직 곳은비를 내리기 전에, 저 뽕나무 뿌리를 가져다가, 창과 문을 단단히 엮어 놓으면, 지금 너의 아래 백성들이, 감히 나를 업신여기겠는가. (始天之未陰雨, 徹彼桑土, 綢繆闔戶, 今女下民, 或敢侮予)”라고 한 데서 연원하여 불우不虞의 사태에 미리 대비한다는 뜻이다.
 23 요 …… 바치네 : 요 임금이 華지역을 유람할 때에 그 지역 국경을 지키던 사람이 요 임금을 위해서 ‘장수[壽], ‘부귀[富], ‘아들을 많이 낳음[多男子]’의 내용으로 축원하였다. 여기에서는 요 임금을 위해 축원하였던 것처럼 정조를 위해 장수를 축원하는 글을 바치는 것을 가리킨다.
 24 龍淵 : 보검을 의미한다. 고대에 龍淵과 龍泉 등의 명검이 있었던 데에서 유래하였다.

아이야 떡을 들보 북쪽에 던져라
 궁궐 문은 저 멀리 북극성으로 이어지고
 사부詞賦를 시험보아 봉래궁蓬萊宮²⁵서 창명唱名하니
 해 아래의 구름 빛을 선점하였네

아이야 떡을 들보 윗쪽에 던져라
 문은 왕궁을 향해 짝이 있구나
 지치로 아름다운 향이 올라가니
 방울방울 하늘이 감로를 내리시네

아이야 떡을 들보 아래쪽에 던져라
 뽕나무와 삼이 우거져 들에 가득하고
 만세토록 다리 아래 샘물 흘러서
 멀리 유천으로 날마다 쏟아지리라

삼가 바라건대, 상량한 뒤로 화성과 유수부가 더욱 견고해지고 건물들이 빛이 나게 하고, 땅은 지금 이때를 기다린 듯하여 상석象石이 매우 가까이 있는 것이 기쁘니 하늘이 신읍新邑에 길이 명을 주어 위대한 기업基業이 더욱 멀리 이어지게 하소서.
 승정원 도승지 황승원이 지어 올렸다.

【原文】

伏以名都奠萬世之基, 平泰有象; 華構擅一府之勝, 紀觀以龍. 地是西京左馮, 天開明堂右介.

25 蓬萊宮 : 唐나라 궁의 이름이다. 여기에서는 화성행궁을 가리킨다.

顧惟華城一域，素稱箕封大州，邦甸峙都會之鄉，鷄狗之聲相聞；山川鍾磅
礴之氣，龍鳳之勢交騰。惟巨鎮關阨之形，美哉！王公之設險；若大地文明之
兆，久矣！造化之儲祥。乃者園寢移奉之初，遂爲洛郊保釐之重。梧雲閣穆清
之像，繞瑞彩於崇崗；梓鄉推敬恭之規，尊大體於留府。

遲回蹕路，曷慰見堯牆之思？密邇珠丘，每軫移漢豐之念。猗歟！宮府之肇
創，居然城墉之維崇。丹楹儼齋殿之儀，列以華省掖暑；粉堞配神京之盛，屹
乎譙樓女牆。閭井改觀，門對鍾鳴鼎食；商旅居貨，街分槐市柳坊。

內帑之贏儲悉捐，不煩三日之力；外營之規制始備，只在八年之間。城池金
湯，是爲保障；山河錦繡，遂成大都。肆當變輿之歲回，爰覩朝宮之時御。像
紫籙深嚴之地，位居中央；瞻寶座肅穆之容，扁曰長樂。允矣匹美於漢殿，繼
以四關於虞門。

日照罽罽，踰鴻臚之齊引；天臨閭闔，儼雀扇之徐開。繡闥寓闔闔之機，乾
坤在此；金榜思標揭之道，比觀伊何？魏象之宏制，載揚景龍之嘉號肇錫，金
扉敞達，式倣貞觀帝美規；璇額焜煌，蓋取太皞氏休瑞。玄文列布於驪背，象
聖人受命之符；異彩環擁於翬飛，溯上世紀官之制。仙寢護月遊之禮，仰孝
思於瞻依；詞臣頌河清之祥，拊熙運於昭朗。按崇垣而燕翼貽厥，御層觀而
龍德正中。

裸圭恭禋，雲日爛祥和之候；奎壁流彩，草木被召回之光。天伏纔迴於朱欄，
長隨簇地冠冕；義輪初昇於畫棟，俯瞰滿城烟花。詩詠徹桑，壯一方扞禦之
策；地符觀華，獻萬歲請祝之辭。敢贊隆棟之休庸陳侑匠之什，

兒郎偉拋樑東，蒼龍門對朝宮春，浮榆柳交翠日暖，旌旗颯紅。

兒郎偉拋樑西，佳氣長浮遠堤悅，若伏羲親見龍淵，喚起風驪。

兒郎偉拋樑南，松柏喬山翠含工，祝朱絃玉瓚侍臣，碧鏤銀函。

兒郎偉拋樑北，瑣闥遙連紫極詞，賦蓬萊唱名先占，日下雲色。

兒郎偉拋樑上，門向層城有伉至治，馨香允升溥溥，甘露天貺。

兒郎偉拋樑下，桑麻晝蔭盈野萬世，橋底泉流遙向，柳川日瀉。

伏願上樑之後，城府增鞏，棟宇生輝，地若有待於今辰，喜象設之孔邇；天

其永命于新邑，占鴻基之益綿。

承政院都承旨黃昇源製進。

解題

경룡관景龍觀은 화성華城의 장락당長樂堂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황승원
黃昇源은 정조正祖의 명을 받아 상량문上樑文을 지으면서, 화성華城 축조의
의미를 설명하고 경룡관의 조성과 그 의미, 경룡관의 경관 등을 차례로 묘
사하였다.

主題語

황승원黃昇源, 경룡관景龍觀, 장락당長樂堂, 화성華城, 정조正祖

낙남헌 상량문

洛南軒上樑文



심환지沈煥之(1730~1802), 『일득록日得錄』

翻譯

패읍沛邑에서 지축地軸을 돌린 것처럼 이에 옛 부府를 옮기고 낙수洛水가에서 천하를 경영한 것처럼 특별히 새 헌軒을 지었네. 주周나라 고을 이름을 하사하고 한漢나라 궁궐에서 뜻을 취하였네.²

적이 생각건대, 화성華城을 계획한 땅은 실로 선침仙寢을 감싸 지키는 곳이로구나. 성곽은 옷깃처럼 높은 산 맑은 물을 두르고 있어 세상 사람들이 경기京畿의 삼보三輔³라 부르고, 장엄하기로는 용이 도사리고 봉황이 춤추는 형상이어서 하늘이 창오蒼梧의 주구珠丘⁴를 만들었구나. 푸른 나무는 풍읍豐邑 시장의 누대를 끼고 있는 듯하니 완전히 배와 수레가 다니는 큰

1 沛邑에서……옮기고: 漢나라 高祖가 부친을 위해 고향인 豐邑의 건물을 그대로 驪邑에 옮겨 짓고 그곳 사람들을 이주시켜 신봉이라고 이름붙였다. 여기에서는 수원부의 읍치를 팔달한 아래로 옮긴 것을 가리킨다.

2 漢나라……취하였네: 後漢 光武帝는 도읍을 洛陽으로 옮기면서 궁궐의 正殿을 南宮이라 하였으며, '낙남헌'이라는 명칭은 '낙양'과 '남궁'에서 따온 것이다.

3 京畿의 三輔: '경기'의 원문은 '黃圖'인데 三輔의 궁전의 제도, 관련 사실들을 기록한 『三輔黃圖』를 가리키는데, 서울과 그 주변 지역을 일컫는 표현이다. 삼보는 漢나라 때 近畿 지역을 셋으로 분할하여 장안 동쪽을 관할하는 京兆尹, 長陵 북쪽을 관할하는 左馮翊, 渭城 서쪽을 관할하는 右扶風이라 하였던 것을 가리킨다.

4 蒼梧의 珠丘: 舜임금을 창오 들관에 장사지냈는데 참새 같은 새가 푸른 모래구슬을 물어 와 언덕이 되어 이를 '주구'라고 불렀다고 전해진다. 여기에서는 사도세자의 능인 현릉원을 가리킨다.

도회지가 되었고, 흰 구름은 교산喬山의 칼과 신⁵을 보호하니 마치 국과 담장⁶에 소회를 부친 듯하였네.

드디어 행궁行宮의 걸을 넓혀 높은 건물을 만들었도다. 짐을 치니 간수澗水⁷가 흐르는 경기京畿의 땅이라 하니 오좌자향午坐子向의 터에 성세盛世의 기틀을 열었고, 영郢 땅 장인 같은 재주⁸로 낙성落成하니 칠량七櫟⁹에 층계는 3단인 큰집의 굉장한 규모 살펴보았네. 하늘에서 쫓은 듯한 푸른 봉우리들 그림을 그린 것처럼 둘러쌌고, 땅을 나누어 발두둑을 만들어놓은 듯한 너른 들판은 궤안几案¹⁰처럼 평평하구나. 푸른 옥을 낚시하는 연못에 담근 것처럼 마당 절반에는 연꽃 향기요, 황금을 활쏘기 하는 대臺에 쌓은 것처럼 백 걸음 거리가 버들빛이로다.

아, 성상께서 한漢나라 고조高祖의 고사를 본떠 화려한 편액에 '낙남洛南'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편액으로 거셨네. 푸른 용마루 봉수당과 접하여 칭송하는 노래 해와 달까지 뛰어오르는 듯하고, 비단 자리에서 양로연養老宴을 여니¹¹ 바람과 구름에 노랫소리 가서 닿았네. 여러 장수들 짐을 차고 신을 신고서 천천히 걸으니 엄숙한 섬돌 모서리¹²는 아홉 층의 옛 의례요, 신풍의 고을이 감싸 안으니 장대한 산과 강은 만세의 드넓은 기초이다.

5 喬山의……신: '교산'은 黃帝를 장사지낸 곳이고, 칼과 신의 원문은 '劍鳥'으로 황제를 교산에 장사지냈는데 산이 무너지면서 관은 비어 있고 칼과 신만 관 속에 남아 있었다는 고사가 전해진다. 여기에서는 현릉원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쓰였다.

6 國과 담장: 원문은 '羹牆'인데 요임금이 세상을 떠난 뒤 순임금이 앉아 있을 때는 담장에 요임금이 보이고 밥을 먹을 때는 국그릇 안에 요임금의 얼굴이 보였다는 고사가 전해진다. 『後漢書』, 「李固傳」 참조

7 간수澗水: 낙양 시내를 흐르는 강으로, 수원 지역이 도읍지가 될 만한 땅이라는 의미로 쓰인 듯하다.

8 郢……재주: 원문은 '郢匠之斤'으로, '영장'이란 『莊子』에 나오는 초나라 영 땅의 솜씨 좋은 장인을 가리킨다. 『장자』, 「徐馮鬼」편 참조

9 七櫟: 일곱 개의 도리를 걸어서 지은 집이다.

10 几案: 의자, 四方枕, 안석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11 비단……여니: 1795년 (정조 19) 2월에 정조는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顯隆園에 참배하였는데, 이때 수원 지역의 노인들을 행궁에 불러모아 양로연을 베풀었다. (본서의 『華城行幸圖記』 참조)

12 섬돌 모서리: 원문은 '簾隆'인데 '렴'은 '廉'의 의미로 모서리를 의미하는 바, 서 있는 계단 모서리가 땅에서 멀면 멀수록 지위가 높고 반대의 경우는 지위가 낮다는 말로 지위 상의 차례, 즉 位次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漢書』, 「賈誼傳」 참조

매번 임금의 수레가 오랫동안 머무는 것은 원칙이 가깝기 때문이구나. 소나무 측백나무에 임금의 기운 붙어 있으니 달마다 의관衣冠을 바람에 쏘이는 것을 바라보고, 아득히 이슬과 서리에 성상의 생각 있으니 삼가 해마다 제사를 지내네.

글 짓는 모임에서 예로 인재를 초빙하는 자리 마련하니 기린과 봉황 같은 이들 온통 구중轍中¹³에 들어오고,¹⁴ 징과 북 치는 자리에서 군사를 조련하니 곰과 호랑이 같은 이들 또한 휘하에 있구나.¹⁵ 하물며 남쪽 궁궐에서 술을 마련한 자리에서 항상 철권鐵券¹⁶을 받들어 황하黃河의 은혜¹⁷를 기록하고, 동쪽 도읍에서 부절을 나누어주는 뜰에서는 더욱 석고石鼓¹⁸를 넓혀 거공車攻¹⁹의 공을 새겼네.

조물주가 도와준 듯하니 어찌 경비로 번거롭지 않게 할 뿐만이라. 큰 집을 며칠 되지 않아 완성하였다 아뢰니 자식처럼 달려온 백성들 칭찬하고, 영원한 사업을 할 응혼한 도회지를 정하니 공경하고 화합하는 여러 신하들 이어졌네. 좋은 땅 오랫동안 텅 비어 귀신이 아끼고 숨겨 왔는데 화려한 처마 갑자기 우뚝하게 서니 새가 놀라고 꿩이 날아오르네. 수많은 살받이²⁰ 있는 분첩粉堞²¹은 구름을 밀치고 계단과 마당 휘감아 구불구불 이어지고, 세 글자 금색 편액 해를 돌아오게 하고 기둥을 보호하며 한껏 높이 걸렸도다.

13 轍中 : 화살의 사정거리 안. 화살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규정된 범위 안으로 들어온다는 뜻으로, 과거를 통해 인재를 선발함을 비유하는 뜻으로 쓰인다.
 14 글……들어오니 : 정조가 원행 때 수원 지역의 인재들을 대상으로 과거시험을 시행한 일을 가리킨다. (본서의 「華城行幸圖記」 참조)
 15 징과……있구나 : 정조가 원행 때 화성에서 군사 훈련을 시행하였던 일을 가리킨다. (본서의 「華城行幸圖記」 참조)
 16 鐵券 : 공신에게 나누어 주던, 훈공을 적은 서책이다.
 17 黃河의 은혜 : 한나라 고조가 공신들에게 책봉하면서 鐵券을 하사하고 “황하가 허리띠처럼 되고 태산이 수돌처럼 되도록 국가는 영원히 편안하여 후손들에게 전해지게 하리라. (使河如帶, 泰山若礪, 國家永寧, 爰及苗裔)”라고 했다는 고사가 전해진다. (『史記』, 「高祖功臣侯者年表」 참조)
 18 石鼓 : 주나라 宣王 때 史籀가 선왕의 공덕을 칭송하는 글을 새겨 놓은 돌이다.
 19 車攻 : 『시경』의 편명으로, 주나라 선왕이 옛 제도를 정비하고 군사를 조련한 일을 노래한 시이다.
 20 살받이 : 과녁의 앞뒤와 양쪽에 화살이 날아와 꽂히도록 쌓은 것이다.
 21 粉堞 : 석회를 바른 성가퀴를 일컫는다.

애오라지 화봉인華封人의 말로 감히 장로張老의 칭송²²을 바치노라.

아이야 떡을 들보 동쪽으로 던져라
 봄 나무 자라는 화양華陽은 흡사 옛 풍음豐邑인 듯²³
 백 리의 화려한 문루門樓는 지세地勢를 따른 것이요
 수많은 집의 닭과 개 우는 소리는 신령의 공을 운용한 것이라네.

아이야 떡을 들보 서쪽으로 던져라
 봉수당奉壽堂²⁴ 높고 푸른 기와 가지런한데
 서왕모西王母 보내 심은 연못가 나무
 붉은 이슬 크고 많아 나뭇가지 낮게 누르네

아이야 떡을 들보 남쪽으로 던져라
 가까이서 정자각丁字閣²⁵ 바라보니 소나무 삼나무가 휘감았네
 만년토록 아름다울 기운에 붉은 구름 일렁이는데
 늘어선 산들 둘러쌌으니 벽옥 비녀 같구나

아이야 떡을 들보 북쪽으로 던져라
 팔도의 생가笙歌²⁶ 태평성대 나타내고
 땅 가득 연화煙花 대궐 문에 닿았으며
 하늘 가득 별들 북극성을 따르는구나

22 張老의 칭송 : 중국 춘추시대 쑤나라의 獻女子의 집이 완공되자 장로가 축하하는 말을 했다는 고사가 『禮記』 「檀弓下」편에 전해진다.
 23 봄……인듯 : 이 구절은 唐나라 李白의 시 「上皇西巡南京歌」 10수 중 세 번째 작품의 제1구를 변용한 것인 바, 원래의 구절은 “華陽春樹號新豐”이다. 이백의 이 시는 당나라 현종이 蜀 지역을 순행한 일을 노래한 작품이며 ‘화양’은 축의 고을 이름이다.
 24 奉壽堂 : 화성 행궁의 正殿이다.
 25 丁字閣 : 왕릉의 봉분 앞에 한자 ‘丁’자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건물로 이곳에서 제사를 지낸다. 일반 묘의 床石에 해당한다.
 26 생가笙歌 : 생활을 연주하며 부르는 雅樂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이야 떡을 들보 위로 던져라
 상스러운 해가 막 떠오르고 푸른 바다 일렁이네
 세상에 구름 열리고 황도²⁷는 높아
 고래가 혼을 뺏고 용은 파도에 올라탄 듯하구나

아이야 떡을 들보 아래로 던져라
 우리 벼이삭 구름처럼 너른 들판에 펼쳐지니
 모든 창고 자동²⁸안에 항상 가득 찼고
 닭싸움에 말 달리며 춘사²⁸를 맞이하네

삼가 바라건대, 상량한 뒤로 귀주²⁹가 낙수³⁰에서 나오고 봉력³⁰에 현원씨³⁰를 기록한 것처럼 되게 하소서. 주³¹나라 시에서 남산³¹을 칭송하였으니³¹ 자전³¹과 자궁³¹에서 불로장생의 경사를 받으시고, 한³²나라 술을 북두³²에 따르니 거리에 대풍³²의 기쁨 전해지게 하소서.

내각 제학 심환지³²가 지어 올렸다.

27 黃道 : 지구가 태양을 도는 궤도이다. 지구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는 큰 원을 일컫는다.
 28 春社 : 仲春에 토지의 신에게 농사의 순조로움을 비는 제사이다.
 29 龜臚 : 천하를 다스리는 9가지 큰 법칙인 洪範九臚를 일컫는 말로,禹임금이 홍수를 다스릴 때 낙수에서 신령한 거북을 얻었는데 그 등딱지에 홍범구주가 새겨져 있었다는 고사가 있다.〔書經〕,「洪範」편 참조)
 30 風曆 : 책력을 일컫는 말이다. 현원씨가 즉위할 때 봉황이 날아왔으므로 관직명을 모두 새로 명명하였던바, 역법을 관장하는 관리를 鳳鳥氏라고 하였다는 고사가 『春秋左氏傳』昭公 17년조에 보인다.
 31 주나라……칭송하였으니 : 주나라 시는 『시경』을 가리킨다. 이 구절은 『詩經』,「天保」편에서 “남산과 같이 장수하여(如南山之壽)”라는 구절을 변용한 것으로, 정조의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의 건강과 장수를 축원한다는 의미의 표현이다.
 32 大風 : 한나라 高祖가 고향인 豐浦에 가서 잔치를 벌이면서 불렀다는 「大風歌」를 가리킨다.

原文

幹地軸於沛中, 爰移舊府; 撫天緯於洛上, 特開新軒. 周邑錫名, 漢宮取義. 竊以華城經始之地, 實爲仙寢拱衛之鄉. 廓襟帶於山高水清, 世稱黃圖之三輔; 壯體勢於龍盤鳳舞, 天作蒼梧之珠丘. 綠樹挾豐市之樓臺, 宛然舟車之大都會; 白雲護喬岵之劍鳥, 若爲羹墻之所寓懷.

肆拓行宮之傍, 仍創高軒之制. 龜食澗甸之墨, 啓休運於午坐子向之基; 燕賀郢匠之斤, 按宏規於七櫟三階之厦. 諸峰之插天蒼翠, 環以畫圖; 大野之劃地田疇, 平若几案. 涵碧玉於釣魚之沼, 半庭荷香; 堆黃金於射鵠之臺, 百步柳色.

猗, 聖圖倣漢高故事, 灑華扁揭洛南嘉名. 翠甍接奉壽之堂, 騰頌什於日月; 綺筵開養老之宴, 踏歌曲於風雲. 諸將之劍履徐越, 肅簾陞九級之古禮; 新豐之里閭環拱, 壯山河萬世之洪基.

每淹鑾輿之宿留, 蓋緣寢園之臨邇. 攀御氣於松柏, 悅瞻衣冠之月遊; 聖聖思於露霜; 祇薦籩豆之歲事. 設禮羅於翰墨之會, 麟鳳盡入穀中; 修戎政於金鼓之場, 熊虎亦在麾下. 矧南宮置酒之席, 恒推鐵券紀黃河之恩; 若東都頌瑞之庭, 益恢石鼓鐫車攻之烈.

殆若造物者有相, 奚但經費之不煩? 大厦奏不日之功, 嘉乃子來之民庶; 雄都奠永年之業, 洛爾寅協之臣工. 勝地廓廖久矣, 神慳而鬼秘; 華簷突兀忽焉, 鳥革而翬飛. 萬堞之粉堞, 排雲繞階庭而逶迤; 三字之金榜, 迴日護棟宇而崢嶸.

聊將華封之詞, 敢獻張老之頌.

兒郎偉拋樑東, 春樹華陽似舊豐, 百里麗譙仍地勢, 萬家鷄犬運神功.
 兒郎偉拋樑西, 奉壽堂高翠瓦齊, 金母送栽池上樹, 露紅千顛壓枝低.
 兒郎偉拋樑南, 近瞻丁閣繞松杉, 萬年佳氣紅雲盪, 列岵仍環碧玉簪.
 兒郎偉拋樑北, 八域笙歌昭代餘, 匝地烟花接禁扃, 滿天星斗歸宸極.
 兒郎偉拋樑上, 瑞日方昇滄海盪, 九宇雲開黃道高, 鯨鯢奪魄龍乘浪.
 兒郎偉拋樑下, 我稼如雲鋪大野, 萬廩常盈紫洞中, 鬪雞走馬迎春社.

伏願上樑之後, 龜疇出洛, 鳳曆紀軒. 頌南山於周詩, 殿宮膺長春之慶; 樹
北斗於漢酒, 衢市傳大風之休..

內閣提學沈煥之製進.

| 解題

낙남헌洛南軒은 화성華城 행궁行宮의 부속 건물로, 정조正祖가 행궁에 행
차했을 때 활쏘기를 하던 곳의 터를 닦아 지은 것이다. 심환지沈煥之는 정
조의 명을 받아 상량문을 지으면서 화성 건축의 의미, 낙남헌 건축 과정
등을 다양한 고사를 활용하여 묘사하였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 主題語
심환지沈煥之, 화성華城, 행궁行宮, 정조正祖, 낙남헌洛南軒

노래당 상량문

老來堂上樑文



정범조丁範祖(1723~1801), 『해좌집海左集』 권39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 翻譯

아름다운 기운은 상석象石을 보호하여 울창하고 달마다 의관을 거풍擧風
하는 의식¹ 엄숙하네. 화려한 건물 날아갈 듯 높이 솟았으니, 1년 내내 부
모님 그리워하는 마음² 부쳤네. 초궁楚宮의 해그림자 헤아려 경영한 제도³
는 바로 순임금이 종신토록 사모한 정성⁴이로다.

삼가 생각건대, 우리 성상께서는 다스림은 삼왕三王⁵을 본받으시고, 효
도는 모든 행실의 근원이시네. 정갈한 제사를 공경히 지내니 비궁闕宮⁶의
제도가 더욱 새롭고, 성상의 마음 끊이지 않으니 보배로운 옥책玉冊에 선

1 달마다……의식: 매월 제왕의 의관을 꺼내 바람을 쐬는 것(擧風)을 가리킨다. 漢나라 高祖의 능침에 보
관된 한 고조의 의관을 매달 꺼내어 바람을 쐬 테서 유래하였다. (『漢書』卷43, 「叔孫通傳」 참조)

2 부모님……마음: 원문은 '霜露之感'으로, 돌아가신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리킨다. (『禮記』「祭
義」편 참조)

3 초궁의……제도: 춘추 시대 衛나라가 狄의 침입을 받고 멸망하자, 文公이 楚로 옮겨가서 궁궐을 지
었는데, 이때 해의 그림자를 보고서 동서남북의 방향을 잡아 건물을 지은 고사를 지칭한다. (『春秋左氏
傳』 閔公 2년조 참조)

4 순임금이……정성: 이 부분은 『孟子』「萬章」의 "큰 효자는 종신토록 부모를 사모하니, 50세까지 부모를
사모한 자를 나는 위대한 순 임금에게서 보았노라. (大孝終身慕父母, 五十而慕者, 予於大舜見之矣)"의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5 三王: 중국 고대의 세 임금으로, 夏나라의 禹王, 殷나라의 湯王, 周나라의 文王 또는 武王을 가리킨다.

6 闕宮: 원래는 宗廟를 지칭하는 말로 주로 쓰이는데 여기에서는 사도세자의 사당을 가리킨다.

양하여 아름다움 다하였네. 궁궐 문에는 담벼락에서도 보이는 추모의 마음 부쳤으니 매일 초하루에 찾아뵙지 않은 적이 없었고, 선침仙寢은 하루면 갈 거리 떨어져 소나무 측백나무 가까이 하려 하심이네. 이 팔달산八達山의 새 고을 돌아보니, 실로 만 년의 유궁幽宮⁷과 가깝구나. 돌레에 백치雉⁸의 성과 천 채의 집을 지을 터를 마련했으니 굉장한 규모는 한漢나라 능읍陵邑의 배치를 본받았고,⁹ 뛰어난 형세는 나는 용과 춤추는 봉황의 형세에 의거했으니 비결秘訣은 고려高麗 도선국사道詵國師¹⁰의 정신 발휘하였네.

군비軍備를 손보고 군량을 쌓아둔 것은 어찌 다만 나라 남쪽 근기近畿만 보호하려 한 것이겠는가. 능침陵寢을 받들고 어가가 다닐 길 엄히 하여 해마다 한 번씩 임어臨御하시는 고을로 삼기 위함이네. 이에 행궁 뒤 한 구역에 터를 잡아 특별히 편안히 계실 별채를 지으셨도다. 하늘이 아끼고 땅이 숨겨둔 곳 뚫고 열어 음양과 방위가 엄숙하게 펼쳐졌고, 귀신이 배푸는 공력 가져오니 단청으로 꾸민 기둥 우뚝하게 빛나는구나.

정치 교화 이미 화려한 데 이르러 나랏일 임해서는 담박한 마음 가지시고, 제작은 고명高明함을 취하지 않아 웅장한 구중궁궐에서도 좁은 방편 안히 여기셨네.¹¹ 봉수당奉壽堂¹²에서 색동옷 입고 재롱부리니¹³ 봄빛이 항

상 금 잔에 넘치고, 장락당長樂堂의 아름다운 처마와 서로 빛나니¹⁴ 복수福宿¹⁵가 길이 어좌御座를 에워싸리라. 하물며 여기에서 현릉원은 바라보아 멀지 않으니, 어렴풋이 학 타고 생황 부는¹⁶ 희미한 소리 들리는 듯하네.

정井 자 모양 난간 같은 연로輦路¹⁷가 분명하니 문득 능침에 문안하는 새벽에 이용하겠고, 동문洞門의 가래나무¹⁸ 어슴푸레하니 시묘살이 하는 정성을 대신할 만하겠네. 수레는 이 때문에 더디게 가도 괜찮으니 임금의 깃발은 여기에서 머뭇거리네. 홍정紅亭¹⁹의 버들과 푸른 연못의 연꽃이 좌우에 서로 비치는데 경치는 마음에 두었던 것 아니요, 용주산龍珠山과 옥녀봉玉女峯이 높고 낮게 에워쌌으니 하늘의 뜻이 기다림 있었네. 맑은 기운 모여 피어오르니 노을처럼 아름다워 집터가 억만 년 동안 공고하고 편안할 것이고, 어가御駕²⁰가 세월을 따르니 천운이 돌아와 성상의 체후體候 8천 년의 봄²¹을 누리며 강녕하고 길하리라.

생각건대 성상께서는 매년 먼 훗날 생각하시어 화려한 현관에 특별히 '노래老來'라고 써 걸으셨다. 보령寶齡이 한창이실 때에도 오히려 항상 오려 하였고, 나이들어 정사에 싫증이 나시면 더욱 간절히 이곳을 생각하셨네. 황도黃道²²에 북극성의 빛 드리워지니 곳곳에서 우러러보고, 백발 노인이 화華 땅의 봉인封人의 축수를 올리니²³ 해마다 행차하시기를 바라네. 어

7 幽宮 : 신령을 모신 궁전이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현릉원을 가리킨다.
 8 雉 : 고대에 성 담장의 면적을 계산하는 단위로, 길이 3장, 높이 1장을 1치라 하였다.
 9 한나라……본받았고 : 漢나라 高祖가 중국을 통일한 후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의 부친을 위해 陂邑을 고향인 沛縣의 豐邑과 똑같이 고치고 고향 백성들을 이곳으로 이주시킨 것처럼 정도도 사도세자를 위해 화성을 조성했음을 의미한다.
 10 道詵國師 : 872~898년, 신라 말의 승려로 우리나라 풍수 사상의 鼻祖로 알려진 인물이다. 도선을 고려의 인물로 서술한 것은 그가 고려 태조의 아버지 王隆의 집터를 정해 주어 고려의 건국 및 수도 결정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도선이 눈여겨본 송악(지금의 개성)이 고려의 수도가 되었던 것처럼, 정도가 조성한 화성이 조선의 중심지로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구절에 담겨 있다고 여겨진다.
 11 좁은……여기셨네 : 陶潛의 『歸去來辭』에서 "남쪽 창에 기대어 담담한 마음 부치니, 무릎만 들어놓을 작은 집도 편안함을 알겠네. (倚南窓以寄傲, 審容膝之易安)"라고 한 구절을 인용한 표현이다.
 12 奉壽堂 : 정도가 혜경궁 홍씨의 장수를 축원하는 장소로 사용한다.
 13 색동옷……재롱부리니 : 춘추시대 楚나라의 老萊子가 나이 70에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색동옷을 입고 어리광을 부렸다는 고사가 있다. (『藝文類聚』 권20 참조)

14 장락당의……빛나니 : '아름다운 처마와 서로 빛나니[交輝]'는 장락당의 지붕이 봉수당과 지붕이 겹쳐 있어서 그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장락당은 혜경궁 홍씨의 침전을 목적으로 지어진 곳으로, 奉壽堂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15 福宿 : 별자리를 가리키며 『太平御覽』 권462 『人事部 游說』에 "지금 王氏가 패물하여 福宿가 箕宿와 尾宿에 나타나니 그 조짐을 볼 수 있다. (今王氏敗沒, 而福宿見尾箕其兆可見矣)"라고 하였다.
 16 학……부는 : 주나라 靈王의 태자인 王子喬가 원래 생황을 잘 불었는데 신선술을 익혀 흰 학을 타고 승천했다는 고사를 활용한 표현으로, 여기에서는 사도세자를 지칭한다. (『列仙傳』 참조)
 17 輦路 : 임금의 어가가 지나다니는 길을 가리킨다.
 18 가래나무 : 옛날에 무덤가에 가래나무를 많이 심었으므로 先塋을 상징하는 말로 쓰인다.
 19 紅亭 : 길가에 있는 정자. 길을 가는 사람이 쉬어가거나 이별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20 御駕 : 원문은 '翠華'인데 푸른 깃털로 장식한 임금의 깃발과 수레 덮개를 뜻하는 말이다.
 21 8천……봄 : 장수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莊子』 『逍遙遊』편에서 장수를 대표하는 존재로 大椿이라는 나무를 언급하며 이 나무는 8천 년을 봄으로 삼고 8천 년을 가을로 삼는다고 설명한 데 출전이 있다.
 22 黃道 : 태양의 운행 궤도를 가리키는 말로, 임금을 상징한다.
 23 화……올리니 : 요 임금이 華지역을 유람할 때에 그 지역 국경을 지키던 사람이 요 임금을 위해서 '장수壽', '부귀富', '아들들 많이 낳음多男子'의 내용으로 축원하였다.

가를 멈추자 못 영령들이 기쁨을 돕고, 달빛 비추는 난간에 납시니 용안龍顏²⁴이 감동하시네.

우뚝한 산의 모습과 흐르는 냇물의 모습 북쪽과 함께 끝이 없고, 숲에서 웃는 꽃과 들판에서 노래하는 새 온화한 기운을 맞아 서로 기뻐하네. 땅의 형세는 원묘原廟²⁵의 중함을 얻어서 노년에 성상의 추모하는 정성을 붙였고, 누대의 편액은 신평新豊²⁶이라는 이름으로 꾸며 탕목읍湯沐邑으로 성상의 은혜 성대하구나.²⁷

감히 천승千乘 임금의 지극한 행실을 칭송하며 육위가를 새로운 목소리로 노래하네.

떡을 들보 동쪽으로 던져라
교룡기交龍旗²⁸ 펄럭이고 새벽빛 붉어라
태양은 원래 궁궐 안에 있으니
해가 비추니 온 세상 같구나

떡을 들보 남쪽으로 던져라
한 줄기 냇물 맑은데 만 가닥 수양버들 늘어졌네
주렴 걸고 멀리 화산華山의 색깔 바라보니

24 龍顏: 원문은 '八彩'인데 堯 임금의 얼굴에 여덟 가지 광채가 있다고 한 데서 임금의 얼굴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인다.
25 原廟: 正廟 이외에 따로 세운 別廟를 가리킨다. 漢나라 惠帝 때 고향을 그리워하던 高祖의 마음을 생각하여 고조의 고향인 沛縣에 있던 沛宮을 원묘로 삼았던 데서 기원하였다. 여기에 고조의 의관을 모셔 두고 한 달에 한 번씩 의관을 고조의 종묘로 신고 가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본문에서 "원묘에 의관을 봉안한다"는 말은 이를 가리킨다.
26 新豊: 漢나라 高祖는 중국을 통일한 후에 그의 부친이 고향을 그리워하자 驪邑을 고향인 沛縣의 豊邑과 똑같이 고치고 고향 백성들을 이곳으로 이주시킨 뒤 '新豊'이라고 불렀다. '신평'이란 '새로운 풍읍'이라는 의미이다.
27 湯沐邑으로……성대하구나: 漢나라 高祖는 중국의 통일한 후에 驪邑을 고향인 豊邑과 똑같이 고치고 '新豊'이라고 불렀으며, 자신의 목욕비를 대는 고을로 만들었다. 여기에서는 정조가 사도세자의 무덤을 수원 花山으로 이장하고 수원의 結錢을 모두 본 고을에 보관해 두었다가 園所를 개수하는 일에 들어가는 물력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28 交龍旗: 임금의 거동 때 纛 다음에 세우는 기로, 親闈할 때 이 기로 各營을 지휘한다.

주구珠丘²⁹ 깊은 곳에 상서로운 구름 머금었도다

떡을 들보 서쪽으로 던져라
원용대元戎臺³⁰가 멀리 흰 구름과 나란하네
나라의 온 백성 편안하게 해주신 은혜를 입고
물결이 깊은 바다에 엎드려 고래도 일어나지 않네

떡을 들보 북쪽으로 던져라
여러 시내 모인 곳 물이 모여 못이 되었네
성상의 효성 책에 바탕했음을 깊이 알겠으니
탐색하는 공부가 소통시키고 인도하는 힘이 되었구나

떡을 들보 위로 던져라
신선의 고향 아득하고 검은 하늘은 공허하네
마음을 비우니³¹ 절로 신명과 통하여
사당에서 울창주鬱鬱酒³² 올리기를 기다릴 필요 없구나

떡을 들보 아래로 던져라
끝없는 붓도랑과 발두둑 이곳이 큰 들판
종일 지지대遲遲臺³³ 위에서 바라보아도

29 珠丘: 舜임금을 蒼梧 들판에 장사지냈는데 참새 같은 새가 푸른 모래구슬을 물어와 언덕이 되어 이를 '주구'라고 불렀다고 전해진다. 여기에서는 사도세자의 능인 현릉원을 가리킨다.
30 元戎臺: '원용'은 장수를 가리키므로 '원용대'는 將臺(장수가 지휘하는 높은 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31 마음을 비우니: 원문은 '心齋'로, 잡념을 배제하고 마음을 텅 비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莊子』「人間世」篇 참조)
32 鬱鬱酒: 울금향을 넣어 빛은 향기로운 술로, 제사 때 降神(신을 내리게 하는 일)에 쓰인다.
33 遲遲臺: 수원에서 서울로 오는 길에 沙斤峴이 있었는데, 그 위에 세워진 누대이다. 정조가 현릉원을 참배하고 돌아올 때, 떠나기가 아쉬워 이곳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서성거렸기에 누대의 이름을 지지대라고 하였다.

성상의 마음 맑은 시내와 함께 흘러가지 않네

엎드려 바라건대, 상량한 뒤로 원기元氣는 서까래를 받치고 상서로운 빛은 기둥을 감싸며, 무지개다리는 은하수에 걸쳐져 물고기와 용이 노부鹵簿³⁴를 지키며 날래게 달려가고, 어가가 봄을 맞이해 구름과 해는 우모羽旄를 아름답게 하며 화창해지게 하소서. 성상의 덕은 시간과 더불어 높아지고, 행차는 천지를 살피며 무궁하게 하소서.

| 原文

佳氣護象設而葱鬱，儼月游衣冠之儀。華構抗翬飛而峩峩，寓歲時霜露之感。惟楚宮測景營之制，卽虞帝終身慕之誠。

恭惟我聖上治法三王，孝源百行。精禋穆穆，閼宮之制度增新；聖懷懂懂，寶冊之揄揚盡美。宮門寓見牆之慕，非無月朔之覲瞻；仙寢隔宿春之程，若爲松柏之密邇，陔茲八達新府，實近萬年幽宮。周遭設百雉千甍之基，宏規倣漢陵邑鋪置；形勝據飛龍舞鳳之勢，秘訣發麗道釋精神。

繕戎備而峙軍儲，奚但國南畿保障之寄；奉寢薦而凝鑾蹕，盖爲歲一游臨御之鄉。迺相行宮後一區，特起宴居時別榭。鑿開天慳地秘之境，陰陽方位之森羅；輸來鬼設神施之功，棟宇丹雘之巍煥。

政化已臻熙皞，莅萬機而澹泊棲心；制作不取高明，壯九重而易安容膝。奉壽之彩服供戲，春光常溢於金疊；長樂之璇楣交輝，福宿永繞於黼座。矧茲弓劍之瞻望匪遠，優然笙鶴之縹緲如聆。

井幹之輦路分明，悅趁問寢之曉；洞門之宰樹隱約，庶替居廬之誠。乘輿爲之依遲，宸旒於焉凝佇。紅亭柳碧沼荷之左右映帶，物華匪心；龍珠巒玉女峰之高下環圍，天意有待。淑氣鍾扶輿而霞蔚，堂基占億萬載鞏安；翠華隨

34 鹵簿：임금의 거동 행렬을 의미하는 말. '노부'는 원래 임금이 거동할 때 따라다니는 儀仗이다.

歲籥而天回，玉候享八千春康吉。

繫聖念每軫於悠久，而華扁特揭以老來。當寶齡富有之辰，尙欲常常而至；逮大耋倦勤之際，尤切惓惓於斯。黃道垂斗極之輝，聳觀瞻於處處；白叟騰華封之祝，望行幸於年年。停雲蹕而百靈助懼，御月楹而八彩動色。

嶽色川容之流峙，與弗祿而無彊；林花野鳥之笑歌，迓和氣而相悅。地勢得原廟之重，寓聖慕於晚暮之齡；樓額侈新豐之名，軫宸眷於湯沐之邑。敢頌千乘君至行，庸奏六偉詞新聲，

拋樑東，龍旒旖旎曙光紅，太陽元在宸襟內，流照金輪八域同。

拋樑南，一練川明萬柳毳，捲箔遙瞻花嶽色，珠邱深處靄雲含。

拋樑西，元戎臺迥白雲齊，寰區摠囿懷綏化，波伏重溟不起鯢。

拋樑北，羣流會處匯爲澤，深知聖孝資編簡，探索功參疏導力。

拋樑上，仙鄉邈矣玄霄曠，心齋自與神明會，不待祠宮薦鬱鬯。

拋樑下，莽蒼溝塍是大野，竟日遲遲臺上望，宸情不與清川瀉。

伏願上樑之後，元氣承棖，祥光繞棟，虹橋巨漢，魚龍護鹵簿而駿奔，鳳輦乘春，雲日媚羽旄而駘蕩，聖德與春秋俱邵，宸遊閱天地無窮。

| 解題

노래당老來堂은 낙남헌洛南軒 곁에 지어 정조正祖가 행사 중간에 잠시 쉬 수 있도록 한 건물로, 정범조丁範祖는 정조正祖의 명을 받아 상량문上樑文을 지었다. 이 글에서 정범조는 정조의 치적을 상세히 설명한 뒤, 노래당을 세우게 된 경과를 서술하였다.

| 主題語

정범조丁範祖, 해좌海左, 노래당老來堂, 화성華城, 정조正祖

신평루 상량문

新豐樓上梁文



윤시동尹善東(1729~1797), 『일득록日得錄』

翻譯

엿드려 생각건대, 성과 고을은 가까운 창오蒼梧의 들관 가까워 임금의 사모하는 마음 아름답고, 문앞 거리에는 푸른 느릅나무 자라는 마을 완연하여 높은 누대가 웅장하네. 하늘이 궁궐의 수레 오게 하고, 땅이 분유사粉楡社²에서 잔치를 열게 하였네.

대개 이 화성 유수부華城留守府의 경영을 도모한 것은 실로 임금의 부왕 父王 추모하는 효성에서 나온 것이로다. 만 년의 상서로움 저장된 터를 잡으니 산천이 매달 하는 거풍舉風의식³을 감싸 지키고, 천 승千乘 제후의 봉양하는 마음은 성과 고을을 해마다 부왕 찾아뵙는 곳에 만들었네. 세월은 구산緱山에서 학을 타신 때⁴로부터 점점 아득해지지만 임금의 추모하시는

1 蒼梧 : 舜 임금의 무덤이 있는 蒼梧山을 가리킨다.
 2 粉楡社 : 漢나라 高祖의 고향인 沛縣의 豐 땅에 조성하였던 사당. 이곳에 느릅나무 두 그루를 심어 토지의 신으로 삼았으므로 '분유사'라 하였다.
 3 舉風 의식 : 원문은 '月遊'로 매월 제왕의 의관을 꺼내 바람을 쐬는 것[舉風]이다. 漢나라 高祖의 능침에 보관된 한 고조의 의관을 매달 꺼내어 바람을 쐬 데서 유래하였다. 이후 선왕의 의관을 매달 한 번씩 舉風하는 것을 뜻하는 표현으로 쓰였다.〔『漢書』卷43, 『叔孫通傳』 참조〕
 4 緱山에서 …… 때 : '구산'은 지금의 河南省에 있는 산 이름인데, 周나라 때 靈王의 태자 喬가 구산에서 학을 타고 떠나 신선이 되었다는 고사가 있다. 후대에는 죽음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쓰인다.〔『列仙傳』 참조〕

마음 어찌 조금이라도 퍼섯겠는가. 고을이 원침園寢에서 가까우나 임금께서 지극하게 하지 않음이 없으셨네.

담장에서도 보이는 듯한 그리움⁵으로 궁궐을 지으시니, 어가御駕를 자주 돌리시니 땅이 요 임금이 화華 땅을 순행한 일에 부합하고, 마당에 건물 이 늘어나니 주周나라 임금이 험한 곳에 집을 지은 뜻을 취하신 것이구나. 아름답도다, 세 문이 하늘까지 닿는 듯하니 무성하게 한 고을을 감싸 안는 형세구나.

용이 날고 봉황이 춤추는 듯 아름다운 기운 놀러 팔달산八達山 높은 고개에 모아 왔고, 새가 놀라고 꿩이 나는 듯한 굉장한 규모 만들어 멀리 두 경계의 중요한 길에 임하였도다. 단청 칠해 환함 더하니 천둥 치는 하늘 본 떴고, 큰북 높이 거니 아침저녁으로 하늘의 현상 경계하네. 제도는 들보 여섯에 8개씩의 익사翼舍이니 도성 길거리에 우뚝하구나.

기유년(1789, 정조 13)에 명루名樓가 재빠르게 완성되었고, 을묘년(1795) 봄에 자궁慈宮 모시고 가보셨네. 선침仙寢에서 옷깃을 적시는 생각 펴고서 어가 행렬⁶ 느릿느릿 돌아가고, 행궁 면장面牆에 좋아하는 햇볕 매어 두고 고기와 술로 시끌벅적 잔치 열었네. 생각건대, 이 문루門樓가 어찌 하夏나라의 즐거움⁷ 위해서였겠는가. 아, 이곳은 실로 한漢나라 풍읍豐邑과 같다네. 중앙문中陽門 두루 여니 색동옷 입고 새벽인지 묻는 듯하며, 장락당長樂堂에서 술잔 공손히 바치니 분사粉社에서 봄 맞이하는 듯하네.⁸ 자애로운 은혜 널리 시행하니 사녀士女들은 연회 베풀어주시는 덕 배불리 먹었

5 담장에서도 …… 그리움 : 舜 임금, 堯 임금의 사후에 그를 그리워한 나머지 자리에 앉으면 요 임금이 담장 곁에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는 고사가 있다.〔『後漢書』, 『李固傳』 참조〕
 6 어가 행렬 : 원문은 '羽旄'인데, 깃털로 꾸민 모자로 임금이 쓰는 것이다.
 7 하나라의 즐거움 : 夏나라 때에는 임금이 巡狩하면서 백성들을 잘 도와주어 "우리 임금 놀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될 수 있겠는가. 우리 임금 즐기 않으면 우리가 어찌 도움받겠는가.(吾王不遊, 吾何以休? 吾王不豫, 吾何以助)"라는 속담이 있었다는 고사가 전해진다. 따라서 하나라의 즐거움이란 임금의 巡幸을 가리키는 의미로 볼 수 있다.〔『孟子』, 『梁惠王下』, 同 참조〕
 8 장락당에서 …… 듯하네 : '장락당'은 혜경궁 홍씨가 현릉원을 찾았을 때 머무르던 처소이고, '분사'는 '粉楡社'로 漢나라 高祖의 고향이다.

고, 봄 교서 반포하니 부모父老들은 부역 면제⁹해 주신 어짊 칭송하는구나.

지난날 진남루鎮南樓라는 호칭은 대략 호수를 베고 있는 형세를 본뜬 것
이나, 동방의 모범이 되는 우리 임금의 효성은 패풍沛豊을 본뜬 마음¹⁰만큼
이나 간절하였네. 드디어 누대의 편액을 '신통'으로 고치도록 명하셨으니,
한 군영軍營의 용맹한 군사들¹¹ 삼엄하게 막아 지키는 표리가 되었고, 천
집의 닭과 개 완전히 길거리의 동서를 나누네. 능침陵寢의 소나무 측백나
무 바라보이니 어렵곳이 보이는 듯하고, 이름난 도회지 누대가 마주 우뚝
하여 화목하고도 즐겁구나. 한 성의 풍광이 바라보니 삼도三島¹²의 태양과
달 환히 임하네.

1천의 성벽 두 해 만에 완공하였으니 조물주가 거의 도와준 듯하고, 1백
의 담장 쌓으며 한 명의 백성도 번거롭게 하지 않으니 받들어 지킬 소중한
것이 있어서이지. 시인詩人의 공경하는 말 외니 땅은 가래나무와 뽕나무
있는 곳이요, 옛 철인哲人들이 완상한 마음을 찾으니 정자로는 방화수류
정訪花隨柳亭 이 있네. 삼가 잘 축원한 정성으로 감히 들보 올리는 것을 돕
는 노래를 진술하노라.

아이야 떡을 들보 동쪽으로 던져라
창룡문 여니 해바퀴 붉구나
문루 앞에 온천 가시던 길임을 알겠으니
동식물이 오히려 은택 속에 있구나

아이야 떡을 들보 남쪽으로 던져라

9 부역 면제 : 원문은 '給復'인데 충신이나 효자에게 부역을 면제해 주는 것을 뜻한다.
10沛豊을…… 마음 : 漢나라 高祖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부친을 위해 고향인 沛 땅의 豊邑을 그대로 옮겨
와 짓고, 이곳을 新豊이라 이름하였던 바, 신통무의 이름은 바로 이 고사에서 따온 것이다.
11 용맹한 군사들 : 원문은 豺獠인데, 비와 휴는 표범의 일종으로 수컷을 '비', 암컷을 '휴'라 한다. 용맹한
군대를 비유하는 표현이기도 한다.
12 三島 : 三山과 같은 말로, 신선이 살고 있다는 蓬萊, 方丈, 瀛洲 세 개의 바닷가 산을 가리킨다.

주렴 끝이 분명하게 남극성南極星 머금었네
만 전錢 되는 맛있는 술¹³로 크게 잔치 여니
은 성에서 자애로운 은혜 노래하며 축복하노라

아이야 떡을 들보 서쪽으로 던져라
높은 누각 들쭉날쭉 회 바른 성벽은 가지런한데
여향의 주막¹⁴ 어느 곳인가
두 그루 느릅나무 버드나무 있고 오색구름 드리운 곳이라네

아이야 떡을 들보 북쪽으로 던져라
사근평肆觀坪¹⁵에서 그리움 어찌 그리 지극한가
동네 아이들「노래老萊」¹⁶장을 따라 익히니
악기 소리 입혀 만년 억 년 드리우리라

아이야 떡을 들보 위쪽으로 던져라
옥 술잔 올려 술 부으니 붉은 슬픔 연주하네
터가 두텁고 연원 깊어 상서로움 이어지니
은 세상에 신령의 복 받들었네

아이야 떡을 들보 아래쪽으로 던져라
아득한 붉은 난간 먼 들관 감싸 안고
고개 돌려 만안교萬安橋¹⁷ 밑 시내 바라보노니

13 만…… 술 : 唐나라 王維의 「少年行」 시에서 "신통의 맛 좋은 술은 한 말에 만 전인데, 咸陽의 遊俠들 대
부분이 소년이네.(新豊美酒斗十千, 咸陽游俠多少年)"라고 읊은 데서 연원한 말이다.(『王右丞集』 참조)
14 주막 : 원문은 '王墟'이다.
15 肆觀坪 : 조선시대에 廣州와 水原의 경계가 되는 곳인 바, 현룡원을 방문할 때 이곳을 지나갔다.
16 老萊 : '노래는 춘추시대 楚나라의 효자로 유명한 노래자인데, 그는 나이 70에도 부모님을 위해 색동
옷을 입고 재물을 부렸다고 전해진다.(『小學』, 『稽古』 권 참조)
17 萬安橋 : 正祖 때 현룡원 참배를 위해 지은 다리로, 지금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위치해 있다.

도도한 날들 세찬 물과 더불어 쏟아지는구나

없드려 바라건대, 상량한 뒤로 기둥과 서까래가 빛나고 고을은 더 커지며, 바람과 구름이 능침陵寢의 나무를 길이 보호하여 그 상서로움을 돈독하게 하소서. 산과 강이 누대와 해자를 둘러싸 지키면서 이 땅을 길이 경영하게 하소서.

원임 제학原任提學 우의정 윤시동尹耆東이 지어 올렸다.

| 原文

伏以城府近蒼梧之野一聖慕皇皇; 門巷宛翠楡之村, 高樓翼翼, 天回宮輦, 地開社筵.

蓋茲華府經始之圖, 實惟聖人追遠之孝. 卜萬年儲祥之兆, 山川拱月遊之儀; 寓千乘致養之心, 城邑創歲觀之所. 歲月寢邈於緱嶺, 顧睿慕將何少伸? 營府密邇於珠邱, 而聖情靡不用極肆.

以見於牆之思, 乃有作于宮之休. 鑾蹕頻回, 地符堯帝之觀華; 庭宇有殖, 義取周王之宅岨. 美哉, 第三闕穹崇, 蔚然控一府體勢.

挹佳氣於龍翔鳳舞, 來萃八達崇岑; 創宏規於鳥革翬飛, 迴臨兩界要路. 塗履載煥, 蓋取象於雷天; 賁鼓高懸, 爰警象於昏曉. 制度則六楹八八翼, 突兀乎九衢十衝.

奧西歲告名樓賁成, 惟卯春奉慈宮臨幸. 仙寢展濡露之思; 羽旄遲徊, 宮恩繫愛日之輝, 羊酒敖讌. 念茲樓豈爲夏豫? 猗! 此地實猶漢豐. 中陽之門旁開, 萊衣問曉; 長樂之觴恭獻, 枌社迎春. 慈惠廣推, 士女飽賜醑之德; 春詔渙發, 父老頌給復之仁.

雖向日鎮南之稱, 略摸枕湖之勢; 顧我后準東之孝, 惟切比沛之心. 遂命改樓扁曰新豐, 一營貔貅, 儼成關防之表裏; 千家鷄犬, 宛分巷陌之東西. 仙園之松柏入望, 優如見也; 名都之樓臺對峙, 穆將愉分. 管領一城風煙, 照臨三

島日月.

千堞告功於兩歲, 造物者殆若相之; 百堵不煩於一民, 拱護之有所重矣. 誦詩人恭敬之語, 地是維梓與桑; 追前哲玩賞之情, 亭有訪花隨柳. 恭將善禱之悃, 敢陳助舉之詞.

兒郎偉拋樑東, 蒼龍門闢日輪紅, 樓前認是溫泉路, 動植猶看渥澤中.

兒郎偉拋樑南, 簾角分明極宿含, 美酒十千仍大醑, 滿城歌祝慈恩覃.

兒郎偉拋樑西, 高閣參差粉堞齊, 盧巷王墟何處是, 兩行榆柳五雲低.

兒郎偉拋樑北, 覲坪一路思何極? 里兒和習老萊章, 被以竹絲垂萬億.

兒郎偉拋樑上, 玉瓚升霏朱瑟唱, 基厚源深衍吉祥, 大東一城承靈貺.

兒郎偉拋樑下, 縹緲朱欄控遠野, 回看萬安橋底川, 滔滔日與沛流瀉.

伏願上樑之後, 棟桷生輝, 巷里增廓, 風雲長護於園樹, 則篤其禎. 山河環擁於樓壕, 永經茲土.

原任提學右議政尹耆東製進.

| 解題

신평루新豐樓는 화성華城 행궁行宮의 정문正門으로, 행궁의 얼굴과도 같은 곳이다. 윤시동尹耆東은 정조正祖의 명을 받아 상량문을 지으면서, 효와 관련된 다양한 전고를 통해 정조의 효심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 主題語

윤시동尹耆東, 신평루新豐樓, 화성華城, 정조正祖

강무당 상량문

講武堂上梁文



이병정李秉鼎, 『일득록日得錄』

翻譯

엿드려 생각건대, 하늘이 이곳에 만년토록 이어갈 복을 내리니 새로운 고을에 금성탕지金城湯池를 견고히 하고, 하루도 무비武備를 잊을 수 없어 광장에서 무장한 군사들 강하게 훈련하네. 꿩이 날아가는 듯한 지붕은 빛이 나고, 호랑이 같은 용맹한 군대는 사기가 진작되니 한漢나라 좌풍익左馮翊¹ 북군北軍의 위군衛郡은 팔다리보다 중요하고 송宋나라를 일으킨 서교西郊의 당당한 선비는 건재한지 각각 시험을 했다고 들었네. 이에 좌작진퇴坐作進退²하는 절도節度를 익히니 높고 크고 아름다운 볼거리 그 이상이라네.

돌아보건대 이 화성華城은 주구珠丘³이자 달마다 의관을 거풍擧風하는⁴ 고을이며 임금의 수레가 해마다 행차하는 곳이라네. 팔달산八達山에서부터 용이 승천하듯 봉새가 춤추는 듯한 봉우리들이 이곳에 늘어섰고, 땅은

1 左馮翊: 중국 한나라 때 서울을 지키어 다스리던 벼슬이다. 右扶風, 京兆尹과 함께 '三輔'라 한다.
 2 坐作進退: 군대가 훈련할 때 앉고, 서고, 전진하고, 후퇴함을 이르는 말이다.
 3 珠丘: 舜임금을 蒼梧 들관에 장사지냈는데 참새 같은 새가 푸른 모래구슬을 물어와 언덕이 되어 이를 '주구'라고 불렀다고 전해진다. 여기에서는 사도세자의 능인 현릉원을 가리킨다.
 4 달마다…… 거풍하는: 원문은 '月遊'로 매월 제왕의 의관을 꺼내 바람을 쐬는 것[擧風]이다. 漢나라 高祖의 능침에 보관된 한 고조의 의관을 매달 꺼내어 바람을 쐬 데서 유래하였다. 이후 선왕의 의관을 매달 한 번씩 擧風하는 것을 뜻하는 표현으로 쓰였다. (『漢書』 卷43, 「叔孫通傳」 참조)

오랜 세월동안 감추어져있어 신령한 까마귀와 거북이⁵ 모두 길조에 합하였네. 아름다운 기운 왕성하여 산은 더욱 높고 물은 더욱 맑으나 임금의 떠나는 걸음 더디고 더딤은 이슬로 땅이 젖고 서리가 내려서라네. 마침내 한漢나라 옛 풍읍豐邑을 비로소 화성華城에서 보게 되었네. 아, 북쪽으로 큰 산이 보이고 남쪽으로 하천이 보이게 된 것은 밤늦도록 근심하신 성님聖念의 결과이고, 어느덧 일천 집이 우물을 같이 쓰고 만집이 고을을 이룬 일은 기유년(1789, 정조 13)⁶부터 시작되었네. 배와 수레가 모이고 재화가 유통되었으니 이는 바로 호남·영남·개성·강화도 각 지방에서 모여서라네. 궁실을 먼저 짓고 창고를 다음으로 짓고, 저자거리·마을·성 모두 축조되었네. 백성을 옮기고 읍을 옮기는 비용은 모두 경비 외의 비용으로 별도로 마련하였고, 건물을 지을 적에 효도하는 마음을 미루어 짓지 않은 것이 없었네.

살펴보건대 봉양위鳳陽衛⁷가 대장기를 세운 것은 길이 선침仙寢을 호위하기 위함이고 용무군龍武軍⁸이 임금의 행차를 호위하는 것은 왕기王畿를 굳건하게 하기 위함이니네. 마침내 방어하는 옛 군영軍營을 본떠서 장용의 영壯勇外營⁹을 설치하였는데, 군대를 통솔하는 일은 서로 표리表裏가 되어야 하기에 친군親軍에서 새로 13초哨를 뽑고, 군졸들은 평소 정예 군사로 불렸으니 일찍이 5천 명의 병사로 이루어진 독립된 진영營이었네.

뛰어난 성벽과 성루는 상산常山の 뱀처럼 수미가 연결되어 있으며,¹⁰ 원야原野는 날아오를 듯하여 삭방朔方의 신수身手가 가장 튼튼하구나. 지난

5 신령한…… 거북이: 원문의 '靈龜'는 태양 속에 세 발 가진 까마귀[三足烏]가 산다는 상서로운 곳이고, '神龜'는 夏나라 禹 임금이 홍수를 다스렸을 때 洛水에서 나온 거북이로 길한 조짐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화성이 상서롭고 길한 기운이 서려있는 명당임을 가리킨다.
 6 기유년: 정조가 현릉원을 화성으로 이장한 때이다.
 7 鳳陽衛: 1381년(洪武 14)에 명나라 태조 朱元璋이 자신의 고향인 鳳陽에 있는 선친의 능침을 지키기 위해 설치한 기구이다.
 8 龍武軍: 禁軍의 명칭이다.
 9 壯勇外營: 정조 17년(1793)에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한 禁衛 조직 중 하나로, 수원 유수부의 宿衛 업무를 담당하였다.
 10 상산의…… 있으며: 상산의 뱀은 고대 중국 신화에서 머리를 공격받으면 꼬리가 구원해 주고 꼬리가 공격을 받으면 머리가 구원해 준다는 뱀이다. 이후 前軍과 後軍이 위급한 상황에서 서로 구원해 주는 진법 陣法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쓰였다. 여기에서는 화성의 성벽과 성루가 연결되어 있는 모양을 가리킨다.

번에 철옹성이 비로소 우뚝 완성되었으니 요충지가 더욱 견고해졌네. 훌륭한하도다, 백성들의 마음으로 완성하여 10리에 이르는 성을 일찍 준공하였으며, 찬란하도다, 열성列士이 감싸고 있는 듯 1천 성첩城堞의 누로樓櫓가 우뚝하게 바라보이네.

이 관방關防이 완성된 뒤 이곳에 훈련할 장소가 생겼네. 높은 곳은 넓은 단장壇場이 차지하여 활·총포 쏘기와 걷고 달리기를 할 수 있으며, 들어선 건물은 우뚝하여 군대를 거느림에 질서정연하네. 낙남洛南¹¹에서 제왕의 기운이 드러나니 봉기鳳旗를 세운 문에 매우 가깝고, 한북漢北의 장대將臺¹²가 옆으로 통하니 토끼그물 설치한 들이 바라다보이네. 평소에 사열査閱을 중시하니 나라가 태평하다고 소홀하게 할 수 있겠는가. 겨울엔 겨울사냥 가을엔 가을사냥 여름엔 여름사냥 봄엔 봄 사냥을 하여 주周나라 사마司馬가 무예를 강마한 것처럼 훈련한다네. 중군中軍은 계책을 세우고 거좌車左는 갈개를 준비하며¹³ 전군前軍은 띠풀로 경계를 보이고 후군後軍에는 정에 군사를 배치하여 초췌나라 군대가 행군할 때처럼 하네. 날래고 용감한 3천여 명의 군사를 선발하여 적을 공격하는 18가지 기예를 시험하였네.

깃발을 보고 징과 북 소리를 듣고 재삼 훈계에 호령이 엄숙해지고, 우군右軍은 채찍과 각을 들고 좌군左軍은 활집과 동개를 메니 1만군대가 질서정연하네. 훌륭한 말이 유성流星처럼 달리니 모두 범도대로 삼면에서 몰아 새를 잡는 뛰어난 말말이꾼이요, 곡후鶴巖를 구름처럼 펼쳐니 모두 오석궁五石弓을 쏘는 기사驍射에 뛰어난 무사들이네.

풍년이 들고 백성이 즐거워하니 태평시절이라네.¹⁴ 자개로 꾸민 투구와 붉은 끈은 군사들 방어 훈련 때 빛나고, 무지개 들보와 단청한 들보는 화

11 洛南：華城의 洛南軒이다.
 12 漢北의 장대：화성 최북단에 있는 西將臺를 의미한다.
 13 거좌는 갈개를 준비하며：거좌는 수레 왼쪽에 타는 사람으로, 『春秋左氏傳』宣公 12조에 “거좌는 갈개로 쓸 풀을 구해 잠자리에 대비한다(左追蓐)”라고 하였다.
 14 태평시절이라네：원문은 ‘海晏河清’으로 창해의 파도가 잠잠해지고 황하의 물이 맑아진다는 말이다. 국가가 안정되고 천하가 태평해짐을 의미한다.

려하여 아름다운 볼거리가 되네. 한가한 날엔 누대에 올라 진꼴나라 도독都督¹⁵처럼 가벼운 갖옷에 띠를 느슨히 매고 유람할 만하고, 봄 순수巡狩 맨 한漢나라 거가車駕처럼 고삐 잡고 천천히 살펴보시네.

이 건물을 짓기 위해 쌓고 관 일이 어찌 뿔나무 뿌리를 주워다가 음우陰雨에 대비하는 일에만 그치겠는가.¹⁶ 높고 큰 건물들의 아름다움을 돌아보니 산천을 아름답게 수식할 수 있구나. 이에 「상무常武」편¹⁷을 노래한 여음餘音으로 상량을 돕는 새로운 시를 짓는다.

아이야 떡을 들보 동쪽에 던져라
 화려하고 높은 성루城樓에서 환히 떠오르는 해 맞이하니
 하늘에 닿는 창해滄海엔 전쟁의 기운 없고
 매일 밤 붉은 봉화는 편안함을 알리네
 아이야 떡을 들보 서쪽에 던져라
 군가軍歌가 끝나니 저녁 구름이 낮구나
 지금은 태평시절이라 병사가 농부여서
 갑옷 벗고 돌아와 날마다 쟁기질을 하네
 아이야 떡을 들보 남쪽에 던져라
 우뚝 솟은 푸른 봉우리 서기를 머금었네
 매년 설날 선침仙寢에 퇴알하러 가는 길
 만 그루의 새 버들 길게 드리워 있네

15 진나라 도독：羊祜(221~278)를 가리킨다.
 16 뿔나무 …… 그치겠는가：『詩經』, 『鸛鳴』편에 “하늘이 아직 굿은비를 내리기 전에, 저 뿔나무 뿌리를 가져다가, 창과 문을 단단히 엮어 놓으면, 지금 너의 아래 백성들이, 감히 나를 업신여기겠는가.(迨天之未陰雨, 徹彼桑土, 綯繆隔戶, 今女下民, 或敢侮予)”라고 한 데서 연원하여 不虞의 사태에 미리 대비한다는 뜻이다.
 17 상무 편：周나라 宣王이 친히 군대를 거느리고 淮水 북쪽의 오랑캐를 정벌한 일을 노래한 『詩經』, 『大雅』의 편명이다.

아이야 떡을 들보 북쪽에 던져라
 장안^{長安}이 가까이 있으니
 백성들 모두 임금의 정성을 친히 할 줄 알고
 못 별은 어지러이 벌여 북극성 향하네¹⁸

아이야 떡을 들보 윗쪽에 던져라
 아름다운 기운이 서린 선구^{巖丘}가 멀리 눈에 들어오네
 아, 만년토록 태평시절 즐길 수 있게
 신령이 성대히 오르내리며 복을 주시네

아이야 떡을 들보 아래쪽에 던져라
 화홍문^{華虹門}¹⁹ 아래로 무수한 물줄기 쏟아지네
 장군은 어찌서 둔전^{屯田}을 설치하자 아뢰었는가²⁰
 본디 양전^{良田} 1천 이랑이면 충분하더네

삼가 바라건대, 상량한 뒤로 군대는 더욱 용맹하고 건물은 더욱 높아져,
 활 다섯 발을 쏘아 다섯 발을 맞추고 탄환 세 발을 쏘아 세 발을 맞추어, 멀
 리 한^漢나라 도정^{都亭}에서의 연습²¹처럼 열심히 하고, 머리에 푸른 두건을
 두른 군대²²가 10만과 정예 군사 6만으로 제^齊나라 임치^{臨淄}²³보다 부강하
 게 되리라. 땅이 이롭고 사람이 화합하니 하늘이 만든 견고함 억만 년 동

18 못 별은 …… 향하네 : 이 부분은 『論語』 「爲政」편의 “정치를 덕으로 하는 것은 비유하면 북극성이 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못별들이 그에게 향하는 것과 같다.(爲政以德, 譬如北辰居其所, 而衆星共之)”의 구절을 인용해 온 것이다.
 19 華虹門 : 화성 북쪽의 水門으로, 水口가 일곱 개의 虹霓로 이루어져 있다.
 20 장군은 …… 아뢰었는가 : 장군은 당시 副總管이었던 權恢로, 그가 올린 華城 七策 중 수원 유수부의 목장을 혁파하여 둔전을 설치하자는 내용을 가리킨다.(『承政院日記』 正祖 19년 8월 4일조 참조)
 21 한나라 …… 연습 : 『後漢書』 「公孫述傳」에 “公孫述이 마침내 크게 병영을 만들어 수레와 기병을 배치 하고 활쏘기를 연습하였다.(遂大作營壘, 陳車騎, 肄習戰射)”라고 하였다.
 22 푸른 …… 군대 : 원문의 ‘蒼頭’는 부대별로 신분을 구별하기 위해 두르는 푸른 두건을 의미한다.
 23 臨淄 : 전국시대 제나라의 수도로, 당시 전국의 문물이 모여드는 중심지였다.

안 안정시키고, 장수는 계책을 내고 병사는 용맹하여 날마다 백 리씩 땅을
 넓힌 공적을 아뢰게 하소서.

대호군^{大護軍} 이병정^{李秉鼎}이 지어 올렸다.

| 原文

伏以于茲萬年永天休, 鞏金湯於新邑, 不可一日忘武備, 明組練於廣場. 翬
 革生輝, 虎旅增氣, 蓋聞漢馮翊北軍之衛郡, 則重於股肱; 宋興國西郊之堂
 士, 各試於距踊. 予以習坐作進退之節, 匪直爲崇閎瑰麗之觀.

顧茲華城, 珠邱月遊之鄉. 鑿蹕歲臨之地, 山從八達, 飛龍舞鳳之萃于斯;
 地秘千年, 靈烏神龜之叶其吉. 氣佳哉鬱鬱, 山益高而水益清, 吾行也遲遲,
 露既濡而霜既降. 遂乃如豐之舊載觀于華, 猗歟! 北瞻嶽而東瞻河, 幾勤乙
 丙之念; 居然千家井而萬家邑, 奧自己庚以來. 舟車所集貨財所通, 卽是湖
 嶺松沁諸路之餽湊; 宮室爲先倉庫爲次, 以至塵市閭閻百堵之皆興. 蓋移民
 移邑之資, 皆從經費外別畫; 凡一堂一字之設, 無非孝思中是推.

爰稽鳳陽衛之建牙, 所以永護仙寢; 亦奧龍武軍之駐輦, 欲其克壯王畿. 遂
 因防禦舊營設爲壯勇外衛, 節制相須於表裏, 新揀十三哨親軍; 卒伍素稱於
 精強, 曾是五千兵獨鎮.

壁壘精彩, 常山之首尾互連; 原野飛騰, 朔方之身手最健. 迺者鐵甕之載
 屹, 隱然鎖鑰之增嚴. 偉哉! 因衆心而成, 十里之板築濶訖; 煥乎! 若列星之
 繞, 千堞之樓櫓聳瞻.

際茲關防之既完, 於焉訓練之有所. 占壇場之高敞, 射放步驟之恢乎其容;
 起軒構之崔嵬, 將領部曲之秩然以序. 洛南之御氣上襯, 密邇建鳳旗之門;
 漢北之將臺旁通, 平臨施兔置之野. 所貴簡閱之有素, 豈以昇平而或疏? 冬
 狩秋獮夏苗春蒐, 周司馬之講事; 中權左磨前茅後勁, 楚廣車之行師. 簡精勇
 三千餘兵, 試擊刺十八般藝.

目旌旗而耳金鼓, 肅號令於五申; 右鞭弭而左囊鞬, 整部伍於萬甲. 駿蹄星

鷺, 總是範三驅獲雉之良; 鵠嶽雲張, 率皆挽五石射生之手.

時則年豐民樂, 海晏河青. 貝胄朱綬, 爛乎師干之試; 虹樑彩棟, 蔚爲觀美之資. 暇日登臨, 晉都督之輕裘緩帶, 方春遊豫, 漢車駕之按轡徐行.

惟築斯壘斯之功, 奚但爲綢繆陰雨; 顧輪焉輿焉之美, 抑可以藻繪山川. 肆將頌常武之餘音, 庸成助兒偉之新什,

兒郎偉拋樑東, 麗譙賓日出曨曨, 浮天滄海無兵氣, 每夜平安燧火紅.
兒郎偉拋樑西, 鏡歌唱罷暮雲低, 卽今聖代兵農寓, 解甲歸來日把犁.
兒郎偉拋樑南, 秀碧蓮岑瑞色含, 歲歲元春朝寢路, 萬株新柳長氍毹.
兒郎偉拋樑北, 日下長安在咫尺, 百姓皆知親上誠, 衆星錯落拱宸北.
兒郎偉拋樑上, 佳氣璇丘長入望, 於萬斯年樂太平, 洋洋陟降垂靈貺.
兒郎偉拋樑下, 華虹門下衆流瀉, 將軍何必奏屯田, 自足良疇千頃野.
伏願上樑之後, 卒乘彌勵, 堂宇增高, 五中發矢, 三中放丸, 遠邁漢都亭之肆習; 十萬蒼頭, 六萬奮擊, 不翅齊臨淄之富強. 地利人和, 寔億年天作之固; 將謀士勇, 奏百里日關之功.

大護軍李秉鼎製進.

解題

강무당講武堂은 국왕이 군대 사열 등을 할 때 사용되는 건물로, 화성華城의 강무당은 행궁行宮 서북쪽에 조성되어 있었다. 이병정李秉鼎은 상량문上樑文을 지으면서 장용영壯勇營의 설치 과정과 강무당의 모습 등을 상세히 묘사하였다.

主題語

이병정李秉鼎, 강무당講武堂, 화성華城, 정조正祖, 장용영壯勇營

영화관 상량문

迎華館上樑文



이면응李冕膺, 『일득록日得錄』

翻譯

엎드려 생각건대, 화려한 성벽이 무지개와 닿아 있고 관방關防이 삼보三輔¹의 형세를 장엄하게 하네. 화성 백성들 임금의 수레를 바라보니 건물들이 임금의 수레가 있는 길로 향하고 마조馬曹²가 우리 임금의 깃발을 바라보는 듯하네.

생각건대 이 화성 유수부華城留守府에 행궁行宮을 건설한 일은 참으로 성상께서 원침園寢을 받드는 정성에서 나왔네. 음양을 살피고 용이 서린 듯한 형세를 보호하여 귀신이 아끼고 감추어 두었던 터를 점치고, 망루를 장대하게 지어 석물로 에워싸니 날로 달로 바라보고 뵈는 그리움 담았네. 효심이 진실되니 하늘이 주뫼나라 기산岐山을 만들었고,³ 오르내리는 영령이

- 1 三輔 : 漢나라 때 近畿 지역을 셋으로 분할하여 장안 동쪽을 관할하는 京兆尹, 長陵 북쪽을 관할하는 左馮翊, 渭城 서쪽을 관할하는 右扶風이라 하였다.
- 2 馬曹 : 말을 관리하는 관청으로 한산閑散한 관직이나 미관말직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역관驛館에서 역말驛馬를 관리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 3 하늘이……만들었고 : 이 부분은 『詩經』 「天作」에 “하늘이 岐山을 만드셨는데, 태왕께서 기산을 다스리셨네. 태왕께서 岐邑을 만드셨는데, 문왕께서 그곳을 편안하게 하셨네.(天作高山, 大王荒之, 彼作矣, 文王康之)”라고 한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하늘이 현릉원을 위해 花山을 준비해 두었다는 의미이다.

계신 듯하니 한漢나라 신풍新豐⁴처럼 고을을 이전하셨도다.

돈과 곡식이 풍족하고 군제軍制가 잘 정비되어 기내畿內를 보호하고 지키는 곳으로 우뚝하게 서 있고, 거리가 벌여져 있고 성과 시장으로 둘러싸여 웅장하고 화려함이 경사京師에 필적하는데, 다만 한강 이남의 웅장한 도회지는 성 북쪽에 민가가 조금 적다네. 장용외영壯勇外營⁵의 체제가 점차 갖추어져 비록 대臺와 해자가 구름에 이어져 있으나, 뒤쪽 들판은 비어 있는 곳이 여전히 많아 여염집 가득한 땅 보이지 않았네. 다만 취락을 이른 것처럼 백성들이 모여 살고 있으니 그 길 주변에 역참驛站을 두기가 실로 적합하였네. 사신이 탄 말이 유성처럼 달리는 최대 관건은 마정馬政의 대응이고, 우호郵戶가 운집하는 것은 역참의 운영으로 알 수 있으니, 마침내 주재駐在하는 신하에게 터를 살펴보라 명하여 양재良才 역참을 옮기게 되었네.⁶

바위 언덕 옆에 터를 다지니 참으로 곤괘坤卦 암말[批馬]의 곧음⁷에 부합하고, 문성文城 쪽을 향해 관사館舍를 지으니 완전히 천마天馬를 마주하는 형상이네. 성문에서 100여 걸음 떨어진 거리에 점점 마을이 저절로 형성되었고, 관사館舍 50칸을 지으니 장엄하고 훌륭한 지붕이 높이 솟았네. (이곳이) 관리가 있는 여러 역들 중에서도 으뜸이니 신읍新邑으로 옮긴 뜻은 우연이 아니요, 어가御駕 앞으로 길이 나 있으니 어떤 아름다운 편액을 내리셨을까. 시험삼아 붉은 난간 높은 곳을 보시고 취화翠華⁸가 올 때 공손히 바라보았네.

4 한나라 신풍: 漢나라 高祖는 중국을 통일한 후에 그의 부친이 고향을 그리워하자 驪邑을 고향인 沛縣의 豐邑과 똑같이 고치고 고향 백성들을 이곳으로 이주시킨 뒤 '新豐'이라고 불렀다. '신풍'이란 '새로운 풍읍'이라는 의미이다.

5 壯勇外營: 정조 17년(1793)에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한 禁衛 조직 중 하나로, 수원 유수부의 宿衛 업무를 담당하였다.

6 주재하는……되었네: 이 일을 주재하였던 신하는 당시 良才道察訪으로 있었던 李五簾으로, 驛站을 화성 북문 밖으로 옮기고 명칭을 '迎華道'로 바꾸었다. 『日省錄』 正祖 20년 8월 29일조 참조)

7 곤괘 암말의 곧음: 말이 번성하게 될 터라는 점괘로, 『周易』 「坤卦」 卦辭에 "坤은 크게 형통하고 암말[利牝]의 곧음이 이롭다. (坤元亨, 利牝馬之貞.)"라고 하였다.

8 翠華: 임금의 儀仗 중에 翠羽로 장식한 旗幟나 車蓋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정조의 행차를 뜻한다.

선침仙寢이 부모 뵙고 싶은 생각 일으키니 임금의 행차⁹ 가까워지고, 역관驛館이 임금에 대한 정성에 부합하니 화려한 의장 천천히 돌아가네. 훌륭한 말이 바람처럼 달려 지방관을 따라가 임금을 뵙고, 연로輦路가 임금과 가까우니 부모父老보다 먼저 의장儀仗을 보네. 아름다운 이름이 이미 당정塘亭에 걸렸으니¹⁰ 역관驛館에도 아름다운 편액이 걸려야 하리. 마침내 특별히 '영화관迎華館'이라는 이름을 내리시니, 땅은 요 임금이 화華 땅을 순수巡狩할 때 봉인封人이 축원하여 정성을 펼친 일¹¹과 부합하고, 들판은 위衛나라 임금이 뽕나무 밭에 수레를 세우고 수레를 관장하는 이가 직무를 성실히 한 일¹²처럼 부유하게 되었네. 건수泚水 서쪽¹³에서 기르는 말이 점점 번식하니 지리地利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고, 기북冀北¹⁴에 말 무리가 비지 않으니 용안龍顏에 기쁜 빛이 도네. 작은 저수지는 날마다 감탄하게 하고 큰 수원 고을에 안개 끼는 경치를 보태 주었네.

성읍城邑을 높고 아름답게 짓는 계획이 오로지 부친을 사모하는 성상의 마음에서 나왔고, 역관驛館을 아름답게 지은 것은 모두 성상聖上의 결단을 실행한 것이라네. 관아에 가족을 거느릴 수 있어¹⁵ 많은 백성들이 큰 은혜 입었고, 평야는 대유평大有坪¹⁶이 있어서 많은 상자를 목몽牧夢을 바치네.

9 淸蹕: 임금이 행차할 때 길을 깨끗이 쓸고 통행하는 사람을 비키게 하는 일이다. 이후 임금의 행차를 뜻하는 표현으로 쓰였다.

10 아름다운……걸렸으니: 화성을 건설하면서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만든 저수지인 萬石渠의 남단에 1975년(정조 19)에 지은 交龜亭을 1976년(정조 20) 정조가 迎華亭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日省錄』 正祖 20년 1월 20일조 참조)

11 요……일: 요 임금이 華지역을 유람할 때에 그 지역 국경을 지키던 사람이 요 임금을 위해서 '장수[壽], '부귀[富], '아들을 많이 낳음[多男子]의 내용으로 축원하였다.

12 위나라……일: 위나라가 文公이 농경에 힘써 토지에 알맞은 뽕나무 등을 심고, 봄이 되어 농사를 시작할 즈음에 단비가 내리자 수레를 준비하게 하여 새벽에 뽕나무 밭에 나갔는데 수레를 관장하는 관원이 성실할 뿐만 아니라 그가 기르는 문공 소유의 말이 삼천 필이나 되었다는 고사가 있다. 임금이 勸農에 힘쓰고 아랫사람이 자기 임무에 성실하여 넓은 들이 개간되고 말이 불어나 부유하게 됨을 표현하는 말이다.

13 건수 서쪽: 『詩經』 「秦風 序」에 周나라 孝王 때, 益의 후손인 非子가 건수와 위수 사이에서 말을 길러 말의 수가 많이 불어났다는 고사가 있다. 여기에서는 화성 목장을 가리킨다.

14 冀北: 중국에서 준마駿馬가 많이 났던 지역이다.

15 관아에……있어: 迎華道察訪은 특별히 식솔들을 거느리고 부임하도록 허락하였다. 『華城城役儀軌 附編一』 「驛館·迎華觀」 참조)

16 大有坪: 정조 때 조성되었던 屯田으로, 지금의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인근에 있었다. 표석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고 전해진다.

종종걸음으로 말을 달리니 도로의 백성들이 목 빼고 바라보고, 아득한 해를 맞이하니 높고 넓은 건물에 빛이 나네. 삼가 제齊나라 사람이 피리소리를 들은 마음¹⁷으로 숨쉴 뒤편 장인이 훌륭한 건물을 짓는 길함을 노래하노라.

아이야 떡을 들보 동쪽으로 던져라
광교산光敎山은 상서로운 안개로 빛나는구나
해마다 거둥 바라보니 정성이 그치지 않고
봉우리엔 날마다 붉은 해가 떠오르네

아이야 떡을 들보 서쪽으로 던져라
긴 숲과 큰 들에 산봉우리 들쭉날쭉 하구나
성인의 덕을 알아서 과발마 신속하고
끌고 온 말들 가지런히 버들 밖에 매여 있네

아이야 떡을 들보 남쪽으로 던져라
온 산 가득 송백이 백운 위로 솟아 있네
주민들 아직도 온천 길을 얘기하니
산하 한 번 바라보면 목은 은택 가득하네

아이야 떡을 들보 북쪽으로 던져라
단청한 건물들 우뚝이 행궁¹⁸을 에워쌌네
호위대와 의장儀仗이 사근평肆覲坪¹⁹에 이르니

17 제나라……마음 : 임금이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여 임금이 좋아하는 것을 백성들도 좋아한다는 의미이다. (『孟子』 「梁惠王」 참조)
18 행궁 : 원문의 '紫極'은 임금이 거처하는 궁궐로, 天帝는 紫色의 궁궐에 거처하기 때문에 임금의 궁궐을 '紫微宮'·'紫極' 등으로 표현한다. 여기에서는 정조가 행차한 화성행궁을 가리킨다.
19 肆覲坪 : 정조 때 廣州의 경계지역. 원래 '沙斤坪'이었으나 정조가 '肆覲坪'으로 이름을 고쳤다. 현릉원에 행행할 때에는 이곳 행궁을 이용하였다. (『樊巖先生集』 卷19, 「稱年錄下」 참조)

하늘이 지척에 계신지라 싱글벙글하네

아이야 떡을 들보 위로 던져라
성벽의 신령한 완공은 신이 도운 듯하네
한 고을의 규모가 지금 막 완성되니
낮은 관리 도움으로 북문北門이 견고하네

아이야 떡을 들보 아래로 던져라
뽕나무 밭에 봄비 내려 온 들판 푸르르네
꿈을 세 번 껴는데도 해가 더디 가건만
뜰에 있는 말들은 못에서 한가로이 목욕하네

엿드려 바라건대, 상량한 뒤로 역마율이 준비하고 말무리가 구름처럼 불어나게 하며, 빈땅 땅의 백성들이 다투어 주周나라 임금에게 귀의한 마음²⁰을 가지고 행궁의 상서로운 빛에 다가가고, 『시경詩經』 「경駟²¹」편을 읊조리며 임금 수레 뒤에 날리는 먼지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경기 감사 이면옹李冕膺이 지어 올렸다.

| 原文

伏以粉堞巨蜺, 關防壯三輔之勢; 華人望翠, 棟宇控八蠻之塗, 似是馬曹瞻我旄羽.

惟效華府創行宮之舉, 寔出聖后奉寢園之誠. 相陰陽而護龍盤, 卜神慳鬼

20 빈……마음 : 周나라 왕업을 닦은 大王이 鄆 땅에 거주할 때 狄人이 침략하자 그곳을 떠나 岐山 아래에 도움을 청하고 거주하였는데 仁人인 그를 놓치지 않으려고 수많은 백성들이 그에게 귀의하였다는 고사가 있다.
21 경 : 僖公이 원대한 뜻을 가지고 먼 들에서 말을 성대하게 기른 것을 노래한 『詩經』 「魯頌」의 편명이다.

秘之兆; 壯樓櫓而拱象設, 推日瞻月觀之思. 孝思攸孚, 周高山之天作; 陟降如在, 漢新豐之地移.

錢穀豐峙, 軍制修明, 屹保障於畿甸; 市陌分列, 城市周匝, 匹壯麗於京師, 第此漢南雄都, 差少城北人戶. 外營之規畫漸備, 縱有臺隍之連雲; 後野之空曠尙多, 未見閭閻之撲地. 顧民居若爲成聚, 伊道周實合置郵. 使車星馳, 最關馬政之接應; 郵戶雲集, 可占鳩居之經營, 遂命居留臣相基, 乃以良才道移驛.

傍立巖而築址, 允叶坤北之貞; 向文城而構軒, 宛對天馬之狀. 離城門百許武, 稍稍村落之自成; 立館宇五十間, 翼翼棟桷之高起. 官居諸驛中首, 意非偶於新移; 路出六飛前頭, 錫維何於嘉號? 試看朱欄高處, 恭瞻翠華來時.

仙寢起濡露之思, 清蹕載邇; 郵亭叶就日之悃, 彩仗徐回, 駿騎風馳, 隨岳牧而覲耿; 輦路天近, 先父老而覲儀. 佳名既扁於塘亭, 華額亦宜於郵舍, 遂特賜名曰迎華館, 地符堯皇之觀華, 和封祝而伸誠; 野闢衛后之稅桑, 偕倌人而效職. 汾西之畜漸殖, 地利莫如; 冀北之群不空, 天顏有喜. 小塘供日哦之興, 雄州添霧列之形, 蓋城邑崇飾之圖, 專出聖慕故; 郵館措置之美, 悉經睿裁. 衙挈家人, 戴鴻恩於百口; 坪臨大有, 獻牧夢於萬箱. 御蹕蹀之風鬃, 道路聳視; 遊縹緲之日馭, 軒宇生輝.

恭將齊人聞籥之誠, 要贊郢匠隆棟之吉,

兒郎偉拋樑東, 光教山光瑞靄籠, 望幸年年誠未已, 峯頭日出每擎紅.

兒郎偉拋樑西, 長林大野翠高低, 恭知聖德傳郵速, 柳外牽來霧鬣齊.

兒郎偉拋樑南, 滿山松柏白雲參, 居民尙說溫泉路, 一望山河舊澤涵.

兒郎偉拋樑北, 畫棟迢迢拱紫極, 羽衛葳蕤肆觀坪, 天臨尺五欣欣色.

兒郎偉拋樑上, 雉堞神功若有相, 一府規模今告成, 小官猶助北門壯.

兒郎偉拋樑下, 春雨桑陰綠滿野, 夢罷三清白日遲, 池塘閒浴在垆馬.

伏願上樑之後, 驛里比櫛, 馬群屯雲, 抱邠民爭歸之誠, 密邇行殿之瑞彩;

咏魯人斯臧之什, 奔走屬車之清塵.

京畿監司李冕膺製進.

| 解題

정조正祖는 화성華城을 건설하면서 영화역迎華驛을 장안문長安門 밖에 설치하였던바, 영화관迎華館은 이곳에 있던 건물이다. 이면응李冕膺은 정조의 명을 받아 상량문上樑文을 지으면서 화성 축조의 과정에서 역참驛站의 필요성, 영화관 조성의 경위 등을 묘사하였다.

| 主題語

영화관迎華館, 이면응李冕膺, 화성華城, 정조正祖



공극루 상량문

拱極樓上樑文



이정보李鼎輔(1693~1766), 『수원부읍지水原府邑誌』

翻譯

땅이 삼남¹의 요충지에 있어 수백 리 지방이라, 한 도의 웅혼한 진²에 군영을 열어 8천 명 갑졸이 지키네. 요새를 크게 설치하니 나라에서도 가장 무겁게 의지하는구나. 동쪽으로 남한산성³ 연결되어 산과 강이 수레와 덧방나무⁴와 같은 형세로 있고, 서쪽으로는 침도⁵를 끼안고 있어 호수와 바다가 뱃길로 통하네. 무기고의 무기는 서리와 번개처럼 예리하여 뻑뻑하게 벌려 있고, 옥 장막의 군사들은 표범처럼 씩씩한 사내들이 날뛰고 있네. 마침내 잘 지켜 아침에 명을 내리면 저녁에 출발하는 땅이 되었고, 훈련에는 봄에 점고⁶하고 가을에 조련하는 규율이 있게 되었네. 임진년과 병자년의 전쟁⁷ 때 수신⁸이 승전⁹을 계속해 아뢰

1 三南: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총칭하는 말이다.
 2 수레와 덧방나무: 덧방나무는 수레바퀴에 덧대는 나무로, 무거운 짐을 견디게 해 주는 보조 장치이다.
 3 沁都: 강화도의 옛 이름이다.
 4 點考: 명부에 일일이 점을 찍어가며 사람의 수효를 조사함. 여기에서는 군대에서 인원 점검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
 5 임진년과……전쟁: 임진년의 전쟁은 임진왜란을, 병자년의 전쟁은 병자호란을 가리킨다.
 6 帥臣: 兵馬節度使와 水軍節度使의 병칭이다.

었고,⁷ 갑술년 역변이 있던 사이에 장사들은 하늘이 토벌하는 정성을 본받았구나.

다만 군영과 관아가 들판 사이에 있어 험하고 멀었으니 금탕⁸의 견고함이 부족하였네. 고을은 쇠락하여 좋은 고을의 부유한 기풍이 없었고, 성벽과 망루는 스산하여 문지방을 무겁게 하고 삼엄한 모양이 아니로구나. 비록 12주州를 통괄하는 절제사⁹이지만 겨우 두서너 칸의 원문¹⁰만 있었네. 대개 그 격식은 대체로 완성되어 있었으나 본래 매우 질박하고 누추하였네. 하물며 건물이 오래되어 장차 기울고 무너지려 하니 바라보면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구나.

생각해 보니 수리하는 일을 잠시라도 늦추기가 어려워, 이에 여럿이서 모의하여 수선하고자 재목을 모으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창고를 덜어내어 경영하여 옛것을 따르되 새로이 도모하였다네. 백성들이 협조하여 조래산¹¹의 소나무¹² 실어 왔고, 앞의 기초 확장하여 트니 공수¹³의 기술 다투어 바치는구나. 옛 제도를 따르되 조금 넓혀 고룻¹⁴이 다시 새로워졌고, 층루¹⁵를 쌓아 더 높게 만드니 처마와 기둥이 높아졌다.

도끼와 먹줄의 감독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서도 이미 웅장한 건물이 공사를 마쳤음을 보았네. 단청은 빛을 더하니 나는 듯한 용마루는 변화가의 기세를 압도하고, 강과 산이 모습을 드러내니 높은 난간은 먼 포구의 빛을

7 승전을……아뢰었고: 임진왜란 때 權傑이 이끄는 조선군이 독성산성(현 경기도 오산시 지곡동 소재)에서 일본군을 무찌른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8 金湯: 金城湯池(매우 견고한 성과 해자)의 줄임말. 침해받기 어려운 장소를 가리키는 뜻으로도 쓰인다.
 9 輦門: 군영의 출입문을 가리키는 말이다.
 10 徂徠山の 소나무: '조래산'은 좋은 소나무가 난다는 중국의 산 이름으로, 지금의 산둥성 타이안 현 동남쪽에 있다. 『詩經』, 『關雎』편에서 "조래산 소나무와 / 신보산 잣나무를 / 잘라 운반하고 / 재고 재단하니(徂徠之松, 新甫之柏, 是斷是度, 是尋是尺)"라고 하였다.
 11 工僮: 중국 고대의 뛰어난 장인으로, 堯임금의 부름을 받아 장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莊子』, 『達生』편 참조.
 12 觚稜: 건물의 기와등을 가리킨다. 가장 높고 뾰족한 모서리 부분이다. '觚(고)'자는 원문에 '黍+瓜'로 되어 있는데 문맥상 '고'자의 잘못으로 판단하여 고쳐 번역하였다.
 13 層樓: 여러 층으로 높게 지은 누각을 가리킨다.

끌어당기네. 징과 피리 소리 새벽 하늘에 울려 퍼져 의연히 북문을 걸어 잠그고, 금꺠와 노랫가락 한가한 날에 가지고서 남쪽 누대의 바람과 안개에 흠뻑 취해 보네. 영문營門의 깊고 엄함 다투어 기뻐하니 안팎으로 정제되어 있으며, 이로부터 빗장을 견고하게 걸어두고 때에 맞게 열고 닫는다네. 장막 안의 편장編將과 비장裨將들¹⁴ 축하 잔치에서 함께하며 기쁘게 박수치고, 부로父老들은 구장鳩杖¹⁵을 짚고서 기뻐하며 바라보네. 이에 좋은 날을 골라 들보를 올리고 이를 계기로 사적을 기록하노라.

아이야 떡을 들보 동쪽으로 던져라

하루도 되지 않아 화려한 들보 다 올라감을 고하네

장엄하게 날아오르는 듯한 처마에 단청이 빛나고

채잘채잘 제비 지저귀는 소리 살구꽃에는 바람 부네

아이야 떡을 들보 서쪽으로 던져라

깃발과 북 세운 원문輦門¹⁶ 날마다 낮아지려 하네

관아의 버드나무 사랑대고 봄 풀 푸르니

「동제곡銅鞮曲」한 곡조에 곧드레가 되었네¹⁷

아이야 떡을 들보 남쪽으로 던져라

멀리 외로운 성 바라보니 푸른 산기운 끌어당기는 듯

14 編將과 비장裨將들 : '편장'은 偏將이라고도 하며 대장의 아래에 딸린 부하 장수이고, '비장'은 지방 장관 및 사신 등을 수행하던 관원의 하나이다.

15 鳩杖 : 玉鳩杖의 준말로, 임금이 70세 이상 되는 공신이나 원로대신에게 주던, 손잡이 부분을 비둘기 모양으로 조각한 지팡이를 뜻한다.

16 輦門 : 軍營의 출입문을 가리킨다.

17 銅鞮曲……되었네 : 李白의 시 「襄陽歌」에서 “襄陽의 아이들 일제히 박수치며 / 길거리 막고 다투어 「백동제」를 부르네 / 옆 사람에게 물기를 무슨 일로 웃는가 하니 / 山翁이 곧드레처럼 취한 것을 보고 웃는다네. (襄陽小兒齊拍手，攔街爭唱白銅鞮。傍人借問笑何事？笑殺山翁醉似泥)”라고 한바, 이 시는 晉나라 山間이라는 사람이 술을 좋아하여 날마다 곧드레가 되도록 취했다는 일을 소재로 지은 시이다.

주렴 밖 구름과 안개 온 가파른 산을 에워싸고
연꽃 향기와 달빛은 네모진 연못에 비치네

아이야 떡을 들보 북쪽으로 던져라

높은 난간 어렴풋한데 배로 빛이 나네

온 집에서는 뿌연 달 아래 태평성대 노래하네

밤마다 난간에 기대어 북극성 바라보노라

아이야 떡을 들보 위로 던져라

산과 내 움직이지 않고 편액은 아름답네

원룡元龍의 높은 자리¹⁸ 기상은 호방함을 더하니

갈 깊은 장군 학창의鶴髦衣¹⁹를 입었구나

아이야 떡을 들보 아래로 던져라

문 위에서 누대 열어젖히니 멀리 들관이 보이네

흰 태양 뜬 날 기름친 장막에서 애오라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단지 금꺠와 술로 긴 여름 보내네

엎드려 바라건대 상량한 후로, 나라의 중신重臣들²⁰ 소원해지지 않으면서 더 무겁게 보호하게 하소서. 산의 도깨비와 땅의 귀신 천추를 진압하여 편안해지며, 문의 신과 영령이 온갖 복을 불러들여 가호하게 하소서. 꽃

18 元龍의……자리 : 원룡은 삼국시대 魏나라 陳登의 자인데, 진동이 호기로워 손님이 찾아와도 자신은 높은 자리에, 손님은 낮은 자리에 앉혔다고 한다. 이를 이른바 '元龍百尺樓'라고 한다. 여기에서는 공극루가 그만큼이나 호방한 기상을 자랑하는 누대임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19 鶴髦衣 : 벼슬아치가 평소 입는 옷인 髦衣에 소매가 넓고 가로 돌아가며 검은 형질로 가를 넓게 꾸민 옷이다.

20 重臣들 : 원문은 「屏翰」인데 「詩經」 「板」편에서 “大邦은 나라의 병풍이며, 大宗은 나라의 근간이네. (大邦維屏，大宗維翰)”라고 한 데서 연원하였다.

피는 계절 달 밝은 밤 병법²¹ 연마하는 여가에 상대한 연회 자주 열고, 바다 고요하고 강 맑을 때 봉화 연기는 태평한데 때때로 옥 수레 날아오르게 하소서. 험하고 견고한 중관重關 순행하니 좋은 더 오래오래 가기를 바라나이다.

| 原文

地居三南要衝，數百里方域；營開一道雄鎮，八千額甲兵。關防之大設施，國家之最倚重。東接漢堞，山河有輔車之形；西拱泌沁都，湖海通舟楫之路。武庫軍械，霜電之利器森羅，玉帳戎儀，貔貅之健兒騰躍。肆捍衛爲朝令夕發之地，故訓練有春點秋操之規。當壬丙兵亂之時，帥臣奏月捷之績；際甲戌逆變之日，壯士效天討之誠。

第營廨處原野之間，而險阻欠金湯之固。邑里凋弊，無雄州富饒之風；壁壘蕭條，非重關嚴邃之樣。雖統十二州節制，僅有數三間轅門。蓋其制樣之苟完，本甚樸陋。矧且年記之寢久，將至傾頽。伊觀瞻莫不齋嗟。

願修舉難容暫緩，爰衆謀而繕緝，鳩材僇功；乃捐廩而經營，仍舊圖始。庶民協助，徂徠之松輸來；前基拓疏，工僱之技爭獻。

倣舊制而稍廣，觚稜再新；排層樓而彌高，檐楹斯敞。不煩斤墨之督役，已見輪奐之訖工。丹雘增輝，飛棟壓通衢之勢；江山呈態，危欄挹遠浦之光。鏡筵動於曉天，依然北門鎖鑰；琴歌携於暇日，醉殺南樓風烟。爭喜營門之深嚴，內外有截；從此扃鑰之秘固，開閣以時。幕裏褊裨，共燕賀而歡抃；村中父老，植鳩杖而忻瞻。茲涓吉而舉樑，庸假辭而記蹟。

兒郎偉拋樑東，不日華懷告訖功，翼翼飛檐輝丹碧，喃喃燕語杏花風。

兒郎偉拋樑西，旗鼓轅門日欲低，官柳依依春草綠，銅鞮一曲醉如泥。

兒郎偉拋樑南，遙望孤城挹翠嵐，簾外雲烟圍盡嶂，荷香月色映方潭。

21 병법: 원문은 鞞鞞'인데 중국 고대의 병법서인 「六鞞」와 「玉鞞」을 가리킨다.

兒郎偉拋樑北，危欄縹緲陪生色，千家烟月歌升平，夜夜凭欄望北極。
兒郎偉拋樑上，山川不動媚華勝，元龍百尺氣增豪，倚劔將軍披鶴氅。
兒郎偉拋樑下，門上排樓迥眺野，白日油幢聊無爲，只將琴酒消長夏。
伏願上樑之後，屏翰不疎，保障增重。山魅地祇，鎮千秋而要安；門神戶靈，延百休而呵護。花辰月夕，鞞鞞閑暇，頻開錦筵；海恬河清，烟燧太平，時飛玉筆。邁重關之險固，庶吉基之鎮長。

| 解題

공극루拱極樓는 수원부水原府 관아의 문루門樓이다. 이정보李鼎輔는 1739년(영조 15) 9월부터 1741년(영조 17) 8월까지 수원 부사로 재직하였는데, 1740년(영조 16)에 공극루를 중수重修한 뒤 직접 상량문을 지었다. 이 글에서 이정보는 수원 지역의 지리적 중요성을 강조하여 묘사한 뒤, 자신이 공극루를 중수하게 된 계기 및 그 과정을 다양한 고사를 활용하여 설명하였다.

| 主題語

이정보李鼎輔, 수원부水原府, 공극루拱極樓

화령전 상량문

華寧殿上樑文



이만수李晩秀(1752~1820), 『극원유고履園遺稿』 권6

| 翻譯

엿드려 생각건대, 구름 타고 아득히 멀리 가시니 님은 백성들은 24년의 은혜에 눈물 흘렸고, 태양이 드러나 엄숙히 입하시니 영궁靈宮에서 평온히 만 년 누리시리라. 정색하고 다시 뵈니 찬란하게 새로움을 담았구나.

삼가 생각건대, 정종正宗 문성무열文成武烈 성인장효聖仁莊孝 대왕께옵서는 효성이 신명에 통하시고 어젊은 천지에 두루 미치시어 총명하고 예지를 지니셨으며 만물 중에서도 걸출하시고 예악禮樂과 형정刑政은 여러 임금 중에서도 으뜸이시네. 학문은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를 관통하시고 도는 군사부君師父 일체를 겸하셨다. 삼강오륜三綱五倫으로 다스리시어 만세의 태평함을 여시되 육경六經과 사자四子²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고, 여러 성군聖君들의 대통大統을 모아 바야흐로 화봉인華封인이 천 년의 축

1 24년: 원문은 '二紀'인데 1기는 12년이다. 24년은 정조가 재위한 기간을 의미한다. 정조의 뒤를 이은 순조의 登極 頒敎文에서도 "24년 동안 빛나게 다스리셨으니, 진실로 수많은 임금 가운데에서도 우뚝하셨도다. (光御二紀, 允矣高出百王)"라고 하였다. 『純祖實錄』 순조 즉위년(1800) 7월 4일 기사 참조.
2 四子: 유가의 기본 경전인 四書『大學』, 『論語』, 『孟子』, 『中庸』를 일컫는 말이다. 四子書라고도 한다.

원을 청하였구나.³ 아, 장수長壽⁴가 몸에 미치지 못하여 태산이 무너져 버리니 사문斯文이 장차 폐기될 것이 운명이고, 빈 구름 이미 지나가니 성인이 간직한 것은 신묘하였네.⁵

아,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신 우리 임금⁶께서는 일념으로 뜻을 계승하고 일을 조술祖述하셨도다. 교산喬山의 칼과 신발⁷ 수구壽邱⁸에서 유지를 따르고, 청묘淸廟의 종횡琮璜⁹ 세실世室¹⁰에서 성대한 덕을 보았네. 궁궐에 진열해 놓은 보의黼扆¹¹는 아주 가까워 마음대로 밝게 오르내리고, 엄숙한 여막廡幕의 해와 달은 쉬이 모여드는데 어찌서 효성스러운 생각은 미치지 못하는가.

다행히 여기에서 하늘의 보배로운 두루마기를 찾아 세상에 파묻혔던 민심을 영원히 위로하네. 북극성 같은 주형珠衡¹²은 여전히 춘추春秋가 왕성하시던 때 같고, 천향天香¹³ 감도는 어좌御座는 어렴풋이 봉래궁蓬萊宮¹⁴에서 가까이 모시던 자리 같구나. 옷과 관冠은 온천에 행차하실 때를 본떠 국과 담장¹⁵에 추모의 마음 부치고, 바라보고 의지하니 원침園寢이 지척에

3 華封人이……청하였구나: 요 임금이 華지역을 유람할 때에 그 지역 국경을 지키던 사람[封人]이 요 임금을 위해서 '장수壽', '부귀富', '아들을 많이 낳음多男子'의 내용으로 축원하였다는 고사가 전해진다.
4 長壽: 원문은 '文齡'인데 '文王의 수명'이라는 의미이다. 문왕은 원래 수명이 100세였는데 아들 武王에게 3년을 나누어 주어 97세에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禮記』, 「文王世子」편 참조.
5 간직한……신묘하였네: 『孟子』, 「盡心上」에 나오는 말이다.
6 임금: 원문은 '宅宗'인데, 이는 廡幕의 宗主라는 말로, 직전 임금의 뒤를 이어 즉위한 喪主, 즉 새로 임금이 된 사람을 가리킨다. 『書經』, 「顧命」편 참조) 여기에서는 정조의 뒤를 이어 즉위한 순조를 지칭한다.
7 喬山의……신발: 교산은 黃帝 軒轅氏를 장사지낸 곳인데, 장사지낸 후에 산이 무너지고 관은 텅 비어 있고 칼과 신발만 관에 남아 있었다는 고사가 전해진다. 후대에는 왕릉을 뜻하는 말로 많이 쓰였다.
8 壽邱: 현원씨가 어릴 적에 성장한 곳이다.
9 琮璜: 국가를 상징하는 玉器인 黃琮과 玄璜을 함께 가리키는 말. 전자는 땅에 제사를 지낼 때, 후자는 북방에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한다. 『周禮』, 「大宗伯」편 참조)
10 世室: 종묘에 임금의 神主를 모시게 되면 4년 후에 別殿으로 옮기게 되는데, 궁덕이 큰 임금의 경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종묘에 모셔둔다. 그 신주 또는 神室을 '세실'이라 부른다.
11 黼扆: 임금의 자리 뒤에 치는 병풍으로, 위에는 도끼 형상과 꽃무늬를 새긴다. 여기에서 파생되어 임금 혹은 임금의 자리를 가리키는 말로도 쓰인다.
12 珠衡: '주형'은 미간의 뼈가 구슬을 꿰어 놓은 것처럼 튀어나온 것으로 옛날에 제왕의 상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13 天香: 궁중에서 사용하는 薰香으로, 御香이라고도 한다.
14 蓬萊宮: 唐나라 때 궁전의 이름. 여기에서는 궁전을 지칭하는 일반 명사로 쓰였다.
15 國과 담장: 堯임금이 세상을 떠난 뒤 舜임금이 그를 추모하는 마음이 지극한 나머지 밥을 먹을 때는 국그릇에 요임금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고, 앉아 있을 때는 담벼락에 요임금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다는 고사가 있다.

있어 혼정신성昏定晨省¹⁶의 정성을 펼쳤네. 비록 모든 일이 상전벽해桑田碧海의 나머지가지만 신하와 백성들이 찾아 볼 장소가 있고, 사시四時마다 향을 올리니 나라에서 상생象生¹⁷의 의장儀仗을 무겁게 여기노라.

저 울창한 풍포豐沛의 고을 바라보니 일찍이 해마다 우모羽旄¹⁸ 휘날리던 땅이라. 10년 동안 법도를 가만히 운용하시어 누대며 망루며 성이며 연못 이루었고, 한 방향으로 비와 이슬 더해지니 뽕나무 가래나무 심어 놓은 탕목읍湯沐邑¹⁹ 되었구나. 장락당長樂堂²⁰에서 자궁慈宮의 가마를 받드니 지금 까지도 '칭평만수稱觥萬壽²¹'의 시가 전해지며, 노래당老來堂에 화려한 편액을 거니 개연히 왕위에서 물러나려는 뜻 품으셨네.²²

옛날 돌보아 주심이 깊이 쌓여 이에 짧은 기간의 공정으로 건축하였도다. 송나라 천장각天章閣이 다시 열리니²³ 완연히 하늘이 규벽奎壁²⁴에 임한 듯하고, 漢나라 원묘原廟²⁵가 특별히 설치되니 어찌 의관을 거풍擧風²⁶하 기만 하겠는가. 용기龍旂와 호분虎賁²⁷은 어가가 이동하는 의위儀衛²⁸에 방 불하고, 평이 날아오르고 새가 놀라듯²⁹ 정전正殿의 규모를 개척하셨네. 사

16 昏定晨省 : 저녁에는 잠자리를 바드리고 아침에는 문안인사를 드리는 등 자식이 부모를 모실 때 행하는 일상적인 예절을 뜻한다. 『禮記』 「曲禮上」편에 나오는 말이다.
 17 象生 : 제사를 지낼 때 망자가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을 상징으로 삼는 것.
 18 羽旄 : 깃털로 장식한 깃발로, 임금의 행차에 쓰는 의장(지위가 높은 사람이 행차할 때 위엄을 보이기 위해 격식을 갖추어 세우는 병장기 등의 물건)이다. 임금을 가리키는 뜻으로도 쓰인다.
 19 湯沐邑 : 周나라 때 제후에게 목욕 비용에 충당하라고 내려주는 采地를 말한다. 후대에는 임금이 왕비 등의 개인 領地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쓰인다.
 20 長樂堂 : 1795년(정조 19) 園幸 때 혜경궁 홍씨가 머물 처소로 지은 건물이다.
 21 稱觥萬壽 : 『詩經』 「七月」편의 구절인 "稱彼兕觥萬壽無疆(저 뿔잔을 드니 만수무강하리라)"을 가리킨다.
 22 老來堂에……품으셨네 : 노래당은 화성 행궁의 別堂으로, 낙남현과 得中亭 사이에 있어 행사 도중 휴식을 취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던 건물이다. '노래'라는 이름은 정조가 화성을 노후의 안식처로 여겼던 마음을 담아 지은 것이라고 전해진다.
 23 宋나라……열리니 : 천장각은 중국 황실의 藏書閣인데, 송나라 眞宗 때 처음 건립하였다가 仁宗이 수리하여 다시 열고서 이곳에 진중의 문집과 글씨 등만을 소장하게 하였다.
 24 奎壁 : 28수 별자리 중 奎宿(수)와 壁宿의 별칭으로, 文運을 주관하는 별자리들이다.
 25 原廟 : '원묘'는 別廟의 의미로, 한나라 고조의 別묘를 가리킨다. 한나라 때 고조의 위패를 고향 패현에도 모신 데서 유래되었다.
 26 擧風 : 원문은 '月遊'인데 신왕의 의관을 매달 한 번씩 꺼내 바람에 쫓겨 하는 것을 가리킨다.
 27 龍旂와 虎賁 : '용기'는 용이 그려진 깃발로 임금이 거동할 때 세우는 儀仗이며, '호분'은 임금을 곁에서 지키는 관직이다.
 28 儀衛 : 의식을 장엄하게 하기 위해 參列시키는 호위병이다.
 29 平이……놀라듯 : 『詩經』 「斯干」편에서 집의 추녀의 모습을 두고 "새가 놀라 낮빛이 변하고 평이 날아가는 듯하다. (如鳥斯革, 如翬斯飛)"라고 한 구절을 변용한 표현이다.

관祠官을 세워 제사³⁰를 지내고 전각의 이름을 높여 경건히 받드는 뜻을 드러냈네. 밝게 베푸는 것은 오색의 흙이니 검소한 덕이 소박한 궁전에서 환히 빛나며, 밝은 제사 천추의 대사제大蜡祭³¹로 하니 갖추어진 예물로 은나라의 예를 바로잡았구나. 부모父老들은 얼굴 가리며 눈물 흘리니 영대靈臺³²에 찾아든 백성들이요, 용마루와 서까래 빛나니 하늘이 만드신 높은 산³³의 형세 더해진 것이라네. 금속퇴金粟堆³⁴에 들어가 보니 영혼이 편안히 여기는 바요, 옥 난간의 꽃 더위잡을 만하니 어찌 참된 노닐³⁵이 멀다 하겠는가.

진실로 두 기둥 사이의 꿈³⁶이 들어맞으니 어찌 차마 육위가六偉歌를 부를까. 다음과 같이 송축頌祝하노라.

떡을 들보 동쪽으로 던져라
 떠오르는 태양 동쪽에 있어
 아름답도다, 임금님 효성이여
 바다 동쪽에서 표준이 되시네



떡을 들보 서쪽으로 던져라
 팔달산八達山 서쪽에 있어
 주나라의 기산岐山³⁷처럼
 임금께서는 서쪽에서 형통하시리³⁸

30 제사 : 원문은 '吉禱'인데 길일을 택하여 목욕재계하고서 제사지내는 것을 의미한다. 『詩經』 「天保」편에 나오는 표현이다.
 31 大蜡祭 : 음력 12월에 농사의 신에게 지내는 제사. 다음해에 재해가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한다.
 32 靈臺 : 주나라 文王이 세운 대의 이름으로, 이를 건축할 때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어 하루도 되지 않아 완성되었다고 한다. 『詩經』 「靈臺」편 참조
 33 하늘이……산 : 『詩經』 「天作」편에서 "하늘이 岐山을 만드시니 太王께서 다스리셨네(天作高山, 大王荒之)"라고 한 구절을 변용한 것이다.
 34 金粟堆 : 金粟山(지금의 산시(陝西)성에 있는 당나라 玄宗의 무덤을 가리키는 말이다.
 35 참된 노닐 : 원문은 眞遊인데 죽음을 일컫는 말이다. 여기에서는 정조의 죽음을 지칭한다.
 36 두……꿈 : 孔子는 두 기둥 사이에 앉아 제삿밥을 받는 꿈을 꾸고 7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는 고사가 전해진다. 『禮記』 「檀弓上」편 참조 이후로 이 표현은 훌륭한 사람의 죽음을 뜻하는 말로 자주 사용되었다.
 37 岐山 : 周나라 太王이 邠 땅에서 狄의 침입을 피해 기산 아래로 옮겨 온 고사가 전한다.
 38 왕께서……형통하시리 : 원문은 '王享于西'으로, 『周易』 隨卦 上六의 爻辭에서 "잡아 묶고 따라서 묶으니 왕이 서산에서 형통하리라. (拘係之, 乃從維之, 王用亨于西山)"라고 한 데서 온 표현이다.

떡을 들보 남쪽으로 던져라
선침仙寢이 남쪽에 있으니
25년 동안을
즐겁게 남쪽 바라보신 적 없으셨도다

떡을 들보 북쪽으로 던져라
흰위萱闈³⁹께서 북쪽에 계시니
을묘년 봄
저 북두성北斗星 젓어 드누나

떡을 들보 위로 던져라
위에서 한없이 드넓으니
지금 임금께서 성스럽고 총명하사
향기가 하늘로 피어오르리

떡을 들보 아래로 던져라
아래에서 빠르게 달리니
겹눈동자와 여덟 빛깔의 광채⁴⁰로
혁혁히 아래에 입하시리

없드려 바라건대, 상량한 후에 제기祭器는 고요하고 아름다우며 마룻대와 추너는 공고하게 하소서. 화산花山⁴¹의 동쪽 유천柳川⁴²의 북쪽, 아름다

39 萱闈 : 萱堂과 같은 말로, 어머니를 높여 일컫는 표현. 여기에서는 정조의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를 가리킨다.

40 겹눈동자와……광채 : 겹눈동자는 눈동자가 둘이었다고 전해지는 項翬를 지칭하며, 여덟 빛깔 광채는 눈썹이 여덟 가지 색으로 빛났다는 요흥임금을 지칭한다. 둘 다 제왕의 얼굴을 형용하는 표현이다.

41 花山 : 顯隆園(思悼世子の 능으로, 지금의 隆陵)의 주산이다.

42 柳川 : 수원천의 지류로, 순우리말로로는 '버드내'라고 한다.

운 기운 연화烟花에 담겨 울창하고, 백 세대 뒤에도 천 년 전에도 성상의 은택 천지와 더불어 유구하게 하소서. 푸른 끈을 친 어로御路에서 능陵에 알현하러 계획하던 때,⁴³ 백발의 옛 신하는 공연히 사실을 기록한 필치를 슬퍼하리라.

【原文】

伏以雲馭寢邈，遺民泣二紀之恩，日表儼臨，靈宮安萬年之享。愀如復見，煥焉載新。

恭惟正宗文成武烈聖仁莊孝大王，孝通神明，仁浹覆載，聰明睿知，首出庶物，禮樂刑政，遍冠百王。學貫天地人三才，道兼君師父一體。以三綱五倫爲治，啓萬世之太平，非六經四子不言；集羣聖之大統，方華封請祝千歲。嗟！文齡未及中身，泰山其頽。斯文之將廢也命；虛雲已過，聖人之所存者神。

猗，我后踐位宅宗，迺一念繼志述事。喬山劔寫，遵遺志於壽邱；清廟琮璜，觀盛德於世室。殿殿之黼辰孔邇，縱陟降之於昭；嚴廬之日月易適，奈孝思之靡逮！

幸茲摸天之寶軸，永慰沒世之輿情。玉斗珠衡，尙春秋鼎盛之際；天香御座，悅蓬萊昵侍之筵。衣章則倣溫泉幸行，羹牆寓慕；瞻依則在園寢咫尺，晨昏展誠。雖萬事滄桑之餘，臣民有觀光之所；顧四時芬苾之薦，邦家重象生之儀。

睽彼鬱鬱豐沛之鄉，曾是年年羽旄之地。十載之權度默運，樓櫓城池；一方之雨露偏沾，桑梓湯沐。奉慈駕於長樂，至今傳稱觥萬壽之詩；揭華扁於老來；慨然有脫屣千乘之志。深堆昔年之眷顧。爰創不日之經營。宋章閣之重開，宛若天臨奎壁；漢原廟之特置，奚但月遊衣冠？龍旂虎賁，彷彿移蹕之儀衛；翬飛鳥革，恢拓法殿之規撫。立祠官而治吉蠲之需，隆殿號而表虔奉之義。彰施則惟土五色，昭儉德於卑宮；明禋用大蜡千秋，肇殷禮於備物。父老

43 푸른……때 : 순조가 정조의 능인 健陵을 찾아 奉審하고 제사를 지내려는 계획을 세운 일을 가리킨다.(본서에 수록된 순조의 「健陵展謁記」 참조)

掩涕，卽靈臺子來之民；薨桷生輝，增高山天作之勢。金粟之堆入望，旣神理之攸安；玉欄之花可攀，詎眞遊之云遠？

允符兩楹之夢，那忍六偉之歌。頌曰：

拋梁東，出日在東，亶亶王孝，準海之東。

拋梁西，八達在西，若周之岐，王享于西。

拋梁南，仙寢在南，二十五年，無樂面南。

拋梁北，蒼闈在北，維卯之春，浥彼斗北。

拋梁上，洋洋在上，今王聖明，馨香升上。

拋梁下，駿奔在下，重瞳八彩，有赫臨下。

伏願上樑之後，籩豆靜嘉，棟宇鞏固，花山之東，柳川之北，佳氣匝烟花而鬱蒼；百世在後，千載在前，聖澤與天壤而悠久，青繩御路，擬待謁陵之年；白髮舊臣，空悲紀實之筆。

| 解題

화령전華寧殿은 순조純祖가 부왕父王 정조正祖를 추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성華城 행궁行宮의 북쪽에 세워 정조의 어진御眞을 모신 건물이다. 순조는 당시 화성 유수華城留守로서 제학提學을 겸하고 있던 이만수李晩秀에게 명하여 상량문을 지어 바치도록 하였다. 이 글에서 이만수는 정조의 인품과 업적, 정조에 대한 순조의 효성을 소상히 묘사하고, 아울러 화령전이 지어지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다.

| 主題語

이만수李晩秀, 극원履園, 화령전華寧殿, 화성華城, 정조正祖, 영전影殿, 순조純祖

현릉원 정자각¹ 상량문

顯隆園丁字閣上樑文



이복원李福源(1719~1792), 『쌍계유고雙溪遺稿』 권10

| 翻譯

없드려 생각건대, 길한 언덕에 고쳐 자리를 잡으니 하늘로부터 보호하고 도와주시며, 영험한 누각이 완성되었음을 아뢰니, 경영한 것이 오래지 않았지만 능침에 다시 제사지내고 붉은 기둥 새롭게 하였네.

공손히 생각건대, 해와 달 같은 자태를 특별히 하시고 하늘과 인간의 학문을 꿰뚫으며, 엄숙하고 공경하는 위엄 있는 얼굴로 높은 지위에서 올바른 실천하는 위의威儀를 얻으시고, 못과 큰물처럼 깊고 밝은 헤아림으로 두텁게 쌓이고 멀리 흐르는 상을 지나셨구나. 세자의 지위²에서 각종 정무政務를 다스리시어 영왕寧王³을 받드셨으며, 만 년 성대한 운수를 열 어 왕위 이을 왕자를 낳으셨네.⁴

1 현릉원 정자각 : 현릉원은 正祖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이며, 정자각은 王陵의 봉분 앞에 한자 丁자로 양으로 만들어 능에 제사를 지내는 건물이다.
2 세자의 지위 : 원문은 '貳極'으로, 『周易』離卦에서 기원한 표현이다.
3 寧王 : 나라를 편안하게 한 임금이라는 뜻으로 先王을 가리킨다. 『書經』, 「大誥」편에서 周公이나 成王이 아버지 武王에 대해 "영왕께서 나에게 큰 보배인 거북을 물려 주셨다.(王遺我大寶龜)"라고 한 데서 연원하였다. 여기에서는 思悼世子의 아버지인 英祖를 가리킨다.
4 왕위 …… 낳으셨네 : 원문은 '篤生聖子'인데 이는 『詩經』, 「大雅·大明」편의 "武王을 낳으셨네.(篤生武王)"라는 구절을 변용한 것이다.

임금께서 승하하시니 능침陵寢은 멀며, 온 나라가 모두 슬퍼하여 마음이
엷매인 듯하구나. 아아, 우리 성스럽고 밝은 임금께서 빛나게 임하시니 전
례典禮⁵를 융성히 받들어 다 갖추셨네. 상덕象德⁶을 찬미하니 책보冊寶⁷를
올려 드날리고, 성대한 의식과 제사를 지내니 희생과 폐백 넉넉히 하여 은
덕에 보답하네.

생각건대 이 동쪽 동산의 능침陵寢⁸은 매번 대궐의 효성스러운 생각에
힘썼네. 성곽에 가까워 비록 때마다 살피기에 편리하나 산기슭 살펴보면
혹 형세에 공고함과 편안함이 모자랐네. 정성을 밝게 드러내어 밤낮없이
빛나 한결같이 하였고, 사체事體가 지극히 무거우니 세월이 오래되어도
허둥대지 않았네. 상소上疏 한 통으로 다행히 깊은 속마음 맞아 떨어져⁹ 큰
계획 이에 수원水原에 정하였네. 용이 없드리고 봉황이 날아올라 예부터
복지福地이자 명당明堂으로 일컬어졌으며, 귀신이 보호하고 호위하니 지
금껏 상서로운 빛과 보배로운 기운 지녔구나. 물고 논의하여 의견이 일치
하였으니 어찌 감어가堪輿家¹⁰들의 찬탄에만 그칠 것이며, 표지標識를 밝게
전하니 이미 조종祖宗의 의논을 거쳤네. 학가鶴駕가 잠시 머물 때 옛날에
만나지 못했던 것에 감개하시고 호구산虎丘山¹¹ 오래도록 비어 있어서 마
치 오늘을 기다렸던 것만 같구나.

바야흐로 계방癸方¹²의 언덕에 석물들을 세우고 먼저 정자각丁字閣을 날

5 典禮 : 왕실의 의식이다.
6 象德 : 군주의 덕행을 가리키는 말이다.
7 冊寶 : 玉冊과 金寶. 옥책은 임금이나 왕비에게 尊號를 올릴 적에 頌德文을 새긴 옥으로 만든 책자이
며, 금보는 세상을 떠난 임금이나 왕비의 존호를 새긴 도장이다.
8 동쪽 …… 능침 : 사도세자의 능인 永祐園(수원으로 이장한 후의 명칭은 顯隆園)을 가리키는 바, 원래
한양의 동쪽 양주 拜峰山 자락, 지금의 서울시립대학교 뒷산에 있었다.
9 上疏 …… 떨어져 : 正祖는 즉위 초부터 사도세자의 능을 이장할 뜻을 가지고 있다가 실행에 옮기지 못
하였는데, 1789년(정조 13) 朴明源의 상소가 계기가 되어 이장 논의를 본격화하여 실행에 옮기게 된
다. 『정조실록』 정조 13년 7월 11일 기사 참조)
10 堪輿家 : 풍수지리를 연구하고 집터나 묘터 잡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11 虎丘山 : 춘추시대 뤄나라의 왕 閻闔의 무덤이 있던 곳이다. 지금의 江蘇省 蘇州市 서북쪽, 여기에
서는 현릉원을 이장한 수원 花山을 가리킨다.
12 癸方 : 정북에서 동쪽으로 15도 되는 방향이다. 현릉원의 능침은 癸坐丁向의 방향으로 조성되어 있다.

개를 펼친 듯 장대하게¹³ 건설하였네. 난수灤水¹⁴가 온화함을 드러내니 밝
으신 마음 두렵고 슬퍼하심을 우리러 보며, 금속金粟¹⁵에 뿔자리 잡으니 아
름다운 건물 높고 큼¹⁶을 바라보네. 비 개어 구름에 기대 들보 늘어서 있으
니 산은 끝없는 기세 더하고, 먼 들관 굽어보며 창문 여니 마당에 맑은 빛
이 끌어 들인다.

아아, 임금님 효성 하늘 높이 솟으니, 참으로 사당¹⁷이 제 땅을 찾았구나.
백성의 고통 구제하여 은혜를 펼치시니 비록 옮기더라도 마치 돌아온 것
같으며, 내탕금內帑金 털어내어 공사를 도우니 가득하던 것 다하지 않았
네. 남기신 은택을 노래하니 공수반公輸般과 수僮¹⁸ 같은 장인들과 함께 정
성을 본받고, 새로운 그늘에서 면면히 이어지니 변籒과 두료¹⁹를 받들어 복
을 맞이하네.

삼가 송축하는 말을 진술하여 들보 올린 일에 보답하노라.

아이야 떡을 들보 동쪽으로 던져라

화악花嶽의 곁에 무봉봉舞鳳峰²⁰ 이어져 있으니

난간 바깥에는 아침마다 상서로운 태양이 찾아와

태양 빛과 산의 기운 함께 영롱하도다

13 날개를 …… 장대하게 : 원문은 '單飛'인데 『詩經』, 『小雅·斯干』편에서 "뿔이 날아가는 듯하다.(如翬斯
飛)"라고 한 데서 연원한 표현으로, 궁궐의 건물이 우뚝하고 화려함을 형용한 말이다.
14 灤水 : 중국의 滹水의 지류로, 周나라 文王이 아버지 王季를 이곳에 장사지냈다가 난수가 무덤을 침식
하여 관이 드러나자 先君께서 백성을 보고 싶어 하여 관이 드러난 것이라 하고는 3일 동안 조정에 모
셨다가 이장했다는 고사가 있다. 『呂氏春秋』, 『開春』편 참조)
15 金粟 : 唐나라 玄宗의 능이 있는 곳이다.
16 높고 큼 : 원문은 '奩輪'인데, 『禮記』, 『檀弓下』편에서 卍나라 文子의 집이 완성되어 대부 張老가 이에 대
해 "아름답구나, 웅장하네. 아름답도다, 매우 많도다.(美哉輪焉, 美哉奩焉)"라고 한 데서 연원한 표현
이다.
17 사당 : 원문은 '寢廟'인데 원래는 宗廟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여기에서는 현릉원 정자각을 가리키는 것
으로 보인다.
18 公輸般과 僮 : 원문은 '般僮'로 둘 다 중국의 전설에 등장하는 이름난 장인들이다. 공수반은 魯班이라고
고도 한다.
19 籒과 豆 : 제사 때 사용하는 제기의 이름이다.
20 舞鳳峰 : 지금의 경기도 화성시 중동에 위치한 무봉산을 가리킨다.

아이야 떡을 들보 서쪽으로 던져라
 아득하고 먼 만 리의 물줄기 땅끝까지 닿았네
 원류源流는 성대하여 끝이 없으니
 원컨대 우리 종묘宗廟에 하늘의 큰 명 근엄하리라.

아이야 떡을 들보 남쪽으로 던져라
 냇물 길고 들판 멀어 하늘에 간여하였네
 거울 같은 산기슭 여주驪珠²¹와 흡사하며
 완연宛然히 중앙에 있어 손으로도 찾을 수 있네

아이야 떡을 들보 북쪽으로 던져라
 맑은 한강과 종남산終南山²² 바라보니 어슴푸레한데
 삼보三輔²³가 있게 된 이래로 우리나라 장대하게 되리니
 만 년 새로운 조짐 상서로운 옥책玉册²⁴에 더해지네

아이야 떡을 들보 위쪽으로 던져라
 소나무 측백나무 새로 심어 날마다 성장하니
 원묘原廟²⁵의 공사 완성되니 임금 효성 밝아지고
 성대히 오르내리니 신령한 복 드리워주시리라

아이야 떡을 들보 아래쪽으로 던져라
 해마다 밝고 정성스러워 옥 술잔 바치고서

제관祭官에게 머리 조아려 길이 축복 누리기를 기원하니
 은갖 신령들 끌어안아 지켜 주시니 유궁幽宮²⁶은 평온하리라

엎드려 바라건대, 상량한 후에 단청은 길이 빛나고 기둥은 더욱 공고해 지도록 하소서. 이미 편안하고 길하게 되어 제수祭需의 향기²⁷ 사시사철 신께 감응하고, 성대한 은총 창성하여 뿌리와 가지 백세토록 번성하여, 비유컨대 능침이 높고 두터워 반드시 복록福祿이 넓고 멀리 미치는 것처럼 되게 하소서.

原文

伏以吉罔改卜，保佑自天，靈閣告成，經營不日，玄陰再奠，丹楹一新。恭惟挺日月姿，貫天人學，威顏肅穆，得居尊履正之儀；睿度淵洪，有積厚流長之象。攝庶政於貳極，祗承寧王；啓昌運於萬齡，篤生聖子。

天上之眞遊寢遠，域中之普痛猶纏。猗我聖明之光臨，備極典禮之隆奉。徽稱象德，登冊寶而掄揚；縟儀葳禮，賁牲幣而崇報。

惟茲東原之仙寢，每勞北宸之孝思。密邇城闈，雖便時節之展省；頽昂岡麓，或欠體勢之鞏安。精誠孔昭，耿夙夜而如結；事體至重，縣歲月而靡遑。一疏幸契於淵衷，大計爰定於水邑。龍盤鳳翥，自古稱福地明堂；鬼護神呵，至今有祥光寶氣。詢謀允協，奚止堪與家贊嘆？標識昭傳，已經祖宗朝擬議。鶴駕暫駐，感不偶於昔年，虎丘久虛，若有待於今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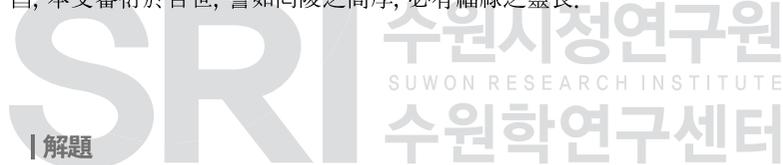
方治癸原之象設，先建丁閣之翬飛。灑水見和，仰睿懷之忱愴；金粟營宅，瞻寶構之奐輪。憑霽雲而列楹，山增縹緲之勢；俯迥野而開牖，庭延明壇之光。於乎聖孝之出天，允矣寢廟之得地。恤民隱而敷惠，雖遷如歸；捐帑儲而

21 驪珠：중국의 고대 건설 속에 등장하는, 驪龍의 턱 아래에 있는 구슬을 가리킨다. (『莊子』, 「列禦寇」편 참조)
 22 終南山：서울의 남산을 가리키는 말이다.
 23 三輔：서한 때 경기 지역을 세 지역으로 나누어 관할하도록 하였는데, 京兆尹, 左馮翊, 右扶風을 뜻한다.
 24 玉册：원문은 '籙'으로 하늘이 제왕에게 내리는 명령이 적힌 문서를 일컫는바, 임금을 책봉하는 문서라는 뜻에서 '옥책'으로 번역하였다.
 25 原廟：正廟 이외에 따로 세운 종묘를 일컫는 말이다.

26 幽宮：깊숙한 곳에 있는 궁전이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사도세자가 안장된 현릉원을 가리킨다.
 27 祭需의 향기：『詩經』, 「小雅·楚茨」편에서 "향기로운 효손의 제사, 신령이 음식을 즐기네. (苾芬孝祀, 神嗜飲食)"라고 한 데서 연원한 표현이다.

助工, 有羸無訕. 謳歌遺澤, 共般倅而效誠; 盼饗新庠, 奉籩豆而迓祉.
恭陳善頌, 以侑脩楹.

拋楹東, 花嶽傍連舞鳳峰, 檻外朝朝賓瑞日, 日光山氣共玲瓏.
拋楹西, 溟溟萬里接坤倪, 源流盛大無終極, 願我宗祊景命齊.
拋楹南, 川長野遠與天參, 圓明一麓驪珠似, 宛在中央手可探.
拋楹北, 清漢終南望隱約, 三輔由來壯本朝, 萬年新兆增祥籙.
拋楹上, 松柏新栽日長壯, 原廟功成王孝彰, 洋洋陟降垂靈貺.
拋楹下, 歲歲明誠薦玉罌, 稽首祠官祈祝長, 百靈擁衛幽宮妥.
伏願上楹之後, 丹雘長輝, 榱棟彌鞏. 既安且吉, 苾芬昭格於四時; 俾熾而昌, 本支蕃衍於百世, 譬如罔陵之高厚, 必有福祿之靈長.



| 解題

1789년(정조 13)에 현릉원 이장 논의가 본격화되어 현릉원을 양주에서 지금의 화성華城 지역으로 이장하였는데, 이때 정자각丁字閣 역시 새로 지어졌다. 이복원李福源은 여기에 상량문上樑文을 지으면서 정조의 효성과 은덕을 특별히 묘사하고, 이 자리가 명당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서술하였다.

| 主題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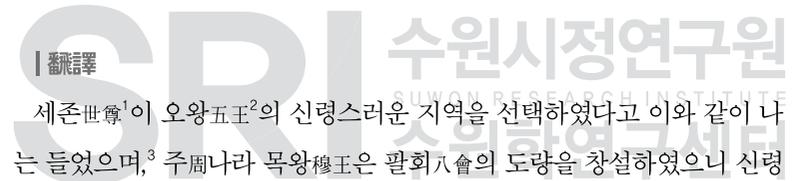
이복원李福源, 현릉원顯隆園, 용릉隆陵, 정자각丁字閣, 사도세자思悼世子, 정조正祖

화산 용주사 상량문

花山龍珠寺上樑文



채제공蔡濟恭, 『번암선생집樊巖先生集』 권58



| 翻譯

세존世尊¹이 오왕五王²의 신령스러운 지역을 선택하였다고 이와 같이 나는 들었으며,³ 주나라 목왕穆王은 팔회八會의 도량을 창설하였으니 신령의 도움이 있었던 듯하였다. 그러나 축건국竺乾國⁴의 황당한 말 막연하고 주나라의 지난 일 의심스러웠네.

어찌 주구珠丘⁵의 곁에 터를 잡아 금성탕지金城湯池의 반열임을 표시하겠는가. 복전福田⁶이 이로운 법을 미루어 성상의 장수 끝없기를 축원하였네. 길일을 택하여 정결하게 원침園寢에 제사를 지내니 성상의 효심이 다하지 않음을 찬미한 것인가.

- 1 世尊: 석가모니이다.
- 2 五王:波斯匿王 등 5명의 왕이다.
- 3 이와……들었으며: 원문은 '如是我聞'인데 불경에서 말을 시작할 때 사용되는 상투어이다.
- 4 竺乾國: 天竺, 곧 인도의 별칭이다.
- 5 珠丘: 舜임금을 蒼梧 들만에 장사지냈는데 참새 같은 새가 푸른 모래구슬을 물어와 언덕이 되어 이를 '주구'라고 불렀다고 전해진다. 여기에서는 사도세자의 능인 현릉원을 가리킨다.
- 6 福田: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잘 가꾸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불교를 믿는 자가 부처와 승려와 불쌍한 자들을 위해 공양하고 보시하며 善根을 심으면 그 보답으로 복을 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아, 여기 염부閻浮나무가 무성한 큰 땅⁷으로는 수성隋城⁸만한 곳이 없네. 속리산의 지맥이 나뉘어 500~600리를 나는 뛰어오르고, 정묘精妙한 조화를 오랫동안 숨기고 감추어 온 땅이네. 용처럼 무궁하여 지형의 신묘한 변화가 있고, 용이 구슬을 희롱하며 놀 듯⁹ 끝이 없으니 맑은 기운¹⁰이 서려 있다네. 바라보면 물은 굽어져 흐르고 용이 꿈틀대는 듯 황홀히 하늘에 올라 구름을 타는 것 같고, 나아가 보면 치밀하고 온화하며 윤택이 있어 의연히 푸른 바다로 들어가 진주조개를 캐는 듯하구나. 음陰은 빨아들이고 양陽은 내보내니 완전히 제왕이 하늘에 있는 형세이고, 산천은 빛나고 아름답다우니 열두 대의 수레를 비추는 보배¹¹보다 뛰어나구나. 지형이 이러함을 헤아리지 못하였으나 진실로 만나는 날이 있게 되었네.

우리 주상 전하께서는 효심을 모든 행동의 근원으로 삼고 학문은 삼재三才의 도리를 관통하셨구나. 담장과 국그릇¹²에서 그리워하신 마음 방불하여 날로 달로 바라보시고, 난수灑水에 성상의 근심이 맺혀¹³ 서리는 차고 이슬에 젖었도다. 거북과 용이 기성箕聖의 글을 드러내니 때맞춰 비 오고 때맞춰 날이 개는 정치가 있게 되었고, 규수奎宿와 벽수壁宿¹⁴가 주공周公의 눈에 호응하니 어찌 하늘이 아끼지 않고 땅이 아끼지 않는 기쁨이 없겠는가.

7 염부나무……땅: 불교 전설에서 須彌山 남쪽에 위치한 염부나무가 무성한 지역인 閻浮提는 인간의 수명이 100세라고 한다. 인도를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이후에는 인간 세상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8 隋城: 경기도 水原의 옛 지명이다.
 9 용이……놀듯: 현룡원의 지세를 가리키는 말이다. 처음 현룡원의 터를 잡을 때 점을 치는 사람이 “서려 있는 용이 구슬을 가지고 노는 형상이다. (盤龍弄珠)”라고 하였다고 한다. (『弘齋全書』 卷16, 『顯隆園誌』 참조)
 10 맑은 기운: 원문은 ‘淑氣’로, 봄날의 아늑하고 따뜻한 기운이다.
 11 열두……보배: 전국시대 때 梁나라 惠王이 齊나라 威王에게 “과인의 나라가 작지만 그래도 지름 한 치 구슬로 전후의 수레 각 12대를 비출 수 있는 것이 열 개나 됩니다. (若寡人國小也, 尚有徑寸之珠, 照車前後各十二乘者十枚)”라고 자랑한 고사가 전해진다. (『史記』 『田敬仲完世家』 참조)
 12 담장과 국그릇: 舜임금이 堯임금을 그리워한 나머지, 밥을 먹을 때는 국그릇에 요임금의 모습이 보이고, 앉아 있을 때는 담장에 요임금의 모습이 보였다는 고사가 전해진다.
 13 난수에……맺혀: 周나라 文王의 부친 王季를 초산 기슭에 장사지냈는데, 灑水가 묘 아래를 침식해서 왕계의 관 앞쪽이 밖으로 드러나자 관을 꺼내서 다시 3일장을 치렀다는 고사가 있다. 여기에서는 사도 세자의 묘 터가 좋지 않았기에 정조가 이장을 생각한 일을 의미한다.
 14 奎宿와 壁宿: 文運을 관장하는 별이다.

마침내 세자의 상어를 받들어 이에 석물을 옮겨 설치하게 되었네. 성상의 눈물 피가 되어 소매 적시며, 검은 안개 산을 흐릿하게 하나 무덤 속은 환하네. 하물며 온천의 익숙한 길과 산성山城의 옛 집을 회복함에 있어서 이겠는가. 백성들이 길을 막고 다투어 정반성淨飯城¹⁵의 눈물을 흘리고 신령들이 어가를 보호하여 금속강金粟岡¹⁶의 의식을 다하네. 정성이 묵묵히 얽히니 하늘에 사무쳐 서로 느끼고, 길한 경사가 곧 이르니 땅을 통하여 밝고 아름답도다.

이에 무한한 정성으로 드디어 이곳에 절을 지을 논의를 결정하였네.¹⁷ 선왕의 대리를 다하지 못했으나 오히려 삼승三乘¹⁸의 보시普施를 바라며, 팔방에 제사를 지내어 효성을 능히 펴니 온 세상 숨은 도움¹⁹ 기약하기를 바라노라. 창포 김치²⁰로 공양하니 봉상시奉常寺²¹의 진귀한 음식이 아닌 것이 없고, 맛있는 미나리로 정성을 드리니²² 향기로운 주방의 아름다운 공양 귀하게 여기네.

성상의 마음 오묘히 운용하니 우러러 마음의 경륜 알게 되었고, 여러 힘이 즐겁게 따르니 이에 눈앞에 우뚝하네. 앞을 보면 옛 탑은 죽순이 자라난 듯하고 뒤를 가리키면 아름다운 산은 꽃과 같네. 부주浮柱가 종횡으로

15 淨飯城: 싯다르타 태자가 출가한 인도의 王城이다.
 16 金粟岡의……다하네: 金粟岡은 산 이름으로, 唐나라 玄宗의 능이 있는 곳이다. 이후 제왕의 능침을 뜻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唐紀』에 “현종이 橋陵에 갔다가 金粟岡에 용이 서리고 봉이 나는 형세가 있는 것을 보고 신하에게 ‘내가 죽으면 여기에 묻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현종이 승하하자 유훈에 따라 그곳에 장례를 치렀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는 현룡원을 화성에 현룡원을 이장한 뒤에 사도세자의 제사를 지내는 것을 의미한다.
 17 이곳에……결정하였네: 정조가 현룡원을 화성으로 이장한 후 경술년(1790년, 정조 14)에 葛陽寺 자리에 陵寺로서 龍珠寺를 세웠다. (『日省錄』 正祖 14년 10월 7일조 참조)
 18 三乘: 중생을 태우고 생사의 바다를 건넌에 있어서의 세 가지의 교법이다.
 19 숨은 도움: 원문은 ‘冥佑’인데 모르는 사이에 神佛의 도움을 의미한다.
 20 창포 김치: 원문의 ‘昌蕝’은 창포 김치는 周나라 文王이 즐겼던 음식으로 공자가 그를 생각하며 먹었다고 한다. 여기에서는 정조가 사도세자를 생각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21 봉상시: 원문은 ‘太常’으로 봉상시를 달리 이르는 말이다. 봉상시는 조선시대에 국가의 제사 및 謚號를 의논하여 정하는 일을 맡아 보던 관서이다.
 22 맛있는……드리니: 변변찮은 물건이지만 정성을 바친다는 말로, 晉나라 嵇康이 『輿山巨源絕交書』에서 『列子』 『楊朱』의 고사를 인용하여 “어떤 시골 사람이 등에 쫓는 햇볕을 고맙게 생각하고 미나리 맛을 좋게 여기고는, 이것을 임금님에게 바치려고 하였는데, 비록 구구한 성의는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또한 현실을 모르는 것이다. (野人有快炙背而美芹子者, 欲獻之至尊, 雖有區區之, 亦已疎矣)”라고 하였다.

있으니 위수渭수가 천 이랑의 대나무가 솟아 있는 듯하고,²³ 나는 듯한 용마루 뒤섞여 있으니 은하수 물가에서 직녀織女の 실로 베를 짜놓은 것 같네.²⁴ 단청한 문을 여니 고서문古西門²⁵에 걸려 있는 얇은 안개는 그림 같고, 맑은 날 단청한 난간에 몸을 기대니 세남교細南橋²⁶의 향기로운 풀 하늘에 맞닿아 있네. 삼천병마골²⁷은 예로부터 이름이 있고, 높이가 1장丈 6척인 불상은 오래지 않아 완성되었네. 이에 난여鸞輿²⁸가 재궁에 유숙하시니 용안엔 슬픔이 있네. 구지산의 학 그림자²⁹는 승려가 머무는 숲³⁰과 비슷하고, 순舜 임금의 음악에 봉황이 춤추던³¹ 곳은 경쇠소리 울리는 곳과 뒤섞여있네. 전단梅檀³²의 향은 임금이 피운 향과 함께 공중으로 퍼지고, 소나무와 측백나무는 임금의 깃발과 더불어 필력이네. 공월월과 승일升日의 축복³³은 백성들의 소원이요, 천지 간에 사무치는 애통함을 생각하니 천불千佛이 모두 슬퍼하네.

오직 나라에서 이를 주심은 평소의 언덕을 갠고자 함에 연유한 것이네. 옥룡사玉龍師의 지혜로운 눈은 제천諸天³⁴을 통찰하고,³⁵ 금쇄金鎖 노인의

23 渭수가에……듯하고: 『史記』, 『貨殖列傳』에서 “渭川の1천 이랑 대나무밭이 있는데……그런 사람은 1천 戶의 제후와 같다. (渭川千畝竹……其人與千戶侯等)”라고 한 말을 가리킨다.
 24 부주가……갈네: 이 네 구절은 채제공이 그의 증조부 蔡彭胤(1669~1731)의 『海南大菴寺蹟碑銘』(『希菴先生集』 권24)의 구절을 그대로 따다 쓴 것이다.
 25 古西門: 葛峴의 꼭대기에 있었던 문이다. (『弘齋全書』 卷38, 『諭園官及地方官水原府使書』)
 26 細南橋: 수원을 가로질러 남북으로 흐르는 수원천에 놓여 있던 다리로, 수원부 읍치 남쪽 5리쯤에 있었다.
 27 삼천병마골: 지금의 화성시 봉담읍 상리에 있는 고개로, 임진왜란 때 권율 장군이 군대를 매복시켜 왜군을 물리친 적이 있다고 전해진다. 이 고갯길은 지금도 삼천병마로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28 鸞輿: 임금의 수레를 가리킨다.
 29 구지산의 학 그림자: 원문의 ‘巖峯’은 周나라의 太子 晉이 신선이 되어 학을 타고 며칠 머물다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구지산이다.
 30 승려가…… 숲: 원문의 ‘苜蓿’은 석장을 뜻하는 것으로, 승려가 터를 잡아 거처하는 것을 의미한다.
 31 순…… 춤추던: 원문의 ‘虞韶’은 舜 임금의 韶樂으로, 『書經』, 『益稷』에 “韶韶를 아홉 번 연주하자 봉황이 와서 춤을 출다. (籥韶九成, 鳳凰來儀.)”라고 하였다.
 32 梅檀: 불가에서 사용하는 향의 이름으로, 석가모니의 시신을 화장할 때 전단을 땀나무로 태웠다고 한다.
 33 공월과…… 축복: 이 부분은 『詩經』, 『天保』의 “초승달이 차오르는 것과 같고 해가 떠오르는 것과 같고 남산의 수명과 같다. (如月之恆, 如日之升, 如南山之壽.)”의 구절을 인용한 것으로, 만수무강을 의미한다.
 34 諸天: 불교에서 여러 天上의 세계를 뜻하는 말이다.
 35 옥룡사의…… 통찰하고: 玉龍師는 신라 말기의 승려 道詵國師(827~898)로, 그는 일찍이 화성의 지형을 보고 “서린 용이 구슬을 회룡하는 형국[盤龍弄珠之形]”이라고 하였다. (『弘齋全書』 卷57, 『選園事實』 참조)

간절한 충정³⁶은 오늘을 기다린 것이네. 이에 송축의 말을 베풀어 중생에게 널리 고하노라.

아이야 떡을 들보 동쪽에 던져라
 바다의 아침 해가 하늘에 가득히 붉었네
 마치 신룡神龍이 처음으로 잠에서 깨어난 듯이
 장차 구슬을 안고 맑은 하늘을 회룡하네

아이야 떡을 들보 서쪽에 던져라
 유천柳川의 동쪽과 북쪽에는 골뚝 연기가 아른거리네
 난여鸞輿가 해마다 지나가는 곳이니
 서리와 이슬이 내리는 언덕에는 모든 나뭇잎이 쓸쓸하네

아이야 떡을 들보 남쪽에 던져라
 성가퀴가 산을 휘감으니 푸른빛을 띄네
 성대聖代에 하천이 맑으니 봄이 다한 것 같고
 노승老僧은 한가로이 법당法堂을 쓰고 있구나.

아이야 떡을 들보 북쪽에 던져라
 팔달산 앞으로 옛 고을을 옮겨왔네
 의연히 예전 신평新豐의 모습인 듯하니
 닭과 개가 집집마다 옛 모습을 알아보네³⁷

36 金鎖…… 충정: 금쇄 노인은 尹善道(1587~1671)로, 孝宗이 승하하자 당시 山陵 看審官이었던 윤선도는 水原이 천하의 吉地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수원에 장지를 두지 않으면 장지를 옮기는 변고가 생기게 될 것이라 예언했으나 西人들의 반대로 실행되지 않았던 일을 가리킨다.
 37 닭과…… 알아보네: 漢나라 高祖는 중국을 통일한 후에 그의 부친이 고향을 그리워하자 驪邑을 고향인 沛縣의 豊邑과 똑같이 고치고 ‘新豐’이라고 불렀다. 고향 사람들과 기르던 닭과 개까지도 함께 옮겨와 살게 하였는데, 사람들이 닭과 개를 풀어 놓아도 자기 집을 잊지 않고 잘 찾아 들어올 만큼 똑같은 모습이었던 고사가 있다.

아이야 떡을 들보 위쪽에 던져라

훌륭한 세자의 덕³⁸에는 하늘의 기운이 왕성하구나

초목에 봄이 돌아와 경광³⁹을 입으니

눈 덮인 산은 교산⁴⁰의 봉우리와 닮는 것 같구나.

아이야 떡을 들보 아래쪽에 던져라

벼가 구름같이 큰 들에 가득한데

산 아래 백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아침마다 북쪽을 향하여 송축하는 예를 올리네

있드려 바라건대, 상량한 뒤로 한 심지 등불을 진하면 삼원⁴¹ 동안 불씨가 꺼지지 않아 재해가 없고 길이 중국⁴²에 상서로운 조짐이 드리우며, 꺾이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아니하여 선침⁴²을 영원히 지켜주게 하소서. 신령스러운 도성이 매우 가까워 무탈한 임금께서 매년 왕림하시고 운향⁴²이 멀지 않아 오르내리는 혼백을 곁에서 뵈게 하소서.

原文

世尊卜五王, 神地如是我聞; 周穆朧八會, 道場若有靈助. 然而竺乾之誕說茫昧, 姬代之往事有無.

38 훌륭한…… 덕: 원문의 '重日'은 세자를 의미하며 '前星'은 태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重日'은漢나라 明帝가 태자로 있을 때 樂人이 歌詩 4장을 지어 태자의 덕을 찬양하여 '日重光'이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前星'은『漢書』,『五行志』에서 心宿(28수 중의 하나인 심수)의 가운데별은 임금이고 앞별은 태자요, 뒷별은 庶子라고 설명한 데서 유래하였다.

39 耿光: 훌륭한 선조의 밝은 덕을 가리키는 말이다.『書經』,『立政』에 "문왕의 밝은 빛을 뵈는다.(觀文王之耿光)"라고 하였다.

40 喬山: 黃帝를 장사 지냈던 산 이름으로, 이후 王陵을 뜻하는 표현으로 널리 쓰였다.『列仙傳』,『黃帝』 참조

41 三元: 세상의 시작과 중간과 끝이다.

42 雲鄉: 白雲鄉의 준말로, 신선이 사는 하늘나라이다.『莊子』,『天地』에 "저 흰 구름을 타고 제왕에 이른다.(乘彼白雲, 至於帝鄉.)"라고 한 데서 유래하였다.

曷若相基於珠邱之傍, 標號於金地之列? 推福田利益之法, 祝聖壽於無疆. 奉園寢吉蠲之需, 贊睿孝於不置者哉.

猗茲閭浮大地, 無若隋城一區. 支分俗離, 飛騰五六百里; 精殫造化, 藏秘萬億千年. 其猶龍乎無窮, 體勢之神變; 疑弄珠是不盡, 淑氣之團凝. 望之則逶迤蜿蜒, 恍若窮玄間而御雲氣; 就之則縝密溫潤, 依然入滄海而摘蚌胎. 陰喻陽嘘, 宛九五在天之勢; 山輝川媚, 邁十二照車之珍. 不圖形像之至斯, 允矣遭逢之有日.

惟我主上殿下, 孝源百行, 學貫三才, 優宸慕於墻羹; 日瞻月覲, 結聖慮於灑水, 霜淒露濡, 龜龍闡箕聖之書. 迄有雨時若暘時若之政; 奎壁應周公之眼, 詎無天不愛地不愛之休.

遂奉龍輻, 爰移象設, 玉涕成血, 御袖汎瀾, 玄霧蒙山, 隧閣昭朗, 况復湯泉熟路, 山城舊寮, 遺氓擁途, 爭灑淨飯城之淚; 羣靈護駕, 載完金粟岡之儀. 精誠默凝, 格上天而相感; 吉慶旋至, 徹下地而昭休.

乃以靡不用極之忱, 遂決於焉建寺之議, 千乘之代理未究, 尙冀三乘之普施; 八方之追養克伸, 庶期十方之冥佑. 昌歌供嗜, 非無太常之味珍; 美芹獻誠, 所貴香廚之泡淨.

宸襟妙運, 仰認心上之經綸; 衆力歡趨, 斯有眼前之突兀. 爾其前瞻則古塔抽筍, 背指則妍岑似花. 浮柱橫縱, 涓濱竦千畝之竹; 飛甍錯綜, 銀浦織七襄之絲. 繡闥晚披, 古西門之淡靄如畫; 彩欄晴倚, 細南橋之芳草連空. 三千兵馬之坊, 從古有號; 丈六金人之像, 不日告成, 于時鸞輿宿齋, 龍顏含憾. 緜岑鶴影, 彷彿卓錫之林; 虞韶鳳鳴, 雜遝敲磬之地. 梅檀共御香浮動, 松柏與羽旗翻飆, 而恆月升日之觀, 萬民所望; 想窮天極地之痛, 千佛皆悲.

惟中宸肇錫以名, 由平日欲報之德, 玉龍師之慧眼, 洞徹諸天, 金鎖老之危衷, 留待今日, 茲陳善頌播告衆生.

兒郎偉拋樑東, 海門朝日滿天紅, 恰似神龍初罷睡, 抱將珠顆弄晴空.

兒郎偉拋樑西, 柳川東北店煙迷, 鑾輿歲歲經過地, 霜露郊原萬葉淒.

兒郎偉拋樑南, 雉堞縈山滴翠嵐, 聖代河清春似畫, 老僧閒掃雨花龕.

兒郎偉拋樑北, 八達山前移井陌, 依然昔日新豐村, 雞犬家家各自識.
兒郎偉拋樑上, 重日前星乾象旺, 草木昭回被耿光, 雪山爭似喬山嶂.
兒郎偉拋樑下, 穰稔如雲滿大野, 白頭扶杖山前翁, 華祝朝朝向北賀.
伏願上樑之後, 一炷傳燈, 三元調燭, 無菑無害, 長獻宗國之禎祥; 不騫不崩, 永爲仙寢之衛護, 神京孔邇, 無疾病君王每臨; 雲鄉不遐, 在左右陟降如見.

| 解題

용주사龍珠寺는 용건릉隆健陵의 주산主山인 화산花山에 조성된 사찰이다. 채제공蔡濟恭은 이 사찰의 상량문上樑文을 지으면서 불교 자체에 대한 언급보다는 용건릉을 이장한 정조의 효심을 강조하면서 그 의의를 서술하였다.

| 主題語

채제공蔡濟恭, 번암樊巖, 용주사龍珠寺, 화산花山, 현릉원顯隆園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기문(記文)과 상량문(上樑文)

남양현학의 명륜당에 대한 기문

南陽縣學明倫堂記



송시열宋時烈(1607~1689), 『송자대전宋子大全』 권113

翻譯

지금 임금 6년에 남양현학南陽縣學에서 새로 명륜당明倫堂을 지었고, 이듬해 지현사知縣事 민후 공서閔侯公瑞가 편지를 보내어 와 기문을 청탁하였다. 그리고 고을에 우거寓居하는 아산牙山 윤필은尹弼殷, 진사進士 김기업金起業이 그 일을 조목조목 고하기를,

“이 고을의 학문은 오랫동안 폐기되어 다스려지지 못하였는데, 이제 민후께서 오신 이래로 즉시 그 보簾, 궤簾, 변籬, 두포⁷를 수리하였고 그 제사지내는 일을 엄격히 하였고, 또한 이 당堂을 세워 생도들이 학업을 익히는 곳으로 삼으

1 南陽縣學 : 남양향교를 가리킨다.
 2 閔侯 公瑞 : 閔著重(1625~1677)으로 공서는 그의 자이다. 본관은 여흥, 호는 認齋이며 宋時烈의 문인이고, 閔鼎重과 閔維重의 형이다. 1664년(현종 5) 문과에 급제하여 형조참판 등을 지냈다. 특히 그는 1665년(현종 6) 6월부터 1667년(현종 8) 12월까지 남양 부사로 근무한 바 있다.
 3 寓居 : 남의 집이나 타향에 임시로 지내는 것을 가리킨다.
 4 윤필은 : 尹弼殷(1615~?). 본관은 坡平, 자는 湯卿이며 1656년(효종 7)에 문과에 급제하여 아산 현감을 지냈으나 청탁을 들어 주고 사사로이 재물을 모운다는 죄목으로 탄핵당하였다. 원 거주지는 익산이다.
 5 김기업 : 金起業(1602~?). 본관은 光山, 자는 振夫이며 1652년(효종 3) 증광시에 급제하였다. 원 거주지는 서울이다.
 6 籬 …… 豆 : 이 네 가지는 모두 제기이다. 보는 쌀을 담는 그릇, 궤는 기장을 담는 그릇, 변은 대나무로 만들어 과일이나 고기를 담는 그릇, 두는 나무로 만들어 과일이나 고기를 담는 그릇이다.

셨습니다. 이 모두가 한 고을의 사람들로 하여금 눈을 닦고 다시 보게 하였으니 이는 기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였다.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민후가 이러함을 알고 있다. 민후는 두 동생⁷과 함께 모두가 문학文學으로 과거에 급제하여 내직內職⁸을 두루 거쳤다. 두 동생이 지방에 부임⁹하여 정치를 펴는 데 이르러서는 온전히 근원을 교화하는 데 힘써 풍속이 크게 변하였으니 대개 그 가법家法¹⁰이 그렇게 한 것이다. 무릇 삼현陝縣을 다스린 두 분이 비록 현명하지만 세상에서 동생 되기 어렵다¹¹고 한 것이 오래이다. 이번에 현학을 수리한 것은 특별히 민후의 나머지 일이니 참으로 칭송할 만하지는 않다. 하지만 유독 민후의 편지에 대해서는 깊이 공경하여 탄복함이 있었으니, 그 편지에서 말하기를,

무릇 이번에 수리하고 세우는 공사를 한 것은 모두 유사有司¹²의 일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도에 나아가고 덕에 들게 하는 방법 같으면 아마 그런 방법이 있겠지만 이번 일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원컨대 한 마디 말씀을 여쭙어 고을의 수재들로 하여금 따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7 두 동생 : 민시중의 동생인 閔鼎重(1628~1692, 좌의정)과 閔維重(1630~1687, 공조판서)을 가리킨다.
 8 內職 : 원문은 ‘臺省’인데 司憲府와 司諫院을 아울러 일컫는 말이다. 여기에서는 중앙정부에서 내직을 맡았음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보았다.
 9 지방에 부임 : 원문은 ‘分陝’으로, 周나라 초에 周公 묘과 召公 奭이 삼현을 동서로 나누어 다스렸던 데서 연원하여 지방관으로 부임하는 일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쓰인다. 분계로 삼아, 주공은 삼현의 동쪽 지방을 다스리고 소공은 삼현의 서쪽 지방을 다스렸던 데서 온 말인데, 전하여 후세에는 지방관으로 부임하는 데에 비유한다.『春秋公羊傳』 隱公 5년조 참조
 10 家法 :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한 집안의 법도나 학문, 家風 따위를 일컫는 말이다.
 11 동생 …… 어렵다 : 漢나라 때 陳紀 陳謙 형제가 덕행으로 유명하였는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우열을 자랑하다 할아버지(진기와 진심의 아버지인 陳寔)에게 물으니 진식은 “원방(진기의 자)은 형 되기 어렵고 계방(지심의 자)은 아우 되기 어렵다.(元方難爲兄, 季方難爲弟)”라 하여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다고 답하였다.『世說新語』 「德行」 卷二 참조
 12 有司 : 단체의 사무를 맡아 보는 담당자이다.

라고 하였다. 아아, 지금 교육에 대한 행정을 하는 사람들 중에 건물을 완비하고 폐백幣帛을 닦는 자도 많지 않거늘, 하물며 이보다 더 나아가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지금 민후의 말은 혼자서만 이에 미칠 수 있었으니 탁월하여 누추한 선비나 말단의 학자들이 감히 미칠 바가 아니다. 내가 무슨 지식이 있다고 감히 그 명을 받을 수 있겠는가.

비록 그러하나 나는 일찍이 주 부자朱夫子¹³께서 우계현학尤溪縣學에 지은 기문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늘이 이 백성을 낳으심에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성품을 내려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군신君臣과 부자父子, 형제兄弟와 부부夫婦, 붕우朋友의 윤리를 지니도록 하였으니 이른바 인륜人倫¹⁴이라는 것이다. 오직 그 타고나는 기질氣質은 순수한 때에 한결같지 못하므로, 이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 정構이 우세하게 되어 혹 그에 빠지면서도 스스로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왕聖王들은 학교를 세워 가르치되 그 가르침은 반드시 청소와 응대, 나아가고 물러나는 사이¹⁵와 예禮, 악樂, 사射, 어御, 서書, 수數의 사이에서 시작하여 아침 저녁으로 공손히 공경하게 하며 그 효제충신孝悌忠信¹⁶을 닦아 어김이 없도록 하였다. 그런 후에 이어서 격물치지格物致知¹⁷를 가르쳐, 자신에게서 가정에 미치고 천하까지 도달하는 바를 알게 하였다. 그 넓고 바르게 보좌하는 것은 모두가 그 본성을 잃지 않게 하고 그 인륜을 혼란하게 만들지 않은 다음에야 그

13 朱夫子：朱熹를 가리킨다.

14 人倫：원문은 '民彝로 백성의 떳떳한 도리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는五常을 대표로 하는 인륜을 가리킨다.

15 물…… 사이：이 부분은 주희의『大學章句序』에서 "사람이 태어나 8세가 되면 王公 이하로부터 庶人の 자제에 이르기까지 모두小學에 입학시키고 그들에게 집안을 청소하고 어른의 명에 응대하며 나아가고 물러나는 예절과, 예·악·사·어·서·수의 학문을 가르쳤다.(人生八歲，則自王公以下，至於庶人之子弟，皆入小學，而教之以灑掃應對進退之節，禮樂射御書數之文)"라고 한 내용을 인용해 온 것이다.

16 孝悌忠信：'효제는『論語』,『學而』편에서 有子가 "仁을 실천하는 근본(爲仁之本)"이라고 한 덕목이며, '충신'은『周易』,『乾卦·文言傳』에서 "덕을 진전시키는 방법(所以進德)"이라고 한 덕목이다.

17 格物致知：『大學』에서 이야기하는, 사물의 원리를 연구하여 지식을 획득하는 것을 뜻한다.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근본이 되는 수양 방법이다.

치게 하였다. 이는 二帝三王¹⁸의 성대함으로 풍속을 교화하고 미덕을 실천한 것이니, 후세에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¹⁹

라고 하였다. 아, 주부자夫子의 이 말은 비록 공자孔子와 맹자孟子가 다시 일어나도 아마 고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그러므로 삼가 이를 써서 돌려 보낸다. 고을의 제생들이 만약 아침저녁으로 명심하고 나를 속이지 않는다면 민후의 뜻과 이 명륜당의 명칭에 대해서 거의 가깝게 되리라.

나는 또 느끼는 바가 있다. 주부자께서 여부廬阜²⁰를 다스릴 적에 이미 학교의 행정을 닦으셨고, 또 오로봉五老峯 아래에 이른바 와룡담臥龍潭이라는 것이 있는 것을 보고서, 마침내 제갈무후諸葛武侯의 사당²¹을 짓고 기문을 지어 그 격세지감隔世之感의 뜻을 붙였다. 대개 당시 임금과 아버지를 위해 복수하고 적을 토벌한다는 뜻은 실로 천리天理와 민이民彝로는 스스로 그만둘 수 없는 것이었으니 와룡에서의 일이 비록 작기는 하지만 또한 인륜의 일단을 밝히는 일이 아니겠는가.

지금 남양의 호칭이 우연히 무후武侯가 살던 땅과 똑같으니 이는 집을 짓고 소장塑像을 세우지 않더라도 무릇 바라보는 자들로 하여금 흥기하는 바가 있게 하는 것이 마치 주자가 하신 것과 같구나. 원컨대 민후가 입학入學과 강론講論의 여가에 시험 삼아 고을의 현명한 사람들과 의논한다면 오늘날의 세도世道에 참으로 도움되는 바가 없을 것이니, 아아, 이 어찌 세속의 사람들과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

민후의 이름은 시중耆重이고 여흥驥興 사람이다. 어렸을 때부터 독서하

18 二帝三王：이제는 堯舜 임금을, 삼왕은 夏나라 禹王, 殷나라 湯王, 周나라 武王을 일컫는다.

19 하늘이…… 아니다：이 부분은 朱熹의,『南劍州尤溪縣學記』(『晦菴集』 권77)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20 廬阜：廬山을 가리킨다. 朱熹는 50세 때인 1179년 南康軍 知事로 있으면서 여산 오로봉 골짜기 과거 廬山國學이 있던 옛터에 白鹿洞書院을 세운 일이 있다.

21 諸葛武侯의 사당：제갈무후는 後漢 때 蜀의 승상이었던 諸葛亮을 가리키며, '武侯'는 그의 시호이다. 주희는 51세 때이던 1180년에 사재를 털어 와룡담에 있던 臥龍庵이라는 암자를 재건한 뒤 '와룡'이라는 이름이 제갈량의 호와 같다 하여 제갈량의 사당을 세우고,『臥龍庵記』(『晦菴集』 권79)를 지어 그 사실을 기록하였다.

고 수행하여 오랫동안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가 정사政事를 행함에 먼저 하고 나중에 할 것을 이처럼 잘 알았다고 한다.

| 原文

今上六年，南陽縣學新造明倫堂，明年知縣事閔侯公瑞走書來以請記。而縣之寓公尹牙山弼殷，金進士起業，又疏其事以告曰：“斯邑之學，久廢不治，自今侯之來，即修其簠簋籩豆，而嚴其祀事。又建斯堂，以爲生徒肄業之所，皆使一邑之人，拭目改觀，斯不可以不書者也。”

余曰：余固知閔侯之如是也。侯與二弟皆以文學科第，歷颺臺省，及其二弟分陝布政，則專務原化，謠俗丕變，蓋其家法然也。夫二陝雖賢，世稱難爲弟久矣。今此修舉學政，特侯之餘事，則固不足以稱揚，而獨於侯之書，深有敬服焉。其書有曰：“凡茲造作興繕，皆有司之事而已。若其使人造道入德之方，則恐有所在，而非此之所可與者。故願謁一言，而俾鄉秀有所持循也。”噫，今之爲學政者，完其屋宇，修其牲幣者，斯亦無多焉，況望其進於此者乎！今侯之言，乃獨能及此，卓然非陋儒末學所敢及者，顧余有何知識，而敢承其所命哉！

雖然余嘗見朱夫子尤溪縣學之記矣。其言曰：“天生斯民，與之以仁義禮智之性，而使之有君臣父子兄弟夫婦朋友之倫，所謂民彝者也。惟其氣質之稟，不能一於純秀之會，是以欲動情勝，或以陷溺而不自知焉。爲是之故，聖王立學以教，而其爲教必始於灑掃應對進退之間，禮樂射御書數之際，使之敬恭朝夕，修其孝悌忠信而無違也。然後從而教之以格物致知，使知所以自身及家而達之天下，其匡直輔翼，皆使有以不失其性，不亂其倫而後已焉。此二帝三王之盛，所以化行俗美，而非後世之所能及也。嗚呼，夫子此說，雖孔孟復起，豈能有以易之哉！余故謹書此以復焉，以爲縣之諸生，苟能夙夜服膺，不以爲欺我，則其於閔侯之意，斯堂之名，殆庶幾焉爾。”

抑余復有所感焉，朱夫子爲吏廬阜也，既修學政矣，又見五老峯下有所謂臥龍潭者，遂作諸葛武侯之祠而爲之記，以寓其隔世相感之意。蓋當日爲君父復讎討賊之義，實天理民彝之不能自己者，則臥龍之舉雖小，而不亦明倫之一端乎！

今此南陽之號，偶同於武侯所居之地，是不當建屋置像，使凡瞻眺者有所興起，如夫子之所爲耶！願侯入學講論之暇，試與邑中之賢議之也，於今日世道，正不爲無益也，嗚呼歎矣，是豈易與俗人言哉！

閔侯名著重，驪興人，自少讀書修行，久益不怠，故其爲政，知所先後如此云爾。

| 解題

민시중閔耆重은 1665년(현종 6)에 남양향교에 명륜당을 새로 짓고, 이듬해 자신의 스승인 송시열宋時烈에게 기문을 요청하였다. 송시열은 이 기문에서 민시중이 명륜당을 세운 일을 과거 주희朱熹가 학교 행정을 잘하였던 것에 빗대어 그 의미를 부각시켰다.

| 主題語

송시열宋時烈, 우암尤庵, 남양南陽, 남양향교南陽鄉校, 명륜당明倫堂, 민시중閔耆重, 주희朱熹

남양부 청서루에 대한 기문

南陽府淸暑樓記



홍섬洪暹(1504~1585), 『인재선생문집忍齋先生文集』 권4

| 翻譯

부치府治에는 옛날에 누대가 없고 건물들은 넓고 좁았으니 손님들이 찾아왔을 때 날씨가 무덥기라도 한다면 시루에 앉아 불을 만나는¹ 탄식이 없을 수가 없었다. 가정嘉靖² 임인년(1542, 중종 37) 전의全義 이후李侯 우보瑀甫³가 이 지역의 수령으로 와 근본을 다스리고 백성을 사랑하며 원통함과 병폐를 확실하게 제거하니, 정사政事를 행한지 몇 년 만에 폐단은 개혁되고 일은 잘 다스려졌다. 이후는 이미 그 민심이 기쁘고 즐거워함을 알아 마당과 섬돌을 넓히고 주변에 담장을 둘러서며 잡목을 베어내고 예쁜 꽃들을 심고서 중간에 작은 누대를 세웠다. 화나무를 베어 기둥을 만들고 대략 단청을 칠하였는데, 사치스럽지도 누추하지도 않아 더위를 씻어내고 괴로움을 제거하는 장소로 삼았다.

계묘년(1543) 가을에 나는 경기도 관찰사觀察使가 되어 갑진년(1544) 여

1 시루에 …… 만나는 : 唐 韓愈의 시『鄭群贈簞』에서 “5월부터의 괴로운 더위와 습기 / 마치 깊은 시루에 앉아 썩지는 것과 같다네.(自從五月困暑濕, 如坐深甌遭蒸炊)”이라 하였다.
 2 가정嘉靖 : 명나라 세종世宗의 연호로 1522~1566년에 해당한다.
 3 이후李侯 우보瑀甫 : 어떤 인물이었는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름에 이 고을에 들렀는데 누대가 마침 완성되어서 이후가 나에게 올라 둘러볼 것을 권하고 고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낙성식落成式을 하였다. 이에 나에게 이름을 지어 달라 하기에 사양했지만 그럴 수 없어서 ‘청서淸暑’로 이름을 지었더니, 손님 중에 이렇게 물어 보는 이가 있었다.

“옛날 누정에 이름을 짓는 일은 단지 그 아름다움만을 칭송할 뿐이 아니고 반드시 그 이름을 따라 그 의미를 부연하여 권면하고 경계하는 뜻을 붙였습니 다. 그대가 지은 이름은 의미를 취함이 어찌 그리 넓지 못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추위와 더위는 살아가는 데 병통이 되지 않음이 없으나 오직 더위가 가장 가혹하니,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들은 심한 더위를 가혹한 관 리에 비유하였고 맑은 그늘을 임금님의 은혜에 빗대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더 위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였습니까. 혹은 햇빛이 허공을 뜨겁게 하고 혹은 찌는 듯한 더위가 몸을 태우며, 비록 갈관葛冠⁵과 나삼羅衫⁶, 가벼운 부 채와 맑은 얼음이 있다고 해도 오히려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일어나 이 누대 에 오르면 맑은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오고 정신과 났은 모두 깨어나 몸은 가볍 고 편안하며 감흥이 성대할 것입니다. 이전에 백성들을 병들게 하는 것이 찌 는 듯한 더위를 피할 도리가 없었던 탓이었다면, 지금 백성들의 병을 낫게 하 는 것은 어찌 유독 이후의 맑은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 누대 에 이름을 지은 것이 어찌 누대에만 그칠 뿐이었습니까.”

하였다.

4 淸暑 : 더위를 씻어 낸다는 의미이다.
 5 葛冠 : 갈포(취 섬유로 짠 베)로 만든 관이다.
 6 羅衫 : 얇고 가벼운 비단으로 지은 적삼이다.

이미 이로써 이 누대에 이름을 지었으나, 바빠 편액을 달 여가가 없었다. 이로부터 13년 뒤에 다시 들러 보니 누대는 여전히 그 편액이 없었다. 아, 이후는 지금 이미 세상을 떠났고, 지금 태수太守가 다스리며 이후를 뒤따르는 것을 보니 백성의 고통을 도려내는 데 힘쓰며 마치 이후가 다시 살아 온 것 같았다. 아아, 지금 이후로 이 고을을 다스리러 와서 이 누대에 오르는 자는 명칭을 살펴 의미를 생각하고 그 실질을 칭송하기를 기약하지 않음이 없으리니, 태수는 누대를 저버리지 않고 누대는 명칭을 저버리지 않으며 누대에 이름을 붙인 자 역시 장차 우리 고을 사람들을 저버리지 않는 데 가까울 것이다. 이에 편액을 걸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시를 지었다.

식은땀 줄줄 흐르고 햇빛에 그을릴까 두려운데	白汗翻漿畏日烘
누가 청서루를 허공에 솟아오르게 하였나	誰將清暑跨虛空
오나라 소달을 보고 숨을 헐떡이지만 ⁷ 병은 아니요	吳牛喘月寧非病
초나라 부채 시원함을 불러오지만 공교롭지는 않네	楚箑邀涼未是工
얼음 병이 시원한 기운 더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데	不覺冰壺添爽氣
돌 계단에만 유독 맑은 바람 분다고 좋아하지 말라	休憐石步獨清風
남쪽 조정 옛날에는 금방金榜 ⁸ 에 있다고 불렀으니	南朝舊號留金榜
이름난 누대가 해동에는 적다 말하지 말라.	莫道名樓小海東
들판의 국화는 들쭉날쭉하고 외로운 기러기 우니	野菊離披叫斷鴻
계응季鷹 ⁹ 의 고향 생각 참으로 바쁘구나	季鷹鄉思正惓惓
작은 누각에 사람 불러 자리를 처음 펴는데	喚人小閣筵初鋪

7 오나라 …… 헐떡이지만 : 오나라 지역에 사는 물소는 더위를 두려워하여 달을 보고도 그것이 태양인 줄 알고서 숨을 헐떡인다고 한다. 이후에 혹서기를 감당하지 못함을 형용하는 말로 널리 쓰였다.〔太平御覽〕권4 참조)

8金榜 : 과거 합격자 명단을 가리킨다.

9季鷹 :晉나라 때 사람인張翰의 자로, 그는 낙양에서 벼슬하다가 가을바람이 이는 것을 보고 고향인 강동吳中의 순갯국[蓴羹]과松江의 농어회[鱸膾]가 생각나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晉書〕卷92, 「張翰傳」참조).

먼 산에 안개 걷히자 시야는 끝이 없네	捲霧遙山眼不窮
마당 나무에 맑은 서리 끼고 가을 열매 고운데	庭樹清霜秋實艷
바다 어귀에 비 그쳐 가고 저녁놀 붉구나	海門殘雨夕霞紅
오래 머물며 곁하여 소나무 가래나무 ¹⁰ 좋아하였거늘	淹留兼爲松楸戀
말 돌려 무슨 마음으로 다시 동쪽으로 향하는가	跋馬何心更向東

| 原文

府治舊無樓臺，屋宇湫隘，賓客之來，若值炎暑，無不有坐甌遭炊之嘆，嘉靖壬寅，全義李侯瑀甫，來守是邦，治本愛民，疏祛冤瘼，爲政數歲，弊革事理，李侯既知其民心悅樂，趨擴庭除，繚以周垣，薙雜樹，植以嘉木，中起小樓，斬槐爲楹，略加丹雘，不侈不陋，以爲使命滌暑蠲煩之所。

癸卯秋，余按畿甸，甲辰夏，巡過是邑，而樓適告成，李侯勸我登眺，召集鄉黨，以落其成。仍索名於余，辭不獲，則請以清暑名之。

客有難之者曰：“古之名樓亭者，不獨稱其美而已，必因其名而推演其義，以寓勸戒之意。子之命名，何取義之不廣耶？”

余曰：“不然，寒暑無不爲有生之病，而唯暑最酷，故古人以炎熱譬酷吏，清陰擬君恩。子獨不見夫病暑者乎？或畏景爍空，或炎蒸薰體，雖有葛冠·羅衫·輕箑·清水，猶無所逃焉。起而登是樓，則清吹四至，神魂俱醒，體輕安而興油然。異時之病民者，炎蒸之無所逃也，今日之蘇民瘼者，何獨非李侯之清吹乎？然則余之名是樓者，豈獨樓焉而已哉！”

既以此名此樓，而忙不暇扁也。後此十三年而復過之，則樓猶闕其榜。噫！李侯則今已去矣，見今太守治踵李侯，務扶民隱，闔境欣欣如李侯之再來。嗚呼！其自今以往，宰是邑登是樓者，莫不顧名思義，期稱其實，則庶乎宰不

10 소나무 가래나무 : 원문은 松楸인데, 옛날부터 소나무와 가래나무는 무덤 근처에 많이 심었으므로 부모님 무덤이 있는 고향을 가리키는 말로 많이 쓰였다.

負樓，樓不負名，而名樓者亦將無負於吾鄉人矣。於是乎揭其名，而繼之以詩曰：

“白汗翻漿畏日烘，誰將清暑跨虛空。吳牛喘月寧非病，楚簞邀涼未是工。不覺水壺添爽氣，休憐石步獨清風。南朝舊號留金榜，莫道名樓小海東。”“野菊離披叫斷鴻，季鷹鄉思正怱怱。喚人小閣筵初鋪，捲霧遙山眼不窮。庭樹清霜秋實艷，海門殘雨夕霞紅。淹留兼爲松楸戀，跋馬何心更向東。”

| 解題

이우李瑀는 1542년에 남양부南陽府에 정자를 지었고, 이듬해에 홍섬洪暹이 경기관찰사로 이곳을 방문하였다가 이우의 요청으로 ‘청서’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홍섬은 1584년에 다시 이곳을 방문하였다가 누대에 아직 편액이 없는 것을 보고서 편액을 걸고 기문을 지었다. 이 글에서 홍섬은 자신이 누대의 이름을 ‘청서’로 지은 의미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였다.

| 主題語

인재忍齋, 홍섬洪暹, 남양부南陽府, 청서루淸暑樓, 이우李瑀

남양현 충무문정사에 대한 기문

南陽縣忠武文定祠記



송시열宋時烈(1607~1689), 『송자대전宋子大全』 권141

| 翻譯

대저 삼국三國시대 이후로 진수陳壽와 범엽范曄의 논의는 참으로 말할 것이 없지만, 속수涑水 선생先生²은 매우 현명한 분인데도 오히려 정통正統과 윤통閔統³을 주고 빼앗는 공정함에 어두웠다. 호 문정공胡文定公은 고금을 평론하면서 비로소 제갈 무후諸葛武侯를 최고로 치면서 말할 적마다 반드시 칭찬하였으나, 어찌 감히 주공周公·소공召公과 공자孔子·맹자孟子보다 더 어질다 하였겠는가. 다만 무후가 몸소 제주帝胄⁴를 좇아 정의에 근거하여 적을 토벌하되 나라가 구석에 있고 작음을 돌아보지 않다가 죽은 뒤에야 그만두었음을 특히 취하여, 천하 후세에 천리天理와 민이民彝⁵가 없어질 수 없음을 뚜렷이 알게 하였다. 그의 식견과 의취意趣와 성향이 이와 같았기 때문에 『춘추전春秋傳』을 지어 임금에게 아뢰면서,

- 1 진수와 범엽: 진수는 『三國志』의 저자이고 범엽은 『後漢書』의 저자이다.
- 2 속수 선생: 송나라 때의 정치가이자 역사가인 司馬光(1019~1086)을 가리킨다. 속수는 그의 호이다.
- 3 정통과 윤통: 정통은 올바른 계통을, 윤통은 정통이 아닌 계통을 의미한다.
- 4 帝胄: 皇族. 여기에서는 제갈양이 임금으로 모셨던 蜀漢의 황제 劉備를 가리킨다.
- 5 民彝: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떳떳한 도리를 뜻한다. 『尙書』, 『康誥』편에 나오는 말이다.

“지금 인욕人欲이 날로 자라나고 천리天理가 날로 사라져서 오랑캐들이 중화中華를 어지럽힘이 극에 달했으니, 중니仲尼의 어지러움을 다스려 바른 데로 돌리려던 글⁶을 시행할 만합니다.”

하였다. 무릇 고급 천하에 허다한 인물이 나왔지만 유독 무후의 어짐을 취하였고, 성현聖賢의 글이 모두 격언格言과 지론至論 아님이 없지만 유독 『춘추』를 정성스레 간직하였던 것에 유의하였음은 어찌서인가? 아마 만났던 때가 그렇게 한 것이었는가.

그러므로 주자께서 일찍이 무후와 문정을 거론하여 맹자·정자程子の 반열에 넣고는 천 년이나 떨어져 있어도 자취는 하나라 하였으니,⁷ 아아, 두 공의 도는 성대하다 할 만하며 또한 아침저녁으로 만난 듯한 사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주자가 아니었다면 누가 이와 같이 단정斷定하여 한 가지에 함께 꿰듯이 할 수 있었겠는가. 또 주자가 일찍이 남강南康에서 여산廬山의 와룡담臥龍潭을 구경하였는데 이곳은 무후와 관계된 곳이 아니지만 암자를 지어 그를 제사지냈으니, 그 숨은 뜻은 또한 우연이 아니었다. 일찍이 “내가 늙어서 중원中原 수복을 보지 못하겠다.”⁸ 하면서 항상 「출사표出師表」를 즐겨 암송하였고, 병으로 누대 아래에 누워서 조용히 「묘백행廟栢行」⁹을 읊조렸으니, 그 느낀 바가 깊었다. 그리고 문정에 대해 “위대하다는 것은 군부君父를 높이고 오랑캐를 물리치며 난신亂臣을 토벌하고 적자賊子를 베는 큰 윤리와 큰 법을 말하는데, 이것은 성인聖人이 다시 나와

도 고칠 수 없다.”¹⁰ 하였고 또 문정의 사당을 세우려 할 때 이의異議가 있었음을 불행하게 여겼으니,¹¹ (무후와) 함께 인정하고 존중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무릇 두 공은 모두 남양南陽 사람이니, 남양에 이 두 분이 계셨던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그런데 우리나라 경기京畿에 또한 우연히도 같은 이름이 있는 것도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에 사군使君 민후시중閔侯著重이 고을의 선비들을 거느리고 여산 와룡臥龍의 남은 법¹²을 모방하여 두 분의 사당을 짓고 의식대로 신주를 봉안하였으니, 그 뜻의 심원함과 규모의正大함은 참으로 말할 나위도 없고, 그 일의 근거와 정의를 세움의 근엄함은 또한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가 감히 알 바가 아니었다. 그러니 어찌 한 경내境內 사람만이 보고 감동해서 분발할 뿐이겠는가. 옛사람의 말에 “출사표를 읽고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는 반드시 사람의 마음이 없는 자이다.” 하였는데, 민후閔侯의 이번 일을 듣고서, 어찌 마음에 감동하지 않는 자가 있겠는가. 하물며 문정文定의 법의法義까지 겸하였으니, 장차 삼강오륜의 도가 밝게 다시 세상에 밝혀져서 지금의 꼭 막힘은 형통함에 부족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 공의 이름만 흠모하고 두 공의 도를 모른다면 비록 죽도록 우러러 숭상하더라도 유익함이 없을 것이다. 무릇 문정공이 무후를 칭송한 바가 이처럼 성대하였는데, 그 요점은 단지 무후가 직접 농사짓고 현달하기를 추구하지 않았으며, 몸이 재상의 지위에 올랐으나 작은 재물도 좋아하지 않았다는 데 있을 따름이었다. 그러므로 주자가 특별히 『소학小學』에

6 어지러움…… 글: 『春秋公羊傳』哀公 14년 조에서 “난세를 다스려 바름으로 돌리기에는 『春秋』보다 가까운 것이 없습니다.(撥亂世, 反諸正, 莫近諸春秋)”라고 하였다.

7 주자께서…… 하였으니: 朱熹, 『晦菴集』 권76, 「張南軒文集序」, “孟子沒, 而義利之說不明於天下. 中間董相仲舒·諸葛武侯·兩程先生屢發明之, 而世之學者莫之能信, 是以其所以自為者, 鮮不溺於人欲之私, 而其所以謀人之國家, 則亦日功利焉而已爾. 爰自國家南渡以來, 乃有丞相魏國張忠獻公唱明大義以斷國論, 侍讀南陽胡文定公誦說遺經以開聖學, 其託於空言·見於行事雖若不同, 而於孟子之言, 董·葛·程氏之意, 則皆有所謂千載而一轍者.”

8 내가…… 못하겠다: 『朱子語類』 권133에 나오는 말이다.

9 廟栢行: 杜甫의 시 「古栢行」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10 군부를…… 없다: 『晦菴集』 권30, 「與張欽夫」에 나오는 말이다. 다만 “有所謂大者” 부분은 아래 각주 11에 인용된 「與劉共父」에 나오는 말이다.

11 문정의 여겼으니: 『퇴암집』 권37, 「與劉共父」, “近以文定當立祠於鄉郡說, 應求邦彥, 二公皆指其小節, 疑之魏元履至為扼腕. 今二兄欲尊師之, 而又守其尤小節處, 以為不可改, 是文定有所謂大者, 終不見知於後世也. 此等處, 非特二先生之文之不幸, 亦文定之不幸耳.”

12 여산…… 법: 朱熹가 55세 때인 1184년에廬山의五亂峰 밑에 그곳의 본지 지명인臥龍을 취해 와룡암을 짓고, 아울러武侯祠를 지어諸葛亮을 享祀한 일을 가리킨다.

그 사실을 편차¹³하였고, 또 일찍이 당시 일을 맡았던 사람에게 말하기를,

“공명孔明은 부인을 택하다가 못생긴 여인을 얻었다. 그의 정대한 기상과 경륜의 포부는 참으로 이미 타고난 자질이지만, 그 지혜가 날로 더욱 정밀하고 밝아지며 위엄과 명망名望이 날로 융성하게 된 것은 욕심을 줄이고 마음을 논 바로 물욕을 적게 하고 심신心身을 수양하게 한 부인의 도움이 많았다”¹⁴

하였고, 또 일찍이 말하기를,

“문정의 학문은 상채上蔡¹⁵에게서 얻은 것이 많다. 논자들은 문정이 상채에게서 얻은 것은 상채의 명리관名利關¹⁶을 꿰뚫어야 학문을 말할 수 있다는 말과 지금의 사대부는 말만 잘하는 앵무새와 같다는 경계뿐이라 한다.”¹⁷

그렇다면 두 공을 맹자·정자程子와 같은 반열로 한 데에 어찌 본래 그 러함이 없겠는가. 지금 이후 사람들은 단지 그 이름만 흠모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도를 구하고자 해야 하니, 어찌 이것을 버리고 다른 것을 구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고 단지 무후의 굉장한 사업과 문정의 소나무와 측백나무같은 기상만을 생각한다면 끝내 머리를 집어넣고 다리를 세울 곳이 없게 될 것이며, 이는 또한 민후가 사람들에게 바라는 바도 아닐 것이다.

사당이 완성되자 고을 사람들이 또 서로 말하기를,

“우리 고을의 고故 사군使君 윤계尹葵 공은 오랑캐의 난리를 만나 절의로 항거

하다 순국하였다. 만약 한나라와 송나라 사이였다면 무후의 상벌賞罰의 법전과 문정의 포주褒誅¹⁸하는 논의가 반드시 미치는 바 있었을 것이니, 또한 처분이 있어야 한다.”

하였다. 민후가 허락하고는 마침내 사당 남쪽에 신위神位 하나를 설치하여 배향하도록 하니, 고을의 늙은이나 젊은이나 듣고서 모두 감격해 울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이 또한 주자가 민절묘愍節廟¹⁹에서 일컬은 유의遺意로구나!

민후의 자字는 공서公瑞인데 어려서부터 글을 읽어 유자儒者가 되었으므로 정사政事를 함에 선후를 이처럼 알았던 것이다. 그러니 아마 또한 만난 때에 느낌이 있었던 것 같다. 공사가 끝나고 와서 글로 기록해 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고故 정암靜菴 조 선생趙先生²⁰의 외손 이항李衍이다.

송정崇禎 기원 후 병오년(1666, 현종 7) 4월 일에 후학後學 은진恩津 송시열宋時烈은 삼가 쓴다.

| 原文

蓋自三國以後，如壽·曄之論，固不足言，而至於涑水大賢，猶昧於正閔予奪之公。至胡文定公尙論古今，始獨以諸葛武侯爲首，慕用嚮往，言必稱之，然豈敢以爲賢於周·召·孔·孟哉！特取其身從帝胄，仗義討賊，不顧國之褊小，至於斃而後已，使天下後世炳然知天理民彝之不可泯也。其識趣好尚如此，故其傳春秋而告於其君也，乃曰：“人欲日長，天理日消，夷狄亂華，至此極矣。仲尼撥亂反正之書，可以行矣。”夫古今天下，生出許多人物，而獨取

13 소학에…… 편차: 『小學』 「嘉言」권에 해당 내용이 실려 있다.

14 공명은…… 많았다: 『晦菴集』 별집 권2, 「劉共甫」에 나오는 구절이다.

15 上蔡: 송나라 때 유학자인 謝良佐를 가리킨다.

16 상채의 명리관: 功名과 利祿에 대한 관문으로, 곧 공명이나 이복에 대한 생각을 떨쳐냈다는 말이다.

17 문정의…… 한다: 『晦菴集』 권44, 「答任伯起」에 나오는 말이다.

18 褒誅: 기리고 벌주다. 여기에서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를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19 민절묘: 송나라의 충신 張叔夜와 鄭驥를 모신 사당으로, 주희가 碑文을 지었다. 『晦菴集』 권89, 「旌忠愍節廟碑」 참조

20 정암 조 선생: 조선 중기 士林의 巨頭였던 정암 趙光祖(1482~1520)를 가리킨다.

武侯之賢；聖賢之書，無非格言至論，而獨於春秋拳拳，何也？豈所遭之時使然哉！

故朱夫子嘗舉武侯·文定，並以班於孟·程氏，而仍以爲千載而一轍者，嗚呼，二公之道，可謂盛且大矣，亦可謂朝暮遇者。然非朱夫子，則又孰能如此斷定，使之同條而共貫哉！朱子又嘗於南康見廬山之臥龍潭者，此非關武侯事，而爲之作庵以祠之，則其微意亦不偶然矣。蓋嘗曰：“老矣，不及見復中原矣。”而常愛誦出師表，至於病臥樓下，則又幽吟廟²¹柏行，其所感者深矣。而其於文定則有曰：“有所謂大者，如尊君父攘夷狄，討亂臣誅賊子之大倫大法，雖聖人復出，不能改也。”而又以立祠之有異議爲不幸，其比並引重之意，又可知其所在也。

夫二公皆南陽人，南陽何幸有此二公，而我東畿輔之縣，亦有偶與之同名者，其爲幸也又大矣。今使君閔侯著重牽縣之士夫，依樣廬山臥龍之遺法，而作二公之祠，妥侑如儀，其指意之深遠，規模之正大，固不須言，而其作事根據，立義謹嚴，又非師心妄作者之所敢知也。然是豈但一境之人觀感而興起哉！古人有言：“讀出師表而不爲流涕者，必無人心者”，閔侯之此舉，而其有不感動其心者乎！況兼之以文定之法義，則將見三綱五常之道，煥然復明於世，而今日之否，有不足亨者矣。

然徒慕二公之名，而不知二公之道，則雖沒身鑽仰而無所益矣。夫文定之稱誦武侯者如此其盛，而其要只在於躬耕農畝，不求聞達，身都將相，不長尺寸而已。故朱夫子特以編於小學之書，而又嘗語當時任事者曰：“孔明擇婦，正得醜女。彼其正大之氣，經綸之蘊，固已得於天資，然其智慮之日益精明，威望之日益隆重，則寡欲養心之助，與爲多焉。”而又嘗曰：“文定之學，得於上蔡者爲多，論者謂文定之所得於上蔡者，透得名利關，能言如鸚鵡之戒而已。”

然則二公之所以班乎孟程者，豈無其本而然哉！今後之人，不徒慕其名，而必欲求其道，豈可捨是而他求哉！不然而徒自懸想於武侯之宏大事業，文定

21 廟：문백상 '삼'의 잘못으로 보인다.

之松柏氣象，則終無入頭立脚處矣，此又非閔侯之所望於人者也。

祠旣成，邑人又相與語曰：“吾邑故使君尹公榮，當寇虜之亂，抗節以殉。若在漢宋之際，則武侯賞罰之典，文定褒誅之論，在所必及，盍亦有以處之。”閔侯曰諾，遂置一位於祠之南偏而從祀之，邑人老稚聞之，無不感涕。是又朱子所稱愍節廟之遺意歟！

閔侯字公瑞，自少讀書爲儒，故其爲政，知所先後如此矣，然豈亦感於所遭之時也歟！事已訖而來請文以記者，故靜庵趙先生彌甥李衍也，

時崇禎丙午四月日，後學恩津宋時烈謹記。

解題

우암 尤庵 송시열 宋時烈이 중국의 제갈양 諸葛亮과 호안국 胡安國, 윤계 尹槩 세 사람을 모신 충무문정사 忠武文定祠(사액받은 명칭은 용백사 龍柏祠)에 붙인 기문으로, 제갈양과 호안국의 역사 의식 및 그들의 학문과 경륜 등에 대해 다양한 자료를 통해 매우 상세히 논술한 점이 인상적이다. 또한 이 사당이 주희 朱熹의 선례를 모방하여 만들어진 것인 만큼, 이들에 대한 주희의 생각 역시 다채롭게 설명하였다.

主題語

우암 尤庵, 송시열 宋時烈, 제갈양 諸葛亮, 호안국 胡安國, 주희 朱熹, 윤계 尹槩, 민시중 閔著重, 남양 南陽, 충무문정사 忠武文定祠

용백사를 중수한 일에 대한 기문

龍柏祠重修記



윤행임尹行恧(1762~1801), 『석재고碩齋稿』 권12

| 翻譯

남양¹부南陽府 부치²府治에서 몇 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깊고도 깊은 산이 있으니 속칭 와룡³臥龍 고개인데, 여기에 사당이 있어 단청으로 꾸며져 있다. 고을 선비들이 엄숙하게 추모하고 탄식하며 그치지 못하는 것은 이곳이 (나의) 선조이신 충간공⁴忠簡公 신곡⁵薪谷 선생⁶께 제사를 지내는 땅이기 때문이다. 도어사⁷都御史 민시중⁸閔蓍重 공께서는 주자⁹朱子の 와룡 유지¹⁰臥龍遺志²를 모방하여 제갈 무후¹¹諸葛武侯와 호 문정¹²胡文定³ 두 분을 주향¹³主享⁴하고 충간공은 여기에서 유식¹⁴俞食⁵하도록 하셨다. 화양 부자¹⁵華陽夫子(주희¹⁶朱熹)의 유례를 따라 그 마당에 비석을 세우니, 조정에서는 ‘용백사¹⁷龍柏祠’라

1 충간공 신곡 선생 : 조선 중기의 문신인尹榮(1583~1636)이다. 충간은 그의 시호이고 신곡은 그의 호이다. 丙子胡亂 때 남양 부사로 재직하다 포로로 잡혔는데, 의지를 굽히지 않아 살해당하였고 이후 ‘충간’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2 주자의 와룡유지 : 朱熹는 55세 때인 1184년에 廬山의 五亂峰 밑에 그곳의 본디 지명인 臥龍을 취해 와룡암을 짓고, 아울러 武侯祠를 지어 諸葛亮을 享祀한 일이 있었다.
 3 胡文定 : 北宋 때의 유학자로 程頤에게 배웠던 胡安國(1074~1138)을 가리킨다.
 4 主享 : 祠宇나 書院 등에서, 위패를 主壁으로 모시어 제향하는 일이다.
 5 俞食 : 제사 때 더 많이 啖饗하도록 하는 절차로, 終獻 때 올린 잔에 가득히 차도록 添酌하여 따라 올리고 난 다음, 술가락을 메에 꽂고 젓가락을 잘 갖추어 그 시접 위에 자루가 집사자의 좌측으로 놓이게 한 뒤 제주가 재배한다.

고 사액¹⁸賜額하였다.

사당은 오래되어 점차 무너져 가고 비바람을 막을 수도 없으며, 부엌이며 목욕간, 문이며 처마는 어수선하여 보는 사람들은 배회하며 크게 탄식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또한 능히 새롭게 하기를 도모할 수 없었다. 유성환¹⁹柳性煥은 개연히 의기²⁰意氣를 드러내어 재목을 모으고 공²¹功을 드러내어 겨우 1년 만에 옛 경관을 고쳤으니, 읍하고 사양하며 오르내림에 차례가 각기 딱 맞는 바가 있게 되어 이에 유생의 이름이 고을에 알려지자, 의로운 선비라 추천을 받았다. 다만 나는 처음에는 부끄러운 기색을 면하지 못하였지만⁶ 끝에 가서는 또한 마음으로 감복하였다. 사당의 수리는 충간공의 자손들도 할 수 없었던 일인데 유생이 그것을 해냈으니, 이는 내 낮빛이 부끄러운 것이요, 남이면서 자손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으니 내가 마음으로 감복한 것이다. 후세 사람들은 유생의 호의²²好義가 있었기 때문에 또한 선현들이 남기신 향기와 남은 충렬²³忠烈을 볼 수 있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감흥을 일으키고 의리를 권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비록 그러하나 누군들 의리를 권하는 마음이 없겠는가만, 그 뜻을 드러내는데 전력하는 자는 다만 드물게 보인다. 만약 시대가 내려가고 풍속이 가려져 함께 떳떳한 마음을 좋아하면서도 그 가진 것을 보존하지 못한다면, 이는 군자가 크게 두려워하는 일이라. 아, 선비로서 이 고을을 왕래하는 자라면 장차 유생의 풍모를 듣고 더욱 감흥이 있게 되리라!

| 原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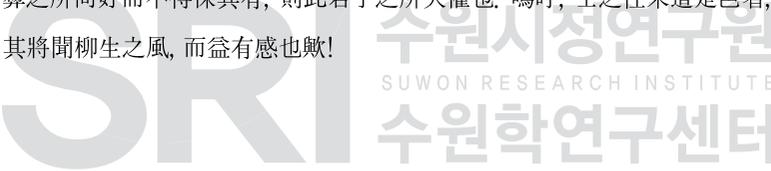
南陽府治不數里, 有山呀然而邃者, 俗所稱臥龍岡, 而有祠屋而丹雘之. 府

6 나는 …… 못하였지만 : 작자인 윤행임이 윤계의 자손으로서 용백사를 제대로 중수하지 못한 데 대한 부끄러움을 표현한 구절이다.

之人士，肅歆優慕咨嗟而不能已者，乃先祖忠簡薪谷先生俎豆之地也。都御史閔公著重，倣朱子卧龍遺志，以諸葛武侯·胡文定主厥享，忠簡公侑食焉。華陽夫子蹟其緣起而碑其庭，朝廷賜號曰龍柏祠。

祠久而漸圯，不戒于風雨，厨溷門廡狼藉，瞻視人無不徊徨太息，而亦莫能圖其新也。柳生性煥慨然出意氣，鳩材僱工，纔閱歲而頓改舊觀，揖讓升降，秩各有所，於是乎柳生之名聞於府中，推以為義士，抑余始不免有媿色，而未又心服焉。祠之修治，忠簡公孫子之所不能，而柳生能之，是余之色之媿也；以它人而能孫子之所不能，即余之服于心也。後之來者，尙有以知柳生之好義，而亦可見先賢之遺芬餘烈，能使人興感而嚮義也。

雖然孰不有嚮義之心，而宣力表其志者，特罕覩焉。若世降俗弊，並與秉彝之所同好而不得保其有，則此君子之所大懼也。嗚呼，士之往來道是邑者，其將聞柳生之風，而益有感也歟！



【解題】

제갈양諸葛亮, 호안국胡安國, 윤계尹槩 등을 모신 남양부南陽府의 용백사龍柏祠를 중수하고서 윤행임尹行恁이 지은 기문이다. 용백사는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서원철폐령 때 사라져 현전하지 않지만 이 글을 통해 그 내력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확인이 가능하다.

【主題語】

석재碩齋, 윤행임尹行恁, 남양부南陽府, 용백사龍柏祠, 윤계尹槩, 민시중閔著重, 유성환柳性煥

남양 향교 명륜당 상량문

南陽鄉校明倫堂上樑文



조복양趙復陽(1609~1671), 『송곡집松谷集』 권7

【翻譯】

적이 생각건대, 삼대三代¹ 때 인륜이 밝았던 까닭은 학교의 체도가 갖추어졌기 때문이니, 하루라도 이 가르침이 없을 수 없어 풍화風化의 근본이 넓도다. 부자父子, 군신君臣, 부부, 형제, 붕우朋友의 사귀는 곧 천하의 달도 達道²요, 물 뿌리고 비질하며 응대하는 일과 예禮, 악樂, 활쏘기, 말타기, 글씨 쓰기, 계산하기³와 같은 부류는 일상에서 마땅히 실천해야 할 일 아님이 없네. 반드시 여럿이 지내며 밝게 강론하는 일로 바탕을 삼아야 하니 어찌 이 건물 짓는 일을 더디게 할 것인가. 이른바 더디게 해도 되지만 실은 급한 일이라는 것이니 진실로 마땅히 가장 먼저 힘써야 할 일이라네.

남양南陽 깊은 땅⁴을 돌아보면 참으로 경기 오른편의 이름난 고을이구

1 三代: 중국의 夏, 殷, 周 세 시대를 지칭하는 말로, 태평성대의 대명사로 쓰인다.
 2 達道: 동서고금을 통하여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뜻한다.
 3 물……계산하기: 이는 중국 고대 小學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던 기본 규범을 가리킨다. 주희의 「大學章句序」에서 “사람이 태어나 8살이 되면 王公으로부터 아래로 서민의 자제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소학에 들어가 물 뿌리고 비질하고 응대하며 나아가고 물러나는 예절과 禮, 樂, 射, 御, 書, 數의 글을 가르쳤다. (人生八歲, 則自王公以下至於庶人之子弟, 皆入小學, 而教之以灑掃應對進退之節, 禮樂射御書數之文)”라고 하였다. 예악 이하는 『周禮』에 나오는 이른바 六藝의 내용으로,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여섯 가지 과목이다.
 4 깊은 땅: 원문은 ‘奧區’인데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어 風水地理에서 明堂으로 치는 땅을 말한다.

나. 경사京師가 가까워 문덕文德이 퍼지면 먼저 은혜를 입고, 바닷가라 백성은 순박하니 평소 풍속이 아름답다고 칭송되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유풍儒風⁵이 진작되지 못하였는데 확실히 가르치는 방법이 거칠기 때문이었지. 옛 성현들께 제사지내는 의식은 익주益州의 사당⁶에 있지만 여러 학생들이 노닐며 쉬던 곳은 오히려 호학湖學의 당堂⁷이 없구나. 붉은 장막⁸ 황량하여 학교⁹의 자취 찾아보기 어렵고, 푸른 옷깃¹⁰ 적막하여 현악기와 글 외는 소리¹¹ 듣지 못하였네.

안타깝게도 이전에 만들지 못했으나 오늘을 기다린 것임을 알겠으니, 다행히 현명한 수령을 만나 이 고을 다스리러 오셨네. 정사政事는 청렴하고 공평함을 칭송하여 옛 두모杜母¹²라는 소리 들으시고, 온화하고 우아하게 교화를 이루시니 오늘날에 문옹文翁¹³을 보게 되었다. 이미 폐기되어 방치되었던 것들을 모두 부흥시키고서¹⁴ 우선 무너진 성전聖殿을 수리하였고, 많은 선비들과 두루 헤아려 다시 높고 큰¹⁵ 학사學舍¹⁶를 창건하였네.

5 儒風: 예로부터 전해지는 儒家의 風俗을 가리킨다.
 6 益州의 사당: 익주는 남양의 옛 지명으로, 남양 향교가 있어 공자에 대한 제사는 봉행되어 왔음을 말한다.
 7 湖學의 堂: 북송 때의 유학자 胡瑗(993~1059)이 湖州(지금의 저장성 후저우시)의 學堂에서 교수로 있으면서 經義齋와 治事齋를 각각 설치하여 가르치니 제자가 수천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여기에서는 남양 향교에 명륜당이 없어 이곳이 교육 기관으로서는 기능하지 못했음을 가리킨다.
 8 붉은 장막: 漢나라 때의 저명한 유학자인 馬融은 항상 높은 당에 앉아 붉은 장막을 친 채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한다.〔後漢書〕「馬融傳」 참조)
 9 학교: 원문은 '膠序'인데 중국 魯나라 때의 학교를 '서', 周나라 때의 학교를 '교'라고 불렀다 한다.
 10 푸른 옷깃: 원문은 '靑衿'인데 푸른색 옷깃을 단 儒生들의 복장을 가리킨다.
 11 현악기와……소리: 원문은 '弦誦'으로 詩禮로 교화하는 일 또는 학교의 교육을 가리킨다.〔禮記〕「文王世子」편에서 "봄에는 시를 외고 여름에는 현악기에 맞추어 시를 노래한다.(春誦夏弦)"라고 하였다.
 12 杜母: 後漢 때 남양 태수로서 선정을 베풀어 이름이 알려진 杜詩를 가리킨다. 두시와 함께 前漢 때 召信臣 역시 선정으로 이름이 알려졌던 바, "앞에는 召父가 있고 뒤에는 杜母가 있네.(前有召父, 後有杜母)"라는 말이 전해졌다고 한다.〔後漢書〕「杜詩列傳」 참조)
 13 文翁: 전한 景帝 때의 인물로, 蜀郡의 태수가 되어 成都에 학교를 세워 文風을 진작시켰던 일로 이름이 알려졌다.〔漢書〕「循吏傳」 참조)
 14 폐기되어……부흥시키고서: 원문은 '百廢之俱興'으로 수령이 정치를 잘하여 고을이 부흥하는 것을 말한다. 宋나라 때 范仲淹의 「岳陽樓記」에 나오는 표현을 인용한 것이다.
 15 높고 큰: 원문은 '奐輪'인데, 「禮記」, 「檀弓下」편에서 泮나라 文子의 집이 완성되어 대부 張老가 이에 대해 "아름답구나, 웅장하네. 아름답도다, 매우 많도다.(美哉輪焉, 美哉奐焉)"라고 한 데서 연원한 표현이다.
 16 學舍: 학문을 닦는 곳 또는 그 건물을 가리킨다.

두 무廡의 앞에 터를 다지고, 농한기¹⁷를 틈타 곱자를 주었지. 공사는 정해진 감독을 번거롭게 하지 않았으니 사람들이 마음으로 즐겁게 뉘따름을 알겠고, 완공이 이미 어영차 하는 사이에 이루어졌으니 마치 신령한 것이 은밀히 도운 듯하구나.

화려한 기둥과 반짝이는 계단은 아련히 반궁津宮¹⁸의 벽을 떠올리게 하고, 오래된 은행나무와 새로 심은 해나무는 향교의 담장 곁을 서로 가려주네. 산천의 변화하는 모습에 부로父老들은 감탄하는구나. 하늘에 높이 솟았으니 선비들을 많이 수용한다고 모두들 기뻐하고, 인도하고 도우며 격려하니 인재 기르는 아름다운 모습 우두커니 바라보네. 수령이 몇 개월 다스리는 사이에 한 고을에서 천 년 동안 없었던 일을 거행할 줄을 누가 알았으랴. 이에 송축하고 찬양함으로써 들보 올리는 일을 돕고자 하노라.

아이야 떡을 들보 동쪽으로 던져라
 비봉산飛鳳山¹⁹ 높이 푸른 허공에 의지했네
 우리러 보니 올곧아 어진 이가 좋아하기에²⁰ 알맞으니

모름지기 도체道體가 절로 서로 같음을 알리라

아이야 떡을 들보 서쪽으로 던져라
 관창의 나무 푸르디푸르고 저녁별은 낮게 깔리는데
 아름다운 당堂 맑고 고요한 곳 얻으려 생각하여
 복자천宓子賤²¹의 세 자 금琴 날마다 연주하리

17 농한기: 원문은 '三農之隙'인데 '삼농'은 봄의 밭 갈기, 여름의 김매기, 가을의 추수를 의미한다. 직역하면 '삼농의 틈'인데 농사일이 쉬는 때를 가리키므로 '농한기'로 풀이하였다.
 18 津宮: 成均館을 가리키는 말이다. 중국 고대의 太學 주변을 泮水라는 시냇물이 감싸고 있었으므로 태학을 반궁이라 하였는데, 성균관도 이를 모방하였다.
 19 飛鳳山: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동쪽에 있는 산이다.
 20 어진……좋아하기에: 「論語」, 「雍也」편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知者樂水, 仁者樂山)"라고 하였다.
 21 宓子賤: 공자의 제자 중 한 사람으로, 單父라는 고을의 수령이 되어 뿔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금반 연주했는데도 고을이 잘 다스려졌다는 일화가 전해진다.〔呂氏春秋〕「察賢」편 참조)

아이야 떡을 들보 남쪽으로 던져라
 망망한 큰 냇물 하늘 사이를 적시네
 바야흐로 바다를 보게 되면 어지간해서는 물이라 하지 못함²²을 알겠구나
 성인의 가르침 성대하니 이곳에서 찾을 수 있으리라.

아이야 떡을 들보 북쪽으로 던져라
 겹겹이 사당과 난간 우러러 보니 고요하여
 공자의 문장 들을 수 있을 것 같구나
 금단²³은 영원토록 봄빛 같으리.

아이야 떡을 들보 위로 던져라
 세 글자 빛나 편액에 걸렸네
 이 이치 원래 뉘엿뉘엿 본성에 말미암으니
 천추²⁴의 해와 달 천지를 비추리라

아이야 떡을 들보 아래로 던져라
 부지런히 법을 외워 마치 직접 가르침을 받듯²⁴
 당성²⁵은 이로부터 문풍이 진작되리라
 힘써 배운다면 자유²⁶, 자하²⁶와 나란히 하는 일 어찌 어렵겠는가.

없드려 원하건대, 상량한 후로 인륜이 크게 밝아지고 고을의 풍속은 크

22 바다를……못함: 『孟子』 「盡心上」에서 “바다를 본 자는 어지간한 물은 물이라 여기기 어렵고 성인의 문하에서 노닌 자는 어지간한 말은 말이라 여기기 어렵다.(觀於海者, 難爲水; 遊於聖人之門者, 難爲言)”라고 하였다.
 23 琴壇: 공자가 강학하던 곳으로, 초홀이라고도 한다.
 24 직접……받듯: 원문은 ‘親炙’인데 스승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는 일을 가리킨다. 『孟子』 「盡心下」편 참조)
 25 唐城: 남양의 옛 이름이다.
 26 子游, 子夏: 두 사람 다 공자의 제자로, 文學에 뛰어났던 인물들이다. 『論語』 「先秦」편 참조)

게 변하도록 하소서. 집안에서 효도하고 밖에서는 공경하니²⁷ 정성스럽게 학문을 닦고 경계하는 풍습이 이루어지게 하며, 어려서 배우고 커서 실천 하니 부지런히 빈흥²⁸의 그릇이 되게 하소서. 땅은 사수²⁹泗水 가²⁹가 아니지만 천리마 꼬리에 붙었다³⁰는 명성을 듣게 하고, 지역이 융중³¹隆中과 비슷하니 또한 와룡³¹臥龍과 같은 인걸이 나오게 하소서.³¹ 문 앞은 추나라 노魯나라³²가 되고 선비들은 성현이 되기를 바라노라.

| 原文

竊以三代所以明人倫, 學校之制備; 一日不可無此教, 風化之本弘. 父子君臣夫婦昆弟朋友之交, 斯乃天下之達道; 灑掃應對禮樂射御書數之類, 無非日用之當行. 必資群居而講明, 詎緩茲宇之經始? 所謂如徐而實急, 允爲當務之最先.

顧南陽之奧區, 寔右畿之名邑. 京師地近, 首被文德之敷; 海曲氓淳, 素稱謠俗之美. 然念儒風未振, 良由教術已疏. 先聖奠祭之儀, 縱有益州之廟; 諸生游息之所, 尙無湖學之堂. 絳帷荒涼, 難尋膠序之跡; 青衿寂寞, 莫聞弦誦之聲.

慨未造於向來, 知有待於今日. 幸逢賢宰, 來守是邦. 政頌清平, 昔聞杜母;

27 집안에서……공경하니: 『論語』 「學而」편에서 “제자들은 집안에서는 효도하고 밖에 나와서는 공경하며, 부지런히 믿으며 널리 대중을 사랑하고 仁을 가까이 해야 한다.(弟子入則孝, 出則弟, 謹而信, 汎愛衆, 而親仁)”라고 하였다.
 28 賓興: 周나라 때 지방의 학교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賓客의 예로 대우하여 추천하던 일을 가리킨다. 『周禮』 「地官·大司徒」편 참조). 여기에서는 향교에서 부지런히 공부한 생도들이 태학, 즉 성균관으로 진출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29 泗水 가: 泗水는 중국 산둥 성에서 발원한 강으로, 공자가 이곳에서 강학하였으므로 후대에는 학문의 고장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었다.
 30 천리마……붙었다: 『史記』 「伯夷列傳」에서 공자의 제자인 顏淵을 두고서 “안연이 비록 독실히 배우기는 했지만 천리마 꼬리에 붙어 행실이 더욱 드러났다.(顏淵雖篤學, 附驥尾而行益顯)”라고 하여 안연이 스승인 공자 덕분에 명성이 더 알려졌음을 강조한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31 지역이……하소서: ‘융중’은 後漢 때 諸葛亮의 고향인 남양을 가리키는데, 남양의 지명이 중국 남양과 같음을 말한다. 중국 남양에서 제갈량이 배출된 것처럼 남양 향교에서 공부한 사람들 중에 그에 준하는 인제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표현이다.
 32 鄒나라 魯나라: 추나라는 맹자의 고향이고 노나라는 공자의 고향이므로, ‘추노’는 문화가 번성한 예악의 고장을 일컫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化成儒雅, 今見文翁. 既百廢之俱興, 先修聖殿之頽圯; 與多士而周度, 又創學舍之奐輪. 裁基於兩廡之前, 授矩於三農之隙. 役無煩於程督, 知衆心之樂趣; 功已辦於咄嗟, 若神物之陰相.

華楹昉砌, 想泮壁而依稀; 古杏新槐, 傍宮牆而交映. 山川動色, 父老興咨. 顯敞穹崇, 咸嘉庇士之大; 誘掖激勵, 佇看育才之休. 誰知明府數月爲政之間, 乃舉一邑千載未有之事? 茲揚善頌, 助舉修樑.

兒郎偉拋樑東, 飛鳳山高倚碧空, 仰止端宜仁者樂, 須知道體自相同.
兒郎偉拋樑西, 官樹蒼蒼夕景低, 想得花堂清靜處, 宓琴三尺日應携.
兒郎偉拋樑南, 茫茫巨瀆際天涵, 方知觀海難爲水, 聖訓洋洋此可探.
兒郎偉拋樑北, 複廟重欄瞻有血, 夫子文章如可聞, 琴壇萬古猶春色.
兒郎偉拋樑上, 三字煌煌扁在榜, 此理元來由秉彝, 千秋日月照穹壤.
兒郎偉拋樑下, 孜孜誦法如親炙, 唐城自此振文風, 力學何難並游夏.
伏願上樑之後, 彝倫大明, 鄉俗丕變. 入孝出悌, 恂恂修飾之風; 幼學壯行, 藹藹賓興之器. 地非泗上, 猶聞附驥之名; 境似隆中, 亦有臥龍之傑. 門成鄒魯, 士希聖賢.

| 解題

민시중閔著重은 1665년(현종 6)에 남양 현감으로 부임하여 남양 향교의 명륜당을 새로 지었던바, 조복양趙復陽이 상량문을 지어 이를 축하하였다. 조복양은 이 글에서 학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민시중이 정사를 잘 하여 명륜당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강조하였다.

| 主題語

조복양趙復陽, 송곡松谷, 민시중閔著重, 남양南陽, 향교鄉校, 명륜당明倫堂



번역

김광년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연구교수

기획

홍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교정

이재운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수원학자료총서 [4]

기문記文과 상량문上樑文

수원을 짓고 글을 짓다

발행일 2020년 12월 15일

발행처 **SRI**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수인로 126

T. 031-220-8058 H. <http://www.suwon.re.kr>

발간등록번호 11-B552980-000007-01

ISBN 979-11-90343-87-9 93910

ISBN 979-11-90343-88-6 (세트)

